+51
2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79

Digitized by Google

근로자

제 1 호(44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김 일 성

신 년 사

(1979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의 첫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될 희망찬 새해 1979년을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으며 높은 혁명적 열정과 기백을 가지고 새해 첫전투에 달라붙고있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우리의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원쑤들의 총칼이 숲을 이루고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주체조선의 공민된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는 6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축하를 보냅니다.

1978년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30돐을 뜻깊게 기념한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남조선인민대표들과 해외동포대표들 그리고 수많은 외국의 벗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공화국창건 30돐을 민족의 대경사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기념하였습니다.

공화국창건 30돐을 기념하는 전인민적인 정치행사를 통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공고화되였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는 비

Digitized by Google

할바없이 두려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을 끝없는 영예와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공화국의 기치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혁명적각오를 가지고있습니다.

1978년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들은 당중앙위원회의 편지를 높이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특히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으며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건설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으며 년간계획을 앞당겨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공업총생산액은 1977년에 비하여 117%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제2차7개년계획에 예견된 년평균 공업생산증가속도보다 훨씬 더 높은 장성으로 됩니다.

제2차7개년계획수행의 주타격방향을 담당한 채취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탄광, 광산들을 개건확장하고 채굴설비들을 현대화하여 석탄과 광물 생산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화력발전소들에 만부하를 걸어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모든 가공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운수부문에서는 다시한번 수송혁명200일전투를 벌려 수송의 긴장성을 풀었으며 길주—혜산사이, 대동강—신성천사이의 철도전기화를 완공하고 남포항과 해주항 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수송능력을 훨씬 높였습니다.

전력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다른 공업부문에서도 일을 잘하였습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로동계급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지난해에 1977년에 비하여 전력생산은 110%, 강철생산은 127%, 화학비료생산은 123%, 세멘트생산은 132%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동해안지대농사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킬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에서도 많은 전진이 있었습니다. 교육사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과학연구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이 많이 창작되였습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조국보위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참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여놓았습니다.

370071

Digitized by Google

나는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첫해전투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웅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새해 1979년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에서는 1979년인민경제발전계획을 토의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채취공업에 선차적힘을 넣어 석탄과 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석탄은 연료, 동력의 기본자원이며 주체공업의 귀중한 밑천입니다. 석탄이 있어야 전기가 나오고 공장이 돌아가며 여러가지 공업제품이 나올수 있습니다.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구호입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중소규모탄광들을 많이 개발하여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특히 매장량이 많고 전망이 좋은 안주지구 탄광들에 화력을 집중하여 이 지구 탄광들에서 올해에 석탄생산량을 지난해보다 2배로 늘이며 가까운 앞날에 석탄생산능력을 1,500만톤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나는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당이 준 영예로운 임무를 반드시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광업부문에서는 전망성있는 광산들을 개건확장하여 철광석과 여러가지 유색금속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 박토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며 채굴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고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금속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다른 기간공업부문들에서는 올해에

Digitized by Google

모든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특히 압연강재, 세멘트, 마그네샤크링카, 공작기계, 채굴설비, 자동차, 뜨락또르, 짐배를 생산하는데 힘을 넣어 그 생산량을 훨씬 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가 매우 넓어지고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진 오늘의 현실은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더욱 늘이고 자립적민족경제를 보다 튼튼히 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제3세계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널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며 그 질을 높이고 납입기일을 어김없이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모든 경공업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어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질좋고 다양한 일용필수품과 식료품을 넉넉히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에 필요한 화학섬유, 합성수지, 기초화학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료와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수산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산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여 수산물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수산업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을 현대화하고 어로활동을 과학화하며 중소어업과 세소어업을 적극 발전시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냄으로써 물고기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수송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수송사업을 발전시켜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대외수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운수부문에서는 집중수송, 련대수송, 짐합수송의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철도수송, 자동차수송, 배수송을 다같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철도운수부문에

Digitized by Google

서는 철도전기화를 다그치고 철길을 보강하며 전기기관차와 화차생산을 늘여 철도수송능력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먼거리자동차수송대를 널리 조직하여 소소한 짐들과 긴급히 요구되는 짐들은 자동차로 많이 실어나르며 짐배들을 늘이고 무역항들을 개건확장하여 배수송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올해에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을 더욱 높이는것입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지하수혁명방침을 관철하여 우물을 더 많이 파고 졸짱을 대대적으로 박아 어떠한 왕가물도 이겨낼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고 재배방법을 개선하며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미리부터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하였다가 모든 농사일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 올해에 또다시 대풍작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것을 의미합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기 나라 원료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우리는 자체 원료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 나라 연료에 의한 야금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사업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서 당면한 과업은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리용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부문부터 그리고 자금을 적게 들이고 쉽게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하나씩 현대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우리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

Digitized by Google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이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올해의 전투를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도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하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하여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정치적방법으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정치경제실무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에 지도일군들의 지도수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열심히 학습하여 자기의 정치리론수준과 경제실무수준을 빨리 높여야 하겠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신성한 민족적의무입니다. 올해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굳게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우리 당의 일관한 대외정책에 따라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제3세계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긴장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동원되여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를 다시한번 떨쳐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심화하자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또하나의 빛나는 리정표를 세우고 더욱 큰 승리와 위훈으로 빛날 영광의 해, 1979년에 들어섰다.

온 나라에 새로운 전투적기상이 차넘치고 우리 혁명이 더욱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앞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학습기풍을 튼튼히 세우고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에서 3대혁명을 적극 벌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높이 받들고 올해에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강화하여 자신의 정치사상리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사상혁명의 중심과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관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1페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사상교양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방침이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사상혁명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꾸준히 벌려왔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온 사회에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굳게 신봉하고 따르며 주체의 사상의지로 살며 싸워나가는것을 자기들의 드팀수 없는 혁명적신조로 삼고있다. 이것은 조선혁명의 전로정에서 이룩된 더없이 귀중한 성과이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오늘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이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참으로 위대한 사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을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자기 당과 자기 나라 혁명, 자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끝까

Digitized by Google

지 싸워나가는 주체의 혁명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사고와 실천에서 언제나 지침으로 삼고 구현하여야 할 혁명적세계관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주며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새롭게 밝혀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참다운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준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튼튼히 견지하고 풀어나가야 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

주체의 혁명관을 철저히 세우고 공산주의혁명가의 참다운 사상정신적특질을 지니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실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 여기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다그치고 완성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리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대로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질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3~364페지)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가지고 자기앞에 나서고있는 혁명과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능숙하게 해결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가 수행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당의 공업정책, 농업정책, 상업정책, 교육정책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하여주고있는 불멸의 창조물들은 모두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여 주체의 심오한 진리를 깊이 체득하지 않고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파악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복잡한 문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옳게 풀어나갈수 없다.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정치사상적 및 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선차적요구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혁명적본질과 그 정당성을 깊이 파악하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 어렵고 방대한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새 전망계획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illegible]

Digitized by Google

찌기 그 류례가 없었던 비상히 거창한 계획이며 우리 인민에게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며 주체사상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다. 이 거창한 설계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견지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때에만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며 자체의 힘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얼마나 책임적으로 깐지게 하는가,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얼마나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가, 생산과 건설을 당의 의도에 맞게 어떻게 힘있게 밀고나가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이 주체사상과 주체의 사업방법을 얼마나 깊이 체득하고있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이 높은 일군들과 당원들은 언제나 머리를 쓰고 방법을 찾아내여 자체의 힘으로 생산과 건설을 잘해나가며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풀어나간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모든것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해결해나가는 일군들이 일하는곳에서는 언제나 혁명적열정과 창조적적극성,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고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나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훌륭히 관철된다.

생활은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여기에 혁명과 건설을 당의 의도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밀고나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혁명투쟁의 보람찬 길을 걸어나갈수 없다는 자각을 가지고 주체사상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주체사상학습을 심화하여 그 심원한 진리를 체득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원문학습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과 교시들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되여있으며 주체사상의 제반원리들이 완벽하게 밝혀져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며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관통하고있는 근본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들에는 혁명과 건설에 관한 모든 리론과 방침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을뿐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천방도까지 다 명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교시들에는 또한 우리 당이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이룩한 자랑찬 업적들과 고귀한 경험들이 전면적으로 빛나게 총화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교시들에 담겨져있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은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근로대중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참다운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주체의 근본원리들을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들은 철저한 혁명성과 과학성, 독창성과 창조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특징지어지며 높은 전투정신과 백전백승의 힘을 가지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깊이 체득하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전적인 로작과 교시원문을 심오히 학습하여 환히 통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불멸의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위대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체득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혁명적의지를 굳게 지닐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원문 학습을 강화하여 그에 정통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립장과 관점을 확고히 견지하고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교시의 기본사상과 내용은 물론 매 문장과 문구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담겨져있는 참뜻을 깊이 새겨가며 진지하게 학습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리론들을 완전히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며 그 근저에 맥맥히 흐르고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는 주체사상의 제반 원리들과 요구들을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의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자기 부문의 당정책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맡겨진 혁명임무를 옳바로 수행할수 있다.

주체사상학습을 심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폭넓게 하여야 한다.

학습을 체계적으로 폭넓게 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그를 옳게 구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주체사상학습을 체계적으로 폭넓게 하여야 그 근본원리들을 심오히 파악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의 근본리치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그리고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체득할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깊이 리해할수 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명제들을 력사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학습하며 그것을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의 당의 모든 로선, 모든 정책과 결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주체사상학습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없애고 하나를 학습해도 진실로 자기의 뼈와 살이 되게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실과 떨어져서 문구나 외우는 식으로 당정책을 공부하여서는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써는 당의 의도를 깊이 깨달을수 없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찾아낼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2~263폐지)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에서도 형식주의는 금물이다.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고 수박겉핥기로 학습해서는 주체사상의 진리를 깊이 파악할수 없으며 학습한 내용이 참말로 자기의 피와 살이 될수 없다. 우리는 하나를 알아도 똑똑히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제강이나 읽어보고 정규학습에 참가하는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정규학습에 성실히 참가하는것과 함께 자체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정규학습에 참가하여 학습하는것만으로는 필요한 지식을 다 얻을수 없다. 우리는 시간을 짜내여 언제나 자체로 학습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며 책읽는운동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전인민적인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체로 학습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있다.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이 서있고 열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체학습을 잘할수 있다. 학습할 시간도 열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얻어낼수 있다. 특히 간부들이 자체학습을 많이 하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 당의 간부는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을뿐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 딸리고 머리가 비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할수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학습하지 않고서는 일할수도 전진할수도 없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손에서 책을 놓지 말고 분초를 아껴가면서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야 한다.

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는것은 주체사상학습을 심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실천의 무기를 벼리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데 있다. 혁명실천을 떠난 순수한 학습은 사실상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실천의 무기로 창시된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학습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만 주체사상의 본질과 그 위대성, 불패의 생활력을 실천을 통하여 깊이 느끼고 주체의 신념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

주체사상학습을 혁명실천과 옳게 결부하여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더 잘 해결해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학습의 성과와 보람이 언제나 실천투쟁에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리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에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있는 밑천, 있는 설비를 가지고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한방울의 기름, 한그람의 세멘트와 석탄, 한오리의 실이라도 더 많이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가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항상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이 주체사상을 실속있게 학습한 사람이며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듦으로써 그 요구대로 사업과 생활을 해나가며 주체사상에 비추어 자기의 사업을 총화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학습을 심화시키기 위하여서는 학습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학습은 반드시 학습내용과 대상의 수준에 따라 실정에 맞게 조직하여야 한다. 사업조건과 임무도 다르고 수준도 다른데 천편일률식으로 한가지 방법으로 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수 없다. 강의를 하는것도 틀이먹이는 방법으로 할것이 아니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모임에 참가하여 더 머리를 쓰게 되고 강의한 내용을 더 잘 리해하고 머리에 넣을수 있다.

토론하고 론쟁하는것은 문제의 본질과 내용을 깊이 리해할수 있도록 학습을 심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토론과 론쟁은 학습한 내용을 공고히 하고 실천과 결합시키는 효과적인 방도이다.

학습에서 토론과 론쟁을 광범히 벌려야 학습한 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리해할수 있으며 실천적방도들을 옳게 체득할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학습에서 토론과 론쟁에 적극 참가하여 옳고그른것을 가르고 학습한 내용을 깊이 파악하며 그것을 써먹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을 통제하고 평가하며 총화하는 방법도 개선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에 대한 지도통제를 옳게 하여야 한다. 학습에서는 자각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반드시 통제가 배합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두가 자기 수준과 사업상 특성에 맞게 학습계획을 바로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옳게 지도하고 통제하며 학습한 결과를 똑똑히 받아내야 한다. 학습한 결과를 받아내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얼마나 잘하였는가 하는것은 학습담화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또한 일군들의 자체학습총화는 글을 쓰우거나 대중앞에 출연시키는 방법으로 할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것은 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며 학습한 내용을 공고히 하는데도 좋다. 이것은 학습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일군들이 좋은 글을 쓰고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능숙하게 잘하였다면 학습을 잘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결과가 실천에서 은을 나타내도록 하며 실천을 가지고 학습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학습한 결과를 총화하는 경우에도 덮어놓고 외워바칠것만 요구해서는 안되며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소화하고 전개하는가를 보고 리해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주체사상학습을 심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심오히 리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본때있는 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심오한 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리해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학습열의를 북돋아줄수 있다.

우리는 머리를 쓰고 방법론을 찾아내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즐겨보고 읽을수 있는 질좋은 책자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의 주체사상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출판되는 모든 책자들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들을 설득력있고 생동하게 해설함으로써 그들속에서 널리 읽히우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학습하고 또 학습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올해에 자신의 정치사상리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움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고난의 행군》에서 높이 발휘된 항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

홍 준 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때로부터 40년이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8년 겨울부터 1939년 봄까지 몸소 조직령도하신 《고난의 행군》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혁명앞에 가로놓인 일시적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불러일으킨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불멸의 로정이였다.

《고난의 행군》은 일제침략자들의 전대미문의 발악적책동과 좌경모험주의자들의 주관주의적이며 모험적인 행동의 후과로 말미암아 조선혁명앞에 가장 준엄한 시련이 조성되였던 시기에 진행되였다.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한후 조선인민혁명군의 련속적인 배후타격으로 인하여 공포속에서 허덕이던 일제는 항일유격대를 《소탕》하려고 필사적으로 날뛰였다. 적들은 대대적인 무력공세와 함께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서 대검거선풍을 일으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발광적으로 검거투옥학살하였으며 혁명조직들을 악랄하게 파괴하였다.

이러한 때 현실에 어둡고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좌경모험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무모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혁명앞에는 더욱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결연히 맞받아 타개하시고 조선혁명을 줄기차게 계속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8년 11월 몽강현 남패자회의에서 대부대기동작전으로 적들에게 계속적인 섬멸적타격을 가하며 국경지대와 국내깊이에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조직들을 복구확대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친히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압록강연안국경지대에로 진출하는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길에 오르시였다.

남패자를 떠나 국경지대에로의 행군, 이것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뚫고 헤쳐나가는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실로 간고한 투쟁로정이였다.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의 전행정에 그 어느해, 그 어느날을 막론하고 간고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그가운데서도 《고난의 행군》때처럼 준엄한 시련의 시기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몸소 진두에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시였으며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원쑤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부대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고난의 행군》은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전략적방침, 비범한 지략과 전법, 강철의 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대원들을 육친의 정으로 더욱 따뜻이 보살피시고 사랑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으로 아로새겨진 영웅서사시적투쟁로정이

Digitized by Google

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고난의 행군》로정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가장 고귀한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고난의 행군》의 빛나는 로정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와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수놓아져있다.

《고난의 행군》시기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혁명정신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견결한 공산주의자들이였습니다.》(《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 단행본, 12페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품성이다. 오직 자기의 수령에게 모든것을 다 바쳐 충성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철석같은 의지로 삼고 투쟁하는 사람들만이 간고하고도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그 어떤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도 드놀지 않고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다.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들인 항일유격대원들이 언제나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있은 확고한 신념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끝없이 신봉하고 따르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것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만이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의 광복과 번영하는 미래를 앞당길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가장 간고하고 어려운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패자회의방침을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웠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지켜낸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의 고귀한 모범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고난의 행군》의 나날을 이어나가실 때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변절자 엄가놈이 후방밀영에서 안일한 생활을 하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을 헐뜯고있는 참을수 없는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엄가놈이 소부대의 책임자라는 직권을 악용하여 내리누르며 온갖 죄행을 날조하여 가해지는 그 어떤 위협과 갖은 고문도 이겨내시고 끝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켜내시였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전사다. 너는 누구냐? 너는 혁명의 원쑤다! 혁명은 네놈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청봉밀영에 울려퍼진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이 말씀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가슴속깊이에 심어져있는 혁명적지조의 웨침이였으며 우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의 기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고난의 행군》에서 발휘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는데서도 빛나게 발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신 혁명의 사령부, 이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며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떠나서는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에 대해서도, 우리 혁명의 승리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었으며 따라서 사령부를 보위하는것은 조선혁명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길이였다.

더우기 이 시기 일제놈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발광적으로 혁명의 사령

Digitized by Google

부에 대한 전면적인 《토벌》에 미쳐날뛰고있는 정황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주체를 고수하며 그 명맥을 잇느냐 잇지 못하느냐 하는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옹호보위하는 길에서만이 혁명가의 참된 보람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이루다 말할수 없는 난관을 뚫고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쳤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 오중흡동지는 언제 어데서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내는데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워나갔다.

《고난의 행군》의 나날 그는 대원들에게 우리가 많은 적을 끌고 어려운 전투를 할수록 사령부는 안전할것이요라고 하면서 자기의 련대를 사령부로 가장하고 천만고비의 사선을 헤쳐나가면서 하루에도 수십차례의 힘겨운 전투를 하였다. 그러다가도 적들이 추격해오지 않으면 놈들이 사령부쪽으로 쏠리지나 않는가고 걱정되여 되돌아서서 적들을 끌어내여 족치고 다시 유인하여 끌고다니였다. 오중흡동지의 용감무쌍하고 희생적인 투쟁은 간고하고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가장 위험한 고비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한 빛나는 모범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였기에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끝까지 집행하고야마는 높은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귀중한 혁명적 규률이였다.

그 어려운 행군의 나날 항일유격대원들은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명령지시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였으며 그 관철을 위해서는 비록 물과 불 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끝까지 집행하고야마는 혁명적 기풍을 발휘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절대성, 무조전성의 정신으로 집행해낸것은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참다운 구감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지난해 12월초순에 몽강현 남패자를 떠나 장백에 이르는 로정은 실로 간고한 투쟁의 행로였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치렬한 전투가 끊임없이 련속된 《고난의 행군》의 전로정은 그 어느 전쟁력사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준엄한 나날이였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작전에 많은 관동군 주력사단들을 투입한외에 위만군, 경찰대 등 막대한 병력을 출동시켰으며 지상과 항공의 협동작전으로 사면팔방에서 2중3중으로 포위하고 진드기처럼 달라붙었다. 놈들은 주되는 목표를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포위공격하는데 두고 《요점배치》와 《장거리추격전》으로써 덤벼들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끊임없이 달려드는 수천수만의 적들의 포위공격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가렬처절한 전투를 해야 하였으며 사나운 눈보라와 키를 넘는 생눈길을 헤쳐가며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모진 추위를 이겨내야만 하였다. 전투와 행군이 련속되는 속에서 날이 감에 따라 식량도 떨어지고 피로는 점점 더 심해졌으며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신발은 닳아떨어졌다. 이처럼 행군의 걸음걸음이 피로 물들여진 간고한 행로였다.

실로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이는 난관을 물리치고 장애를 헤쳐나가는 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이 없이는 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

Digitized by Google

글어나갈수 없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오직 불굴의 혁명정신과 승리에 대한 신심이 있었기에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면서 원쑤들의 그 어떤 발악적인 공격도 다 물리치고 승리의 행군길을 걷고 또 걸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관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저와 동요를 몰랐으며 그를 물리치면서 혁명가답게 용감히 싸워나갔다. 그들은 혁명전우들이 희생되였을 때에는 슬픔을 참지 못하였으나 난관앞에서는 그 어느때 어느 한번도 비관하거나 주저앉은적이 없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열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고 백번 쓰러지면 천번 다시 일어나 혁명가를 높이 부르며 전진 또 전진하였다. 그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비발치는 탄우도, 박달나무 얼어터지는 강추위와 참기 어려운 굶주림도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이겨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공산주의적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새 사회를 건설할줄 알아야 합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02페지)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이 그러했지만 특히 《고난의 행군》은 걸음마다 총검의 숲이 앞을 가로막고 강추위와 굶주림이 뒤따르는 준엄한 시련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기되는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하는 매우 간고한 투쟁이였다.

자력갱생하려는 숭고한 혁명정신과 기풍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전반에 일관하게 관통하고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기술자도 없고 도구와 자재, 설비도 없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 의약품과 출판기자재, 학습도구에 이르기까지 혁명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내고 해결하였다. 매일, 매시각 달려드는 수많은 적들과 하루에도 수십차례씩이나 전투를 진행하는 정황에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행군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반드시 해내야하며 또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온갖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끝까지 수행해나갔다.

이것은 오직 혁명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높은 자각과 책임성, 자기들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고야말겠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숭고한 발현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그처럼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용감히 전진할수 있었던것은 진적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까지 해내야하며 바로 이것이 조국광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고난의 행군》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동지적관계,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로 아로새겨진 영광스러운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에는 언제나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이 지배하고있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이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이였으나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동지애의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싸웠기때문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

Digitized by Google

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10폐지)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는 단순히 실무적으로 맺어지는 사랑이 아니며 혁명가들사이에 맺어지는 공산주의적품성의 하나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진정한 동지애와 의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를 실현하는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참다운 혁명적관계였으며 대오의 사상의지 및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게 한 중요한 힘의 원천이였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높이 발양된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은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여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혁명의 한길에서 함께 싸우는 대원들을 가장 귀중한 혁명동지로 여기시고 그들을 굳게 믿어주시였으며 불보다 더 뜨거운 육친의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행군대오의 앞뒤를 오가시며 지친 대원들의 총도 메주시고 자신께서 신으셔야 할 신발마저 주시며 자신께서 드셔야 할 강냉이 몇알마저도 대원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대에 남은 단 한홉의 미시가루를 놓고도 전사들을 생각하시여 끝내 사양하셨다는 《한홉의 미시가루》에 대한 이야기, 세상사람들을 그렇게도 감동시킨 이 이야기도 바로 이때에 있은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행군의 나날 사령부와 떨어져 활동하고있는 대원들을 생각하시여 그토록 걱정하시였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꼭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돌아오리라고 굳게 믿으시였다. 이처럼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잇닿아있었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끝내 임무를 수행하고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 안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듯 한없이 고매하고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계심으로 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크나큰 사랑을 언제나 심장속깊이 간직하였으며 난관과 애로가 부닥칠 때마다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의 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과 어버이사랑은 대오안에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굳게 하여준 원천이였다.

항일유격대오안의 지휘관들은 대원들과의 관계를 단순한 상하간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혁명적동지관계로 보고 언제나 친형제와 같이 대해주었으며 대원들은 지휘관들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다. 그들은 서로 굳게 의지하고 존경하였으며 호상 아끼고 사랑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맡아나섰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 속에서 항일유격대오안에는 관병일치의 고상한 미풍이 확립되고 숭고한 동지적사랑이 활짝 꽃피여나게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동지적사랑은 가장 열렬하면서도 원칙적이였으며 혁명적이였다. 그들은 동지들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자기 잘못처럼 가슴아프게 여기고 제때에 충고하고 비판함으로써 혁명대오의 순결한 통일단결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동지애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조국광복을 위한 혁명의 한길에서 싸워나가는 동지들사이의 열렬한 사랑이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전사들이 완전한 혼연일체를 이루고 친형제로 튼튼히 결합된 가장 혁명적인 동지적사랑이였다. 그것은 간고한 《고난의 행군》의 불길속에서 검증되고 다져진 위대한 사랑이였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 굳게 결속된 항일혁명대오이기에 세상에 아직 그 류례를 찾아보지 못한 《고난의 행군》은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대를 이어 길이 빛날 《고난의 행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널리 시위한 자랑찬 행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영광에 찬 《고난의 행군》은 수령님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이 가장 높이 발현된 투쟁로정이였으며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적동지애가 숭고한 높이에서 발양된 영광스러운 행로였다. 이 고귀한 사상정신적풍모가 있음으로 하여 류례없이 간고하고 엄혹한 시련을 뚫고 항일무장투쟁은 언제나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었다.

이루다 말할수 없이 험난한 길을 헤치고 승리하여온 《고난의 행군》의 력사적경험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앞에는 그 어떤 극복못할 요새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숭고한 혁명정신이야말로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하여나가야 할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된다.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더불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자랑찬 로정이며 오늘도 래일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 슬기와 용맹을 안겨주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우리의 혁명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갈 길은 험하고 멀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온 세계에서 제국주의가 망할 때까지 투쟁의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달성한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진군길을 다그쳐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싸워나가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 이것은 조국광복을 앞당기게 한 승리의 행군길이였으며 주체조선의 휘황한 미래와 잇닿아있는 영광의 행군길이였다.

우리는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지난날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불멸의 혁명정신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사업은 객관에서 얻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아야 한다

리 돈 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사업은 객관에서 얻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을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일군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함에 있어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늘 당사업을 하는 동무들에게 과오는 자기자신에게서 찾고 일감은 객관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98페지)

사업을 객관에서 얻는다는것은 사무실이나 책상머리에 앉아 주어진 사업을 수동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벌어지고있는 들끓는 현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있는 객관적현실에서 일거리를 찾아내야 한다는것을 말하며 결함을 주관에서 찾는다는것은 모든 결함의 원인을 객관적인 사업대상에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담당자인 자기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사업은 객관에서 얻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일군들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인 사업원칙이다.

사업은 객관에서 얻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는 원칙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모든것의 주인은 사람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것도 사람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은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며 세계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복종시켜나간다. 주위세계는 사람들의 지배밑에 놓여있으면서 그들의 생존과 활동을 위한 환경으로, 사람들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천으로 된다. 이것은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며 주위세계는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식과 개조활동의 대상이라는것을 말하여주며 우리의 일거리는 바로 객관에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은 모든것의 주인일뿐아니라 자연을 개조하고 물질적부를 만들어내며 사회를 변혁하고 력사를 전진시키는 직접적담당자이다.

물론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것은 사람의 작용이 가해짐이 없이 자기 원인에 의하여 변화발전하는 객관적측면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사람의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변화발전하는 측면에 비하여 극히 보잘것없는것이다. 그리고 자기 원인에 의하여 변화발전하는 합법칙적과정자체가 바로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활동의 대상이다.

사람은 객관세계의 합법칙성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리용한다.

결국 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은 사람들의 활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이 증대되면 될수록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높아지면 질수록 세계의 변혁과정은 촉진되게 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반대로 사람들의 창조적역할이 높지 못하면 객관세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주위세계를 적극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없게 된다. 이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그 직접

Digitized by Google

적담당자이며 주인인 사람들의 역할과 관련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감은 객관에서 얻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는것을 확고한 사업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모든 사업을 옳게 조직하고 지도해나갈수 있다.

사업은 객관에서 얻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을데 대한 원칙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2페지)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고 하여 결코 저절로 주인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고용살이적 립장과 태도를 가진다면 그들은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립장과 태도를 가질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동원하는 지휘성원들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일군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없다.

원래 우리 일군들은 주체사상을 자기의 고유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혁명가들이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것보다 더 큰 의무는 없으며 그보다 더 큰 영예는 없다.

사업은 객관에서 얻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빛나게 관철하는것은 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로 일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일군들이 일거리를 끊임없이 찾고 만들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것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의 발현이다. 일감을 앉아서 기다리며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결함을 객관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가 확고히 선 일군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이렇게 하여 가지고서는 모든 사업을 창발적으로,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옳게 조직지도해나가자면 사업은 객관에서 얻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는것을 사업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일해나가야 한다.

사업은 객관에서 얻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는것은 참다운 혁명가들의 고유한 일본새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저절로 되기를 앉아서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고 일을 찾아하는것이 혁명가들이 일하는 본새이며 공산주의자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36페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인 사업이다. 이 과정에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일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사업은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거창한 사업이며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길에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인 우리 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창발적으로, 책임적으로 벌려나가는 사업태도와 일본새를 가질 때라야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누가 시키고 독촉이나 해야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는대로 적당히 일하려는 사업태도, 일본새란 있을수 없다. 혁명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고 일을 찾아하는것이 바로 주체형의 혁명가들인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인 일본새이다.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은 결코 우리 일군들의 주관적욕망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사업행정에서는 일시적인 결함과 부족점들이 나타날수 있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을 옳게 찾고 제때에 고쳐나감으로써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참으로 일감은 객관에서 찾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으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비약을 일으켜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원칙으로 된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다그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그 어느때보다도 일을 창발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언제나 일감은 객관에서 찾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는 사업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높이에로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사업은 객관에서 얻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을데 대한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일군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반드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2페지)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모든 일군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은 일군들이 사업은 객관에서 얻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을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근본지침으로 된다.

일군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 때라야만 끊임없이 일거리를 찾고 만들어내면서 사업을 열가지, 스무가지로 전개해나갈수 있으며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

여나갈수 있다.

또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혁명실천과정에서 부닥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 해결에서 옳고그른것을 제때에 갈라낼수 있으며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과 부족점을 정확히 찾을수 있고 빨리 고쳐나갈수 있다.

끊임없이 일거리를 찾아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앉아서 일감을 기다리거나 시키는 일이나 마지못해하고 나타난 결함을 우에 밀고 아래에 미는것과 같은 현상은 일군들의 주인다운 일본새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 가장 정확한 방법론을 가짐으로써만 사업은 객관에서 찾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일군들이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며 현실에 깊이 들어가는것은 사업은 객관에서 얻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을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또 인민대중자신이 하는 사업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거리는 결코 사무실에 있는것이 아니라 생산자대중들이 일하고있는 현실속에 있다. 그러므로 일거리를 찾고 만들기 위하여서는 현실에 끊임없이 접근해야 하며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객관적현실이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일거리를 찾아낼수 있으며 대중을 발동하여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바로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실천투쟁속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일군들의 사업능력과 조직적수완은 혁명적실천속에서 평가된다. 그러므로 현실에 들어가 대중과 함께 살며 일하는 과정은 일군들이 자신의 사업정형을 검증하고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일군들이 현실과 떨어져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문건놀음이나 하여가지고서는 일감을 제때에 얻어낼수 없으며 자기 사업의 결함을 정확히 찾아내고 옳게 시정해나갈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작업복을 입고 생산과 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공장과 농촌의 기대옆과 발머리에 나가 직접 생산자대중과 함께 살고 일하면서 대중을 가르치고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워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현실에 깊이 들어가는데서 중요한것은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는것이다.

관료주의, 형식주의는 그자체가 모든 사업을 주관적으로 내려먹이거나 겉치레를 하는 식으로 조직집행함으로써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을 방해하는 그릇된 사업방법이며 사업작풍이다.

관료주의, 형식주의는 당과 대중을 리탈하게 함으로써 일군들로 하여금 현실속에 깊이 들어갈수 없게 하며 거기에서 일거리를 정확히 얻어낼수 없게 한다. 낡은 사업방법은 일군들로 하여금 군중의 목소리를 옳게 들을수 없게 할뿐아니라 자기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의 원인을 정확히 찾을수 없게 하며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한 방도도 옳게 세울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철저히 없애는것은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하고 전개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모든 일군들은 실태를 깊이 료해하지 않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독촉하며 형식이나 갖추는것으로 사업을 대치하는것과 같은 그릇된 사업태도를 철저히 없

Digitized by Google

해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대중을 아량있게 대하며 그들의 사업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요구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업을 세심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억세게 투쟁하여 끝장을 내는 혁명적사업기풍을 가지고 일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사업은 객관에서 얻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모든 간부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79페지)

오늘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련이어 제기하고있다.

빨리 발전하는 현실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자기 사업에 정통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이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고서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책적안목을 가지고 옳게 분석판단할수 없으며 자기가 해야 할 일감을 정확히 찾을수 없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없다. 그리고 사업행정에서 나타난 결함과 부족점도 바로잡아나갈수 없다.

일군들은 우선 자기 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연구학습하고 그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라의 모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다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모든 경영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종합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하에서는 일군들이 계획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거나 생산조직과 기술발전, 로동행정 사업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정통하지 못하고서는 경제를 제대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없다.

경제와 기술을 알아야 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아래일군들과 기술자들, 생산자대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어야 하며 자기 사업의 실태와 걸린 문제들을 푸는 방도를 환히 꿰들고있어야 한다.

공장의 지도일군들은 공업을 잘 알고 농촌의 지도일군들은 농업을 잘 알아야 한다.

일군들이 이처럼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야 사업을 창발적으로,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해나갈수 있으며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이 제기되여도 기발한 착상과 창조적지혜로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

사업은 객관에서 찾고 결함은 주관에서 찾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일군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어떤 일본새와 사업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것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활동의 기본요구

리 성 춘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으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무접고도 방대한 혁명과업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서 당위원회활동의 기본요구이다.

당위원회들은 자기 활동에서 집체적지도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자기앞에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에 기초하여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급 당위원회들의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당위원회활동의 기본을 집체적지도로 규정하심으로써 당위원회들이 자기 활동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의 활동의 기본은 집체적지도입니다. 당위원회들은 해당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당정책에 근거하여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사업방향을 결정하며 분공을 조직하고 력량을 옳게 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71페지)

당위원회가 해당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방향과 방도를 결정하고 해당단위, 당조직의 당원들을 적극 발동하여 결정집행을 정치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기본으로 된다.

집체적지도가 당위원회활동에서 기본으로 되여야 하는것은 당위원회 그자체가 집체적지도기관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당위원회는 해당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이며 모든 부문 사업의 참모부이다.

어느 부문에서나 당정책을 옳게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위원회의 령도적역할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당위원회의 령도적역할은 한두사람의 지혜만으로는 옳게 보장될수 없으며 대중의 집체적지혜가 높이 발양될 때에만 더욱 높아질수 있다.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모든 부문 사업의 참모부인 당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들을 선거하는 목적은 당위원회활동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당적지도를 보장하자는데 있다. 당조직을 책임진 일군이라고 하여 혼자서 당위원회를 대표하게 되는것이 아니며 누구도 집체적협의가 없이 자의대로 당조직앞에 나선 문제를 처리할수 없는것이다.

오늘 각급 당위원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여러 부문에서 일하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적절히 배합되여 꾸려짐으로써 아래실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되였으며 제기된 문제의 해결방도를 과학적으로 제때에 세울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모든 당위원회들은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정치적참모부로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을 집체적지도와 대중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 정확히

Digitized by Google

지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위원회들은 위원회활동과 운영에서 지도기관성원들의 힘과 지혜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기앞에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풀어나갈 때 해당부문사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 기능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집체적지도가 당위원회활동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당조직의 집체적지혜에 기초한 가장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지도를 보장할수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체적지도는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실현하는데서 어떤 개인의 주관적독단을 방지하고 광범한 협의를 통하여 집체적지혜로써 문제의 옳은 해결을 보장하여줍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529～530페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실현한다는것은 당위원회가 자기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개별적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근거하여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사업방향을 결정하며 그 집행을 장악지도한다는것을 말한다.

당위원회의 이러한 집체적지도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지도의 과학성을 보장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야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방지하고 대중의 지혜를 모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옳게 세울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더우기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당위원회들앞에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이 련이어 제기되는 조건에서 새롭고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집체적으로 토의하여야 문제해결에서 당의 전체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당위원회전반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옳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이처럼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한 사람의 《총명》에 비할바없이 큰 힘을 가지고있다.

또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해당단위의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집행하는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당위원회사업을 개선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한다. 따라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활동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하며 지도의 과학성과 당위원회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당위원회사업에서 집체적지도는 광범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움으로써 관료주의를 극복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일부 일군들에게 남아있는 해독스러운 작풍인 관료주의를 퇴치할수 있게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530페지)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당위원회사업에서 언제나 관료주의를 경계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범하게 되는것은 그들이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욕망을 일방적으로 내려먹이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사업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재래식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할수 있게 한다.

이렇듯 집체적지도는 당사업에서 관

Digitized by Google

료주의, 형식주의,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대중의 창조적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보장할수 있게 하는 당위원회활동의 기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위원회들의 활동에서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위원회를 잘 꾸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참모부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위원회를 당성이 강하고 지도능력이 있는 핵심당원들로 꾸려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71페지)

당위원회를 어떤 사람들로 꾸리는가 하는것은 당위원회가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전적으로 그를 구성하고있는 위원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당위원회를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고 능력있는 핵심당원들로 꾸려야 당위원회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강력한 정치적지도기관으로 될수 있으며 위원들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해당 당위원회앞에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편향이 없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당위원회를 해당단위의 여러 부문에서 일하는 일군들로 적절히 배합하여 꾸리는것은 당위원회가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당위원회를 여러 부문에서 일하는 일군들로 적절히 배합하여 꾸려야 대중의 지혜를 당위원회에 집중시킬수 있으며 당사업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사업을 다 틀어쥐고 그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위원들이 해당단위의 여러 부문에 합리적으로 분포되도록 그들의 사업부문별 구성을 고려하여 당 및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군들과 로동자, 농민, 기술자, 전문가들이 적절히 배합되도록 당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특히 당위원회에 생산현장의 중요부문에서 직접 일하는 핵심로동자들을 많이 넣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에 생산현장의 핵심로동자들을 많이 넣어야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생산자대중의 지혜를 모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규모가 커지고 그 내부적련계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그것이 과학기술적으로 째여진 조건에서 해당부문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당위원회를 꾸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위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위원회들은 위원들에게 분공을 똑똑히 주고 당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활동하도록 하며 그들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분공을 주어 늘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당위원회 위원들은 해당당조직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며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들과 위임분공된 문제를 어김없이 제때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당위원회의 지도를 보장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364페지)

당위원회의 집체적협의는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여야만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모든 문제를 대중의 의사에 기초하여 정확히 해결할수 있으며 채택된 결정을 훌륭히 집행할수 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기초하여 협의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문제해결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당위원회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옳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위원회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자로 하여 당위원회앞에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대책과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당위원회활동에서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규약상 규범의 요구대로 당위원회를 운영하는것이다. 당위원회를 당규약상 요구대로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당지도기관운영을 정상화하고 지도기관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수 있으며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제때에 협의의 방법으로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다.

당위원회앞에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집행대책을 옳게 세우기 위하여서는 회의준비를 실속있게 하며 문제토의에서 위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내놓을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그래야 회의에서 위원들의 집체적지혜가 높이 발양될수 있고 대중의 창발적의견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에 충분히 반영될수 있다.

당위원회들은 모든 위원들이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내놓을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책임일군들이 제기되는 의견을 억제하거나 묵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일단 합의되고 채택된 문제들은 어김없이 집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바로하자면 회의를 준비없이 되는대로 하거나 구성되지 않는 회의에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내부사업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처리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 전횡을 미리 막을수 있다.

위원들의 집체적협의제는 위원들 호상간의 원칙적단결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위원들 호상간에 원칙적단결이 보장되지 못하여 서로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하여나간다면 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질수 없게 되며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찾을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위원회들은 위원들속에서 사상투쟁을 강화하여 온갖 부정적현상들을 제때에 비판하고 바로잡아줌으로써 모든 위원들의 창발적지혜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더 잘, 더 빨리 관철하기 위한데로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위원회들은 당규약상 규범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의 당위원회의 권위를 세우며 당결정의 철저한 집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는것이다.

집체적지도를 강화한다는것은 결코 개인의 책임성을 약화시켜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체적지도는 개인의 높은 책임성과 결합되여야 더 큰 위력을 나타낼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당위원회에서 아무리 집체적협의를 잘하여 중요한 문제들을 정확히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개별적일군들의 책임적인 활동이 따라서지 않는다면 그 결정은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된다.

결정집행에 대한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분공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결정집행에 대한 분공을 명확히 하여야 매 위원들이 자기가 할 일을 똑똑히 알고 자기 맡은 과업수행에 책임적으로 달라붙을수 있게 된다.

결정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위원회책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집체적협의제뿐아니라 결정집행을 조직하고 장악지도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당위원회책임일군들이 행정경제일군들을 제쳐놓고 모든 일을 자기가 도맡아해야 잘될것처럼 생각하면서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한다면 결코 그것은 주관과 독단을 면할수 없게 된다.

당위원회들은 행정대행으로서가 아니라 행정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며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위원회책임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당위원회위원들과 부서들 그리고 행정기관들과 근로단체조직의 모든 일군들을 결정집행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고 그들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과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장악통제할수 있으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협의제와 함께 결정집행에 대한 개인책임제를 높이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일군들이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높은 정치실무수준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당 건설사상과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수령님께서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은 자신을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지 않고서는 자기 본분을 다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하며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지식수준도 더욱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당이 준 임무를 능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전개해나갈줄 아는 실력있고 능력있는 일군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 사업은 당조직을 활기있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게 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위원회활동에서 집체적지도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에 맞게 당사업을 벌려나가야 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의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일군들의 혁명적본분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리 강 진

지금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다그쳐 올해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사람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우리 혁명이 굽임없이 전진하고 인민대중의 혁명적 기세와 열의가 높이 발양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지도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도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할데 대한 당의 요구에는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 되게 하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거기에는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할데 대한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가 반영되여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의 의도와 요구를 깊이 명심하고 사업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한 혁명의 참다운 지휘성원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하며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한 보람찬 혁명투쟁에서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2페지)

지도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진다는것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강의한 혁명가적품성을 지닌다는것을 말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품성이다.

공산주의자는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뿐아니라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한생을 바쳐 투쟁하는 혁명가들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당과 혁명의 리익,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보다 더 큰 리익이란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는데서 참다운 삶의 보람을 느낀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정신적특질과 품격을 규정하

Digitized by Google

는 근본징표로 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다.

수령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의 체현자이며 수령이 내놓는 사상과 방침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다.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하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것은 곧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직하고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가장 고귀하고 기본적인 품성으로 된다.

오늘 우리 지도일군들속에서 당성,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시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지도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은 바로 혁명의 지휘성원인 지도일군들을 통하여 집행된다. 따라서 당정책이 얼마나 폭넓고 깊이 있게 관철되며 사회주의건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나라살림살이가 알뜰하게 꾸려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초소의 운전대를 잡고있는 지도일군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고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가 튼튼히 일떠섰으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우리의 경제는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고 물질기술적토대가 전례없이 굳건히 다져졌다.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위력한 중공업공장들과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이 일떠서고 농산물과 수산물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인민봉사시설도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물질기술적담보로 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는 굳건하며 인민생활을 한층 더 높일수 있는 밑천은 참으로 크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나라살림살이를 더한층 알뜰히 꾸려나가기만 한다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상히 다그칠수 있으며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현실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도,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도 다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모든 사업을 창발적으로 조직하고 패기있게 전개해나가며 인민들의 생활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릴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전면적으로 발양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지도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

Digitized by Google

민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당면하여 우리앞에 나선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경제건설강령으로서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갈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사회적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부문과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비롯한 수송전선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열쇠도 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는데 있다. 지도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조직하고 집행하며 근기있게 내밀어야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고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새 전망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또한 지도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주며 그들의 애로와 난관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풀어주어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참으로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의 길에 놓여있고 우리 당과 인민이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오늘 일군들이 당성,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지도일군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임무와 혁명적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 사업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인민성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한 당원이 되고 국가,경제 기관의 참다운 간부가 되려면 실지행동으로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해야 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싸워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61~162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며 당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일군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되며 그들의 당성,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게 된다. 오로지 조국의 끝없는 융성발전과 우리 인민의 보다 큰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는 일군만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될수 있으며 참다운 인민의 충복으로 될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당정책이 제시되면 그 집행대책과 수행방도를 제때에 정확히 세우고 당정책이 현실에서 훌륭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근기있게 내밀어야 한다.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면 이미 하던 일을 제버리며 어려운 일과 맞다들면 그것을 제힘으로 해제낄 생각은 하지 않고 조건타발을 앞세우는것은 당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참다운 혁명

Digitized by Google

가의 일본새가 아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언제나 깊이 연구하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옳바른 방법론과 묘술을 찾아내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창발적으로, 주동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며 한번 포치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당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여 걸린 고리를 풀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제때에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한다.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일군이 바로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참말로 충직한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복무하는 일군이라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쳐 싸워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52폐지)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배려,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결국은 모든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을 믿으시고 국가의 중요한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관리운영할 책임을 맡겨주시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돌보아줄데 대한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였다.

그러므로 인민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배려가 인민들에게 더 정확히 가닿도록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혁명적본분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지도일군들은 당과 국가 앞에 인민생활을 책임지고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을 돌보며 모든것을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감으로써 인민들에게 보다 윤택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인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데서 중요한것은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일용필수품을 더 아름답고 쓸모있게 만들어 공급하는것이다. 오늘 사회가 발전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됨에 따라 질좋은 일용필수품에 대한 그들의 수요도 더욱 높아지고있다.

지도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일용필수품과 식료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문화주택이 차례지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창발성을 다 발휘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한다면 인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필수품을 무엇이든지 다 풍부히 만들어낼수 있으며 그 질도 훨씬 높일수 있고 급격히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근로자들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주어야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불편도 없이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할수 있다.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Digitized by Google

하는것은 단순한 기술실무적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시위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체조선의 영예를 빛내이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게 하는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가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인민적시책이 현실에서 활짝 꽃피여나 인민들의 생활이 보다 유족하고 윤택해질수록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심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것이며 혁명과업수행에서 그들은 더 큰 열성과 창발성을 내게 될것이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조직들이 일군들을 옳게 교양하고 잘 도와주어야 그들은 언제나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충실히 일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을 투쟁과 생활의 신조로 삼고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며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조직하는데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바로 세우는것은 그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군들의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당조직들은 일군들로 하여금 혁명적군중관점을 철저히 세우고 늘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침식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알아보며 모든것을 그들의 리익에 맞게 정확히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이 인민생활에 무관심하고 사업에서 요령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을 비롯한 온갖 그릇된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우리 당의 혁명적인 사업방법대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없애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튼튼히 세우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모든 문제를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나가는 주체의 사업방법이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실천에 구현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당의 의도를 받들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 발휘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오늘 우리 일군들앞에 맡겨진 임무는 매우 무거우며 지도일군들에 대한 당의 기대도 참으로 크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올해 전투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돌격대

지　재　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의 특질과 그들이 지닌 사명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청년들이 노는 역할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이 노는 역할을 어떤 지위에 놓으며 그것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현재뿐 아니라 장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으며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들을 사회혁명과 새 사회 건설에서 가장 생기있고 적극적인 부대로 보시고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청년들이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청년들이 언제나 우리 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사업과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21페지)

우리 청년들이 받아안은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로운 칭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년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정치적신임이며 높은 믿음의 표시로 된다.

청년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천해나가는 영광스러운 길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를 자랑스럽게 빛내여왔다.

준엄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교양육성하신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과 공청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의 앞장에 나섰다. 그들은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투쟁의 앞장에 섰으며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겨나갔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청년들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친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떨쳐왔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리발총창을 비껴들고 결사전의 앞장에서 청춘을 바친 영웅전사도 바로 우리 청년들이였으며 모든것이 마사지고 불타버린 전후의 그 어려운 복구건설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중의 앞장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것도 바로 피끓는 청년들이였다.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앞에 어려운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천리마대진군의 앞길을 개척해나간것도 청년들이였으며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비약을 이룩하는 거창한 투쟁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선구자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이였다.

청년들은 매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

고 청년발전소건설장과 청년철길건설장으로, 새 항만과 광산개발장으로, 바다로, 천고의 밀림으로, 사회주의농촌으로 집단적으로 달려나가 영웅적기개를 떨치였다.

참으로 오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빛나는 성과들과 이 땅우에 마련된 사회주의의 위대한 창조물들에는 청년들의 고귀한 땀방울이 력력히 스며있으며 그들의 불멸의 위훈이 자랑스럽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우리 청년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자신들의 영웅적투쟁으로 주체위업수행에 실로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놓은 일보다 하여야 할 일이 더 많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결코 투쟁을 멈출수 없으며 끊임없는 투쟁과 혁신으로 주체위업의 진군길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청년들앞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조그마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력사적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이 숭고하고도 영예로운 임무는 우리 청년들이 결코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난관에 굴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며 돌격대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 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진장하고 용감하며 두려움과 피곤을 모르는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억세게 싸워나갈 때 우리 혁명의 명맥은 굳건히 이어지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는 더욱더 앞당겨질것이다.

오늘 당은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청년들을 힘차게 부르고있다.

제2차7개년계획은 우리 조국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륭성과 번영의 설계도이며 위대한 진보와 비약의 리정표이다. 새로운 7개년계획이 수행될 때 우리의 경제는 더욱 강유력한 주체적인 경제로, 고도로 현대화되고 새로운 과학의 토대우에 올라선 더욱 발전된 경제로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될것이며 우리 인민은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자주, 자립, 자위의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그 불패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게 될것이며 우리 인민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 계급없는 사회를 가깝게 바라보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새로운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이며 주체사상의 위력을 과시하는 영예롭고도 성스러운 투쟁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벅찬 전투장이야말로 혈기왕성하고 생기발랄한 우리 청년들이 서야 할 보람찬 일터이다. 오늘 당은 청년들이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전투장마다에서 다시한번 분발할것을 기대하고있다. 우리 청년들이 당의 두터운 신임과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때는 바로 오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로동당시대에 태여나 주체조선의 혁명전사로 자라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당의 부름따라 이 위대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약동하는 힘과 지혜와 재능, 고귀한 땀을 바치는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싸워나가는 이 길이 곧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길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충실하는 길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장엄한 투쟁을 앞에 둔 지금 청년들의 투지는 만만하며 기세는 충천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

Digitized by Google

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청년들이 용약 떨쳐나설 때 해내지 못할 일이란 이 세상에 없다.

새 전망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해나가는 불꽃튀는 전투장에서 새것에 민감하고 혈기왕성한 우리 청년들이 들끓을 때 온 나라가 들끓고 우리 청년들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초소의 앞장에 서서 불굴의 투지로 힘차게 진군할 때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는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될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우리 혁명력사의 갈피마다에 빛나는 업적과 영웅적위훈을 아로새겨온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혁명적으로 분발하여 사회주의건설전투에서 돌격대, 결사대의 영예를 더욱 떨쳐나가야 한다.

청년들이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서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청춘의 기백과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야 하며 공업,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09폐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남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긴요한 모퉁이를 맡아 해제끼는것보다 더 큰 자랑, 더 큰 보람은 없다.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어깨를 들이밀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끊임없이 새 기록, 새 기적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채취공업과 수송전선, 농촌경리부문 그리고 대자연을 개조하는 건설장들은 청년들의 보람찬 일터이다. 바로 우리 당은 오늘 이 부문에 큰 힘을 넣고있으며 청년들이 이 부문에서 더 큰 역할을 놀것을 바라고있다.

채취공업과 수송전선은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부문이다. 채취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워 연료, 원료 문제를 원만히 풀고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바로 여기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앙양을 위하여 당이 채취공업과 수송전선을 적극 지원할것을 호소하고있는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정책관철에서 결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탄광들에 더 많이 진출하여 새로운 석탄생산능력을 조성하며 대규모의 새 갱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수송전선을 적극 지원하여 철도전기화를 다그치며 이미 마련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집중수송, 집합수송, 련대수송의 3대수송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은 림업, 수산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돌격대의 빛나는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그리하여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 깡그리 바쳐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또한 기술혁명수행에서 선봉대가 되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기술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현시기 당이 제시한

Digitized by Google

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업이다. 높은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지 않고서 우리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맡겨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다.

우리 당이 내세운 기술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앞장에 서야 할 사람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우리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우리의 원료와 기술에 의거하고 우리 나라의 조건에 맞는 공업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며 기술수단을 현대화하고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보다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모든 청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데 온갖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새 기술을 받아들이며 보급하는데서 적극적이고 대담하여야 한다. 청년들에게는 보수주의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가 있을수 없다. 청년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반대하며 낡은 기술기준을 타파하고 새 기술, 새기록을 대담하게 창조하며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하며 과학의 성과와 실천적경험을 옳게 배합하는것이다. 로동자, 농민 청년들과 젊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서로 배우고 도와주며 청년들의 대담한 발기와 창안들이 로련한 일군들의 경험과 결합될 때에만 기술발전에서 더 훌륭하고 많은 성과들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청년들은 이와 같은 창조적협조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사업에서 집단적기술혁신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것은 우리 청년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11페지)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청년들이 자기의 창조적로동으로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것과 함께 나라의 살림살이를 아끼고 사랑하며 알뜰히 꾸려야만 이미 마련된 밑천을 가지고 생산과 건설에서 더욱 큰 비약과 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자기의 일터들에서 생산시설들과 생산설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잘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산하고 건설하는 모든 제품들과 건설물들이 인민들의 기호에 맞고 쓰기 편리하며 질좋게 만들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모든 청년들은 나라에 리익을 주는 경제활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당은 지금 사로청조직앞에 기름나무림을 조성하고 토끼를 기르는 등 나라에 유익한 활동을 더 많이 벌릴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었다.

청소년들은 산과 밭머리, 집오래와 길옆에 호두나무, 쪽가래나무, 분지나무, 잣나무, 왜싸리나무를 심는 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토끼기르기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 해마다 1,000만마리 이상의 토끼를 길러냄으로써 나라에 더 많은 보탬을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록화근위대, 산림애호대 활동을 더욱 적극화하여 우리 조국의 강산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나라에 더 많은 리익을 주고 우리 조국을 더욱 살기좋은 락원으로 꾸려나가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일하는 바로 이것이 주체사상으로 교양된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참다운 본새이다.

우리 청년들은 또한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문화를 창조하는데서도 앞장서야

Digitized by Google

한다.

청년들은 자기가 살고있는 거리와 마을, 자기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다 깨끗하고 문화적으로 꾸리며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사로청일군들과 청년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사회주의적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선전과 강연을 널리 벌리며 온갖 뒤떨어지고 비문화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우리 나라의 모든곳에 가장 문명한 사회주의적생활문화가 활짝 꽃피여나게 해야 할것이다.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로청조직들이 그들에 대한 조직정치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혁명에 필요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거침없이 풀어나갈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야 한다. 아는것이 적고 머리가 빈곤하면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없으며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없다.

오늘 당은 모든 사로청조직들이 학습제일주의의 구호를 높이 들고 청년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사로청조직들은 무엇보다도 청년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원리와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는것을 첫째가는 학습과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원리와 당정책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청년학생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 학습을 강화하는것이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학생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강의와 토론 등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학습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청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환히 꿰뚫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학생들속에서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널리 벌리는것은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학생들속에서 물리, 화학,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목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며 과학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들이 기술혁명수행에서 언제나 앞장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학생들속에서 외국어배우는 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학생들속에 외국어학습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려주고 그들이 외국어학습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을 많이 읽는것은 청년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며 문화적소양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학생들에게 책을 읽을데 대한 과제를 끊임없이 주어 그들이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속에서 《배움의 천리길》독서행군, 만페지책읽기운동, 모범독서가운동을 활발히 벌려 책읽기가 청년학생들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로청조직들의 주되는 임무이다. 청년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더욱 단련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

Digitized by Google

서 선봉대의 역할을 잘 수행해나가도록 할수 있다.

사로청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사로청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조직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개인의 리익은 희생시킬지언정 조직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게 하여야 하며 그들이 조직이 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곧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는 과정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사로청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성실히 대하고 제때에 철저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사로청조직안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조직관념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로청조직들은 모든 사로청원들이 누구나 다 똑같이 조직의 규률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로청일군들속에서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며 조직생활에서 특전을 부리려는 조그마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들속에서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들모두가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청춘의 열정에 넘쳐 혁명적으로 살며 일해나가게 하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이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가려면 책임성과 자립성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광범한 청년들을 발동하여 사회주의건설전투에 더 많이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혁신적인 방도들을 깊이 연구하고 새로운 좋은 발기들을 많이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며 왕성한 투지에 넘쳐 와와 내밀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로청조직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한몫을 맡아 단단히 해제끼는 참말로 전투적인 청년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신임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

우리의 전체 청년들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영웅적위훈을 떨치는것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전략적방침

리 원 경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현시기 우리 인민이 수행하여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이다.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여 경제건설을 주동적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는 문제도, 기술발전을 이룩하여 생산장성의 빠른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 문제도 구경에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뜻이 구현되여있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의 독창성과 정당성, 그 구현방도를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 *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이며 앞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방침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4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관한 사상과 방침은 민족경제의 자립적인 발전과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독창적인 사상이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점령을 위한 전략적인 투쟁방침이다.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은 한꺼번에 실현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여러 단계의 투쟁을 거쳐서만 완수될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이 경제발전의 매 단계의 요구에 맞게 옳바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이끌어나갈때 비로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의 경제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였을뿐아니라 인민경제 부문간, 부문내부사이의 밀접한 련계를 보장하면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우리 경제의 높은 발전수준과 우리앞에 나선 무거운 혁명임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새로운 투쟁강령을 제시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데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전략적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Digitized by Google

기본방향을 명확히 밝혀준다.

일반적으로 로동계급의 당의 경제전설방침이 전략적방침으로 되려면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목표와 그 실현방도를 전면적으로 구현할데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기본방향은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이룩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이다. 이 기본방향은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오늘의 력사적조건에 상응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목표를 밝혀주며 우리 시대 혁명적인 경제건설경험의 력사적총화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확한 경제건설방도를 제시해준다.

우리 당의 모든 경제건설방침들은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이룩하여 튼튼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데 대한 기본방향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며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이 땅우에 일떠세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이룩해온 빛나는 로정은 겹쌓인 온갖 난관과 애로를 승리적으로 극복하면서 추호의 동요없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을 견지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맞게 빛나게 구체화한 경제건설방침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모든 내용은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이룩하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데 대한 요구로 일관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기술수단들을 개선하며 경제를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워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4페지)

사회주의공업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결정적전진이 이룩된 오늘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체계가 튼튼히 선 현대적인 공업이 마련되였으며 인민경제는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하게 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려면 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나라의 경제력을 더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나서는 경제건설의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며 수요에 의한 공산주의적분배를 실시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통해서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민족경제의 자립적체제를 더한층 강화할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쳐 자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고 나라의 경제구조를 더욱 완비하면 자립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위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전반적기술수준을 종합적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하고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해나갈 때 우리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의 발전수준을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단계에 이르게 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모든 경제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움으로써 현대화된 기술수단들이 실지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Digitized by Google

위한 기술적토대로 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면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나갈수 있다.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종합적기계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생산을 과학기술발전의 최신성과에 기초하여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는 가장 튼튼한것으로 된다. 이것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과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기본방향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곧은 길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참으로 주체화된 경제,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경제, 이것은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앞으로의 면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의 전모를 보여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방향, 기본목표를 명시해줄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방도들까지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는 문제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풀어나가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원래 사회주의자립경제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사이에는 본질적인 련관관계가 있으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이룩하는 문제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것은 높은 수준에서 밀착되여있는 경제건설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으로서 인민경제를 자기의 힘과 자체의 원료,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발전시키는것을 의미합니다.》(《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13페지)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경제건설방침으로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의 방향을 규정한다.

인민경제를 현대화, 과학화하는것만으로써는 경제적자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데 대한 요구를 실현할수 없다. 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 사업은 오직 민족경제의 자립적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합될 때에라야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다.

다른 한편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의 구조를 더욱더 완비하고 그 발전수준이 자본주의에 비하여 훨씬 앞서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쳐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된 경제를 건설해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대화, 과학화하지 않으면 민족경제의 자립적체제의 위력이 제대로 나타날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이룩하는 문제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풀자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같이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이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이 사회주의건설의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은 이와 같이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이룩하는 방향에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데 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또 그것을 가장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바로 여기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Digitized by Google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방침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의 중요한 특성과 독창성이 있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로동계급의 당의 전략적방침은 당의 정치적강령을 구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방침은 반드시 당과 국가의 최종목적을 직접적으로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이다. 우리 당의 모든 방침은 이 최종목적을 이룩하는데 복종되고있으며 특히 경제건설의 전략적방침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직접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당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경제건설의 목적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두도록 함으로써 경제건설투쟁을 철저히 당의 정치적강령을 구현하는데 복종시켜왔다. 이 과정에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선진적인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세울수 있었으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을 확고히 담보하는 발전된 경제를 건설하여놓았다.

로동계급의 당의 경제건설방침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되려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기초를 쌓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데 대한 원칙적요구들을 해결할수 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결문제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매개 사람들의 운명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옳게 개척하여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도먼저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튼튼히 보장할수 있어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자체원료에 의거하는 공업을 발전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힘있게 다그칠 때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더욱 강화될수 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는 기계설비들을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하는 사업을 적극 다그쳐 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높이며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경제의 과학화수준을 한계단 더 끌어올리게 한다. 그것은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맞게 나라의 기술적자립성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자립적민족경제건설분야에서 거둔 모든 성과는 더한층 공고화되고 심화되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주체화되고 현대화, 과학화된 경제를 건설하는것은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담보를 마련하는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Digitized by Google

는 근로자들에게 참다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입니다.

기술혁명을 하여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2페지)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 다음에도 그들을 낡은 사상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는 과업은 의연히 남아있게 된다. 로동조건에서의 본질적인 차이를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과업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을 통하여 높은 수준에서 해결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은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이 방침은 공업의 모든 부문에서 자동화, 반자동화를 대대적으로 실현하고 선진적인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며 특히 힘든 로동이 아직 일부 남아있는 부문들에서 자동화, 산업텔레비죤화, 원격조종화를 널리 실시하게 함으로써 공업부문사이의 기술장비와 기계화, 자동화수준에서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없앨수 있게 한다. 이 방침은 또한 농업생산의 기술장비수준과 과학화수준을 공업의 선진적수준으로 끌어올려 농민들이 로동생활에서 로동계급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평등을 보장받을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그만큼 3대기술혁명이 심화되여 아직 일부 남아있는 힘든 로동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보다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만들수 있게 될것이다.

이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이 로동생활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참다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는데서 력사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는다는것을 말해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담보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모든 공업부문들을 갖추고 그 기술수준을 선진적인 수준에로 끌어올려 높은 생산성을 이룩하게 한다. 이것은 모든 로동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다같이 높여 생활수준상 차이를 없애고 그들에게 더욱더 넉넉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는 물질적기초를 이룬다. 그리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은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쳐 농민들이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에서 벗어나며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준다.

이렇듯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근로자들사이의 생활조건과 생활수준상 차이를 없애며 그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충족시킬수 있는 선진적인 물질적토대를 담보한다. 따라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도를 다같이 최상의 높이에 이르게 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Digitized by Google

이 모든것으로 하여 주체화된 경제,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경제를 건설하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으로 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방침으로 되는 또하나의 근거가 있으며 여기에 이 방침의 중요한 특성과 독창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전략적방침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주체의 경제리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리론을 더한층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길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앞길을 밝혀주는 독창적인 경제건설사상이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사상과 방침이 밝혀짐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이룩하는 사업과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결합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으며 나아가서 경제의 면모를 빨리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일신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방침이 제시됨으로써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새로운 합법칙성이 밝혀지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사업은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며 현대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조건에서 실현되게 된다. 이러한 력사적조건은 주체화된 경제,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경제를 건설하는 길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빨리, 더 잘 쌓을수 있는 길로 되게 한다.

실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의 제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지름길을 개척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우리 나라의 원료와 연료, 자체의 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국내자원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더욱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민족경제의 자립적체제를 더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503~504페지)

민족경제의 자립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기본과업을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여 더 많은 매장량을 확보하면서 공업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우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본연료자원이며 중요공업원료인 석탄생산을 훨씬 늘이는것은 현시기 채취공업을 앞세우는데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있는 대규모탄광들을 개건확장하면서 새로운 대규모탄광들을 건설하며 중소규모탄광개반을 계속 힘

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전망이 좋고 유리한 안주탄광을 비롯한 대규모탄광들에 힘을 넣어 석탄생산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석탄과 함께 쇠돌, 유색금속광물, 비금속광물, 희유금속광물 생산을 빨리 늘여 원료, 연료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구조를 더욱 완비하며 원료생산으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는 모든 생산단계를 훌륭히 갖추어놓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현대화, 과학화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뒤떨어진 기술을 보다 새로운 기술로 개조하고 그것을 더 새로운 기술로 개조하는 식으로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해나가야 한다.

오늘 공업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된 현대적기계들과 흐름선, 자동선, 종합가공반들을 널리 받아들이며 산업텔레비죤화, 원격조종화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현대화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수송을 현대화하는것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철도전기화를 빨리 완성하고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의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수상운수와 해상운수를 널리 발전시키야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보다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를 과학화하는데 필요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과학화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농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는것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의 중요한 고리이다. 농업을 과학화, 현대화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되여있는 경제건설방침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로 국내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경제부문들을 다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오직 자기 힘으로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는 혁명정신을 가져야 아직 찾아내지 못한 지하자원을 모조리 찾아낼수 있으며 이가 빠졌거나 없는 경제부문들과 생산공정들을 다 갖추어놓고 경제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주체적인 립장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경제의 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새 전망계획의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을 하루빨리 앞당겨수행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자연부원의 효과적인 개발리용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위한 중요한 과업

김 세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데 대한 전략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관한 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칠데 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는 혁명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경제발전속도를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의 자원으로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 전망계획의 첫해과업을 빛나게 완수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 *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투쟁은 자연을 정복하며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석탄과 철광석, 유색금속광물과 희유금속광물, 비금속광물, 목재와 수산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수단을 만들기 위한 귀중한 원천들이다. 자연부원은 자연에 있는 그 상태로는 사람들의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지만 그것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기만 하면 여러가지 기계와 생활수단을 만들수 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은 여러 방면으로 더욱 폭넓게 진행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범위가 넓어지고 생산이 장성하는데 따라 여러가지 원료와 연료, 동력에 대한 경제적수요는 더욱 늘어난다. 특히 공업의 식량인 석탄에 대한 수요와 공업의 시초원료인 광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은 현대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기본문제로 나선다. 날로 늘어나는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자연부원을 모조리 찾아내고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는것은 오늘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는것입니

Digitized by Google

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의 힘과 자체의 원료,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이며 주체화를 실현하는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올리기 위한 기본담보가 있다.

자연부원의 효과적인 개발리용은 주체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자주적으로, 안전하게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자기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동력의 대부분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해결하여야 경제발전을 주동적으로 계획화하고 정확한 균형을 보장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만일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해결에서 남에게 의존하게 되면 경제건설에서 자연히 남의 의사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물론 나라들마다 사회경제적조건과 자연지리적조건이 같지 않고 생산력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서 차이가 있는것만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원료와 연료를 다 자체로 해결할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으로 경제를 건설하려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자라는것은 만들어내고 없는것은 찾아내며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련계를 발전시켜나간다면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능히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를 안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자기 나라의 원료와 연료, 동력원천으로 경제적수요의 대부분을 충족시켜야 세계적인 원료위기와 연료위기,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에도 끄떡없이 경제를 안전하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다.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는것은 또한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더 창설하여 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게 함으로써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으로 발전된 경제의 건설은 자기 나라 자연부원의 효과적인 리용을 전제로 한다. 자기 나라에 있는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자체의 자원에 기초한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여러가지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다. 자기의 자원을 전면적으로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게 되며 인민생활의 향상도 보장할수 없게 된다.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는것은 이미 마련해놓은 경제토대가 충분히 은을 내게 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료기지가 튼튼하지 못하고는 생산을 정상화할수도 없으며 늘일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48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의 공업은 매우 짧은 기간에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기술적락후성을 완전히 없애고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섰으며 류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공업의 규모가 그 어

Digitized by Google

느 때보다도 커지고 생산이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석탄과 광물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화력발전소들과 금속공장, 화학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날로 더 많이 요구하는것은 석탄이며 이미 마련된 위력한 경제토대가 더 큰 은을 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것도 석탄과 광물이다. 석탄과 광물을 충분히 대주어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대와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고 만가동을 시킬수 있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확대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이처럼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할수 있게 하며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으로 새 전망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더 빨리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자체의 원료와 연료, 동력 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는 자체의 풍부한 자연부원에 의거하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로 전변되였으며 안전한 토대우에서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와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기초하시여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데 대한 방침은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강령적 지침이다.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여야 점령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연부원을 모조리 찾아내여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부문구조가 완비되고 자주적으로, 안전하게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하는 정확한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수 있게 되였다.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데 대한 방침은 또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곧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그들을 낡은 사회제도와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뿐아니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종국적으로 해방하여야 완전히 실현될수 있다.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생산력과 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하여야 하며 날로 늘어나는 그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이 어려운 과업은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가장 빠르고 곧바르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범위는 보다 넓어지게 되고 근로자

Digitized by Google

물은 자연의 구속에서 더욱 벗어나게 되며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물질적부의 생산이 빨리 늘어나게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의 자원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데 대한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여러가지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여있습니다.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여 더 많은 매장량을 확보하며 아직 찾아내지 못한 지하자원을 모조리 찾아내야 하겠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4페지)

지질탐사는 땅속의 무진장한 보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의 첫공정이다.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여야 땅속에 있는 자연부원의 실태를 정확히 알아내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를 찾을수 있으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갈수 있다.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은 중요대상에 탐사력량을 집중하여 탐사속도와 탐사효률을 높이는것이다. 중요대상에 탐사력량을 집중하여 탐사속도와 탐사효률을 높여야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으며 짧은 기간안에 더 많은 석탄과 광물을 찾아낼수 있다.

지질탐사부문에서는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분산시키지 말고 파악이 있고 전망이 좋은 지구들에 집중배치하여야 하며 새로운 탐사방법과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탐사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야 한다.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려면 탐사일군대렬을 늘이고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탐사일군대렬을 늘이지 않고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나라의 모든 지역에 분포되여있는 지하자원을 더 빨리 그리고 남김없이 모조리 찾아낼수 없다.

우리는 탐사일군대렬을 주체사상과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새로운 일군들로 더욱 늘이고 기술토론회와 기술전습회, 야간및통신교육망을 통하여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일군들은 전망탐사와 현행탐사 특히 작업탐사를 다같이 틀어쥐고나가 나라의 모든 지역에 대한 탐사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탐사공정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현시기 탐사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공업의 연료이며 원료인 석탄에 대한 탐사를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석탄을 더 많이 찾아내야 석탄생산을 부쩍 늘여 인민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지질탐사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탄광들의 심부와 주변에 대한 탐사를 강화하여 더 많은 석탄매장량을 확보하며 새로운 탄광후보지들을 찾아내야 한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워 탐사된 석탄과 광물을 제때에, 더 많이 캐내는것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하여 나서는 기본과업의 하나이다.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가공공업에 원료와 연료를 넉넉히 대줄수 있다.

오늘 채취공업부문앞에 당면하게 나

Digitized by Google

서는 절박한 문제는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끊임없이 늘이는것이다.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화력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으며 금속공업과 건재공업, 화학공업과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할수 있다.

석탄공업을 비롯한 채취공업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려면 굴진기와 박토를 앞세우고 채취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며 운반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굴진기와 박토를 앞세우는것은 채취공업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지켜야 채탄장과 채광장을 넉넉히 마련하고 석탄과 광물 생산을 계속 늘일수 있다.

탄광, 광산들에서는 굴진기와 박토에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우선적으로 돌리며 새로운 굴진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채취공업의 생산기술적특성은 가볍고 든든하고 성능이 높은 설비들을 요구한다. 주로 지하의 수천척 막장에서 움직이는 채취설비가 가볍고 든든하고 성능이 높아야 그 어떤 조건에서도 생산을 중단없이 진행할수 있으며 1인당 생산량을 높이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 채취설비의 성능이 약하고 질이 낮을 때에는 많은 시간과 막대한 로력과 자재, 자금의 랑비를 가져올수 있으며 결국 생산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게 된다.

채취설비를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우리 나라 지질조건에 맞는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된 여러가지 채취설비들과 소공구들, 기계부속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며 삭도수송, 콘베아수송, 관수송에 필요한 설비들도 적극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자동화를 다그침으로써 다량채굴, 다량처리하고 운반을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석탄과 광물 생산을 계속 늘여야 한다.

동시에 지금 있는 탄광, 광산들을 개건확장하면서 전망이 좋은 새로운 탄광, 광산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현시기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의 하나는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면서도 더 많은 석탄과 광물을 캐낼수 있으며 캐낸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3대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힘든 로동이 많이 없어지고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이 훨씬 개선되였다. 그러나 지질탐사와 채취공업부문에는 생산기술적특성으로 하여 아직도 힘든 로동이 일부 남아있으며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술혁명을 다그쳐 지질탐사와 채취공업부문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빨리 덜어주어야 하며 석탄과 광물 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 가공처리하고있는 자원을 보다 분한있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우리의 자원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매우 크다.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 들어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자원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기술혁신에로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책

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기술혁신에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직접적인 생산자들과 보조부문의 근로자들까지 다 참가시켜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야 하며 과학연구성과들을 생산에 제때에 받아들여 원료, 연료의 소비기준을 낮추고 우리의 자원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자연부원을 더 많이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옳게 불러일으키고 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운영 사업을 잘하면 앞으로도 계속 생산을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을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31페지)

자연부원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사업은 자연의 온갖 변덕과 불리한 지리적조건을 이겨내야 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부문의 이러한 특성은 일군들이 그 어느 부문에서보다도 더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것을 요구한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생산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일수 있으며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자연부원을 찾아내고 캐낼수 있다.

일군들은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없애고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객관적실태와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현행생산과 전망생산을 옳게 타산하고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생산현장에까지 자재를 날라다주고 전투조직을 짜고들어야 하며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을 세우고 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특히 채취공업부문일군들은 지하막장에까지 들어가 생산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들을 끊임없는 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한편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후방공급사업을 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속공업, 전재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은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강재와 세멘트, 갱목과 기계설비들을 계획대로 어김없이 보장해야 하며 교통운수부문에서는 그것을 제때에 날라다주어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연히 남을 쳐다보고 남에게 의존하게 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 있는 자재와 자금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새로운 혁명과업을 받으면 먼저 생산자들속에 당의 의도와 요구를 해석침투시키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분공을 똑똑히 주어야 하며 그 집행을 잘 도와주어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에게 더욱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영예로운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석탄과 광물을 비롯한 더 많은 자연부원을 찾아내고 적극 개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제2차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

리 학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하신 여러차례의 교시들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는 우리 농민들을 하루빨리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으며 농업생산을 더욱 늘이고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농촌기술혁명의 중심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농촌에서 힘든 로동도 훨씬 줄어들었다. 그러나 농사일은 아직도 공업로동보다 힘들고 품이 많이 들며 로동조건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남아있다.

오늘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하며 무엇보다도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완성하여 모든 농사일을 기계의 힘으로, 화학적방법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뿐아니라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여 한사람이 논은 5정보이상, 밭은 10정보이상 다루도록 하며 농촌에서도 공업부문에서와 같이 8시간로동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2~1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것은 농촌기술혁명을 빨리 완성하여 로동강도와 로동시간에서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농촌경리를 종합적으로 기계화하여야 농사에서 손로동을 훨씬 줄이고 농업로동을 기계의 시중이나 드는 헐하고 홍겨운 일로 바꾸어놓을수 있다. 또한 모든 영농작업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여야 로동생산능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한사람당 논밭관리면적을 늘일수 있으며 농민들의 로동시간을 체계적으로 줄이여 농촌에서도 공업부문에서와 같이 8시간로동제를 실시할수 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 로동강도와 로동시간에서의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면 로동조건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고 농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게 되며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한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앞당길수 있게 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것은 온 세계를 휩쓸고있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Digitized by Google

농업생산은 원래 계절적제약을 많이 받는다. 더우기 최근년간 혹심하게 계속되는 한랭전선의 영향은 농업생산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나라들이 농업위기, 식량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온 세계를 휩쓸고있는 한랭전선의 혹심한 영향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될것이 예견되고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것은 농업생산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농사업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것이 중요하다.

주체농법은 모든 농사일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끼면서도 기술지표를 엄격히 지킬것을 요구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 모판만들기와 씨뿌리기, 모뜨기와 모내기, 강냉이영양단지만들기와 옮겨심기, 비료, 농약, 살초제 뿌리기, 가을걷이 등 로력이 많이 드는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하여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중요영농공정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해제낄수 있으며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이상기후의 피해를 미리 막고 농업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높일수 있다.

현시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것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야 기술장비수준에서의 농업의 락후성을 없애고 농업생산을 빨리 늘여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식량과 농산물원료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전반적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시기 로력이 모자라는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계속 높이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로력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나서고있다. 오늘 나라의 이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 긴장한 농촌로력문제를 푸는데 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하여야 농민들이 로력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고도로 집약화된 농법인 주체농법을 드팀없이 구현할수 있으며 농촌지원에 동원시키던 로력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들을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렇듯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것은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농촌기술혁명의 중심과업으로,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고있으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요구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으나 그것을 완성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은 다른 부문에서의 기계화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나섭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9페지)

우리 나라는 산이 령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기에 비탈진 밭과 뙈기밭, 다락논이 많다. 그리고 변방지대의 농경지는 모두 영농공정이 매우 복잡한 논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려면

Digitized by Google

복잡한 지형조건과 영농공정에 구애됨이 없이 농사일을 다 기계화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형의 뜨락또르와 농기계들을 새로 창안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에 따라 벼농사는 물론 강냉이, 남새, 담배 농사를 비롯한 밭농사도 모두 모를 길러 옮겨심는 방법으로 하고있으며 김을 자주 매고 비료도 과학적시비체계에 따라 나누어 치고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복잡한 영농공정들을 제철에 어김없이 기술지표의 요구대로 세밀하게 해나가야 하는 현실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보다 몇배나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우리 농촌들에 뜨락또르와 자동차, 모내는기계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이 대량적으로 공급되여 농촌경리의 기술장비수준은 매우 높으나 아직 종합적기계화가 완성되지 못하고있는것도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 영농공정의 복잡성과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하루빨리 완성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농촌기술혁명의 기본내용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전후 농업협동화가 완성되자마자 벌방지대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로 기계화의 범위를 넓혀나가며 밭갈이와 수송작업부터 기계화하면서 점차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농사일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뜨락또르공업을 자체로 창설하여가지고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떠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잡소리를 물리치시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강력한 자립적인 뜨락또르, 자동차 공업을 창설하도록 우리 인민들을 옳바르게 령도하시였으며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모내는기계공장들과 련결농기계공장들을 꾸려주심으로써 해마다 필요한 기계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현대적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뜨락또르운전수대렬을 몸소 키워내시고 농업기계화연구기관들을 꾸려주시였으며 그 대렬을 빨리 늘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 튼튼히 꾸려진 뜨락또르운전수와 농기계부문의 과학자, 기술자의 대부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의하여 자라났으며 그들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되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는 경지면적 100정보당 벌방지대에서는 6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서는 5대이상의 뜨락또르를 가질수 있게 되였으며 농촌경리의 기술장비수준에서 선진국가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하는것을 당면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할수 있게 되였으며 한맹전선의 영향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오늘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한 커다란 성과에 의거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하루빨리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Digitized by Google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루빨리 완성하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숭고한 혁명과업이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우리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중요한 방침이다. 그러므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는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전체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보람찬 혁명과업으로 된다.

실천적경험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할 때 어렵고 복잡한 과업인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난해에 평안북도 운전군, 염주군을 비롯한 서해안의 여러 군안의 적지 않은 협동농장들에서는 로력곡선이 최고로 올라가는 모내기시기에조차 로력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제철에 모든 농사일을 해제꼈을뿐아니라 기술지표를 철저히 지켜 전례없는 풍작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협동농장들은 다른 농장들에 비하여 기계화조건이 특별히 좋거나 기술장비수준이 높은것도 아니다. 사실상 이 협동농장들의 기술장비수준은 우리 나라 협동농장들의 평균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있는 농기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이 농장들은 벌써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종합적기계화에서 모범을 보인 이러한 협동농장들에서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뚫고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에는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잔재들이 머리를 쳐들고 우리의 전진운동을 저애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이미 마련된 밑천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에서 일대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이미 있는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뜨락또르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단행본, 7페지)

뜨락또르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더 많은 뜨락또르를 농촌에 보내주어야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빨리 덜어줄수 있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완성을 앞당길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의 현실태를 깊이 분석하시고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를 8～10대씩 차례지게 할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그러므로 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호, 《풍년》호, 《전진호》, 《충성》호 등 여러가지 형의 뜨락또르를 농촌에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제2차7개년계획에 예견된 뜨락또르생산고지를 하루빨리 점령하여야 한다.

지금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에서 이빠진 공정은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비롯한 밭작물의 모옮겨심기와 벼

Digitized by Google

모뜨기이며 가을걷이작업의 기계화도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뜨락또르 하나만 가지고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칠수 없다. 아직 손으로 하는 영농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농기계들을 창안하고 대량생산해내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모든 일군들은 아직 모자라는 벼모내는기계와 벼종합수확기, 벼모뜨는기계 생산을 빨리 늘이고 강냉이영양단지모와 남새모 옮겨심는 기계를 비롯한 새로운 농기계들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새 기술 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때 지난 시기 대중속에서 모뜨는기계를 창안해낸것처럼 훌륭한 발기와 창안이 많이 나오도록 할수 있으며 매 영농공정들에 필요한 성능높은 기계들을 만들어내는데서 나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농업기계화연구기관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생산자대중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지금보다 연유를 적게 쓰면서도 속도가 빠르고 다루기 편리한 농기계들을 개발하며 여러가지 종합수확기들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뜨락또르와 새로운 농기계의 생산을 높이는것과 함께 있는 농기계들을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장비수준이 비할바없이 높은 오늘 이미 있는 농기계의 리용률을 한계단 더 높이기만 한다면 짧은 기간에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모든 지방들에 농기계 부속품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모든 지방들에서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뜨락또르와 자동차, 모내는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들의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튼튼히 꾸려 필요한 부속품들을 지방자체로 충분히 생산보장해야 하며 이미 있는 수리공장들의 시설을 더 보충완비하고 수리공장이 없는데서는 새로 꾸려 농기계의 수리기일을 극력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편결농기계생산을 늘여 이미 있는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또한 현대적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운전수대렬을 빨리 늘이는것이 필요하다.

기계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은을 낼수 없다. 그러므로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대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오늘 그 운전수대렬을 확대하는것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실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기계화가정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황해남도 룡연군의 한가족이 모두 뜨락또르운전수로 자라난 훌륭한 경험을 일반화하는 《기계화가정운동》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현대적농기계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보람찬 투쟁이며 농민의 로동계급화과정을 촉진시키는 대중적운동이다.

농업부문의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기계화가정을 꾸리고 그 대렬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지난날 소를 몰고 농쟁기를 다루듯이 뜨락또르와 자동차, 모내는기계와 수확기 등 각종 농기계를 다 능숙하게 다루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한계단 높일수 있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

현시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는 토지정리사업을 다그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원만히 실현하려면 농촌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많이 보내줄뿐아니라 토지정리를 잘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37~138페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으로 하여 농촌에는 아직도 기계가 들어가 능률적으로 일할수 없는 논밭이 적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 토지정리를 다 그치지 않고서는 이미 있는 농기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할수 없다.

토지정리사업은 가을걷이를 한 다음부터 모내기를 하기전까지에만 할수 있고 그것도 추운 겨울에는 땅이 깊이 얼기때문에 할수 없다. 그러므로 농촌경리부문에서는 토지정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기계수단과 로력을 집중적으로 리용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토지정리를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당면한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고 토지정리사업을 다그칠수 있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실현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어렵고 복잡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과업은 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도일군들은 농기계생산을 늘이고 농기계 부속품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꾸리는 사업, 토지정리사업, 뜨락또르운전수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하며 과학적타산에 기초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 우리 나라의 모든 군들이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강유력한 자립적인 농기계공업에 의거하여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오늘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전망은 휘황찬란하며 우리 농민들이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될 날도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앞당겨나가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자.

Digitized by Google

《통일교회》는 종교의 외피를 쓴 악랄한 반공모략단체

한 면 금

오늘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통일교회》의 반동적정체와 그 죄악을 폭로단죄하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통일교회》의 책동이 여러 나라들에서 광범한 인민들과 사회계의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으며 세계적인 규탄과 배격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통일교회》는 종교의 외피를 쓰고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공정책을 적극 떠받들고있으며 별동대의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악랄한 반공모략단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자기들의 횡포한 파쑈테로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온갖 기만책동을 다하고있으며 특히 〈반공〉을 중요한 정치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87페지)

반공모략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파쑈통치에서 의거하고있는 상투적수법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반공모략책동을 감행하는데서 사상문화의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고있을뿐아니라 여러가지 형태의 위장된 모략단체들도 서슴없이 조작리용하고있다.

바로 《통일교회》는 박정희괴뢰도당이 상전의 조종밑에 제놈들의 반동적정책을 정당화하고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속에 반공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조작해낸 사이비종교단체인것이다.

《통일교회》가 가짜종교단체이고 반공모략조직이라는것은 그 《교주》 문선명이란놈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허위와 날조를 꾸며대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일삼고있는데서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문선명놈은 기독교《성서》를 빌며다 그것을 더욱 괴상망측하게 조작하여 《통일교회》의 《교리》라는것을 꾸며내고 거기에다 이른바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왔다가 죽은후에 다시 하늘에 올라갔다는 《예수》가 제놈으로 변신하여 땅에 내려왔다고 허위날조를 꾸며대고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황당한가 하는것은 문선명놈이 자기도 알수 없는 어느 산중에서 《제낀양복에 넥타이를 맨 예수가 조선말로 훈시》를 주더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이 잘 말해주고있다.

세상에서 악하고 더러운 몹쓸짓은 다하고있는 인간쓰레기 문선명놈이 바로 제놈을 근 2천년전에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버렸다는 《예수의 소생》으로 묘사하는 허튼소리를 진실이라고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통일교회》의 이른바 《교리》라는것은 악랄한 반공으로 일관되여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훔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거짓말을 말라》고 하면서 무지와 몽매, 굴종을 설교하는데 《통일교회》는 이 모든것과 반대되는것을 날조해내고 그것을 애써 설교하고있다.

온갖 허위로 일관된 《통일교회》의 이른바 《원리강론》에서는 자본주의나라들을 극구 찬양하고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해서는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퍼부으면서 오래지 않아 제3차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떠벌이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마당이 바로 《조선반도의 38도선》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38도선대결

Digitized by Google

론>을 적극 고취하고있다.

이것은 《통일교회》의 《교리》가 바로 제3차세계대전의 중심이 조선으로 되고 따라서 모든 반공의 초점을 공화국북반부에로 돌려야 한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침략교리를 《종교적교리》로 각색한것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통일교회》의 《교리》는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철저한 반공정치교리이며 온갖 반동적궤변으로 인민들을 기만하여 반공광신자로 만들것을 노리고있는것이다.

《통일교회》의 반동적정체는 그 조직구성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통일교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남조선의 각 지방과 해외에 《지부》들과 외곽단체들을 두고있는데 그 대부분이 여러가지 이름을 띤 반공모략단체들로 이루어져있다.

남조선과 일본, 미국에 있는 《국제승공련합》, 미국의 《자유문화재단》, 《자유지도자재단》, 일본의 《세계평화교수아까데미》, 《방위문제간담회》 등의 기구들과 산하단체들은 그모두가 례외없이 반공을 고취하는 선전모략기관이다.

지어 《통일교회》의 하부조직들가운데는 반공을 위한 깡패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폭력단들도 수많이 들어있다. 《통일교회》가 뻗친 여러곳에 조직되여있는 《통일십자군》, 《기동선도반》, 《국제부흥단》, 《공수구락부》, 《무장투쟁훈련소》들이 바로 그런것들이다.

《통일교회》의 모든 조직들이 반공을 일삼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통일교회》는 겉으로는 종교의 행세를 하고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종교의 탈을 쓰고 반공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철저한 반공모략단체이다.

박정희괴뢰도당과 그 상전들은 흉악한 야망밑에 가짜종교단체인 《통일교회》를 꾸며냈을뿐아니라 그를 세계 여러 나라들에 부식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원래 《통일교회》는 1950년대에 남조선에서 혼음을 《교리》로 내세웠다가 인민들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고 사회적추방운동의 대상으로 되여 더이상 유지할수조차 없게 되였었다.

그런데 박정희역적은 1961년에 괴뢰정권을 가로채자 종교의 간판을 리용하여 제놈의 세력지반을 국내외에 확대할 목적으로 《통일교회》를 재생시키고 문선명놈에게 반공특무노릇을 할데 대한 지시를 주었다. 그리고 괴뢰중앙정보부의 깡패들을 그 《고문》으로, 《보좌관》으로 붙여 적극 활동케 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통일교회》는 괴뢰도당의 우두머리놈들과 직접 련결되였으며 사실상 괴뢰중앙정보부의 하부조직으로 움직이게 되였다.

《통일교회》의 《회원》이라는자들은 모두 괴뢰중앙정보부와 밀착된놈들과 미중앙정보국의 특무들이거나 그의 뒤받침을 받고있는자들로서 이루어져있다.

《통일교회》는 바로 박정희매국역적무리들의 직접적인 비호와 미일반동지배층의 우익분자들에 의하여 남조선은 물론 일본,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저들의 《교세》를 뻗치고있다.

일본에서 《통일교회》가 널리 퍼지고 조직될수 있은것은 일본반동정부의 우두머리들과 군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뒤받침과 직접 관련되여있다. 자료들에 의하면 기시로부터 후꾸다에 이르는 일본반동정부의 력대총리들은 《통일교회》놈들에게 많은 자금을 대주면서 놈들을 반공모략책동에로 떠밀어주었다고 한다.

미국지배층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전 미국대통령이였던 닉슨놈이 그가 대통령을 하고있던 시기에 《통일교회》의 반공정치모략책동을 찬양하여 문선명놈에게 감사의 《인사장》까지 보냈을뿐아니라 그놈을 백악관대통령사무실에 불러다가 포옹하면서 추어주었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미제우두머리놈들이 《통일교회》를 얼마나 비호해주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박정희괴뢰도당과 그 상전들이 《통일교회》를 퍼뜨리는데 그처럼 열을 올리

Digitized by Google

고있는것은 바로 종교의 간판밑에 반공세력을 그러모아 세계적범위에서 반공모략책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견인력을 약화시키며 저들의 파쑈테로통치를 합리화해보려는데 있다.

오늘 시대에 역행하는 반공미치광이들에 의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뻗친 《통일교회》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극히 악랄한 반공모략책동을 일삼고있으며 인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불행을 가져다주는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통일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부화와 타락, 패륜과 패덕을 로골적으로 설교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주고있다.

《통일교회》놈들은 《세계통일》을 이룩하자면 《신의 자녀를 낳고 대가족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녀청년들을 꾀여다가 《합동결혼식》판을 벌려놓으며 남녀가 공동합숙에서 군혼생활을 하도록 하는 개같은 놀음을 벌리고있다. 세상에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1975년 2월에 《통일교회》에 속한 1,800여쌍의 남녀가 서울에서 《합동결혼》을 하였으며 그후 이런 놀음이 계속 꾸며지고있다.

이리하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부화와 타락의 구렁텅이에로 깊이 몰아넣고있으며 건전한 인간륜리와 도덕생활을 무참히 파괴하고있다.

《통일교회》의 범죄적책동은 또한 세계도처에서 반공강습소인 《수련회》,《연수회》 등을 꾸려놓고 반공미치광이들을 길러내고있는것이다.

《통일교회》놈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유인하여다가 우선 《수련회》와 《연수회》 등에 넘겨서 《세뇌》시킨다고 한다.

《통일교회》에서의 이른바 《세뇌》란 사람들이 가지고있던 건전한 의식과 신념을 죄악으로 여기게 하고 사람의 정상사고를 이상상태로 만드는 악착한 강제적인 《정신개조》방법이다.

《수련회》와 《연수회》라는것은 몸서리치는 비인간적인 《세뇌》기관이며 무서운 집단최면교육기관이다.

《수련소》에서의 《세뇌》는 《수련생》들로 하여금 《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반공광신자로 되게 하는 교리를 철저히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일관되여있다.

수많은 《수련생》들은 악착스러운 《세뇌》과정에 정신분렬증, 비정형정신병의 병태 등을 일으키고있다. 그리하여 깊은 밤에 집을 떠나 정신없이 방황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지어 《세뇌》때에 죽거나 페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교회》놈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부모의 항의에 대하여 많은 신자들가운데는 그런 《탈락자》도 있기마련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죽으면 《저승》에 가서 《소생》한다고 뻔뻔스럽게 뇌까린다.

《통일교회》놈들은 이러한 악착스러운 방법으로 여러 나라에서 순진한 청년학생들을 교묘하게 꾀여다가 《세뇌》시킴으로써 그들을 제놈들의 《교리》에 맹종하는 미치광이로 만들고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 가정도 부모친척도 다 저버리고 황당한 《통일교회》의 《교리》를 위해 기금을 구걸하며 가장집물을 팔어낼뿐아니라 지어는 절도, 강도까지 하게 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통일교회》에 자식들을 빼앗긴 부모들은 고민하고있으며 많은 가정들이 불행의 참화를 겪고있다.

반공에 미쳐날뛰는 《통일교회》놈들은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여 갖가지 명칭을 띤 무장폭력단에 끌어넣고있으며 그들을 반공모략책동의 돌격대로 내몰고있다.

일본의 《국제승공련합》놈들은 유사시에는 《통일교회》가 조직한 《국민탄압부대》가 한몫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일교회》를 믿는 일본의 반공미치광이들에게 공기총을 메워주고 사격훈련까지 시키고있으며 미국의 《통일교회》와 그 하부조직성원들은 《38선까지 총을 메고 간

다.》는것을 공공연히 지껄이고있다.

《통일교회》놈들은 날로 높아가는 공화국북반부의 영향력을 막으며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반파쑈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반대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온갖 모략책동에는 의례히 《통일교회》놈들이 끼여들고있다.

《국제승공련합》일본지부놈들은 재일동포들을 남조선에 끌어가기 위한 이른바 《고향방문》놀음을 빈번히 조작하고 총련산하 사무실들에 대한 습격폭행을 감행하며 영화, 방송과 같은 문화선전수단들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와 공산주의에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을 일삼고 있다.

일본의 도호영화회사에 돈을 대주면서 반공전쟁영화 《인천》을 만들어달라고 애걸한놈들도 바로 다름아닌 《통일교회》놈들이다.

《통일교회》놈들은 미일상전들에게서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지지를 더 얻어보려고 더러운 음흉한 막후공작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뭉치돈과 녀자, 갖가지의 명예칭호와 호화한 대연회로 미일반동지배층들의 지지를 받아보려다가 드러난 대미, 대일 뢰물행위에도 바로 박정희괴뢰도당의 명령지시에 따라 《통일교회》에 속한 특무놈들이 끼여들어있다.

모든 사실은 《통일교회》가 박정희괴뢰도당의 앞잡이로, 별동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있으며 놈들의 명령지시라면 그 어떤 범죄적책동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과 그 상전들은 종교의 탈을 씌운 《통일교회》를 내세워 저들의 흉악한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어리석게 꾀하고있으나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반공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울수 없으며 인민대중을 기만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때까지 공산주의의 악명높은 원쑤들이 공산주의를 소멸하여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으나 누구도 공산주의를 소멸하지 못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64페지)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나타난 이래 반공에 미쳐날뛴 반동통치배 치고 제놈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응당한 징벌을 받지 않은자가 없었다.

오늘 《통일교회》의 더러운 정체와 죄악적만행은 더욱 드러나고있으며 그를 반대배격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통일교회》가 류포되고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통일교회》의 죄악상을 폭로단죄하는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통일교회〉는 사교이며 사이비종교이다.》, 문선명놈은 《사기사이며 그 졸개들은 깡패이고 파렴치한 어처구니없는 협잡군이다.》라고 폭로규탄하면서 놈들의 범죄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통일교회》의 《원리운동》을 반대하기 위한 《회》가 조직되였으며 그것을 광범한 대중적운동으로 전변시킬 방침을 내세우고있다.

이 《회》는 일본각지에서 《통일교회》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투쟁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면서 정부에 《통일교회》를 당장 금지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피해자부모의 회》에서는 《원리운동즉시금지령요구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 하여금 《원리운동》을 즉시 그만두게 하며 《세뇌》에 의하여 페인상태에 빠진 신자들을 정상상태로 돌려세우기 위한 조사사업과 치료사업, 료양시설 등의 설치와 《합동결혼》 등을 금지할것을 요구하여 투쟁하고있다.

일본인민들은 또한 《통일교회》에 대한 배격과 함께 그와 결탁되어있는 반동들을 폭로하는 투쟁을 적극 벌리고 있다.

Digitized by Google

《통일교회》의 범죄적책동이 드러남에 따라 그것이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에서 놈들의 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는 한때 《통일교회》의 신자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회》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 단호히 떨쳐나서고있다.

이들은 《수련소》의 련속되는 《세뇌》부르짖음, 강사의 채찍, 잠재우지 않는 그 수법이 심리학의 악용이며 교회에서 물러가는자는 죽어서 저승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고 위협하고있다는것을 낱낱이 폭로하고있다.

미국에서는 또한 《통일교회》의 신자로 된 젊은 세대들이 악착스러운 《세뇌》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한 보고를 듣고 많은 부모들이 분노를 금치 못해하면서 들고일어나고있다.

격분한 피해자들의 부형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원리운동》반대그루빠를 조직하고 자기 자식들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투쟁은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강하게 벌어지고있다.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통일교회》의 모략적책동이 사회의 건전한 생활기풍과 륜리를 파괴하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협잡단체를 내쫓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광범한 인민들의 힘찬 투쟁과 압력에 의하여 프랑스정부는 《통일교회》, 《국제승공련합》의 범죄적책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딸리아정부는 《통일교회》의 외곽단체인 《국제문화재단》에 대한 법인허가신청을 취소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오지리정부에서는 《통일교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이처럼 악랄한 반공모략단체로서의 《통일교회》는 그가 저지르고있는 온갖 죄악적만행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저주와 규탄, 랭대와 배격을 받고있으며 세찬 반대운동에 부딪쳐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였다.

반공은 그것을 부르짖는자들에게 오직 멸망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가져다줄것이 없다.

지금 《통일교회》의 반동적정체와 죄악이 더욱 드러나는데 당황한 박정희괴뢰도당은 그것이 제놈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것을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기만술책에 속지 않을것이며 놈들의 온갖 반공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야 말것이다.

근로자 1979년 제1호(루계 441호)

편집위원회

발행소•근로자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9년 1월 3일 발 행•1979년 1월 5일

ㄱ—85310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Digitized by Google

4451
1287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EAST ASIATIC LIBRARY
MAY 3 0 1979
UNIVERSITY OF CALIFORNIA

2 호

평 양 근로자사 1979

Digitized by Google

제 2 호(442)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김 일 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자

(전국농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9년 1월 11일)

동지들!

나는 먼저 전국농업대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1979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동지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농업문제를 토론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 나라 농업전선에서 영웅한 투쟁을 벌린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력사에 드문 왕가물을 잘 이겨냈으며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을 성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7년 가을부터 지난해 7월초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에 농업에 리용되는 저수지가 약 1,500개 있는데 그 가운데서 300개의 저수지가 완전히 말랐으며 나머지 저수지들에도 물이 30%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엄혹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강물을 끌어다 저수지를 채우는 투쟁을 영웅하게 벌리고 당이 내세운 지하수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력사에 드문 왕가물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잘하여 또다시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힘을 다하여 해안방조제와 강하천제방들을 튼튼히 쌓음으로써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을 순조롭게 막아내고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당의 농업정책이 매우 정당하며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와 제13차전원회의에서 내놓은 자연개조 5대방침과 지하수혁명방침이 매우 정당하다는것을 뚜렷이 증명하여줍니다.

우리 나라의 농업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전체 인민들이 당중앙위원회두리에

Digitized by Google

굳게 단결하여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해마다 대풍작을 이룩하고있는것은 우리 로동당시대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이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인민들앞에 떳떳이 자랑할수 있습니다.

지금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식량난을 겪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식량을 완전히 자급자족하고있으며 해마다 대풍작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나는 우리 인민들이 농업생산에서 해마다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며 농촌테제를 훌륭히 관철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농업전선에서 영웅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의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보고에서 지난해농사에 대한 총화를 구체적으로 하였고 또 당중앙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올해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을 명백히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서만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것은 현시기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농업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는 벼를 정보당 겨우 2～3톤, 기껏하여 4톤밖에 내지 못하였으며 강냉이는 정보당 1.5～2톤밖에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벼 정보당 수확고에서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을 따라앞섰으며 강냉이 정보당 수확고도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을 거의 따라잡고있습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매우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놓은 수리화, 전기화의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도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이러한 현실은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훨씬 높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경험주의적으로 농사를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완성되고 기계화, 화학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농업생산이 고도로 집약화된 오늘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지도하는 사람이나 지도받는 사람이나 다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지야 합니다. 농업과학기술지식이 없이는 오늘 우리 나라의 농업을 지도할수 없으며 농업생산을 한걸음도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농업부문일군들이 과학기술지식이 부족하여 토양관리와 모판관리,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농약들을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치지 못한다면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일군들은 모두다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벼모기와 강냉이포기를 다루며 비료와 농약을 치는 일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농업과학기술을 잘 알아야 합니다.

Digitized by Google

그런데 지금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이 발전하는 현실과 주체농법의 요구에 비하여 뒤떨어져있습니다. 농업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도 과학기술지식수준이 높지 못하고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분조장들도 과학기술지식수준이 높지 못합니다.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이 높지 못한데로부터 지난해농사에서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평안남도에서는 여름철에 제일 더울 때 대기온도가 34~36도까지 올라갔으며 그때 논물온도는 38~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논물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 물관리에 대한 과학기술지식이 있는 일군들은 더운물을 빼고 찬물을 대주었지만 과학기술지식이 부족한 일군들은 더운물을 빼지 않고 그냥두었습니다. 더운물을 빼고 찬물을 갈아준데서는 정보당 벼를 7톤 700키로그람~8톤씩 냈는데 더운물을 빼지 않고 그냥 둔데서는 높은 온도에 의한 피해를 입어 정보당 벼를 7톤 내나마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이 농사를 지도한데서는 과학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도한데서보다 정보당 벼를 700키로그람~1톤씩 더 생산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한랭전선의 영향이 심하였지만 농작물에 규소비료와 미량원소비료, 3요소비료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제대로 친데서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지난날 동해안지대에서는 랭해가 심하고 일조률이 낮기때문에 농사가 잘 안된다고 하면서 날씨타발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동해안지대에서 규소비료도 많이 치고 린비료도 제대로 쳐서 랭해와 일조률이 낮은것을 극복하였으며 그전에 비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훨씬 높였습니다. 그리하여 랭해때문에 동해안지대에서 농사를 잘 지을수 없다고 하는 비과학적인 론조를 완전히 짓부셔버렸습니다.

우리 나라의 농촌경리를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우려면 결정적으로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협동농장 농장원들과 분조장, 작업반장들로부터 농업위원회 지도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협동농장들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잘 꾸리고 거기에 여러가지 과학기술도서들과 자료들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협동농장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들에 농업과학기술도서들과 잡지들도 많이 출판하여 보내주고 선진영농경험자료와 농업과학연구기관에서 만든 과학실험자료 같은것도 보내주어야 합니다.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데서 직관교육과 실물교육을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과학영화도 많이 만들고 환등 같은것도 널리 리용하여 과학기술지식을 생동하게 배워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농업과학원에 전시관을 꾸려놓고 농업대회참가자들에게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실물로 보여준것처럼 도와 군, 협동농장들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실물교육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농업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예비가 많습니다.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면 우리 나라 농업을 지금보다 훨씬 더

Digitized by Google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농업부문지도일군들과 협동농장원들을 비롯한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낡은 경험주의를 버리고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농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농업부문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전하는 현실은 농업부문계획화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난 기간 농촌경리부문에서 계획화사업을 하여왔으나 그것이 잘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아직 계획의 세부화를 바로 실현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원래 농업부문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가운데서 계획화사업을 잘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공업에서는 모든 생산공정이 대체로 짧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 제품을 하나 생산하는데는 몇시간 걸릴수도 있고 몇분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에서는 생산과정이 옹근 한해동안에 걸쳐 진행되며 그것이 매우 복잡합니다. 벼농사 한가지를 놓고보더라도 겨우내 농사차비를 하여가지고 봄에 모판을 만들고 씨를 뿌린 다음 모를 길러 논에 옮겨심어야 하며 여름에는 물을 대고 김을 매며 비료와 농약을 쳐야 하고 가을에는 벼를 베여 실어들이고 낟알을 털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모든 공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화하여 정확히 맞물린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우기 농촌경리의 협동화가 실현되기전까지는 분산적인 개인농민경리를 대상으로 한 조건에서 농업생산을 구체적으로 계획화한다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농촌경리의 협동화가 실현된 다음에도 일정한 기간은 농촌의 전반적기술수준이 낮고 협동농장들의 경제적토대와 발전정도가 각이한 조건에서 농업부문의 계획을 공업부문과 같이 완전히 일원화, 세부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난 시기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가 완성되였으며 기계화와 화학화도 거의 완성되여가고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토지정리를 더 하여 기계화를 새로 하여야 할데도 있지만 지금 기계가 일할수 있는데는 다 기계가 들어갔습니다.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살초제를 비롯한 농약들도 농촌에서 요구하는대로 공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금은 협동농장들의 발전수준도 대체로 고르로와졌습니다. 물론 아직 협동농장들이 전인민적소유가 아니라 협동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수준이 꼭 같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에서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을 가지고 모든 협동농장들의 힘든 일을 해주고있으며 화학비료와 농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생산수단과 영농자재들을 협동농장들에 골고루 공급하여주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는 농촌경리부문에서도 계획을 완전히 일원화할수 있고 세부화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계획을 세부화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짜가지고서는 농사를 잘 지을수 없습니다. 벼농사를 하는데서 비료나 농약을 반드시 적당한 시기에 적

당한 량을 쳐야지 아무때나 되는대로 쳐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기계를 가지고 모를 내거나 김을 매는것도 반드시 적당한 때에 하여야지 하루 늦게 하여도 안되고 하루 일찍 하여도 안됩니다.

지난해에 일부 협동농장들에서는 일군들이 계획화사업을 잘하지 못하여 농사일을 주먹치기로 한 결과 알곡수확고를 더 높일수 있는것을 높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데서는 포기수가 많이 늘어난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전처럼 비료를 적게 주어 벼가 제대로 자랄수 없게 하였는가 하면 어떤데서는 포기수는 적게 넣고 비료를 너무 많이 쳐서 벼가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낡은 경험주의에 매달려 농사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여서는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조건에서 앞으로 정보당 수확고를 더 높이기 위한 중요한 예비는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농업부문계획화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농업생산계획을 철저히 세부화할데 대한 과업을 농업위원회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위원회에서 올해계획을 세운것을 보면 아직도 세부화가 바로되지 못하였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계획화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에서 계획화사업을 바로하려면 계획화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갖추어놓아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작업반, 분조별로 구체적인 토양분석표를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토양분석표라는것은 다시말하면 땅의 리력서입니다. 병원에서 사람들의 병을 바로 치료하기 위하여서는 병력서가 있어야 하는것과 같이 협동농장들에서 계획을 바로세우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포전별 토양분석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땅은 어느 정도 산성화되였고 어느 땅은 무슨 성분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것을 포전별로 상세히 분석하여 기록한 토양분석표가 있어야 거기에 맞게 어느 포전에는 무슨 비료를 얼마나 치고 어느 포전에는 어떤 미량원소를 어느 정도 보충해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농기계와 생산설비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자료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탈곡기라면 그 회전수는 얼마나 되며 거기에 달린 전동기는 몇마력짜리이고 언제 생산한것인가 하는것과 같은것을 다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장원들의 기술수준과 지식수준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하며 상세한 영농일지도 있어야 합니다. 영농일지에는 어느 골짜기에 어느날 비가 얼마나 왔으며 봄서리는 어느날 끝나고 가을서리는 어느날 시작되였으며 겨울에 눈은 얼마나 오고 땅은 얼마나 얼었다는것, 씨뿌리기는 어느날 시작하여 어느날 끝냈고 모내기는 어느날 시작하여 어느날 끝냈다는것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들을 빠짐없이 적어넣어야 합니다.

앞으로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계획화사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충분히 마련하여놓고 그에 기초하여 철저히 세부화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모든 농사일을 정확히 하며 협동농장들에 대한 공급사업과 보장사업을

Digitized by Google

원만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농업생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이 승리적으로 추진되고 우리 나라의 농촌경리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발전단계에 이른 오늘의 조건에서 그전과 같이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원칙이나 제시해주고 협동농장들에서 농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를 행정적방법으로부터 기업적방법으로 전환한것은 농업발전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로 되였습니다. 지난날 농업생산을 행정적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농업발전에서 적지 않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농업지도체계를 대담하게 개편하여 농업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내오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를 비롯한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영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협동농장들을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도록 한 다음부터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농촌경리를 중앙집권적인 체계에 따라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고있으며 농업생산을 구체적으로 조직지도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관리일군들이 수준이 높고 일을 잘하는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사를 잘 짓지만 그렇지 못한 협동농장에서는 농사를 잘 짓지 못하고있습니다. 조직지도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농업생산에서 통일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일부 협동농장들에서 논물관리를 잘하지 않아 벼농사에서 피해를 본것도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이 농업생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잘하지 못한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농업생산은 시기성을 요구합니다. 모든 농산작업은 다 자기 철이 있는것만큼 농사에서 하루라도 철을 놓치면 그만큼 생산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에 강원도안의 일부 협동농장들에서는 발탱상모를 100% 한다고 하면서 물원천도 없고 관리하기도 힘든 비탈밭에 탱상모판을 만들었다가 씨볼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모판을 새로 만들고 모를 다시 붓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모판면적이 많이 늘어났을뿐아니라 벼모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모내기철을 놓쳐 알곡생산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것은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이 아래실정을 모르고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하였으며 특히 농업생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지 않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대로 적당한 땅에 적당한 작물을 심고 농업생산에서 시기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관료주의를 없애는것과 함께 농업생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들의 체계가 정연하게 서있는 조건에서 마땅히 농업부문에 사령체

계를 철저히 세우고 농업생산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사령체계를 세운다고 하여 기구를 더 늘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에서 아래실정을 제때에 장악하고 생산을 통일적으로 지휘할수 있도록 산업전화나 놓아주면 농업부문에서 지금 있는 기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령체계를 세울수 있으며 농업생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잘할수 있습니다.

농업생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이란 로력조직과 자재보장, 설비관리 그리고 토지관리와 물관리를 잘하도록 지도하는것입니다.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은 농업생산의 모든 단위들에서 로력조직을 잘하고 자재보장사업을 잘하며 설비를 제때에 수리정비하고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며 토지보호관리사업과 물관리사업을 잘하도록 옳게 조직지도하여야 합니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농업생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은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잘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토지리용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농사에서 토지리용률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경지면적은 제한되여있는데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지리용률을 높여 지금 있는 경지면적에서 농업생산을 계속 늘여야 합니다.

모든 협동농장들과 농업부문일군들은 올해에 토지리용률을 높이는 문제를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토지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토지리용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알곡생산면적을 최대한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지금 남새농사와 담배농사를 잘하지 못하다보니 남새밭과 담배밭 면적이 매우 많으며 토지리용률이 높지 못합니다. 남새농사와 담배농사를 잘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면 지금보다 그 생산량을 훨씬 늘이면서도 알곡생산면적을 적지 않게 얻어낼수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남새농사를 잘하여 남새를 정보당 250톤씩 내지만 다른 도들에서는 숱한 남새밭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남새를 얼마 생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만일 모든 도들에서 남새농사를 잘하여 남새를 정보당 200톤씩만 내면 지금보다 남새밭면적을 한 4만정보 줄이고도 전체 인민들에게 사철 남새를 넉넉히 공급할수 있습니다. 평양시에서와 같이 남새밭에 관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비료를 과학기술적으로 치며 두벌농사, 세벌농사를 잘하면 정보당 남새를 200톤이 아니라 300톤도 낼수 있습니다. 원그루남새밭면적을 4만정보 줄여 거기에 강냉이를 심으면 여기에서만도 강냉이를 30만톤 더 생산할수 있습니다.

담배농사도 과학기술적으로 잘 지으면 담배밭면적을 더 늘이지 않고 담배를 많이 생산할수 있습니다. 담배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고 담배밭을 잘 가꾸며 담배잎을 제때에 따면 담배를 정보당 4톤씩은 얼마든지 낼수 있습니다. 담배를 한 2만정보 심어 정보당 4톤씩 내도 8만톤의 담배를 생산할수 있습니다. 한해에 담배를 8만톤 생

Digitized by Google

산하면 우리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하고도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할수 있습니다.

알곡생산면적을 늘이는데서 다수확작물생산면적을 늘이는데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여러번 말하였지만 아직 우리 나라에서 콩의 정보당 수확고가 낮은 조건에서 콩농사를 잘할 때까지 당분간은 콩을 많이 심지 말고 그대신 강냉이를 더 심어 강냉이생산량을 늘여야 합니다.

밭머리에 역삼 같은것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밭머리에 역삼을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밭머리에 역삼을 심으면 소가 곡식을 먹지 않아서 좋으며 역삼껍질로는 바줄을 꼬아쓸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토지리용률을 높이는것과 함께 새땅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다락밭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며 새땅을 많이 얻어낼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당중앙위원회가 내놓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새땅을 더 많이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새땅을 얻어내기 위하여서는 철길주변과 강하천부지들을 다 정리하여야 합니다. 지금 철길옆과 강하천주변에 묵은 땅이 많은데 거기에 흙깔이를 하고 잘 정리하면 그것을 농경지로 쓸수 있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철길옆과 강하천주변을 다 정리하여 한치의 땅이라도 더 많이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간석지개간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간석지를 많이 개간하는 한편 거기에 인차 곡식을 심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락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려야 합니다. 아직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 알곡수확고가 낮은 비탈밭이 많은데 그것을 다 다락밭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락밭을 건설하는것이 간석지를 개간하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힘이 좀 들더라도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면 좋은 밭이 될수 있으며 알곡수확고를 몇배 더 높일수 있습니다. 강동군에서는 강냉이를 정보당 600~800키로그람밖에 내지 못하던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들어 강냉이를 정보당 6~7톤씩 내고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식량이 넉넉하여야 민족의 자주성도 지킬수 있고 나라의 발언권도 세울수 있습니다. 농사를 잘하지 못하여 다른 나라에 식량을 구하러 다니게 되면 자주성도 지킬수 없고 발언권도 가질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때문에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농사를 잘 지어 계속 식량을 자급자족할뿐아니라 더 많은 식량예비를 축적함으로써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올해에도 농사제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나는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과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지어 올해에 또다시 대풍작을 이룩하리라고 믿습니다.

Digitized by Google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강령적방침을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한 총진군을 개시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라섰다.

당의 향도아래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결과 전당과 온 사회에 그 어느때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끓어넘치는 혁명적열의와 창조적기백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현실은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으며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전진할때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백두의 밀림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　　　*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0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력사적위업이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서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위대한 사업이다.

이 영광스러운 위업은 우리 당의 혁명적본성과 력사적사명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완성하여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몸소 창건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당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새형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로 출현하였으며 주체사상을 완전히 구현하여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

Digitized by Google

는것을 자기의 최종목적으로 삼고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적극 옹호하고 철저히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근본사명으로, 모든 사업의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이 수행하고있는 모든 사업, 모든 활동은 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이 걸어온 길은 바로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온 빛나는 로정이며 우리 나라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되여온 과정은 곧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온 과정, 주체사상화가 심화발전되여온 과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색화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신 그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신 그때로부터 우리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가 시작되였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당의 주체사상화가 시작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우리의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주동적으로 헤쳐나가면서 용감하게 투쟁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왔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가장 간고한 조건에서 생소한 길을 걸으면서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다. 특히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확고히 이룩되고 나라의 정치적 및 경제적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다.

우리 당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 위대한 변화에 토대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총진군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주체사상화과정이 비할바없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주체위업수행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새로운 단계에서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은 전사회적범위에서 모든 사회 성원들을 주체형의 열렬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구현된 사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거창하고 심각한 혁명적변혁을 그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인민대중에게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불멸의 위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8페지)

근로인민대중은 력사발전의 주체이며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모든 물질적부의 창조자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은 마땅히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자주성을 누려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은 그들이 사회의 온갖 예속과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

Digitized by Google

되고 자연과 사회,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때 비로소 실현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사회성원들이 공산주의사회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이 보장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은 바로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사람을 철저히 개조하고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그 기본요구들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참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한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과 인민으로 하여금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가장 훌륭히 완수하며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주체형의 혈통을 대를 이어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전투적강령이다.

이 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당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가장 정확히 이끌어나가는 혈기왕성한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을 열어주고있다.

이 위대한 방침에 의하여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훌륭히 다그쳐나갈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의 점령을 위한 혁명의 새로운 진리를 체득할수 있게 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사상과 방침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발전시키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거대한 기여로 된다.

이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며 사회와 인간을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과정으로 된다는 위대한 진리를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끎으로써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왔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당대렬을 계급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새로운 높이에서 비상히 강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우리 당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4페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결과 낡은 사업체계와 재래식사업방법이 마사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철저히 구현되고있으며 모든 사업이 참신하고 패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가장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사회의 심장으로서 온 사회에 주체형의 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영양소를 세차게 뿜어주는 혁명의 전위당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당사업, 당활동이 심화되고 사상교양사업이 힘있게 진행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명판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싸워나가는 열렬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순결한 충실성을 지니고 살며 싸워나가는데서 자기의 참다운 삶의 보람을 찾고있다.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차넘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사회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생산과 건설이 비상히 빨리 추진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유일한 자로 삼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철저히 서게 되였다. 당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다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 사상전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이르는곳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우리 당이 지펴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오늘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그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어느때보다도 사람들의 창조적사색이 높이 나래치고 근로자들의 영웅적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며 자연도 사회도 사람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그 장엄한 현실은 바로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실로 우리 당의 세련되고 정력적인 지도는 우리 인민이 거창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변혁과 기적의 원천이다. 우리 인민은 오직 당의 혁명적지도를 높이 받들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을 가장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참다운 길이 있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심장으로 깊이 체험하고있다.

* *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우리 인민은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참으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멀리 앞으로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혁명의 길우에 있으며 우리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빨리 완성해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Digitized by Google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임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열렬한 혁명투사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맞게 우리 사회를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당사업을 더욱 심화하여야 한다.

당사업을 심화할 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적역할을 높여 온 사회에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힘있게 뿜어줄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더 잘, 더 빨리 개조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시킴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데 당사업의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73~274페지)

오늘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유일사상교양에 모를 박고 당사업을 더욱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있다. 당의 이 방침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며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는 당사상사업의 목적과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에 맞게 유일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념화, 신조화하고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두가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교양개조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사상사업은 원래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인만큼 형식주의는 사상사업에서 최대의 금물이며 형식주의를 뿌리뽑는것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요구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뿌리뽑을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을 원리적으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하며 사상사업방법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고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이 한몫씩 맡아 선전선동활동을 패기있게, 격동적으로, 정상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의 원리와 당정책의 참뜻을 깊이 새기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 자신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철저히 뿌리뽑도록 하여야 하며 언제나 혁명적 기백과 창조적열정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은 사람들뿐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할 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과 문화적조건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그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켜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속도전, 사상전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더욱 활짝 꽃피워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당면한 중심과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3대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켜야 하며 근로자들을 하루빨리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문화혁명방침을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치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나가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혁명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직접 투쟁목표로 하고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이며 속도전, 사상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비상히 빨리 다그쳐나가는 일대 혁명운동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과 요구, 당의 의도를 깊이 인식시켜 모두가 한결같이 이 운동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직장, 작업반들에서 결의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지도사업과 총화사업을 짜고듦으로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끊임없이 높이고 우리 혁명을 보다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해당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이며 최고지도기관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치려면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이 이 운동을 확고히 틀어쥐고 근기있게 밀고나가는데 3대혁명에서의 성과의 담보가 있다.

Digitized by Google

당조직들은 정치를 하는 당, 혁명을 령도하는 우리 당의 본성에 맞게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철저히 앞세워야 하며 사상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힘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기술, 문화 혁명을 위한 사업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힘있게 떠밀어주어야 한다. 당위원회들은 집체적지도기능을 높여 당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행정경제일군들로 하여금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도록 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여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면하게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계속 심화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도록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생활을 통하여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철저히 세우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중앙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강철같은 규률이 전당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82페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혁명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하려는 숭고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인 혁명투쟁이다. 이 거창하고 복잡한 사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의 유일적인 지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빛나게 수행될수 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보장하여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하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지도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당중앙이 내세우는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하며 전당과 온 사회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친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벌릴 때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것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는 그만큼 앞당겨 건설될것이다.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혁명적 규률의 기초

김 윤 칠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여 혁명적조직규률을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당건설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안에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조직규률을 세울데 대한 방침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것으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 당 사업과 활동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문제로 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당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모든 분야에서 통일적으로 관철하여나가기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조직원칙이며 활동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라는것은 광범한 당원대중의 의사를 모아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당지도부를 선거하며 그 지도부가 세워진 로선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것을 말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376페지)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광범한 당원대중과 아래당조직들의 창발적의견들을 종합체계화한 기초우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결정을 채택하며 중앙집권적인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질서에 따라 활동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의 결합이다.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지도는 당원대중의 민주주의적의사를 종합체계화한데 기초하여 그리고 당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다른 한편 당원대중의 민주주의적의사는 중앙집권적지도에 의해서만 옳게 종합체계화되고 높이 발양될수 있다.

《민주주의》를 발양시킨다는 구실밑에 중앙집권적지도를 소홀히 하고 약화시킨다면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마비되고 당안에 무정부주의와 자유주의가 조성되게 된다. 당내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수령의 유일적령도가 실현되는 조건에서만 진정한것으로 될수 있다. 중앙집권제와 결합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당활동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며 부르죠아적자유주의를 조장시켜 당을 구락부와 같은 무기력한 존재로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당내 민주주의도 옳게 보장될수 없게 된다.

수령만이 전당의 조직적의사를 가장 철저히 대표할수 있으며 당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따라서 수령의 유일적령도, 중앙집권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있다.

당조직들의 활동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하면 당원대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이 약화되고 일군들의 사업에서 전횡과 독단이 생길수 있으며 관료주의와 주관주의가 나타날수 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당의 조직원칙이며 혁명적조직규률의 기초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이

Digitized by Google

독할수 있으며 당안에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조직규률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입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떠나서는 당안에서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할수 없으며 전당이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조직체로 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2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안에 중앙집권적인 강철같은 혁명적조직규률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전대오의 철옹성같은 조직적단결과 행동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수 있게 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조직원칙이다.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결속되여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조직규률은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혁명적규률이 없는 당은 사상의지의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 분파가 생기는 법이며 이러한 당은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게 된다.

당이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조직적으로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그 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하고 유일한 지도사상과 옳바른 조직원칙이 있어야 한다.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은 수령이며 수령의 사상은 통일단결의 유일한 기초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조직원칙, 유일한 조직적결속의 기초는 당의 유일사상이 구현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자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여야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은 전당을 수령의 두리에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여야 당은 정연한 조직기구와 사업체계에 의하여 튼튼히 결속될수 있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당안에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도 허용하지 않고 당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혁명적조직규률은 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에 의하여 보장될 때만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될수 있으며 가장 철저하고 자각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혁명적조직규률확립의 확고한 기초로 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당안에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워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한사람같이 움직이게 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활동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안에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강한 규률이 있어야 당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철저히 집행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위부대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

Digitized by Google

명적조직규률을 세우지 못하면 광범한 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실현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킬수 없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조직지도체계와 혁명적조직규률을 가지고있는 바로 여기에 온갖 기회주의적정당들과 구별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근본특징이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근본특징을 이루는 이러한 조직지도체계와 혁명적조직규률은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해서만 철저히 세워지게 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것은 원래 로동계급의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절대적인 요구이며 당의 혁명적조직규률의 본질적요구이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수령의 유일적령도에 철저히 의거하여 한결같이 움직일 때에만 당은 하나의 조직 원칙과 규률에 의하여 활동하는 참말로 전투적인 조직으로 될수 있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령도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비조직적이며 자유주의적인 현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당의 조직규률은 파괴되고 그 전투력은 약화되게 되며 결국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역할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된다.

당의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정연한 지도체계와 사업체계를 통하여 수령의 교시와 명령지시가 제때에 정확히 침투될수 있게 하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그것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게 함으로써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또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과 어긋나는 온갖 자유주의적이고 무규률적이며 분파적인 행동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당안에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이는 엄격한 규률을 세울수 있게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조직규률은 로동계급의 계급적의사를 온 사회에 구현하기 위한것이며 그것은 조직성과 통일성이 철저히 보장될 때 원만히 실현되게 된다. 당조직들의 활동에서 조직성과 통일성을 떠난 혁명적조직규률이란 있을수 없으며 따라서 당조직들의 활동의 통일성은 오직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서만 확고히 이루어질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의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조직규률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이루어지는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로 된다.

이처럼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전당을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묶어세우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의 원칙, 유일한 규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혁명적조직규률의 기초로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활동함으로써 당중앙으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조직지도체계와 사업체계를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중앙집권적규률이 철저히 선 강력한 전투부대로 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세련된 지도밑에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전당이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조직사상적통일을 이룩하였으며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끌어가는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위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Digitized by Google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구현하여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조직규률을 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당건설방침은 하나의 조직원칙, 유일한 규률에 의하여 당의 조직사상적통일을 실현하고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조직규률을 세울데 대한 방침은 당의 본성과 사명, 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것으로서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혀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으로 된다.

*　*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조직규률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조직규률에 관한 문제는 당의 존재와 활동, 그 공고발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제대로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관건적문제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조직규률은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이며 모든 당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자각적규률이며 전체 당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유일한 규률이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백전백승하는 혁명대오로 강화발전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당안에 혁명적조직규률이 튼튼히 서있고 모든 당원들이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고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조직규률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한 혁명적조직규률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중앙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강철같은 규률이 전당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떠나서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바랄수 없으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수령님의 령도는 우리 당이 가장 혁명적인 당으로서 주체시대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단결과 행동상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며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울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하며 정책적문제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률을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이는 중앙집권적인 조직규률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당을 통하여 실현된다.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질서와 규률을 세워야 한다.

당이 제시하는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구현한것이며 수령님의 교시를 훌륭히 관철하기 위한것이다.

우리는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움직이는 정연한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사업을 당에 집중시키고 당의 방침에 따라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문제토의에 적극 참가시키고 그들이 창발적의견을 충분히 제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단 토의결정된 문제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것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조직규률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성실히 실행하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생활하며 끊임없이 혁명적교양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9페지)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조직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 태도를 가지는것은 당생활을 건전하게 잘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원들이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지 않고서는 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할수 없으며 당원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없다. 조직관념이 옳게 서야 당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킬수 있다. 누구를 물론하고 조직관념이 똑바로 서있지 못하면 당생활을 잘해나갈수 없고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없으며 나중에는 사상적으로 병들고 혁명적조직성이 마비되여 혁명임무를 끝까지 다해나갈수 없게 된다.

원래 당이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 조직인것만큼 당을 이루고있는 매개 당원들이 옳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조직에 철저히 복종하여야만 전당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세울수 있고 당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당원들이 조직관념을 옳게 가져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성실히 수행할수 있다. 따라서 모든 당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는것은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 잘 준비하며 나아가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당조직에 의거하여 일하고 생활하며 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것은 당생활의 초보적인 요구이다.

당원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것을 습성화, 생활화하여야만 사상적인 로쇠와 변질을 모르고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당의 기대에 맞게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전진하게 해나갈수 있다.

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고 당의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킬것을 맹세하고 당에 들어온 우리 당원들은 마땅히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일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당조직규률을 어기고 자의대로 사업을 해나가는것은 조직관념이 없고 당조직을 무시하고 되는대로 행동하는 심한 자유주의의 표현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당조직을 존중하고 조직의 지도밑에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아무리 날고뛰는 사람이라도 조직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사업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여겨야 한다.

특히 책임일군들일수록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조직과 토의하여 처리하는 혁명적인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조직규률은 지위와 직무, 공로에 관계없이 모든 당원들이 다같이 지키야 할 혁명적규률이다. 당내에서는 2중규률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누구도 특전을 바랄수 없다.

사업에서는 상하가 있고 지휘관이 있어야 하지만 당조직생활에서는 높고낮은 사람이 따로 없다. 당원은 누구나 하나의 규범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며 하나의 기준, 하나의 원칙에 의하여 움직이고 평가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특혜를 바라며 당조직규률을 위반하고 전횡과 독단을 부리거나 세도를 쓰는것과 같은 사소한 표현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누구나 다 당의 혁명적조직규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당조직규률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생활규범을 엄격히 지키는것은 당생활의 초보적인 요구이며 그 누구도 어길수 없는 당적의무이다. 당원은 당조직생활규범의 요구대로 당세포생활과 정규화생활을 비롯한 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수양해나갈수 있으며 맡겨진 혁명과업도 잘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생활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규률에 대한 요

구성을 높여야 한다.

당조직규률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당안에 자유주의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할수 있으며 우리 당을 전투적인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당조직규률에 대한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지 않으면 규률이 약화되여 딴꿈을 꾸는자들이 나타날수 있다.

경험은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규범을 똑똑히 알고 당조직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일 때 당안에 건전한 당생활기풍을 세울수 있으며 맡겨진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관료주의와 요구성을 엄격히 갈라보고 강한 요구성을 제기함으로써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조직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조직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어기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당조직규률을 강화하는 사업은 무규률적이며 비조직적인 현상들과의 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당이란 혁명투쟁의 무기로서 당의 모든 활동은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투쟁이 없이는 당자체가 존재할수 없으며 발전할수도 없다.

당은 언제나 낡고 부패하고 로쇠하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을 통하여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강화발전하게 된다.

당원들이 혁명화되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속에서 자유주의, 공명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조건에서는 당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당규률을 어기는 현상들이 이러저러하게 나타날수 있다.

당원들속에서 나타나는 무규률적현상들은 크건작건 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저애하며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것으로서 반드시 극복되여야 한다. 이것은 오직 모든 당원들이 당규률을 어기는 그릇된 현상들과의 원칙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극복될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속에서 나타나는 당의 혁명적조직규률을 위반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조그마한것이라 하더라도 묵여두지 말고 제때에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울 때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통일은 더욱 튼튼하여지고 그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은 더욱더 높아지게 될것이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조직규률을 철저히 세우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으며 우리 당을 대를 이어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조직규률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당건설방침을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원문학습과 일군들의 학습기풍

현 동 관

오늘 우리 당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학습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키며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 원문학습을 실속있게 하도록 학습기풍을 바로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은 당원들의 학습에서 기본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의 혁명원리로 튼튼히 무장하여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의 원리들은 어느 부문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나 다 알아야 할 혁명의 량식이며 그것을 깊이 체득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집대성되여 있는 혁명의 백과전서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연구체득하기 위한 기본교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을 폭넓고 깊이있게 학습하여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 대중령도방법을 체득할수 있으며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정신도덕적 풍모를 원만히 갖출수 있다.

물론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해설하는 도서들과 제강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을 위한 참고서에 불과한것이며 주체사상학습을 위한 보조적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 원문을 투쟁과 생활의 교과서로 삼고 전반사상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을 그대로 몽땅 받아안을수 있으며 주체의 방법론을 깊이 체득하여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의도를 깊이 체득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은 끊임없이 심화발전되며 혁명투쟁방법도 시기에 따라 변합니다. 당은 혁명이 심화발전되고 정세가 변하는데 따라 거기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내놓습니다. 다시말하여 당은 매 시기 혁명의 과녁은 무엇이고 어디에 투쟁의 화력을 집중하며 당면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것과 같은 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모르고서는 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

Digitized by Google

원들과 근로자들은 꾸준히 학습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30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들에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 매 시기에 하시는 교시들에서 우리 당앞에 나서는 투쟁임무와 조성된 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들에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전략적인 로선뿐아니라 공업정책, 농업정책, 교육정책, 사법정책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치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여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투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에 밝혀져있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심오한 사상리론적내용을 가지고있는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도적지침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을 한글자한글자 따져가면서 깊이 학습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을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제기되고있는 현시기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는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거기에는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나가는 근본방향과 요구뿐아니라 공산주의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들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과 교시 원문에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되여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을 잘하여야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혁명적신조로 삼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교시 원문을 기본교재로 하여 그 전반사상과 내용은 물론 매 문장과 매 문구에 이르기까지 깊이 학습하여 거기에 담긴 참뜻을 새기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당의 이 요구에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철석같은 신조로 만들어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려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을 잘하여 자신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여기에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을 깊이있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에서 중요한것은 수령님께서 새로운 로작을 발표하시고 새로운 교시를 주시면 그 원문을 가지고 학습을 실속있게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을 제때에 깊이있게 하여야 수령님께서 매 시기 제시하시는 새로운 사상과 방침들을 순간의 지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수령님의 교시를 알지 못하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제시되면 그것을 해당한 일군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침투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개별학습과 집체학습을 인차 따라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가 제시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원문학습부터 진행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교시 원문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학습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 원문학습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여야 당정책을 전면적으로 파악할수 있으며 해당 로작에 담겨진 사상과 내용의 본질, 당정책의 정당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김일성저작선집》에 담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문헌들을 비롯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모든 고전적로작들과 교시들을 깊이 파고들어 실속있게 학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기 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다 환히 꿰들기 위한 학습에 모든 정력을 쏟아부음으로써 맡겨진 혁명과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교시 원문을 학습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 매 문장과 문구를 깊이 따지가면서 학습을 심화시켜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테제에는 구절구절마다에 깊은 사상이 담겨져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그저 몇번 읽어보는것으로 테제학습을 그치려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테제의 매 문장을 놓고 한글자한글자 따져가면서 깊이 연구하여 그 진수를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422～423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들에 담겨져있는 사상과 내용은 참으로 심오하다. 거기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으며 그 매 문장과 매 문구마다에는 깊은 뜻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교시의 구절구절을 따져가면서 깊이 연구하여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진수와 전반사상, 수행방도를 똑똑히 깨달을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을 반복하여 정독함으로써 수령님의 로작에 밝혀져있는 기본사상뿐아니라 중요한 명제와 새로운 술어 그리고 혁명적 문풍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을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을 옳게 조직지도하는것이 중요하다.

대상의 수준과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을 실속있게 조직지도하지 않고서는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슬수 없으며 학습에서 큰 성과를

Digitized by Google

기대할수 없다.

당조직들은 집체학습에서도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을 깊이 파악하도록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며 개별학습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을 깊이 파고들도록 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토론과 론쟁의 방법, 우리 당의 전통적학습방법의 하나인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하나를 배워도 똑똑히 알고 혁명과 건설에서 실지로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학습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에 대한 총화사업을 진행하는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을 놓고 얼마나 깊이 파악하고있는가 하는데 기본을 두고 옳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에 대한 자체학습을 정상적으로 깊이있게 하도록 학습내용을 장악통제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에 담겨져있는 모든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적방침들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였으며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진리이다.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하고 학습하는 목적도 어디까지나 그것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잘해나가자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 원문학습을 혁명적실천과 동떨어져서 명제와 문구나 외우는것으로 그쳐서는 거기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방침들을 정확히 파악할수 없으며 실천투쟁에 훌륭히 구현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은 반드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주체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실질적으로 써먹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묘술을 찾아내도록 학습을 하며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모두가 자기 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정통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교시 원문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집대성되여있는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이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필승불패의 위력한 무기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연구체득하는 기본학습교재인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 원문학습을 실속있게 하여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항일유격대식으로 일하는것은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담보

진 철 종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그것은 우리 당에 의하여 오늘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활짝 꽃피여나고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이 광범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것은 바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전선동사업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대중속에 깊이 침투되여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어진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는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은 당사상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진행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전통적인 선전선동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당의 의도에 맞게 선전선동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 선전선동사업이 참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1

항일유격대식으로 선전선동활동을 벌리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에 맞게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당사상사업은 일정한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상사업이 옳바른 형식과 방법에 의거하여야 사상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선전선동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당사상사업이 참말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과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힘있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에 당중앙이 내놓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는 매우 좋은 구호입니다. 지금 우리의 간부들은 당이 내놓은 구호에 따라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같이 호흡하면서 근로자들을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이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혁명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16페지)

선전선동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한다는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정치일군들과 공작원들이 광범한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벌리던 그 기풍과 방법대로 선전선동사

Digitized by Google

업을 진행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우리 당 선전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구체적실정에 맞게 간편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이끌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선전선동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선전선동방법,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당을 언제나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끊임없이 약동하고 전진하는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온갖 형식주의의 낡은 틀과 재래식방법을 극복하고 당사상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게 할수 있다.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은 무엇보다도 당사상사업을 우리 당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진행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군중을 교양하며 동원하는것이 정치이며 당은 여기에 커다란 힘을 돌려야 한다.

우리 당은 정치하는 당, 혁명을 령도하는 당이다. 우리 당은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따라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근본요구로 된다.

당선전일군들이 군중이 살고 혁명투쟁이 벌어지고있는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서는 숭고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게 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양시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도로 된다.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수준을 높일수 없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혁명과업수행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없다.

당선전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써가 아니라 지시하고 내려먹이는 방법으로 일할 때에는 대중의 심장을 움직일수 없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고무추동할수 없게 된다.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대중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높이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이 모든 요구를 가장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은 당사상사업을 대상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기동적으로 벌려나가게 하는 생동하고 창조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마다 성격과 체질이 다르고 준비정도가 다른것만큼 사람과의 사업을 일률적인 방법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람과의 사업은 해설과 설복을 위주로 하여 꾸준히 하여야 하며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4페지)

Digitized by Google

당사상사업은 다양한 대상을 가진 창조적인 사업이다. 사상사업의 대상인 사람은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능력,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르며 혁명초소도 다르다. 또한 그들이 맡고있는 혁명임무와 그것을 수행하는 조건과 환경도 다를뿐아니라 그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것만큼 사상사업은 하나의 틀에 얽매여놓을수 없으며 천편일률식으로 할수 없다.

당사상사업은 여러가지 대상과 환경, 조건에 맞게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잘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의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당사상사업에서 주되는것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데 있는것이며 결코 사상사업의 형식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다.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은 오직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데 복종할 때에만 의의를 가진다.

사상사업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사업을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알기 쉽고 더 헐한 방법으로 하나라도 더 많이, 더 빨리 군중속에 해설침투하겠는가 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당사상사업의 이러한 요구는 선전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대로 일할 때라야만 훌륭히 해결될수 있다. 바로 여기에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의 특징과 이 방법이 사상사업에서 전환을 가지오게 하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은 또한 당사상사업을 패기있고 진공적으로 밀고나가게 하는 전투적인 사업방법이다.

당사상사업은 투쟁력이 없이 늘크데하게 진행하는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전투적으로 패기있게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당사상사업은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상전의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쇠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사상교양, 사상투쟁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혁명적인 기풍으로 일하여야만 사상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침체와 답보, 로쇠를 모르고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움직이게 하는 전투적인 사업방법이며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을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에로 불러일으키는 적극적인 사업방법이다.

참으로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은 온갖 형식주의의 낡은 틀과 재래식방법을 마스고 당사상사업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로 된다.

선전선동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에 의하여 우리 당 사상사업은 온갖 낡은 틀에서 벗어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전통적인 방법대로 확고히 진행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뿐아니라 방법까지 그대로 받아안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될수 있게 되였다.

2

우리 당은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선전선동사업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당사상사업에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우리 당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전당에 사람과

Digitized by Google

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4페지)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혁명적본질과 기본요구들을 뚜렷이 밝히고 그것을 당선전선동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과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었다.

우리 당은 모든 선전일군들이 일정한 기간 아래에 내려가 조직정치사업을 하고 올라와 재무장, 재작전하고 다시 내려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선전선동사업을 천편일률식으로 하는 낡은 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고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간편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진행하며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사상사업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당선전선동사업이 온갖 낡은 틀과 재래식방법에서 벗어나 정치하는 당, 혁명을 령도하는 당의 본성에 맞게 참신하고 전투적으로 벌어지게 되였으며 사상사업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선전일군들이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기대와 밭머리, 배전으로 달려나가 군중과 같이 숨쉬면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을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선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튼튼히 준비되고있으며 그들속에서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이 확고히 서가고있다.

선전선동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됨에 따라 사람과 사회의 혁명적개조과정이 비상히 촉진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실로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이룩되고 있는 빛나는 성과는 항일유격대식으로 선전선동활동을 벌려나갈데 대한 혁명적방침의 정당성과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선전선동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선전선동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벌려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제도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당원들과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45페지)

당의 방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아래에 내려가도록 세워진 사업체계는 선전선동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업체계이다.

당선전선동사업은 사람들,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선전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야 일감을 찾을수 있고 선전선동사업을 벌릴수 있다.

모든 선전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하부말단까지 철저히 침투시키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선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사무실이나 책상머리에 들고앉아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침투할수 없으며 군중이 당정책을 얼마나 파악하고있는가를 알수도 없고 거기에 맞는 옳은 대책을 세워나

Digitized by Google

갈수도 없다.

일군들이 당이 세워준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직접 침투하여야 당의 목소리가 늘 군중속에서 힘차게 울리고 군중이 당의 숨결을 따라 한결같이 숨쉬게 할수 있으며 선전선동사업의 성과가 인차 은을 나타낼수 있다.

모든 선전일군들은 일정한 기간 아래에 내려가 사업하고 올라와 재무장, 재작전하고 다시 내려가는 혁명적사업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 혁명적사업원칙을 철저히 제도화해나갈 때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아래에 내려갈수 있으며 남을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정치사업을 하여 자기 손으로 수확을 거두어들일수 있다.

선전선동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리는것은 정치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학습회와 강연회,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을 다양하게 리용하여 선전선동활동을 벌려야 대중을 감동시킬수 있으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선전선동의 형식과 방법은 그 어떤 격식이나 틀이 아니다. 선전선동에는 그 어떤 요란한 격식이나 겉치레가 필요없다. 선전선동은 그 형식과 방법이 간편할수록 좋은것이며 그래야 장소나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기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선전선동은 어디까지나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인것만큼 그 형식과 방법도 어떻게 하면 대중을 더 잘 동원하겠는가 하는데 복종되여야 한다. 선전일군들은 선동연설이나 해설담화가 필요할 때에는 감동적으로 구두선전을 들이대야 하며 구호나 전투속보를 가지고 생산의욕을 북돋아주어야 할 때에는 박력있게 직관선전을 벌려야 한다.

선전선동사업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뿐아니라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오늘 충성의 돌격전으로 들끓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기백과 정열에 넘치는 격동적인 선전선동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선전선동사업을 항상 높은 호소성으로 맥박치게 하여야 하며 마디마디를 대중의 심장을 울릴수 있게 정력적으로 기백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전선동사업은 격식이 없이 일할 때에도 하고 작업장에 나가면서도 하며 들어올 때에도 하고 집체적으로도 하며 두세사람을 놓고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선전선동사업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격동시킬수 있으며 그들을 로력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당의 의도에 맞게 선전선동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전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부문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며 모든 간부들이 자기 사업과 결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24페지)

선전일군이라는것은 결코 그 어떤 《명예》직이 아니다. 당선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초소를 맡고있는 일군들이다. 따라서 당사상사업에서의 성과는 선전일군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선전일군들이 자신이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정치실무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당선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원문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의 기본사상과 내용은 물론 매 문장과 문구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담겨진 참뜻을

Digitized by Google

깊이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정세학습을 잘하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아야 하며 과학기술을 성실히 배우고 문화적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당선전일군들은 언제나 정열적으로 꾸준히 학습하는 독학가, 정연가가 되여 일상적으로 책읽는것을 습성화함으로써 온 사회에 책읽는 기풍을 세우는데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선전일군들은 확고한 당정책적안목과 넓은 식견을 가지고 대상의 특성에 맞게 정치사업을 능란하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선전선동사업을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선전일군들은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선전선동사업준비를 착실하게 하여야 한다.

선전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현실적으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강연제강, 선동자료들을 만들어야 하며 그 내용을 광범한 대중이 다 리해할수 있도록 재미있게 통속적으로 써야 한다. 또한 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직관물같은것도 잘 준비하여야 한다.

선전선동사업은 당조직들이 직접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당선전선동사업은 수많은 일군들을 동원하고 광범한 군중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사업인것만큼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옳게 조직진행할수 없다.

당조직들은 선전선동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당위원회적으로 작전하고 포치하고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하며 선전선동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근기있게 벌리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선전선동일군들을 위한 강습, 경험교환회, 방식상학 등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그들에게 정치사상적량식을 주고 학습지도방법이나 강연선동방법을 잘 배워주어야 한다.

당 및 행정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은 다 당의 선전선동력량이다. 간부들은 대중의 교양자이며 정치사업은 간부들의 본분이다.

당조직들은 당일군들이 앞장에 서고 모든 간부들이 다 한몫씩 맡아 선전선동활동을 벌리게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늘 대중정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이 보다 높은 단계로 심화되고있는 오늘 당선전일군들이 지닌 임무는 실로 책임적이며 그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

모든 당선전일군들은 선전선동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릴데 대한 당의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숭고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하는 것은 당적령도의 기본요구

리 길 송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와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고 있다.

영광스러운 주체의 기치따라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온 우리 당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전체 인민대중을 더욱 힘있게 조직동원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방대한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벅찬 현실은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로 하여금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불러일으킬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과 그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옳게 인식하고 당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 *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이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훌륭히 개조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는 로동계급의 당의 옳바른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진행되여야 승리적으로 진척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경제건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하는가 하는것은 경제사업의 성과는 물론 당 및 국가 사업의 모든 문제들,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권위를 끊임없이 높이면서 경제사업을 틀어쥐고 옳바로 지도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경제건설을 지도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해설선전하고 그들의 앞장에 서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5페지)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행정경제사업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에 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한다는것을 말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당사업자체의 요구로부터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지도는 응당 정치적지도로 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혁명조직들을 령도할 사명을 지닌 가장 높은 형태의 조직이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통일적

Digitized by Google

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당은 행정경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것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의 사업을 맡아보는 기관과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당은 경제사업을 물질기술적으로 보장하는 행정경제기관과는 달리 그것을 당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적령도기관이다.

따라서 당사업은 언제나 대중을 당의 경제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창조적인 사업, 정치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결국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명령하고 지시하며 문건이나 받아내는것과 같은 행정식방법이 아니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립장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당경제정책수행에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조직정치사업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정치적지도로 되여야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킬 때만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거창한 투쟁과업이라는것과도 관련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정이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이다.

경제건설의 주인은 곧 인민대중이며 그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정치적방법으로 진행될 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각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여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라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참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지도와 대중,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결합시켜 나갈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가장 현명하고 정당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을 밝혔을뿐아니라 당의 정치적지도를 실현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뚜렷이 밝혔다.

당이 제시한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는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 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제때에 풀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 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제때에 풀어나간다는것은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 문제가 어떻게 집행되고있는가를 늘 알아보고 그것을 풀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한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 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당적지도를 보장할 때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것은 나라의 전반적형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을 선차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 문제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며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으며 경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더욱 힘있게 개조할수 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

Digitized by Google

고 의도하시는 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그것을 제때에 풀어나가는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원칙이다.

장악하고 통제하는 조건에서 지오하는것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따라 옳바로 사업해나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며 당정책집행정형을 늘 검열하고 총화하고 재포치하여 당정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철저히 관철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89페지)

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집행정형을 늘 알아보고 총화하며 재포치하여 수령님의 교시를 중도반단함이 없이 철저히 관철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는것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기본요구이다.

행정경제사업이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경제기관들의 활동이다. 당정책은 당의 령도밑에 행정경제기관들과 일군들의 활동을 통하여 그 집행이 조직되고 관철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이 행정경제기관들의 활동을 늘 장악통제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의 집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고 그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옳게 이끌어주고 밀어줄수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워주고 대중을 경제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자면 늘 행정경제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각오정도 등 아래실태를 환히 꿰들고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가 대중의 힘과 지혜,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참다운 당적지도로 되게 할수 있다.

이처럼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 원칙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한것이며 민주주의에 기초한 당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지도원칙으로 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또한 사상전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사상전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은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기본고리를 사상전에서 찾고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지도한다는것을 말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사상전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은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침투시키며 제기된 경제과업의 목적과 의의,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혁명의 전진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들과 혁명의 주인답지 못한 태도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사상전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은 이처럼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사상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원칙들은 당사업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며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다그

치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혁명을 지휘하는 정치적참모부로서의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이게 하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이 혁명적인 방침에 의하여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당사업의 중요구성부분으로 틀어쥐고 더욱 실속있게 구현해나가게 되였으며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고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게 되였다. 또한 당내부사업과 경제지도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굴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실천투쟁속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 교시를 높이 받들고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령마루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충성의 《70일전투》와 공화국창건 30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100일전투》의 나날들은 당의 정치적지도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주체사상의 빛발로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은 대전투의 명확한 방향과 공격목표를 뚜렷이 밝혀주고 전례없이 통이 크게 작전을 벌리고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당은 사상전의 위력한 무기와 참신하고 패기있는 조직지도사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 어려운 대전투를 령활하게 이끌어나갔다. 《70일전투》와 《100일전투》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는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과 혁명적인 령도의 위대한 결실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지도는 정치적지도로 되여야 한다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은 우리 혁명의 실천행정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경제사업을 정치적방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히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옳게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경제사업을 정치적방법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옳게 지도하기 위한 방도들가운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의 활동의 기본은 집체적지도입니다. 당위원회들은 해당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당정책에 근거하여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사업방향을 결정하며 분공을 조직하고 력량을 옳게 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71페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옳게 보장하는것은 당을 강화하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를 옳게 보장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가장 정확한 투쟁 방향과 방도를 세울수 있으며 당조직들과 일군들을 옳게 발동시키고 생산자대중을 혁명과업수행

Digitized by Google

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집체적지도를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인 것은 당위원회가 경제사업을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서 전반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것이다.

해당단위의 경제사업을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분공을 조직하며 일을 포치하는것은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당위원회는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대책과 방도를 세울 때에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구체적으로 짜고들며 일군들에게 분공과 임무도 주도세밀하게 주고 그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훌륭히 수행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위원회는 또한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경제부서들의 배합 및 협동작전을 잘 조직하여 전반사업을 경제과업수행에 옳게 지향시키고 거기에 복종시켜나가며 행정과 근로단체들에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경제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적극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만일 당위원회가 해당시기 제기된 경제과업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업을 널어놓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상동원사업으로 당적지도를 대치한다면 경제사업에서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당 및 근로단체, 행정의 모든 사업이 동인한 경제과업수행에로 화력을 집중할 때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특히 당위원회가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밀착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조직사업과 정치사업에 의하여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는것만큼 이 두가지를 다같이 잘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를 옳게 보장하여 당일군들은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행정경제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경제실무적으로 생산을 보장하도록 하여야만이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나갈수 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나가는 문제를 가장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것이 바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공장당위원회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과 모든 근로자들을 경제과업수행에로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우리 당이 밝힌 경제사업을 정치적방법으로 옳바로 지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또한 당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관점을 옳게 가지고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거나 경제사업에서 물러서는것과 같은 현상을 다같이 없애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당일군들이 행정을 대행하는 경향과 당내부사업에만 몰두하면서 경제사업에 낯을 돌리지 않는 경향을 다같이 경계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을 제쳐놓고 모든 일을 자기가 도맡아해야 잘될것처럼 생각하면서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는 그릇된 관점과 사업태도를 철저히 없애고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9페지)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에서 그러한것처럼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옳게 지도하는 문제도 구경은 당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지도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정치조직이며 당일군들은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대중을 움직이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정치사업을 해야한다.

만일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면 경제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인 행

정경제일군들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일수 없게 되며 생산자대중을 당의 경제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없게 된다. 뿐만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옳게 장악지도할수 없으며 사업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를 면할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당사업도 잘될수 없고 경제사업도 제대로 될수 없으며 나아가서 당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데까지 이를수 있다.

당일군은 결코 자재나 로력과 같은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행정경제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이 자립적인 활동으로 본신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내세워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을 제처놓고 모든 일을 자기가 도맡아해야 잘될것처럼 생각하는 현상의 사소한 표현도 없애고 언제나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해야 한다. 경제사업이 잘될 때에는 물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고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정치적방법으로 더 잘 지도하기 위해 발벗고나서며 대중을 깨우쳐주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나가는것이 당일군의 일본새이다.

경제사업을 대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내부사업에만 힘을 넣으면서 행정경제사업을 외면하는 현상도 없애야 한다.

당내부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는 당사업의 중요한 두 측면이다. 경제건설을 떠난 당사업, 당조직사업이란 아무런 의의가 없다. 당조직사업도 결국은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며 당사업의 성과도 경제사업에서 나타나야 한다. 당사업에 대한 평가도 경제사업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에 따라 해야 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정형도 경제과업 수행정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당내부사업에 힘을 넣는다고 하여 행정경제사업에서 물러서거나 그 뒤끄리를 따라서는 안되며 정치사업을 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경제과업수행에로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 당이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시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커다란 예비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에 있다.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으로 생산자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경제과업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경제과업을 빨리 그리고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가장 우월한 방법은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한편 그들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경제과업이 제기되면 행정적으로 경제실무적인 사업조직을 하기전에 당위원회는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고 분공을 주며 모든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은 방도가 명확치 않은 일반적인 호소나 말로써 해서는 큰 성과를 거둘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대상과 과업을 놓고 그 해결에로 당조직들과 일군들, 모든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경험은 책임일군들이 경제과업을 수행하면서 제기된 문제처리를 위해 여러가지 동원사업을 벌리거나 아래일군들을 자주 모여앉게 하는것보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자신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도록 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더 위력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책임일군들이 솔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투쟁과 혁신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갈 때 그것은 근로자들에게 비할바없이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게 된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경제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자면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제선동은 군중을 당면한 당경제정책집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대중정치사업방법이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릴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앙양을 이룩하고 모두가 다 패기와 열정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 방송선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며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창조적기백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경제선동을 비롯한 대중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이룩되는 혁신적성과들을 제때에 일반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관철정형을 옳게 장악통제하며 이룩되는 성과와 경험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일반화함으로써 모든 단위들에서 련대적혁신이 이룩되게 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을 정치적방법으로 옳게 지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또한 당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는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90페지)

경제건설을 정치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사업은 어려운 창조적인 사업이다. 경제과업수행에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업은 결코 당일군들의 인성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되며 거기에 반드시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정치실무적자질이 높아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로 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능숙하게 해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 행정경제사업의 모든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며 경제사업전반을 옳게 장악지도할수 있다.

당일군들이 정치실무적자질이 높아야 공장에 낯을 돌리고 로동계급이 일하는 전투장에 깊이 들어갈수 있다.

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이 높지 못하면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도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진실로 도움을 줄수 없으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지도를 따라세울수 없다. 또한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과 대중의 지향에 맞게 사업방법을 개선해나갈수 없다.

당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 구상대로 경제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사업인것만큼 당일군들자신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들을 환히 꿰들고 그를 자로 하여 일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대중을 능숙히 조직동원하기 위한 령도방법, 령도예술을 체득하며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공업경영학, 농업경영학을 비롯한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지식도 소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회의도 잘 지도하고 대상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강연도 참신하고 실감있게 할줄 알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일군들은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가진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열렬한 옹호관철자,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동원하는 능숙한 조직자가 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중운동

서 윤 석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 전인민적인 대진군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가 달라지고 대중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백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하여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이 운동을 발기하고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위대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으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야말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가는 혁명적대중운동이라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의 기치따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하고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수행에서 확고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1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25페지)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재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된다. 모든 문제는 인민대중이 결정하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대중에 의거하며 그들을 발동하는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근로인민대중의 기세를 늦춤이 없이 계속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새로운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힘있게 이끌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켜왔다.

우리 당은 전후 어려운 시기에 대중의 앙양된 기세와 혁명발전의 성숙된

Digitized by Google

요구를 반영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천리마운동을 일으킴으로써 혁명적대고조의 새 력사를 창조하였다. 천리마운동의 대고조속에서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례없는 일대 앙양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게 되였다. 이 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의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우리 나라를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하는 과정에 우리 혁명은 참으로 먼리 전진하였다.

우리 당앞에는 천리마운동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거대한 사회경제적변혁에 토대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섰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숭고한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우리 당은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열렬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을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기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당이 발기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으로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0페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달려온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군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를 반영하고있다. 이 운동의 본질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3대혁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가는데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람과 사회, 자연을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에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

Digitized by Google

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높은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다.

근로인민대중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는것은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주인이며 그 창조자이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기본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드는것이다.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없으며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없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품성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을 주되는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에서 기본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것이다. 주체의 혁명관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닐 때만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로 하여금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체득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게 한다.

참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어렵고 복잡한 인간개조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위력한 사상개조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또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기술개조운동으로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기술혁명을 다그쳐 나라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며 그들에게 참다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자체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뿐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경제와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여나가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로동생활에서까지 평등을 실현하고 그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3대기술혁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여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게 한다. 이 운동은 대중적인 투쟁으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인민경제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며 기술수단들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해나가게 한다.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보다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끊임없이

Digitized by Google

요구를 반영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고 천리마운동을 일으킴으로써 혁명적대고조의 새 력사를 창조하였다. 천리마운동의 대고조속에서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례없는 일대 앙양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게 되였다. 이 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의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우리 나라를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하는 과정에 우리 혁명은 참으로 멀리 전진하였다.

우리 당앞에는 천리마운동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거대한 사회경제적변혁에 토대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섰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숭고한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우리 당은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열렬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을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기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당이 발기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으로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0페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달려온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군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를 반영하고있다. 이 운동의 본질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3대혁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가는데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람과 사회, 자연을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에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

Digitized by Google

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높은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다.

근로인민대중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는것은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주인이며 그 창조자이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기본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드는것이다.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없으며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없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품성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을 주되는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에서 기본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것이다. 주체의 혁명관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닐 때만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로 하여금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체득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게 한다.

참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어렵고 복잡한 인간개조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위력한 사상개조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또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기술개조운동으로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기술혁명을 다그쳐 나라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며 그들에게 참다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자체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뿐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경제와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여나가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로동생활에서까지 평등을 실현하고 그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3대기술혁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여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게 한다. 이 운동은 대중적인 투쟁으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인민경제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며 기술수단들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해나가게 한다.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보다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끊임없이

Digitized by Google

발전시켜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게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또한 문화생활령역에서 사람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문화개조운동이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에 기초하고있다.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있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가장 높은 공산주의적문화의 확립에 의해서 실현된다. 사람들이 문화적락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참다운 공산주의적문화의 향유자로 될수 없으며 따라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없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문화혁명과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며 그들의 날로 높아가는 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게 한다.

현시기 문화혁명에서 우리 당이 제기하고있는 중심과업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빛나게 실현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대학졸업정도에 이르게 할데 대한 문화혁명의 최종단계의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는 당면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고중졸업정도의 일반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소유한 지식있고 능력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드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또한 이 운동에서는 주체적인 문학예술을 군중적토대우에서 더욱 개화발전시키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적운동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간다.

이리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문화혁명의 높은 단계의 과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훌륭히 준비시킨다.

실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가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전인민적대진군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그 독창성과 위대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추동하고있으며 대중운동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새로운 기여로 된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같은 전인민적대중운동을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인간개조사업과 경제, 문화, 국방 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조직화하고 심화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강의한 투지를 안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초소마다에서 끊임없이 대중적혁신과 로력적위훈을 창조하며 패기와 정열과 신심에 넘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발기는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인민대중의 역할을 비상히 높일수 있는 새로운 길, 위력한 대중운동형태의

Digitized by Google

새로운 발견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대중운동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로동계급의 당이 발기하고 이끄는 대중운동은 반드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워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참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이 벌려야 할 혁명적대중운동의 귀중한 본보기로 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2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빛나는 열매를 맺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군중을 동원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27페지).

혁명운동, 대중운동의 승리적전진은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혁명적령도는 혁명투쟁, 대중적혁신운동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대중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방침을 받들어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오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전례없이 거창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당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음으로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힘있게 벌어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위대한 대중운동은 수백만 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적구호에 의해서만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다. 시대와 혁명의 요구, 대중의 숭고한 념원과 혁명적지향을 옳게 반영한 적중한 혁명적구호는 대중운동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상, 기술, 문화를 철저히 개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투적구호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이 그대로 반영되여있으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목표와 방향, 그 본질과 기본요구가 집약적으로 담겨져있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는 인민대중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로 힘있게 추동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이 구호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끝없는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도들을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이 운동을 전당적, 전사회적 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전시켜나

Digitized by Google

가기 위하여 우리 당이 취한 중요한 조치의 하나는 해당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단계와 목표, 매 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을 정확히 규정하도록 한것이다.

대중적혁신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단계와 목표, 투쟁과업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며 이 운동을 편향없이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 벌리는 대중운동인것만큼 해당단위의 실정에 맞게 단계를 옳게 설정하며 매개 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을 정확히 내놓고 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근로자들의 신심과 용기를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이 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려나가는데서 단계와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과업을 설정하고 투쟁을 벌려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은 이 운동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중요한 당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이 운동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이 발기한 운동이며 당의 전략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그것은 마땅히 당적인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적인 사업으로 되게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해나가도록 함으로써 모든 당조직들이 이 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모든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내세우고 있는 과업을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하고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지도도 이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나가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이끌어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취한 조치는 또한 3대혁명소조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한것이다.

3대혁명소조는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직된것이며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이 직접 장악하고 지도하는 운동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이다.

우리 당이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 목적은 일군들을 일깨워주고 적극 도와주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는데 있다.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함으로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 운동을 당의 의도에 맞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였다.

실로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져 이르는곳마다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전례없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날수 있게 한 결정적담보였으며 힘의 원천이였다.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힘있게 벌어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생활과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속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다그쳐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에 기초한 우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이 불패의것으로 다지겼다. 온 사회는 주체사상으로 힘있게 맥박치고 있으며 그 어느때보다도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기백으로 차넘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높이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가 더욱 강화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짐으로써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가 널리 실현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현대과학기술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며 생산문화,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평양시 계관군위만경대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계관군위만경대협동농장, 평양화력발전소 청년열생산직장, 평양종합방직공장, 직포종합직장 4직포직장 등 여러 단위들이 이미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으며 그 대렬은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

이렇듯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이룩되고있다. 생활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추동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가장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는 위력한 대중운동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9~20페지)

오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가는것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럽고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기수가 되고 투사가 되는것보다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이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고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드는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조직들은 일상적으로 실태를 정확히 장악한 기초우에서 구체적인 설계와 방법론을 가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이 운동에 대한 평가와 총화사업을 잘하고 좋은 경험과 긍정적모범을 널리 일반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밑에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백두밀림에서 발휘하였던 그 숭고한 혁명정신과 억센 투지를 지니고 언제나 승리에 대한 신심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제2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이룩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심 상 진

일군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할 때에는 언제나 아래일군들에게 과업을 명백하게 주어야 하며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일군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한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 모든 단계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며 우리 당에 있어서 고유한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그전에 항일유격투쟁을 할 때 군중공작은 더 말할것도 없고 대원들에게 정찰임무를 주어 내보낼 때에도 모든 가능성을 타산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것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었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3권, 27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나날, 어렵고 복잡한 정치, 군사적 임무수행에로 혁명전사들을 조직동원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조성된 정세와 구체적인 정황에 맞게 해당한 방법론을 일일이 세워주심으로써 모든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군사정치활동의 모든 분야에 걸쳐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 일군들의 준비정도 등 모든 주객관적조건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세워주시였으며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과 정치일군들에게 혁명임무를 주실 때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하나하나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을 정찰하러 내보내실 때에는 떠나갈 때에는 어느 길로 가며 벌방을 지날 때에는 주위를 잘 살펴보고 위험하지 않으면 지나가고 위험하면 숲속에 숨어있다가 어두워진 다음에 지나가든지 다른데로 에돌아가며 돌아올 때에는 어느 길로 오라는 식으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대주시군하시였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이 매번 정찰임무수행에서와 적과의 싸움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에도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는 그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주시였으며 개별적일군들에게 과업을 맡기실 때에도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일군들에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하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맡겨진 혁명과업을 실속있게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일군들의 사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Digitized by Google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이 일군들의 사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제시된 혁명과업을 철저히 집행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옳은 방법론을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언제나 중요하게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투쟁방향과 뚜렷한 목표가 세워질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이 옳게 세워져야 한다. 제시된 과업은 그 수행방도를 요구하며 설정된 투쟁목표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요구한다.

우리의 혁명투쟁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 정책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을 통하여 관철된다. 지도일군들이 조직지도사업을 어떻게 하며 어떤 방법으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가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히 세워진 다음 사업에서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그것을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 여하에 달려있다. 정확한 투쟁목표에 옳은 사업방법을 따라세워야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옳게 세워가지고 일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며 모든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당사업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옳게 세워가지고 일하는것은 다른 어떤 행정경제사업에서보다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옳게 세우는것은 당사업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있을뿐이며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확고히 실현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한편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조직적선봉부대이며 당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그자체가 사람과의 창조적인 사업이다.

당사업의 대상인 사람은 저마다 그 준비정도가 서로 다르며 그들이 처한 구체적환경이 같지 않을뿐아니라 그들앞에 나서고있는 혁명과업도 각이하다.

이로부터 당사업에서는 모든 일을 하나의 틀에 얽어매놓고 천편일률식으로 처리할수 없다. 당사업은 창조적인 사업인것만큼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수시로 변동되는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업에서는 사업의 유일성에 기초하여 사업방법에서의 창조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야 한다.

당사업에 고유한 창조적성격은 곧 일군들의 활동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옳게 세워야 할 필요성을 규정해준다. 다시말하여 당사업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옳게 세우는것은 당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능동적으로 그리고 실속있게 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모든 당조직들이 살아움직이는 생기발랄한 조직이 되고 모든 일군들이 당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자면 주어진 방향과 제시된 과업에 따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한다. 진지한 탐구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며 옳은 방

Digitized by Google

법론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당사업을 그 본성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

사상에서의 유일성과 방법에서의 창조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당사업만이 우리 당을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 패기있고 진투력있는 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현시기 일군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 문제는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의 잔재를 뿌리뽑고 당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낡은 사상잔재의 작용에 바탕을 두고있는 동시에 옳은 방법론이 없이 일하는데서 생겨나기때문이다.

모든 당 및 국가행정, 경제문화 기관 일군들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할데 대한 당의 원칙적요구를 가슴깊이 새기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해야 한다.

혁명실천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운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제때에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찾는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더 잘, 더 빨리 달성할수 있는 묘술을 찾아낸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묘술을 찾는다는것은 결코 그 어떤 우연적인 요행수를 바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에서 가르치는 묘술이란 당의 방침을 실속있게 더 잘 관철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그렇기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론을 옳게 세우는데서 나서는 가장 선차적이고 근본적인 요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 정책, 방침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사업의 혁명적본질과 옳은 방법론을 세우는 목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요구이다.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며 당사업은 곧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는데로부터 출발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나가는것을 확고부동한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로부터 모든 일군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자신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는 우리가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방향과 과업이 뚜렷이 제시되여있을뿐아니라 그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다 제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이며 모든 사업에서 옳은 방법론을 세우기 위한 사상리론적기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다. 위대한 주체사

상의 보물고에는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사상, 리론적무기만이 아니라 방법론적무기도 다 갖추어져있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언제나 신심에 넘쳐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내달릴수 있게 하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제기된 혁명임무수행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일군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주체의 령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장구하고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몸소 창조하신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실천적모범을 따라배워 그것을 실지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은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몸소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수령님식사업방법에 의해서만 철저히 구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가장 고결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탁월한 령도예술을 구현하고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리론으로 무장하는 동시에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진수를 체득하고 실지사업에 구현할줄 아는 일군만이 참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실속있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진수를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 빛나는 실천적모범을 열심히 따라배워야 하며 그것을 실지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의 하나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것이다.

현실은 언제나 복잡하고 다양하며 끊임없이 변천된다. 그리고 당사업은 그 자체가 끝없는 창발성을 요구한다.

일군들의 주관적욕망이나 단편적인 경험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오늘의 벅찬 현실적조건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옳은 방법론이 나올수 없다. 참말로 일을 창조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우려면 생동한 현실,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벌어지는 불꽃튀는 현실속에서 대중과 의논하여 진지하게 탐구해낸 방법론, 구체적인 실정과 환경, 조건에 맞는 방법론만이 가장 실속있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제기된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과업이라도 혁명초소가 다르고 사업대상이 다르면 그 수행방도가 꼭같을수 없다.

문제는 모든 일군들이 제기된 혁명과업을 한가지 처방에 의하여 손쉽게 처리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진지하게 탐구해낸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매개 단위, 매개 초소에서 구체적인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당에 대한 충실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객관적현실을 옳게 반영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해당 부문, 해당단위의 전반적실태를 해부학적으로 세밀히 료해분석하고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한 기초우에서만 온갖 주관주의, 경험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실지사업에서 실효성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법론을 세울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고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들의 사상동태로부터 물질기술적조건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실태를 손금보듯이 꿰뚫고 여러 부문들의 복잡한 유기적련관속에서 본질적인 측면들을 식별하여 문제해결의 고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해당 부문, 해당단위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울수 있으며 문제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묘술을 찾아낼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는것은 구체적방법론을 정확히 세울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여러 사람이 모여앉아 제기된 혁명과업을 놓고 그 수행방도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완성되는것이다. 그것은 집체적지혜를 모으고 여러가지 창발적의견들을 종합해야 당의 의도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할수 있을뿐아니라 문제해결의 묘술을 더 정확히 찾을수 있기때문이다. 집체적힘은 개별적인 힘보다 비할바없이 위력하며 대중의 집체적지혜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총명하다.

집체적 힘과 지혜에 의거하는 길만이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가장 빠른 기일안에 더 잘 수행할수 있는 구체적방법론을 찾아내는 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놓고 어떻게 하면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온갖 내부예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조직동원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더 잘, 더 빨리 관철할수 있겠는가를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집체적협의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도 하고 련관된 부문들과도 하며 아래단위에 내려가서도 거듭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해나가기 위한 방법론도 찾아내고 아래사람들에게 대주어야 할 방법론도 탐구해야 한다.

집체적지혜에 의거한다는것은 결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기계적으로 종합하는데 그치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체적방법론은 집체적지혜의 산물인 동시에 개별적일군들의 진지한 탐구의 열매이기도 하다.

구체적방법론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조직자인 지도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정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리론수준과 함께 실무수준도 높여야 한다.

더우기 현실은 부단히 변화하며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고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비약적으로 전진한다.

모든 일군들은 사소한 답보와 안일도 허용하지 말고 급속히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새로운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구체적방법론을 더욱 세련시키고 완성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구체적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그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하며 외줄로 과업만 주고 지시만 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방법론을 주면서 쌍줄을 타고 사업을 빈틈없이 조직하는 깐진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

일군들이 구체적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 때 모든 문제를 신심에 넘쳐 통이 크게 능동적으로 처리해나갈수 있으며 언제나 사업에서 높은 성과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당정책관철과 일군들의 높은 요구성

김 재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은 오늘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모든 지도일군들이 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통때에는 사람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놀기도 하며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면서도 사업에서는 이악하고 강한맛이 있어야 합니다. 일군들에게 과업을 준 다음에는 그것을 반드시 집행하도록 강하게 통제하며 일군들이 일을 잘하지 않을 때에는 엄격히 비판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541페지)

사업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는것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지도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며 혁명가적기풍의 하나이다.

사업에서 원칙적인 요구성을 높인다는것은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을 힘있게 틀어쥐고 조직전개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자기자신과 아래일군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 당정책집행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총화하며 끝장을 볼때까지 강하게 내민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혁명가적 품성과 일본새는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의 표현이며 사업을 혁명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전투적기풍의 발현이다.

사업에서 원칙적인 요구성을 높이는것은 지도일군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지휘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지도일군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전달침투되며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집행하는것도 바로 지도일군들이다. 따라서 당의 로선과 정책이 얼마나 폭넓고 깊이있게 관철되여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이 어떻게 아글타글 애쓰면서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곧 혁명투쟁이다.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쥔 우리 일군들이 혁명과 건설의 매개 단위, 매개 초소에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요구성을 높이며 모든 일을 패기있게 밀고나갈 때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다.

현실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요구성을 높이는 곳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이 드팀없이 관철되여 나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군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임무수행에서 언제나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여야 한다.

만일 일군들이 자기의 숭고한 임무를 자각하지 못하고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응당한 요구성을 높이지 않고 팔방미인격으로 일해나간다면 근로자들을 창조와 혁신에로 불러일으킬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사업에서 요구성을 높이는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당이 준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혁명적 립장과 기풍에 관한 문제이다. 자기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요구성을 높여야

Digitized by Google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며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더우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사회주의건설과업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사업에서 원칙적인 요구성을 높여나갈것을 제기하고있다.

오늘 우리 지도일군들앞에는 새 전망계획의 보람찬 전투를 보다 책임적으로 능숙하게 지휘해나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고있다. 이것은 지도일군들이 높은 조직적수완과 사업에 대한 강한 요구성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패기있게 혁명적으로 벌려나갈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는 거창한 투쟁과업이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당적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뿐아니라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힘있게 내밀어야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집행정형을 늘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며 미진된 문제들이 끝까지 수행되도록 강하게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아래사람들을 어루만지기만 하면서 이미 준 과업에 대하여 료해장악도 하지 않고 독촉도 하지 않으며 힘있게 내밀지 않는다면 결코 사업을 빨리 다그쳐나갈수 없다.

일군들이 로숙한체하면서 원칙적인 요구성을 높이지 않고 지낸다면 그것은 결국 일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편안히 앉아서 자리지킴이나 하려는 안일해이한 사업태도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빨리 반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지도를 따라세울수 없으며 근로자들을 끊임없는 투쟁과 혁신에로 불러일으킬수 없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사업에서 높은 요구성은 결코 관료주의가 아니며 그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옳은 일을 강하게 집행하는것은 관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뿐아니라 관료주의자라는 말을 들을가봐 옳은 일도 강하게 집행하지 않고 벌벌 떠는 소극분자들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2권, 114~115폐지)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열화같은 충성심의 발현이다. 원칙적요구성은 제기된 혁명과업을 가장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높은 당적책임성으로부터 나온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업에서 보다큰 성과를 이룩하게 된다.

높은 요구성은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옳게 결합될 때 비로소 참다운 사업기풍으로 된다. 요구성을 높인다고 하여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거나 무턱대고 큰 소리나 처서는 안된다. 일군들은 사업에서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면서도 어디까지나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지고 대중을 아량있게 대하여야 한다.

요구성을 높인다고 하여 군중의 의사와 지향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내리누르는것과 같은 관료주의적경향을 나타내서는 안된다.

관료주의는 군중의 리익을 어기면서 사업을 내려먹이는 반인민적인 통치방법이다.

높은 요구성을 가지고 일하는 일군들

Digitized by Google

은 언제나 근로대중을 끝없이 존경하고 신뢰하며 혁명동지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실천적투쟁으로 모범을 보인다.

원칙적인 요구성을 가지고 일하는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에서의 높은 책임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강하게 문제를 세우고 사업을 이악하게 혁명적으로 밀고나간다.

그러나 관료주의자들은 아무런 원칙성도 없이 허장성세하면서 걸치레하기를 좋아하며 주관주의적으로 실속없이 일을 처리한다.

이와 같이 사업에 대한 원칙적요구성과 관료주의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혁명하는 시대에 살며 일하는 일군들이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하지 않으며 로숙한체하면서 점잔을 빼고 무맥한 《호인》처럼 지내서는 안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높은 요구성을 가지고 끊임없는 투쟁속에서 사업을 전진시키고 전개해나가야 하며 당에서 한가지 사업을 포치하면 둘, 셋을 전개할줄 알며 당이 백프로를 요구하면 이백프로, 삼백프로를 해내는 기풍으로 사업해야 한다.

이렇게 일하는 일군이 바로 우리 당이 요구하는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일하는 참다운 일군이다.

실천적경험은 사업에 대한 원칙적요구성이 높은 일군들은 언제나 충성의 열도가 뜨겁고 패기와 혁명적열정이 차넘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훌륭히 관철해나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듯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요구성을 높이는것은 당과 혁명의 리익,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일군들이 확고히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우리 혁명과 건설은 멀리 전진하여왔지만 우리앞에는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만족할수 없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일군들이 맡은 사업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에서 원칙적인 요구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당원의 자격이 없으며 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3페지)

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하고 사업에서 원칙적인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지 못하는것은 결국 그들이 주체의 사상관점과 립장이 확고히 서있지 못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높은 자각과 강한 요구성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립장과 방법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주체적 립장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옳게 분석판단하고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강하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온갖 그릇된 현상과의 투쟁도 원칙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원칙적요구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일군들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환히 꿰뚫고있어야 한다.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면 당의 의도와 요구를 옳게 구현할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요구

성도 제기할수 없다. 당정책은 일군들의 정책적안목과 시야를 넓혀주며 그들이 당의 의도와 요구를 똑똑히 알고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정치사상적량식으로 된다.

일군들은 무슨 일을 수행하든지간에 그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하며 일단 사업을 포치하고 전개할 때에는 언제나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조직하고 집행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사업에서의 원칙적요구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사업에 대한 요구성은 어디까지나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떠밀어주는데 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이 사업에 대한 요구를 제기할 때에는 언제나 대상의 준비정도와 능력, 사업내용과 사업조건 등 객관적실태에 대한 정확한 료해와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론적지도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사업을 뒤받침해주어야 한다.

요구성을 높인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준비정도와 능력, 사업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그리고 방법론도 주지 않고 덮어놓고 하라고 강조와 독촉만 해가지고서는 일을 제대로 추진시켜나갈수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실상 관료주의적으로 내려먹이는것과 같은것이다.

일군들이 아래사람들에게 요구성을 높이자면 반드시 사업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수행방도를 세밀히 가르쳐주어 그들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고 신심에 넘쳐 일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포치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그 집행정형을 늘 료해장악하고 정확하게 총화해야 한다. 사업을 포치만 하고 아무런 장악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지도일군의 사업태도가 아니다. 일군들은 일이 잘 진척되지 않으면 가슴아파하고 일이 잘되도록 바로잡아주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끊임없이 사색하고 움직이도록 발동을 걸어주고 떠밀어주어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요구성을 높이면서도 작풍에서는 겸손하고 소탈하고 너그러워야 한다.

아래사람들에 대한 일군들의 요구성은 원칙적이고 엄격하면서도 절절하여야 하며 친절하고 아량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너그럽고 아량있게 대한다는것은 결코 사람들을 무원칙한 《호인》격으로 대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성은 엄격하고 원칙적이여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요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일부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관료주의적사업작풍과 국가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지 않는 고용살이근성, 무책임성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직업동맹사업에 대하여》, 59페지)

사업에 대한 강한 요구성은 락후와 침체, 답보와 보수를 반대하고 부단히 혁신하고 전진하려는 투쟁속에서 더욱 높이 발휘된다. 결함을 융화묵과하는것은 일군들의 일본새가 아니며 도대체 이런 일군들은 제기된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수도 없고 아래사람들을 똑바로 교양할수도 없다.

무책임하고 되는대로 일하는 현상에 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면서 사업을 끊임없이 높은 수준에로 이끌어나가는 일군이 바로 원칙성이 있고 요구성이 높은 사람이다.

우리 일군들은 응당한 요구성을 제기하지 않고 부정적인것을 알면서도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으며 소심하게, 보신주의적으로 행동하는 현상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투쟁이 없이는 전진이 없고 전진이

Digitized by Google

없이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없다.

우리 일군들은 맡겨진 혁명과업을 아글타글 애써 해내지 않으며 일이 잘되지 않는데 대하여 가슴아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어물어물 지내는것과 같은 현상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융화묵과하지 말고 언제나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것은 당의 의도에 맞게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요구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일군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아는것이 없으면 사업에서 창발성도 나올수 없고 아래사람들에게 응당한 요구성을 제기할수 없다.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능력이 있어야 어떤 정황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단 결심한대로 어렵고 복잡한 전투를 확신성있게 조직하고 지휘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높은 기대, 자기의 위치와 준비정도를 깊이 자각하고 남보다 몇배, 몇십배 피타는 노력으로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누구나 정열가, 독학가가 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다 환하게 알고있어야 하며 정치학습, 정세학습, 기술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집행에서 능력있고 실력있는 지휘관으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속에서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요구성을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이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늘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조직관념을 높이고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꾸준히 일깨워줌으로써 사업에서 결함을 범하지 않고 언제나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열정으로 당정책을 훌륭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일군들이 당정책을 관철하는 일이라면 대담하게 결심을 내리고 통이 크게 판을 벌리며 일단 시작한 일은 그 어떤 정황에서도 반드시 끝장을 내고야마는 혁명적인 일본새를 가질수 있다.

우리 혁명앞에 류례없이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일군들이 지닌 책임은 무거우며 일군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

모든 일군들은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요구성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높은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의 문학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이다

강 능 수

주체적문예리론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이 어떤 인간문제를 내세우며 어떤 인간전형을 창조하여야 하는가를 뚜렷이 밝히여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본질적특징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였으며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문학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가장 높은 경지에 끌어올릴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었다.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한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창시, 이것은 실로 인류문학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1

주체적문예리론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라고 밝히고있다.

문학예술의 고유한 본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다시말하여 문학예술을 어떻게 리해하고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문예리론과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된다. 문학예술의 본성을 옳게 인식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수 있으며 문학이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을 뚜렷이 밝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페지)

인간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정확한 해명에 기초하지 않고 다만 사회적제관계의 총체로서의 인간만을 념두에 둘 때에는 문학이 형상의 중심에 인간을 내세우는 경우에도 인간학의 근본문제를 옳게 제기할수 없으며 따라서 참다운 인간학으로 될수 없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된다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보며 주체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그리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문학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 전환시키였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창시는 객관적인 물질세계, 사회경제적관계를 기본으로 삼고있던 물질중심의 미학으로부터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간중심의 주체적인 미학에로의 근본적전환을 의미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본질적특징은 무엇보다도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운다는데 있다.

문학이 어떤 인간문제를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질적특징을 규정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Digitized by Google

된다. 그것은 문학이 어떤 인간문제를 내세우는가 하는것이 문학의 존재자체의 목적, 그 사명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로 되기때문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는것을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본질적특징으로 밝힘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이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의 길을 가르쳐주려면 어떤 인간문제를 기본으로 내세워야 하는가를 뚜렷이 밝혀주었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울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은 자주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과학적리론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따라서 모든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짓밟는 온갖 질곡을 반대하는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 투쟁이다.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특히 오늘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로 되고 있다.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우선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시대이며 또한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이다. 그러므로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어떤 인간문제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으며 따라서 참다운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는 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는것을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본질적특징으로 밝힘으로써 문학이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는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였다.

문학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울 때에만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보다 비할바없이 귀중한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키고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하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는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간학으로 될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영원히 빛내이기 위하여 육체적생명도 기꺼이 바쳐 싸우는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확고히 내세움으로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학의 근본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는 참다운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문학발전에서의 근본적전환을 의미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본질적특징은 또한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한다는것이다.

문학이 내세우는 인간문제는 오직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될수 있는 전형적인 인간형상을 통하여서만 옳게 밝혀질수 있다. 그것은 문학이 어떤 인간의 전형을 내세우는가에 따라 작품이 제기하는 인간문제의 가치와 의의가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이 어떤 인간문제를 내세우는가 하는것과 함께 어떤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가 하는것은 인간학의 또하나의 근본문제로 된다.

그런데 문학이 인간을 그리며 인간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여야 한다는것만으로는 아직 인간학의 이 근본문제가 해결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문제는 문학

Digitized by Google

이 본보기로 내세워야 할 인간의 참다운 면모는 어떠하며 그 성격의 주도적특질은 무엇인가 하는것이 명백히 밝혀질 때 비로소 인간학의 근본문제가 해명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우리 문학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들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인간을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으로 내세워야 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문학이 어떤 인간전형을 창조하여야 하는가 하는 인간학의 근본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력사의 주체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그리면서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성격을 깊이있게 밝혀야 한다는것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문학이 내세워야 할 인간성격의 특질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는 인민대중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리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그리는 참다운 방법이 있는것이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이 밝혀준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높은 자주의식과 자연과 사회를 능동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이다.

오늘 우리 문학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참다운 전형을 내세움으로써 문학이 어떤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여야 하는가 하는 인간학의 근본문제에 가장 옳바른 실천적해답을 주고있다.

우리 문학이 내세우고있는 인간전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이다.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그들의 주체의 인생관에서 기본핵을 이루고있다.

우리 문학은 바로 그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충성심을 깊이있고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이와 같이 문학이 어떤 인간문제를 내세우며 어떤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여야 하는가, 다시말하여 인간을 어떻게 보고 그려야 하는가 하는 인간학의 근본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우리가 요구하는 참다운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본질과 면모를 뚜렷이 밝혀주었다.

2

주체적문예리론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은 산 인간과 그 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모든 예술작품은 다 사람들의 생활을 그려야 합니다. 어떤 혁명가를 형상한다면 그가 어떻게 혁명가로 자라나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생활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65페지)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이 산 인간과 그 생활을 그려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줌으로써 문학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인간학의 요구를 독창적으로 밝히였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며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이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근본문제를 밝혀주었다면 산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릴데 대한 사상은 문학에 고유한 미학적특성을 옳게 살리기 위한 인간학의 요구를 밝혀준다.

예술적형상성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

의 고유한 미학적본성이다. 문학은 다른 사회적의식형태들과는 달리 인간과 그 생활을 추상화된 개념으로 반영하는것이 아니라 생활 그대로의 생동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반영하며 생활을 어느 한 측면에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예술적형상성의 문제는 현실반영에서의 문학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문제, 문학을 문학으로 되게 하는 문제이며 사상성과 함께 문학작품의 가치와 질을 규정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예술적형상을 창조하는데서 기본은 세계의 주인인 인간과 그 생활을 잘 그리는것이다. 예술적형상 그자체가 인간과 그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의 화폭인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그 생활을 어떤 립장과 관점에서 보고 그리는가 하는 문제는 문학이 인간학의 요구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로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우선 문학이 산 인간을 그려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산 인간을 그려내지 못한 문학은 참다운 인간학이 아니다. 문학에 산 인간이 없으면 형상이 있을수 없으며 형상이 없으면 문학의 고유한 본성도 살려내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산 인간이란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구체적이며 생동한 인간,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예술적개성이다.

자주적인 인간의 성격은 오직 생동하고 진실한 예술적개성으로 형상될 때에 비로소 참다운 인간의 전형으로 되는것이다.

산 인간을 그리려면 무엇보다도 인간을 인간답게 그려야 한다. 정치적신념과 강의한 의지만이 아니라 리상과 포부, 구체적인 심리와 감정을 가진 인간, 현실에서와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구체적이고 생동한 인간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산 인간을 그리려면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릴뿐아니라 또한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그려야 한다. 문학에 그려지는 인간형상은 개성적일수록 생동해진다. 문학에서는 생활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그에 고유한 성격의 론리를 따라가면서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 산 인간을 그릴데 대한 사상은 사회적전형과 예술적전형의 호상관계, 예술적전형창조에서의 개성화와 일반화의 통일에 대한 문제 등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독창적사상이다.

구체적이고 생동한 비반복적개성으로서의 산 인간을 그릴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은 성격창조의 근본원리를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문학을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산 인간을 그릴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짐으로써 문학은 창작의 본성이며 생명인 독창성을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산 인간을 그릴뿐 아니라 또한 인간의 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고 밝히고있다.

생활을 잘 그리는것은 인간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인간이 있으면 생활이 있기 마련이며 의의있는 인간문제도 생활속에만 있다.

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이며 투쟁이다.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속에 투쟁이 있다. 따라서 인간학인 문학에서 생활을 그린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투쟁속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맺어지며 극적으로 서로 얽히고 맞물리는 인간관계를 보여주며 그속에서 자주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적특성이 어떻게 개성적으로 발현되는가를 현실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을 말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문학이 생활을 잘 그리기 위한 미학적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였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적인 문예리론은 문학이 생활을 잘 그리려면 우선 전형적인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리고 감명깊게 그려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전형적인 생활이란 시대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하고있는 생활이다. 생활에서 비본질적이고 사말적인것을 버리고 가장 본질적인것을 그리며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기초하여 인간관계를 옳게 보여줄 때에만 전형적인 생활을 그릴수 있다. 그러므로 전형성의 문제는 단순히 미학상의 문제가 아니며 가장 예리한 정치성의 문제로 된다.

전형적인 생활을 떠나서는 시대의 특징과 계급의 본질을 체현한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할수 없다. 전형적인 생활을 잘 그리는것은 문학에서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구현하기 위한 기본분야로 된다.

문학은 우선 전형적인 생활을 폭넓고 풍부하게 그려야 한다. 생활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릴 때에만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줄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폭넓은 리해를 줄수 있다.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묘사는 생동하고 비반복적인 개성창조의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원래 사람들의 복잡한 사회적관계와 실천활동의 모든 과정을 다 포괄하고있는 현실생활은 끝없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또 풍부하다. 혁명가의 생활일수록 생활은 더욱 풍부한 내용으로 충만되여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의 생활을 그리면서 그들의 군사활동만을 보여주는데 치우치거나 로동자, 농민의 생활을 그리면서 그들의 생산활동을 보여주는데만 기울어지는것은 다 실생활에도 맞지 않으며 또 형상창조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항일유격대의 생활을 그릴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는 성장과정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정치생활, 군사생활뿐아니라 지하공작활동, 동지들사이의 관계, 개인생활 등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폭넓게 보여주어야 한다.

문학은 전형적인 생활을 풍부하게 그릴뿐아니라 또한 구체적으로 생활을 파고들어가서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생활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형상의 심오성과 철학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생활을 깊이있게 그리려면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해가는 생활의 단면들을 파고들어가서 철학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생활과정에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내면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리고 정서적으로 섬세하게 파고들 때에만 형상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작품에서 생활을 잘 보여주려면 전형적인 생활을 그릴뿐아니라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려야 한다고 밝히고있다. 생활을 세부화하여 생동하게 그리지 않으면 문학작품이 강연제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며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해나가는 구체적인 생활의 단면들을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릴 때라야 작품에는 감명깊은 인간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묘사의 진실성은 개개의 세부들의 진실성에 의하여 담보되는것이다. 세부는 묘사의 기본단위, 문학의 묘사성을 높이는 기본고리이다.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린다는것은 생활을 통줄거리로, 사건라렬식으로 이야기줄거리를 따라가면서 그리는것이 아니라 뜻이 깊은 생활세부들을 풍부하게 설정하여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생활의 의의를 생동하고 감명깊게 밝혀낸다는것을 말한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설정되고 진실하게 그려진 생활세부들은 형상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며 따라서 하나의 세부의 비진실성은 형상전체의 진실성을 파괴하게 된다.

Digitized by Google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것은 작가들로 하여금 생활을 추상화된 개념으로가 아니라 형상적으로, 개성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가의 창작적개성을 발휘하며 예술적형상성을 높이게 하는 중요한 분야로 된다. 작가가 전형적인 생활세부들을 골라잡고 진실하게 그릴 때 참으로 형상은 진실하고 생동한것으로 되며 인간의 내면세계도 깊이있게 밝혀지게 된다.

전형적인 세부의 선정과 그 진실한 묘사는 특히 생활을 단조롭게 그리는 약점을 극복하고 표면에 나타난 생활뿐아니라 뒤에 느껴지는것, 상상할수 있는 뒤생활세계까지 펼쳐보여줌으로써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게 한다.

실로 산 인간과 그 생활을 잘 그릴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은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문학의 예술적형상성을 높임으로써 문학이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문학은 문학으로서 혁명에 복무하여야 한다.

문학이 문학으로서 혁명에 복무하려면 높은 사상성을 훌륭한 예술적형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산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릴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으로 하여금 예술에서 죽음으로 되는 추상성을 극복하고 생동성과 구체성 그리고 진실성을 구현할수 있도록 확고히 담보해주는 독창적사상이다.

*　　　*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의 창시는 인류문학발전에서 새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으로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갖는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창시는 우선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발전풍부화하고 인류문예사상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대한 독창적인 문예사상은 문학이 어떤 인간문제를 내세워야 하며 어떤 인간전형을 창조하여야 하는가 하는 인간학의 근본문제를 완벽하게 밝힘으로써 오랜 세월 인류가 바라고 그리던 그대로 문학을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간학으로 전환시키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주체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그리는 방법을 내놓음으로써 물질중심의 미학으로부터 인간중심의 주체적인 미학에로의 근본적전환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실로 인류문예사상발전에서의 일대 새로운 전환으로 된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이 창시됨으로써 문학은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워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였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문학은 또한 인류의 숭고한 리상이 구현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요구에 맞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본보기,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참다운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 문학으로 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문학은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이 높이 울리는 문학,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에로 사람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주체의 문학으로 그 자랑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되였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창시는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뚜렷한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고무적기치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결합된 리상적인 문학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는 경

Digitized by Google

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이며 지덕체를 갖춘,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들이 자연과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여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이다.

사람들이 이렇듯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그리고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수록 그들의 생활에서 문학예술에 대한 사상미학적요구는 더욱 높아지게 되는것이다.

사람들이 살게 되는 사회현실이 위대할수록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문학예술이 놀아야 할 사명과 역할도 더욱 커지게 된다.

문학예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높은 요구에 맞게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문학예술의 고유한 본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 특성을 살려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작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요구에 맞게 문학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가장 높은 경지에 끌어올리기 위한 형상창조의 근본 원리와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예술적형상창조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리는데서 나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해명함으로써 예술적형상창조의 모든 문제를 인간을 중심으로 보고 해결할수 있게 하는 주체의 형상리론을 확립하였다.

우리는 주체적문예리론에 의하여 창시된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대한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더 훌륭히 창조해나갈것이다.

근 로 자 1979년 제2호(루계 442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9년 2월 1일 발 행•1979년 2월 5일

ㄱ—956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4451
12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EAST ASIATIC LIBRARY
AUG - 1 1979
UNIVERSITY OF CALIFORNIA

3호

평 양 근로자사 1979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3 호(443)

차 례

Digitized by Google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방침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수산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으며 새로운 기적과 비약을 끊임없이 창조해내고있다. 이것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나래치던 강선의 정신, 천리마의 정신으로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계속 억세게 전진하고있으며 그 전도가 양양하고 승리가 확정적임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해나가는것은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관건적고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대규모경제이며 모든 경영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과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경제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지며 모든 생산공정이 기술공정으로 전환되고 그 기술장비수준도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경영활동을 더욱더 계획화, 조직화하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것은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드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기업적방법은 해당단위의 모든 경영활동을 직접 틀어쥐고 계획화, 조직화하며 생산을 기술적으로, 통일적으로 지도해나가는 가장 우월한 경제지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업적방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획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조직, 기술발전, 자재의 보장, 로동력의 배치와 조직, 기업소의 재정활동 같은 모든 기업활동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하며 구체적으로 지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39폐지)

경제조직사업은 행정적방법으로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기업적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우의 지시를 전달이나 하고 아래에 독촉이나 하는 행정식방법은 낡은 사회의 유물이며 그런 방법으로는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할수 없다. 경제조직사업을 철저히 기업적방법으로 하여야 대규모사회주의경제의 본성에 맞게 생산을 기술적으로 지도하고 경제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할수 있으며 주먹구구식으로 거칠게 경제를 관리하는것과 같은 온갖 그릇된 현상들을 철저히 없앨수 있다.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해나갈 때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에 대

Digitized by Google

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우리가 이룩한 고귀한 경험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창설하시고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는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최근년간 혹심하게 미치는 한랭전선의 영향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듦으로써 경제관리를 더욱 합리화해나가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과업은 실로 무겁고도 보람찬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올해에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 과업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방대한 과업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주체조선의 영예를 다시한번 떨치기 위한 보람찬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투적과업수행에로 힘차게 떨쳐나서 장엄한 총진군운동을 벌리고있으며 그들의 기세는 날로 충천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이 내놓은 새로운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빛나게 관철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한데 이어 웅대한 6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위력한 경제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우리 나라에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은 사회주의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인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확고히 담보하는 귀중한 밑천이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능히 생산을 빨리 늘이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

기업적방법에 의한 치밀한 경제조직사업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를 빈틈없이 맞물리고 생산의 요소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 때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위력과 생산잠재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은 또한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당면한 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기술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경제조직사업은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생산단위들에서 현행생산과 기술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하여주어야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온갖 정력과 지혜를

Digitized by Google

다 바쳐 힘껏 일하게 할수 있으며 새로운 더 큰 비약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내게 할수 있다. 따라서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없으며 당면한 생산과 기술발전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생산단위들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진행하는것은 다름아닌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이다.

당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직집행해 나갈것을 굳게 믿고 경제지도일군들에게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베풀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초소들을 맡겼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맡은바 혁명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생산의 모든 요소들과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자그마한 빈틈도 없도록 조직사업을 깐지게 해야 하며 생산지휘를 기동적으로, 전투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일군,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 자기가 맡은 부문과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해나가는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실한 일군이며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는 참다운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려면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조직 사업에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하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하여야 합니다.》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조직 사업은 경제조직사업의 4대요소이다. 이 네가지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평가되며 생산성과가 좌우된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은 경제지도일군들이 기술지도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도일군들이 당면한 생산뿐아니라 기술문제까지 직접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어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들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당면한 생산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기술지도와 함께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관리 사업을 잘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설비와 자재, 로력은 생산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요소이다. 생산이란 결국 그 주인인 근로자들이 설비를 가지고 원료, 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것이다. 그러므로 설비관리사업과 자재보장사업을 어떻게 하며 로동행정사업을 얼마나 짜고드는가 하는것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끊임없이 확대해나가기 위한 기본고리로 된다. 지도일군들이 설비관리사업과 자재보장사업, 로력관리사업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차요시하거나 관심을 덜 돌려도 생산을 힘있게 다그칠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기업적방법으로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관리 사업을 짜고드는데 더욱 큰 힘을 기울여 당이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끝까지 수행하여나가야 한다.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지도일군들이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여나가려는 강한 투쟁정신과 굳은 결심을 튼튼히 가져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이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올해의 전투를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초소들을 담당하고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지도해나가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마땅히 자기가 맡은 부문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과 관점에 튼튼히 서야 하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손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야 한다.

일군들이 맡은바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강의한 의지를 지녀야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흔들리지 않고 조직사업을 깐지게 해나갈수 있으며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당이 내세우는 전투적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제기되는 문제를 자신이 직접 풀어나가려는 립장에 서지 않고 되받아넘기기만 한다면 그 어떤 혁명과업도 제대로 수행할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의 높은 충성심에 의하여 힘차게 벌어지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하는것이 자신들의 투쟁에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투쟁과 전진만을 아는 공산주의자의 완강한 기백으로 전진도상에서 있을수 있는 난관들을 제때에 뚫고나가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의 높은 책임성은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사업조직을 창발적으로 해나가는데서 뚜렷이 나타난다.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정열로 경제조직사업을 전투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는 일군만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지닌 일군이라고 할수 있으며 혁명의 참된 지휘성원이라고 할수 있다.

일군들은 언제나 식을줄 모르는 정열과 전투적패기로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과 묘술을 찾아내면서 창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해나가야 하며 단 하루, 한시도 헛되이 보냄이 없이 자체로 조건을 만들면서 실속있는 조직사업을 들이대야 한다. 이리하여 어떠한 복잡한 조건에서도 생산자대중의 투쟁을 주동적으로 능숙하게 이끌고 나가야 하며 대담하게 공격전을 벌려 매일매일 일자리를 푹푹 내면서 줄기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전후복구건설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의 대고조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켰던것처럼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이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사업에서나 대상을 잘 알아보는것이 매우 충요합니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 대상을 잘 알고있으면 그에 맞게 일을 잘 조직할수 있으며 실수없이 일해나갈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50페지)

경제조직사업의 첫공정은 아래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것이다.

군사지휘관이 자기가 관할하는 구분대들의 실정과 전투현장을 환히 꿰뚫고 있어야 전투조직을 잘하고 전투를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경제건설투쟁에서도 생산단위들의 실태를 깊이 료해장악하여야 현실에 맞는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달라지는 조건과 환경을 제때에 분석하고 정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거기에 맞는 옳은 대책을 빈틈없이 취할수 있다. 자기

Digitized by Google

가 맡은 단위에서의 생산과 경제관리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있는 일군이라야 사업에서 발언권을 가질수 있고 그 어떤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여도 능숙하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생산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아래일군들에게 독촉이나 하여 통계자료와 보고자료들을 받는것으로는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할수 없으며 사업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면할수 없고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여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언제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아래에 자주 내려가야 하며 직장장, 작업반장들과 생산자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기계설비의 기술상태와 원료, 자재의 보장정형으로부터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사상의식상태에 이르기까지 해당단위의 전반적인 실태를 손금보듯이 꿰들고있어야 하며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과 제품단위당 원가, 제품의 질과 같은 생산의 질적지표들도 늘 구체적으로 장악하고있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아래단위들에서 생산준비를 미리 앞세우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수 있으며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실마리들을 찾아낼수 있다.

당조직들은 해당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이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료해하고 지도사업을 할 때에는 언제나 해당단위의 당조직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하며 모든 문제를 당조직과 토론하면서 처리하여야 한다. 그래야 아래단위들에서 제기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통일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기 위하여서는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계획화사업으로부터 보장사업, 생산지도사업에 이르기까지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전반적문제들을 튼튼히 틀어쥐고 제때에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조직사업을 잘한다는것은 곧 당의 경제정책과 그것을 구체화한 국가의 법령들과 결정들을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옳은 집행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분공을 조직하며 생산에 필요한 경제기술적조건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생산의 진행정을 틀어쥐고 걸린 고리들을 풀어주며 사업을 제때에 총화하고 재포치하는것과 같은 경제기술적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 빈틈없이 맞물려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계획화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모든 일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맞물려주어야 하며 어떤 과업이 제기되여도 깊이 파고들고 조직사업을 깐지게 하여 사소한 빈틈도 없게 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설비를 개조하는 사업,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경제관리운영의 전반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재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는것이다.

생산과정은 곧 원료와 자재의 소비과정이며 따라서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대주는것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우리가 생산지도에서 조직사업에 대하여 많이 말하지만 자재를 원만히 대주는것보다 더 중요한 조직사업은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재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자재를 생산현장에까지 제때에 내리공급하는데 언제나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이리하여 생산자대중에게 힘껏 일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주어야 하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최대한

Digitized by Google

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들에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기술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며 또 분초를 다투는 매우 긴박한 문제들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그러므로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기업적방법의 요구대로 생산지도사업을 기동적으로, 전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세워주신 독창적인 생산지휘체계에 따라 생산지도에서 기동성과 규률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일단 계획하고 시작한 일은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여야 하며 끝장을 볼 때까지 이악하게 내밀어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지도일군들이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능숙한 조직자, 철저한 집행자가 되여야 하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이 정치적방법, 당적방법으로 일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국가경제기관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지도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키는데 가장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519페지)

우리 사회에서 생산자대중은 공장의 주인, 기술의 주인, 관리의 주인이다. 생산자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생산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있는것도 바로 생산자대중이다. 그러므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기만 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려면 지도일군들이 언제나 모든 문제들을 정치적방법, 당적방법으로 풀어나가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어떠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먼저 그에 대한 당의 의도를 생산자대중속에 정확히 해설침투시켜 대중의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힘을 모아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설비관리, 로력관리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경제조직사업을 맡고있는 우리 일군들의 책임은 대단히 크며 당의 기대는 매우 높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우리 혁명의 요구와 당의 기대를 깊이 인식하고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듦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혁명사적지와 근로자들속에서의 혁명전통교양

최 선 태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고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려면 반드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그것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는 혁명전통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들과 풍부한 투쟁경험들이 집대성된다.

혁명전통이 담고있는 이러한 혁명적재부들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로,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며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련결시키는 유일한 혈맥으로, 혁명투쟁의 전과정에 영원한 생기와 활력을 주는 생명선으로 된다.

수령이 창시한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의 밀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고있는 긍지높은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재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8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혁명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지체없이 당과 인민정권을 창건하고 인민무력을 강화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고있음으로 하여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력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전후의 그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파괴된 인민경제를 빨리 복구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계속이며 그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혁명전통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체계,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 등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본보기로 되는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이 담겨져있다. 이 모든 재부들은 그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진군길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영광

Digitized by Google

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철저히 준비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것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혁명사적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뜻과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의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우리의 후대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혁명사적지는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전면적으로 체득시킬수 있게 하는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거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당의 참된 붉은 전사, 공산주의적혁명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4페지)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대를 이어 견결히 싸워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사상교양사업이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찬란히 수놓아진 모든 사상리론적재부들과 풍부한 경험들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것은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이 깃들어있는 불멸의 사적이며 영광의 사적이다.

혁명사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행정에서 쌓아올리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의 위대한 기록이며 생동한 화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력사적인 로정은 탁월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여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혁명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쌓아올리신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이 새롭게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과 혁명사상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어 위대하고 심오한 사상리론적재부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혁명사적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의 위대한 기록일뿐아니라 탁월한 령도예술로써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는 현명한 령도의 생동한 화폭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에는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과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으며 미제를 때려부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빛나는 업적들이 담겨져있다. 그리고 모든것이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심각한 혁명적변혁을 이룩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심으로써 매우 짧은 기간에 가

Digitized by Google

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시고 온 사회를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하나의 화목한 대집단으로 꾸리신 빛나는 업적들이 담겨져있다.

실로 우리 나라의 도처에 꾸려져있는 혁명사적지에는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강의한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에는 우리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이 찬란히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혁명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공산주의자의 귀감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쳐나가시면서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땅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시고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크나큰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궂은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민이 살고 일하는 모든곳을 찾으시여 수천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신다. 혁명의 성지 백두산으로부터 동해와 서해의 파도사나운 어촌마을, 기계소리 요란한 공장과 두메산골의 포전길 그리고 남녘땅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분계선마을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자욱이 미치지 않은곳이 없다.

이 영광의 로정은 참으로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으로 빛나고있으며 이 거룩한 자욱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이 깃들어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대를 이어 길이 전하여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으로 자랑넘치고있다.

혁명사적지는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따라배우는 위력한 사상교양의 거점으로 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사적지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전면적으로 따라배우게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폭넓게 체득시키는 바로 여기에 혁명사적지가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혁명사적지는 또한 생동한 혁명 사적자료와 사적물들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감명깊게 가르치는 훌륭한 학교이다.

실물을 통하여 혁명전통교양을 진행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더 빨리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원래 실물을 통한 교양은 몇십몇백마디의 말보다도 더 힘있는 감화력을 가진다. 실물교양은 사람들에게 생동한 표상을 주며 커다란 자극을 준다. 사람들은 실물을 통하여 인식과 리해 과정을 더욱 촉진하고 공고화하게 되며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전통교양도 실물을 통하여 진행해야 그 실효성을 높일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공산주의화를 보다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혁명사적지를 통한 대중교양은 바로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하여준다.

오늘 량강도와 함경북도의 혁명전적지들을 찾는 근로자들은 조국에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을 때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조국에 진군하시여 민족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면서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

Digitized by Google

을 더욱 두터이 하고있다. 또한 강선제강소와 청산리를 비롯한 전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정중히 꾸려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지를 찾는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전변을 이룩한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어버이 수령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된다.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은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의 후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난 새세대들로서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였다. 새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자면 그들에게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어떻게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는가를 생동한 실물자료를 가지고 가르쳐주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 인민이 수많은 어려운 고비들과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 전진해올수 있은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의 결과라는것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새세대들은 우리 혁명의 과거를 잊지 않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똑똑히 안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끗끗이 이어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참으로 혁명사적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혁명의 후대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의 혁명화, 공산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게 하는 혁명전통교양의 훌륭한 학교로, 위력한 거점으로 된다.

오늘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사회주의건설전투장마다에서 힘찬 돌격전이 벌어지고있는 벅찬 현실은 우리들앞에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그들을 혁명선렬들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로 철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투쟁경험과 공산주의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폐지)

혁명사적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사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고 영원히 빛내이기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가장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우리는 지난날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 잘 준비시켜야 한다.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사적지참관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하는 것이다.

혁명사적지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따라배우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혁명적본분이다.

당조직들과 사적부문일군들은 혁명전

Digitized by Google

적지답사와 혁명사적지참관 사업을 조직화하고 계획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양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혁명사적부문일군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 매개 단위의 구체적특성을 세밀히 료해한데 기초하여 답사조직과 참관사업을 짜고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이 사업에 빠짐없이 참가시키며 끊임없는 반복교양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사적지를 통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의 교양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사업과 직접 잇닿아있다. 교양사업은 결코 실무적인 사업으로 되여서는 안되며 그것은 반드시 혁명실천에서 그 위력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 답사와 참관이 끝나면 실효투쟁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혁명사적부문 일군들과 강사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혁명사적부문 일군들과 강사들은 혁명사적지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업적을 생동하고 감명깊게 해설선전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그들의 혁명화, 공산주의화 과정을 촉진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하는 우리 당 사상전선의 믿음직한 초병들이다.

모든 혁명사적부문 일군들과 강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뜻과 불멸의 거룩한 자욱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에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투쟁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널리 해설선전하는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안고 자기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혁명사적부문 일군들과 강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대중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교양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세련시켜나감으로써 혁명사적교양의 정치사상적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강사들의 강의와 모든 교양수단들을 통하여 진행되는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 답사와 참관을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방법으로 되게 하며 군중들로 하여금 언제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도록 하는 혁명교양의 참다운 학교로 되게 하여야 한다.

혁명사적부문 일군들과 강사들은 혁명사적지를 찾아오는 근로자들뿐아니라 항일유격대식으로 생산현장에 직접 나가 이동강의와 해설담화사업을 널리 조직진행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실감있게 선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술토론회, 연구발표회, 전람회, 우등불모임, 귀환보고회 등 여러가지의 참신하고 효과적인 교양 형식과 방법들을 적극 리용하며 신문과 잡지, 소책자와 화첩을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을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혁명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광범히 발굴수집하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더 잘 꾸려야 한다.

혁명사적자료발굴수집사업을 잘하고 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는것은 혁명사적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사적자료들과

Digitized by Google

사적물들을 더 많이 수집정리하고 혁명사적지를 더 정중히 꾸려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투쟁업적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시킬수 있다.

당조직들과 혁명사적부문들에서는 사적발굴수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혁명사적발굴수집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빠짐없이 찾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혁명사적부문일군들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원상원위치에 꾸릴데 대한 방침, 주체적인 미학사상을 구현할데 대한 방침, 교양적가치가 있게 만년대계로 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사적의 고유한 모습과 특성을 살려 그것을 주체시대의 대기념비적재부로 되게 하여야 한다.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을 꾸리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3위1체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과 당,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를 잘 보여줄수 있도록 그 진렬 체계와 내용을 부단히 보충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사적지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불멸의 업적, 고매한 덕성을 전면적으로 체득할수 있게 정중히 꾸리며 그 내용의 정치사상적수준과 과학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라의 여러곳에 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는 력사의 위훈탑으로, 영원히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상징하는 충성의 기념비로 높이 솟아있게 하여야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만년재부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는 힘있는 교양수단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사적지를 더욱 정중히 꾸리고 그를 통한 대중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듦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의 창시는 인류사상발전과 자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

김 철 희

정확한 지도사상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과학적인 지도사상은 인민대중에게 력사적사명을 깨우쳐주고 혁명발전의 명확한 전망과 의의를 인식시키며 투쟁의 올바른 전략전술적방침과 그 실현방도를 밝혀준다.

비록 많은 대중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일떠선다 하더라도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라침판이 없는 배가 항로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것처럼 실패와 우여곡절을 피할수 없게 된다. 인류해방투쟁력사는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가지지 못하였던탓으로 혁명투쟁에서 편향을 범하고 많은 희생을 내면서도 승리하지 못한 쓰라린 교훈들을 남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자주적인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반영하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류사상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우리 나라와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모든 중대한 사변들은 이 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시대와 주체사상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은 그것이 어떠한 시대적배경에서 나왔으며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요구를 얼마나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 인류사상발전과 자주위업수행에서 이 사상의 창시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주체사상이 우리 시대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밝히는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위대하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우리 시대, 이것은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지난날 큰 나라의 지배와 예속 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67페지)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있는 력사적과정과 사변들, 시대의 기본추세를 고찰할 때 선행한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특징을 찾아보게 된다.

우리 시대는 지난날 큰 나라의 지배와 예속 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시대이다.

선행한 력사적시대는 인민들의 자주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억압과 예속의 관계가 전반적으

로 지배하던 시대이다. 오랜 력사적기간 많은 나라 인민들은 소수 억압자들의 리익과 전횡의 희생물로 되여왔으며 큰 나라의 지배밑에서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인민들은 력사무대에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운명은 소수 지배계급에 의하여 좌우되였다. 다시말하여 지난 시대는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력사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한 시대인것이 아니라 한갖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남아있던 시대였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의 면모는 크게 달라졌으며 력사무대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온갖 형태의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자주의 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하고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국제무대에서는 력사에 없었던 진보적인 변혁들이 이룩되였으며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류례없이 혁명적이고 의의깊은 사변이 일어났다.

우리 시대에 와서 사회주의는 현실로 전환되였으며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이 착취와 예속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다.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속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저주로운 식민주의철쇄를 끊어버리고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인 신흥세력나라들이 력사무대에 등장하였다. 오늘 신흥세력나라들은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거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으며 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위대한 변혁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세계적범위에서 확대발전되고 국제혁명력량이 빨리 자라난 반면에 제국주의세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고 급속히 쇠퇴하였으며 심각한 내부모순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궁지에 빠지고있다. 제국주의가 인민들을 제멋대로 억압하고 략탈하며 수억만 인민들의 운명을 막뒤에서 롱정하고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 모든것은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이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옳바른 지침을 주는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창시할 과제를 력사의 일정에 제기하였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옳바른 지침을 주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의 운명과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는 독창적인 세계관을 확립하여야 하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사상만이 온갖 노예적굴종사상에 물젖어온 인민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확고한 자각과 신념을 안겨줄수 있었으며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력사무대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사회의 혁명적변혁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이 전례없이 커진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지도리론을 확립할것을 요구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만이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옳바른 해답을 줄수 있었다.

옳바른 지도방법을 확립하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과학적인 지도사상과

Digitized by Google

지도리론을 가지고있는 경우에도 옳바른 지도방법이 없다면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적극성을 조직동원할수 없다. 주체의 령도방법을 확립하는것은 혁명운동의 규모가 류례없이 커지고 세계 수억만 인민들이 자주적인 새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물론 이러한 요구가 제기된다고 하여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이 저절로 나올수는 없으며 그 누구에 의해서도 창시될수 있는것은 아니다.

우리 시대는 새로운 혁명사상을 창시하여 자주위업의 앞길을 밝혀줄 위대한 수령, 위대한 사상리론가의 출현을 목마르게 고대하였다.

시대와 진보적인류의 이 절절한 숙원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마련하심으로써 비로소 빛나는 실현을 보게 되였다.

조선은 주체사상의 영광스러운 조국

주체사상창시의 경위를 보다 전면적으로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새시대의 요구에 해답을 주는 이 사상이 바로 조선에서 나오게 된 력사적필연성과 근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적으로는 조선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그리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기때문이다.

주체를 세워야 할 필요성, 새로운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에 대한 요구는 다른 어느 나라 혁명에서보다 조선혁명에서 절박한 의의를 가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 환경과 조건,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05페지)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는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오래전부터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덮어놓고 숭배하며 큰 나라를 섬기는 비굴한 사대주의사상에 물젖어있었으며 사대주의는 력사적으로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저애하고 혁명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력사를 더듬어보면 우리 나라가 일제에게 먹히우게 된것도 결국 사대주의때문이였으며 민족주의운동이 좌절되고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한것도 그 주되는 원인은 사대주의와 그로부터 흘러나온 종파주의에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기 이전 소위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떠들던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을 떠나서 상층부의 몇몇 사람끼리 모여앉아 권력다툼과 《리론》싸움만 일삼고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리론가》로,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온갖 궤변을 쉐치며 혁명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그들은 또한 엠엘파, 화요파, 북풍회파와 같은 파벌을 뭇고 3인1당, 5인1파식으로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에 승인받으러 다녔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이러한 파벌싸움으로 인하여 1925년에 창건되였던 조선공산당은 오래가지 못하고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참으로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고 우리 혁명에서 주체를 세워야 할 절박한 요구를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6년 우리 나라에

Digitized by Google

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가지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걷게 되였다.

새로운 지도사상, 주체사상에 대한 요구는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와 환경, 특히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기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어렵고도 복잡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며 투쟁로선과 투쟁방법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6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그리고 투쟁로선과 방법을 비롯하여 모든것을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강대한 일제를 대상으로 하여 벌어진 류례없는 준엄한 투쟁이였다. 항일혁명투쟁은 또한 사대주의에 물젖은 종파분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 대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에 의하여 초래되였던 엄혹한 시련들을 극복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항일혁명투쟁이 그 이전의 투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은 그것이 바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진행되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행한 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쓰라린 교훈과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력사에서 승리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주체사상의 창시,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의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사상과 같은 위대하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은 인류의 진보적사상이 이룩한 모든 우수한 성과들을 주체적으로 대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경험을 전면적으로 일반화한 기초우에서만 창시될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주체사상의 심오하고 독창적인 원리들을 정식화하고 그것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는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심오한 통찰력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학생시절에 《공산당선언》, 《자본론》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저서들을 조선혁명의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연구하시였으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조선혁명의 유일하게 옳바른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조선혁명과 우리 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신 첫시기부터 사상리론활동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의 유기적인 통일을 보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견결히 반대하시고 언제나 조선혁명의 구체적인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기성리론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주체적으로 대하시였으며 혁명의 리익과 요구에 맞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존공식에도 구애되지 않으시고 대담하게 새로운 리론들을 내놓으시였다.

주체사상의 창시는 사람들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중대한 사변이였다. 여기로부터 주체사상의 창시와 그 구현과정은 사대주의, 교조주의,

Digitized by Google

종파주의, 수정주의 등 온갖 반동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사조들과 낡은 사회세력의 반항을 짓부시는 격렬한 투쟁과정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주체사상을 창시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의 진리를 고수하는데서 사소한 주저와 타협을 모르는 견결한 혁명적원칙성과 불굴의 의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이 요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자주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어떤 모진 풍파와 시련에도 드놀지 않는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강의한 의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지니고계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로 이러한 탁월한 혁명적자질과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향해 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사상리론적재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류앞에, 시대와 혁명 앞에 길이 빛날 찬란한 업적을 높이 쌓아올리시였으며 인류사상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창시, 이것은 인류사상발전과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주체사상의 창시에 의하여 인류사상발전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였다.

인류사상사는 수천년을 헤아리고있으나 피압박인민대중은 오랜 세월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옳바른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력사를 더듬어보면 일련의 선진적인 사상가들이 소수특권층의 억압과 전횡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근본요구와 지향을 실현하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여왔으나 시대적인 또는 계급적인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옳바른 방도를 제시할수 없었다.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는 참다운 길은 오직 주체사상의 창시에 의하여 비로소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가 밝혀지게 되였으며 이 원리에 기초한 가장 과학적인 세계관이 확립되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세계의 인식과 개조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주며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사회발전의 근본요인을 찾는 독창적인 사회력사관을 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과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 확립되였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등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있는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과 수행방도가 밝혀지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옳바른 해답이 주어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또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지킬수 있는 대중령도원칙과 혁명적사업방법이 확립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완벽한 구성체계를 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과 혁명리론, 령도방법을 전일적

Digitized by Google

으로 갖춘 과학적학설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옳바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이다. 그것은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가장 옳바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자주성에 대한 인류의 숙원을 과학적으로, 현실로 전환시킨 위대한 사상이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이 인류사상발전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근거가 있으며 그 위대한 세계사적의의가 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우리 시대의 전진운동을 비상히 다그치는 백전백승의 전투적기치이다.

자주의식을 가지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일떠서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수 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이 새생활창조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떠미는 추동력으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8폐지)

모든 착취계급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은 력사적으로 인민대중을 예속의 멍에에 얽매여두기 위하여 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그들이 벌린 사상공세의 과녁은 언제나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없고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는 거짓을 믿도록 하려는데 돌려졌다. 이리하여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허무주의와 무저항주의를 비롯한 온갖 노예적굴종의 사상이 인민대중속에 부식되였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주는 주체사상을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온갖 노예적굴종의 사상적멍에에서 벗어나 자주의식과 창조적정신,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진보적인류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전환을 이룩하여놓은 사상해방의 위력한 무기이다.

주체사상은 그 진리성과 혁명성으로 하여 커다란 영향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온 세계에 널리 보급되여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자주성을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에서 커다란 물질적힘으로 전환되고있다. 주체사상은 오늘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힘과 용기,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그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로 되고있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진보적인민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사상리론가로, 우리 시대를 향도하시는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받들고 끝없이 흠모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찬란한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인민들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여있으며 그들의 투쟁이 필승불패이라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에서 이룩된 력사적경험의 귀중한 총화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정책관철과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

리 재 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함경북도 당단체들의 과업》이 발표된 때로부터 20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로작에서 우리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강화하고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북도당단체들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사업과 정권기관사업,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히 서게 되였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오래동안 내려오던 종파주의, 지방주의 여독이 극복되고 당사업에서 낡은 틀이 마사졌으며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튼튼히 확립되였다.

함경북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은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혈기왕성한 청춘의 기백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해나가는 혁명적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정권기관들이 자기의 사명을 똑똑히 알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게 되였으며 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에서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가 극복되고 혁명적군중관점이 세워졌으며 일군들의 사업수준도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도안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며 그에 엄격히 의거하여 일하는것을 확고부동한 철칙으로 삼고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모시는 고결한 충성심을 안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억세게 싸워나가고있으며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한치도 어기지 않고 순간도 지체하지 않는 혁명적립장과 기풍을 가지고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제 정신을 가지고 자체로 해결하려는 불같은 정열을 안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어떠한 조건에서도 맡겨진 혁명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내고있다.

당정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과 일본새, 사업기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정권기관들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과 건설

Digitized by Google

에서 굉장한 앙양이 일어나고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북도 공업발전에 대하여 밝혀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함북도를 나라의 기간공업의 중요한 기지로 튼튼히 꾸려놓음으로써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랭해가 심하여 력사적으로 농사가 잘 안된다던 동해안지대농사에 대한 신비주의를 짓부시고 무한한 헌신성과 완강성을 발휘하여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 지난해에는 일찌기 없었던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북도에 주신 력사적인 교시를 관철하는 실천투쟁과정에 실로 우리는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는것을 절실히 체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기본요구이며 유일한 기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에 충실하다는것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만세〉만 부르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것이 아닙니다. 만세는 안불러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당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사람을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378페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떠나서 주체형의 혁명가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와 당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문제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비록 말은 적게 하더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여 실세적인 사업성과로써 보답하는 사람만이 수령님께 진정으로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한다고 하면서 실천에서는 그와 다르게 행동하는것은 수령님과 당에 충실한것이 아니며 그러한 일군은 당의 참된 일군이 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진실로 충실하려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투쟁을 통하여 수령님과 당의 높은 권위를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우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행정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데 혁명과 건설을 계속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 결정적담보가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심장으로 체득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은 우리 당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며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한 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혁명과업, 그 수행 방향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Digitized by Google

따라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끝까지 관철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승리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불타는 충성심은 주체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는 강력한 추동력이며 그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때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바로 여기에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 우리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근본열쇠가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북도 당단체들의 과업》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20년이 지나갔지만 로작에 밝혀진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은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며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으로 된다.

지금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제2차 7개년계획수행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새 전망계획의 두번째해 전투를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다그치며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더 큰 앙양을 이룩해야 할 이 보람찬 투쟁은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앞에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는 오늘 당이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올해의 전투를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여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닌 숭고한 혁명임무이다.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는 여기에 채취공업을 발전시켜 석탄과 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며 수송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한 올해의 과업들을 다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한다면 도처에서 무궁무진한 예비를 탐구동원하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정책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립장과 관점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

이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다.

당정책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가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접수하는 혁명적 관점과 립장을 튼튼히 가져야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받아안을수 있으며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은 그 어느것이나 다 우리 혁명의 승리와 나라의 륭성번영을 이룩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담보하는 유일하게 옳바른 전략전술이며 불패의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고 당이 이끄는 한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해내지 못할 일이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빛나는 승리만이 확고히 약속되여있다.

그러므로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주는 임무에 대해서는 조건이 유리한것과 불리한것,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 일군들의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은 또한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첫째로, 당정책을 옹호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0페지)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나가는 심각한 투쟁이며 이 과정에는 많은 난관과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 불굴의 의지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 모자라는 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자기앞에 부과된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의 고유한 투쟁방식이며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잡은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일본새이다.

우리 일군들에게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전투적기백이 있어야 하며 담벽을 밀고나가라면 밀고나가고 돌파구를 뚫고나가라면 뚫고나가는 강의한 맛이 있어야 한다.

객관적조건을 앞세우면서 당정책관철을 중도반단하는것은 혁명가의 사업태도가 아니다.

일군들은 당이 준 혁명임무를 다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일단 시작한 일은 기어이 끝장을 내고야마는 혁명적기풍으로 억세게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당과 국가의 중요한 혁명초소를 맡고있다는 높은 자각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모든 일을 주인답게 밀고나가며 언제나 앞장에 서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우리앞에 중대한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지도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고비에 뛰여들어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대오의 기수가 될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약동하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근로자들에게

Digitized by Google

당의 의도를 심어주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말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성과로 나타나게 되며 일군들은 당과 혁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것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험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그에 뒤따라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할 때에만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67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옳은 집행대책을 세운 다음 그 성과여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는 정치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 늘 대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그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수 있다.

더우기 오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새롭고 복잡한 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되고있는 조건에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집행대책을 제때에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진공적으로 벌려야 당이 주는 혁명과업을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철저히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

현실은 지도일군들이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알기 쉽고 실속있게 벌리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선동과 경제선동을 들이대는곳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며 예비도 얼마든지 찾아내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그 집행에 대한 장악과 통제 사업도 잘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침투한것으로 만세를 부를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를 깊이 연구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을 포치하여야 하며 일단 포치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수행되는가를 늘 장악하고 편향을 바로잡아주며 제때에 총화도 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심화시킴으로써 당의 방침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려면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것, 이것은 현시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사업이 얼마나 심도있게 조직진행되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맡아보는 일군들의 준비정도에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할수 있는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가지고있어야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당이 요구하는대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그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부문사이의 련계가 복잡하여졌으며 기술장비수준도 매우 높아졌다. 경험이나 열성 하나만을 가지고 일할수 있었던 때는 이미 지나갔

Digitized by Google

다. 주관적욕망이나 열성만으로는 발전된 공업과 농업을 지도할수 없으며 모든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전개해나갈수 없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제2차7개년계획수행의 총진군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제2차7개년계획은 높은 과학과 기술을 요구하는 보람찬 과업이다. 현대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새 전망계획의 어느 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방대한 새 전망계획 수행의 운전대를 틀어잡고있는 일군들이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당의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일군들이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자질을 소유하여야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수 있으며 새 전망계획 수행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지도를 따라세울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운전대를 틀어쥔 지휘성원으로 된 크나큰 영예와 책임을 깊이 간직하고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피타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높은 기술실무적자질을 갖춘 능력있는 일군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일군들이 당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문제,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은 우리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함북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강령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은 새 전망계획의 두번째해 전투를 빛나게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보람찬 투쟁이다.

이 보람찬 전투는 도안의 모든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발휘할 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지금 함북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충성의 전투를 세차게 벌리고있다.

도안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세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당의 방침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 당의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

김 태 식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후방사업을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틀어쥐고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고계신다.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이룩해나갈데 대한 높은 뜻이 담겨져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근로자들의 일상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줌으로써 후방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근로자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전인민적소유로 되여있고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을 어떻게 돌보는가에 따라 그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문제가 좌우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그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다.

특히 오늘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모든 운명을 당과 국가에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자기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그 어떤 물질적보수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것이 아니라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한다. 이러한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을 보다 편리하게 보장하는것은 바로 모든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의 영예로운 의무로 되고있다.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을 돌볼데 대한 문제는 중요하게 후방공급사업을 통하여 해결된다. 후방공급사업은 날로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고 그들에게 보다 충분한 휴식조건과 안전한 로동조건을 보장해주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따라서 인민생활이 향상되고 생산과 건설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이 더욱더 강화되고있으며 이 사업이 경제관리의 한 형태로, 로동행정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는 오랜 기간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후방사업이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만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자들이 가정생활에서 안착되고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자기 사업에 열성을 다하도록 보장하는 후방공급사업은 당이 늘 강조하는바와 같이 정치사업의 한부분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7～28페지)

후방사업을 정치사업의 한부분으로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데서 후방사업이 노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그들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자각적으

Digitized by Google

로 동원되게 하는 정치사업은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거기에 반드시 후방사업을 안받침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생산열의를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은 후방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야만 근로자들을 생산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은 그들에게 보다 충분한 생활조건과 휴식조건, 안전한 로동조건을 보장해주어 생산과 건설에서 그들의 지혜와 정력을 남김없이 발동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근로자들을 생산과 건설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그들의 혁명적열의이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그들이 생산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는 동시에 사회주의건설에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할수 있는 생활조건이 충분히 보장되여야 높이 발휘되게 된다.

근로자들이 생활에서 조그마한 불편도 없고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어야 생산과 건설에서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다 발휘할수 있다.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각성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생활조건과 휴식조건을 잘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사업에서 높은 열성을 낼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생산의욕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없다.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사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그들의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어야 그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되고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내게 된다. 바로 여기에 후방공급사업이 대중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사업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은 어버이수령님의 끝없는 사랑과 배려, 당과 국가의 크나큰 혜택이 그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미치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제시하시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최대의 관심과 끊임없는 배려를 돌리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돌리시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 당과 국가의 크나큰 혜택은 후방공급사업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영광과 행복,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굳건히 간직하게 할수 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헌신적으로 투쟁하게 할수 있다.

또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당과 정부에서 베풀어주는 혜택이 제때에 정확히 미치게 될 때 그들은 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당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모든 사업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하게 된다. 이것은 후방공급사업이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후방사업을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사람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을 위한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이다. 이로부터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종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사업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복종되여야 하며 그 성과여부는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Digitized by Google

후방사업은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사람과의 사업으로서 그것은 생산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사업이다. 생산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가장 훌륭히 보장해주는 후방사업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주체사상의 요구를 옳게 구현해나가는 후방사업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언제나 잘 돌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다.

후방사업을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에는 또한 우리 인민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인민들의 생활을 돌보는것을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가르치시면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도, 가렬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언제나 대원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돌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배려속에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마사지고 페허로 되였던 전후시기에도 그 누구나 다 안정된 생활을 누릴수 있었다.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도 없게 하시려는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수천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면서 가시는곳마다에서 먼저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정형부터 알아보시고 후방공급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으며 그 관철에로 우리 일군들을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를 개편하시면서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볼수 있는 새로운 후방공급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우리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도 정연한 후방공급체계가 세워지고 튼튼한 후방공급기지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전반을 돌보셔야 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33차례의 현지지도와 200여차의 교시를 주시였으며 그때마다 로동자들의 생활정형과 건강상태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 일군들이 로동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강철전사들을 위한 후방기지를 꾸리는데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막대한 자금과 설비, 자재 등을 보내주시는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후방공급사업이 끊임없이 개선됨으로써 오늘 황철의 로동계급은 생활에서 아무런 근심걱정과 불편을 모르며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후방공급사업이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당적,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고있으며 어디를 가나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충족시킬수 있는 강력한 후방공급기지가 마련되여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생활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변은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수령님께서 후방공급사업을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보시고 다른 사업에 앞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오늘 우리 일군들앞에는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세에 맞게 후방공급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지금 우리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

Digitized by Google

께서 펼쳐주신 새해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대규모의 야금기지와 화학기지, 동력기지와 전재기지 등 기본건설장들을 비롯하여 지하막장과 먼바다물고기잡이전투장들에서 무비의 영웅적위훈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다.

새로운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투쟁기세도 매우 좋다.

인민대중의 혁명적기세에 맞게 후방공급사업을 따라세우는것은 늘어나는 우리 인민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뿐아니라 올해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후방공급사업을 정치사업으로 틀어쥐고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할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후방공급사업을 더 잘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이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어떻게 철저히 관철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후방사업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후방사업에 대한 옳은 립상과 관점을 가지는것은 이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은 경제지도일군들과 공장관리일군들이 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4페지)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해당단위의 생산과 건설에 대해서뿐아니라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지고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닌 숭고한 임무이다.

우리는 지난 기간 일군들속에서 로동자들을 혁명동지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돌보는 혁명적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이 투쟁을 통하여 공장의 모든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풀어주어야 한다는 립장에 확고히 서게 되고 후방사업을 공장관리운영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게 되였다.

경험은 일군들이 후방사업을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기업소관리운영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 때 생산도 잘되고 근로자들의 사기도 높아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도일군들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궂은일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을 보다 훌륭히 개선하겠는가에 대하여 늘 머리를 쓰고 아득바득 노력하여야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 풍족해지고 그들의 전투사기도 높아진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 근로자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전력할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그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오늘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부식물문제를 원만히 풀고 살림집과 합숙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충분히 도모

Digitized by Google

하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 근로단체와 행정경제기관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집도 더 많이 짓고 알뜰하게 꾸리며 남새와 닭알, 고기 같은 부식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을 벌리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298페지)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게 부식물공급사업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오늘 후방공급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일군들이 부식물문제를 풀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는것은 그가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훌륭히 복무하는가 하는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로 된다.

부식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모든 가능성과 내부원천을 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사실상 큰 공장이 자리잡고있는 송림시의 경우에 근로자들에 대한 부식물공급사업을 외부에만 의존한다면 공장지도일군들이 아무리 관심을 높인다고 해도 이 사업을 훌륭히 보장할수 없다.

우리는 자체의 튼튼한 후방공급기지를 꾸릴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공장지구의 유리한 자연조건들을 옳게 리용하고 로력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부식물생산기지를 꾸리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기업소에는 한해에 수백톤의 고기와 닭알, 우유를 생산할수 있는 돼지목장과 닭공장, 오리공장, 젖소목장, 수백정보의 분수식남새밭과 남새가공공장을 비롯하여 부식물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현저히 개선향상시키고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후방사업전반을 틀어쥐고나가면서 특히 부식물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도시와 로동자구들에서 자연경제적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남새, 고기, 닭알을 비롯한 부식물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근로자들에게 사철 맛있고 영양가높은 부식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도일군들은 공장, 기업소 가까이에 있는 국영농목장, 닭알공장, 오리공장, 남새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협동농장, 식료공장들을 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도와주어 여러가지 부식물생산기지를 잘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부업목장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자체의 부식물생산기지를 잘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운동으로 부식물생산을 힘있게 벌려 모든 세대들에서 집짐승기르기와 남새생산을 널리 조직하며 부양가족부업반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남새와 알, 고기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인민생활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훌륭한 살림집과 합숙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현대적인 편의후생시설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

지방자재를 동원하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살림집과 합숙조건을 원만히 풀고 편의시설을 더 많이 늘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지난 기간 기업소의 유휴자재를 동원하고 로력과 시간을 짜내서 군중적운동으로 살림집과 합숙, 편의시설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조건과 로동조건을 훨씬 개선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오늘 송림시에는 현대적인 살림집과 편의시설망들이 일떠섰을뿐아니라 직장마다 훌륭한 휴게실과 목욕탕, 영양제식당이 꾸려졌으며 또 지구마다에는 리

Digitized by Google

발소, 세탁소, 수리소 등 편의후생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우리 일군들은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들이 더 훌륭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요구한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현대적인 살림집과 합숙, 편의시설들을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지방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도시경영사업과 보건위생사업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에게 물질문화생활조건과 건강증진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후방공급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우리의 경험은 당위원회들이 후방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틀어쥐고 일군들속에서 후방사업이 곧 정치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세우며 모든 후방부서들로 하여금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돌보게 할 때 후방공급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조직들은 새로운 후방공급체계의 요구에 맞게 언제나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집체적으로 토론하고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게 하며 모든 후방공급기관들이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후방공급부서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일군들속에서 후방사업을 후방일군들만 할 일로 생각하는 그릇된 현상을 없애고 모든 지도일군들이 후방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돌보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지 않는것은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이다.

당조직들은 후방공급사업에서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소극적이고 형식주의적인 현상 등 온갖 낡은 사업태도를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일군들이 참말로 근로자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인민의 충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우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언제나 후방사업을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 떨쳐나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끊임없는 혁신에로 더욱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생활양식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

김 량 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에서 문화혁명의 중요과업의 하나로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할데 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 낡은 생활관습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도덕생활을 창조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함으로써만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참다운 인간으로 키울수 있으며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더욱 전면적으로 확립해나가야 한다.

* *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생활양식이란 일정한 사회제도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을 말한다.

매개 사회에는 그 사회제도에 상응한 생활양식이 있게 된다. 봉건사회에는 봉건적인 생활양식이 있고 자본주의사회에는 부르죠아적생활양식이 지배한다.

생활양식은 해당사회제도의 성격을 반영하며 사람들의 의식정도와 처지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지고 사회악이 근절된 사회주의사회에는 그에 고유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낡은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관계가 이루어진 사회주의제도를 반영하여나온것으로서 그것은 가장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생활양식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집단주의적생활양식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을 반영한 새로운 집단주의적생활양식이다.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사회에 와서 비로소 착취와 압박,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적대립이 없어지고 사람들사이에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참가하고있다. 사회

Digitized by Google

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하나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이러한 선진적인 사회제도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과거 사회의 모든 생활양식에 비할바없이 우월한 혁명적인 생활양식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사회주의사회관계를 반영한 집단주의적생활양식이라는 여기에 그것이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썩어빠진 부르조아생활양식과 구별되는 본질적차이가 있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생활양식은 자기만 잘살려는 개인리기주의적인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의 손에 쥐여진 자본주의사회는 사람들의 가치와 존엄이 돈에 의하여 평가되고 인간관계가 금전관계로 맺어지는 황금만능의 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고있으며 멸망하여가는자들의 비애와 절망, 부패타락한것이 하나의 생활풍조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는 사기와 협잡, 개인의 향락과 안일, 부화와 색정적인것으로 가득차있는 썩어빠진 사회이다. 부르죠아생활양식은 이러한 사회제도를 반영한것으로서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반동적인 생활양식이며 온갖 사회악을 퍼뜨리는 부패타락한 생활양식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민족적형식을 띠게 된다. 사회주의제도라고 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생활양식이 꼭같은 것은 아니다.

생활양식은 민족적 특성과 생활감정의 반영으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적형식과 사람들의 시대적미감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기 민족적특성에 맞게 생활을 창조해왔으며 사회적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다. 이 과정에서 매개 민족에게는 자체의 고유한 민족적 정서와 감정, 전통이 형성되고 사회와 더불어 그것은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바로 이러한 고유한 민족적인것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 창조되고 완성되는 가장 고상한 생활양식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내용이란 혁명적인 내용, 계급적인 내용, 다시말하여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내용,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내용,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내용, 모든 사람이 다 잘살게 하자는 내용 등을 말한다.

사회주의적내용은 인민의 구미와 정서에 맞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혁명적본질과 당적, 로동계급적, 인민적 성격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생활양식이라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미감에 맞을수 있으며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할수 있다.

참으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으로서 그것은 가장 우월하고 혁명적인 생활양식으로 된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9～470페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오래동안 생활을 통하여 굳어진 낡은 사회의 생활관습,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사회의 생활방식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 사회생활로부터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유물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할 때 그들의 사상을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있다.

생활양식은 사상의식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선진적이며 로동계급적인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사상을 건전하게 만들며 이와는 반대로 낡은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의식발전에 장애를 주게 된다.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건전하게 살지 못하고 되는대로 생활하며 쓸데없는 허례허식을 차리면서 잔치와 제사를 옛날식으로 하는것과 같은 낡은 생활관습은 다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흐리게 한다. 낡은 생활인습은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이 발붙일수 있는 바탕으로 되며 되살아날수 있는 온상으로 된다. 경험은 낡은 생활양식을 그대로 두면 지난날의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가 머리를 쳐들게 되며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썩어빠진 생활양식이 침습해들어오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온갖 잡사상과 낡은 생활관습을 없애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할 때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빛나게 점령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생활기풍을 확립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야 근로자들에게 문화적인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세울수 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8페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요구는 전체 인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할것을 요구한다.

근로자들이 공동로동에 참가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혁명적기풍,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맡은 일을 언제나 책임적으로 깐지게 수행해나가는 참다운 일본새, 사소한 안일과 해이, 자만도 없이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 전투적기풍등 혁명적인 기풍은 모두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울 때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야 온 사회에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가 튼튼히 서게 하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지배하게 할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숭고한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특히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어려운 혁명과업과 빨리 발전하는 현실의 절실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당면하여 우리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여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며 사소한 안일과 해이,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허용하지 않는다.

Digitized by Google

현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가지고 긴장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울 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우리 나라의 경제는 고도로 조직화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나라의 경제가 더욱더 조직화되고 부문간의 생산적련계가 밀접해진 조건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마땅히 사회주의경제관리 규범과 규정의 요구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일을 책임적으로 깐지게 해나가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행동준칙, 경제관리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여야 고도로 조직화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경제를 제대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킬수 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이렇듯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지키고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활동방식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방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였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사상을 흐리게 하고 좀먹던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한 가족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락후한 생활인습, 부르조아적인 개인리기주의적활동방식과 부패타락한 생활관습이 자취를 감추고 근로자들의 생활에서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철저히 서가고있다.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동지적 단결과 협조의 건전한 생활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 사소한 안일과 해이, 자만도 없이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 혁명가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그들은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며 언제나 락관과 신심,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투쟁과 생활의 신조로 삼고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 나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기풍이며 혁명적풍모이다. 참으로 우리 인민들의 생활방식, 활동방식은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생활기풍이 더욱더 확립되여가고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는 일은 사회가 발전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높아지는데 따라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문화도덕규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특히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적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70페지)

국가, 경제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

Digitized by Google

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사회주의적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선결문제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행동준칙과 생활규범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이미 습관된 낡은 생활양식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국가,경제 사업에 참가하고있다. 그러므로 국가, 경제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만들고 완성하며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정연하게 세워야 근로자들이 그에 따라 행동할수 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해나갈수 있다.

모든 국가,경제 기관들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빠짐없이 만들어내며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 관리법과 규정들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반영인것만큼 그것은 고정불변할수 없다.

국가, 경제 생활에서 새로운 관리법과 규정들을 만드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세우며 새로운 문화도덕생활규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국가, 경제 사업에 참가할뿐아니라 사회의 한 성원으로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참가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와 말과 행동, 옷차림과 례의도덕, 관혼상제 등에서 새로운 공산주의적생활규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생활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근로자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키게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사업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온 사회에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더욱 건전한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8페지)

아무리 새로운 규범과 행동준칙을 만들어놓아도 사람들이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을 내지 못하며 생활에서 구현될수 없다.

근로자들이 사생활로부터 시작하여 로동생활,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적 행동규범과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지배하게 된다.

낡은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꾸준히 벌려야 한다.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사람들속에서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진 낡은 생활양식은 매우 뿌리깊으며 집요하다. 그것은 하루이틀사이에 쉽사리 없앨수 없으며 그 어떤 강제적방법이나 행정적조치로는 해결할수 없는것이다. 새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은 꾸준하고 의식적인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낡은 생활양식의 허황성과 그것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잘 알려주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우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낡은 관습과 건전치 못한 생활기풍에 사상전의 집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 사상교양과 함께 사상투쟁을 옳게 배합하여야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과 관습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규정의 요구

Digitized by Google

대로 생활하도록 할수 있다.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널리 벌리며 새로운 생활양식, 문화도덕생활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관습과 전통의 힘으로 하여 집요하게 남아있는 낡은 생활양식의 잔재를 말끔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 사업은 일반적인 교양과 해설 그리고 개별적인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우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는것과 함께 사회적운동으로 본보기를 만들어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고 문화도덕생활규범들을 창조해나가며 본보기를 가지고 실물로 보여주고 배워줄 때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본보기를 만들어 일반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서 그것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는데서도 힘있는 방도로 된다.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이 이 사업의 앞장에 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각된 사람들이 먼저 낡은 생활습성을 하나하나 없애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점차 따라나서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낡은 사회의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이 깨끗이 없어지고 온 사회에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철저히 서게 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1페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사회의 선각자들이다. 우리 사회의 선각자들인 일군들과 당원들이 먼저 낡은 생활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히 그것을 본받게 될것이다.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생활에서 사치와 부화, 안일과 해이, 허례허식을 없애고 혁명가답게 생활을 항상 검박하게 꾸려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을 누구보다도 자각적으로 지키며 언제나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은 문화혁명을 더욱 다그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보람찬 사업의 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기백과 생활기풍이 더욱 나래치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주체의 빛발아래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이룩된 세기적변혁에 대한 생동한 예술적화폭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에 대하여—

한 둑 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고귀한 투쟁경험을 예술적으로 빛나게 형상하는것은 우리의 당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우리 혁명가들의 불굴의 투쟁과 민주혁명시기,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의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계속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6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해방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세기적변혁이 이룩되였다.

지난날 봉건통치배들과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히고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은 나라의 당당한 주인, 땅의 참된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가물에 타고 큰물에 씻기여 농민들의 애간장을 말리우던 메말랐던 땅이 오늘은 관개수 흘러넘쳐 자연의 그 어떤 광란속에서도 해마다 만풍년을 안아오는 풍요하고 은혜로운 대지로 전변되였다.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이 거대한 사회력사적변혁들을 훌륭하게 형상한 서사시적화폭들이다.

장편소설 《새봄》은 지난날 땅이 없었던탓으로 하여 자주성을 여지없이 짓밟혔던 우리 나라 농민들이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토지개혁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여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장편소설 《생명수》는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아래 봉산벌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였던 물문제가 전후 어려운 시기에 빛나게 해결되였다는것을 주제사상으로 하고있다.

력사적인 토지개혁과 수리화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은 우리 나라 농촌문제해결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토지개혁은 우리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하여 그들에게 행복한 새생활을 마련하여주고 농촌경리의 발전과 나라의 전반적사회경제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은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어지돈관개공사는 우리 농촌의 수리화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이였다.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는 이렇듯 거대한 력사적사변과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반영하면서 그것을 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과정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인민들에 대한 자애로운 사랑의 빛나는 결실로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바로 여

Digitized by Google

기에 이 작품들이 거둔 가장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가 있다.

장편소설 《새봄》은 땅에 서린 우리 농민들의 피어린 원한과 세기적념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토지혁명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민주개혁의 첫 과업으로 토지문제해결을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감동적으로 형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력사적인 당창립대회에서 《토지문제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으로 토지개혁을 내세우신데 이어 1946년 3월 5일에는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지개혁에 앞서 정확한 계급정책을 제시하시고 농조조직사업과 소작료 3,7제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데 대하여 빛나는 예술적화폭으로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특히 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추운 겨울날 한 농촌마을에 친히 내려가시여 우리 나라 농촌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토지개혁법령초안에 토지의 분배는 가족수와 로력자수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써넣으시며 최종적으로 완성해나가시는 장면과 빈고농들로 농촌위원회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토지개혁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농민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장면들이 감동적으로 그려져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신데 대하여 구체적인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이러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해방직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토지개혁의 력사적과업이 극히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 농촌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흥겨운 지상락원으로 만드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령도는 장편소설 《생명수》에서도 감명깊게 형상되고있다.

지난날 땅과 함께 물에는 우리 농민들의 피맺힌 원한이 깃들어있었으며 물을 마음껏 쓰고 다루는것은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였다.

대를 두고 물려오는 우리 농민들의 이 간절한 소원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기술혁명에서 수리화를 확고히 앞세우시고 평남관개에 이어 어지돈관개를 완전히 우리의 설계,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물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인 념원을 깊이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미국놈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봉산벌농민들과의 약속이 늦어진것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일부 일군들이 경제적타산을 운운하면서 어지돈관개공사를 뒤로 미루자고 할 때에도 《…우리는 황금으로 언제를 쌓는 한이 있어도 하루빨리 봉산벌에 생명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라고 뜨겁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눈물없이는 받아안을수 없는 이 벅차고 격동적인 말씀에는 세상에서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며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농민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시여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웅대한 구상과 크나큰 사랑이 깃들어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의 거룩한 자욱을 찍으시며 몸소 눈덮인 비탈길을 오르시여 어지돈관개공사의 중심을 이룰 언제와 저수지 자리를 잡아주시며 수리화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는 격동적인 장면들과 때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석수가 흘러내리는 흙굴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들어가보시기도 하며 강재를 비롯하여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건설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숭엄한 모습을 통하여, 나라에 몇대밖에 없는 《기중기의 왕》인 짚크레인을 유능한 운전수까지 붙여서 보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당대표자회에 참가한 수풍발전소의 영웅연공작업반장을 보내시여 조립작업을 돕게 하시는 감동적인 사실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어지돈판개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심오하게 그려내였다.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는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돌려주신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고귀한 은정을 잘 형상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세기적전변의 력사를 더욱 감동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이름없는 한 산골마을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가난한 농민들을 만나보러 왔으니 그중 못사는 집으로 가자고 하시며 키낮은 오막살이에 친히 들리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최명진을 비롯한 양지말농민들이 토지개혁을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고있다는 것을 료해하시고 친히 그들을 부르시여 친어버이사랑으로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자리를 같이하시고 식사까지 함께 나누신다.

농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깊이 심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어도 물이 없다면 토지개혁이 무슨 은을 내랴싶으시여 저수지 막을 자리도 잡아주시고 농민들의 씨앗이며 농쟁기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피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새봄》에 펼쳐진 이 모든 화폭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우리 농민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얼마나 감명깊게, 자랑차게 칭송하고있는것인가!

어버이수령님의 이렇듯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과 인민적풍모는 장편소설 《생명수》의 갈피갈피마다에서도 빛나게 형상되고있다. 몸소 보내주신 백성보의 양수기를 지키다가 미국놈들의 폭격으로 최후를 마친 한 당원 로동자의 희생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그의 유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크나큰 은정, 지난날 물고생으로 생긴 정순갑로인의 병을 고쳐주시려 중앙병원에 보내주시는 사랑의 이야기 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그 깊이와 높이를 다 헤아릴수 없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숭고한 인민적풍모에 대한 감동적인 화폭들이다.

작품들은 이러한 숭고하고 감동적인 형상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농촌문제해결의 기본과업으로 나섰던 토지개혁의 력사적인 승리와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수리화의 성과적실현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 은혜로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숭고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자애로운 사랑의 품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농민들이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땅의 주인,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갈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는 력사적인 토지개혁과 농촌수리화와 같은 거대한 사회력사적사변을 폭넓게 반영하면서 그것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과 위대한 사랑에 대한 불멸의 송가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심을 키워주는 유일사상교양의 참다운 교과서로 되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2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반영하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극소수의 계급적, 반동적 적대분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8페지)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는 우리 당의 일관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반영함으로써 근로자들 특히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될 기회가 없었던 새세대들을 혁명투쟁의 진리와 계급투쟁의 법칙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새봄》은 해방직후 토지개혁당시 우리 당의 계급정책을 잘 반영하고있으며 《생명수》는 전후시기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심오하게 형상하고있다.

토지개혁은 오랜 세기를 두고 우리나라 농촌을 지배하여온 봉건적착취관계와 지주계급을 청산하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변혁이였으며 수리화 역시 단순히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경제기술적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토지개혁과 농촌수리화를 위한 투쟁은 처음부터 심각한 계급투쟁, 사상투쟁을 동반하게 되였으며 이 어렵고 복잡한 사업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빛나게 수행될수 있었다.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에서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의 전형적인 형상을 통하여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우리 당의 계급로선에 맞게 무엇보다먼저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기본계급을 작품의 중심에 내세우고 토지개혁과 대자연개조사업에서 그들이 논 핵심적역할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밝히고있다.

《새봄》에서는 해방직후 인민정권을 세우고 토지개혁을 하는 과정을 날카로운 계급투쟁과정으로 폭넓게 반영하면서 이 투쟁의 시련속에서 성장발전하는 인물들의 전형적성격을 진실하게 그려내였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항일투사 문승범의 지도밑에 해방전에는 일제의 《동원령위반죄》로 감옥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자 고향에 돌아와 인민정권을 세우고 토지개혁을 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서 억세게 싸워나가는 주인공 최명진, 지주계급에 대한 피끓는 증오심과 새 사회, 새생활에 대한 불타는 지향을 가슴에 안고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리인민위원장 변귀남, 농조위원장인 마을의 오랜 빈농 동석준로인 그리고 농민들을 적극 도와나서는 광산로동자 박진 등 기본계급출신 인물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이들의 성격에서 주도적특질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심이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만 일해나가려는 불타는 열정과 지향이다. 주인공들의 이러한 성격적특질은 어버이 수령님께 뜨거운 정성을 담아 마련한 햇쌀을 올리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환영하여 삼가 편지를 올리는데서와 농조결성과 소작료 3,7제투쟁, 인민정권결성과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 등을 통하여 깊이있게 형상

되였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또한 긍정적주인공들의 성격에 체현된 혁명적열정과 지주계급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새생활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미래에 대한 랑만, 뜨거운 인정세계와 의리를 생활적으로 훌륭히 전형화하였다. 이리하여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땅의 주인이 되여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농민들의 새로운 성격적풍모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생명수》에서는 《새봄》과는 다른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슬기로운 모습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기술혁신조를 책임지고 매일 밤 판개공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시공방법을 탐구해나가는 연공작업반장 박대성을 비롯하여 곽동수, 한상도 등 작업반원들, 이들을 적극 떠밀어주는 어제날의 공병중대장인 직장장 안병삼, 은혜로운 어지돈물결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굳은 결심을 품고 돌격대원들의 앞장에 서서 투쟁하는 김봉숙 등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들이다.

이들은 간첩 장억대놈의 악랄한 파괴암해책동과 부기사장 황종구의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물리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간다. 경사가 70도나 되는 가파로운 비탈길로 대형압축기를 대담하게 끌어올리는 연공들의 기적적인 위훈, 사나운 폭풍우속에서 두려움 모르는 헌신성으로 꾋크레인을 구원해내는 건설자들의 희생적인 투쟁모습은 그대로 우리 시대 청년들의 불굴의 혁명적기상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긍정적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을 진실하게 일반화하였을뿐아니라 어지돈판개공사를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여나가는 각이한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을 옳게 반영하였다.

작품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비결은 남들보다 중뿔나게 앞서지도 말며 그렇다고 너무 뒤지지도 않으면서 그저 무난하게 일하고 쓸쓸하게 처신하는데 있다는 《신조》밑에 소극성과 보수주의에 사로잡혀있다가 심각한 사상투쟁과 벅찬 건설투쟁속에서 점차 자신을 뉘우치는 부기사장 황종구와 집단과 동지들의 꾸준한 방조밑에 개인리기주의의 때묻은 병집을 털어버리고 어엿한 로동자로 개조되여가는 어제날의 수공업자 송병무의 형상이 진실하게 그려져있다.

낡은 사상을 털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개조되여가는 이들의 형상은 비판을 통하여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에까지 데리고 가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수리화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꽃피우려는 일념으로 자신의 온갖 지혜와 재능을 깡그리 바치며 억세게 싸워가는 책임기사 문석빈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빛나게 확증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수리화방침의 원대한 구상을 받아안은 문석빈은 새로운 고언제설계안을 창안하여 막대한 국가 자재와 자금을 절약할수 있는 예비를 찾아내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사의 기한단축을 위한 새로운 시공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 탐구에 탐구를 거듭한다.

Digitized by Google

새로운 시공방법의 도입은 소극분자이며 보수주의자인 부기사장 황종구의 압력과 간첩파괴암해분자 장억대의 모해와 강박으로 하여 처음부터 난관에 부닥치며 이로 하여 문석빈은 때로는 신심을 잃고 동요도 하며 고민도 한다. 그러나 문석빈은 당조직의 지도와 로동계급의 방조, 실천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자신의 사상적나약성을 극복하며 과학기술로써 언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인테리로 자라난다.

참으로 책임기사 문석빈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확증이다.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는 해방후 토지개혁시기와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의 계급투쟁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새봄》은 고농 및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 동맹하여 부농을 고립시키며 지주의 온갖 반항을 철저히 분쇄할데 대한 우리 당의 계급정책의 정당성과 토지개혁시기의 계급투쟁을 잘 그리고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최명진을 비롯한 양지말의 빈고농들을 한편으로 하고 지주 강병기를 비롯한 지주계급과 그 앞잡이들을 다른편으로 하는 갈등이 처음부터 첨예하게 극단적으로 조성되며 생활이 발전하고 투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것은 더욱 격렬해진다. 갈등을 계급투쟁의 법칙에 맞게 풀데 대한 우리 당의 문예방침을 구현하여 작품에서는 지주계급과 농민들간의 갈등을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또한 극좌극우적인 사상경향을 반대하는 투쟁도 잘 그리고있다.

작품에는 일제와 지주에 대한 증오심은 가지고있으나 참다운 혁명의 길, 투쟁의 길을 알지 못하여 《사회주의혁명》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드는 군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광섭의 좌경적인 사상경향을 반대하는 투쟁이 실감있게 그려지고 있다.

소설은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지주 강병기일당을 때려부시며 임광섭의 좌경적사상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잘 그려냄으로써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토지혁명이 어떠한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수행되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형상적으로 확증하였다.

장편소설 《새봄》이 지주계급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반영하는 적대적갈등을 기본으로 하고있다면 《생명수》는 전후시기의 계급투쟁과 인간관계를 반영하고있다. 이 작품에서는 전후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농민들이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신비주의,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짓부시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대규모적인 어지돈관개공사를 진행해나가는 투쟁을 보여주는 다양한 갈등을 설정하고있다. 이와 함께 소설에서는 대자연개조사업을 위한 간고하고도 보람찬 투쟁속에서 맺어진 관개건설자들사이의 인간관계를 진실하게 설정하고 해결하였다.

이렇듯 이 작품들은 계급투쟁의 법칙에 맞게 예술적갈등을 옳게 설정하고 해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력사적사변들의 본질적내용과 특징,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하게 반영하였다.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는 토지개혁과 농촌수리화를 위한 로동계급과 농민들의 보람찬 투쟁을 형상하면서 그들을 교양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묶어세우며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에로 이끌어나가는 항일투사 문승범과 종합기업소 당위원장인 리윤철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하게 관철하여나아가는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토지혁명사상과 수리화방침의 위대

한 승리에 대한 열렬한 송가일뿐아니라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빛나는 승리에 대한 자랑찬 서사시이다.

3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는 산 인간과 실생활을 진실하게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성과작으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169~170페지)

인간과 그 생활을 생동하게,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인간학인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자주성에 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빛나게 창조하여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교과서로 될수 있다.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는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거대한 사회력사적변혁들을 산 인간과 실생활에 대한 생동하고도 감동적인 예술적화폭속에 그려내였다.

《새봄》에서는 해방후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며 토지개혁을 하기 위한 투쟁과 같은 위대한 사회력사적사변들을 취급하면서 그것들을 주인공들의 운명문제와 밀접히 결부하여 묘사하였으며 주인공들의 성격을 깊이있게, 생동하게 그려내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시켰다.

또한 《생명수》에서는 어지돈관개공사를 취급하면서 생산기술적문제를 전면에 내세운것이 아니라 인간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정확한 예술적해답을 주었다. 작품에서는 경제실무적문제나 기술적문제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자체를 보여주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적로동에 대한 주인공들의 혁명적립장과 태도, 보람찬 로동과정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형상적으로 밝히는데 기본을 두고있다.

예술적형상의 깊이는 결국 주인공들의 성격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장편소설 《새봄》에서 문승범, 최명진, 변귀남, 리분옥, 《생명수》에서 박대성, 김봉숙, 문석빈 등 여러 인물들의 성격은 현실 그대로의 진실성을 가지고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작품들에서는 다양한 극적 정황들과 계기들에서 매 인물들의 성격적특징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였으며 생활의 흐름과 투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주고 이 과정에 발현되는 인물들의 구체적인 사상감정과 지향, 념원 등을 깊이있게 파고들었다.

주인공들의 성격을 전형화하면서 작품들은 그들의 정치사상적풍모를 뚜렷이 밝혀내였으며 생활의 다양한 정황과 계기들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고상한 인간성, 륜리도덕적풍모를 감명깊게 그려내였다. 《새봄》에서 변귀남, 리분옥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주인공 최명진의 확고한 계급적립장에 기초하고있는 뜨겁고도 열렬한 혁명적동지애, 《생명수》에서 박대성을 비롯한 연공작업반원들사이에 오가는 뜨거운 공산주의적인간애 등은 주인공들의 전형적성격을 감명깊게 드러내보이며 작품의 형상성, 예술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있다.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는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독창성, 비반복성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개성화하였다. 문학예술작품

Digitized by Google

이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여주며 강렬한 미학정서적감화력을 나타내려면 독창적으로 씌여져야 하며 특히 형상적화폭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들의 성격이 잘 개성화되여야 한다.

《새봄》과 《생명수》의 여러 인물들은 생활경위도 다르고 성격적특징도 다른 비반복적인 인물들이다. 이 인물들은 전형적인 성격을 구현하고있으면서도 뚜렷한 개성적특성을 지니고있는 산 인간으로,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인물로 생동하게 그려져 있다. 그렇기때문에 이 인물들이 사람들에게 그처럼 인상깊고 감명깊게 안겨오는것이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개성화하기 위하여 이 작품들은 장편소설의 형태상 특성에 맞게 여러모로 깊이있게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려냄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비반복적인 인물형상들을 창조하였다. 실로 이 소설작품들은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뚜렷이 살린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 장편소설들은 인간성격과 실생활을 생동하게, 풍부하게 그려내며 사회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정당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생활의 론리에 맞게 구성과 이야기줄거리를 극적으로 빈틈없이 조직하였으며 여러가지 문학적인 이야기들을 적절하게 맞물려넣었다.

이 소설들에는 해방전에 땅이 없고 물이 없는탓으로 하여 우리 나라 농민들이 겪은 피눈물나는 수난에 찬 이야기도 있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해방후 우리 나라 농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과 대자연개조사업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사람들이 발휘한 한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풍모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다. 이 여러가지 문학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심금을 강하게 울려주고있으며 주체의 빛발아래 이 땅우에 펼쳐진 세기적변혁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보여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토지개혁과 어지돈관개공사를 여러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폭넓은 서사시적화폭속에 그려낸 이 장편소설들은 격동적인 사변들과 영웅적인 투쟁으로 가득찬 사회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당시의 력사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실로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는 주체의 빛발아래 이 땅우에 이룩된 위대하고도 거창한 사회력사적변혁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혁명적현실과 우리 인민의 미학적요구에 맞는 훌륭한 혁명적작품들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이 장편소설들은 그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다. 작품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속에서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훌륭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작품들의 주인공들처럼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문제

김 재 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리론적해명을 주신데 이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경제관리에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을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력사적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리용에 관한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독창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경제리론의 발전에서와 경제관리실천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는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청산된 가장 우월한 사회인 동시에 낡은 사회의 유물들이 아직 남아있는 과도적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뒤떨어져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전인민적 소유와 함께 협동경리가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에 대한 두가지 소유형태는 상품화폐관계가 남아있게 하는 객관적인 기초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또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재산을 자기의 소유처럼 책임적으로 애호관리하는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있지는 못하며 로동이 영예롭고 보람찬것이기는 하나 아직 공산주의사회에서처럼 그것이 생활상 제1차적인 요구로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를 리용하여 경제관리를 합리화하여나갈것을 요구한다.

상품화폐관계의 리용문제를 옳게 밝히는것은 사회주의경제리론분야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품화폐관계의 리용문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국가가 옳게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09페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는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이 작용하는

Digitized by Google

것과 함께 상품화폐관계도 남아있으며 따라서 경제관리에서 그것을 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상품화폐관계를 정확히 리용하려면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화폐관계, 가치법칙작용의 특성을 옳게 리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상품화폐관계에 대한 정확한 리해는 사회주의경제리론분야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된다.

사회주의경제리론분야에서 나선 이 중대한 과업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관한 리론은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에 걸친 론쟁에 종지부를 찍고 심히 혼란되였던 상품화폐관계에 관한 리론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서 바로세워놓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에 관한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심각한 론쟁의 대상으로 되여있었다. 이 과정에 상품화폐관계에 관한 리론은 많이 외곡되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혼란되기도 하였다.

상품화폐관계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로 제기된것은 주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화폐관계의 의의와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순수한 리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실천과 직접 관련되여있는 문제로서 반드시 해결되여야 할 중대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러면 국가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설비와 자재, 원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산수단은 사회주의적협동생산에 기초하여 생산하고있고 비록 한 기업소에서 다른 기업소로 옮겨지더라도 사회주의국가는 여전히 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또한 그러한 생산수단은 자유매매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자재공급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공급되기때문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1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상품의 본질과 상품생산의 유래, 생산수단류통의 특성에 대한 옳은 리해로부터 출발하여 해명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이며 주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국영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생산수단은 상품이 아니라는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의 역할을 과장하거나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편향들을 지적하시고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의 리용이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기업관리를 합리화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며 다른편으로 가치법칙은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작용한다는것을 심오히 밝혀주시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를 경제관리의 수단으로 응당 리용하되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의의를 과장하거나 절대화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국영기업소들사이의 생산수단거래에서는 자유매매와 같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거래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과학적진리가 명백히 밝혀지게 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화폐관계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거래의 성격,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의 의의와 역할이 정확히 밝혀지게 되였으며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에 대한 온갖 그릇된 편향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옳게 리용할수 있는 사상리론적기초가 마련될수 있었다. 참으로 이것은 수십년간에

Digitized by Google

결친 론쟁을 빛나게 총화한것으로 되며 상품화페관계에 관한 리론을 혼란과 위기에서 건저내고 확고한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운 거대한 력사적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상품화페관계에 관한 리론이 사회주의경제리론발전에서 가지는 의의는 또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발견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자재공급계획과 협동생산계획에 따라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들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적형태를 가지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치법칙도 상품생산에서처럼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1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영기업소들사이에 류통하는 생산수단이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적형태를 띠며 거기에서는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용한다는것을 새롭게 해명하시였다. 이리하여 생산수단의 생산과 류통에서는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리용해야 하며 가치가 아니라 가치형태를 다만 경제계산의 도구로 리용하여야 한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국영기업소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니면서도 상품적형태를 가지게 되는것은 국영기업소들이 다같이 단일한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과 관련하여 생산수단을 리용하고 관리하며 경리를 운영하는데서 마치도 서로 다른 소유의 기업소들과 같이 서로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영부문의 매개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은 제각기 국가의 유일적계획에 따라 다른 기업소들로부터 생산수단을 넘겨받아 리용하며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일정한 리익을 주어야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국영기업소들의 이러한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은 그들사이에 생산수단을 넘겨줄 때 그것이 상품은 아니면서도 등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일적으로 정한 값을 받고 넘겨주게 한다.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 사회주의국영기업소들의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은 경제리론분야에서의 위대한 발견이였으며 새로운 독창적인 경제리론의 탄생이였다.

원래 새로운 과학적리론을 발견하는것은 과학에서의 최대의 성과이며 리론발전에서의 불멸의 업적이다. 특히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경제문제에서 과학적발견이 있게 될 때 경제리론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며 경제리론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국영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생산수단을 어떻게 보며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화페관계에 관한 리론의 초점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문제를 옳게 해명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페관계에 관한 전반적문제의 리해가 좌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화페관계에 관한 론쟁을 총화하시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발견을 하심으로써 상품화페관계에 관한 전반적리론을 새로운 과학적기초우에서 체계화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리론이 발견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리해, 국영기업소독립채산제의 본질과 의의, 국영기업소들에 대한 생산수단공급의 형식, 기계설비, 원료, 자재의 합리적리용에 대한 통제 등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실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관한 새로운 리론의 창시는 위대한 사상리론

Digitized by Google

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의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그토록 복잡하게 뒤엉켜져있던 상품화폐관계에 대한 리론이 빛나게 총화되고 정연한 체계를 갖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리론으로 발전할수 있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경제리론발전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경제관리실천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상리론의 참다운 가치는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노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되게 된다. 리론은 실천의 요구로부터 나오며 혁명실천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상품화폐관계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수단이며 따라서 상품화폐관계에 관한 리론의 참다운 가치는 그것이 경제관리개선을 위하여 얼마나 훌륭히 복무할수 있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가치공간을 옳게 리용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좌우경적편향을 범하면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지 못하기때문에 우리는 1969년 3월에 발표한 론문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였습니다. 이 론문에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치법칙을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93페지)

종래에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화폐관계에 대하여 말할 때 주로 그의 리론적해명에 많이 치중하였고 그것을 경제관리에 어떻게 리용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해답이 없었다. 다만 경제관리에 가치법칙을 리용해야 한다는것이 강조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물질적관심성의 원칙을 적용하며 가격을 잘 정해야 한다는것이 일반적으로 제기되여왔었다. 그러나 문제는 독립채산제를 어떻게 실시하고 물질적관심성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며 가격제정과 재정통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 하는것이다. 이리하여 경제관리에 가치법칙을 리용하는 구체적방도와 원칙을 새롭게 해명하는것이 중요한 실천적과제로 나서게 되였다.

그런데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을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경제관리실천에서 매우 심중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관리하는가 자본주의적방법으로 관리하는가,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고 생산수단과 로력을 절약적으로 리용하는가 못하는가, 경제건설에 생산자대중의 창조적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가치법칙을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다. 그러므로 경제관리에 가치법칙을 리용하는데서는 반드시 두가지 문제,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복무하도록 가치공간을 리용하는 문제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자본주의화의 경향을 막고 사회주의법칙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가치공간을 능숙하게 리용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만일 이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경제관리를 자본주의적으로 하려는

Digitized by Google

우경적편향을 범하거나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지 못하고 많은 생산수단과 로력의 랑비를 가져오게 하는 좌경적오유를 범할수 있다.

실로 상품화폐관계, 가치법칙의 리용문제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사이의 한계를 명백히 가르고 절약하며 증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무엇보다도 가치법칙의 리용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는 묘술과 방법론을 제시하시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상품화폐관계리용에 관한 리론이 경제관리일군들의 행동의 지침으로 되는 근거가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관리개선에서 가지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산수단의 생산과 류통, 소비상품의 생산과 류통 분야에서 가치법칙을 리용하는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특히 가치공간을 경제계산의 도구,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물질적자극과 통제의 수단으로 리용하는 구체적방도들을 과학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이리하여 가격제정방법, 기계설비, 원료, 자재의 공급과 리용에 가치형태, 상업적형태를 리용하는 구체적방도들이 밝혀지고 가치법칙을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합리화하고 생산자들의 로력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리용할수 있는 방법이 해명될수 있었다. 경제관리에 가치법칙을 리용하는 구체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이 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상품화폐관계리용에 관한 리론이 경제관리실천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또한 가치법칙리용에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을 밝힘으로써 경제관리에서 자본주의화의 경향을 철저히 막고 사회주의법칙의 요구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가치법칙을 어떤 원칙에서 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 사회주의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보며 그에 따라 가치법칙을 어떤 위치에서 리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작용의 특성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상품화폐관계, 가치법칙리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심으로써 이 중대한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상품생산이 있는것만큼 가치법칙이 작용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으로서 가치법칙을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9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이 차지하는 지위를 명철하게 분석하신 기초우에서 가치법칙을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가치법칙을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으로 리용한다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 특히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리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가치법칙을 제한된 범위에서 리용하며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에 철저히 복종시켜 가치공간들을 리용한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는 계획적관리원칙에 철저히 의거하면서 원가, 가격, 리윤과 같은 경제적공간들을 리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유일적지도밑에 기업소의 경영상 독자성을 살려나가야 한다. 이것은 기업소들에서 상품화폐관계를 국가계획을 더 잘 수행

Digitized by Google

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며 모든 가치공간들을 국가의 유일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만 리용하며 국가수입을 늘이는 기초우에서 기업소리윤을 분배리용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치법칙리용의 혁명적원칙을 제시하신것은 경제관리를 자본주의화할수 있는 길을 철저히 막고 경제를 사회주의법칙의 요구에 따라 정확히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신 커다란 공헌으로 된다.

원래 가치법칙은 상품화폐관계, 사람들의 물질적리해관계와 직접 결부되여있는 경제법칙으로서 그것을 망탕 적용하면 사람들에게 리기주의를 조장시키며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본주의기업관리방법에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가치법칙의 리용을 홀시하여도 안되지만 그 의의를 과장하고 망탕 적용하여도 안된다. 가치법칙은 반드시 경제관리를 자본주의화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리기주의도 조장시키지 않으면서 기업관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가치법칙을 정확히 리용하는 길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상품화폐관계, 가치법칙리용의 원칙과 방도들은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을 옳게 결합시키고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상품화폐관계리용에 관한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위대성, 경제관리개선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거대한 실천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리용에 관한 리론은 그 과학성과 혁명성, 진리성과 독창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인민경제실천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치법칙리용의 원칙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고 경제관리에서 그것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업관리가 규범화되고 더욱 합리화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국영기업소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 자재상사사업규정을 비롯한 필요한 규정들이 제정도입되고 고정재산상환비제도와 원료, 자재의 공급과 리용에 가치형태, 상업적형태를 리용하는 효과적인 방도들이 적용되여 기자재공급사업이 더욱 개선되였으며 기계설비의 리용률을 높이고 원료, 자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가치법칙을 정확히 리용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그 어떤 자본주의적요소도 생겨날수 없게 되였으며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제를 공산주의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되였다.

이렇듯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진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나라의 경제를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상품화폐관계리용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일군들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신 결과이다.

우리의 현실은 모든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관한 리론을 철저히 관철할 때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제2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

Digitized by Google

이 나서고있다.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게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경제적공간들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야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경제를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들을 앞당겨점령할수 있다.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히신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관리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가치법칙을 옳게 적용하여야 합니다.》(《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7페지)

가치법칙을 옳게 적용하여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면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출수 있으며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고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다.

현시기 경제관리에 가치법칙을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제품의 가격을 바로 정하는것이다.

가격은 가치법칙을 리용하는 기본형태이다. 가치법칙의 요구는 무엇보다도 가격제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려면 가격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가격은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의거하면서도 반드시 제품의 질을 타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가치법칙을 리용하여 생산을 늘이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자극할수 있다. 가격을 바로 정하지 못하면 생산물의 질을 빨리 높일수 없다.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가치법칙을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제품의 질에 따라 가격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제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이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도록 가치법칙을 리용하려면 또한 기업소들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가치법칙의 요구에 맞게 재정적통제를 바로하여야 기업소들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설비관리를 잘하며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도록 옳게 자극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창발적열의도 더욱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재정은행부문에서는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국가계획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관리에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여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의 자질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경제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하며 생산지휘를 잘하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일군들이 독립채산제와 가치법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능숙하게 적용할 때 가격제정사업도 잘할수 있으며 기업소들에 대한 재정적통제도 더욱 강화할수 있다.

모든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가치공간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독립채산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 새 전망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농업생산 장성의 중요한 예비

정 룡 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구상에 따라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는 전례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선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현실태와 그 발전에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최근에 진행된 전국농업대회에서와 여러차례의 교시들에서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고 농업부문에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전반을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고 농업계획화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알곡고지를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길이 밝혀졌으며 농촌경리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켜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강령적지침이 마련되였다.

우리의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며 농업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농촌경리부문앞에 내세우고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요구의 하나이며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로운 과업이다.

오늘 매우 높은 발전수준에 오른 우리 나라 농업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과학기술지식수준을 한층 더 높이며 농업계획화사업에서 당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정확히 구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나라 농업에서 알곡정보당 수확고는 이미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으며 농업생산이 고도로 집약화된 우리 나라에서 벼정보당 수확고는 이미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을 따라앞섰으며 강냉이정보당 수확고도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을 거의 따라잡고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비할바 없이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하신 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오래전에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의 어려운 과업도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나라 농업이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섰으며 강력한 기술장비에 기초하여 그 집약화수준이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나라 농업이 이처럼 높은 단계에 올라선 현실은 농업생산을 지도하는 사람이나 지도받는 사람이나 다같이 과학기술지식수준을 훨씬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복잡한 기술공정으로 전환된 농업생산의 모든 공정을 빠짐없이 계획화하고 그대로 어김없이 집행해나가며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려진 공급 및 보장 계획에 따라 협동농장들에 대한 공급사업과 보장사업을 원만히 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발전하는 현실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고 농업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알곡정보당 수확고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제는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조건에서 앞으로 정보당 수확고를 더 높이기 위한 중요한 예비는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찾아야 합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자》, 단행본, 12페지)

세계적수준에 올라선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농작물의 정보당 수확고를 더 높이기 위한 중요한 예비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고 농업계획작성에서 당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경험주의적으로 농사를 짓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두가 토양관리와 모판관리,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들을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에 맞게 칠줄 알아야만 정보당 소출을 더 높일수 있으며 현대적인 기계와 설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어 농업생산에서 큰 은을 내게 할수 있다.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업과는 달리 농업은 옹근 한해동안을 생산주기로 하고있으며 생산공정도 매우 복잡하다. 이것은 농업생산의 계획화가 인민경제 다른 부문의 계획화보다 훨씬 힘들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농업생산을 늘이려면 매 영농공정을 빠짐없이 계획화하여 로력조직, 기계와 설비의 공급, 영농자재의 보장 등 모든 사업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맞물리고 그에 기초하여 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자연의 제약을 받으면서 생물체를 키워 생산을 내는 농업에서도 모든 영농공정을 계획화하여 제때에 수행하고 농업생산의 매 시기와 토양조건, 농작물의 생육조건에 맞게 로력과 설비, 영농자재와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 정보당 수확고를 계속 높여나갈수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고 농업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여야 하며 남새와 공예작물, 알과 고기, 과일과 누에고치 등 농업생산을 전반적으로 더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은 토지리용률을 높이고 새땅을 얻어내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도 높일수 있으나 부칠수 있는 땅과 경지면적이 일정하게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 조건에서 주로는 정보당 수확고와 단위당 생산량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이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 자연개조 5대방침을 계속 관철하여 농사에서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확고한 밑천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 과업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며 그것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높은 과학기

술과 일원화, 세부화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며 동원적이고 현실적인 농업생산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할 때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비약과 전진이 이룩될수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고 농업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것은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년간 한랭전선은 기상관측으로써도 예측할수 없는 급격한 기후변동과 이상기후현상을 가져오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352페지)

농업은 원래 자연기후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의 하나이다. 생물체인 농작물은 토양과 물, 온도와 영양 조건 등 생육조건을 원만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장해주어야 제대로 자라고 알찬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최근년간 계속되는 한랭전선의 영향은 농작물의 생육과 결실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다. 이리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혹심한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있다.

한랭전선의 영향은 우리 나라에도 적지 않게 미치고있다. 이것은 농사를 더욱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농업계획화사업을 보다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농업계획화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고 농작물의 생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다.

높은 수준에 오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자랑찬 현실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생산자대중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고 여기에 세부화된 계획을 안받침할 때 기승을 부리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능히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늘여 식량을 계속 자급자족할뿐아니라 충분한 예비까지 마련함으로써 민족적독립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라의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나갈수 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며 농업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완전히 실현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적방침이며 농촌경리의 과학화, 현대화의 과업을 앞당겨실현하여 농업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기 위한 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는 강령적지침이다. 이 방침은 또한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올해에 다시한번 알곡 880만톤고지를 어김없이 점령하고 그것을 디딤돌로 하여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알곡고지를 앞당겨점령할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　　　*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고 농업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관철하여 주체농법의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보여주어야 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

Digitized by Google

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며 농업계획화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방침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뿐아니라 그 구체적인 수행방도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간다면 우리는 짧은 기간에 농업생산과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려면 그것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사상관점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매우 방대하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리유와 구실, 조건만 내세우면서 이악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과업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는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는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농업정책의 성과적인 관철은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힘있게 투쟁함으로써 농업생산의 과학화, 계획화를 다그쳐야 하며 자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농촌경리를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우려면 결정적으로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협동농장 농장원들과 분조장, 작업반장들로부터 농업위원회 지도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자》, 단행본, 7폐지)

오늘의 시대는 과학의 시대이며 우리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살고있다. 그러므로 혁명적열정과 경험만으로는 농업생산을 더 높일수 없으며 반드시 혁명적열정에 과학기술이 결합될 때에만 새로운 성과를 거둘수 있다.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협동농장원들로부터 농업부문의 지도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과학기술을 빠른 기간에 깊이있게 알수 있으며 농사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잘 지도하고 잘 지을수 있다.

농업부문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을 배우는데서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을 발휘하여 아는것은 배워주고 모르는것은 배우면서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자기 맡은 분야의 지식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깊이있게 소유하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통한 학습은 빠른 기간안에 농업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과학지식을 배워주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위력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더 잘 꾸리는데 힘을 넣어 농업과학기술도서들과 잡지, 농업과학연구기관들에서 만든 과학실험자료, 여러가지 걸그림과 기술교재들을 많이 갖추어놓음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이 주체농법의 원리와 토양학, 생물학, 비료와 농약에 대한 지식, 물관리에 대한 지식 등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체득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며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원리교양과 함께 직관교육과 실물교육을 잘하는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과학영화와 환등을 비롯한 직관교육기재들도 널리 리용하여야 농업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을 빨리 높일수 있으며 실물자료들을 갖추어놓거나 작업현장에서 과학기술원리와 함께 그 적용방법을 실지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생산자대중에게 과학기술적원리를 더욱 똑똑히 알려주고 생동한 지식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직관자료와 실물자료들을 더 잘 갖추고 매 영농 시기와 공정별로 방식상학도 내용있게 준비하여 진행함으로써 기술지식을 실지 써먹을수 있게 가르쳐주어야 한다.

이처럼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실속있게 그리고 꾸준히 벌려나가면 낡은 경험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우리의 농업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정확히 구현하여 농업부문의 계획화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계획화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12～13페지)

오늘 우리 농촌의 전반적기술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협동농장들의 경제적토대와 발전정도가 대체로 고르로와졌으며 농업부문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이것은 지난날과는 달리 농업에서도 계획을 일원화, 세부화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자면 계획화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기 위한 사업부터 짜고들어야 한다. 계획작성을 위한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아야 매 영농공정별로 요구되는 로력과 기계설비, 영농자재를 과학적으로 타산할수 있으며 계획작성에서 과학성의 원칙을 구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농장들에서는 포전별 토양분석표, 농기계와 생산설비들의 상태와 성능을 구체적으로 밝힌 자료, 농장원들의 기술수준과 지식수준에 대한 자료, 기상조건과 매해 농사진행정형을 세밀하게 기록한 영농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마련해놓아야 한다.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려면 계획작성사업에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적극 참가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당정책적요구를 먼저 알려주고 대중을 계획작성사업에 적극 참가시켜야 군중의 창발성과 건설적인 의견들을 계획에 정확히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생산을 직접 지

Digitized by Google

도하는 사람이 세우며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농업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완전히 실현할 때 농업생산에서 분산성과 산만성을 없애고 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농업의 전반적관리운영수준을 선진적인 공업의 수준에 한층 더 접근시킬수 있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고 농업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지도일군들앞에 나서는 임무는 매우 무겁다.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지휘성원들이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이 높은 사상적각오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가야 모든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당의 방침을 해설침투시키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농업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 농업생산공정이 완전히 기술공정으로 전환되고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도 기술적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적지도로 되여있는 조건에서 지도일군들이 누구보다도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농사를 잘 지도할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농업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데서 대중의 앞장에 서야 하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농업생산은 시기성을 요구하는것만큼 하루라도 철을 놓치거나 어느 한 공정이라도 설치게 되면 그만큼 생산에 지장을 준다.

지도일군들은 세부화된 농업계획에 따라 모든 농사일을 제때에 진행하도록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하며 협동농장들에 대한 공급사업과 보장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없애고 늘 아래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로력조직과 설비관리, 토지관리와 물관리를 비롯한 모든 사업을 옳게 하도록 세밀하고 깐지게 지도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농업생산에서 통일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모두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의 투쟁은 참으로 보람차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혁명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올해 농업생산에서 또다시 혁신을 일으키고 새 전망계획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앞당겨점령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조국통일은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단결하여 이룩하여야 할 력사적위업

최 창 덕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숙망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온 민족의 통일열망이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지난 1월 2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의 제의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의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소집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새로운 방안을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위업을 촉진하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이 7.4공동성명 본래의 리념과 원칙으로 되돌아가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시 그만두며,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무조건 즉시 중지하며,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민족대회를 소집할것을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남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제의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성명에서 내놓은 제안들은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대화와 합작을 통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새롭게 추진시키려는 가장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애국애족의 방안이다.

이 방안들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으며 세계인민들속에서 계속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고 단결하여 이룩하여야 할 력사적위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6페지)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을 끝장내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며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조국통일문제는 오직 그 주인인 우리 인민자신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민족적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조선인민자신에게 있다. 그 어떠한 외부세력도 주인인 우리 인민을 대신하여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해줄수는 없다.

우리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다.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은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해결에서 서로 싸우기를 원치 않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신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일관한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을 바라는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우고 그에 기초한

Digitized by Google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해결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이 원칙적립장에 따라 정세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수많이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분렬된 첫시기부터 통일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북과 남의 대화와 합작을 통하여 실현할것을 주장하여왔다.

그리하여 1972년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대화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북과 남의 대화와 합작을 통하여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하는데서 새로운 밝은 전망을 열어준 중대한 사변이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애국애족적립장으로부터 남북공동성명의 원칙들을 성실히 리행하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공에로 이끌기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온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만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방안들이 실현되였더라면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통일위업이 성과적으로 이룩될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은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우리 나라는 계속 분렬된채로 있으며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되였던 대화는 파탄되였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합작을 통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것을 한결같이 바라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중단된 다음에도 우리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대화와 합작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해결하려는 일관한 립장을 견지하여왔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신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이번 성명에서 내놓은 4개항목의 새로운 평화통일방안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과 방침에 따라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태도의 뚜렷한 표시이며 애국애족적이며 적극적인 립장의 확고한 표시인것이다.

북과 남이 7.4공동성명 본래의 리념과 원칙으로 되돌아가는것은 대화를 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가 이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바와 같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서 실현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이 기본원칙을 떠나서는 조선의 통일문제가 해결될수 없

Digitized by Google

습니다.»(《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상무취체역인 편집국장 일행과 한 담화》, 단행본, 10~11페지)

다 아는바와 같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은 민족적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며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확약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남북공동성명의 기본내용으로 되고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은 온 겨레의 의사와 념원을 가장 집약적으로 반영한 평화통일의 대헌장이며 통일위업실현에서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확고한 지침이며 민족공동의 강령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과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통일원칙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문제는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실현되여야 한다.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있다. 어제의 정세가 다르고 오늘의 정세가 다르다. 정세는 부단히 변하고있지만 우리 민족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해서만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북과 남이 7.4공동성명 본래의 리념과 원칙에로 되돌아가 그것을 재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하는것은 현시기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통일문제를 협의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이며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북과 남이 다같이 남북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화를 해야 그것이 진실로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될수 있고 통일문제를 협의하는데서도 실제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다.

만일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재확인하지 않고 말로만 《대화》요, 《합작》이요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빈말공부로밖에 될수 없는것이다. 오직 북과 남이 7.4공동성명 본래의 리념과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것이 준수되는 조건에서만 우리 민족앞에는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게 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북공동성명의 원칙들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고있는것이며 그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것을 시종 주장하고있는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이번 성명에서 7.4남북공동성명 본래의 리념과 원칙을 재확인할것을 제의한것은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립장을 다시금 보여준것이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난날 어떠했던지간에 상관하지 않고 통일을 위한 대화와 합작의 새 출발을 마련하려는 애국애족적립장을 표명한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시 그만두며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무조건 즉시 중지하는것은 민족대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초보적인 요구이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과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할데 대한 우리의 이번 제안은 민족대단결의 리념과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려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내기를 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한다면 오해와 불신, 반목과 대결을 가실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욱 조장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북과 남사이에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조

Digitized by Google

전에서는 우리 민족이 전쟁의 위협에서도 벗어날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의 평화적통일도 이룩할수 없게 될것이며 통일의 앞길에는 더욱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게 될것이다.

북과 남이 진심으로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하고 통일문제를 협의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시 그만두어야 하며 속에 품고있는 칼을 내버려야 한다.

북과 남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그만두며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즉시 중지하는 조건에서만 북과 남사이에는 반목과 대결이 아니라 민족적 화목과 단결의 분위기가 마련될수 있으며 합작을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크고작은 어떤 문제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과 군사행동의 중지, 이것은 실로 북과 남의 대화와 민족적단합을 위한 첫걸음으로 되며 7.4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또한 성명에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민족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전민족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은 통일문제를 온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의 범위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진행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50페지)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통일위업에 거족적으로 참가시켜 그들의 총의를 모으도록 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이룩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이다. 따라서 조국통일문제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의 독점물로 될수 없으며 또 그들의 힘만으로는 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없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각당, 각파, 각계층 인사들이 다 참가하여야만 그들의 총의를 모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더우기 오늘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조직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 속에서는 온 민족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통일문제를 협의해결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현실은 전민족대회를 소집하는것이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조치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나서고있다. 북과 남이 민족대단결의 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고 남북을 통한 자유로운 정당활동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여러 분야에 걸친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통일문제해결에는 실로 크고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나서고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들과 각계각층의 애국적인사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광범히 협의하여야 한다.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과 해외동포들이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론의해야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신뢰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다.

이번 성명에서는 전민족대회를 소집할것을 호소하면서 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민주공화당의 총재를 포

Digitized by Google

합한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들 및 각계각층의 애국적인사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조직대표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참가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전민족대회소집방안이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당국자들, 해외동포들까지 총 망라하여 조국통일문제를 거족적으로 협의하려는 가장 공명정대한 현실적인 발기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대표들을 망라하는 전민족대회소집의 형식이야말로 가장 권위있고 가장 폭넓은 대화와 협상의 방도로 된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의 위업실현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였던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31년전, 1948년 4월 남북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애국적발기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평양에서 력사적인 회합을 가지였다.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인사들과 김구, 김규식과 같은 민족주의거두들까지도 이 애국의 부름에 호응하여 불원천리하고 38선을 넘어 평양의 련석회의장으로 달려왔다.

남북련석회의의 참가자들은 비록 정견과 리념은 서로 달랐으나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한자리에 모여앉아 흉금을 털어놓고 구국대책을 토의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굳게 결의다지였다.

민족단합의 력사적인 회합이였던 4월 남북련석회의는 분렬을 막고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고 힘을 합칠수 있으며 함께 싸워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제도가 서있고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한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의 민족이며 다같이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그러므로 민족대단결의 리념과 원칙에서 출발한다면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얼마든지 단결하고 합작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거족적으로 협의할수 있다.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해외동포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민족대회를 소집하는것은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개척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될것이다.

우리가 내놓은 이번 제안들은 북과 남이 대화와 합작을 하고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근본 립장과 원칙, 대화의 형식과 취급문제뿐아니라 날자와 시간, 장소와 참가대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있다. 이것은 이 방안이 진심으로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합작을 실현하여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우리의 진지하고도 애국애족적인 립장으로부터 제기된것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성명에서 내놓은 4개항목의 방안은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원칙과 방침들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애국애족적인 방안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이 주동적인 방안은 국내외에서 폭풍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통일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데서 밝은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우리의 자주적평화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내외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지난 2월 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은 또다시 새로운 제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Digitized by Google

성명에서는 공화국정부와 조선로동당을 비롯한 제정당, 사회단체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남북조절위원회 대신에 예비적협의기구로서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올데 대하여 제기하고 그 구성과 규모,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하여 밝혔다.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데 대한 이 새 제안은 통일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현실적인 제안이다.

조국통일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자면 어떤 당파나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북과 남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흉금을 터놓고 통일문제를 협의하여야 한다.

바로 민족통일준비위원회는 이와 같은 요구에 부합되게 전민족적인 대화와 협상을 마련하고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

통일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본격화하며 전민족대회와 같은 민족의 총의를 반영하는 폭넓은 협상마당을 마련하여야 할 오늘의 정세하에서 조절위원회는 이미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한것으로 되였다.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우리의 이번 새 제안은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제안이다.

조국통일은 현시기 우리 민족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이다. 더는 미룰수 없고 미루어서는 안될것이 바로 조국의 통일이다. 따라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신성한 민족적의무이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민족분렬의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이 비정상적인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조선의 어느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결코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조국을 통일하는데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적의무를 다하는 길이 있고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이 약속되여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구현하여 이번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성명에서 내놓은 4개항목의 새로운 구국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어깨겯고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제기한 통일방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로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운동은 날을 따라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은 우리가 내놓은 새로운 구국방안을 기어이 실현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것이다.

근 로 자 1979년 제3호(루계 443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9년 3월 1일 발 행•1979년 3월 5일

ㄱ—9538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Digitized by Google

451
2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EAST ASIATIC LIBRARY
AUG - 1 1979
UNIVERSITY OF CALIFORNIA

4 호

평 양 근로자사 1979

Digitized by Google

제 4 호 (44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인류해방위업과 우리 혁명발전을 위하여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심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험난한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올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이 땅우에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펼쳐놓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만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승리의 길을 걸으며 빛나게 완성되여나간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은 참으로 거대한 역할을 하며 그의 현명한 령도는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며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수령의 령도밑에 완성되는 숭고한 혁명위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수령의 위업이기때문에 로동계급의 혁명력사는 바로 수령의 혁명력사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수령의 역할을 옳게 인식하고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자기 수령을 모시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강화하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과 그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완성된다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은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위대하고 성스러운 사업이다.

로동계급이 이 력사적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예속과 불평등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력사상 가장 심각하고 거창한 혁명적변혁과정이다.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사회발전법칙의 지식과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가져야 하며 동맹자들을 전취하고 혁명의 후비군을 동원하며 리용할줄 알아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이 모든 문제들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며 인민대중을 자주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새 력사의 개척자이며 창조자이다.

탁월한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그 리익의 대표자이고 그 운명의 체현자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빛나는 예지와 풍부한 투쟁경험 그리고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고있는 뛰여난 령도의 예술가이며 근로인민대중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자애로운 스승이다. 그러므로 수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비할바없이 거대한 역할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인민들은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66~67폐지)

로동계급의 수령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창시하여 혁명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다.

로동계급이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과학적인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가져야 하며 그에 의하여 확고히 지도되여야 한다. 과학적인 혁명사상, 혁명리론을 떠나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탁월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가져야 력사발전의 앞날을 정확히 내다볼수 있고 투쟁의 곧바른 길을 찾을수 있으며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탁월한 수령은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창시함으로써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에게 가장 옳바른 혁명적세계관을 주며 그들이 자기의 력사적사명과 투쟁의 전략전술을 깊이 파악하고 자기 위업을 위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탁월한 수령이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내놓은 때로부터 바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시원이 열리게 된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행정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고 혁명실천의 력사적경험을 분석총화하여 혁명사상, 혁명리론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켜나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령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투쟁원칙과 전략전술, 혁명투쟁의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준다.

로동계급의 수령이 노는 거대한 역할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림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요구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선진사상으로 무장하고 조직된 력량으로 될 때 낡은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의 참다운 주력군으로, 사회발전의 힘있는 동력으로 될수 있으며 새 력사의 보람찬 창조자로 될수 있다.

어떤 혁명운동에서나 거기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면 될수록 인민대중은 더욱더 위대한 력량으로 된다.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 사회발전법칙과 혁명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변함없는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게 한다.

탁월한 수령은 이와 함께 당을 비롯한 혁명조직을 창건하고 그 두리에 로동자, 농민을 묶어세움으로써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며 각계각층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개척해나갈수 있는 불패의 혁명대오를 마련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그들이 자기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수령은 혁명의 력사적뿌리로 되는 혁명전통을 창시하고 그를 빛나게 고수하여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준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승리해나갈수 있게 하는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혁명전통이 창시됨으로써 혁명이 끊임없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력사적뿌리가 마련되며 대를 이어 혁명위업을 고수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또한 탁월한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끊임없이 전진하여나간다.

수령은 혁명과 건설의 전반적행정을 통일적으로 령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복잡하며 과학적인 령도예술을 요구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31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포괄하는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해결해야 하는 장기간의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그것은 백주에 탄탄한 대로를 따라가듯이 헐하게 될수 없으며 순풍에 돛을 단 배와 같이 순조롭게 전진하는것이 아니다. 혁명도상에는 험한 가시덤불과 파란곡절이 있을수 있다.

험난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옳바른 령도가 보장되여야 한다.

옳은 령도가 보장되여야만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수령의 령도가 구현되여나가는 과정이며 그것은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만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무엇보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에 맞는 옳바른 로선과 투쟁방침, 가장 정확한 투쟁구호를 제시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수령이 제시한 옳바른 로선과 투쟁방침에 의해서만 근로인민대중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으며 혁명의 길에서 부닥칠수 있는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다.

탁월한 수령은 능숙한 령도방법과 세련된 지도작풍으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며 그들을 힘있게 이끌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해나간다.

수령은 혁명과 건설의 전진운동을 가로막고 혁명대오를 파괴하려는 반혁명세력의 교활한 책동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음모를 제때에 포착하고 걸음마다 짓부심으로써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여나간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한 수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로동계급이 주권을 전취한후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를

Digitized by Google

세우고 그 총체를 이끌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사회주의혁명에 적대되는 온갖 반혁명적요소를 철저히 진압하며 근로인민의 리익과 혁명의 리익을 옹호하는 로동계급의 강력한 무기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은 당과 계급과 대중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며 최고뇌수이며 심장이다. 수령이 없는 당은 지휘관이 없는 군대와 같다. 수령에 의하여 령도되는 당이 없이는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없다.

수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모든 조직들과 기구들을 마련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며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기구체계와 사업방향을 개선해나간다.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당 및 국가 기관, 근로단체 등 여러 조직들과 기구들이 전일적인 조직체계를 이루고 강한 혁명적 규률과 질서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여나가며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해나간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또한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할뿐아니라 빛나게 완성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이고도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

수령은 공산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공산주의적강령을 내세우며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력사적과정에서 이룩된 성과들과 경험들을 일반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새롭게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줌으로써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앞길을 밝혀준다.

수령은 당과 국가정권을 혁명의 강력한 무기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변함없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뿐만아니라 로동계급의 수령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움으로써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해나간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만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탁월한 수령은 특히 그가 개척한 혁명위업을 이어나갈 계승자를 옳게 키움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그의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야 하며 그것은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계승자에 의해서만 빛나게 수행된다. 그러므로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그의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계승자를 옳게 키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이 모든것은 로동계급과 그 당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높이 받들고 그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여기에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수령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으로 하여 혁명의 배신자, 온갖 기회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말살하기 위하

Digitized by Google

여 무엇보다도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는데 공격의 화살을 돌리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단결을 허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원쑤들의 온갖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그의 영향력과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지켜야 할 혁명적의무이며 그들의 투쟁의 신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위업, 주체위업을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민족적 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 들어섰으며 우리 혁명은 승리하며 전진하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 인민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함으로 하여 우여곡절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하여 반일의병투쟁과 독립운동, 애국문화정치운동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일투쟁이 련이어 벌어졌다.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함에 따라 공산주의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그자체의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으로 하여 순탄한 발전의 길을 걸을수 없었으며 쓰라린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수 없었다.

인민들의 머리우에 검은구름이 점점 더 짙어가던 그 암담한 시기에 우리 인민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바란것은 조국의 운명을 건져내고 혁명의 앞길에 밝은 빛을 뿌려줄 민족의 태양,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는것이였다.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수령을 모시는것은 온 민족의 피타는 갈망이였으며 혁명의 지상의 요구였다.

우리 인민의 이 세기적인 숙망과 갈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거연히 나서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출발점으로 되는 첫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의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8페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의 첫 탄생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빚어낸 조선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

의운동의 본질적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일떠서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시여 조선혁명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혁명은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앞에는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참다운 길이 열리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창시에 의하여 오랜 세월 력사밖에서 버림받던 근로인민대중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될수 있는 새로운 길이 밝혀지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과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 이것은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의 개시를 알리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오래동안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우리 혁명은 주체의 기치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위업이다.

주체의 위업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력사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불멸의 혁명사상,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류해방의 참다운 혁명적기치인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향도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그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백전백승의 위력을 가지며 우리 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위업으로 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혁명적진리를 밝혀주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사람들을 철저히 개조하고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그 기본요구들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그것을 구현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주체위업의 위대성과 그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고 온 삼천리강토우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혁명위업인 동시에 지구상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적 압박과 예속을 청산하고 모든 민족과 인민들이 참다운 자주적권리를 행사하는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전세계사적 위업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의 참다운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과 세련된 령도로 우리의 혁명위업, 주체의 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혁명투쟁은 주체의 기치밑에 전개된 첫 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주체위업의 승리적개척을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과 인민

들의 지향에 맞는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투쟁방침들을 독창적으로 다 밝히시였으며 몸소 키워내신 참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을 핵심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힘있게 떠밀고나갈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시여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였으며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일제침략세력을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심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주체의 혁명위업의 개척, 이것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 위업의 실현에서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인 리정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의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참다운 보람찬 생활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해방후 나라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고 정세는 복잡하였다.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이 머리를 쳐들고 저마다 《애국자》, 《혁명가》로 자처하여나섰고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대두하여 정세를 혼란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나라 사회경제적형편과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옳바른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고 정권을 세우며 인민군대를 정규무력으로 강화하는 거창한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시였으며 가장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적인 사회적개혁들을 빛나게 완수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훌륭히 완수되고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세기적인 변혁이 이룩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는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보루로 더욱 튼튼히 전변되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준엄한 혁명전쟁이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엄혹한 시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고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여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고 당이 있고 인민정권이 있는 이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여 짧은 기간에 파괴된 경제를 훌륭히 복구하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전진도상에서 많은 난관과 시련을 겪었지만 언제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불굴의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세기적 락후성과 빈궁을 없애고 훌륭한 사회주의 새 사회를 건설하여놓았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9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면서 지체없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Digitized by Google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거창한 사업을 불과 4~5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수하시였다.

조선혁명을 오직 상승의 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헤치시며 인민대중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여 남들이 몇세기에 걸쳐 수행한 공업화를 단 14년동안에 훌륭히 수행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따라 힘있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정치적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권위있고 존엄있는 자주적인 나라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 나라로 전변시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위업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면서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것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시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굳건히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혁명의 위력한 무기이며 그 향도적력량인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주체의 혈맥을 굿굿이 이어나가는 세련되고 로숙하고 생기발랄한 강철의 전투적당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현대력사의 가장 험난한 길을 헤치면서 민족해방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끄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시고 그 어떤 기존공식과 기성경험에도 구애됨이 없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시였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불러일으키시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현재와 가까운 앞날뿐아니라 혁명발전의 먼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시는 탁월한 령도예술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전개력으로 혁명앞에 놓인 난관을 주동적으로 뚫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변시키시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원쑤들의 로골적인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으로 나라의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였을 때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단호한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불굴의 혁명적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하시였으며 적들을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수세에 몰아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언제나 모든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시고 광범한 대중적운동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고귀한 업적들을 더욱 빛내임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명하게 이끄시고 주체사상이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위업은 승승장구의 한길을 따라 끝없이 전진하여왔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무궁한 륭성과 번영은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하자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실로 멀리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우리 인민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며 우리앞에는 해결하여야 할 수많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것은 류례없이 거창한 사업이며 간고한 투쟁이다.

우리는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 이 땅우에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일떠세워야 하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륭성을 이룩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이다.

수령과 그의 위업에 충실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녀야 변함없는 정치적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의 혁명사상을 고수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한세기가 넘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의 경험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과 그의 위업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는 수령의 사상을 고수할수 없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수 없으며 나중에는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떨어진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을 어떻게 모시고 받들어나가며 수령이 내놓은 모든 로선과 방침들을 어떻게 관철해나가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전력사적과정에서 변함없이 발현되여야 한다. 따라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대를 이어 변함없이 높이 발현되고 계승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은 반세기가 넘는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변함없는 충성의 한길을 걸어왔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히 충성다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이며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영예와 행복을 심장깊이 새기고 수령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와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자기 당만을 믿고 따르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자기 당밖에는 그 누구도 모

Digitized by Google

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충성의 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며 굴할줄 모르는 혁명적지조를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의 로동계급과 모든 근로자들의 영광스럽고도 신성한 의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173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순결하게 지키고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다.

로동계급과 그 당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키고 순결하게 계승하여나갈 때에만 간고하고 험난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며 우리 혁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전진하는 혁명위업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곧 우리 당의 유일한 혈통이며 조선혁명승리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대를 이어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주체사상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를 세워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철저히 지킬수 있고 혁명을 끝까지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이 현대혁명투쟁력사에서 가장 준엄한 길을 헤치며 오직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온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억세게 걸어왔기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순결성을 고수함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명맥을 굿굿이 이어나가며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전체 인민의 혁명적단결을 튼튼히 지키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부르조아사상, 봉건유교사상, 기회주의사상 등 온갖 잡사상들이 우리 대렬내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고 온 사회에 주체형의 피만이 세차게 차넘치게 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주체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생활하고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당의 생명이며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당과 혁명을 배반하는 야심가, 음모군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대렬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튼튼히 보장할수 있고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수령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지키고 철통같이 다지는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

Digitized by Google

민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는데 언제나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고 이 사업을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지키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재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85페지)

원래 수령의 위업이 개척되고 완성되여나가는 과정이란 다름아닌 혁명전통이 뿌리내리고 빛나게 계승발전되여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오직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계승해나가야만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조선혁명의 실천에서 구현하는 과정에 이룩된 주체의 혁명전통이며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지고 새 사회 건설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그 무비의 생활력이 과시된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체계,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투쟁의 기치로,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로 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하나로 련결시키는 유일한 혈맥으로, 주체위업의 튼튼한 터전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계승하는것이 혁명의 승리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임으로써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지키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의 유일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고수발전시키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유일적지도를 높이 받들고 당이 제시하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참으로 멀리 전진하였다.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들이 빛나게 해결됨으로써 우리 혁명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향도따라 이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데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과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

전 문 섭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부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민족대경사의 날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은 이 땅우에 서리고 얽혔던 세기적암흑을 가시고 주체시대의 새기원을 열어놓은 혁명의 려명이였으며 억눌리고 짓밟혔던 인민들에게 광휘로운 빛발을 뿌려주는 찬란한 해돋이였다.

대대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워온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나날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번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시였으며 조국청사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이어오는 력사의 나날에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수령님을 영원히 우러러모시고 따르려는 뜨거운 충성심이 굳건히 자리잡았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 열화같은 충성심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가장 고귀한 사상감정이며 그것은 조선혁명의 새아침이 밝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나날 우리 인민의 심장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며 억세게 다져진 철석같은 의지이며 변할수 없는 혁명적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어버이 사랑속에서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가장 큰 영광이며 행복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있는 여기에 우리 인민이 창조한 모든 기적과 위훈의 주되는 사상정신적원천이 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굳건히 자리잡은 확고부동한 혁명적의지이며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장구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오는 과정에서 뿌리내리고 억세게 다져진 고결한 사상감정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력사인 동시에 우리 인민이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변함없이 충성다해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은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곧바른 승리의

Digitized by Google

길을 걸어나갈수 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66~67페지)

탁월한 수령을 맞이하고 높이 모시는 것은 민족의 영광이고 인민의 행복이며 혁명의 승리와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로동계급은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만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지고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 나라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매개 나라 인민들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행정에서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의 정을 두터이하고 수령에게 자기들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이 이끄는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결한 혁명정신,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지니게 된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며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고귀한 사상감정이며 그것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인민만이 지닐수 있는 숭고한 혁명적풍모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기전까지 조선혁명은 참으로 수난의 력사를 걸어왔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나라를 강점한 첫시기부터 짓밟힌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투쟁을 옳은 길로 이끌어줄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으로 하여 헛된 희생과 가슴아픈 실패만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삼천리강산은 애국적인민들의 붉은 피로 물들어졌고 망국의 검은 구름은 갈수록 짙어갔다.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우리 인민은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나라와 민족을 도탄속에서 건져줄 위대한 수령이 나서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우리 인민의 이 절절한 숙원과 피타는 갈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비로소 실현되게 되였다.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려는 절절한 념원이 이루어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참된 삶의 보람과 끝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데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자연스럽고 자각적인 사상감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 시대와 혁명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한평생을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로 수놓아오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승승장구하는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열어놓으시고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강철의 의지, 무쌍한 지략으로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시고 식민지민족해방혁명과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어렵고 복잡한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조국과 민족의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였다. 언제나 창조적인 사색과 탁월한 령도로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에로의 진군운동을

Digitized by Google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한없이 넓고 깊은 사랑과 믿음, 뜨거운 은정으로 오랜 세기 시대의 밑바닥에서 버림받던 우리 인민에게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참신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로정은 넓은 포용력과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인민들과 혁명전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끝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보살피심이 있기에 오늘 수십수백만의 혁명가들이 자라났고 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이 있기에 우리 인민은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세상에서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며 보람있게 살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수행하는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서만 우리 혁명의 찬란한 승리와 우리 인민의 모든 영광이 있으며 후손만대의 번영이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깊이 느끼게 되였으며 수령님을 영원히 우러러받들어나가려는 충성의 한마음을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 그러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주시고 도탄속에서 허덕이던 자기들을 구원해주실 위대한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우러러흠모하였다.

장구한 혁명의 나날,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심장속 가장 깊은곳에 소중히 모시였고 그것은 언제나 승리의 빛나는 상징으로 투쟁의 힘과 용기를 주는 원천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러한 심정과 경모의 마음을 담아 처음에는 조선인민을 어둠속에서 해방의 새벽길로 이끄시는 새별이 되시여달라는 뜻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한일》자, 《별성》자를 쓰는 김일성동지이시라고 삼가 부르다가 그처럼 위대하신 민족의 령도자를 어찌 하나의 새별에만 비기랴 하여 조선의 밝은 태양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절절한 념원에서 다시 《날일》자와 《이룰성》자를 써서 김일성동지이시라고 고쳐불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며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영원한 빛발을 뿌려주실것을 바라는 절절한 념원과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만을 자기들의 수령으로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충성을 다해나갈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충성의 마음은 나라에 드리운 검은 구름이 짙어갈수록 더욱 깊어갔다.

《백두산에 장군별이 떴다.》

《조선에 시운이 터서 나라를 전지실명장이 나타나시였다.》

1930년대중엽, 온 나라 인민들속에 널리 퍼진 이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것이다.

태양의 빛을 손바닥으로 가리울수 없고 강물을 칼로 벨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의 충성심은 결코 그 어떤 폭압으로써도 누를수 없었고 막을수 없었다.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절정에 이른 1944년, 삼엄한 감시속에서 일본을 넘나드는 관부련락선 《고안마루》의 침실천정에 붉은 글자로 크게 써붙인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글발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마음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것을 최대의 영예로, 행복으로 여기고 그 어떤 명예와 공명도 바라지 않고 오직 수령님의 손길아래서 수령님의 전사로 한생을 바쳐 싸웠으며 혁명의 길에서 설사 죽는다 해도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백두산에 묻히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난 항일혁명선렬들은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살며 죽어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칠 충성의 의지를 지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 자신은 영예로운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걸음걸음마다를 충성의 영웅서사시로 빛내여갔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절해고도에 홀로 남아도 자기들을 어엿한 혁명가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을 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갔으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가슴에 새기면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우러러모시고 절대적으로 신뢰한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결한 혁명적신념은 새 조국 건설과 가렬처절하였던 전화의 나날 그리고 이 땅우에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거쳐 오늘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굳게 간직되여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바치는것을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혁명가의 본분으로 여기고있다. 이글거리는 용광로앞에 선 강철전사들과 수천척 지하막장의 광부들, 천리어장의 어로전사들과 협동전야의 농장원들,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노래하며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 있으며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답할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겠는가 하는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며 새 전망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 충성의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성심은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맞이한 첫날부터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굳건히 자리잡고있는 뿌리깊은 사상감정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다져진 고결한 혁명적신념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다져진 억년드놀지 않는 혁명적신념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40여년동안 공산주의운동을 위하여 싸웠으며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서 피도 많이 흘렸으며 여러번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80페지)

사람들의 혁명적신념은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형성되고 다져진다. 준엄한 혁명의 폭풍속에서 단련된 혁명가의 신념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며 그것은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력사상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다져진것으로 하여 더없이 굳세고 고결한것이다.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결코 순풍에 돛단배처럼 순탄하지 않았다.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수행하면서 외래침략자들과 혁명대오에 기여든 온갖 기회주의자들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시대의 새벽길을 헤치고 전진해온 조선혁명의 로정은 간고하고 엄혹한 투쟁의 련속이였다.

이 준엄한 력사의 나날, 우리 인민은 그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최후승리를 확신하였고 수령님을 우러러 힘과 용기를 얻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변함없이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억세게 싸워나갔다.

과쑈의 총칼과 테로가 온 나라를 뒤덮었던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르며 조국광복의 그날을 확신하였으며 아무리 정세가 복잡하고 투쟁이 간고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는 한 난국은 반드시 타개된다는것을 굳게 믿고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싸워왔다.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 정치적으로 암둔하고 편협한 좌경기회주의자들과 그를 추종한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반《민생단》투쟁을 극좌모험적으로 이끌어나감으로써 조선혁명앞에는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였다.

혁명대오안에 기여든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일제의 민족리간책동에 따라 춤추면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드는것마저 반대하였으며 난조된 온갖 《죄명》을 들씌워 진실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함부로 학살하였다. 그리하여 군중들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믿어오던 간부들과 당원들이 《민생단》으로, 적의 《간첩》으로 몰리우니 누가 진짜 《민생단》이고 적의 간첩인지, 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도대체 알수 없게 되였다. 그리고 애매하게 《민생단》으로 몰린 동지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보증해나섰다가는 자기까지도 화를 입어 《민생단》으로 몰리우는 판에 누가 감히 《민생단》이 아니라는것을 보증해나설수도 없었으며 서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수도 없었다. 참으로 조선혁명은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반《민생단》투쟁의 좌경적후과로 혁명대오안에 서로 극도의 불안과 불신, 반목이 조성되여 혁명정세가 매우 살벌한 때에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이 난국을 바로잡으실분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한분뿐이시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곧 조국의 운명과 련결시켜 생각하였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 여기에 조국광복을 앞당기고 륭성번영하는 조국의 미래가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웠다.

항일혁명선렬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사령부는 조선혁명의 심장이며 수뇌부이다, 사령부를 목숨바쳐 사수하자》는 억척같은 신념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사수하였다. 그들은 먼곳에서 울린 한방의 총소리를 듣고도 사령관동지의 신변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였고 적탄이 비발치는 격전장에서는 온몸이 그대로 담벽이 되여 사령관동지의 안전을 지켰으며 적들의 대병력이 밀려들 때에는 자기 부대를 사령부로 가장하여 적들을 끌고 감으로써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이 숭고한 혁명정신을 이어 우리 인민은 지방할거주의자들, 종파분자들이 날뛰던 해방직후의 그 복잡하던 때에도 온 나라가 불바다에 잠겼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도 당에 도전하여나섰던 혁명의 변절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복잡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혁명의 원쑤들이 안팎에서 당에 도전해나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충성의 구호밑에 원쑤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다.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이제는 다 잘살게 되였으니 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념려마십시오. 우리는 수령님만을 지지합니다.》 우리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한 농촌할머

니의 이 소박한 말, 그것은 그대로 조선의 숨결이고 우리 인민의 의지였으며 정세가 어떻게 변하여도 원쑤들이 안팎에서 제아무리 발악하더라도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만을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맹세였다.

우리 인민이 바로 이러한 충성심을 지니고있었기에 강선의 영웅적로동계급은 6만톤의 공칭능력을 가진 분피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뽑아내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였고 종파분자들에게 무서운 철추를 내렸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이 용용한 흐름은 이 땅에서 온갖 오물들을 쓸어버리고 전인민적인 충성의 대진군운동인 천리마운동을 낳았으며 오늘은 속도전의 거세찬 불바람을 휘몰아오게 하였다.

참으로 원쑤들의 칼부림과 준엄한 혁명의 시련도 온갖 혁명의 변절자들의 갖은 음모책동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바위같이 들어앉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털끝만치도 흔들어놓을수 없었다.

혁명이 간고하고 복잡하면 할수록, 원쑤들이 수령님의 두리에서 우리 인민을 떼여내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더욱 굳게 믿으시였고 인민은 또한 어버이수령님께 자기들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모진 시련과 곤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전진하여왔다.

온갖 풍파와 시련을 다 이겨왔고 혁명의 열풍속에서 검증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가장 억센것이다.

우리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다 하여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따르는 우리 인민에게는 뚫고나가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으며 점령못할 요새란 없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해나가는 고귀한 혁명적신념이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면서 참으로 먼길 전진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세대에 혁명위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대에 가서라도 완성하도록 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67페지)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행군길은 준엄한 혁명의 시련을 넘고넘어 오늘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길에 들어섰다.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완성함으로써 자기의 혁명적본분과 시대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전력사적과정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장기적인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로동계급의 위업을 완수해나가는 과정이란 곧 수령이 개척한 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이며 수령의 사상을 계승해나가는 과정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이 심장으로 높이 추대하고 자기들의 념원과 지향을 체현하고있는 수령을 대대로 높이 모시고 수령이 내놓은 사상과 리론, 로선과 방침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것은

Digitized by Google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당을 따라 위대한 수령님을 대를 이어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서만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대를 이어 계승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충성심, 대세와 추세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충성심이다. 이 충성심은 오늘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더욱 순결하고 억세게 다져지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는 위대한 수령님을 억만년 길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이 땅우에 인류의 최고리상사회를 일떠세우려는 충성의 구호이다.

우리 당은 이 충성의 구호밑에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다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을 벌리고있다. 이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대로만 살고 일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으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바쳐 싸우고있다.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을 다했던 항일혁명선렬들의 열렬한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더욱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자 집단적으로 사회주의농촌에 진출하여 첫해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내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린 은하협동농장의 청년분조원들을 비롯하여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대를 이어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따르는 충성의 해바라기로 자라나고있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이라면 천길막장에도,파도사나운 바다에도, 불꽃튀는 건설장 그 어디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충성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있다. 자기들의 청춘의 희망과 꿈도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찾으며 보람찬 이 길에서 자기들의 일생을 바치는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기는것이 오늘 우리의 새세대청년들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와 같은 충성심은 혁명이 멀리 전진하면 할수록 새세대들에 의하여 더욱 굳건히 이어져가고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충성심은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서 높이 고동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새세대들에 의하여 더욱 더 빛나게 이어지고있으며 이 충성심에 떠받들리여 주체의 혁명위업은 더욱 힘차게 전진하며 승리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뜨거운 충성심을 지니고 오랜 기간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온 긍지높은 인민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이 세상 끝까지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

황 장 엽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최대의 민족적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 바치시여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불후의 공헌에 대하여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바로 자주성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우리 시대의 탁월한 지도사상이며 력사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가장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더욱더 튼튼히 틀어잡고있으며 력사는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세계이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근본핵으로, 출발점으로 되는 사상이며 그 전반체계와 내용에 관통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여 그 구성부분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사상이며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20페지)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혁명적인 사상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바쳐오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력사적경험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창시하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

Digitized by Google

이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지만 오래동안 소수 지배계급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반동적지배계급들을 때려부시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숙망이며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당면한 일시적인 리익만을 반영한 사상인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세계의 주인으로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사상이다. 바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근본원리, 다시말하여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규제하는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세계와의 관계에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기때문에 곧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사상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과는 관계없이 그저 세계의 이러저러한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특징들을 반영한 지식의 체계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세계의 주인으로 되려는 사람의 근본 요구와 리익을 가장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한 사상의 체계이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힘으로써 세계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리해를 줄뿐아니라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근본 요구와 리익이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 여기에 바로 주체사상이 세계의 진면모를 정확히 밝혀주는 과학적인 세계관인 동시에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혁명사상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주체사상의 본질적특징은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에 집약화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6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식화하신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원리이다.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 다시말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밝히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이것이 해명되여야 옳바른 세계관을 세우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사람이 옳바른 세계관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징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가지는것이 필요하다.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징에 대한 과학적리해는 세계는 사람의 의식에 의존함이 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이루어져있으며 물질세계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유물변증법적명제에 요약되여있다.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징에 대한 이와 같은 리해는 신이 세상만물을 창조하며 사람의 운명과 세계의 변화발전을 결정한다는 종교적세계관과 그것을 리론적으로 옹호하는데 복무하는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극복하고 세계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근로인민대중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객관세계의 일반적특징을 옳게 리해할뿐아니라 사람자체의 본질적특징을 알아야 하며 사람과 세계의 호상관계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근본 리익과 목적을

Digitized by Google

자각하고 세계에 대하여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태도를 가질수 있다.

올바른 세계관을 세우는 근본목적은 단순히 세계가 무엇이라는것을 아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자신과 주위세계에 대한 옳바른 리해에 기초하여 세계를 자기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근본관점과 태도를 세우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객관세계의 일반적특징에 대한 과학적인식에 머무를것이 아니라 사람자체의 본질적특징까지 과학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람과 세계의 관계,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는데로 나아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적특징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발견하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완성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입니다. 사람은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4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람의 본질적특징을 자주성과 창조성이라고 밝히신것은 사람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의 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오랜 옛날부터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의 본질적특징에 대하여 많이 론의되여왔지만 그 누구도 사람의 본질적특징을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례컨대 사람은 로동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존재라는 명제에 의하여 사람에게 고유한 특징의 하나가 밝혀지기는 했지만 그것으로써는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어떤 성질을 체현하고있기때문에 동물과는 달리 로동도구를 만들고 사용할수 있으며 과학과 문화를 창조하고 사회정치생활을 해나갈수 있는가 하는것은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없었다.

사람에 대한 과학적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고전적정식화에 의하여 비로소 명백히 주어지게 되였다.

사물이 가지고있는 성질은 그 사물의 운동에서 나타난다.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의 고유한 활동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결국 목적의식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며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활동이다. 바로 자주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사람의 성질을 자주성이라고 하며 창조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사람의 성질을 창조성이라고 하는것이다.

사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온 사람의 사회적속성이며 그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만 고유한것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기때문에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객관세계와 특수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객관세계에 그저 순응해서 사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개조하여 객관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

Digitized by Google

니고있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장성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의 발전에는 끝이 없는것만큼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의 발전에도 끝이 없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이 장성되고 세계에서 사람의 주인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람은 더욱더 자주적으로 살수 있게 된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이자 곧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끝없는 세계를 사람이 다 지배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외부세계가 사람을 지배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외부세계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는것, 다시말하여 객관세계가 사람의 운명의 주인인것이 아니라 사람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세상만물의 운동변화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과 주위세계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객관세계가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 다시말하여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 객관세계인것이 아니라 사람자신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객관세계와 사람 그자체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와 사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줄뿐아니라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사람의 운명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을 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로부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람의 운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이 직접 흘러나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바로 혁명과 건설, 사람의 운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방법을 밝혀준다.

인민대중만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인것만큼 근로인민대중은 마땅히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하게 하는 근본립장인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대중만이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을 가지고있는것만큼 근로인민대중은 마땅히 자기의 창조적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게 하는 근본방법인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근본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가장 철저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사상이며 세계의 진면모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주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인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 리론과 방법의 전체계를 관통하고있는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주체의 혁명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페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근로인민대중에게 있는것만큼 혁명에 관

Digitized by Google

한 리론은 마땅히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떠밀어나가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다.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력량을 떠나서는 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 그리고 혁명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담당하는 결정적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할 때에만 혁명의 본질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힐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의 근본목적은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데 있다.

혁명은 그 어떤 강요나 지시에 의하여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에 의하여 일어나는것이다.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는 어떠한 힘으로도 억제할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제도하에서는 반드시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이 벌어지게 되며 이와 같은 투쟁은 결국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낡은 사회제도를 때려부시고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는 새로운 진보적인 사회를 세우기 위한 혁명투쟁에로 발전하게 된다.

사람의 자주성은 객관적환경과의 호상작용속에서만 실현될수 있는것만큼 객관적 환경과 조건이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사람과 객관적환경과의 호상작용에서 주체는 사람이지 객관적환경이 아니다. 사람과 객관적환경과의 호상관계에서 객관적환경이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면보다도 사람이 객관적환경을 자기 요구에 맞게 주동적으로 개조해나가는 면이 주되는 면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의 원인과 혁명승리의 조건과 같은 문제를 밝히는데서도 주체적요인과 객관적요인을 다같이 보아야 하지만 혁명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인것만큼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보아야 하는것이다.

지난 시기 생산방식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찾았다. 경제생활이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인것만큼 생산방식의 변화발전이 사회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생산력은 본질상 자연을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력이며 생산관계는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사회적관계의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방식은 그 어떤 초인간적인 객관적존재인것이 아니다. 그것을 창조하는것도 사람이며 변화발전시키는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고찰할 때에만 생산방식자체의 본질과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똑바로 평가할수 있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을 절실한 생활적요구로 제기하고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혁명을 할수 있는 력량이 준비되여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이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과 혁명승리의 조건을 규정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을 절실한 생활적요구로 제기하고있다는 사실은 근로인민대중자신이 혁명을 일으킬수 있을 정도로 사상적으로 각성되였다는것을 의미할뿐아니라 그와 같은 요구를 제기할수 있게 하는 객관적조건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근로인민대중의 혁명력량이 준비되였다는 사실은 바로 반동적지배계급의 반항을 때려부시고 낡은 사회를 새 사회로 개조할수 있을 정도로, 다시말하여 객관

Digitized by Google

적조건을 개조할수 있을 정도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이 준비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혁명이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적요구로 나서고있으며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였을때 혁명이 일어날수 있고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에 관한 주체적관점은 혁명의 주체적요인과 객관적요인을 다같이 타산한 혁명의 과학적진리이다.

사람의 자주성은 자연과의 호상작용과 사람들사이의 호상작용을 통하여 실현되는것만큼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자연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되려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과 함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사상문화적자질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연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과 함께 공산주의적혁명사상과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문화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회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과 자연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 사상문화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투쟁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생산력을 발전시켜 물질적부를 많이 생산하여도 그것이 소수 착취계급들의 수중에 독점되기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은 기아와 빈궁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결국 자연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생활을 누릴수 없다. 한편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물질적부의 생산을 늘이지 않고서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할수 없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인것만큼 그들을 자주적인 혁명사상과 선진문화를 소유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준비시키지 않고서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새 사회제도로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과 함께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므로 그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면서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야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9페지)

지난 시기에는 혁명의 본질을 생산방식의 교체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사회주의적생산방식이 확립되면 혁명이 끝나는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력사적경험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도 근로인민대중을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로부터 혁명의 본질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보는 주체사상은 사회제도의 교체만을 혁명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속하는 낡은 사상, 기술, 문화를 선진적인 사상과 기술, 문화로 개조하는것도 혁명으로 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혁명의 본질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보는 주체적관점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인 공산주의사회의 진면모와 공산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의 혁명발전의 합법

Digitized by Google

칙적로정과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나라안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로정과 전략전술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전세계적범위에서 모든 민족, 모든 인민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세계혁명의 길을 밝혀주시였다.

국제적범위에서 존재하는 민족들사이의 착취와 억압의 원인을 경제제도의 성격에서만 찾는 관점에서는 민족적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세계혁명의 리론을 내놓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혁명의 본질을 전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보는 주체적관점을 확립하심으로써 인민들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를 청산하고 민족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종국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세계혁명의 새로운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각이한 혁명발전단계에 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국내적범위에서나 국제적범위에서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멸의 기치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령도방법은 혁명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주체의 령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혁명적령도의 기본요구는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당정책집행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61페지)

근로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체이지만 자연발생적으로는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확고한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적령도가 보장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은 그 계급적처지로 하여 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 선진적계급이지만 처음부터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자각하고 자주적으로 혁명투쟁을 벌리는것은 아니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이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혁명사상을 내놓고 그것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당을 창건하고 그의 혁명적령도를 실현함으로써만 로동계급은 비로소 자주적인 혁명적계급으로 되는것이다. 로동계급은 탁월한 수령과 당의 령도를 받음으로써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 계급으로서의 참다운 정치적생명을 지니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을 령도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중은 당의 령도를 받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을 다스리는 관계에 있는것이 아니다. 령도하는 당과 령도를 받는 대중사이의 관계는 다같은 혁명의 주인으로서 공동의 목적과 리해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동지적관계이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려는 사활적인 요구로부터 당의 령도를 갈망하는것이며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려는 절실한 념원과 책임감으로부터 대중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게 되는것이다.

당과 대중과의 관계를 옳게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령도적지위를 모호하게 하여도 안되며 당과 대중의 혈연적관계를 잊어도 안된다. 그러므로 령도에 대한 주체적관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본요구는 당과 대중과의 조직사

상적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령도의 본질에 관한 주체적관점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근본 립장과 방법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다. 그런것만큼 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의 근본목적은 결국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혁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벌려나가도록 당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령도이다. 당이 근로인민대중을 령도한다는것은 결국 전당과 전체 근로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수령의 령도따라 조직적으로 투쟁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수령의 령도밑에 당과 대중의 사상적통일과 조직적단합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문제자체가 설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령도밑에 당과 대중의 조직사상적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전당과 전체 근로대중속에서 수령과 당중앙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수령의 지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강한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확립되여 전당과 전체 근로인민대중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령도따라 나갈 때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도록 당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근로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은 어디까지나 근로인민대중에게 복무하며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언제나 근로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모든것을 근로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리고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해나가는 원칙이 다름아닌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다.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은 당이 근로대중을 직접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과 지혜를 혁명과업수행에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군중과의 사업방법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군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기 위한 방법이며 동원된 군중의 힘을 혁명의 목적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군들이 시종일관 견지하여야 할 군중에 대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태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을 발동시키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대중을 동원하는데는 행정적방법도 쓸수 있고 물질적자극도 적용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군중을 동원하는 참다운 혁명적방법이 아니다. 혁명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인것만큼 정치사업을 통하여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혁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정치사상적으로 발동시키는 방법만이 참다운 혁명적방

Digitized by Google

법이다.

당이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킨 다음에는 그들의 투쟁을 과학적인 리치에 맞고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이끌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최대한으로 반동되고 그것이 과학적리치에 맞고 구체적실정에 맞는 방법과 결부될 때 참으로 불패의것으로 되며 바로 이렇게 될 때 혁명과 건설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창조적립장이 가장 훌륭히 구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당은 대중속에 과학적인 투쟁방법을 널리 보급하며 대중속에서 창조된 우수한 투쟁경험과 모범을 제때에 일반화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근로대중이 투쟁하는 현장에 깊이 침투하여 구체적인 실정을 과학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대중에 대한 당의 혁명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인민적사업작풍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친절히 도와주고 손잡아이끌어주어야 하며 그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것을 내리먹일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설설복하여 모든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창조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방법과 작풍으로서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력사적 환경에 맞게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에서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완성되였다.

* *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수행하고있는 혁명위업은 주체의 혁명위업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여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숭고한 혁명위업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령봉에 주체의 홰불을 높이 추켜올리신 그때로부터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사상화의 보람찬 진군을 개시하였으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마침내 이 땅우에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활짝 꽃피는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웠다. 우리 인민은 뒤떨어지고 파괴된 빈터우에서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힘겨운 투쟁을 통하여, 강대한 두 제국주의침략자들을 격파하는 판가리싸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민족자주정신과 계급적투지를 흐리게 하려는 형형색색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의 침습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통하여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이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길을 가리켜주는 진리라는것을 심장깊이 체험하였다.

필승불패의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투쟁의 로정을 걸어온 우리 인민은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없이 언제나 자신의 심장속 가장 깊은곳에 드놀지 않는 의지로 굳어진 주체의 신념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제정신을 가지고 혁명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정신적특질

현 무 광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걸어온 자랑찬 나날들을 감회깊게 돌이켜보면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살며 혁명하는 끝없는 행복과 영예,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휩싸여있다.

지나간 반세기에 걸쳐 간고하고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제정신으로 살며 우리 식대로 투쟁하여온 자랑찬 력사였다.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공산주의 혁명가의 풍모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한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킨 주체조선의 비약과 세기적인 변혁들은 바로 우리 인민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힘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려나감으로써 이루어진 자랑찬 일매이다.

오직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만을 굳게 신봉하고 따르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깊이 간직된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그것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인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지니고있는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참된 삶과 가치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적전진도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실지체험을 통하여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주체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제정신을 가지고 살며 싸워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갈것이다.

1

제정신을 가지고 살며 싸워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고유한 품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의 신념을 고수할줄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라면 자기의 신념이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남이 말하는대로 따라말하고 남이 움직이는대로 따라 움직일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50페지)

공산주의자들의 참다운 가치와 존엄, 그 풍모는 그들이 어떠한 사상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살며 싸워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람은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질 때라야만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제정신을 가지고 산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의 독자적인 주견을 가지고 대하고 처리하는 립장과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 자기 나라 인민의 지향과 구미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말한다. 그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운명을 자신이 주인이 되여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을 가지는것이다.

사람들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정신을 가지고 살며 투쟁할 때 공산주의자로서의 풍모를 지닐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제정신을 가지고 살며 싸우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본래 온갖 예속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투쟁이다.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은 그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하여 혁명에 나서는것도 아니며 그 누구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혁명을 하는것도 아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자기의 신념으로부터 스스로 혁명투쟁에 나선다. 그렇기때문에 혁명가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제힘으로 풀어나가게 된다.

남을 처다보고 남에게 의존하여 혁명을 하려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가 아니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을 가지지 못하고 남의 풍에 놀게 되면 어떠한 창발성도 발휘할수 없게 되고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없게 되며 결국 혁명과 건설을 망쳐버리게 된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가 보여주고있는 심각한 교훈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결코 남의 풍에 춤추어서는 안된다.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오직 자기의 주견과 신념, 자주정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문제를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잘해나갈수 있고 공산주의자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또한 모든것을 새롭게 개척해나가야 하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자연과 사회,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독자적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거창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 모든 경우에 써먹을수 있는 미리 마련된 처방이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 건설을 진행함에 있어서 련이어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험난한 길을 주동적으로 헤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제정신을 가지고 살며 싸워나가는것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은 매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데 나라마다 처하여있는 환경과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을 철저히 자주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진행할것을 요구합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45페지)

세계에 국가가 존재하고 나라마다 국경이 있는 조건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어디까지나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게 된다. 세계혁명의 종국적

Digitized by Google

승리도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그것이 확대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이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자체의 힘이다. 매개 나라 혁명에 대하여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처방을 내릴수 없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을 대신하여 혁명을 해줄수도 없는것이다. 매개 나라 혁명에서는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자신이 노력하고 투쟁하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혁명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인 립장에서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내놓을수 있으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물론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이 세계혁명과의 련관속에서 진행되는 조건에서 국제적 지지와 성원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외부적인 지원은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발전행정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줄수는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주인의 결정적역할을 대신할수 없다. 그 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주인노릇을 똑똑하게 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는것이다.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또한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 나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서로 다른 구체적실정에서 수행되고있다. 매개 나라가 서로 다른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을 가지고있으며 혁명임무와 그 수행방도도 같지 않다. 각이한 실정으로 하여 복잡성과 다양성을 띠고 벌어지는 매개 나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이미 있는 공식과 명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나 남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놓는것으로써는 도저히 풀어나갈수 없게 되였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의 일반적원리와 남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지도리론과 과학적인 투쟁방법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나가는것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되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살며 싸우는것은 오늘의 복잡한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간판밑에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량면전술》을 쓰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장시키면서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있다.

특히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정치경제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위협공갈과 회유기만, 전복파괴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신생독립국가들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 하고있으며 이른바 《원조》와 《후진국공동개발》의 미명으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려 하고있다.

세력권확장에 열을 올리고있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지원》과 《보호》의 구실로 제3세계나라들사이의 분쟁에 경쟁적으로 뛰여들어 로골적으로 간섭하고있으며 제가끔 이 나라들을 자기의 통제밑에 넣으려고 각축전을 벌리고있다.

오늘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

Digitized by Google

으로 말미암아 정세는 매우 긴장하며 인민들의 자주적발전은 각방으로 저해당하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이 우심해지고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제정신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따라간다면 로선과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질수 없을뿐아니라 구경에는 민족적독립을 고수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된다.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주인노릇을 똑똑히 해나갈 때라야만 어떠한 지배주의세력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고 그 어떤 나라의 지휘봉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을것이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정신을 가지고 살며 싸우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결한 풍모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조선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인민이 자기 식대로 살며 싸워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자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옴으로써 기나긴 반세기가 넘는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었으며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영웅적인민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제정신을 가지고 우리 식으로 살며 싸워온 자랑찬 로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언제나 독자적인 주견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해결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91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중한 문제이다. 당이 로선과 정책을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의 리익,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할 때에만 혁명과 건설의 옳바른 발전방향과 수행방도를 제시할수 있고 그 관철에서 인민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라의 조성된 정세와 사회계급적관계, 우리 혁명의 기본 임무와 요구, 우리 인민의 리익과 지향을 과학적으로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것이라면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도 구애되지 않고 대담하게 그것을 집행하였다.

우리 당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존중히 하지만 그것을 언제나 비판적으로 대하였으며 우리에게 유리한것은 받아들이고 불필요하고 유해로운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공업정책, 농업정책, 교육정책, 문예정책, 사법정책 등 모든 분야의 정책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

Digitized by Google

리 당이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규정하고 관철한 모든 로선과 정책, 방침들은 모두가 주체적립장에 서서 우리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창조적으로 만들어낸것들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 민주기지창설로선, 사회주의혁명로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과 대외정책 등 그 어느것이나 다 모든것을 독자적인 주견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주체적립장이 낳은 위대한 열매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제정신을 가지고 살며 싸워나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립장을 구현한 빛나는 본보기이며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하는 힘있는 증거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식대로 규정한것으로 하여 언제나 우리 혁명의 옳바른 방향과 수행방도를 밝혀주는 라침판으로,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명확한 전망을 안겨주고 그들을 영웅적인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으며 또 되고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전진시킬수 있었고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452페지)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품성의 하나이며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식대로 살며 싸워나가는 혁명적립장의 발현이다.

자력갱생의 정신이 없으면 자기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지 않게 된다.

조선혁명의 력사적로정은 걸음마다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형언할수 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나날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매우 간고한 투쟁이였다. 이 투쟁의 나날에 항일유격대원들은 무기와 탄약, 식량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우리의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광복하려는 필승의 신념을 가다듬으며 불사조와 같이 싸워 언제나 백전백승하였으며 마침내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후에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아름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과 혁명정신은 빈터우에서 모든것을 새로 일떠세워야 하였던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더욱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이 할 일이 많고 난관이 중첩되였던 전후의 그 엄혹한 시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과 정권이 있고 령토가 있는 이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자력갱생의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용감히 일떠서 낡은 기준과 공칭능력을 대담하게 마스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세상사람

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전투적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남보다 몇배, 몇십배 더 빨리 달려나가 하루속히 사회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려는 불같은 열망이 결합되여 위대한 천리마정신이 나오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 창조와 변혁의 자랑찬 력사를 안아온 천리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천리마의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가시고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남들이 100여년 지어 수백년이 걸려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풍파많은 혁명의 길에서 우리 인민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혁명적신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할 때 이 세상에서 못해낼 일이 없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빛나게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하기에 오늘도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것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살며 투쟁하여온 력사적과정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심각한 투쟁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경험은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06페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는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적극성을 마비시키는 기본사상적장애물이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빼지 않고서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힘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그 투쟁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렸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는 한편 그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며 특히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도록 꾸준히 교양하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력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조류로서의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가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모든 문제 해결에서 자체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하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형의 혁명가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걸어온 투쟁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힘으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리하여온 자랑찬 나날들이다. 이 행정에서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살며

Digitized by Google

싸워나갈 때에만 참다운 민족적독립과 륭성발전을 가져올수 있으며 자기의 혁명위업을 사소한 우여곡절과 편향이 없이 이끌어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있는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기치 높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갈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오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야 할 보람찬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혁명과 건설 앞에 무겁고 어려운 과업이 나서면 나설수록 우리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여기에 우리 혁명이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며 계속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살며 투쟁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주체적 립장과 관점이 확고한 사람은 언제나 제힘으로 일떠서려는 강한 의지와 확고한 결심이 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기의 신념과 혁명적원칙성을 굽히지 않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게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적원리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영광의 한길에서 온갖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낡은 사상을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없다. 우리는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며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온갖 그릇된 사상경향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언제 어떤 역경속에서도 모든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공산주의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또한 우리의것을 잘 알고 귀중히 여기며 우리 인민이 이룩해놓은 혁명적전취물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교양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의것,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하여 잘 알 때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깊이 간직하게 되며 드높은 혁명적열정이 넘쳐나게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꾸준히 배워 우리 당과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와 우리 나라의 찬란한 민족문화유산, 조국의 자연과 지리에 대하여서도 깊이 알아야 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 기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억세게 싸워 어떻게 걸음마다 승리해왔는가에 대하여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 따라 살며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더 큰 승리와 영광만이 빛나고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자.

Digitized by Google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

김 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생불멸의 업적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인민들의 해방위업에 쌓아올리신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의 하나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3대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그 력사적지위를 새롭게 밝히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은 우리 당이 새 사회 건설을 시작한 첫날부터 견지하여온 일관한 방침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기본전략로선이다.

세기를 주름잡으며 진보와 문명, 기적과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혁명의 자랑찬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의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보람차고 성스러운 투쟁과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기본혁명과업이며 바로 3대혁명을 잘하는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을 빨리 다그치고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본질과 우리 당의 전략적과업을 실현하는데서 그것이 차지하는 력사적지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을 통

일하기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입니다.》(《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6페지)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총로선을 바로 정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활동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현을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방침을 가져야 한다. 로동계급과 그 당은 최종목적과 함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로선을 정확히 세워야 뚜렷한 전망과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에 기초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최종목표가 옳게 세워진 다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여부는 투쟁 로선과 방침을 어떻게 세우고 관철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총로선은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총적방향과 근본방도를 규제한 기본전략로선이며 당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방침이다.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내세우고 관철하는 여러가지 로선과 정책, 구체적인 방침들은 당의 총로선으로부터 출발하며 그것을 실현하는데 복무한다. 따라서 당의 로선과 방침이 총로선으로 되자면 최종목적을 실현하는 근본방도로 되는 로선이여야 하며 그것이 관철되면 혁명과 전설의 여러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로선과 방침들이 다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는 그러한 로선과 방침이여야 한다.

그러므로 총로선을 바로세워야 로동계급의 당이 정확한 방향과 과학적방도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숭고한 력사적 사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이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그 실현을 위하여 현시기 우리 당이 전면에 내세우고있는 총로선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의 최종목표인 공산주의의 두 요새 점령을 위한 본질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9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 공산주의위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공산주의의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의 두 요새 점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의 최종목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적과업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두 요새 점령을 위한 투쟁을 어떻게 다그쳐나가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두 요새 점령을 위한 본질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한 로선과 방침이라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총로선으로 될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바로 공산주의의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본질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려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켜야 한다. 공산

Digitized by Google

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고 공산주의적사회관계를 확립하며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은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치며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산주의의 두 요새 점령을 위한 이 본질적요구가 바로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혁명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사상혁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하는것을 목적으로 삼고있는 혁명이며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은 경제와 문화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높은 수준의 생산력과 문화를 창조하고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혁명이다. 그러므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면서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빨리 다그칠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또한 공산주의의 두 요새 점령을 위한 본질적요구에 맞게 정치와 경제,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없애고 새것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혁명적로선이다.

공산주의의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정치, 경제, 문화는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당과 국가 활동의 기본분야이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활동의 기본령역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정치와 경제,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없애고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에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 바로 3대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상, 기술, 문화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낡은 사회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 분야이며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들은 주로 이 세가지 분야에서의 락후성과 유물에 기인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의 두 요새 점령을 위한 본질적요구에 맞게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치며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 사업에서의 성과여부는 결국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락후성과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게 된다.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심각한 변혁과정을 투쟁의 방법, 혁명의 방법으로 수행해나가는 위대한 혁명투쟁이다. 따라서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여기에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총로선은 혁명과 건설의 총적방향과 근본방도를 밝힌 기본전략로선인것만큼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요구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

로 앞당기기 위한 위대한 추동력을 구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빨리 다그칠데 대한 당의 혁명적령도의 기본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경험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적극 조직동원한다면 혁명과 건설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지난날 아무리 뒤떨어졌던 나라에서도 짧은 기간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11페지)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밀고나가는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날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한 식민지반봉건사회로부터 뒤떨어진 경제와 문화를 넘겨받았으며 게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진속도를 높여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으로 내달려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여야 한다.

남보다 빨리 달려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며 혁명적지향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전진과 투쟁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이다.

사회주의건설을 빨리 다그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은 무궁무진하며 세상에서 인민대중보다 더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는 없다. 대중에 의거하며 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방법만이 가장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을 어떻게 조직하고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빨리 다그치기 위한 비결도,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도 다 인민대중을 적극 동원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있다.

인민대중을 적극 동원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려면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해결된다.

사람의 모든 활동은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정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얼마나 높이고 그 실현을 위한 창조적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경험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높고 커다란 창조적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열의를 더 높이 발휘하게 되고 큰 힘을 내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공산주의혁명사상과 깊은 지식, 건장한 체력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에 기초하여 발전한다.

그러므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기술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창조적능력을 부단히 증대시킬수 있으며 사회주

Digitized by Google

의전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처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력량도 3대혁명을 통하여 마련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경제건설투쟁과 계급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심각한 혁명투쟁과정이다. 온갖 낡고 진부한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심각한 투쟁을 떠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한다는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여부는 혁명력량을 어떻게 키우고 장성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자연개조사업도 잘할수 있고 사회개조사업도 잘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나라의 정치적력량을 더욱 반석같이 다질수 있으며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하여 나라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은 현시기 당이 제시한 모든 로선과 방침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혁명적로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주되는 혁명과업이며 바로 3대혁명을 잘하는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의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신년사》, 1976년 1월 1일, 11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로선과 방침들을 정확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기본고리는 다름아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있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과 자위적국방건설방침도,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로선과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방침도 다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주체의 혁명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게 하며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꾸려 모든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내부원천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모든 경제적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교육, 문화, 보건 등 우리 당의 모든 정책들도 다 빛나게 관철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강력한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다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혁명적로선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3대혁명이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실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 거창한 변혁이며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사회주

Digitized by Google

의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성스러운 혁명과업이다.

따라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현시기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는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총로선인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로선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에 대한 독창적인 리론적해명에 기초하고 있는 과학적인 로선이며 오랜 기간에 걸치는 경제건설투쟁과 계급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 완전히 부합되는 혁명적로선이다.

이 로선에는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해나가려는 철저한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이 구현되여있으며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인 수백만 근로인민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는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밀고나가려는 주체적인 립장과 관점이 관통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을 새롭게 밝혀주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력사적사변이다.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로동계급의 당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로선이 명백히 정식화됨으로써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총적방향과 근본방도가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의 두 요새 점령을 위한 기본전략로선이 새롭게 해명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해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총로선에 대한 과학적인 정식화, 이것은 또한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심화발전시킨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당의 총로선이 명확히 해명됨으로써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은 공산주의건설의 총적목표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혁명과 건설의 총적방향과 방도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과학적인 학설로 더욱 완성되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완성하는데 이바지하신 또하나의 거대한 세계사적공헌으로 되며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마련하여주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명확한 전망과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을 보다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진공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투지와 열정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옳바르게 이끄는 향도적기치로 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Digitized by Google

우리 혁명을 이끌어오신 영광찬란한 로정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오신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로정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안민이 주권을 잡고 새 사회 건설을 시작한 첫날부터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관철하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의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어서 그 순차와 단계를 옳게 설정하시고 그에 상응하게 기본방향과 수행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제기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3대혁명이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으로 세차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류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과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일어난 심각한 혁명적변혁,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쌓아올린 무비의 영웅적위훈, 우리 혁명의 높은 발전속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3대혁명로선이야말로 가장 정당하고 생활력있는 혁명적로선이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하여주고 있다.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앙양을 이룩해나가는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혁명적임무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3대혁명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8페지)

현시기 우리 당의 총로선인 3대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올해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밀고나가는것은 3대혁명로선관철에서 튼튼히 견지해야 할 일관한 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이는것이며 사상의식의 역할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더욱 더 커진다. 사상혁명을 언제나 앞세워나가야만 사회주의건설을 빨리 밀고나갈수 있으며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현시기 사상혁명의 중심과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주

Digitized by Google

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게 할수 있으며 높은 혁명적열정과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할수 있다.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공산주의문화를 창조하고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낼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빛나게 실현하며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문화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이룩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3대혁명로선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청산리방법을 구현한것으로서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이다. 생활은 3대혁명소조운동이야말로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국가경제기관들의 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떠미는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지도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발전시켜나감으로써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는데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밑에 벌어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 3대혁명을 전인민적대중운동으로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

현시기 우리 당의 총로선인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는 사업에서 성과여부는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거창한 변혁을 동반하는 혁명투쟁인것만큼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우리는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 정력적으로 벌려 모든 당조직들을 언제나 패기에 넘쳐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3대혁명수행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한층 높여야 한다.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혁명과 건설에서 전진속도를 끊임없이 높이고 새 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은 우리 혁명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의 빛나는 력사적총화이며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우리 당의 위대한 투쟁의 력사

김 중 린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기념일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력사에 새기원을 열어놓은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지금 북과 남,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마운 은덕을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끝없는 로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망국의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온 민족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홰불을 높이 드시고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마침내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시였다.

그 준엄한 혈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려던 조국, 그것은 바로 우리 인민이 유구한 력사를 두고 함께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의 조국, 하나의 강토였다.

그러나 하나로 있어야 할 우리 나라는 아직 자기 본래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우리 민족은 지금도 둘로 갈라진채 30여년을 살아오고있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하나의 조국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며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이며 계속이다.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북으로 분렬된 조국의 엄혹한 현실에 기초하시여 일찌기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이룩할데 대한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을 제시하시고 해방후 오늘날까지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오시였다.

지난 30여년동안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사색과 불면불휴의 정력을 다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투쟁로정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고결한 정신과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수놓아진 은혜로운 태양의 빛나는 력사이며 외래침략세력과 민족분렬주의자들에게 철추를 안기고 나라의 모든 애국력량을 묶어세워 하나의 민족적위업수행에로 줄기차게 이끌어온 위대한 령도자의 불굴의 투쟁의 력사이며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다 바쳐나가는 절세의 애국자만이 창조할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빛나는 력사가 있기에 우리 당은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나라의 통일문제를 편향없이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언제나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통일의 광장에 어버이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실 영광의 그날을 더욱 힘차게 앞당겨나가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1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을 력사적승리에로 이끄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심으로써 8.15해방을 맞이한 조선인민앞에는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조선 건설의 휘황한 전망이 펼쳐졌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의 양양한 전도에는 곧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민족분렬의 비운이 드리우게 되였으며 인공적인 38선을 사이에 두고 조국강토는 두 지역으로 량단되게 되였다.

외세의 강압에 의하여 조국이 분단된 이때로부터 통일과 분렬의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두 로선이 나타났으며 이 두 로선 사이의 투쟁이 시작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점령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영원히 분렬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다시 들씌우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3년간이나 야만적인 군정을 실시한 미제는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괴뢰정권을 조작하는데로 넘어갔다.

미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에 의한 남조선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조작음모를 분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시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근본문제에 직결되여있었다. 그것은 이 음모가 바로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이였기때문이며 해방된 조국에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하고 완전자주독립을 쟁취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열망과 지향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이였기때문이다.

조성된 정세는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개척할 획기적인 구국대책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이 절박한 력사적시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통일의 길우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시기 위하여 민족적단결을 강화하며 전민족적인 공동투쟁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망국적단독선거를 단호히 거부하여야 합니다. 이 거족적투쟁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파와 종교의 소속, 정치적견해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단결하여야 하겠습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4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전민족의 애국적민주력량을 총집결할데 대한 이 방침은 남조선을 우리 조국에서 영원히 분리하여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변시키려는 내외분렬주의자들의 흉계를 짓부시고 성스러운 통일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그것은 민족적단결을 이룩하는 바로 여기에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고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 기본담보가 있기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자기의 운명의 참된 주인이 되고 자기 운명의 힘있는 개척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모래알같이 흩어질것이 아니라 바위와 같이 굳게 뭉쳐야하며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의 리념에 기초하여 광범히 결속되여야 한다.

만일 각당, 각파와 개별적인사들이 제가끔 자기의 사상과 신앙을 내세우며 제각기 자신의 정견과 리해관계에만 집착한다면 민족최대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위한 총진군에서 일치한 보조를 취할수 없고 전민족의 단결된 위력을 발휘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망국적인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조작음모를 분쇄하고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하여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것이 해방후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던 당시에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도로서 북과 남의 정치협상방침을 밝혀주시고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Digitized by Google

대표자련석회의를 친히 소집하시였다.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열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적인 발기는 온 겨레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각계각층 인민들의 광범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1948년 4월에 열린 이 련석회의에는 자기 대렬에 1천여만명의 조직성원을 망라한 북과 남의 56개의 좌익, 중간 및 우익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하여 남조선단독《선거》를 거부하기로 일치하게 결정하였다.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력사에서 4월련석회의로 자랑스럽게 불리우는 이 력사적인 회합은 조국분단이 영구화될 엄중한 위험에 대처하여 애국적민주력량을 총집결하여 거족적인 투쟁으로 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치협상이였다.

4월련석회의는 민족의 영구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이한 정견을 가진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능히 단결할수 있으며 널리 힘을 합쳐 공동의 구국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함께 손잡고 전민족적인 투쟁을 벌릴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족적단결과 정치협상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며 위대한 결실이다.

4월련석회의이후 북과 남의 정치협상은 새로운 기초우에서 더욱 심화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들의 열광적인 지지속에서 결정적인 구국대책들이 련속 실현되였다.

1948년 6월에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가 다시 열리였으며 조국분렬의 위기가 더욱 심각화된 새로운 국면에서 전조선립법기관과 전조선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결정적구국대책이 강구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발표된 조국전선의 선언서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지체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을 통한 통일적립법기관선거를 동시에 실시할것을 제안하였다.

미제와 리승만역도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로골화된 긴박한 순간에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였다. 1950년 6월초에는 북과 남의 전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고 8.15해방 5주년에 통일적최고립법기관회의를 서울에서 열것을 제의하는 조국전선호소문이 발표된데 이어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를 단일한 전조선립법기관으로 련합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정령이 공포되였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거족적인 구국투쟁과 우리 민족의 단결된 위력앞에서 미국침략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분렬책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통일독립되고 륭성번영하는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은 날로 고조되였다.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심각한 정치투쟁, 다시말하여 침략과 반침략과의 투쟁, 애국과 매국과의 투쟁에서 여지없이 정치적파산을 당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전쟁의 방법으로 침략적목적을 달성해보려고 망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3년간의 조선침략전쟁에서 더 수치스러운 군사적참패를 당하였을뿐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억센 의지를 결코 꺾을수 없었다.

2

전후시기에 들어와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새로운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조선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미제국주의자들은 거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남조선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고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더욱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Digitized by Google

첫날부터 그것을 란폭하게 짓밟고 이른바 《유엔군사령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였으며 남조선괴뢰도당과 침략적인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리승만괴뢰도당은 잠꼬대같은 《북진통일》을 요란하게 떠들면서 괴뢰군무력을 대폭 증강하고 군사장비들과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그들은 또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도발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평화와 평화통일은 엄중한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하루빨리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적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민족의 통일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우선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고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나아가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일련의 중간걸음을 거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에 대해서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11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평화통일방침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적 전쟁정책, 《북진통일》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것을 막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개척하기 위한 현명한 구국강령이며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념원과 민족의 리익을 충분히 반영한 애국적인 통일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화통일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그것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정세발전의 매 시기마다 구체적인 통일제안들을 주동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전직후 소집된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제네바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전조선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 북과 남에서 각각 군대를 10만 또는 그이하로 줄일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 등 우리 나라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를 비롯한 일련의 보고와 연설을 통하여 남북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의사와 애국적열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사회정치생활에서의 민주화를 실시하고 북과 남사이에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의 자유래왕과 경제문화적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제안도 거듭 내놓으시였다.

우리 당과 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제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련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였으며 파산된 남조선경제를 추켜세우고 령락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동포애적구원의 손길까지 여러번 뻗치였다.

우리 당이 련이어 내놓은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 모든 제안들과 조치들은 우리 나라에서 누가 진정으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며 누가 침략과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었다.

Digitized by Google

그것은 또한 분렬로 인한 겨레의 불행과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려는 숭고한 민족애와 진심으로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뜨거운 민족적념원을 그대로 구현한것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평화통일방침과 구체적제안들은 그때마다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파쑈폭압밑에서도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통일의 투쟁광장에 과감히 떨쳐나섰으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굴함없이 싸웠다.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강력한 통일기운을 반영하여 평화통일을 투쟁강령으로 하는 진보적정당들도 출현하였다.

특히 남조선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은 대중적인 4월봉기를 일으켜 미제의 오랜 식민지통치도구였던 리승만괴뢰정권을 타도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평화통일방침의 불패의 생활력을 확증하는것으로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통일로선에 대한 우리 당의 평화통일로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민족분렬로선에 대한 조국통일로선의 위대한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19봉기이후 남조선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격히 앙양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평화통일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으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통일방안들과 호소를 높이 받들고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밑에 남북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애국투쟁에 용감히 나섰다. 특히 남조선청년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고 웨치며 남북학생회담과 교류를 요구하여나섰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은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대세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편에 유리하게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바야흐로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게 될 그때에 미제는 범죄적인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앙양된 남조선인민들의 평화통일운동을 악랄하게 탄압하였으며 또다시 조국통일의 길을 가로막아나섰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나라의 평화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은 그 무엇으로써도 억누를수 없었으며 그들의 평화통일운동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계속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3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에서 5.16《군사정변》이 일어난 이후 우리 나라의 통일정세는 오래동안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변화되여왔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전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우리 당의 정당한 통일제안들을 매번 거부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여왔다. 특히 미제가 국내외적으로 더욱 헤여날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아세아침략의 진면적파산으로 더이상 이 지역에 붙어있을수 없게 되자 남조선당국자들은 《반공》파쑈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강화하면서 남북의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고 분렬의 장벽을 더욱 높이 쌓는데로 나갔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분렬이 고착될 위험이 짙어가고 남북사이에 첨예한 긴장상태가 조성되였으며 통일의 전망은 더욱 멀어지게 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북과 남사이의 격폐상태를 깨뜨리고 하루빨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급변하는 내외정세의 추이를 깊이 통

Digitized by Google

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적대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여 자주적평화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가실 애국의 일념으로 북과 남의 대화와 합작을 위한 새로운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우리의 8개 항목 평화통일방안을 접수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딴 문제로 치더라도 그들이 참말로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무엇때문에 남북이 접촉하고 협상하는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히신 대화와 합작 방침은 나라의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길데 대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여기에는 평화적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가 명시되여있으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폭넓은 민족적아량이 뚜렷이 표시되여있다.

우리 당의 이 새로운 대화방침은 그 시기적절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때까지 북과 남사이의 어떠한 접촉도 완강히 거부하여오던 남조선당국자들로 하여금 대세의 압력에 밀리워 대화의 마당에 나오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래동안 격페상태에 놓여있던 우리 나라의 북과 남사이에는 해방후 27년만에 비로소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고위급정치회담이 실현되였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자 이번에는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 나갈데 대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제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기본방침을 북과 남사이에 정치회담이 열린 새로운 조건에 맞게 구체화한것으로서 여기에는 통일문제해결에서 북과 남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들이 포괄적으로 명백히 밝혀져있다.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나라를 통일하자는 자주적원칙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야 하며 그밖의 다른 외부세력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평화통일원칙은 쌍방이 통일문제해결에서 무력에 의거하지 않으며 정세를 첨예화시키는 어떠한 군사행동이나 언행도 하지 않을것을 요구한다.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은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리념,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지 말며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 구현하고있는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공명정대성과 사리정연성 앞에서 남조선당국자들도 감히 그것을 거역할수 없었으며 그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되여 1972년 7월에는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였던것이다.

참으로 북과 남의 대화의 실현과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은것으로서 자기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열렬한 지향과 참다운 슬기를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한 중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폭넓은 대화방침의 빛나는 결실로서 외세의존로선에 대한 민족자주로선의 승리를 의미하였으며 민족분렬로선에 대한

Digitized by Google

조국통일로선의 승리를 의미하였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성실히 리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 남북사이의 현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할데 대한 문제, 더 나아가 서로 사회를 완전히 개방할데 대한 문제 등 북과 남의 합작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 모든것은 실로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일관한 성의와 진지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우리측과는 반대로 남조선당국자들은 마지못해 대화마당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외세에 의존하며 대결과 분렬을 일삼던 지난날의 그릇된 립장을 버리지 못하고 처음부터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원칙의 성실한 리행을 회피하였으며 우리측이 내놓은 합리적인 제안들을 어느 하나도 성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우기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우리 당의 통일방침을 지지하는 기운이 더욱 높아지게 되자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민족의 절절한 념원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전쟁준비와 파쑈화를 더욱 다그치고 나아가서는 《두개 조선》을 정책화하고 그것을 내외에 공공연히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칫 수년간의 대화에서 북과 남이 취한 립장과 태도는 누가 민족의 의사를 대변하고 누가 외세의 리익에 추종하며 누가 조국의 통일을 바라고 누가 민족의 분렬을 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실로 북과 남사이의 대화과정은 단결, 합작을 통한 통일로선과 대결, 경쟁에 기초한 분렬로선사이의 근본적대립과 치렬한 투쟁의 련속과정이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두개 조선》 정책을 선포함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통일을 위한 대화는 결렬상태에 들어갔고 우리 인민은 통일이냐 영구분렬이냐, 하나의 조선이냐 《두개 조선》이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다.

언제나 주체의 빛나는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정세의 변화발전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을 주동적으로 헤쳐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변화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분렬될 위험을 막고 통일된 하나의 조선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대책으로서 조국통일 5대방침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조국통일 5대방침은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운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자주적평화통일의 성스러운 투쟁에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킨 참다운 애국애족의 기치이며 구국통일의 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1977년 1월에 몸소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발기하시고 조국통일 5대방침을 구체화한 4개 항목의 제안을 내놓도록 하시였다.

조국통일 5대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매국배족적정체와 침략적음모는 세상에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중단된 이후에도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우리 인민에게 통일독립되고 번영하는 하나의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다시금 대화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을 밝히시고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새롭게 내놓으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폭넓은 대화와 합작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공화국북반부의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소집하고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4개 항목의 제안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민족대회의 소집을 중요내용으로 하고있는 이 제안들은 통일문제해결의 실제적담당자인 우리 민족전체의 의사를 집대성하여 북과 남의 대화를 단결과 합작의 기초우에서 새롭게 전진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하기에 이 제안이 발표되자마자 그것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인민들속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제안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였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문은 다시 열리고 지금 우리 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언제나 정세발전의 추이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시며 짙어가는 영구분렬의 검은구름을 밀어제끼고 통일의 려명을 환히 안겨주시는 주체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또하나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 30여년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하여 우리 당이 벌려온 줄기찬 투쟁의 력사는 침략을 반대하고 매국을 반대하는 숭고한 애국투쟁의 력사이며 대결과 분렬로선에 대한 단결과 통일로선의 승리의 력사이며 외세와 매국자들에 대한 민족주체적력량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이다.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이 장엄한 력사적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과 그 실현을 위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놓으신 모든 방침들과 발기들은 그때마다 통일을 열망하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크나큰 고무와 희망을 주었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것은 언제나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온 나라에 통일기운을 새롭게 북돋아주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력사는 또한 더욱더 고립되고있는 분렬주의자들이 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사태를 역전시켜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여왔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민족내부에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고 높아가는 평화통일기운을 힘으로 압살하며 무모한 전쟁에까지 매여달리는것은 궁지에 빠진 분렬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써온 수법이다. 그들의 이와 같은 분렬주의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통일에 유리한 정세가 거듭 조성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엄연한 력사적사실들이 확증하여주는 바와 같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의 기본방침을 튼튼히 견지하고 구현하여야 하며 전체 조선인민이 숭고한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한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라는 모든 애국력량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분렬주의적인 반공대결로선을 철저히 배격하고 련공합작을 실현하여야 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통일위업은 성취되고야말것이며 온 겨레가 통일독립되고 번영하는 조국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새생활을 누리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본분

강 석 숭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온 나라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온 강산에 끝없는 충성의 열정과 기쁨이 넘쳐흐르는 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에 즈음하여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오랜 세월 억눌리고 짓밟혀오던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가 피바다에 잠기고 민족수난이 절정에 이른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주체의 찬란한 빛발로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였으며 겹쌓이는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몸소 헤치시고 우리 인민을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있었으며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빛내이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실로 우리 조국과 인민이 누리고있는 영광과 행복은 모두가 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그것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로정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하기에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의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휩싸여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을 자기의 혁명적본분으로 삼고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할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1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철저히 옹호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참다운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혁명적본분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본질과 그 장기성, 간고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이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수령이 개척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비상히 폭넓고 거창하며 어렵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빛나게 완성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며 대를 이어가며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목표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은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는것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 낡은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해야 할 과업은 아직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이러한 과업들은 결코 단꺼번에 수행할수 없다. 이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세대에 걸치는 장기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 유물들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계승해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떠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가면서 끝까지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곧 수령의 위업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철저히 옹호하고 계승하여야 혁명의 명맥을 굿굿이 이어나갈수 있으며 그 어떤 우여곡절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오직 대를 이어가면서 수령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사람만이 참다운 공산주의자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혁명적본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성을 완전히 보장하여주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는 숭고한 위업으로서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압박과 착취에서뿐아니라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종국적으로 해방하여야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거창한 혁명위업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혁명적신념으로, 투쟁의 기치로 삼고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여기에 주체형의 혁명가들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참다운 삶의 보람이 있으며 그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는 참된 길이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보람찬 혁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혁명가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은인이시며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온갖 사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지난날 나라없이 시대의 밑바닥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여지없이 짓밟혀오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혁명의 참된 길을 찾게 되고 사람답게 사는 보람찬 길을 걷게 되였으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Digitized by Google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은 수령님에 의하여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혁명가로서의 참된 삶의 보람을 누리게 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의지이며 마땅한 의무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모든 충성을 다 바쳐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주체위업을 개척하신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참으로 멀리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으며 광복된 조국땅에서 짧은 기간에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이리하여 오랜 세월 우리 인민이 한갖 지향과 리상으로만 그려오던 착취없고 압박없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이 땅우에 튼튼히 세워지고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또한 지난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속에 허덕이던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뒤떨어진 경제를 가지고있었던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실로 이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크나큰 자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계속이며 그 완성을 위한 새로운 높은단계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가는 투쟁이다.

우리에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를 옹호하고 당과 혁명에 충성다하려는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우리들로 하여금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하며 조선혁명의 밝은 앞날을 더욱 뚜렷이 내다볼수 있게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15페지)

우리에게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혁명의 향도의 기치인 영광스러운 당이 있고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있으며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물질적으로 담보하는 강위력한 경제력이 있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받은 혈기왕성한 전투적당이며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혁명과 건설을 통일적으로 령도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우리 당은 사회의 심장으로서 온 사회에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세차게 불어주고있으며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완강한 의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의 혁명적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억세게 싸워나가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밑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심화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힘있게 추진된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데서 참다운 삶의 보람을 찾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온 사회는 언제나 혁명적 랑만과 전투적기백으로 약동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더욱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사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하나의 혁명적인 대가정으로 확고히 전변되였다.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부터 우러나온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통일단결인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이 있으며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다.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차넘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웅대한 6개년계획이 빛나게 완수된 결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의 경제는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과업으로 하는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이 모든것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위력한 정치적력량과 튼튼한 물질적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끝없는 혁명적열정과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진군길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실로 우리 인민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며 그 승리는 확정적이다.

2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의연히 혁명의 길우에 서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세대에 혁명위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대에 가서라도 완성하도록

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67페지)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끊임없이 전진하여야 한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고 간고하며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실로 방대하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해야 하며 이 땅우에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시켜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과업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우는 성스러운 투쟁과업이며 대를 이어 계속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진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교대자들인 새세대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초소들을 맡아나서고 있다.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우리 혁명의 교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마음껏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라났으며 혁명의 대를 이어 주체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충성의 열정으로 충만되여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는 모르며 수령님과 당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실천투쟁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데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것은 우리의 새세대들의 귀중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양덕군 은하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바친 충고한 충성심은 이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해방직후 우리 인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궁벽한 두메산골이던 은하리를 몸소 찾으시여 하신 현지교시를 자신들이 대를 이어 빛나게 관철하려는 불타는 마음을 안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자 고향 농촌에 집단적으로 진출하여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혁명의 교대자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이렇듯 우리의 새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을 더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위업을 더 빛나게 꽃피우겠는가 하는 가장 뜨거운 충성심을 지니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고있으며 그들의 충성심은 조국의 대지우에 억세게 뿌리내려지고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가 끝없이 양양하고 조국의 미래가 더욱 휘황찬란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혁명의 교대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까지 충성다하며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도록 하자면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만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이며 그러한 충실성을 지닌 사람들만이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을 지

Digitized by Google

녀야 추세와 대세에 흔들림이 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실수 있으며 혁명의 대가 바뀌여도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지켜나갈수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을 어떻게 모시고 받들며 수령이 내놓은 사상과 방침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우리 인민의 운명을 이끌어주시고 그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 교양을 강화하여 모두가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화, 신조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집행하는 강의한 혁명적기풍으로 살며 싸워나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은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하여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과 당에 진실로 충실하자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인식하게 할수 있으며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성심을 지니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로 굿굿이 싸워나아가게 할수 있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충실성의 생동한 모범으로 감화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인민이 발휘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들은 실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과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높이 발현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산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교양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이끌어주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혁명전통을 계승하며 당의 투쟁경험을 더욱 풍부히 하며 당이 이루어놓은 투쟁업적을 공고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1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혁명이 그 어떤 풍파도 뚫고 곧바른 승리의 길로 나아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며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가면서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영광찬란한 력사와 오늘의 행복도 보다 휘황한 래일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Digitized by Google

과정은 곧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이다.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들을 만대에 길이 빛내일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로 하여금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게 할수 있다.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전통에 구현되여있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폭넓게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더욱 깊이 체득하고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심장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전통을 훼손하거나 헐뜯으려는 사소한 요소와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당조직들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을 비롯하여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과 수단들을 널리 리용하며 혁명전통교양자료들도 더 잘 만들어주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 전국, 전민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철저히 세우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중앙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강철같은 규률이 전당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2페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수령님의 의도를 받들어 주체위업을 완성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지도이다. 그러므로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는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하는것으로 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우리는 당중앙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하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와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도 강하게 투쟁하여 제때에 극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전당과 온 사회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 따라 나아갈 때만이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는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려진 혁명적의지이며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자주성의 시대를 빛내이시는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리 종 목

오늘 전체 조선인민과 함께 세계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경사의 날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은 한결같이 주체의 빛발 찬란한 조선에로 쏠리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차넘치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자주성의 시대를 빛내이시는 인류의 위대한 태양》, 《세계에 오직 한분밖에 안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하면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실천투쟁으로 조국과 인민 앞에, 시대와 인류 앞에 영생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시며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신다.

우리는 온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그토록 흠모하여마지않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함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힘차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주체시대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과 지도리론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옳바른 혁명사상을 투쟁의 무기로 삼을 때만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과 국제혁명운동의 실천적경험을 총화분석하시고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에게 온갖 예속과 압박을 청산하고 새 사회,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조선혁명의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가 처음으로 내놓은 사상이지만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사상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1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시대는 세계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Digitized by Google

자주성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온갖 형태의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기본추세로 되고있다.

선행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 시대는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전반적인 세계혁명발전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정확한 과학리론적해명을 줄것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은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투쟁의 길을 밝혀주는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기 위한 혁명의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여 모든 단계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방법을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하심으로써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각이한 력사발전단계에 놓인 지구상의 모든 피압박민족들과 인민들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아무런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과학적인 학설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진수로 하는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전일적으로 집대성하신것은 인류사상사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변으로서 인류력사발전과 세계혁명위업에 공헌한 불멸의 세계사적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나왔고 그 기초원리와 구성체계, 내용이 완전히 독창적이며 시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는것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한결같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칭송되고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류사상발전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사상》, 《인류해방의 길을 밝힌 가장 완성된 혁명적학설》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오직 주체사상에서만이 우리 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인민들의 투쟁의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찾을수 있다고 일치하게 말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사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요구하는 인류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지도사상이며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참된 삶을 주는 창조적사상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류례없이 비상한 사상리론활동의 결실인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그 원리로부터 세부리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리론체계로부터 개별적인 명제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일뿐아니라 매우 풍부하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기때문에 자주성의 시대를 대표하고 우리 인류가 나갈 길을 가리켜주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서 자기들의 투쟁의 무기를 찾고있다.

일본의 한 사회과학자는 《김일성주의는 우리 시대의 유일한 라침판이다.》,

Digitized by Google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자주성의 시대인 현시대에 있어서 전세계인민들의 투쟁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다.》라고 힘주어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외국의 벗들이 한결같이 말하고있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따라배우는것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확고한 신조로,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모든 대륙과 지역, 나라와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언어와 피부색을 달리하는 광범한 인민들속에 널리 파급되고있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불패의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세계가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력사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이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시대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우러르면서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사상을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앞에 나선 가장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과업들을 빛나는 예지로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지위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귀중한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새생활창조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13페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민족적자주권을 잃고 민족수난의 비운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고 주체를 세우는데서 혁명의 진로를 개척할 방도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홰불을 높이 추켜드시고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타개하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시였으며 철저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의 전략전술을 정확히 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수많은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빛나게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착취없고 압박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교육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여놓았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온 세계가 동경하여마지않는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온갖 천대와 수모를 받던

Digitized by Google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나라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실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우리 나라가 오늘처럼 륭성번영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과 영예가 이렇듯 높은 때는 일찌기 없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인 변혁,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높은 권위와 영예를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련결시켜 높이 자랑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놀라운 전변과 우리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업적은 세계 진보적인류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업적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는 탁월한 령도예술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실제적으로 구현한 결과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조선은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 《20세기 인류문명의 개화기를 열어놓은 문화의 나라》, 《가장 호전적인 "전쟁광신자들도 덤벼들기를 무서워하는 철벽의 성새, 무적의 나라》로 전변되였다고 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이룩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와 같이 온갖 간난신고를 겪으시고 복잡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헤치시며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세련된 수령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조선의 사회주의건설경험은 온 세계가 따라배워야 할 인류의 귀중한 재부이다.》라고 말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한 지도자는 《조선의 사회주의는 삶이 있고 감정이 있고 현실에 발을 붙인 사회주의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이끄시는 조선은 제3세계 아니 온 세계가 따라배워야 할 모범의 나라이다.》라고 하였으며 아프리카의 한 벗은 《조선은 〈사회주의모범의 나라〉이며 기적의 나라이다. 우리는 조선과 같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오늘과 같은 훌륭한 나라를 건설한 경험은 우리도 앞으로 능히 조선과 같은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한다. 조선을 따라배워나갈 때 우리는 꼭 성공할것이다.》라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신심,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자주세력과 지배주의세력,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사이의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전진운동은 커다란 장애에 부딪치고있으며 국제정세는 매우 긴장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국제정세발전의 추이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세계혁명의 주되는 투쟁대상과 혁

Digitized by Google

명력량편성문제, 세계혁명을 끊임없이 앙양시키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8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그 멸망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반제투쟁전략,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지키고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민족적번영을 이룩할데 대한 혁명적방침들은 온갖 예속과 압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무대에서 날로 악랄화되고있는 반혁명세력의 책동의 본질을 예리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현시기 신흥세력나라 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전략적 방침들과 원칙들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온갖 예속과 지배를 반대하기 위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근본 요구와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들에 대하여 《우리 시대 세계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투쟁전략》,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제, 반지배주의 투쟁에서 반드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백전백승의 혁명전략》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 전략방침들을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있다.

구라파의 한 국가활동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처럼 국제관계문제와 국제정세 그리고 국제로동운동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며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립장을 취하신분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반제, 반지배주의 투쟁방침을 받아안은 외국의 한 벗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문제와 관련한 정식화는 모든 당들과 국가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현명한 방침이다. 그이께서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를 반대할것을 제시하시였는데 이것은 저의 심정과 구라파 진보적인사들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외국의 한 벗은 《지배주의자들은 자기의 정책을 재검토해보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남의 지휘봉에 움직이던 나라들도 이제는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나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시대 세계혁명발전과 인류해방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것으로 하여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시며 《인류의 위대한 태양》으로,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은 칭송을 받고계신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속에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려는 지향과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이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찾아뵙는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여

Digitized by Google

기면서 멀리 대륙과 대양을 건너 끊임없이 우리 나라에 찾아오고있는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 등 모든 대륙의 이르는곳마다에서는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활동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애독회》 등 여러가지 연구소조들을 뭇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열심히 배우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하여 투쟁의 지침으로 삼기 위한 큰 규모의 연구토론회들이 광범히 조직되고있으며 그것은 점차 지역적범위를 벗어나 국제적규모에서 확대발전되고있다.

이와 함께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대대적으로 출판보급되고있으며 세계의 수많은 출판사와 신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께서 지니신 고매한 덕성을 대서특필하여 광범히 소개선전하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따라배우는것은 시대의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의 확고한 신조로, 그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온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그처럼 열렬히 존경하여마지않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근로자 1979년 제4호(루계 444호)

편집위원회

발행소•근로자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연 쇄•1979년 4월 1일　　발 행•1979년 4월 5일

ㄱ—8578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Digitized by Google

4451
12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EAST ASIATIC LIBRARY
SEP 20 1979
UNIVERSITY OF CALIFORNIA

5 호

평 양 근로자사 1979

Digitized by Google

제 5 호 (445)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지도일군들은 당의 방침을 근기있게 관철해나가자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고 우리앞에 전례없이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지도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근기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을 되는대로 하거나 끝까지 다하지 않고 중도에서 내버리는것은 혁명가적투지가 약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일에서도 성공할수 없습니다. 당정책은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1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틀어쥐고 근기있게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우리 지도일군들이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사업원칙이며 혁명가적일본새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은 류례없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투쟁과정을 통하여 이룩되는 거창한 사업이다. 이 투쟁행정에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이 수없이 제기되며 전사회적범위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인민경제의 매개 부문과 구체적단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서도 많은 복잡한 사업들이 련이어 제기되게 된다. 이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제시하시는 교시들과 당의 방침을 뜨거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근기있게 관철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전진시킬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성과여부는 결코 말로써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어떻게 실속있게 관철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확고히 틀어쥐고 근기있게 관철하여나갈때만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인민이 수행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은 우리 당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들은 모두가 다 우리 혁명발전의 근본요구와 인민대중의 절실한 리익과 지향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며 거기에는 우리 인민에게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고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번영과 륭성발전을 이룩하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들이 다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혁명의 가장 옳바른 투쟁로선과 투쟁방침을

Digitized by Google

다 밝혀주실뿐아니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풀어나가야 할 구체적인 문제들과 그 실현을 위한 방법론까지 제시하여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근기있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라야만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고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에로 전진시켜 나갈수 있다. 지도일군들이 혁명과 건설을 얼마나 힘있게 밀고나가는가 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방침을 어떻게 접수하고 그것을 어떻게 근기있게 관철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경험은 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끝장볼 때까지 근기있게 관철해나가는데서는 언제나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들이 실속있게 실현되여 알찬 열매를 거두게 되며 그렇지 못한곳에서는 혁명과업이 옳은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과업들이 수많이 련이어 제기되고 새로운 당정책이 끊임없이 제시되는 조건에서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그 모든것을 다 틀어쥐고 중도반단함이 없이 근기있게 관철해나가는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5분열도》로 처음에는 좀 틀다가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였다고 하여 하던 일을 끝장을 보지 않고 줴버리는 식으로 해서는 당정책을 제대로 옳게 관철할수 없다.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억세게 투쟁하여 끝장을 내야 한다.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일해서는 안된다. 일을 끝을 맺지 않고 중도에서 줴버리거나 질질 끄는것은 혁명가의 일본새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충실성과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교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당의 의도와 요구대로 생산과 건설을 더 잘, 더 빨리 수행해나가겠는가에 대하여 언제나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애써 노력하는 실천투쟁에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일군들은 항상 자기 사업을 당적원칙에서 돌이켜보면서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였는가, 잘한것은 무엇이고 잘하지 못한것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미진한 구석이 없도록 제때에 대책을 세우며 추격전과 섬멸전을 벌려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해나간다. 그리하여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훌륭히 해결해나간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직한 우리 일군들은 자기앞에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훌륭히 수행해나가면서 다른 구체적인 과업들도 놓치지 말고 다같이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공업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틀어쥐고나가면서 인민생활에 필요한 질좋은 여러가지 가정용품과 문화용품 생산을 늘이고 일용잡화와 식료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또한 농업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알곡생산을 늘이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면서 축산업과 과수업, 누에치기와 닭기르기, 혐산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한 여러가지 당적과업들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실속있고 근기있게

Digitized by Google

관철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일군들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강한 일군들이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틀어쥐고 근기있게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하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모든 지도일군들이 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참다운 일본새이다.

특히 오늘과 같이 우리앞에 전례없이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조건에서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근기있게 관철해나가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위한 투쟁은 비할바없이 거창한 규모에서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지도일군들앞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근기있게 밀고나갈 전투적과업을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근기있게 밀고나갈 때 우리는 새 전망계획 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인민생활문제를 더욱 훌륭히 풀어나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근기있게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수령님의 의도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며 모든 문제를 훌륭히 풀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근기있게 관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근기있게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높은 충성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받아안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어떤 태도와 립장에서 받아안는가 하는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근기있게 철저히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높은 충성심과 자각을 가지고 당정책을 받아안는 사람만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우리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오직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당의 방침을 접수하고 높은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겠다는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수령님께서 우리 일군들에게 돌려주시는 높은 정치적신임으로 뜨겁게 받아안을줄 알아야 하며 모든것을 다 바쳐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는 혁명가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근기있게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지도일군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을 지도하려면 군중이 모르는것을 알려주며 군중에게 늘 옳은 길을 가리켜줄수 있도록 당정책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498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이 모든 혁명과업을 근기있게 관철해나가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당정책적선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Digitized by Google

판단할수 있으며 생산자대중을 옳게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여러가지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지도일군들은 특히 자기 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와 당정책을 환히 정통하고있어야 하며 그 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소유하고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근기있게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 조직지도사업을 잘하여야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방도를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제시된 혁명과업을 당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성과적으로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데 중심을 두고 당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포치사업을 잘하고 그 집행에 대한 장악과 통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포치사업을 잘하여야 하며 일단 포치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알아보고 제때에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등으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도 그것을 어디까지나 기본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직생활이란 조직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그자체가 곧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이다. 그러므로 혁명과업과 동떨어진 순수 조직생활이란 있을수 없으며 모든 조직사상생활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사상적으로 단련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 중심을 두고 지도하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으며 그들의 조직사상생활에 대하여서도 어디까지나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사상생활이 혁명과업과 밀착된 생명력있는 산 조직생활로 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 관철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력한 수단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근기있게 관철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것을 방해하는 온갖 그릇된 현상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혁명투쟁은 그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는 심각한 투쟁을 통해서만 승리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그것을 방해하는 온갖 그릇된 현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옳게 수행될수 없다.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무조건성이 없고 객관적조건에 빙자하면서 당정책을 홍정하며 수령님의 교시 집행을 끝까지 관철하지 않고 질질 끄는 현상 등 온갖 그릇된 현상들에 제때에 타격을 줌으로써 그것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잡사상들과 부정적현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근기있게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며 그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근기있게 끝까지 관철하며 그것을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정치경제실무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경제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근기있게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와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비상히 방대한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자면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정책적안목을 가져야 할뿐아니라 풍부한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가지지 못하고 머리가 비면 비상히 방대하고 빨리 발전하는 우리의 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서 수많은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있는 조건에서 지도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에 맞게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빨리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따라서 정책적안목과 함께 높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는것은 결코 단순한 실무적과업이 아니라 우리 지도일군들과 당원들 앞에 나선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기대, 자기가 지닌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모르고서는 현대적생산과 건설을 옳게 지휘할수 없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여러가지 강령적과업을 근기있게 끝까지 관철할수 없고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정력적으로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학습하는것을 절대로 미룰수 없는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시간을 짜내고 아껴 학습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이렇게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며 혁명과 건설에서의 높은 성과로써 당의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할 때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끝까지 근기있게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불러일으킨 력사적인 전투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에 즈음하여—

리 을 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에로 조직지휘하신 때로부터 40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이끄시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무산지구전투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전략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대부대유격작전의 하나이다.

국내진공작전을 조직전개하는것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그 통치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음으로써 외래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빼앗긴 조국강토와 짓밟힌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으며 국제파시즘과 제국주의의 세계제패야망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의 전략적요구의 하나였다.

당시 일제는 대륙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경제적략탈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놈들은 대륙침략전쟁을 위한 병력증강에 미쳐날뛰는 한편 《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 《시국대응전선(전조선)사상보국련맹》, 《조선방공협회》 등 각종 반혁명적파쑈단체들을 조작하고 《반공》깜빠니야를 벌리였으며 우리 인민들속에서 급속히 앙양되는 반일혁명기세를 마비시키고 그들의 사소한 반일요소에 대하여서도 잔인하게 탄압하였다. 지어 놈들은 《황민화운동》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조선인민의 모든것을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일제는 또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파괴하고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한편 민족개량주의자, 좌우경기회주의자, 종파사대주의자 등 온갖 혁명의 배신자들은 시정배로 떨어졌거나 혁명을 도피하여 자취를 감추었으며 어떤자들은 일제와 공공연히 결탁하는 길로 나갔다. 이리하여 혁명의 앞길에는 또다시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다.

이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조성된 혁명의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9년 4월 북대정자에서 력사적인 조선인민혁명군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대부대로써 또다시 조국으로 진출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앞에는 고난의 행군의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적들을 련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진군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적들은 동기《토벌》작전에서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하고 사방에 분산되채 제 소굴에 처박혀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넘어가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타격을 가하고 조국으로 또다시 진군하여야 합니다.》(《적극적인 반격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련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진군하자》, 단행본, 11페지)

대부대로써 또다시 조국으로 진출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은 우리 인민이 주인이 되여 조선혁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을 철

Digitized by Google

저히 구현한 위대한 방침이였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주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우리 혁명발전의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요구를 구현한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조국진군방침에 기초하시여 1939년 5월, 또다시 조국에로 진군하시여 대규모적인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전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5월 18일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뚫고 압록강을 건느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그처럼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고 적들을 도처에서 짓부시며 용기백배하여 다시 조국땅을 밟은 대원들의 사기는 충천하였다. 그들은 조국땅 청봉에서 들먹이는 가슴을 안고 첫 숙영을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의 무산지구진격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적들은 각지에서 응원부대를 동원하여 국경연선을 봉쇄하는 한편 산악지대에 대병력을 집중시키면서 일대 소동을 일으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이러한 동태를 꿰뚫어보시고 부대를 전창과 베개봉에서 숙영시키신 다음 적들이 포태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와 압록강연안에 몰려 헤매고있는 사이에 적의 경비도로를 따라 무산지구로 빠져 적의 약한 모퉁이를 불의에 공격할 작전계획을 짜시였다. 이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일제가 항일유격대를 《토벌》하겠다고 몇해를 두고 닦아놓은 100여리의 《갑무경비도로》를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하여 무포에 이르렀다.

무포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5월 22일, 일부 부대를 신개척방향으로 진출시키시는 한편 친히 한 부대를 령솔하시고 신사동지구로 진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신개척과 신사동 두 방향에서 순식간에 적들을 소멸하고 이 지구를 완전히 해방하였으며 5월 23일에는 대홍단벌에서 또다시 유인, 매복 전술로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대승리를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무산지구전투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략전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무산지구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빛나는 승리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부단히 강화발전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산지구전투는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보여주었을뿐아니라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총화한 력사적인 전투였습니다.》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혁명무력의 보존과, 그 위력을 시위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인 《후방안전》전략을 좌절시키고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확대강화하며 민족해방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전략전술을 작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중추적핵심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을 보존하고 그 위력을 시위하여야만 당시 일제의 《후방》중심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혁명군자체의 무장력을 증강할수 있었으며 항일혁명전쟁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유격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고 유격작전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시위는 벌써 1939년 봄에 있었던 조국진군방침을 관철하는 첫단계의 작전에서부터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적들에게 련속적인 심대한 타격을 주고 놈들의 국경경비체

Digitized by Google

계에 혼란을 조성한 백두산 서남부국경지대에서의 수십차례의 맹렬한 춘기반격전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적잠재력과 그 강대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더우기 백두산 동남부에 집결한 적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일행천리전술로 100여리 《갑무경비도로》를 대낮에 대부대로 보무당당히 행군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군사활동은 무산지구작전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령활한 전술이였을뿐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의 강대성, 특히 전략전술적위력의 거대한 시위였다.

무산지구작전의 주되는 지점이였던 대홍단에서의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은 그것이 단순히 대홍단벌에서의 일제의 국경수비대, 경찰대 무력에 대한 일대 섬멸전이였다는데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일제식민지통치체계에 직접적인 심대한 무력적타격을 주고 놈들의 《후방안전》에 타격을 줌으로써 일제침략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을뿐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안팎에 널리 과시한 력사적인 전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무산지구에서 울린 포성은 《고난의 행군》의 승리적인 총화였다.

대홍단에서의 조선인민혁명군의 승리는 조선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남패자로부터 장백에 이르기까지 수십만의 대병력을 상대로 벌려온 결사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죽지 않았을뿐아니라 그 주력을 보존하고 강철같은 불패의 대오로 더욱더 단련강화되였다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대홍단벌에서의 적에 대한 섬멸전은 일제가 100여일에 결쳐 벌린 대부대 침략무력에 의한 《섬멸》전에 대처하여 대부대 혁명무력에 의한 일대 섬멸전으로 적에게 타격을 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이렇듯 무산지구전투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일떠선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총화한 력사적인 작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산지구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인민들의 반일투지를 더욱 굳게 하여주시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조국애를 깊이 심어주심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더욱더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아군은 보천보전투, 무산지구전투를 통하여 조선인민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싸우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 두만강연안에서 계속 부단히 일제강도들을 소탕한 아군의 영용한 투쟁은 국내인민들의 반일투지를 더욱 굳게 하여주었다.

유격전쟁에서 무장활동과 정치활동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지향을 더욱 높여주고 혁명적군중의 조직적결속을 강화하며 대중투쟁의 계속 앙양을 확고히 담보하여준다.

무산지구에서의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은 전례없이 포악해진 일제의 파쑈적탄압으로 일시 위축되였던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였고 지하혁명조직들의 활동력을 높여주었으며 인민대중의 반일반전운동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주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대중정치활동의 산모범과 강령적연설은 일제의 파쑈적폭압밑에서 신음하고 도탄에 빠져 헤매는 우리 인민들에게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여주었으며 모든 애국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일제놈들과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과 투쟁열의를 힘있게 북돋아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인민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을 령도해나가

Digitized by Google

시는 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엎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반일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섰다.

국내진공작전과 더불어 조직전개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의 대중정치활동에 의하여 원쑤들의 폭압으로 파괴되고 흩어진 지하혁명조직들은 복구정비되고 광범한 각계각층의 반일력량이 조국광복회조직에 더욱더 굳게 결속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항일혁명전쟁의 새로운 전략전술적단계의 요구에 맞게 무장투쟁의 기지, 대중적지반이 백두산근거지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공고화되게 되였으며 각종 형태의 반일반전운동이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다.

무산지구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대정자로부터 무산지구에로의 험난하고도 준엄한 행군길에서, 5호물동과 청봉숙영지 그리고 삼지연못가에서 인민혁명군대원들에게 강도 일제의 피묻은 발굽밑에 짓밟힌 우리 나라의 참담한 현실과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승리한 조국땅우에 일떠세울 휘황찬란한 래일에 대한 절절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수없이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자기 조국, 자기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정신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의 품에 안긴 감격과 흥분을 진정할길 없어 한떨기의 진달래꽃에도, 하나의 조약돌에도 볼을 비비며 눈굽을 적시였고 수령님을 모시고 해방된 조국땅에 기어코 다시 돌아오리라 굳게 다짐하였다.

무산지구전투에서 높이 발휘된 항일유격대원들의 조국애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였으며 그것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굴함없이 싸우는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무산지구전투는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 속에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혁명정신을 더욱 북돋아준 빛나는 전투였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조국애의 정신이 남김없이 발양된 력사적인 전투로 자랑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여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 8월 돈화현 소할바령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아군은 사실상 조선과 동북의 광대한 지역에서 10여년간 일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교란하였을뿐만아니라 놈들에게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과 손실을 주었으며 공포와 죽음을 주었던 것이다.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반제민족해방혁명에서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유격전투는 제국주의침략무력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를 다그치는 적극적인 투쟁형태이다. 1939년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국경지대 진출과 뒤이어 조직전개된 국내 진공작전은 바로 일본제국주의가 대부대 침략무력으로 우리 혁명의 중추적핵심력량을 교살하려던 발광적인 책동을 짓부셔버림으로써 조선에 대한 놈들의 식민지통치체계와 국경경비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여러차례에 걸친 춘기반격전과 그리고 무산지구작전을 통하여 당시 일제가 투입한 20여만의 대병력을 견제하면서 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저지시키려던 일제의 발악적책동을 여지없이 좌절시키고 놈들에게 돌이킬수

Digitized by Google

없는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일제는 대홍단벌에서만도 조선인민혁명군의 유인매복전술과 역포위전술에 의하여 수백명의 무리죽음을 내고 대참패를 당하였다. 실로 무산지구작전과 그 승리는 조선에서 갖은 악법과 폭압기구에 매달리고 발톱까지 무장한 반혁명무력에 의거하여 유지되고있던 일제의 《총독정치》와 그 관할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정치적타격이였으며 일제식민지통치의 멸망을 예고하는 준엄한 선고였다. 일제침략자들은 무산지구에서 제놈들이 당한 패배의 소식에 접하자 《령토의 일각의 치안을 문란케 하는… 심중한 대사》라고 통탄하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었고 제놈들의 군사적 및 정치도덕적 패배를 숨기기 위하여 엄격한 보도관제를 실시하면서 무산지구에서 녹아난 소식이 퍼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실로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조직전개된 무산지구작전과 그 승리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은 커다란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무산지구전투의 승리는 국제파시즘과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고무하고 적극 지원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1930년대말 국제정세는 파시즘과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며 민족적자주권을 위하여 광범히 일떠서서 싸울것을 세계 혁명적인민들앞에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세계를 제패하고 인류를 노예화하려는 국제파시즘과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야망은 더욱더 로골화되여 세계대전도발에로 급전되여나갔으며 세계의 수억만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에게는 파쑈노예화의 운명이 들씌워지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벌어진 무산지구전투는 국제파시즘의 주되는 세력의 하나이며 아세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일제의 《왕도락토》건설과 《후방안전》전략을 파탄시키고 일본파쑈군부의 아세아침략야망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무산지구전투승리는 민족적자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자기자신이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주었으며 주체적인 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벌려나갈 때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산모범을 보여주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는 주체의 기치밑에 전반적조선혁명을 계속 줄기찬 앙양에로 이끌어주었으며 민족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무산지구에서 높이 추켜올리신 조국광복의 홰불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을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 높은 혁명적 궁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김 창 원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그 해결의 가장 옳바른 길을 가르쳐주고있는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페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는 주체사상의 모든 명제와 사상의 근저에 놓여있으면서 그것을 규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원리이다. 주체사상의 전체계와 내용은 이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전개되며 그것으로 관통되여있다. 주체사상은 이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밝혀주며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준다.

참으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 과학성과 혁명성, 불패의 생활력의 근본원천이다. 주체사상은 바로 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과 혁명리론, 혁명의 방법론을 주는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를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전제로, 출발점으로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새롭게 발견하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의 존재와 그 발전의 근본리치를 밝혀줌으로써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우와 같은 문헌, 260페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Digitized by Google

사람과 주위세계의 관계, 현실세계의 존재와 그 발전의 근본특징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과학적인 철학적원리이다.

철학적원리가 세계의 진면모와 그 변화발전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완벽한 원리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계의 존재와 그 운동발전의 근본특징을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사람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세계에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는 그 어떤 물질적존재도 없었으며 따라서 세계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자연이였고 세계의 변화발전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자연의 변화발전이였다. 그러나 가장 발전된 존재인 사람이 생겨난 다음의 세계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사람이 생겨남으로써 자연만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자연과 인간사회를 포괄하는 세계로 전환되게 되였으며 자연발생적으로만 변화발전되여오던 세계의 발전력사는 사람이 주인이 되여 세계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배해나가는 새로운 세계의 발전력사로 되게 되였다. 이것은 사람이 생겨난 이후의 세계의 면모와 발전이 사람이 생겨나기 이전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이 생겨난 이후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사람의 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세계의 변화발전은 급속히 촉진되였으며 세계의 면모는 상상할수 없을만큼 달라졌다. 사람의 자주적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고 세계가 사람을 위한것으로 더욱더 개조되여나가는것이 사람이 생겨난 이후의 세계의 참다운 면모이며 그 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존재와 그 발전의 근본특징을 옳게 밝히자면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고 보는데 머무를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세계관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그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는 바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세계관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이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철학적원리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옳은 해명을 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고 하는것은 사람이 주위세계,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에 있다는것을 말한다.

현실세계는 발전단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물질적존재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사람은 세계의 한 부분이다.

외부세계를 떠나서는 사람이 살아나갈수 없으며 발전할수도 없다. 그러나 사람은 외부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여 살아나가는것이 아니라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복종시키면서 살아나가는 가장 발전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하며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는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고 하는것은 결코 사람이 끝없는 세계를 다 지배하고있다고 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다 세계는 인류발생이전부터 존재하며 세계에는 사람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많은 령역이 남아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실제로 얼마만한 넓은 세계를 지배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다른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고 하는것은 사람이 세계에 종속되여 사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동적인 목적의식적활동으로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고있다고 하는 의미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또한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준다.

Digitized by Google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주위세계,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말한다.

사람도 포함하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것들은 끊임없이 운동하며 변화발전한다. 그런데 사람은 외부세계에 종속되여 발전하는것이 아니라 세계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옳게 리용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 세계를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적활동은 세계에서 진행되는 가장 발전된 운동이며 사람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세계가 사람을 위하여 복무되도록 끊임없이 개조되고 발전한다. 사람은 세계개조의 담당자이며 변화발전의 결정적요인이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결코 사람이 세계의 수없이 다양한 모든 운동을 다 좌지우지한다거나 끝없이 넓은 세계를 완전히 개조하고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다. 세계에는 아직도 사람의 활동과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수많은 운동변화가 있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자기의 창조적활동으로 세계를 끊임없이 개조해나가고 있다는것, 다시말하여 사람도 포함한 세계를 발전시키는데서 객관세계가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과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밝히면서도 그것은 서로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임으로 하여 세계를 변혁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되며 한편 세계를 개조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노는것으로 하여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고수하게 된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사람의 운명에 관한 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다.

철학적원리가 완벽한것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줄뿐아니라 사람의 운명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사람의 운명에 관한 문제가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행동의 본질적내용을 이루며 사람들의 큰 관심사로 되여있는 근본문제이기때문이다. 사람이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지려고 하는것도 구경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옳은 길을 찾자는데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운명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는 철학적원리만이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철학적원리로 될수 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의 운명과 그 개척과정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밝혀주고있는 가장 혁명적인 철학적원리이다.

사람은 세계에서 살고있으며 사람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개척된다. 사람은 주위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그것을 지배함으로써만 살아나갈수 있다.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한다는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서도 주인의 지위에 있다는것을 말한다. 사람은 모든것을 지배하면서 살아나갈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때문에 세계에는 사람밖에는 그의 운명을 결정할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 오직 사람만이 자기 운명에 대하여 책임질수 있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있다.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도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사람의 운명은 사람이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척된다.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과정은 곧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이다.

사람의 운명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하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얼마만큼 개조

Digitized by Google

하여 지배하고 통제하고있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배하기 위한 투쟁은 바로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은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다. 세계에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운명을 개척해주는 그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 운명까지도 포함하여 모든것의 주인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것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입니다. 사람은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이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4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자주성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살아나가려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다. 다시말하여 그 어떤 구속에서도 벗어나 모든것의 주인이 되여 살며 활동하려는 본질적특성이다.

창조성은 객관세계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온 사람의 사회적속성이며 그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만 고유한것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기때문에 동물과 같이 객관세계에 그저 순응해서 사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생활환경을 마련하면서 살아나간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을 줌으로써 세계의 본질과 변화발전을 사람을 위주로 하여 정확히 파악하게 하며 사람의 운명문제를 빛나게 해결해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을 열어준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가 주는 세계에 대한 관점은 사람을 주인의 지위에 놓고 세계의 모든것을 보고 대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를 변혁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견지에서 세계를 보고 대하는 관점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게 한다.

세계는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변혁되는 객관적사물현상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고찰하여야 그의 본질과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사람과 그를 둘러싼 세계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볼뿐아니라 세계를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보게 함으로써 세계의 존재와 그 발전의 근본특징을 가장 정확히 밝혀준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가 주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과 그에 의하여 끊임없이 개조되고 변혁되여나가는 물질적존재들로 이루어져있다고 밝혀

Digitized by Google

준다.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는 가장 발전된 운동을 하는 물질적존재와 덜 발전된 운동을 하는 물질적존재와의 관계이며 사람과 세계와의 사이에 맺어지는 호상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사람의 주동적활동에 의하여 맺어진다는데 있다. 사람은 객관세계의 사물현상들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여 그것을 지배하면서 살아나가는것만큼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사람의 창조적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을 보아야만 세계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리해할수 있다. 만일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사람의 창조적활동을 무시하고 세계의 운동발전의 일반적특징만을 고찰할 때에는 사람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세계의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옳게 파악할수 없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의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완벽하게 파악하는데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사람이 노는 결정적역할을 밝힘으로써 사람을 포함한 세계만물이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것으로 볼뿐아니라 세계가 사람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사람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개조되고 변혁된다고 밝혀준다. 그리하여 사람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개조되고 변혁되는 세계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가장 옳바른 리해를 준다.

사람을 주인의 지위에 놓고 세계를 보는 주체의 관점은 이처럼 세계의 면모와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수 있게 하는 관점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태도를 밝혀준다.

주체의 관점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한다. 다시말하여 사람을 주인의 지위에 놓고 그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옹호하는 견지에서 모든 사물현상을 보고 대할것을 요구한다.

사람을 주인의 지위에 놓고 세계를 사람이 개조하여 리용하는 환경으로 보며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의 견지에서 사물을 보아야 그것을 사람의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여 사람에게 더 잘 복무하도록 할수 있다.

결국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은 모든것을 사람의 운명의 견지에서 보고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는 가장 혁명적인 관점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은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한다.

사람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인것만큼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주고 사람의 운명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위대하고 독창적인 철학적원리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인류사상발전에서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불멸의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힌 새로운 철학적원리를 발견하심으로써 인류의 철학사상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주고 사람의 운명문제해결의 옳은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가지려는것은 인류의 세기적인 념원이였으며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절박

Digitized by Google

한 요구였다.

인류의 세기적인 념원과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철학적원리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의 본질적특징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발견하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완성하시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오래동안 인류의 철학적사유에 의하여 해결을 보지 못하였던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사람의 운명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이 주어지게 되였으며 세계관의 기초와 내용에서 근본적인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 근로인민대중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 빛나게 완성되게 되였다.

주체의 철학적원리의 발견에 의하여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의 독창적인 체계가 확립되고 인류의 진보적철학사상은 자기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역할,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지도사상이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준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자기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에는 자기 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외세에 의존하거나 허황한 초자연적인 신에 자기 운명을 의탁하게 된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줌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며 만난을 극복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서게 한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준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있으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주체의 철학적원리의 발견은 인류사상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불멸의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다.

우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깊이있게 연구파악함으로써 주체의 세계관,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실현을 위한 숭고한 과업

김 룡 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보고와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실현의 합법칙적로정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 독창적인 방침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공산주의에로 가는 로정이 더욱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수 있는 길이 환히 열려지게 되였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테리들은 로동계급화하고 로동계급은 다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할뿐아니라 인테리화하여야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0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든다는것을 말한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에는 우리 인민모두를 참다운 혁명가,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어가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온갖 형태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사회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훌륭히 충족시킬수 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 사람들의 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을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은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총적인 목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는 사람들의

Digitized by Google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두 측면이며 공산주의사회를 특징짓는 두 구성부분이다. 그러므로 인간생활의 2대령역을 이루는 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을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드는것을 기본요구로 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하며 바로 그때라야만 공산주의위업이 종국적으로 완성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사회생활에 낡은 사상잔재와 락후한 문화와 유물이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활동이 원만히 보장될수 없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면 그들을 온갖 낡은 사상과 도덕, 락후한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여야 하며 가장 힘있는 사회적존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되게 하여준다.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지는것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기술, 높은 문화적소양을 가질 때라야만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주동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으며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될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려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뿐아니라 그들을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그 혁명적본질로 하여 사람들에게 높은 과학지식과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여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람들이 대학졸업정도의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훌륭히 수행하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특히 사람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 사업을 다그치게 함으로써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되게 한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 존재이며 사람들의 가치와 모든 활동은 그들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데서 기본은 그들이 공산주의사상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은 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게 함으로써 더욱 촉진된다. 그것은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목적의식적인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 인식능력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여 사람들이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질 때라야만 사회발전법칙과 혁명의 원리를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과 태도를 더욱 튼튼히 가질수 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두개 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물질기술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인데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며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달성하는것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64페지)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는것은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 사람들의 물질적수요를 가장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며 모든 사회관계와 사람들의 활동방식을 공산주의적인것으로 만들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건설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협동적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끌어올려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적소유가 있게 되는것은 농업이 물질기술적토대에서 공업보다 약하며 농촌주민들이 문화수준에서 도시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이 사상의식령역에서 로동계급보다 뒤떨어져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이 존속되여온 계급사회가 남긴 유물이며 결코 하루이틀사이에 없앨수 없는것이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장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과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없애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기술문화수준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것만큼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과정에 로동계급과 농민의 문화수준에서의 차이는 점차 극복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 농민들의 사상의식의 혁명적개조와 농업생산발전이 더욱 촉진되게 된다. 이것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저애하던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문화기술수준에서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게 하는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공산주의건설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사업의 다른 하나인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높은 생산력을 달성하게 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논다.

사람들은 물질생활에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을 때, 다시말하여 수요에 의한 분배가 실현되여야 생활상 요구를 원만히 충족할수 있으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누릴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물질생활면에서 전적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려면 높은 문화지식과 현대적기술을 가져야 하며 발전된 경제적조건, 물질적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요에 의한 분배는 그저 육체적로동이나 손로동, 수공업적기술을 가지고서는 실현할수 없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희망과 요구대로 물질적부를 향유하려면 모두가 다 지식있고 기술있는 문명한 사람으로 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이 물질문화령역에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다같이 풍족하고 문명하게 살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쌓고 자기에게 맡겨진 공산주의적분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문화기술수준, 기사, 전문가의 높은 지식과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모든 생산공정을 종합적으로 기계화, 자동화하고 사람들의 주인다운 태도에 의하여 사회적생산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생산조직과 경제관리도 공산주의적요구대로 진행하여 사회생산물을 말 그대로 폭포처럼 쏟아지게 할수 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바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문명하고 기술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모두가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로동에 참가하게 하며 나라의 모든 지역을 다같이 발전시켜 생산력발전을 다그치게 함으로써 수요에 의한 분배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여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또한 로동에서의 차이를 없앨수 있는 근본조건들을 마련함으로써 공산주의건설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게 한다.

Digitized by Google

사람들의 물질생활은 로동에 의하여 보장되며 로동생활은 물질생활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아무리 물질적부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로동이 고되고 힘든것으로 되여있다면 결코 물질생활면에서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또한 로동에서 본질적차이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이 보장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까지를 포함하여 로동에서의 본질적차이가 종국적으로 없어질 때라야만 사람들은 자연의 맹목성과 낡은 분업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로동은 생활상 제일차적인 요구로 될수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그러자면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 등 로동에서의 온갖 차이는 기술발전의 미숙성에 기인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에서의 차이와 관련된다. 사람들이 자동기계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져야만 육체적부담이 많은 중로동을 경로동과 같은 정도로 되게 할수 있으며 농민들의 지식수준, 기술수준을 더욱 높여야만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수 있고 농업생산에서 기계와 화학의 힘을 옳게 리용할수 있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대학졸업정도의 높이에까지 끌어올려야만 육체적활동과 정신적활동이 유기적으로 조화된 그러한 로동을 할수 있으며 로동의 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다.

이렇듯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다음으로 인테리계층을 없애고 사회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이것은 온갖 계급과 계층을 없애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된다. 사람들을 계급과 계층으로 분리시키던 온갖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며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는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목적이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옳바른 길이 있다. 이것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여 사회계층으로서의 인테리를 없애는것이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하는데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앞으로는 인테리계층이라는것이 없어질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테리화되면 인테리계층이라는것이 따로 없을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56페지)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인테리계층을 없애는 문제를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테리의 본성과 사회관계의 특성에 맞게 옳게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는 착취사회의 인테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형의 로동계급적인테리이며 로동자, 농민과 함께 사회주의적근로자이다.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복무하는 인테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자기의 인테리대렬을 튼튼히 꾸려야만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는 로동자, 농민과

Digitized by Google

한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사회발전의 담당자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는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당의 령도밑에 다같이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 그들의 공동의 지향과 혁명적열의는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기본요인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인테리의 본성과 사회주의사회관계의 특성으로부터 인테리계층을 없애는 문제를 인테리를 배척하거나 청산하는것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아무런 편향도 없이 인테리계층을 없애는 문제를 해결하는 참다운 길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대학졸업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이다.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것과 함께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테리들속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배우게 하며 동시에 로동자들속에서 인테리들이 가지고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하여 로동계급의 문화기술수준을 인테리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인테리의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면서 인테리계층을 없애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계층이 남아있게 되는 실제적근원을 없애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가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남아있게 되는 현실적조건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이다.

인테리는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주로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래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이 분리되면서 발생하였고 정신로동의 분야가 커지면서 더욱 확대되였다. 그러므로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분리에 의하여 산생된 사회계층으로서의 인테리는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가 없어지는것과 동시에 없어지게 된다.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야만 완전히 없앨수 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육체적활동과 정신적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공산주의적로동의 담당자로 되게 한다. 그리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함으로써 생산과정이 사람들의 정신적능력과 육체적능력의 동시적인 지출과정으로 되게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사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누리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며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필승불패의 전투적무기이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빛나게 수행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보다 심화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생활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쳐나가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

Digitized by Google

놓으신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며 성인교육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모두다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성인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가까운 앞날에 모든 근로자들이 고중졸업정도의 지식수준과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2페지)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문화혁명의 종국적과업인것만큼 그것은 단꺼번에 실현될수 없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고중졸업정도에 이르게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고 성인교육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여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이 고중졸업정도의 문화기술지식을 가지도록 하고 성인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지난날 배우지 못했던 성인들이 고중졸업정도의 문화기술지식을 가지도록 할 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고등교육체계에 망라하여 공부하게 할수 있고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다같이 대학졸업정도의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릴수 있다.

우리는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고 사범교육을 강화하여 교원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학교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새세대들에게 완성된 중등지식, 고중졸업정도의 높은 문화기술지식을 훌륭히 소유할수 있게 하는 가장 선진적이며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으로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고등기술학교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기술학교를 늘여 이미 중학교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성인들을 모두 이에 망라시켜 그들이 일상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며 성인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더욱 완성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빠른 시일안에 고중졸업정도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정규대학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테제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합니다.》(《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21페지)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말 그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많이 내오고 그것을 잘 관리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생산과 건설, 자기의 본신사업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면서도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게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공장대학을 수많이 내오고 운영해본 좋은 경험을 가지고있으므로 앞으로 필요한 공업지대에 공장대학을 더 내오고 훌륭히 관리운영할수 있는 밑천이 튼튼히 마련되여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경험과 성과에 토대하여 공장대학을 확대발전시켜나감으로써 로동계급을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적극 다그쳐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의 하나는 농장대학을 내오고 운영하는것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농민들이 로동자들과 같이 8시간로동을 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농촌청년들을 대학에 받아 공부시키는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전민고등교육을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정과 그 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농촌청년들의 고등교육을 위하여 당면하게는 기계화가 잘된 협동농장과 인테리들이 많은 공장가까이에 있는 협동농장을 몇곳 선택하여 시험적으로 농장대학을 내오고 겨울철에 운영하면서 경험을 쌓은 다음 그것을 점차 일반화하도록 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방침에 따라 농장대학을 시험적으로 내오고 운영해보는 단계를 거쳐 농촌에서도 점차 전민고등교육을 실현하는데로 나가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온 나라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높은 문화기술수준은 그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에 망라된다고 하여 저절로 이룩되는것은 아니다. 과학지식은 사람자체가 가지게 되는 창조력인것만큼 주체인 사람이 그것을 체득하기 위하여 정열적으로 학습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높은 문화기술수준의 소유자로 만들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일정한 형태의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순차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것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정열적으로 학습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공부하게 되여있는 우리 나라 전민교육체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한걸음도 전진할수도 발전할수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비상한 각오와 불타는 향학열을 가지고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말아야 하며 짬만 있으면 책을 읽고 짬만 있으면 공부하는 정열적인 독학가가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어데를 가나 사람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며 서로 배우고 도와주는것이 우리 인민의 생활상 습성으로, 우리 사회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행정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

공장, 기업소, 기관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면서 여기에 학습과 휴식을 옳게 배합해나가도록 온갖 조건을 적극 보장해주고 누구나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워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도일군들은 학습에서도 대중의 앞장에 서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학습에 대한 지도방조사업을 잘하고 그들속에서 발휘되는 좋은 학습경험과 모범들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은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며 우리 조국을 더욱더 문명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며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요구

정 광 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학생들을 자주적인 의식과 함께 창조적능력을 겸비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재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창조적인 능력은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의 기초로 된다. 사람들은 창조적능력을 가질 때에만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조해나갈수 있다.

창조적능력은 과학기술지식과 밀접히 관계되는것으로서 그것은 주로 체계적인 과학기술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과학기술교육은 창조적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기초로 되며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는 전제로 된다. 과학기술지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창조적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적활동에서 높은 전개력과 활동력을 발휘하게 하며 인간의 본질적특성의 하나인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킨다.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것이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공산주의적인간의 근본표징이며 필수적인 자질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때에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10~411페지)

창조적능력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온갖 예속을 허용하지 않고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인된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하며 창조적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사람들은 외부세계에 순응하지 않고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창조적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것이 아니라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창조적존재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해결에서 높은 창조성을 발휘하는 인재로 되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그런데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사람들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지거나 저절로 생겨나는것은 아니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며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고난 사상과 지식이란 있을수 없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운다.

이처럼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공산주의적혁명인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며 따라서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시키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

Digitized by Google

학생들을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은 또한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와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인민군대의 무장도 다 현대화된 조건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과 정치일군들을 많이 키워내야 사회주의경제건설도 잘할수 있고 국방력도 더욱 강화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8페지)

오늘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과업으로 하는 제2차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다.

또한 현대과학과 기술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고있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 현대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성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을 창조적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로 더 잘 준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사람들이 현대과학기술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능숙하게 적용해나갈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소유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을 전진시킬수 없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처나갈수 없다.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질적으로 준비된 인재들이고 능력있는 일군들이다.

더우기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성과들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수많이 도입되고있는 조건에서 학생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되고 창조적능력을 가진 인재들로 더 잘 키워내는것은 오늘 학교교육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이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고 실천활동에서 높은 창조성을 발휘할수 있는 인재들로 키워내야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 인민경제를 훌륭히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는것이 오늘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긴절한 요구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하고 우리의 현실자료를 깊이있게 리해시키는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힘있는 무기를 주는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가장 과학적인 로동계급의 세계관이다.

사람들은 오직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 인식과 실천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과학기술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우리의것을 깊이있게 리해시켜야 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의 주인의 지위를 고수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언제나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며

Digitized by Google

따라서 그들의 창조성도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인 실천투쟁속에서 발현된다.

과학기술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우리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을 가르치며 취급하는 모든 내용을 현실과 밀접히 결부시키는것은 과학기술교육을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우리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며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 힘있는 방도로 된다.

과학기술교육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교수하는 모든 내용을 현실과 밀접히 결부시킬 때 학생들은 우리 혁명에 쓸모있는 과학기술을 체득할수 있으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을 소유할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교육내용을 당정책화하는데서 이룩된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과목들의 체계와 내용 전반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으로 일관시키며 해당 전공분야에서 당정책을 훌륭히 구현할수 있도록 지식을 깊이있게 가르쳐주어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기관들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현실자료와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과학리론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과학기술교육내용을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감으로써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로, 우리의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할수 있는 민족간부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과학기술교육에서 원리교육을 강화하는것이다.

과학기술교육에서 원리교육을 강화하여 해당 과학과 기술의 원리를 잘 알려주고 교재내용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시키는것은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리치를 똑똑히 알아야 배운 지식을 실천활동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줄수 있다.

원리교육이란 자연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인과관계속에서 리치적으로 깨닫도록 하는것, 다시말하여 해당 과학의 원리와 법칙들을 리치를 따져가면서 깨닫도록 하는것이다. 원리교육은 사물현상을 기계적으로 외우게 하는것이 아니라 주로 론리적사고와 리해력에 기초하여 그 본질과 합법칙성을 리해시켜나가는것이다.

과학기술교육에서 원리교육을 강화하는것이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는 힘있는 방도로 되는것은 현대과학과 기술 자체의 특성과 관련된다.

현대과학과 기술은 모두 일정한 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과학의 개념과 리론들은 하나의 정연한 론리적체계로 련결되여있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의 기초에 놓여있는 원리를 정확히 리해하지 않고서는 현대과학과 기술을 옳게 습득할수 없으며 앞으로 그것을 실천에서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는 능력도 소유할수 없다.

과학기술교육에서 원리교육을 강화하여 사물현상의 본질과 근본원리를 확고히 인식시켜야 자연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학생들에게 정확히 리해시켜나갈수 있으며 하나를 알아가지고 열, 스물을 헤아려나갈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수 있다.

만일 과학기술교육이 학생들에게 현대과학과 기술을 원리적으로 리해시키는것이 아니라 현상이나 사실만을 알려주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외우게 하는 과정으로 된다면 학생들은 선진과학과 기술을 깊이있게 소유하지 못하게 될뿐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쓸모없는 사람으로밖에 될

Digitized by Google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기술교육에서 원리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인류가 달성한 선진과학과 기술의 성과들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기초과학교육에서 원리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자연과학의 기초개념과 리론들을 심도있게 리해시킴으로써 앞으로의 전문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학교들에서는 교수에서 론리적련계를 잘 지어주고 구체적인 현상과 사실을 통하여 법칙이나 원리의 내용을 완전히 리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재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현대적직관수단들을 널리 리용함으로써 취급되는 모든 내용을 정확히 리해시켜나가야 한다.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교수에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 방법의 본질과 특성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교육의 고유한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는 가장 선진적인 교수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은 그 본성으로부터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는 교수방법을 요구한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학생들자신이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교수내용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적극 조장발전시킨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27페지)

원래 교수방법에 대한 문제는 학교교육의 기본형태인 교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밝히는것으로서 교수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교수의 목적이 명확히 세워지고 그 내용이 아무리 정리되였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과학적인 교수방법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교수의 목적을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발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사회주의교육은 필수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는 교수방법을 요구한다. 그것은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는 교수방법만이 사람들에게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성과적으로 형성발전시킬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는 교수방법은 교수의 대상인 학생들이 높은 자각성과 주인된 역할을 높이 발양하며 그들자신이 스스로 사물현상의 본질을 깨닫고 파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체득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억제하고 무시하는 강압적이고 들이먹이는 방법과는 달리 학생들의 자립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창발성을 적극 조장발전시키는 새로운 교수방법이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인식의 주체인 사람들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사물현상의 본질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조적사고력을 비상히 발전시킨다. 이것은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모든 과목교수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것이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더우기 오늘 현대과학과 기술에서 달성한 성과들이 과목교육분야에 전면적으로 도입됨으로써 사회주의교육내용에서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는 조건에서 그리고 교육에서 아직도 들이먹이는 방법, 독경식방법의 잔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는데서 절실한 과업으로 나선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는 교수내용을 기계적으로 펼기 전달하거나 학생들의 준비정도와 수준에는 관계없이 천편일률식으로 수업을 진행해나가는 낡은 교수방법의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고 학생들의 준비정도와 학과목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깨우쳐주는 교수수법들을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교수를 창조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교육기관들에서는 인식의 주체이고 학습의 주인인 학생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는데 큰 관심을 돌리며 교수에서 론리성과 체계성, 순차성을 철저히 보장해나가야 한다.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당의 교육방침을 관철하여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교교육에서 강의와 실험실습을 옳게 결합하여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자기의것으로 충분히 소화하며 그것을 실천에 적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430페지)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당의 교육방침을 구현하여 실험, 실습과 련습을 강화하는것은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제적방도로 된다.

실험, 실습과 련습은 과학의 법칙과 원리들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그것을 실천에 창조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효과적인 교수형태들이다.

책에서 배운 리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응용능력과 결부되여야 혁명실천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으로 된다. 과학의 법칙이나 공식을 많이 알고있어도 그것을 구체적인 문제를 푸는데 적용할줄 모른다면 그 지식은 쓸모가 없으며 따라서 산 지식이라고 말할수 없다.

인식된 과학의 원리나 법칙을 실천에 적용할수 있도록 응용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주로 실천교육의 여러 형태들을 통하여 해결된다.

실험, 실습 등 실천교육형태들을 통해서만 과학의 객관적법칙들을 보다 정확히 인식할수 있고 리론의 정당성을 확증할수 있다. 실험을 하지 않고서는 과학의 법칙적인 현상들을 관찰할수 없고 리론의 타당성을 검증할수 없으며 현상의 본질도 정확히 인식할수 없다.

그것은 또한 학생들에게 과학의 연구방법론을 체득시키고 배운 원리를 현실에 활용할수 있는 실천적인 체험을 쌓게 한다.

이것은 실험, 실습을 강화하는것이 학생들에게 과학의 법칙과 원리를 정확히 습득시키고 배운 지식을 응용해나가는 실천능력을 키워주는데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해에 있은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자연과학교육에서는 실험과 실습을 강화하고 사회과학교육에서도 실습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학교의 실험실습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실험실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큰 힘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생산실습은 현대생산의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기계설비, 로동도구를 다루는 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하며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은 전공분야의 과학적원리와 현대적인 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숙련과 기량을 요구하는 학과목들에 대하여서는 련습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련습은 과학적인 리론과 원리에 기초하여야 하며 체계성과 순차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학교교육행정과 교육부문지도일군들은 학생들의 실험실습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십중한 주의를 돌리고 실험에

Digitized by Google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잘 보장해주어야 하며 학교들에서는 교원학생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실험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들에서는 실험에서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학교들의 특성에 맞게 실험조직을 잘하여 교육강령에 예견된 모든 자연과학과목들의 실험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또한 사회과학과목에서도 실습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려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웅변대회, 토론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특히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정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활동이며 사회주의건설에 직접 이바지하는 혁명활동이다.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켜야 그들이 어려서부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줄 아는 참다운 사회의 주인으로,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할줄 아는 능력있는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울수 있다.

우리는 학생들이 당정책선전대, 과학선전대, 위생선전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널리 써먹을줄 알도록 하며 대중속에 당정책도 해설하고 과학기술지식과 문화위생지식도 널리 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현실속에서 생동하고 폭넓은 지식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사회문화교양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대한 견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생산로동을 통하여 사상을 단련하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그 응용능력을 키워주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교육부문일군들이 해결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의 하나이며 숭고한 임무이다.

전체 교육부문일군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이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교수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갖춘 새형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더 잘 키워내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비판과 자기비판은 일군들을 교양하는 힘있는 무기

박 정 순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이 방침에는 모든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이 담겨져있다. 또한 거기에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이끌어나감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려는 당의 높은 요구가 깃들어있다.

강한 사상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개조하여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는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은 일군들과 당원들을 언제나 사상투쟁의 무기를 높이 들고나가는 원칙적비판의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그들속에서 건전한 당생활기풍을 세우며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해나가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오늘 우리의 현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비판과 자기비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함으로써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원칙적비판을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단련하여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나서는 우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적비판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똑똑히 알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함으로써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한 참다운 지휘성원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 *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은 일군들을 혁명화하여 열렬한 혁명가로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판하는것이 곧 교양하는것입니다. 비판이 없이는 발전이 있을수 없습니다. 비판은 간부를 교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제1권, 5페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은 그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은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동반한다. 오랜 기간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머리에 뿌리박힌 낡은 사상은 매우 집요하며 그것은 저절로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온갖 낡은 사상잔재와 비로동계급적인 요소들은 오직 실속있는 꾸준한 사상투쟁을 통해서 뿌리뽑을수 있다.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투쟁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한 원칙적비판을 거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은 공동

Digitized by Google

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동지들사이의 내부문제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지적립장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원칙적비판은 사람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교양방법으로 된다.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은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방법과 일본새에서 나타나는 온갖 부정적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하도록 하는 힘있는 교양수단이다.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온갖 그릇된 현상들은 중요하게 그들이 가지고있는 낡은 사상잔재와 관련되여있다.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이상 일군들속에서 온갖 그릇된 사업방법과 사업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여야 한다.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온갖 그릇된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단련하는 용광로이다. 떡쇠는 용광로속에서 강철로 되듯이 사람은 강한 사상투쟁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된다.

일군들은 사상단련의 강력한 무기인 비판과 자기비판에 적극 참가함으로써만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할수 있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사업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결함을 범할수 있다.

문제는 자기의 결함을 정확히 알고 제때에 고치는가 못고치는가 하는데 있다.

일군들은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비판도 하고 호상비판도 하며 직접 비판받기도 하고 남이 비판받는것을 보고 뉘우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인 사상수양을 쌓고 참다운 인민적인 품성을 지닐수 있다.

비판을 싫어하고 사상투쟁을 꺼려하는것은 다 당성이 없고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하지 못한 그릇된 표현이다. 우리 일군들이 비판을 싫어하고 사상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결함을 제때에 고치지 못할뿐아니라 머리속에 녹이 쓸어 변질되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가게 된다. 생활은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일군일수록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사상수양을 더 많이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교만해지고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군들은 약이 비록 쓰지만 그것을 먹어야 병을 고칠수 있는것처럼 비판이 일시적으로 아프지만 그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과 그 표현들을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일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다.

일군들은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함으로써만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혁명가들에게 영원한 삶을 준다. 혁명가는 비록 육체적생명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생명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빛내여나간다. 여기에 혁명가의 참된 삶의 보람이 있는것이다.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이 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일군들은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우리 혁명의 참된 지휘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이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는것으로 되며 경애하는

Digitized by Google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이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더럽히지 않고 빛나게 이어나가자면 정치적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강한 사상투쟁,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하여야 한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일군들의 정치생활, 사상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정치사상생활에서 조그마한 결함과 부족점도 발로시키지 않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일군들은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비판을 성실히 하며 또 동지들의 비판을 허심히 접수하고 대담하게 고쳐나감으로써만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깨끗이 보존하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 일군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늙더라도 사상정신적으로는 로쇠를 모르고 언제나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서 끝까지 혁명을 해나갈수 있다.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은 일군들의 정치생활과 사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사상정신적무기이며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여기에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혁명적인 조직생활을 통한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은 또한 일군들의 사업을 끊임없이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판이 혁명사업을 추동하는 힘있는 무기라는것은 다 아는바입니다. 비판이 없이는 혁명운동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59페지)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난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의 새로운 전진은 오직 낡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혁명적비판은 전진을 방해하는 낡은 사회의 유물과 전진도상에서 나타날수 있는 사소한 부족점이라도 제때에 극복하고 계속전진, 계속혁신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얼마나 빨리 전진시키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이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여 얼마나 강하게 투쟁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은 원칙적인 비판사업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새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진취적인 립장에서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자기 결함을 똑바로 모르고 그것을 제때에 고치지 않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결함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맡은 사업을 옳게 할수 없을뿐아니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커다란 후과를 미치게 할수 있다. 만일 일군들이 강한 사상투쟁속에서 단련되지 못하면 원칙적인 투쟁력이 무디게 되며 늘크데해가지고 과감하게 전진하지 못하며 패기와 정열에 넘쳐 사업을 조직하고 지휘해나갈수 없다. 일군들은 매일아침 세수를 하듯이 언제나 자기의 부족점을 똑바로 찾고 제때에 고쳐나가야 모든것을 혁신적안목으로 참신하게 보고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전개력을 가지고 신심과 정열에 넘쳐 맡은 일을 본때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은 일군들속에서 혁명화를 촉진하며 그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가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원칙적비판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으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간고

Digitized by Google

하다. 혁명투쟁이 간고하고 복잡할수록 사람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시키는 사업을 조금도 늦출수 없다.

복잡하고 간고한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잡고있는 일군들속에서 사상단련의 강력한 무기인 비판과 자기비판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자신의 사상수양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비판에 대한 중요성과 의의를 똑똑히 알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단련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비판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당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판에 대한 그릇된 태도들과 강하게 투쟁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에 대한 원칙적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9페지)

비판에 대한 원칙적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것은 혁명적비판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이 비판사업에서 당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혁명적이며 동지적인 비판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비판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혁명동지를 도와주고 단결을 강화하는 립장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혁명동지들사이에 진행되는 비판은 동지들의 결함을 고쳐주고 동지들간에 단결을 강화하여 일을 더 잘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비판은 응당 동지들을 교양하여 그릇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바로잡아주고 동지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혁명에 도움을 줄수 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무런 교양가치도 없다.

비판은 동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원칙적인것으로 되여야 하며 동지의 결함을 자신의 결함으로 여기고 가슴아파하는 뜨거운 심정에서 우러나오고 결함을 지적하는데만 그칠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칠 방도까지 차근차근 대주는 실속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비판만이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동지들을 옳게 교양할수 있으며 사업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는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결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거나 비판한 사람에 대하여 복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은 비판사업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당적원칙의 하나이다.

나타난 결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며 특히 누가 비판하였다고 하여 그를 복수하는것은 혁명적비판사업에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 매우 유해로운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동지들사이의 혁명적단결을 약화시키고 우리 사업의 전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하나로 된다. 비판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거나 복수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동지적이며 혁명적인 비판사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당원은 자기가 직접 저지른 잘못은 말할것도 없고 집단안에서 나타난 결함에 대해서까지도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만 자기의 부족점을 옳게 고쳐나가게 되고 자신을 더욱더 단련할수 있다. 자기 결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는것은 자기자신의 발전에서뿐아니라 집단과 동지들사이의 단결에 커다란 지장을 준다.

비판이 두려워 나타난 결함을 우에 밀고 아래에 밀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품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나타난 결함에 대

Digitized by Google

해서는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 서야 한다. 그래야 대중들로부터 높은 존경과 신임을 받을수 있다. 만일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구실저구실대면서 그것을 회피한다면 그러한 일군에게서는 사실상 지휘성원으로서의 품성을 찾아볼수 없다.

남의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의견을 허심하게 받아들이는것은 일군들이 자기 사업의 결함을 고쳐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동지들의 충고와 의견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그가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강철로 단련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규정된다. 남의 의견을 받기 싫어하거나 비판된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분발할 대신에 의견을 받았다고 하여 우울해지고 맥을 놓는 일군은 결코 자신을 옳게 수양하고 단련할수 없다. 일군들은 동지들이 주는 충고와 의견이 비록 쓰고 아프다 하더라도 그것을 혁명전우의 믿음의 표시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려는 뜨거운 동지적사랑의 표시로 받아들일줄 알아야 한다. 특히 밑으로부터의 의견을 허심하게 접수하며 아래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

비판사업에서 지켜야 할 당적원칙은 또한 비판과정에 함부로 사상정치적감투를 씌우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다.

비판에서 함부로 정치적감투를 씌우게 되면 일군들속에서 비판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나올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군들은 결함을 동지들앞에 솔직히 내놓고 비판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비판도 달가와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사업과 생활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도 발휘할수 없게 된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하여야 커다란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일군들은 비판에서 남에게 정치적감투를 함부로 씌우는 일이 없어야 하며 나타난 결함을 똑똑히 알아보고 정확히 비판하는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비판사업은 어디까지나 결함을 주관에서 찾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고쳐나갈것을 요구한다.

자기 결함을 심각히 비판하여야 그것을 고칠 방도도 옳게 찾아낼수 있다. 남이 지적해주는것보다도 자신이 노력하여 결함을 주관에서 찾고 그것을 대중앞에서 솔직히 비판하여야만 범한 과오를 빨리 고칠수 있다.

일군들은 자기전이나 밥먹을 때 혹은 길을 거닐면서 내가 오늘 할 일을 다하였는가, 무엇을 할수 있는데도 못하였고 그것을 왜 못하였는가, 내가 오늘 사업에서 잘못한것은 무엇인가, 말에서 실수한것이 없는가, 행동에서 지나친것이 없는가, 이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늘 돌이켜보고 총화하는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비판에 성실히 참가할뿐아니라 남의 결함을 고쳐주는데서도 모범이 되여야 한다.

사상투쟁에 대한 성실한 태도는 중요하게 남의 결함을 원칙적으로 고쳐주는 사업에서 나타난다. 동지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결함을 보고도 제때에 타일러주지 않는것은 동지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다.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덮어두지 말고 제때에 일깨워주어 그것을 바로잡아주는것이 혁명동지를 참말로 아끼고 사랑하며 동지적립장에 선 진실한 태도이다.

일군들은 사상투쟁의 무기를 높이 들고 동지들의 결함을 제때에 충고해주고 고쳐주어야 한다.

일군들이 로숙한체하면서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요구성과 결함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중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비판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비판을 깜빠니야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는것이다.

비판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은

Digitized by Google

일군들의 당적수양을 끊임없이 높이고 우리 사업을 계속 전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제때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비판만이 동지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참된 비판으로 될수 있다. 만일 비판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일하는 과정에 결함이 반복되게 되고 그것이 더욱 자라나 혁명과업수행에 커다란 지장을 줄수 있다.

일군들은 언제나 자기 사업을 돌이켜보고 결함을 스스로 찾아내여 고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원칙적비판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당위원회와 초급당단체들에서는 항상 당내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여 결함을 제때에 고치며 의견차이를 극복하며 당원들의 사상적단결을 보장하는데 큰 힘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478폐지)

비판사업은 중요하게 당조직들을 통하여 진행되는것만큼 모든 당조직들이 일군들속에서 원칙적비판을 강화하여야 그들의 사상투쟁을 더욱 심화시켜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우선 일군들을 혁명적비판에 대한 옳은 태도와 관점을 가지도록 교양함으로써 그들속에서의 비판사업이 언제나 당적 원칙과 요구에 맞게 진행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일군들로 하여금 비판사업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게 하며 비판을 통하여 당안에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당생활총화를 강한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여 일군들이 언제나 자기 결함을 제때에 스스로 찾고 철저히 고쳐나가게 하여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일군들속에서 비판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에는 두가지 규률이 허용될수 없다. 당안에서는 높은 당원과 낮은 당원이 있을수 없으며 모든 당원은 당앞에서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있다.

당조직들은 직위와 권위를 가지고 비판을 억누르거나 묵살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며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적극 조장발전시킴으로써 누구나 할것없이 자유롭게 비판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일군들이 언제나 당조직의 지도와 대중의 통제밑에 살고 일해나가며 사소한 결함도 발로시키지 않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의 무기를 높이 들고 사상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의 혁명화를 더욱 다그치며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문학예술과 정서교양

최 언 경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대중에 대한 사상교양과 함께 문학예술을 통한 문화정서적교양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것은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우리 당의 현명한 방침과 시종일관한 배려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문화정서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당은 군중을 교양개조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고있습니다. 군중을 교양개조하는데는 학교교육만으로도 안되며 선전선동만으로도 안됩니다.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들인 소설, 시, 연극, 영화, 음악 등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을 다 동원하여야만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81페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전례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대중에 대한 사상교양과 함께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문화정서적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의 빛나는 생활력으로 하여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은 비상히 높아졌으며 따라서 그들의 사상미학적리상과 정신문화적수요도 대단히 높아졌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람찬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대중에 대한 정서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만 근로대중의 정신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뿐아니라 문화혁명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함께 그들의 사상기술문화수준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진 오늘의 현실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혁명은 또한 보다 능력있고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을 요구하고있다.

사람들과의 사업은 결코 사상교양 하나만으로는 될수 없으며 그것은 사람들과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산 정치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결부되고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격동시키는 정치사업만이 사람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을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원래 혁명가들처럼 다정다감하고 생활이 풍부하며 인정미가 있는 사람들은 없다.

이러한 혁명가적품성과 인간적수양을 갖춘 일군만이 대중의 감정과 생활을 리해할수 있으며 군중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수 있다.

어머니당의 일군다운 이러한 고상한 품성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사업능력은 오직 꾸준한 사상수양과 함께 문화정서적수양을 통해서만 갖추어질수

Digitized by Google

있다.

소설도 읽지 않고 영화도 보지 않는 메마른 사람이 풍부하고 다양한 인간의 감정과 생활을 깊이 리해할수 없으며 더구나 사람들의 각이한 개성과 특성에 맞게 사업할수는 없는것이다.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작품에는 정치생활, 경제생활, 군사생활, 문화생활뿐아니라 혁명동지들과의 생활, 애정생활,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의의있는 모든 인간생활이 참으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반영되여있으며 각이한 혁명적정황들에서 각이한 사람들과의 군중공작방법이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져있다.

이러한 문학예술작품들은 우리 일군들에게 혁명동지들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며 원쑤들을 어떻게 증오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치주며 힘난하고도 시련많은 혁명의 길에서 앞을 막는 천만가지 난관과 우여곡절들을 강의한 인간의 의지와 혁명적신념으로 이겨내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준다.

문학예술을 통한 정서교양은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필수적과업으로 된다.

우리 당이 밝혀준바와 같이 우리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이며 지덕체를 갖춘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 살게 될 사람들은 마땅히 그에 상응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어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현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뿐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공산주의사회에 살게 될 사람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건장한 체력과 함께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 다시말하여 높은 자주의식과 함께 자연과 사회를 능동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높은 사상의식수준뿐아니라 높은 문화정서적 소양도 가진 사람들이라는것은 말하여준다.

문명한 사람이란 결코 남보다 잘먹고 잘입고 잘사는 사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품성과 함께 생활을 마음껏 즐길줄도 알며 예술도 훌륭히 감수할줄 아는 문화정서적소양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은 하루이틀사이에 생겨날수 없으며 오직 적극적인 정서교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정서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높은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이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자신의 생활적요구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당이 밝혀준바와 같이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살게 될수록 생활에 대한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키는것만으로는 만족할수 없으며 보다 더 높은 정신문화생활을 요구하게 된다.

감정과 정서가 메마르고 문학과 예술이 없이는 참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높아지는 사람들의 사상미학적 리상과 요구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과 문화적재부들을 그들이 마음껏 향유할뿐아니라 그러한 문학예술과 재부들을 훌륭히 감수하고 창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완전하게 실현될수 있다.

사람들에 대한 정서교양에서 문학예

Digitized by Google

술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문학과 예술을 통하여 생활을 더욱 깊이 리해할수 있으며 더 훌륭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리론만으로는 살수 없습니다. 시도 모르고 소설도 보지 않고서야 생활이 너무 메말라서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우와 같은 문헌, 356~857페지)

우리 당은 사회적의식의 특수한 한 형태인 문학예술의 본성을 독창적으로 밝힌데 기초하여 대중에 대한 정서교양에서 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풍부한 혁명적정서와 높은 문화적소양을 가지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왔다.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준바와 같이 문학은 인간학이다. 산 인간을 그리고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다.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문학예술이 놀게 되는 사상교양의 무기, 인식의 수단으로서의 거대한 역할과 함께 그에 고유한 미학정서적교양의 기능은 다른 모든 사회적의식형태들과 구별되는 문학예술의 미학적특성과 관련된다.

문학예술은 추상적인 론리가 아니라 생활 그대로의 형식,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인간과 그 생활을 직접 눈으로 보듯이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재현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현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숨쉬고 말하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구체적인 생동한 개성으로서의 산 인간의 모습과 다양하고 풍부한 인간생활이 그대로 펼쳐지는것이다.

문학예술은 바로 생동하게 그려진 이 다양하고도 풍부한 생활속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며 그러한 생활과정에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공감과 반감 등 다양하고 섬세한 인간의 감정과 정서, 풍부한 내면세계를 심오하게 밝혀내는것이다.

이러한 형상적특성으로 하여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사상과 의지뿐아니라 감정과 정서에 강렬하게 작용하여 사람들을 일찌기 체험해보지 못한 깨끗하고 고상한 감정세계에로 이끌어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한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세계에로 지향하도록 힘있게 고무하는것이다.

이리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은 사람들의 정신생활과 혁명적세계관형성에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친히 시를 쓰시고 노래를 지으시여 항일유격대원들에게 불러주신 혁명가요 《반일전가》를 비롯한 혁명가요에 깃든 감명깊은 이야기들은, 혁명적문학예술이 사람들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얼마나 강한 사상정서적작용을 하는가를 뚜렷이 말하여준다.

하루에도 몇차례나 적들과 싸우면서 설한풍과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간고한 행군도중에 혹한을 만나시여 앓아누우시게 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속에서도 시를 쓰시고 노래를 지으시여 대원들을 고무하시였다.

> 우렁차게 들려오는 반일전소리
>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중의 고함
> 반일하는 수천만의 웨침소리는
> 놈들의 가슴을 서늘케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지으신 《반일전가》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로 하여 대원들의 가슴을 격동시켰으며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조선혁명의 심장이시며 뇌수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목숨으로 보위하리라는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하였고 원쑤격

Digitized by Google

멸의 결전에로 힘차게 고무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 대원들에게 들려주신 《사향가》는 그윽하고 처량한 정서속에서 조국과 고향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느끼게 하였으며 사랑하는 조국과 부모처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광복성전에로 항일유격대원들을 고무하였다.

참으로 진실한 문학예술작품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숨을 죽이고 손에 땀을 쥐게 긴장시키기도 하고 통쾌하게 웃게도 하며 울게도 하면서 그들을 끝없이 격동시킨다.

작품은 끝나도 감동적인 형상이 남긴 강렬한 인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특히는 아름답고 영웅적인 주인공의 모범적형상은 사람들의 의식속에 일생을 두고 영원히 잊을수 없는 심각한 흔적을 남기게 되는것이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한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겨운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혁명의 한길에 끝없이 충실하였던 주인공들의 모습을 되새겨보면서 영웅적위훈에로 나아가게 되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혁명적주인공들은 얼마나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직 혁명투쟁의 길만이 참된 삶의 길이라는 위대한 생활의 진리를 힘있게 깨우쳐주는가!

우리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으면서 눈물없이는 읽을수 없었던 그 감동적인 화폭들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자신의 몸조차 운신을 못하고 의식마저 흐려지는 생의 마지막시각에 그토록 흠모해마지않던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뵙는 순간 그이께서 입고계시는 군복 솜바지에 정하게 기워진 한자리에서 차마 가슴아픈 눈길을 떼지 못하는 재봉대원 최선금, 수백수천리 가시덤불길을 헤치고 사선을 넘어 어버이장군님의 품에 안기게 된 그 력사의 순간 지금 자기가 《민생단》의 혐의자로 이곳에 와 있다는것마저 다 잊어버리고 그전날 유격대에서 사렵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뵙던 그때처럼 배낭뒤에 매달아놓은 밥통이 제대로 있는가를 습관처럼 만져보는 작식대원 윤칠녀의 눈물겨운 형상은 우리 독자들의 심장속에 티없이 맑고 깨끗하며 변할줄도 드놀줄도 모르는 충성심의 고귀한 모범으로 영원히 간직된것이다.

사람들은 이렇듯 심각한 미학적체험과정에 일찌기 느끼지 못했던 새롭고 숭고한 감정세계에 잠기게 됨으로써 자신을 사상적으로 수양하는것은 물론 생활의 아름다움을 감수하게 되며 그리하여 미적감정과 정서, 예술적취미와 재능, 능력을 키우고 향상시키며 완성하게 되는것이다.

문학예술은 바로 이러한 미학정서적교양의 기능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세계를 끝없이 풍부화시키고 인간의 개성과 공산주의적인격을 완성하며 혁명적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것이다.

참으로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하는데서 문학예술을 통한 정서교양이 노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우리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문학예술을 통한 정서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겨야 할것이다.

대중에 대한 정서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사상교양과 함께 문화정서적교양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도록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잘 교양하는것이다.

그리하여 일군들이 정서교양사업을 차요시하거나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대중교양의 중요한 한 고리로 틀어쥐고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조직지도

Digitized by Google

해나갈 때 정서교양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될것이며 그 과정에 일군들자신의 문화수준도 더욱 높아지게 될것이다.

또한 문학예술을 통한 정서교양사업은 일군들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며 대중을 위한 사업인만큼 대중자신이 이 사업의 주안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커다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하게 하여야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낼수 있다.

이러한 교양사업과 함께 대중이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통하여 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수 있도록 여러가지 예술형태들에 대한 간단한 기초지식도 배워주고 소설을 읽는 방법, 영화와 음악, 무용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미술작품을 보는 방법 그리고 감상토론을 하고 감상문을 쓰는 방법 등을 가르쳐주는 사업도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한편의 소설을 보더라도 소설의 종자는 무엇이며 그 종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작품의 주제, 다시말하여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려고 한 기본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작품의 사상 즉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작가는 어떠한 사상적해답을 주고있는가, 주인공의 성격은 어떻게 그려졌으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따라배워야 하는가, 소설에서 가장 감명깊게 그려진 장면은 어느 장면인가 등을 분석하면서 보게 되면 훨씬 많은것을 배우게 될것이다.

정서교양을 강화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들을 많이 읽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적인 소설작품들은 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 미학정서적교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특히 우리 당이 제시한 책읽기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문화정서적소양이 높은 문명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 학교들에서 정서교양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 한편 그들이 많은 책을 잘 읽도록 과외독서사업을 옳게 조직지도하는것이다.

이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것없이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책을 읽고 문화생활을 하는 기풍을 세우며 그것을 습성화, 생활화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소설책을 돌려보는 조직도 하고 신문에 련재된 소설을 다같이 읽기도 하고 방송도 듣도록 여러가지 조직사업을 잘해야 할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다 읽는것은 물론 세계의 유명한 고전적문예작품들도 많이 읽어 식견을 넓히고 문화정서적소양을 높여야 한다.

대중에 대한 문화정서교양사업은 또한 항일유격대식문예활동을 본받아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흥미있고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은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우리의 시가 천만 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원쑤격멸의 무기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전투적이고 기동적인 문예활동을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은 항일유격대원들을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교양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항일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원쑤 일제를 전률케 하였다.

이러한 산 모범을 본받아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 견학사업을 비롯하여 혁명박물관, 전승기념관 그리고 미술박물관과 민속박물관에 대

Digitized by Google

한 견학 등 사람들의 견문을 넓힐수 있는 여러가지 견학사업도 조직하며 문학예술의 밤, 문학예술에 대한 강연회, 작품감상모임, 시랑송모임, 지은글발표모임 등 여러가지 다채로운 교양사업을 실정에 맞게 잘 조직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진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스고 실속있게 조직하여 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게 창발적으로 특색있게 진행하는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사상, 지식과 함께 세련된 감정과 정서를 가질수 있으며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자가 지녀야 할 품격을 원만히 갖출수 있게 된다.

문학예술을 통한 정서교양사업은 반드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군중자신의 실효투쟁과정으로 되여야 한다.

대중에 대한 정서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또한 예술소조활동을 널리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술소조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여왔다.

모든 당조직들은 예술소조활동과 군중문화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이 사업을 활발히 조직전개함으로써 일터마다가 혁명적랑만으로 흥성거리게 하여야 할것이다.

다양한 정서교양사업을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풍부하고 고상한 감정과 정서를 가질 때만이 그들이 인간과 생활에 대하여 뜨겁게 느끼고 열렬히 사랑할수 있으며 자기앞에 참된 삶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숭고한 리상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문화정서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종자는 작품의 핵이다

현 종 호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깊고도 풍부한 사상적내용과 고상하고 세련된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커다란 사상미학적감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이 그 어느때보다도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사상적무기,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게 된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 종자에 관한 사상을 구현하여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결정적으로 높이고있는것과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종자에 관한 리론은 문학예술작품의 내부구조에서 핵을 발견하고 그 핵으로서의 종자의 본질과 기능, 종자를 옳게 골라잡고 예술적으로 잘 가꾸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과학적으로 밝힌 독창적인 리론이다.

작품의 종자에 관한 리론, 이것은 실로 주체시대의 참다운 인간학, 공산주의새 인간학 창조의 위력한 무기이며 그 창시는 인류문학예술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 *

작품형상의 기초를 이루며 창작과정을 일관하게 방향짓고 이끌어나가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문예리론과 창작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지난 시기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오래동안 많은 론의를 벌려왔으나 똑똑한 해명을 보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비로소 정확하게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가가 훌륭한 작품을 쓰려면 무엇보다먼저 작품의 핵으로 되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히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문예작품을 하나의 산 유기체로 본다면 종자는 거기에 차넘치는 생명의 핵이며 그것은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지으며 그 생명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과학을 연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상들가운데서 본질적특성을 띠는 핵을 똑바로 찾아내는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종자의 발견이다. 과학론문을 쓰는 경우에도 필자가 말하려는 사상적알맹이, 핵이 뚜렷이 안겨올 때에야 비로소 체계를 세우고 론리를 전개해나갈수 있다.

종자에 관한 리론은 문예작품의 내부구조의 특성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된 독창적인 리론이다.

문예작품은 작가가 해명하려고 하는 생활의 진리를 어떤 개념이나 론리에 의하여 해설하거나 증명하는것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인물관계와 갈등선, 사건선을 통하여 하나의 흥미있고 뜻이 깊은 극으로 엮어 현실생활과 꼭같은 형식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문예작품은 다른 사회적의식형태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공고한 유기적인 구성체를 이루고있으며 거기서는 하나의 작은 세부를 소홀히 해도 작품전체를 파탄에로 이끌게 된다. 이로부터 작품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관통하여 나가는 기본요인을 똑똑히 아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작품은 작가가 사람들의 생활에서 탐

Digitized by Google

구한 어떤 문제를 내세우고 그에 대한 작가자신의 일정한 사상미학적견해를 표현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서 주제나 사상에 대하여 중요하게 말하게 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이로부터 지난 시기 문예리론은 작품의 사상미학적심오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요인을 주로 소재, 주제, 사상 등에서 찾으려 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가가 일정한 소재나 성격형상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주제를 제기하고 사상을 표현하는것은 소재나 주제, 사상 그자체에 기초한것이 아니라 그런 소재를 고르고 그런 주제를 제기하게 하였으며 그런 사상을 표현하게 한 보다 본질적특성을 띠는 핵으로서의 종자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고 밝히였다.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모르고서는 거기에서 움트고 줄기가 뻗어 피여날 꽃과 열매가 과연 어떤것일지 말할수 없는것처럼 문예작품의 유기체에서도 거기에 심어진 종자를 잘 모르고서는 그 작품의 소재나 주제, 사상에 대하여 똑바로 말할수 없다.

이처럼 종자에 관한 리론은 문예작품이 하나의 종자라는 핵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공고하고 전일적인 유기체와 같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진실로 사실주의적인 문예작품의 철학적깊이가 무엇에 의하여 담보되며 사상미학적감흥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옳바르게 해명할수 있게 한 독창적인 리론이다.

종자에 관한 리론은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근로인민대중의 요구를 구현한 공산주의 새 인간학을 창조하는 과정에 탐구된 주체의 문예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의 시대는 세계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하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71페지)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이다.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시대이며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이다. 그러므로 주체시대의 문학예술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하는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은 지난 시기 오래동안 창작 리론과 실천에서 커다란 기능을 논 소재나 주제, 사상, 성격, 갈등과 같은 요소들만을 가지고서는 성과적으로 창조할수 없는 새로운 문학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공산주의 새 인간학은 그 모든 요소들의 바탕을 이루며 그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결합시키는 본질적특성을 띠는 기본요인, 다시말하여 종자라는 새로운 문예학적범주를 요구하였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명작들에는 사회력사적으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이 사상적알맹이로 심어져있다는것을 해명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이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 당에 의하여 이 명작의 종자는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명작이 내놓은 인간문제의 철학적깊이를 그대로 훌륭히 재현할수 있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심어진 종자의 해명, 이것은 실로 문학예술을 우리 시대, 주체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 되게 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위대한 결실이다.

이렇듯 종자에 관한 리론은 문학예술작품의 내부구조에 대한 과학적고찰과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을 창조하는 과정에 새롭게

Digitized by Google

창시된 주체의 문예리론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라고 밝히고있다. 이것은 작품에서의 종자의 본질에 대한 고전적정식화이다.

이 정식화가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종자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로서의 주제의 바탕도 가지고있고 인물, 사건, 일화, 갈등과 같은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소재적바탕도 가지고있으며 사상도 표현할수 있게 하는 작품의 기본요인이다.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고 그에 대한 파악이 생기면 작가는 벌써 자기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로서의 주제도 의의있게 세울수 있으며 묘사하려는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소재도 목적지향성있게 골라낼수 있고 주장하려는 사상도 바로 표현할수 있다. 종자가 작품의 주제와 소재에 관한 문제로 되며 작가가 찾아낸 사상적알맹이로 된다고 하는것도 바로 종자야말로 생활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소재와 주제, 사상과 성격 등 그 모든 요소들의 바탕을 자체안에 지니고있는 작품생명의 핵이며 생활의 심오한 씨앗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는 해당한 작품창작과정에 작용하는 그 어떤 주제사상적, 형상적 요소들보다도 더 철학적깊이를 가지고있는 기본요인이며 작품의 사상미학적감흥을 불러일으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상적알맹이이다.

종자의 이러한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창작가들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작품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관통하여나가는 종자에 대한 똑똑한 인식을 가져야 할뿐아니라 의의있는 종자를 잡아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가 나서게 된다. 그것은 인민상계관작품인 예술영화 《로동가정》의 창조과정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영화 〈로동가정〉은 아버지가 로동계급이라고 하여 아들이 저절로 로동계급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거쳐서만 로동계급으로 자라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줍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57페지)

예술영화 《로동가정》은 우리 생활에서 의의있고 참신한 사회적문제를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 켬으로써 뜻깊은 종자를 가진 훌륭한 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창작초기에 쇠돌을 캔다고 해서 로동자가 아니며 쇠돌을 좀 다루었다고 해서 로동계급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의도만 안고있었다. 그런데로부터 작품은 처음에 의의있고 깊이있는 형상으로 창조될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종자라는것이 생활속에서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 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낸 생활의 씨앗이며 사상적알맹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작가는 자기의 작품에 일정한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의의있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묘사해간다. 그렇기때문에 작가는 현실에서 아무것이나 다 받아들이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급적립장과 사상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안고있는 생활만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작품의 종자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본질적문제를 안고있는 생활을 형상해나갈수 있게 그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짓는 생활의 씨앗이기도하다.

예술영화 《로동가정》의 창조집단은 로동계급의 사회력사적처지와 혁명위업에 비추어 보다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를 사상적알맹이로 잡아야 하겠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생활을 더욱 깊이 파고듦으로써 마침내 로동계급이 근본을 잊어서는 안되며 근본을 안다고 해도 자신을 계속 혁명화하지 않고 자만하면 변질된다는 심오한 사상적알맹이를 작품에 심어놓을수 있었다. 이리하여 그

Digitized by Google

들은 이 종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로동계급도 혁명화해야 할뿐아니라 혁명화는 누구나 다 해야 하며 또 언제나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그처럼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줄수 있게 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종자의 기능에 대하여서도 깊은 해명을 주고있다.

종자의 기능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킨다는데 있다.

작품에서 소재는 종자의 생활적기초이다. 작가가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려면 우선 의의있는 생활소재를 골라잡아야 한다. 생활소재는 작가에 의하여 분석평가되고 형상적으로 재구성될 때에만 사상주제적과제를 밝혀내는 생활바탕으로 된다. 소재가 생활바탕으로 될수 있는것은 작가가 생활속에서 탐구하여 찾아쥔 종자에 기초해서만 가능하다. 다시말하여 종자는 소재를 작품의 요구에 맞게 분석평가하고 재구성하게 한다. 소재가 종자의 생활적바탕으로 된다고 하는것도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주제도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된다. 작가가 종자를 똑똑히 골라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따라서 작가가 사상적알맹이를 잡아쥐지 못하고 생활의 이러저러한 문제만을 창작의 기초로 삼을 때에는 작품이 실패하게 된다.

작품의 사상도 종자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므로 종자를 똑바로 쥐지 않고서는 생활을 통한 의의있는 사상을 밝힐수 없다.

작가는 가치있는 종자를 깊이 파악한 기초우에서만 작품에 의의있는 주제와 사상을 제기할수 있으며 그것을 밝히는데 알맞는 형상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작품창작에서 바로 종자야말로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기초이며 핵으로서 그 모든 요소들을 생활의 진리를 해명하는데로 지향하게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종자의 기능은 또한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보장하며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 이것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66~67페지)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는 결국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에 있다.

종자의 옳은 선택과 가공은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이러한 조건을 훌륭히 충족시켜준다.

종자는 우선 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작품의 사상성은 생활의 본질을 밝혀내는 형상의 깊이에 달려있으며 그의 심오한 철학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바로 작가가 생활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 잡아쥔 작품의 종자는 그자체가 철학성을 중요한 속성으로 하고있다.

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는 인간생활에 대한 진지하고도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에 의하여 쥐여진것이며 거기에 생활의 본질적의의가 부여되고 심오한 문제성이 들어있는 사상적알맹이이다. 그렇기때문에 종자는 생활의 진리를 깊이있게 밝혀주는 문학예술작품이 나오게 할수 있는 힘있는 원천으로 된다.

생활의 본질적특성을 띠고있는 종자는 바로 작품의 철학성을 튼튼히 보장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깊은 예술적사색을 하게 하며 풍부한 여운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상적알맹이를 쥐지 못한채 작품의 사상성을 높이려고 애쓰는것은 땅에 씨앗을 심어놓지도 않고 좋은 열매를 바라는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다.

문학예술창작에서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을 높여줄뿐아니라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그 가치를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그것은 종자가 생활을 통하여 잡아쥔 사상적알

Digitized by Google

명이이므로 처음부터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킬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작가가 종자를 잡을 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것이 아니라 생동한 생활로서 파악하기때문에 종자는 작품내용의 기본으로 되는 동시에 형식의 기초로도 되며 그것들을 통일시키고 결합시키는 바탕으로도 된다.

그러므로 종자의 선택과 그의 가공과정은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이 실현되는 과정이며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가장 옳바른 기준인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보장되는 과정이다.

종자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는 요인으로 되는것은 또한 종자가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으로 되며 형상의 새로운 맛을 조건짓는 결정적담보로 된다는 사정과도 관련되여있다.

형상의 원형이라고 말할수 있는 뚜렷하고 생동한 예술적표상을 안겨주지 않는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하는 진짜종자로는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창작사업에서 종자를 골라잡는 과정을 통하여 작품에 묘사될 주인공의 성격과 인물관계, 생활범위와 이야기줄거리 등에 대하여 미리 깊이있게 무르익힐수 있으며 창작의 성과여부에 대하여 짐작할수 있는것이다.

종자의 기능은 또한 그것이 작가를 창작에로 추동하는 힘이며 예술적환상과 창작적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으로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하는 전제로, 작품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는데 있다.

작가는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에 대한 높은 자각과 함께 종자에 대한 깊은 파악이 있어야 자기의 작품을 거침없이 써나갈수 있다.

심장을 틀어잡고 끝없이 불태워주는 좋은 종자, 이것은 작가에게 커다란 힘과 재능을 발휘할수 있게 하며 지칠줄 모르는 창조적열정으로 밤낮을 모르고 창작에 열중하게 한다. 이처럼 종자는 작가의 창작과정을 일관하게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는 힘으로써 그것은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수 있는 전제로 될뿐아니라 작품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 *

주체적문예리론은 종자를 옳게 골라잡고 예술적으로 가꾸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와 방도에 대해서도 깊은 해명을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69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혁명의 성숙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우리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골라잡는것은 창작가가 문학예술창작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그것은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지닌 혁명적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이다. 창작가가 골라전 종자가 당정책을 정확히 반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시대가 제기하는 절실한 사회정치적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는것일수록 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를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으며 그러한 작품은 온

Digitized by Google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종자를 옳게 골라잡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르는 기준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종자는 당정책의 요구에 맞아야 할뿐아니라 형상으로 구현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고 밝히고있다.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 되는것만큼 인간학의 본성에 맞게 당정책을 형상적으로 구현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만약 작가가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주요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의 관계, 작품의 구성과 양상 같은것을 전혀 예상할수 없는 사상적알맹이를 쥐였다고 하면 그는 문학의 종자를 잡은것이 아니라 철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 풀어야 할 종자를 잡은것이 틀림없다. 가치있는 사상적알맹이라도 형상을 거쳐 밝혀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예술적감동을 줄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종자를 골라잡았을때 정치사상성만 중요시하고 예술적의의를 홀시해서는 안된다. 정치사상성이 높아도 예술적형상으로 풀어낼수 없는것이라면 그것은 예술의 종자로 되지 못한다.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폭넓게 탐구하고 깊이있게 체험하는것은 정치적의의와 예술적가치가 있는 종자를 골라잡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구현되는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야 근로자들의 보람찬 생활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일수 있다. 현실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창작가는 자기의 정치사상적수양을 쌓으면서 창작에 필요한 종자를 골라잡을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도 정치적식견과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생활을 대하지 않으면 가치있는 종자를 찾아낼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현실에 대한 혁명적립장과 과학적 태도와 방법,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진 창작가만이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새롭고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종자를 발견할수 있다.

창작가가 현실에 들어가 종자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나온 작품의 종자와 비슷할 때에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인상깊고 흥미있는 형상을 창조할수 없다.

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인것이다. 생활현상이 서로 같지 않고 다양한것처럼 그것을 생활자체의 형식으로 반영하는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도 반드시 새롭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골라잡은 종자를 잘 가꾸는것은 창작의 성과와 작품의 가치를 좌우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종자는 어디까지나 작품창작의 선결조건이며 기초로 될뿐이다. 창작가는 당정책에 맞는 좋은 종자를 골라쥔 다음에는 거기에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키고 심화해나가면서 예술적으로 잘 가꾸어야 훌륭한 열매를 거둘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종자를 가꾸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인물들의 성격을 옳게 설정하고 생동하게 그려내는것이라고 밝히고있다.

종자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밝혀진다. 아무리 이야기를 흥미있게 엮고 극을 치밀하게 꾸며나간다 하더라도 인물들이 옳게 설정되지 못하고 성격이 생활론리에 맞게 그려지지 못하면 결국 종자를 잘 살려내지 못하게 된다. 종자를 직접 구현해나가는 기본인물은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창작가는 특히 주인공을 잘 그리는데 보다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종자를 형상으로 실현하자면 생활도 잘 그려야 한다. 작품에서 사상은 생활을 통하여 흘러나와야 사람들에게 접수되고 깊은 감동을 주게 된다.

창작가는 현실의 다양한 생활가운데서 종자의 요구에 맞는 생활만을 골라 그려야 하며 종자와 관련이 없는 생활은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종자와

Digitized by Google

관련이 없는 생활을 끌어들이게 되면 작품에서 밝히려는 사상이 모호해지고 따라서 작가의 형상적의도를 정확히 전달할수 없게 된다.

작가, 예술인들이 종자를 바로 쥐고 그것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또한 창작적기량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형상을 창조하는 일은 사상적의도만 가지고는 안되며 거기에 창작기량이 안받침되여있어야 한다.

창작가에게 기량이 없으면 좋은 종자를 붙잡았다고 하여도 창작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창작가는 진지한 탐구와 창조적사색을 끊임없이 하며 창작적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야만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생활의 진리를 밝혀내는 예술적일반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창작에서 개성화와 독창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할수 있다. 훌륭한 작품은 창작가의 높은 기량의 고귀한 결실이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정치적신임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자각을 안고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한계단 더 높이며 다방면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붙잡은 종자에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집중시키고 심화해나가면서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가꾸어야 한다. 이렇듯 생활에서 붙잡은 의의있는 종자를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밝혀낸 작품만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수 있으며 그들을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는것이다.

*　　　*

종자에 관한 주체적문예리론의 창시는 문학예술발전에서의 일대 혁명이다. 이 리론에 의하여 혁명적문예리론은 종자리론을 기본으로 하는 작품구조론과 창작원리를 정연한 체계로 완성하게 되였으며 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더 힘있고 아름다운 작품을 창작해낼수 있는 기본열쇠를 가지게 되였다.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며 또한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더욱 실천적이며 현실적의의를 가지는 문예리론을 요구하고있다. 종자에 관한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시대의 이 절박한 요구는 명확한 해답을 받게 되였다.

종자에 관한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은 문학예술을 참다운 인간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종자리론을 지침으로 함으로써 목적지향성있게 사상미학적준비를 갖출수 있게 되였으며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훌륭한 작품을 더 빨리, 더 많이 창작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힌 종자리론에 따라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지표별 계획실행과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

리 동 협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획을 총체적으로 완수하거나 넘쳐 완수할뿐아니라 품종별로 완수하며 생산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368폐지)

국가계획을 매일, 매월, 매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에서 예외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계획과제를 품종별로, 지표별로 수행하여야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빨리 다그칠수 있다.

지표별로 계획을 실행한다는것은 인민경제계획에 예견된 모든 계획지표의 요구대로 품종, 규격, 재질별로 생산과 제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지표별로 계획을 실행하는것은 무엇보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밑에 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이 유일한 계획에 따라 진행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사회주의경제는 모든 생산수단이 전사회적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장악리용되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빨리 발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 등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과 경제부문, 단위들이 국가계획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국가의 유일한 계획에 따라 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이 진행되여야만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계획적으로 발전할수 있으며 전사회적범위에서 물자와 자금, 로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지표들을 어김없이 실행할 대신에 생산공정이 단순하고 품이 적게 들거나 리윤이 많이 나는 제품들을 골라가면서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계획화사업에서 심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경제건설에서 당의 정책적 의도를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다.

계획화의 유일성은 국가계획을 옳게 작성할뿐아니라 세워진 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철저히 보장된다.

우리의 매 계획지표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국가적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여있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경영활동이 세부적으로 빈틈없이 맞물려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에 따라 모든 계획지표가 국가지표로 단일화되고 그것이 모두 법적성격을 띠고있다. 계획지표들이 중앙집권화된 유일한 국가계획지표로 됨으로써 계획화사업에서 자연발생성과 《도의성》을 없애고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극복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되였다.

그러므로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표별로 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에 맞게 계획화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나라의 자원과 사회적로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당과 국가의 의도에 맞게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Digitized by Google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지표별로 계획을 실행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충분히 가능할뿐만아니라 필수적인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49페지)

생산수단이 사회주의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이 치차와 같이 맞물리며 따라서 경제는 균형적으로 발전한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이러한 특성은 국가가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련계와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옳바로 설정하고 그것을 변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바로잡아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련계와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사이의 균형은 국가계획에 예견된 계획과제를 지표별로 옳게 실행할 때만이 가장 원만히 보장된다.

지표별 계획실행이 사회적재생산의 모든 균형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것은 계획지표가 재생산균형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계획지표는 해당시기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의도와 국가적요구를 반영하고 있을뿐아니라 생산과 수요, 재생산과정의 모든 측면과 생산의 요소들을 빈틈없이 련결시키고 맞물리고있다.

또한 계획지표는 부문사이, 부문내부사이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계획실행에 필요한 모든 보장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받침하고있다.

그러므로 지표별로 계획을 실행하는것은 모든 부문과 단위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옳게 보장하고 경영활동이 정확히 맞물려 돌아갈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적재생산의 균형을 옳게 보장할수 있게 한다.

지표별 계획수행에 대한 요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되여 경제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경제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더 높아진다.

만일 어느 한 부문과 단위들에서 이러한 요구를 어기고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와 직접 련관된 부문과 단위들사이의 균형이 파괴되고 나아가서는 전반적경제의 불균형이 조성되며 많은 자재와 자금, 로력의 랑비를 가져오게 된다. 비록 한두가지의 제품이라도 지표별로 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리용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고 협동생산품을 제때에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며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지표별로 계획을 실행하는것은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경제운영에서 자연발생성과 혼란을 없애는 기본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계획의 세부화방침이 관철되여 경제지표가 전면적으로 세분확대된 조건에서 지표별로 계획을 실행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종합적균형뿐아니라 세부균형까지 포함한 모든 균형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지표별로 계획을 실행하는것이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경험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계획지표들을 빈틈없이 맞물리고 모든 단위들에서 현물지표별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이 생산과 건설을 빨리 장성시키나갈수 있게 하는 기본고리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요구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구체적실태를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지표별로 계획을 실행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요구에 맞게 계획을 세부화하여 인민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정확히 맞물리며 말겨진 계획과제를 질량적으로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통제수자를 전면적으로 구체화하고 모든 계획지표를 국가계획지표로 만들도록 하심으로써 계획수행에서 《도의성》을 없애고 계획과제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강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계획화방침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국가계획을 총량적으로뿐아니라 지표별로 실행할수 있었다. 지표별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적극적인 경제균형에 기초하여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구체적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지표별로 계획을 더 잘 실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계획화사업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됨으로써 소소한 제품들도 다 계획에 예견되여있으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밀접히 련결되여 치차와 같이 맞물려돌아가고있다. 또한 사회적분업이 더욱 심화발전되여 협동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생산이 빨리 발전하고있다.

특히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들이 널리 도입되고 끊임없는 기술적진보가 이룩되고있다.

경제발전의 이러한 구체적실정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기가 맡은 원료와 연료, 자재와 기계설비들을 계획지표대로 제때에 생산보장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인민경제의 이 요구를 원만히 실현하여 지표별로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나가야만이 전반적으로 생산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더욱 빨리 높여나갈수 있다.

지표별로 계획을 실행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을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옳은 계획을 짜고 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적대책을 면밀히 세운 다음에 계획이 잘 실행되고 안되는것은 전적으로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투쟁하는가 안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7페지)

생산에서 결정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투쟁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계획이 잘 실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이 전적으로 좌우된다.

생산자대중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자각적으로 동원되면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계획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생산과 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긴밀히 협조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이라도 능히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표별로 계획을 실행할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을 깊이 학습하여

Digitized by Google

그 참뜻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현물지표별로 계획과제를 수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과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고상한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협동생산을 진행하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지표별로 계획을 철저히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된 립장에서 원료와 연료, 자재를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쓰며 유휴자재들을 최대한으로 회수리용하여 있는 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지표별로 계획을 실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계획실행을 위한 조건들을 제때에 종합적으로 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획을 한번 세운 다음에는 기업소들에서 계획을 실행하도록 보장하는 사업이 중요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2페지)

계획실행을 위한 조건들을 제때에 잘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적재생산과정의 필수적요구이며 생산장성의 중요한 담보이다.

계획실행과정은 생산수단과 로동력의 끊임없는 소비과정이다.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많은 로력과 여러가지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들이 요구된다.

이런 요구들은 기술이 발전하고 공업의 규모가 커져 기술공정이 복잡해지며 사회적분업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이 생산조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모든 힘을 생산에 돌려 지표별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자면 계획실행조건들을 제때에 종합적으로 잘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원료, 자재부터 잘 보장하는것이다.

경제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원료,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생산현장에까지 날라다주어야 한다. 특히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여 국가계획에 맞물린 원료, 자재를 품종별, 규격재질별로 확보하여 계획에 따라 아래에 책임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지도와 로동행정사업을 실속있게 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지표별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계획규률을 강화하고 계획수행에 대한 평가와 총화를 옳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지표별 계획실행은 국가계획의 법적지령적 성격에 맞게 계획규률을 엄격히 지키는 조건에서만 보장될수 있다.

계획은 경제발전의 균형과 사회주의건설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계획지표에 대한 사소한 위반도 그것은 곧 국가의 법을 어기는것으로 되며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저애하는것으로 된다.

지표별로 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규률을 강화하는것은 더우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의 균형적발전과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계획규률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지표별 계획실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것에 비하여 쉽고 품이 덜드는것을 더 생산하려는 경향이나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수 있는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것과 같은 현상의 사소한 표현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실행에 대한 평가와 총화를 잘하는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주고 그들을 경제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이 실시된 새 사회건설의 첫시기부터 계획실행정형에 대한 평가와 총화를 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계획실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 옳게 평가함으로써 계획실행 평가와 총화가 명실공히 경영활동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을 경제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액계획과 함께 지표별 계획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의 경영활동정형을 정확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지표별 생산계획 수행도 량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질과 량의 두 측면에서 옳게 평가하여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들이 지표별로 생산량을 늘일뿐아니라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된다. 계획실행정형에 대한 평가와 총화는 기술실무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언제나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계획실행 조직과 지도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지표별 계획실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계획을 잘 맞물려주고 자재를 옳게 보장하는것과 같은 경제조직사업을 바로하여야 지표별로 계획을 실행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원료, 자재, 기계설비를 보장하며 기술준비를 앞세우고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보장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경제조직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당적책임성을 가지고 지표별로 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생산지휘를 실속있게 하여 언제나 계획지표의 요구대로 생산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지표별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라는것을 잘 알고 설비를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새로운 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있는 자재와 설비,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지표별로 계획을 정확히 실행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균형을 확고히 보장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것은 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

한 인 호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제2차7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아가고있다.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진군길을 더욱 다그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있는 경제적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자금을 바로 쓰도록 하는것이 바로 재정사업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302페지)

사회주의국가의 재정이란 인민들이 벌어들인 돈을 인민을 위하여 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재정공간을 리용하여 나라살림살이전반을 책임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하여 일정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리용하는 한편 자금을 옳게 쓰도록 통제한다.

사회주의재정은 무엇보다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분배적기능을 통하여 재정은 확대재생산의 균형을 보장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사회주의재정은 또한 통제적기능을 통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력과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계획을 완수하고 넘쳐완수하도록 자극한다. 재정은 이러한 기능으로 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고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국가운영과 기업관리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며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옳바른 경제균형에 의거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함으로써 새 전망계획의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계획이다. 계획기간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2배이상 높이며 매해 평균 12.1%의 높은 속도로 공업생산을 장성시킬것을 예견하고 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방대한 대규모의 기본건설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생산의 종합적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해야 한다.

이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것은 재정부문앞에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바로 잡아나갈것을 요구한다.

Digitized by Google

재정은 국민소득을 옳게 분배하여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바로잡아나감으로써 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다그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물론 재정부문이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혼자서 맞추는것은 아니지만 재정사업이 이 균형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경제건설을 빨리 다그치는 문제가 크게 좌우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의 요구대로 축적의 우위성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린다면 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며 기술공정,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 문제를 더 잘 풀어나갈수 있다.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축적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릴수록 제2차7개년계획에 예견된대로 탄광,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확장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여 확대재생산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다.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경제관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공업부문에서는 생산지도와 기업관리 사업을 잘하는 바로 여기에 생산잠성의 무진장한 예비가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26페지)

현시기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경영활동을 더욱더 째이게 하는것이다.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도 국가사회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도 경제관리의 과학성을 보장하는 사업도 결국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독립채산제를 옳바르게 실시하며 재정규률과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은행기관들의 역할을 높일수록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더 많이 찾을수 있으며 같은 원료와 자재, 자금, 로력으로 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과 함께 재정은행기관들이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면 모든 생산자들이 기업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리기 위해 애쓰며 생산을 합리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재정관리를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재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과학적인 관리조직사업과 엄격한 통제를 옳게 결합시켜나가는 문제는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방도로 나선다.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살림살이를 깐지게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당은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는것과 함께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리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을 다같이 높이면서 특히 농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벌방지대와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여야 한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과업은 재정이 축적과 소비의 균형의 법칙,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사회주의경제법칙,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구현해나갈 때 더 잘 실현될수 있다.

더우기 제2차7개년계획은 축적을 우

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도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소비를 빨리 늘일것을 예견한 적극적인 경제발전계획이다. 그런것만큼 재정은 자기 기능을 통하여 국가수중에 장악된 국민소득을 계획적으로 분배하면서 생활비자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자금을 더 잘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바로잡고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실현해나가야만 근로자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며 그들속에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잘 결합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것이 우리앞에 나선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앞당겨수행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 중요한 담보라는것을 보여준다.

현시기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무엇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바르게 실시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입니다.》(《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7페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 존재하는 상품화페관계와 물질적관심성을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맞게 리용하는 문제이며 대안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할수 있도록 독립채산제를 목적지향성있게 리용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문제이다. 독립채산제는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옳바르게 실시될 때 그것이 참답게 은을 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가치법칙을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가치법칙을 옳게 적용하여야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출수 있고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일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다.

경제일군들은 제품의 가격을 바로 정하고 원가, 리윤, 감가상각금과 같은 경제적공간을 잘 리용하여 원료, 자재, 기계설비를 효과적으로 쓰며 설비리용률을 높이도록 자극하고 통제해야 한다.

가치법칙을 옳게 적용하는것과 함께 기업소들에 현실적인 계획을 주고 그 실행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는것이 중요하다. 계획은 반드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현실적이고 동원적으로 세움으로써 그것이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근로자들을 증산절약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계획실행에 대한 평가는 현물지표별 계획실행정도에 따라 정확히 하여 금액계획은 물론 현물지표별로 계획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로동을 정치적으로 옳게 평가하여 모두가 다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경제과업을 옳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서는 재정적공간을 리용하여 고정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옳바르게 세우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원료와 자재를 팔고 사는데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함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재를 귀중히 여기고 잘 보관하며 자재리용에서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서

Digitized by Google

중요한것은 또한 재정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랑비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재정규률을 철저히 세워 온갖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가예산에 규정된대로 돈을 정확히 지출하는것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첫째가는 과업이다.

모든 재정지출은 국가예산에 있는 지출항목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하며 한푼의 자금이라도 더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언제나 나라의 돈을 한푼이라도 더 아끼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겠다는 립장에서 일하며 예산집행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우고 재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재정은행일군들의 일본새이다.

재정규률을 강화하며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재정총화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재정총화사업을 잘하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깐지게 하게 되고 맡은 경제과업을 넘쳐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단체들에서 재정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정확히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단체들에서는 매월, 매 분기마다 벌어들인 돈과 쓴 돈, 국가에 리익을 준것이 얼마라는것을 로동자, 사무원들과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재정총화사업은 독립채산제기관에서뿐아니라 예산제기관들에서도 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가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바로 꾸려나갈수 있다.

특히 일재정총화를 기본으로 하는 재정총화제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일재정총화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재정총화제도는 경영활동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부족점들을 제때에 고쳐나가게 함으로써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갈수 있게 한다. 또한 그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인다운 립장에서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하게 하며 재정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국가재산을 절약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산총화와 맞물려 진행하는 일재정총화와 해당지역에서 혁명과업을 수행한 다음 현지에서 진행하는 지역별 재정총화, 한 작업대상이 완성됨에 따라 생산총화와 함께 진행하는 작업대상별 재정총화, 월재정총화, 분기재정총화를 정규화, 규범화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개선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한푼의 돈이라도 아끼고 효과있게 리용할뿐아니라 국가자금을 랑비하거나 망탕 지출하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지방예산제를 옳바르게 실시하는것은 오늘 재정부문일군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예산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방예산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독창적인 사회주의예산제도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지방예산제는 우리 나라 재정예산체계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게 한 새로운 예산제도이며 가장 우월한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예산제가 옳바르게 실시되여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도, 시, 군들에서는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많은 돈을 들여놓았으며 지방의 살림살이가 더욱 늘어나고 재정

Digitized by Google

토대가 강화되였다. 우리는 지방예산제를 실시하는데서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고 더욱 확대하여 자체의 살림을 자기의 힘으로 더 잘 꾸려나가야 한다.

모든 지방들에서 지방예산제를 옳바르게 실시하자면 지방예산수입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도록 지방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더 많은 생활필수품을 만들어내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농업, 수산업, 인민봉사사업, 수매사업 같은것을 발전시켜 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 한편 지방예산수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재정부문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재정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정부문에 주신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재정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그들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재정을 옳바르게 관리할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준 재정사업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재정관리의 기본원칙과 재정의 임무를 비롯하여 재정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가장 정확히 해명되여있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강령적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재정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재정부문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사회주의건설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데 대하여》, 《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를 비롯하여 재정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학습하여 그를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오직 그대로 사업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더욱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집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들끓는 생산현장, 작업반에 깊이 들어가며 언제나 대안체계에 철저히 의거하여 재정을 관리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재정은행 기관들과 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통제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그들사이의 협동작전을 잘하는것이 절실한 과업으로 나선다.

특히 재정은행일군들은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 자신을 더욱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언제나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힘있게 조직전개함으로써 재정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은 반제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김 광 은

오늘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새 사회, 새 세계 건설에 일떠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현시기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이 나라들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공동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국제정세의 특징과 인민들의 투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흥세력나라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31페지)

신흥세력나라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진정한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옳바른 길을 뚜렷이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자주세력과 지배주의세력,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우리 시대의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등장한 신흥세력,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혁명위업과 국제정세발전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은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면서 외래독점체들을 내몰고 자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며 그것을 개발리용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벌리는 이 투쟁은 침략과 략탈, 지배와 예속을 일삼고있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힘과 영향력이 날로 장성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 그것을 가로막으며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신흥세력나라들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이 나라들을 분렬, 리간시켜 각개격파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을 침략하는데서 제국주의자들이 의거하고있는 주요한 수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국경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불화를 조성하며 분쟁과 충돌을 야기시켜 서로 싸우게 하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위협공갈과 회유기만, 전복파괴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이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 하고있으며 이른바 《원조》와 《후진국공동개발》의 미명하에 이 나라들의

Digitized by Google

경제명맥을 틀어쥐려고 온갖 책동을 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새 사회건설에서 부닥치고있는 일련의 어려운 문제들을 리용하여 돈, 식량, 무기를 가지고 병주고 약주는 식의 《원조》로 일부 나라들을 끌어당기며 그들을 저들의 강도적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나라들을 반대하는데로 부추기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교활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자기들의 지배권안에 넣기 위한 쟁탈전을 강화하고있으며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분쟁에 경쟁적으로 뛰여들어 공공연히 간섭하고 제가끔이 나라들을 저들의 통제밑에 넣으려고 치렬한 각축전을 벌리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적지 않은 시련을 겪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조종과 음모 책동에 의하여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전복, 파괴, 암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지역들에서 분쟁은 그칠새 없이 계속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오늘 신흥세력나라들을 분렬, 리간, 와해 시키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되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세력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투쟁이 치렬히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정세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 세계의 모든 피압박민족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배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반혁명적조류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대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배주의의 본질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다른 민족과 인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시면서 지배주의는 큰 나라에도 있고 작은 나라에도 있으며 자본주의나라에도 있고 그밖의 나라에도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므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없으며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야 놈들의 반혁명적량면전술을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온갖 형태의 지배세력, 억압세력의 분렬, 리간, 쟁탈 책동에 맞서 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공동위업의 승리를 촉진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신흥세력의 위력은 신흥세력나라들의 단합된 힘에 있으며 그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더욱 높이 발휘된다. 신흥세력나라들의 공동투쟁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오만과 전횡을 짓부시고 그들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매개 나라들을 보위하며 신흥세력나라들의 전진을 담보한다. 오직 강력한 반제공동전선을 펴고 일치한 행동으로 진출함으로써만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단결은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손에 쥐여진 가장 힘있는 무기이다. 단결하면 승리할것이며 흩어지면 각개격파당할것이다. 이것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의 력사가 보여준 귀중한 교훈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낡은 세력, 낡은 질서를 반대하는 어려운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Digitized by Google

신흥세력나라들은 광범한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공동투쟁을 강화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들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왔고 오늘은 다같이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면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자주적발전을 열렬히 지향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에 존재하는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는 이 나라들이 단결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수 없다. 신흥세력나라들의 공통점은 차이점보다 크며 신흥세력나라들을 단합시키고있는 힘은 그들을 갈라놓으려는 힘보다 훨씬 강하다. 사실상 제국주의괴뢰들을 제외하고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반제, 반지배주의 공동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굳게 단결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통일전선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새생활창조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다.

반제자주를 위한 신흥세력나라들의 투쟁은 자본의 힘이 국제적인것처럼 국제적인 투쟁이다. 개별적나라들의 투쟁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전반적신흥세력나라들의 공동투쟁의 한 부분을 이루고있으며 그것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 개별적인 신흥세력나라들의 혁명투쟁은 국제적인 반제투쟁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세계적범위에서 혁명투쟁이 강화될 때 매개 나라의 혁명투쟁은 더 잘 수행될수 있으며 동시에 개별적나라들에서의 혁명운동의 성과적전진은 전반적신흥세력나라들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매개 나라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진보적나라이니, 비진보적나라이니 하는것을 론하지 말고 서로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이편저편으로 갈라놓는것은 이 나라들의 단결을 파괴하고 분렬을 조장시키며 나아가서 반제, 반지배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게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모두다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고있는것만큼 이에 기초하여 단결할수 있다.

특히 신흥세력나라들은 한 신흥세력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견결히 반대하며 침해당한 나라에 온갖 형태의 지원을 주어야 한다.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이 이러한 립장을 튼튼히 견지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은 어느 한 신흥세력나라에 대해서도 침략의 야망을 실현할수 없을것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이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하나로 굳게 뭉쳐나갈 때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온갖 전횡을 짓부시고 강대국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불공평한 국제기구들도 능히 진보적인민들의 리익에 맞는 공정한 기구들로 전변시킬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 생긴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는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통치시기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적리익과 신흥세력나라들의 공동의 리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은 그것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나아가는 형제나라들사이의 내부문제이며 서로 싸우거나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해결할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마주앉아 그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족적리익과 신흥세력나라들의 전

Digitized by Google

반적리익에 맞게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사실상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진지하게 협의하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만약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교활한 음모책동에 걸려들어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면 의견상이는 확대되고 분쟁은 더욱 격화될것이며 리익볼것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고 손해볼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일것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단결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3페지)

모든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는 구경 매개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에 귀결된다.

자주성의 원칙은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통일과 단결을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는 튼튼한 기초로 된다.

자주성의 원칙은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을 요구하며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반대할뿐아니라 남을 예속시키는것도 반대한다.

자주성의 원칙은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민족적 권리와 존엄을 담보하며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할것을 요구한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자기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자기의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튼튼히 지킬수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고 나라들사이의 통일과 단결을 공고한 기초우에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속에서는 다른 나라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그 어떤 지배주의세력도 이 나라들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고 그 어떤 나라의 지휘봉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며 신흥세력나라들은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신흥세력나라들의 대렬에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이 끼여들지 못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은 신흥세력나라들의 대렬에 끼여들어 신흥세력나라들의 반제공동투쟁을 와해하고 파괴하려는 인민들의 흉악한 원쑤이다.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야 신흥세력나라들은 혁명적단결을 이룩하고 반제자주의 기치를 고수할수 있으며 공동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 경제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략탈을 공동으로 막고 다같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한편 서로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한다면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능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경제기술적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할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신흥세력나라들은 서로 경제기술적협조를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방대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한다면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잘 도와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반제, 반지배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에게만 리득을 가져다주는 낡은 국제경제질서도 성과적으로 마사버리고 신흥세력나라들의 리익에 맞는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울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을 강화하고 반제자주의 숭고한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교활하고 간악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철저히 폭로규탄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곳에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강한 타격을 들이대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을 대외정책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주적인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신흥세력나라 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정당한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의 한길에서 그들과 함께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그 어떤 교활한 책동도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인 신흥세력나라 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정의의 공동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나라 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근 로 자 1979년 제5호(루계 445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9년 5월 1일 발 행•1979년 5월 5일

ㄱ—95104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EAST ASIATIC LIBRARY
SEP 25 1979
UNIVERSITY OF CALIFORNIA

6 호

평 양 근로자사 1979

Digitized by Google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6 호(446)

차 례

Digitized by Google

혁명초소를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혁명초소를 가리지 말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를 이어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혁명초소를 가리지 않고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나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람찬 혁명투쟁의 한길에서 당의 참다운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된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높은 뜻이 담겨져있다. 또한 거기에는 이 땅우에 하루빨리 인류의 휘황한 미래인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원대한 구상이 반영되여있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더욱 앞당겨나아가야 한다.

*　　　　*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본분이며 그들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의무이다.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모든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자주성을 실현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이 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근로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과정은 류례없이 복잡하고 거창한 투쟁과정이며 이 위업은 모든 근로자들이 그것을 자기자신의 사업으로 접수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기의 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갈 때만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전선은 수천수만의 크고작은 혁명초소로 이루어져있으며 매개 혁명초소는 전반적인 혁명투쟁,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과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혁명을 사나운 풍랑을 헤치고 나가는 하나의 배에 비유한다면 매개 혁명초소는 배의 매개 부속과도 같다고 말할수 있다.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데서는 한개의 부속이라도 고장이 나면 그 배가 앞으로 나갈수 없는것과 같이 혁명도 역시 그 어느 한 초소가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성과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된다.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매 전선과 초소들이 굳건하여야 하며 그것을 지키고 서있는 모든 혁명가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벅차고도 숭고한 위업을 빛나게 이룩해나갈수 있다.

모든 혁명가들과 근로자들이 맡고있

Digitized by Google

는 혁명초소는 이처럼 혁명의 승리적전진, 조국의 륭성번영과 련결되여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혁명초소를 언제나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영예로 느끼고있으며 그것을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나가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켜선 모든 혁명초소는 자기의 성스러운 로동으로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보람찬 일터이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켜선 혁명초소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영예로운 초소이며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과 투쟁의 거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기간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조국을 광복하시고 우리 인민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여주시였으며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이룩해나가는 영예로운 초소에 세워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었던탓으로 모든것을 빼앗기고 모진 압제와 굴욕, 가난 속에서 피눈물나는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우리 근로자들은 일할래야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일터 하나 없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공장과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람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보람찬 일터, 거기에는 우리 인민을 나라의 참다운 주인으로, 보람찬 새생활을 창조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로고가 깃들어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바쳐싸운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서있는 혁명초소는 더없이 귀중하고 영예로운것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고있는 혁명초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위업을 완성하며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 이 땅우에 모든 근로자들이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일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그 어느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귀천을 가리거나 대소경중을 따질것이 아니라 자기 맡은 직무를 영예롭게 생각하고 충실하게 실행하며 오직 한마음한뜻으로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권, 267페지)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경중을 가리지 않는다.

참다운 혁명가들은 결코 그 어떤 지위나 보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간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서로 다른 혁명초소에서 각이한 혁명임무를 수행하고있으나 그것은 다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며 당의 방침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우리에게는 이글거리는 쇠물을 뽑는 용해장이나 거창한 대건설장, 드넓은 농장벌처럼 널리 알려진 일터와 함께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지 않고 로동의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일터도 수없이 많다. 이 모든 혁명초소들은 사회의 련관된 하나의 고리속에서 각기 자기가 서있는 위치가 있고 수행해야 할 임무가 따로 있는것이다. 그 어느 초소도 결코 다른 초소의 역할을 대신하여 줄수 없다. 오직 모든 초소들이 제구실을 옳게 하여야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

Digitized by Google

원들과 근로자들이 서있는 혁명초소에는 비록 크고작은것이 있고 널리 알려지고 또 그렇지 못한 차이는 있으나 그것은 다 영예롭고 보람찬것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터와 그들이 수행하는 혁명임무에는 결코 귀하고 천한것이 따로 없다. 설사 파도사나운 동해의 어장이나 눈보라 휘몰아치는 북변의 벌목장, 석수가 쏟아지는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일하든 그것은 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며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로동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것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넓고 화려한 일터만이 보람찬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흔히 하찮게 여겨지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성스러운것이다. 우리 근로자들이 맡고있는 크고작은 모든 초소는 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것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것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혁명초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며 고귀한 노력과 땀으로 나라의 재부를 늘여나갈 때 우리 조국은 끝없이 륭성번영하게 되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될것이다.

자기의 혁명초소를 끝없이 사랑하고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나갈 때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본분을 다하여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빛내이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다.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소중히 간직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참다운 삶의 보람은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성실한 로력투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진정한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자기의 일터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투쟁과 삶의 보금자리로, 혁명의 초소로 여기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것을 통하여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풍모이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성실히 일해나가는데서 참다운 생활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깊은 산중에서 일하는 우리의 림업전사들에게는 조국의 산림자원을 지키며 개발하는 크나큰 긍지가 있으며 먼바다에서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일하는 수산전사들에게는 인민들에게 공급할 물고기를 잡는 투쟁의 랑만과 기쁨이 있으며 상점판매원이나 리발사들에게는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영예와 보람이 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그가 어떤 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것이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자기의 혁명초소를 가리지 않고 영웅적으로 투쟁해나가는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는 진정한 애국자이며 참다운 혁명가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니고있는 이러한 높은 혁명적열의와 충성심에 받들리여 우리 나라는 끊임없는 륭성과 번영의 한길을 걸어나가고있으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진군은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풍모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그들의 확고한 의지이며 투쟁과

Digitized by Google

생활의 신조이다. 그들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생활의 철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언제나 자기가 맡고있는 혁명초소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업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있으며 그것을 굳건히 지키는데 바로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빛내이는 참다운 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가 일하는 초소와 자기가 다루는 기대와 설비를 사랑하고 자기의 일터를 굳건히 지켜나가는것은 다 조국애의 구체적발현이다.

참으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맡겨진 혁명초소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를 실현하며 조국과 인민의 끝없는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초소를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기의 혁명임무, 자기 직업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초소를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이 자기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자기 직업에 대한 영예와 긍지를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높은 영예, 자기 일터에서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성다하겠다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일해나갈때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혁명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갈수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그 누가 보든말든, 그 누가 알아주든말든 묵묵히 조국을 떠받드는 주추돌이 되고 기둥이 되여 더 많은 땀방울을 흘릴수록 우리 혁명은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의 매 초소를 지켜선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돈 몇푼을 바라고 일하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사들이다. 낡은 사회의 고용살이적근성은 우리의 일본새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는 그 어떤 보수를 바라거나 《공칭능력》을 따질것이 아니라 초소를 지켜선 혁명전사답게 자기의 일터를 믿음직하게 지켜야 하며 불타는 충성심과 헌신성으로 하나라도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투쟁하여야 한다.

로동자들은 자기의 기대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하며 농민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땅을 걸구고 알뜰히 다루어 풍만한 수확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성다하는 길이며 혁명초소를 지켜선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의 일터가 바로 우리 혁명의 중요한 초소이며 그 초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겠다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그것을 대를 이어가면서 지켜나가야 한다.

아버지가 일하던 일터에서 아들이 일하고 아들이 일하던 일터에서 손자가 일하면서 대를 이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갈 때 우리 혁명은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해질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자기 근본을 잊지 말고 혁명적원칙과 로동계급적립장에서 변함없이 혁명의 길을 억세게 걸어나가야 한다.

아버지가 로동계급이라 하여 자식들이 저절로 로동계급이 되는것이 아니며 또한 로동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하는것이 아니다. 비록 자기 근본을 안다 하여도 로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갈수 없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과 후대들을 끊임없이 혁명화함으로써 산정의 아아한 철탑을 고이고있는 초석처럼 누가 보든말든 말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진심으로 받들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임무, 혁명초소에 대한 옳은 태도와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 문제는 당조직들이 그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자기 일터에서 로동의 보람과 영예를 마음껏 꽃피워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특히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여 자기 맡은 사업을 언제나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모든 일을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자기 맡은 혁명초소의 영원한 주인이 되여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초소를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로동행정사업을 잘하여 로력을 고착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우리가 기업소에서 생산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먼저 숙련된 핵심로동자들을 생산에 고착시켜야 할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142페지)

생산과 기술, 관리의 주인인 근로자들이 자기 일터와 자기 직업에 대한 높은 영예를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도록 하자면 그들을 자기가 일하던 직종이나 기대에 오래 고착시켜야 한다.

로동자들을 오래 고착시키고 그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자기의 혁명초소를 지켜나가게 하는것은 자기 사업에 완전히 정통하며 기계설비들을 잘 관리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현대적기술수단들이 생산에 널리 도입되고있으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생산에 널리 리용되고있는 기계설비들은 모두가 다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며 대를 물려가면서 써야 할 나라의 귀중한 재산이다.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산인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자면 기대나 설비에 정통하여야 하며 자기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 아무리 훌륭한 기계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하더라도 로동자들이 다룰줄 모른다면 그것들이 제대로 은을 나타낼수 없다.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로동자들은 기계소리를 듣고도 고장난곳을 제때에 알아내며 공장굴뚝에서 피여나는 연기를 보고도 설비상태를 가늠하게 된다. 이러한 높은 기능과 기술은 한 기대나 직종에 오래 고착되여 일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로동자들이 한 기대나 직종에 오래 고착되여 일하면 기술기능

Digitized by Google

수준을 높여 기대에 정통할뿐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리용하여 생산을 더 많이 내겠는가에 대하여 언제나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하게 된다. 로동자들이 한 기대나 한 직종에 오래 고착되여 일할수록 자기 기대와 설비를 환히 꿰들고 그것을 언제나 알뜰히 거두고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면서도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사업을 짜고들어 로력을 고착시키며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해나가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이 한 기대나 직종에 고착되여 일할수 있도록 성별, 년령, 체질, 기술기능수준을 고려하여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그들에게 충분한 로동조건을 보장하여주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정확히 분배받도록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로동에 대한 자극을 높이고 로동규률을 강화하며 그들이 성실하게, 자각적으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을 훌륭히 보장하여주는것은 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자기 능력을 다내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도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높이고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그들이 안착되여 혁명임무수행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자질을 높이고 그들이 자기 직업에 완전히 정통하도록 하는것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경제리론과 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4페지)

오늘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는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생산은 높은 속도로 장성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일군들이 실무수준이 높고 맡은 분야의 사업에 정통하여야 생산과 건설을 옳게 지도할수 있고 근로자들을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사업에 완전히 정통할수 있도록 높은 자질을 가질 때만이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재능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지 못하고 실무수준이 어리면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자리지킴이나 하게 된다. 맡은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고 자리지킴이나 하여서는 혁명초소를 튼튼히 지킨다고 말할수 없으며 그렇게 하여가지고서는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수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우리 당은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자!》는 구호를 내놓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는것과 함께 현대과학과 기술을 널리 습득하여 자기 맡은 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머리가 비면 자기의 혁명초소를 지켜나갈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꾸준히 학습하여 자신의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하며 자기 분야의 사업에 완전히 정통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자신의 정치리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언제나 정예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기술실무수준이 높고 실천적 경험이 풍부하며 현실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어야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이러한 높은 능력과 자질은 진지한 탐구와 피타는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의 사업에 정통하며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언제나 꾸준히 학습하며 생산실천을 통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의 풍부한 경험을 따라배우고 그들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아래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배워주고 이끌어주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질을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도록 하자면 당조직들이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실속있게 학습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통제하며 모두가 다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일군들은 자체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기술기능학습체계와 기능전습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잘 리용하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모두가 다 자기가 다루는 기대와 설비, 자기 부문의 사업에 능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초소를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혁명전사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튼튼히 지켜나가는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혁명임무, 보람찬 투쟁과업은 없다.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여기에 혁명전사의 영예와 긍지가 있으며 투쟁의 보람과 보다 행복한 미래가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그 후대들은 혁명초소를 대를 이어 튼튼히 지켜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

김 화 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혁명사상이며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적특징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발견하심으로써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확립하는데서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사람에 대한 옳바른 철학적리해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며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적이며 출발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사람에 대한 과학적리해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근거 지어주는 리론적기초이며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의 확고한 초석으로 된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며 사람이 세계의 다른 모든 존재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해명해야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으며 세계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질수 있다.

사람의 본질적특징을 과학적으로 리해하여야 또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심오한 철학적내용과 그 위대성을 깊이 파악할수 있으며 그것을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적존재인 인간의 본질적특성을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고전적정식화를 내리심으로써 사람의 본질에 대한 가장 심오한 리해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43페지)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체현하고있는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속성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은 우선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고 하는것은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주위세계를 지배해나가며 모든것을 자기자신이 해나가는 존재라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는 존재라는것을 의미한다.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무시하는것은 인간자체를 무시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에게 예속되여 사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데 있겠습니까.》(《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페지)

주위세계의 그 어떤 힘에도 예속되지 않으며 아무런 구속도 받음이 없이 살

Digitized by Google

아나가려는것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동식물들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그에 전적으로 종속되여있다. 동식물들은 자연의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자체를 적응시키지 못할 때에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외부세계에 종속되여 살아나가는것은 영원히 벗어날수 없는 그것들의 생존방식이다.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자기자신을 자각하고 주위세계에 자신을 대립시킨다. 여기에 벌써 외부세계의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는 사람의 특성이 표현되여있다. 동물계로부터 인간의 분리는 외부세계에 종속되여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였다.

사람을 둘러싸고있는 자연은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사람의 활동을 가로막으며 그들의 생활을 늘 위협한다. 그러나 사람은 맹목적인 자연의 힘앞에 굴복한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여나감으로써 살아갈수 있었으며 발전할수 있었다.

사람은 또한 사회적으로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사회적 예속과 구속이 있는 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벌린다. 남에게 예속되여 사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것이다. 지난날 사람들이 노예제도나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투쟁한것도 그리고 오늘날 제국주의식민지피압박인민들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 인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도 다 그들이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이다.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들과는 달리 외부세계의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여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사람의 근본특성의 하나가 있다.

사람이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고 하는것은 또한 주위세계를 지배해나가는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것을 말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43페지)

사람은 주위세계의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할뿐아니라 주위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복종시키고 지배해나간다. 사람은 주위세계를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이다.

주위세계에 대한 사람의 지배는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며 그 운동을 조절통제해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사람은 우선 자연의 사물현상들과 령역들을 더욱더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지배해나간다. 사람의 능력과 힘의 증대에 따라 자연에 대한 지배는 더욱 확대되고 촉진된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조해나간다. 사람은 낡은 사회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선진적인 사회관계를 세움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이룩해나간다. 특히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은 사회에서 작용하는 객관적법칙을 인식하고 리용함으로써 사회관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가며 사회를 지배하는 참다운 주인으로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주위세계의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지배해나감으로써 자주적인 존재로 된다.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특성은 또한 생활과 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자신이 풀어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의 힘에 의존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모든것을 해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34페지)

Digitized by Google

남의 힘에 의존하는것은 사람의 사회적속성인 자주성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

사람이 생활과 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남의 힘에 의존하려고 할 때에는 자기의 리익과 권리와 존엄을 지킬수 없다. 사람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성을 체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자기의 존엄과 리익을 지키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된다.

이처럼 사람은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주위세계를 지배해나가며 모든것을 자기자신이 해나가는 특성들을 통일적으로 체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된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존재일뿐아니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이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고 하는것은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개조하며 모든것을 자기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존재라는것을 말한다.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을 능동적으로, 합목적적으로 개조해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43폐지)

사람은 주위세계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동물과는 달리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은 주위세계에 예속되지 않고 그것을 지배해나가려는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로부터 주위세계에 수동적으로 대하는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며 맹목적으로 활동하는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한다.

주위세계에 능동적으로 대하며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특성의 한 측면은 사물현상들을 변형하고 개작하는데서 표현된다.

사람은 주위세계가 제공하는 생활자료를 그대로 섭취하거나 리용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그것을 변형하여 받아들인다. 사람은 불리하거나 불필요한 생활조건을 없애거나 유리하게 변화시킨다. 자연의 무서운 재난을 막기 위하여 강의 흐름을 돌리거나 바다를 막거나 산을 떠옮기는것과 같은 자연개조사업은 그러한 실례이다. 이러한 인간의 개조활동은 그것이 자연의 모든 대상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형태라든가 부분적성질들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사람의 지향과 요구에 복종시킨다.

주위세계를 합목적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특성의 다른 한 측면은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나가는것이다.

사람은 주위세계를 지배하며 자주적으로 살려는 지향으로부터 이미 주어진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간다. 사람의 창조행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대상의 부분적개작이나 변형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는데 있다.

새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이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자연 그자체로서는 만들어낼수 없는 새로운 사물, 인공적인 사물들이 출현한다. 이와 같은 창조물에 의거하여 사람은 주위세계에 대한 지배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간다.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특성은 또한 모든것을 자기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구체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며 활동한다. 사람의 존재와 활동에 작용하는 조건과 환경은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사회적집단을 이루고있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처지와 능력, 성격과 취미 등도 서로 같지 않다. 사람은 이러한 주객관적조건과 실정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능동적으로 주위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목적을 세우고 합리적인 방법과 수단을 탐구하고 적용하여 그것을 실현해나간다. 선

Digitized by Google

행세대에 의하여 얻어진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탐구된 방법도 교조주의적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개작하고 변형하여 적용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창조적활동이란 주위세계의 사물현상들을 개조하는 과정인 동시에 자기의 실정에 맞게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능동적이며 합목적적인 활동과정이다.

사람은 이렇듯 주위세계의 사물들을 끊임없이 변형시키고 새것을 만들어내며 자기의 실정에 맞게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특성들을 통일적으로 체현하고 있음으로 하여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된다.

사람의 사회적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은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작용하며 여기에서 주도적역할을 노는것은 자주성이다.

사람은 자주성의 요구에 따라 창조성을 발휘한다. 자주성을 체현하고있기때문에 사람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창조적활동을 벌리게 된다.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으면 창조성도 제대로 발휘할수 없다. 자주성이 높이 발휘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창조성은 더욱더 강화발전된다.

창조성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조건을 마련한다. 사람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성을 높이 발양하여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면 할수록 그들의 자주성은 더욱 강화된다. 또한 사람의 창조성이 발전하여 자연을 정복하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에 대한 자주적인 태도도 강화된다.

사람은 그 본질적특성으로 자주성과 창조성을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된다.

사람은 자연의 맹목적힘을 자체로 이겨내지 못하는 동물과는 달리 모든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있다.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것은 개개인이 가지고있는 육체적힘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매 개인이 가지고있는 육체적힘으로 말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것이다.

사람의 힘은 무엇보다도 사상정신적힘이며 사회적힘이다.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축적된 물질적 및 정신적 힘에 의거함으로써 그 무엇에도 비할바없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된다.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으로 세계를 자기를 위한것으로 개조하고 지배해나간다. 사람의 능력과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것을 당해낼 그 어떠한 존재도 이 세상에 없다.

자연은 사람의 체력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사람은 목적의식적인 창조적활동을 벌림으로써 자연의 힘을 자기를 위한것으로 전변시키며 그 힘의 파괴적작용을 성과적으로 막아내는것이다. 일부 동물들은 사람보다 몇십배 더 큰 힘과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있지만 사람은 자기의 제한된 힘과 감각을 몇천배, 몇만배로 확대보충하는 기술수단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고 세계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더욱더 확대해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한랭전선의 커다란 영향앞에서 조금도 굴함이 없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촌테제와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해마다 대풍작을 이룩하고 있다. 이것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체현하고있는 사람의 힘, 인민대중의 힘의 위력을 과시하는 훌륭한 례증으로 된다.

사람은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힘있는 존재이기때문에 주위세계의 모든것을 개조변혁하며 자기 운명을 자기자신이 개척해나가는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된다.

* *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게 되

Digitized by Google

는것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때에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10～411페지)

사람이 동물과 달리 주위세계에 대립하여 그를 지배하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의식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의식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의 속성의 하나이다. 동물의 행위가 본능적이며 맹목적이라면 사람의 활동은 의식적인것이다.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일정한 지향을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며 객관세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조해나간다.

그러나 이것은 의식일반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라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가운데서도 기본을 이루는 자주적인 의식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자주적인 의식을 떠나서 자주성과 창조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람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만드는데서 근본적인것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인간의 자주적요구와 념원을 반영한 의식이다. 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주위세계의 온갖 예속과 구속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지배해나가는 사람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있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자주의식과 함께 사람의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창조적능력이란 사람이 주위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힘이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에는 주위세계에 대한 지식, 생활과 실천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숙련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이 포함된다.

사람은 인식능력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주위세계의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며 그에 기초하여 주위세계를 자기의 지향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구상을 머리속에 세우게 된다.

또한 사람은 실천능력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머리속에 구상된 설계에 따라 외부세계를 개조변혁하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리게 된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그들의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강화된다. 사람들은 가장 선진적인 자주의식으로 무장하고 창조적능력을 키워나갈 때 자주성에 대한 확고한 자각을 가지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물질적 및 문화적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더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능력은 창의창발성과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자주성을 튼튼히 지키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이룩해나가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사람의 사회적속성이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인것만큼 물질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육체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육체구조와 기능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질수 있게 하는 자연적, 생리적 기초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자주성과 창조성을 사람의 생리적속성이라고 하거나 그 내적가능의 발현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발현되는 사회적속성으로서 그것은 사람에게만 고유한것이다. 자주성이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사람의 타고난 성질이라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은 결코 사람에게 그 어떤 사회적속성도 부여할수 없다.

자주성과 창조성이 사람의 타고난 속성이 아니라는것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의 사회적성격에 의하여 설명된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타고난 사상과 지식이란 없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운다.》(우와 같은 문헌, 41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의식은 사람에게 날 때부터 저절로 주어진것이 아니라 사회적관계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한다.

사람들은 사회적 교육과 교양을 통하여 선행세대의 사람들이 이룩한 사상의식을 넘겨받으며 사회생활과 실천을 통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킨다.

창조적능력도 역시 사회적관계속에서 형성되고 사회적 교육과 실천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이다. 집단적인 사회생활과 실천활동과정에서 매개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획득된 지식과 기술, 경험과 숙련 등이 체현되게 된다. 세대에 세대를 거쳐 인류의 지식과 기술, 경험과 숙련 등이 계승되고 더욱 발전되며 그에 따라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 더욱 위력해지고 적극화된다.

이 모든것은 자주성과 창조성이 인간개체가 타고난 생물학적속성도 아니며 그 어떤 외부적힘에 의하여 사람에게 부여된 천성도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하여준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오직 물질세계의 가장 높은 단계인 사회와만 결부되여있는 사람의 속성이다.

사람은 이러한 자주성과 창조성을 체현하고있음으로 하여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 가장 귀중하고 존엄있는 존재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사상은 인류사상발전에서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람의 사회적본질에 대한 완벽한 리해가 확립되게 되고 인류철학사상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사람의 본질적특징에 대한 과학적견해를 확립하는것은 일찌기 철학사상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였으며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시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인류의 철학적사유가 시작된 이래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완벽한 해명을 보지 못하였던 사람의 사회적본질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답이 주어지게 되였으며 과학적인 세계관의 기초와 내용이 확고한 과학적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였다.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은 그것이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주고 사람의 운명문제해결의 옳은 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으로 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그것이 현실세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언제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으로 살것을 념원하는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인식과 실천의 가장 위력한 무기로 되여야 한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으로서의 자주성과 창조성에 관한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가 리론적으로 확고히 근거지어지게 되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의 초석이 마련되게 되였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이 주어지고 사람에 대한 옳바른 리

Digitized by Google

해가 확립됨으로써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다시말하여 사람은 바로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된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의 본질적특성으로서의 자주성과 창조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이 주어짐으로써 사람,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옳바른 철학적리해의 확립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의 모든 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실천에서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모든 문제를 고찰해야 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확고한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드높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시고 사람의 사회적본질에 대한 과학적견해를 확립하신것은 인류사상발전에서와 인류해방위업에 불멸의 공헌으로 되는 또하나의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주성과 창조성에 관한 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심오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건설의 기초

안　동　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원칙적요구이며 우리 혁명발전의 실천적요구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을 강유력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해나갈수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기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고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데 있으며 당건설의 기초도 바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5페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당건설의 기초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당조직과 당원들의 모든 활동의 선결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조직이다. 당이 힘있고 생기있는 전투적조직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을 이루고있는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당원들이 다 당조직원칙에 따라 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생활은 당원들이 당규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혁명활동으로서 당원들의 조직생활이며 정치생활이다. 당원들이 당이 맡겨주는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한다면 그들은 혁명가로서의 자기 임무를 다하는것으로 되며 따라서 당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부대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다하게 된다.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떠난 당이란 원래 존재할수 없다. 비록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당에 들어온 계급의 선진분자들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어느 한 당조직에 소속되여 규약상 요구에 맞게 조직생활을 하지 않고 제나름대로, 자연발생적으로 움직인다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을 당이라고 부를수는 결코 없는것이다.

로동계급의 전위부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당원들이 당규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당생활을 기초로 할 때에만 존재할수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떠나서는 또한 당이 령도적역할도 수행할수 없다. 모든 유기체가 그것을 구성하고있는 세포들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할수 있는것과 같이 당도 당을 구성하고있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통하여서만 숨쉬고 활동하는 산 조직으로 될수 있다.

다시말하여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은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실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에 사회의 심장, 혁명의 추진력으로서의 자기 활동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보장할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당이 온 사회에 주체형의 피를 힘있게 뿜어줄수 없게 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도 없다.

특히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지 않

Digitized by Google

고서는 당내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이것은 결국 당원들의 당생활을 떠나서는 당의 활동이 있을수 없고 당조직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이 다 당규약상 요구대로 움직이게 될 때에만 대중속에서 당의 영향력을 부단히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바로 여기에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당건설의 기초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당건설의 기초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포생활은 당원들의 정치조직생활의 기초이다. 건전한 세포생활이 없이는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할수 없으며 당내의 사상적, 정치적 단결을 보장할수 없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140페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서 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유일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한 당에는 언제나 분파가 생기는 법이며 따라서 이러한 당은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하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참다운 통일단결을 보장하여야 강한 전투력을 가진 당으로, 백전백승하는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바로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이다.

그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여야만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나갈수 있기때문이다.

당생활을 강화하는 사업을 떠나서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없고 그에 기초하여 사고하고 행동할수 없다.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당조직을 통하여 전달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조직되는것만큼 당원들은 당조직사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움직일수 있다. 따라서 당생활을 강화하는 여기에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행동상 일치성을 확고히 보장하여 나가는 참다운 길이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안팎의 원쑤들을 제때에 쳐물리치고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안에는 정치적준비정도가 어린 사람들도 일부 들어오게 되는 조건하에서 안팎으로 밀려드는 낡은 사상의 침습으로 당안에 불건전한자들이 나타나 당의 통일과 단결에 지장을 줄수 있다.

당안에 발생하는 이색분자들을 어떻게 제때에 극복하는가 하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당생활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당안에 발생하는 이색분자들의 적대행위를 제때에 색출할수 없다.

당원들이 사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조직에 보고하고 당조직의 의사에 의

Digitized by Google

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 당조직이 당원들을 알수 없게 되며 당조직들이 간부들과 당원들을 모르게 되면 당안에 불순이색분자들이 나타나 동상이몽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철저히 실현할수 없다. 또한 당생활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당안에 발생한 불순이색분자들과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도 없다.

당원들의 당생활이 약화되면 비판과 자기비판이 없는 무풍지대가 형성되게 되고 당안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이 약화되면 결국 당이 전투력있고 생기발랄한 당으로 활동할수 없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안팎의 원쑤들을 제때에 물리치고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고수하고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바로 여기에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 혁명적당건설의 기초로 되는 또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있다.

이와 같이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가장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것으로서 당사업의 기본고리로 될뿐아니라 당의 조직과 모든 활동을 규제하며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고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기초로 된다.

*　　　*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과 조성된 정세는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당생활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대렬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바로가지고 당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5페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매 당원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당원은 일생을 수령을 위하여, 당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싸울것을 맹세하고 당에 들어온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주체형의 당의 믿음직한 성원들인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조직생활에 참가하는것보다 더 높은 영예는 없으며 그보다 더 큰 의무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자각적인 당생활은 오직 옳은 조직관념에 기초해서만 발휘될수 있다.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개인의 리익보다 조직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무조건 집행하는 확고한 립장과 태도가 없이는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조직의 위임분공과 결정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것은 사실상 자원하여 당에 들어온 당원의 자세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치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밥만 먹고 그저 사는 《짐승》과 같은 처지에 떨어지고만다.

우리 당조직은 당원들에게 주체의 영양소를 넣어주어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조직이며 당원들이 모든것을 의탁하고 일

Digitized by Google

해나가야 할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정치조직이다.

당조직을 떠나서는 당원들이 한순간도 살아나갈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할수 없다. 그러므로 한생을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싸울것을 굳게 결심하고 당조직의 한 성원이 된 당원들에게 있어서 조직은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이다.

이것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옳은 조직관념을 세우지 않고서는 혁명적으로 당생활을 해나갈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원은 당조직관념이 바로서야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생활의 법칙으로 여기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의식적으로 받으며 언제나 당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혁명의 한길을 따라 영원히 충직하게 싸워나갈수 있다.

경험은 당조직관념이 바로서있지 않는 사람은 예외없이 당과 대중의 통제를 싫어하게 되고 낡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나중에는 사상적으로 병들고 혁명성이 마비되여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지 못하게 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원들의 당조직관념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을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생을 당과 혁명을 위해 바칠것을 결심한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조직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직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개인의 리익을 희생시킬지언정 조직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기풍으로 일하며 생활해야 한다.

또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를 당조직에 제때에 정확히 보고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해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특히 간부들과 당원들이 한순간도 당조직생활에서 떨어지지 않고 의식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당생활은 일정한 기한을 두고 하거나 시간적여유가 있을 때에만 하는것이 아니다. 당원은 당원증을 메고있는 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생활을 하여야 하며 아무리 복잡한 일이 제기되여도 당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당원에게 있어서 당생활이 중단된다면 그것은 곧 그의 혁명활동의 중단으로 되며 그러한 당원은 벌써 당원의 자격을 잃은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당원은 언제 어디에서나 자기자신을 당조직과 련결시켜 생각하여야 하며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당조직규률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전투적부대입니다. 우리 당에는 강한 혁명적질서와 혁명적규률이 필요합니다.

당내에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서지 않고는 당이 전투적인 부대로 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391페지)

당조직규률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전투력의 원천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계급적선봉부대로서의 자기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반드시 당안에 강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지 않고서는 당이 조직된 계급적선봉부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구경은 당안에 강철같은 당조직규률을 세우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혁명적당생활기풍은 강한 당조직규률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전제로 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조직규률은 모든 일군들과

Digitized by Google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움직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로선과 정책, 당의 방침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강한 혁명적규률이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규률이 철저히 세워질 때 당원들은 오직 당의 의도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것이며 당안에 건전한 혁명적당생활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조직규률을 강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인식하고 당안에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을 세우는데 커다란 주의를 돌림으로써 혁명적당생활기풍을 확립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당원들속에서 조직규률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당조직규률에 대한 요구성을 높인다는것은 당원들속에서 당생활규범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강하게 틀어쥐고 지도통제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는 당조직규률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당안에 자유주의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미리 방지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조직규률에 대한 강한 요구성이 당생활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는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심화발전되는 우리 당사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그 요구성을 더욱 높이며 당조직규률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당조직규률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안에 2중규률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당생활에서는 높고낮은 당원이 따로 없으며 따라서 당안에는 두가지 규률이 있을수 없다.

당규률을 지키는것은 모든 당원들의 의무이며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해당되는 철칙이다.

만일 당안에 두가지 규률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벌써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다른 사상과 행동이 움트고 자라날수 있는 틈을 주는것으로 되며 이것이 더 자라게 되면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나중에는 당의 통일과 단결마저 파괴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당이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되며 당자체의 존재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직위가 높은 당원이건 직위가 낮은 당원이건, 공로가 있는 당원이건 공로가 없는 당원이건 관계없이 모든 당원들이 다같이 당규약상 요구에 따라 하나의 규률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간부들이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당조직의 통제와 비판을 잘 받으려 하지 않거나 특세를 부리려는 현상과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는것은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이 당회의와 당학습에 빠짐없이 참가할뿐아니라 당회의에서 비판사업을 강화하여 당조직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거나 당정책집행에서 나타나는 온갖 부정적현상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도록 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6페지)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원들을 교양하며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위력한 무기의 하나이다. 비판이 없이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당원들을 옳게 교양할수 없으며 혁명운동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없다.

당원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여야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하여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해나갈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당원들은 자기비판을 잘해야 다른 사람들앞에서 자기 잘못을 털어놓고 새로운 결의를 다질수 있을뿐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결함이 반로되지 않도록 교훈을 줄수 있다. 당원들은 또한 호상비판을 잘해야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결함들을 제때에 알고 고쳐나갈수 있으며 한사람을 비판하여 여러 사람을 교양하며 고쳐줄수 있다.

특히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힌 낡은 사상은 그것을 반대하는 일상적이며 꾸준한 사상투쟁을 통하여서만 극복할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낡은 사상잔재를 가지고있으며 일정한 결함을 가지고있다. 결함이 없는 사람이란 있을수 없다. 따라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임무에 대한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경향들을 제때에 철저히 극복할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킬수 없다.

경험은 비판과 자기비판이 생활화된 곳에는 혁명적생활기풍이 철저히 서있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곳에서는 당원들이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고 사업에서 전진과 혁신이 일어나지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한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도록 잘 이끌어주는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누구나 다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동지들의 비판을 성실히 받아들이는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판과 자기비판 사업에 어떻게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당원들의 당성을 재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당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자그마한 결함에 대해서도 조직과 집단앞에 솔직히 내놓고 자기비판함으로써 동지들의 방조를 허심하게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교훈을 찾고 결불에 맞아 다시는 그런 결함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은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사소한 현상에 대해서도 융화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일깨워주고 고쳐주도록 하여야 한다. 요리조리 재면서 남의 결함을 보고서도 따끔하게 일깨워주지 않는 보신주의, 소심성은 혁명적당생활기풍과 인연이 없다.

비판은 깜빠니야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꾸준히 해야 한다.

혁명은 한자리에 머물러있는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하며 계속된다. 때문에 사업을 계속 새로운 높이에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부족점과 낡고 뒤떨어진것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한시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쇠붙이도 오래 내버려두면 녹이 쓰는것과 같이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자그마한 결함도 제때에 비판해주지 않으면 더 커지고 나중에는 고치기 힘들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비판은 반드시 일상적이며 꾸준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다음으로 당원들은 비판을 허심하게 접수하고 혁명과업수행을 통하여 결함을 대담하게 고쳐나가야 한다. 당에 충실한 당원이라면 마땅히 비판된 문제를 허심하게 접수하고 그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용감하게 과오를 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비판이 발전의 추진력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잘 지도하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며 잘 지도하는것은 당생활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6페지)

당생활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생활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고 전당에 건전한 당생활기풍을 세우며

Digitized by Google

당을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지도하는데서 당적분공을 옳게 주며 모든 당원들이 늘 움직이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적분공은 당생활조직의 기본형식이며 매개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주어 그들이 다 움직이도록 하는것은 당조직생활의 기본요구이다.

당원들에 대한 당적분공을 옳게 조직하고 그 집행을 정확히 장악지도하며 방조함으로써 언제나 당원들이 혁명을 위하여 사고하고 움직이도록 하여 그들의 당생활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그리고 위임된 분공을 수행한 다음에는 그 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분공실행에 대한 총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때만이 당조직규률이 강화되고 당원들의 책임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준비정도와 구체적인 조건에 맞게 당적분공을 똑똑히 주며 그 집행정형을 제때에 검열하고 그것을 옳게 수행하도록 적극 도와주며 이미 준 과업이 수행되면 총화하고 다시 새 과업을 주어 모든 당원들이 언제나 당적분공을 맡고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조직과 지도는 당조직들의 활동에 의하여 실현된다.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는 모든 당원들이 소속되여 당생활을 하는 거점이다. 당세포의 역할을 높여야만 매 당원들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당생활을 조직지도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위원회들은 당원들이 당생활을 잘할수 있게 당세포로 하여금 당원들의 당생활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도록 그들의 당생활지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어야 한다.

또한 당위원회들에서 당생활을 실속있게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이 당원들이 사업하고 생활하는 당세포에 늘 내려가 간부들과 당원들을 계획적으로 만나 담화하는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생활실태를 료해분석하고 그에 알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회의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높여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과업수행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특히 당원들의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며 당생활지도에서 당위원회의 조직부의 역할을 높이고 조직부와 선전선동부의 배합작전을 잘하여 당생활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함으로써 전당에 건전한 당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이렇듯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조금도 양보할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을 더욱 강화하고 당조직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당일군들의 기본사업방법

방 두 윤

당사업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함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도 무거운 혁명과업은 모든 당일군들이 낡은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당조직들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당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며 모든 당일군들이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기본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적극 도와주어 모든 일이 잘되여나가도록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사업방법의 하나이며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적용하여온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93페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당일군들이 생산자대중이 살며 일하는 현실에 침투하여 아래실정을 직접 료해장악한 기초우에서 아래일군들에게 결함이 있으면 고쳐주고 걸린 문제는 풀어주며 모르는것은 가르쳐주어 모든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발동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것이다.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방법은 우에 앉아서 지시하고 강조나 하며 시비하는 관료주의적사업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방법은 우와 아래가 합심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제기된 혁명과업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는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이 실지사업이 벌어지고있는 아래에 늘 내려가서 일군들과 군중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들과 힘을 합쳐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그들이 일을 잘할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것은 당일군들의 고유한 품성으로, 적극적인 활동방식으로 된다.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늘 산하 부대와 혁명조직들에 내려가 따뜻이 도와주고 가르쳐주시는 혁명적사업방법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들과 혁명조직들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여 활동하며 또한 수십만의 일제침략군대가 욱실거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늘 대원들과 군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가르치시였으며 아래실정을 깊이 료해한데 기초하시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래에 내려가시여 당회의와 공청회의 준비도 친히 도와주시였으며 학습과 회의에도 참가하시여 실정을 알아보시고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사업을 바로 잡아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몸소 강습과 방식상학도 조직

Digitized by Google

하시여 아래일군들에게 전투를 조직지휘하는 방법, 정치사업방법, 부대관리방법 등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몸소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이 지도방법은 일군들속에서 주관주의, 관료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지도를 실속있게 보장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을 세우고 상하 합심하여 제기되는 모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는데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우리 당의 성격, 우리 당일군들이 지닌 사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귀족당이나 권력기관이 아니라 군중속에 뿌리박고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군중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은 광범한 군중과의 긴밀한 련계에 있다.

우리 당이 참말로 힘있는 당으로 되고 대중을 령도하는 당으로 되자면 당일군들이 대중이 살며 일하는 현실에, 아래에 내려가야 하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일깨워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당일군은 결코 관료가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충복이며 인민대중속에서 살면서 대중을 교양하여 각성시키고 그들을 묶어세우며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혁명가이다.

당사업, 당적지도는 아래에 지시하고 내려먹이는것이 아니라 광범한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잘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명령하고 지시나 하며 제기된 과업을 아래에 되넘기며 통계나 받아올리고 사무실에 앉아 문서놀음이나 하는것은 관료주의적 사업방법이며 이것은 우리 당의 사업방법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

당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서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침투하여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당이 바라는대로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발동할수 있으며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옳바른 로선과 방침들을 내놓고 그 실현에로 인민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은것은 늘 현실에 침투하여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군중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었기때문이다.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방법은 대중지도의 가장 우월한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방법은 목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깊이있게 수행할수 있는 힘있는 사업방법일뿐아니라 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며 군중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교양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99페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상하 합심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군중속에 제때에 정확히 침투하고 그들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군중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깊이 깨닫고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한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아래에 거침없이 빨리 들어가고 당의 목소리가 군중속에서 힘차게 울려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대로 군중이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며 그야말로 아래우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굳게 결합되여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훌륭히 관철해나가게 된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실속있게 도와주면 웃사람이나 아래사람이나 할것없이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단합되고

Digitized by Google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며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합심하여 관철해나가게 된다.

당일군이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또한 일군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이며 군중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교양방법이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과정에 약동하는 현실을 직접 보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여 풀어주며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실지사업과정을 통하여 지도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도 더욱 세련되고 로숙해지게 된다.

일군들이 아래를 도와주는 행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대중에게서 불타는 충성심과 불굴의 투지, 혁명성을 배우게 되며 군중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해나감으로써 그들의 조직관념이 더한층 높아지게 되고 혁명화과정이 비상히 촉진되게 된다. 또한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게 되고 혁명화과정이 더욱 촉진되는 한편 아래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도 더 높아지며 군중의 혁명화과정도 적극 다그쳐지게 된다.

참으로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줌데 대한 당의 요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만들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게 하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고 완성해나가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업방법, 혁명하는 당의 대중지도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담보가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참다운 길이 있다.

＊　＊

지금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새 전망계획의 두번째해 전투를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다그치며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수행하고있다.

이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특히 군당을 비롯한 집행기관일군들앞에는 생산단위인 협동농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늘 내려가 아래일군들과 함께 일하면서 사업실정을 직접 료해장악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그들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요구가 절실하게 나서고있다.

그러므로 말단집행단위일군들은 모두가 실천활동이 벌어지고있는 생산현장에 내려가 아래일군들과 일을 같이하면서 실태를 직접 료해장악하며 그들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방법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있는 아래에 내려가 그들속에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가 하는것을 알아보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아래일군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2페지)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하는것은 아래단위의 사업을 도와주며 가르쳐주는데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며 지도의 체계성을 보장하는 담보이다.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하지 않고서는 아래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지도할수 없으며 그들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도와

Digitized by Google

줄수 없다.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정상화하고 제도화하여야만 모든 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내려가 일하면서 아래일군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통제하고 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지도를 줄수 있으며 그들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고 가르쳐줄수 있다.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시, 군을 비롯한 웃기관일군들이 일정한 기간 아래에 내려가 조직정치사업을 하고 올라오며 재무장, 재작전하고 다시 내려가는 혁명적인 사업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아무리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 체계와 방법이 마련되여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상 제도화되지 못하면 아래의 사업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할수 없으며 지도방조사업에서 은을 나타낼수 없다.

우리 당일군들은 일정한 기간 아래에 내려가 포치한 사업을 결속해가지고 올라와서는 재무장, 재작전하고 내려가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하부지도사업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아래에 내려가서 사업한 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총화하여 거기에서 경험과 교훈을 똑똑히 찾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아래에 내려가 사업할수 있는 조건을 적극 보장해주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번잡한 회의와 문서에 얽매이게 되면 결코 아래에 자주 내려가 실속있게 도와줄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일군들은 복잡한 문서놀음에 매여달려서는 안되며 아래에 내려가는 체계의 요구대로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가르쳐주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아래에 대한 지도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짜고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업체계를 아무리 고친다 하더라도 일군들의 지도수준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33페지)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부단히 새 과업이 제시되며 빨리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지도를 따라세우며 사업방법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일군들이 아무리 주관적으로는 당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수준이 어리면 군중속에 들어간다 하여도 지도를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세울수 없으며 지도에서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면할수 없다.

만일 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이 낮고 능력이 없으면 대중을 능숙하게 설복하고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불피코 행정식방법으로 일하게 되고 결국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없다.

당일군들은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소유하여야만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농란하게 벌릴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풀어나갈수 있다.

현실은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이 바로 아래에 내려가 실속있는 산 지도를 주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무엇보다먼저 해당단위, 해당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아래에 대한 지도를 확신성있게 해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아래에 내려가 사업할 방향과 과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야 하며 아래에 내려가있는 기간의 사업과 생활조직, 사업 방법과 작풍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 내려갔다

Digitized by Google

올라오면 반드시 내려가 사업한 정형을 총화하며 다시 내려가서 할 사업을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작전해야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재무장, 재작전하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해가지고 아래에 내려가야 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판단하며 사소한 편향도 없이 아래일군들과 군중을 옳게 가르쳐주고 도와줄수 있다.

아래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유람식》지도를 철저히 극복하고 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속에 직접 들어가는것이다.

군중이 살며 일하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는것은 아래를 지도하는데서 당일군들이 철칙으로 삼아야 할 원칙적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속에 들어가며 현실에 침투하는것은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철칙으로 되여야 합니다. 이것은 혁명적방법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풍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7페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래의 구체적실정을 정확히 알수 없고 옳은 대책도 세울수 없으며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줄수도 없다.

당사업은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군중이 활동하는 현실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현실을 떠나서 당사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군중을 각성시키고 군중을 움직이는 사업을 떠난 당일군의 활동이란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이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일본새를 가지자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깊이 침투하여야 한다.

군중속에 들어가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군중의 사상정치적준비정도는 어떠하며 거둔 성과와 경험은 무엇이고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점은 어떤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할수 있을뿐아니라 제기된 문제해결의 대책과 방도를 정확히 찾아낼수 있다. 아무리 일군들이 자주 아래에 내려간다고 하여도 군중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아래일군들의 사무실에 앉아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거나 이곳저곳 형식적으로 돌아다니며 늘 만나는 몇몇 일군들의 말만 듣고 온다면 현실을 정확히 료해할수 없다.

군중속에 들어가는 궁극적목적은 하부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맞는 지도를 주어 아래일군들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자는데 있는것만큼 당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서는 군중속에 푹 몸을 잠그고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일하면서 조직정치사업과 지도방조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야 한다.

아래일군들에게 여러가지 자료나 통계를 요구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면서 저마다 받아내려고 하고 시켜먹으려고만 하여서는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 사업방법의 요구를 옳게 구현할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아래일군들을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들을 들볶게 하여 아래일군들도 군중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얽매여놓게 된다. 이것은 결국 사업을 그릇치게 하고 전진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당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해당단위의 일군들에게 요구만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조직정치사업을 벌려 그들을 잘 도와주고 걸린 문제를 찾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우에서 내려간 당일군들은 통계나 자료가 요구되면 자기가 직접 만들고 만나야 한 사람이 있거나 확인할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만나보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아래일군들을 도와준다고 하여 그들의 사업을 가로타고앉아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과 합심하고 아래일군

Digitized by Google

들이 제힘으로 일할수 있도록 떠밀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아래일군들이 제구실을 바로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그들을 성의껏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며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방법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위원회책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이다.

책임일군들이 직접 아래를 도와주는 모범을 보이는것은 일군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며 그들을 고무하고 아래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책임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도와주어야 높은 정책적안목에서 문제를 보고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줄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사업한 정형과 아래의 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그에 맞게 지도를 심화시킬수 있다. 또한 책임일군들이 아래를 도와주는 실천적모범은 아래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웃기관의 지도일군들이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면 아래일군들은 그 모범을 배우고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아래일군들을 데리고 내려가 사업하며 도와줄뿐아니라 아래일군들이 현실에 나가서 일하는 정형도 직접 알아보고 지도통제하며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특히 한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은 아래일군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모든 단위의 사업전반을 빨리 추켜세울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아래에 내려가 시범을 만들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하여야만 실천적인 모범을 통하여 아래일군들을 교양하고 가르쳐줄수 있으며 여러 단위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다. 이것은 책임일군들이 실천투쟁으로 당정책을 관철하는 일본새와 방법론을 가르쳐주며 그 모범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여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좋은 방법인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모범단위를 정확히 선정하고 본보기를 실속있게 창조하여야 하며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경험은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실속있게 도와줄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할 때 당사업에서 보다 큰 전환이 일어나고 경제과업도 더 잘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당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실속있게 도와주는 사업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감으로써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일층 높이며 당이 제시하는 방침들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활동의 중요한 요구

백 상 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5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후 변화된 현실을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그에 맞게 근로단체조직들을 개편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로작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문헌이며 주체적인 근로단체건설과 당조직들이 근로단체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근로단체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국의 각급 당조직들과 함께 우리 혜산시당위원회도 근로단체들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시안의 모든 근로단체조직들은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였으며 당의 외곽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시안의 근로자들속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촉진되고 그들의 정치적열의와 혁명적자각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것과 함께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근로단체들과의 사업을 당사업, 당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틀어쥐고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　　*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활동의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단체들과의 사업을 당사업과 당건설의 중요한 부분으로 틀어쥐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만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다.

근로단체들은 자기 대렬에 광범한 비당원군중을 망라하고있는 당의 외곽단체이며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근로단체들은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근로단체들은 또한 동맹원들속에서 핵심을 키워내여 당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하며 당과 국가의 후비일군들을 마련한다.

근로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은 계급의 전위부대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지도밑에서만 높일수 있으며 당은 근로단체와 같은 외곽단체를 가지고있어야 적극적인 지지와 보호를 받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복숭아가 잘 크고 맛있게 익어야 안에 있는 씨가 잘 보호되고 실속있게 여무는것처럼 근로단체들이 일을 잘하여야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

어세울수 있고 당을 힘있는 당으로 만들수 있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승패는 결국 누가 대중을 더 많이 전취하는가에 달려있으며 당의 모든 활동은 대중을 묶어세우며 대중을 혁명에 끌어들이는데 돌려져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64페지)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혁명승리의 근본조건이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혁명은 당이 혼자서는 할수 없으며 오직 많은 사람들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여 혁명에 적극 참가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지만 의식화, 조직화되지 못하면 혁명투쟁에서 큰 역할을 할수 없으며 새 력사의 진정한 창조자로 될수 없다. 대중은 오직 높은 사상의식으로 무장하고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뭉쳐있을 때 비로소 참다운 위력을 나타내고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는것은 바로 광범한 근로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할데 대한 혁명투쟁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또한 당의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인민대중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바탕이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당이 광범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맺지 않고서는 진정한 혁명조직으로 될수 없다. 또한 인민대중을 떠나서 당이 자기 대렬을 확대강화할수 없으며 적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당을 보존할수도 없고 결국은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자체도 위태롭게 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당이 공고한 혁명적당으로, 힘있고 전투력있는 불패의 당으로 되려면 반드시 자기의 대중적지반을 가져야 하며 인전대인 근로단체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광범한 비당원군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고있는 근로단체들을 가지고있지 못하거나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당은 마치 뼈만 있고 살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고말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이 대중지도에 관한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없게 되고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없게 된다.

근로단체를 동원하지 않고 당이 혼자서 혁명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당이 대중에 대한 령도적기능을 포기하는것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근로단체들을 옳게 조직동원함으로써만 광범한 군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하나와 같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를 폭넓고 깊이있게 실현할수 있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Digitized by Google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당활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있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 이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여 인류의 찬란한 미래인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이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결정적인것은 그 주인인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여기에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결국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정치사업이다. 이 영예로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각이한 대상의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조직에 망라시켜 일상적으로 단련하고 교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당이 도맡아 수행할수는 없다. 당은 비당원군중을 직업별, 성별, 계층별로 망라시켜 그들의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근로단체들이 각이한 계층의 특성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다양하게 벌려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근로단체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옳게 수행해나가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할 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렇듯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 활동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면한 올해계획과 새 전망계획의 높은 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도 매우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채취공업, 기계공업, 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에는 근로단체동맹원들이 다 들어가있다. 근로단체조직들이 동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할 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모든 동맹원들이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맡겨진 생산과제를 완수 및 넘쳐완수할 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그만큼 더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동맹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초소에서 일을 잘해나가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게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에 달려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당조직들이 근로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짜고드는가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따라서 오늘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참으로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이 당사업과 대중지도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확고히 틀

Digitized by Google

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도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집단생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비롯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7페지)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고있는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은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들로 하여금 동맹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각이한 준비정도와 수준을 가지고있고 맡은바 혁명과업과 환경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더우기 근로단체들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은 나어린 소년으로부터 나이많은 동맹원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수준, 직업과 능력을 가진 각계각층의 군중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근로단체조직들이 사상교양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없애고 구체적인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당의 로선과 정책이 대중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내용을 통속화하며 책을 읽게 하는 방법, 발표모임을 하는 방법, 노래와 군중무용을 보급하는 방법, 강연회, 학습회, 담화를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그대로 모든 동맹원들의 뼈와 살이 되게 하여야 한다.

동맹원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동맹조직생활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혁명적실천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동맹원들로 하여금 사상수양과 조직적관념을 높여나갈수 있게 한다.

동맹원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풍모와 높은 자질을 갖추게 된다.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표징의 하나인 혁명적조직성도, 로동계급의 본질적특성의 하나인 집단주의도 조직생활과정에서 배양된다.

따라서 동맹원들의 조직생활을 잘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것은 당조직들이 근로단체들에 대한 지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과업의 하나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동맹원들로 하여금 자기도 조직의 한 성원이라는 높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혁명적인 조직생활체계에 따라 조직생활을 성실히 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근로단체들의 자립성을 높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의 지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그의 자립성을

Digitized by Google

높여 근로단체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을 능동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근로단체들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우고 군중과의 사업에 근로단체들을 적극 내세우며 일을 대담하게 맡겨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51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근로단체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근거하여 자기 사업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잘해나가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만일 당조직들이 근로단체사업을 대행하게 되면 근로단체들과 그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이 약화되여 결국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수 없게 된다. 당조직이 근로단체들로 하여금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사업하도록 도와주는것은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근로단체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기초하여 자기 사업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데 언제나 당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당일군들속에서 근로단체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우는것은 근로단체들의 자립적활동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일군들이 근로단체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져야 군중과의 사업에서 근로단체들을 적극 내세우고 일을 대담하게 맡길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단체들의 자립성을 높일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일군들속에서 근로단체사업과 관련하여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여러 로작들과 교시들을 심오히 연구하도록 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안에서의 당과 근로단체와의 호상관계, 근로단체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등을 똑똑히 인식시켜 근로단체들을 강화하는것이 곧 우리 당을 강화하는 길이라는것을 똑바로 체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당일군들속에서 근로단체일군들을 군중과의 사업에 인입하고 그들을 적극 도와줌으로써 근로단체들이 자립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근로단체들에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고 사업방향과 제기된 혁명과업의 수행방도를 정확히 제시해주는것은 근로단체들의 자립성을 높여주고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나선다.

당조직들은 매 시기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 방향과 방도를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명백히 제시해주며 그에 기초하여 근로단체들이 자기 사업을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단체들이 당조직의 지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사업을 집중시켜나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근로단체조직들의 사업을 정확히 장악하고 제때에 총화해주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이 근로단체들의 활동을 늘 장악지도하여야만 그들이 당의 의도대로 옳게 움직일수 있으며 군중을 동원하여 매 시기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옳바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들에서의 사상교양사업정형, 조직생활지도정형, 위원회운영정형,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등을 늘 장악하고 근로단체들이 자기 활동을 옳게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다른 하나는 당조직들이 근로단체핵심대렬을 끊임없이 늘이며 동맹의 기본핵심인 간부들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는것이다.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근로단체를 강화하는 기본고리이며 근로단체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 군중과

Digitized by Google

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할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근로단체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전투력도 높일수 있으며 핵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개조하고 움직이게 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울수 있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동맹원들로 간부대렬,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비당원군중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근로단체들의 본신임무의 하나이며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의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이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더욱 두터이 하고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 비당원군중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인 근로단체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되며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의 근본요구로 된다.

우리는 일부 근로단체일군들속에서 마치도 경제사업은 행정경제기관들만 하는것으로 생각하면서 동맹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지 않으며 근로단체들이 경제사업에 낯을 돌리지 않는 그릇된 편향들도 바로잡아주면서 근로단체사업의 성과가 비당원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함께 경제사업의 구체적실적에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경험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근로단체들이 당경제정책관철에 낯을 돌리고 비당원군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 때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조직사상사업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동맹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제2차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제시하신 당이 근로단체들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의식성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급속히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지도적지침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을 당사업, 당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길,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혀준 불멸의 화폭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에 대하여—

당의 지도밑에 백두산창작단과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내놓은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날이 갈수록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더욱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창작공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50여년이 지난 우리 로동당시대에 와서 영화화면을 통하여 다시 보게 된 커다란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첫 공연의 막을 올린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 의의를 잃지 않고 날이 갈수록 관중들의 심장을 더욱 세차게 격동시키며 그들을 력사의 교훈으로 교양하는 혁명투쟁의 힘있는 교과서로 되고있는것은 작품이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참다운 길을 완벽한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이르는 당대의 력사적시대상을 실감있게 보여주면서 혁명은 개인복수나 테로의 방법으로는 안되며 오직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들의 단합된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로 사람들을 무장시켜준다.

이 작품이 밝히고있는 사회정치적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운명과만 관련되여있는것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근본문제이다. 따라서 작품이 제기한 문제는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 투쟁방법과 관련된것으로서 이 세상에 제국주의와 지배주의가 남아있는 한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거대한 의의를 가질것이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거둔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는 무엇보다먼저 열혈청년 안중근과 애국적인 민들의 형상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이 있는 한 그것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있게 마련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심오하게 밝히고 사람들에게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옳바른 길을 가르쳐주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 침략과 간섭이 있게 마련이고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 침략과 간섭이 있는 한 그것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7~8페지)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 침략과 간섭이 있는 한 그것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불가피하다.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거나 자기 나라의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매개 민족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에게 매워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나가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는것

Digitized by Google

이다.

영화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영미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에 격분한 당대의 선각자들과 인민들은 철천의 원쑤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 치욕적인 《한일의정서》가 체결되고 뒤이어 굴욕적인 《을사5조약》이 강압 체결되자 온 나라의 남녀로소는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였고 우국지사들은 배를 가르거나 독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조선침략의 괴수 이등박문이 이른바 《통감》으로 서울에 기여든후 천만원의 차관으로 조선의 경제적명맥을 틀어쥐자 선각자들과 인민들은 《국채보상운동》에 떨쳐나섰으며 조선군대를 강압해산시키자 애국충정에 불타는 군인들은 의병투쟁에 떨쳐나섰다. 이 력사의 거창한 흐름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며 모대기던 애국청년 안중근은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 이등박문을 사살하는 과감한 투쟁을 벌리였다.

영화는 주인공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의 이 모든 슬기로운 투쟁모습을 통하여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 침략과 간섭을 받는 나라의 인민들은 앉아서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될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 침략과 간섭이 있는 한 그것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불가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그 혁명투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력사의 교훈을 심오하게 밝혀내고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안중근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당대의 선각자들과 함께 처음에는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청소년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도 해보았고 천만원의 빚을 갚아야 국권을 회복할수 있다고 하면서 《국채보상운동》에도 발벗고나섰다. 그리고 우국지사 리준과도 련계를 가지고 그의 활동에도 기대를 걸었다.

우국지사 리준은 서구렬강에 대한 환상을 품고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을사5조약》의 무효를 선언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절규하여 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채 이국땅에서 배를 가르고 비통하게 죽고말았다.

안중근의 서구렬강에 대한 기대는 허무한것이였다.

1907년 일제의 강요에 의하여 조선군대가 해산된후 의병투쟁이 활발히 벌어지자 안중근은 부모처자를 고향에 남겨두고 멀리 원동땅에까지 가서 의병투쟁에도 참가하였으나 그것으로써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일제침략군의 불의의 기습으로 의병부대는 전멸되고 안중근은 이 전투에서 전사한 애국청년 명국이를 그러안고 몸부림친다.

조국의 독립을 이룩해보려는 그 모든 운동과 투쟁이 수포로 돌아가자 안중근은 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을 쏘아죽이는것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할빈역두에서 일제침략자의 우두머리인 이등박문에게 복수의 총탄을 안기고 그놈의 더러운 시체를 짓밟고 《조선만세》를 목청껏 웨친다. 그러나 안중근은 침략의 원흉을 쏘아죽이는것으로써도 국권회복에 대한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과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끝내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형당하는 안중근의 형상을 통하여 영화는 시대와 인민대중이 제기하는 이 물음에 심오한 해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50여년전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공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시였다.

…여러분은 이제 연극에서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조국을 빼앗긴 사람들이 조

Digitized by Google

국을 강탈한 죄많은 침략자를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중근은 강도들의 마수에 희생되였습니다. 오늘 일제침략자들은 강도의 법을 가지고 우리 조선의 수많은 애국자들을 체포, 고문, 학살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참을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데 뭉칩시다! 안중근은 혼자였기에 그것으로 그쳤지만 모두 단결하면 우리의 힘은 강대합니다. 이등박문은 죽었어도 침략자는 그냥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도무리들을 기어코 조국강토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사상적핵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이 작품의 사상적핵을 이루는것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은 혼자의 힘으로나 개인테로의 방법으로는 안되며 오직 옳바른 지도리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광범한 인민대중이 단결하여 투쟁할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는것이다.

그 어떤 혁명투쟁이나 건설사업도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을 조직동원하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수 없다.

안중근이 비록 목숨을 걸고 침략의 괴수 이등박문을 쓸어눕혔으나 그것으로써 문제가 해결된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그가 혼자서 싸웠기때문이였다.

개인테로의 방법으로 이등박문따위를 한두놈 죽일수는 있어도 침략자들을 때려부실수 없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낼수도 없다. 그것은 이등박문놈이 죽었어도 침략자들은 그냥 남아있기때문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파탄시키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침략자의 어느 한 괴수만을 처단하려 할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으로 침략자들을 모조리 쳐물리쳐야 한다.

작품은 참된 투쟁의 길을 찾아헤매는 안중근의 형상을 통하여 아무리 반일애국사상이 높다 하더라도 옳바른 투쟁방도를 찾지 못하고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할 때에는 투쟁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 피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특히 작품은 수난에 찬 투쟁의 길을 걸어온 안중근이 생의 마지막순간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위대한 령도자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리는 숙연한 모습을 통하여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힘있게 강조하여주고있다.

사형을 앞두고 자기의 한생을 총화하는 안중근은 깊은 사색에 잠겨 말한다.

《…나를 옳게 이끌어줄 그런 위인, 그런 영웅은 없었구나. 5천년 력사를 가졌으나 짓밟히고 천대받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고 세계에 당당히 내세워줄 그런 절세의 위인을 한번 만나봤으면…

아, 그런 영웅은 언제나 나타나겠는지…》

이것은 실로 애국에 불타는 심장을 안고 기울어지는 나라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저기로 투쟁의 무대를 옮기면서 싸워온 안중근의 한생의 총화에서 우러나온 간절한 념원이였을뿐아니라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소망이며 지향이였다.

전인민적인 갑오농민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항일혁명투쟁이전시기까지의 모든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옳바른 지도리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가지지 못하고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했던탓으로 하여 그때마다 실패를 면하지 못하였다.

인류해방투쟁의 력사가 증명하여주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어떠한 혁명운동도 그 투쟁을 옳바로 조직하며 령도하는 현명한 정치적수령을 내세우지 못하였을 때에는 승리하지 못하였다.

Digitized by Google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수행의 방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며 계급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는 탁월한 수령만이 대중을 각성시키고 조직적력량으로 결속하여 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것이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안중근의 우여곡절에 찬 투쟁과 피의 교훈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의 출현을 피타게 부르짖는 2천만 겨레의 념원과 시대의 지향을 작품의 마지막에 여운깊이 심어줌으로써 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의 도래를 예언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영화가 가지는 철학적심오성이 있다.

열혈청년 안중근이 그렇게도 념원하던 그 소원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질수 있었다.

진정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이 땅우에는 주체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이 그렇게도 념원하던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이 이룩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이 일떠서게 되였다.

하기에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가슴 부풀어오르는것이며 대를 이어 영원히 수령님께 충성다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원작에 구현되여있는 주체의 혁명원리가 영화에 빛나게 옮겨졌기때문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광범한 인민대중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진리를 심오히 밝혀주고있다.

력사를 창조하는것은 인민대중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저절로 력사의 창조자로, 혁명승리의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있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력사발전의 주체가 되고 혁명투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수령이 과학적인 혁명사상을 창시하여 인민대중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조직화하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기때문이다.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력사적경험이 확증하여주고있는 엄연한 진리이다.

작품은 안중근을 비롯한 20세기초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피의 교훈을 통하여 주체의 혁명관이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뚜렷이 확인하고있다.

력사적사실에 대한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이룩하려면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자각한 수백만 인민대중이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힘있게 반증하여주고있는 바로 여기에 피압박민족, 피압박인민들의 운명과 관련된 근본문제를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옳바르게 밝히고있는 이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경지가 있는것이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는 또한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과 추악한 매국역적들의 형상을 통하여 외세의존과 사대주의는 망국의 길이라는 진리를 력사의 교훈으로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는데 있다.

애국이냐 매국이냐, 민족자주의식이냐 사대주의냐 하는것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초

Digitized by Google

미의 문제로서 이 문제를 놓고 애국력량과 매국세력사이, 애국자들과 사대주의자들사이에 날카로운 투쟁이 벌어져왔다.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력사도 바로 이러하였다.

오랜 세월 봉건의 울타리안에서 잠자던 부패무능한 통치배들은 일본침략자들의 대포소리 한방에 질겁하여 제가끔 외세를 등에 업고 저들의 반인민적통치체제를 유지하려고 피하였다. 그리하여 어떤자는 청나라에 가붙고 어떤자는 짜리로씨야에 매달렸다. 《을사오적》의 무리와 같은 철저한 매국역적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의 충실한 앞잡이로 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놈들을 구세주처럼 떠받들며 일제의 《보호》를 받아야 나라가 번영하고 조선민족이 잘살수 있다고 떠벌이는 리완용,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지 제놈의 부귀영달만을 추구하면서 나라를 팔아먹는것도 서슴지않는 일진회의 두목 송병준을 비롯하여 박제순과 리근택 등 매국역적무리들의 형상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영화는 나라의 정사를 돌보아야 할 위정자들의 사대매국행위를 력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날날이 까밝힘으로써 조정안에 한놈의 사대주의자, 매국역적이라도 들어앉아있는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도탄에 빠지지 않을수 없다는 력사의 교훈을 밝히면서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외세의존과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는것을 격조높이 호소하고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거둔 거대한 사상예술적성과는 구체적인 인물형상과 실재한 력사적사실들을 통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 교활성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한데있다.

영화는 무엇보다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악랄한 해외침략정책, 그들의 야수성과 교활성을 날카롭게 까밝히고있다.

작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등박문은 조선에 기어든 첫날부터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고 잔인하게 학살한 살인자일뿐아니라 이른바 《보호》요 《원조》요 《근대화》요 하는 미명하에 봉건통치배들을 매수하여 《을사5조약》을 비롯한 각종 예속적인 조약을 강요하고 천만원의 차관을 들씌워 우리 인민을 채무노예로 만든 흉악무도한 침략의 괴수이다.

영화는 이등박문의 바로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그 교활성을 예리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일제와 함께 서구렬강들 특히 미영제국주의의 력사적죄행을 날날이 단죄하고있다.

일찌기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면서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하는 한편 저들을 《평화》와 《친선》의 사도로 표방하고 일제의 《보호》하에서만 조선이 《번영》할수 있다고 하면서 일제의 조선침략을 적극 비호하여나섰다.

작품은 이러한 력사적사실들을 다양한 형상방법으로 생동하게 까밝힘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지배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은 위협공갈과 회유기만, 전복과괴활동 등 여러가지 악랄한 수법으로 신생독립국가들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 하고있으며 소위 《원조》의 탈을 쓰고 그 나라의 경제적명맥을 틀어쥐려 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정에 비추어볼 때 이 작품이 시사하는바는 참으로 큰것이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가지는 또하나의 사상예술적성과는 의병투쟁이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본질적인 약점을

Digitized by Google

뚜렷이 밝힘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혁명력사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한데 있다.

영화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여 당시 국내외의 여러곳에서는 의병투쟁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의병들은 명국이와 같이 망국의 울분과 애국의 열정을 가지고 일제를 반대하여 목숨바쳐 싸웠다.

그러나 반일의병운동은 옳바른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을 가지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사상의지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리다툼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상층부의 무능력과 배신으로 하여 무의미한 희생만 내다가 무참히 괴멸되지 않을수 없었다.

락조비낀 황야에 묻힌 명국의 묘앞에 홀로 서있는 안중근의 처참한 모습을 묘사하고있는 장면은 당시 의병투쟁의 본질적인 약점으로부터 흘러나온 응당한 귀결로서 그대로 의병들의 비극적 운명과 의병투쟁의 비참한 실패를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이 영화는 의병들의 생활과 투쟁을 집약적으로 그리면서 그의 본질적인 제한성을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가장 위대한 투쟁,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이라는것을 옳바로 인식하도록 하여준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주체적영화예술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을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하고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요구를 옳게 구현할데대한 우리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 이것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66～67페지)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복잡하게 엉킨 방대한 력사적사건들을 반영하고있는 서사시적인 대장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극의 흐름속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하는것은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원칙에 튼튼히 의거하여 당시의 력사적사변들을 진실하고 생동한 생활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놓고있기때문이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으로부터 1910년 《한일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시기의 방대한 력사적사건들과 그 사건속에 놓여있는 각양한 계층의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그리고있는 이 영화는 작품의 사상주제적요구와 시대의 본질적인 특징을 가장 뚜렷이 체현한 전형적인 력사적사건들과 생활을 골라잡고 그것을 현대성의 견지에서 일반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영화에서 취급된 모든 력사적사건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을 예리하게 까밝히고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정신을 뚜렷이 부각하는 가장 의의있는 전형적인 력사적사건들로 되였다.

례를 들면 일제에 의한 굴욕적인 《을사보호조약》의 체결과 《시일야방성대곡》, 《정미7조약》에 의한 조선군대의 해산과 군인폭동, 《국채보상운동》과 《헤그밀사사건》, 의병투쟁과 할빈역두에서의 이등박문사살 등과 같은 력사적사건들에 대한 예술적일반화가 바로 그러하다.

력사적사건들에 대한 이러한 예술적일반화에 의하여 영화의 형상은 고도로 집약화, 집중화되면서도 뜻깊고 풍만한것으로 될수 있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거대한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것은 방대한 력사적사건들을 취급하면서 그 사건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질과 의의를 형상적으로 진실하게 밝혀내고있기때문이다.

영화에서는 의병투쟁을 취급하면서도 단순히 의병들의 군사활동을 라렬하고

Digitized by Google

있는것이 아니라 당시 의병들의 계급적 구성과 사상적제약성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그것은 두 의병부대가 통합하기 위하여 모여앉은 장면과 《충》과 《효》를 《인륜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적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러 가려는 의병대장의 행동에서 잘 드러나고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 하나의 행동을 통하여 그 전모를 볼수 있게 생활을 그려냄으로써 이 영화는 참말로 내용이 깊고 구성이 째인 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영화에서는 널리 알려진 력사적사건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력사적사건이나 생활적인 일화들도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를 해결하는데 맞게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에서 확대하여 잘 드러내거나 예리화하여 보여주고있다. 자기의 심정을 글에 담는 안중근의 옥중생활이라든가 《을사오적》의 하나인 리근택과 녀종과의 관계 그리고 이등박문과 그의 양딸 배정자와의 관계 등이 바로 그러하다. 이 사실들과 인간관계들은 그 당시의 력사에 비추어볼때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하나의 자그마한 일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이러한 사실들과 일화들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집약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의 시대상을 더 잘 알게 하고있을뿐아니라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전인민적인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크고 깊으며 일본제국주의의 피수 이등박문의 침략수법이 얼마나 로회하고 악랄한가 하는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고있다. 이와 같이 력사주제의 작품에서는 그것이 비록 널리 알려지지 않은 력사적사실이거나 생활일화라 하더라도 현대성의 견지에서 전형화하여 생동하게 그려낼 때 그 사실자체의 심오한 사상적의의가 더욱 부각될뿐아니라 작품전체의 사상성과 예술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창작원리를 무시하고 널리 알려진 큰 사건만을 따라가면서 등장인물들의 정치생활이나 보여주는데 그치고 리근택과 녀종과의 관계, 이등박문과 배정자와의 관계를 깊이 파고들지 않았거나 안중근이 옥중에서 자기의 의분과 지향을 《약육강식 풍진시대》, 《제일강산》과 같은 활달한 필치로 담아내는 실생활자료들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작품이 지금과 같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과 커다란 예술적감흥을 안겨주지 못하였을것이다.

이 혁명영화에서 특징적인것은 력사와 인간을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형상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이등박문의 행동선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침략사를 보여주고 《을사오적》들의 행동선을 통하여 조선의 망국사를 보여주고 안중근의 행동선을 통하여 당시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인 반일투쟁과 그 제한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서 잘 드러난다.

영화에는 안중근의 활동을 주선으로 하여 모든 인물선들이 형상되여있다. 그러나 안중근과 이등박문, 안중근과 《을사오적》들 사이에 개인적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있는것은 아니였다. 그러므로 이등박문과 《을사오적》들의 행동선에 안중근을 직접 관여시킬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이등박문과 《을사오적》들의 행동선이 안중근의 행동선에 밀접히 맞물리도록 잘 구성하고있다.

이것은 안중근으로 하여금 이등박문의 침략적행동과 《을사오적》들의 매국적죄행의 결과를 직접 체험시키고 놈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화면을 옳게 편집하고 감정조직을 잘하였기때문이다.

혁명영화는 력사와 인간을 그림에 있어서 극의 줄거리를 한 개인의 인정선으로 끌고가거나 망국의 력사로 새겨진 사건선만으로 끌고간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밀착시키고 사건선과 인정선을 예술적으로 조화되게 다같이 끌고나가고있다. 다시말하여 영화는 안중근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그 어떤 인정선을 기본으로 그리거나 안중근자

Digitized by Google

신의 일대기를 전기식으로 취급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력사의 과제를 안고 로대기는 주인공의 모습을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의 흐름속에서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혁명영화는 일제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거족적인 투쟁도 있고 빼앗긴 조국과 수모받는 부모처자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처절한 투쟁속에 생활의 향취도 있는 기름진 예술적화폭으로 될수 있었다. 기름지고 참신한 예술적화폭을 창조해낸 바로 여기에 거대한 력사적사건속에 인간의 운명선을 묻어버리거나 한 인간의 운명선에 의의있는 력사적사건들을 묻어버림으로써 력사도 인간도 생활도 어느것 하나 똑바로 그려내지 못했던 종래 력사주제작품의 약점을 완전히 극복한 이 혁명영화의 새로운 예술적경지가 있다.

이처럼 혁명영화는 력사와 인간을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형상함으로써 내용이 심오할뿐아니라 규모에서도 큰 대작으로 되게 되였다.

내용을 대작으로 만드는데서 중요한것은 주인공들의 성격장성과 의식발전과정을 통하여 시대와 혁명 발전의 본질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밝혀내는것이다.

영화에서 제기된 기본문제는 열혈청년 안중근의 우여곡절에 찬 투쟁로정과 비극적인 최후를 맞으며 체험하는 그의 의식발전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면서 풍부한 사상적내용으로 확대심화된다. 그러므로 작품의 기본문제가 커다란 사상적내용으로 심화되는 과정은 안중근의 사상의식이 발전하는 과정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안중근은 우여곡절에 찬 투쟁을 거쳐 사형직전에 이르러 마침내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탁월한 령도자의 출현을 목마르게 갈망하게 된다. 이처럼 영화는 투쟁속에서 사상적으로 각성되는 안중근의 정신세계를 통하여 혁명의 근본문제, 그 승리의 결정적담보에 대하여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이 영화는 내용이 심오한 혁명적대작으로 되게 된것이다.

그러나 이 혁명영화는 내용에서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완벽한 대작이다. 그것은 이 영화가 사건의 규모가 크고 길이가 긴 작품일뿐아니라 그 형식이 내용에 맞게 조화롭게 째여있기때문이다.

영화는 당시의 중요한 력사적사건들을 폭넓게 담으면서도 그것들을 기록적으로 라렬하지 않고 인물선에 국적으로 맞물리게 하였다. 력사기록적인 화면들이 영화에 많이 삽입되면서도 그것들이 토막나지 않고 인물들의 행동선과 밀착되여 당시의 시대상과 우리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거둔 빛나는 성과는 원작의 높은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을, 조금도 손상시킴이 없이 훌륭하게 영화화면에 옮기였다는것을 확증하여준다.

혁명영화의 이러한 성과는 대담하고 독창적인 연출형상을 비롯하여 연기와 분장, 촬영과 미술 등 형상전반의 조화로운 통일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치생활에서와 우리나라의 영화예술과 문학예술 전반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영화는 무엇보다먼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지난날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앞에서 저지른 죄악의 력사를 고발하고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매국배족적 행위를 준렬히 단죄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반제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며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은 오직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성취될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밝힌것으로 하여 민족해방, 계급해방 위업에 떨쳐나선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

Digitized by Google

있게 고무하게 된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영화로 빛나게 옮겨진것은 주체의 문학예술발전에서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영화는 원작이 체현하고있는 위대한 주체철학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빛나게 구현한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지도밑에 이룩된 영화예술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내용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며 우리 나라의 영화예술과 문학예술전반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리정표로 된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이처럼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상예술적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의 문학예술, 공산주의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영화예술에 지도를 집중하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기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주체영화의 불멸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였으며 그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영화예술을 가일층 발전시키도록 정확히 이끌어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세련된 지도가 있었기때문이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이룩한 빛나는 사상예술적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준다.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적문예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영화예술은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거둔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보다 높은 단계에로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쳐나갈것이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Digitized by Google

부문구조를 완비하는것은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과업

리 봉 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2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시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그 기본과업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침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데 대한 방침이다.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데 대한 방침은 인민경제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높이는데서 부문구조를 완비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민족적자주권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하고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데 대한 방침의 본질과 정당성, 그 수행방도를 옳게 인식하고 우리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여나가는것은 오늘 우리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 *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는것은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부문들과 기업소들을 보강하고 완비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개선하며 대규모기업소들과 중소규모기업소들을 계속 병행하여 발전시키며 나라의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특히 지방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60페지)

공업은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이며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규정하는 물질적 기초이다.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인 로동도구는 전적으로 공업이 생산공급하며 로동대상의 압도적부분도 공업생산물이다. 공업이 생산공급하는 로동도구가 없이는 생산의 기술적기초를 변혁할수 없으며 현대적생산과정 그자체가 이루어질수 없다. 매개 나라의 생산력수준, 경제발전수준은 공업이 생산공급하는 로동도구의 발전정도에 따라 중요하게 규정된다.

인민경제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이러한 지위와 역할은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다른 하나인 농업까지도 포함한 그 어떤 경제부문도 절대로 대신할수 없으며 생산이 현대화되고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공업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더 커진다.

공업이 인민경제발전의 물질적기초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려면 그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립성과 주체성이 보장된 공업은 자체의 생산으로 공업생산물에 대한 자기 나라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는 공업이며 주로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공업이다.

이러한 공업은 무엇보다 새로운 생산부문을 창설하고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데 필요한 기술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함으로써 경제의 종합

Digitized by Google

적이며 다방면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하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주동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자립성과 주체성이 보장된 공업은 또한 원료, 자재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안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여나갈 때만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들이 원만히 관철될수 있으며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떠나서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오직 자립성과 주체성이 보장된 공업을 가진 나라만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철저히 지킬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그러므로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데 대한 현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공업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는것은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자체원료에 의거하는 공업을 발전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4페지)

부문구조를 완비하는것이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나서는 공업생산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물질적전제를 마련해나갈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것은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며 이것은 부문구조를 완비하여야 원만히 실현된다.

부문구조란 사회총생산물가운데서 인민경제의 매개 부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부문들사이의 생산적련계를 보여주는 경제적범주이다. 따라서 완비된 공업의 부문구조는 중요하게 갖출것은 다 갖추고있는 공업의 다면성으로 나타난다. 원료채취부문으로부터 가공부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계설비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생산부문으로부터 소비품생산부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공업부문들을 다 갖추어나가는것이 바로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여나가는 과정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부문구조를 완비하여 공업의 다면성을 보장하는것은 곧 공업생산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마련해나가는 과정으로 되며 부문구조의 완비는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로 된다.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는것은 또한 공업을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그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공업을 건설하는것은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이것은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부문구조의 완비정도는 공업의 다면성뿐아니라 그 자주성을 통하여서도 나

Digitized by Google

타난다. 아무리 필요한 부문들을 다 갖추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한것이라면 안전한 기초우에서 발전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공업은 부문구조가 완비된 공업이라고 말할수 없다. 오직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공업만이 부문구조가 완비된 공업으로 될수 있으며 자주적인 부문구조를 가진 공업을 건설하는 과정에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화된다.

이처럼 부문구조를 완비하는 사업을 통하여서만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할수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계속 튼튼히 할수 있다. 부문구조를 완비하는 사업과 공업의 자립성, 주체성을 강화하는 사업은 동일한 과정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할뿐아니라 그 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공업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공업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여야 전반적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를 앞당겨건설할수 있다.

공업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데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요구는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공업부문들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설정할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빠른 발전을 보장한다.

부문구조와 균형 및 생산발전속도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합리적인 부문구조는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의 전제이며 생산의 빠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에서 주되는것은 물론 속도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균형문제의 옳은 해결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수 없다. 균형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제부문들과 생산의 제요소, 고리들 사이의 합리적인 련계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생산은 혼란되고 막대한 사회적로동이 랑비되게 된다.

균형문제는 그 어느 부문보다 부문내부구조가 복잡하고 밀접한 공업부문에서 특히 중요하게 나서며 공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공업이 발전하여 새로운 부문들이 끊임없이 창설되고 사회적분업이 심화되는데 맞게 부문들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공업의 빠른 발전을 계속 보장할수 있다.

완비된 부문구조를 가진 공업은 필요한 모든 공업부문들이 다 갖추어지고 부문들사이의 량적호상관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공업으로서 그자체가 균형성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다. 또한 그것은 주로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의 련계를 보장하고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공업으로서 균형문제를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게 한다. 따라서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는것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업부문들사이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맞추어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공업의 끊임없는 빠른 발전을 보장한다.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는것은 또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공업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사업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그 하나는 이미 도달된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력을 한계단 더 높여 리용

하는 측면이다. 도달된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는것은 생산조직, 로동조직을 개선하고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대주는것 등을 통하여 해결되며 생산능력을 한계단 더 높여 리용하는것은 일부 약하거나 불비한 부문들을 보충하고 그 담모를 늘이는것 등을 통하여 해결된다. 여기에서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이 최대로 발휘될수 있도록 원료와 자재를 대주는것은 주로 가공공업부문과 채취공업부문사이의 량적호상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며 불비한 공정들과 부문들을 보충완비하는것은 공업부문들의 구성상 부족점들을 없애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이미 마련된 공업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주로는 그의 부문구조를 완비하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을 보여준다.

부문구조를 완비하여 공업부문들사이의 균형문제를 옳게 풀고 이미 마련된 공업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면 생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은 힘있게 다그쳐지게 된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데 대한 방침은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혁명적인 방침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문구조를 완비하여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부문구조를 완비하여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마련된 공업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사업과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은 이미 있는 공업의 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면서 그것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며 모든 공업부문들을 더욱 현대화, 과학화하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504페지)

이미 마련된 공업의 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면서 그것을 확대하고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는것은 부문구조를 완비하여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인 념원이며 한결같은 지향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이러한 념원은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빛나게 실현되여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그리고 객관적조건이 변하는데 맞게 자연의 구속에서 하루빨리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를 제기하며 자신의 힘과 지혜로써 그것을 실현해나간다. 다시말하여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성과에 기초하여 이미 있는 경제부문들의 기술공정을 보충하고 개선하며 전에는 없던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끊임없이 창설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에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품종이 다양해지며 그 생산량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자기의 지배범위를 확대하면서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다.

과학과 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이미 있는 공업의 토대를 보강하고 확대하며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나가는 과정은 부문구조를 완비하는 합법칙적 과정이다.

부문구조를 완비한다는것은 언제나 상대적이다. 일정한 력사적단계에서 이

Digitized by Google

루어진 공업의 부문구조가 아무리 합리적인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에 도달된 과학과 기술의 발전수준,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의 수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것이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부문구조는 새롭게 개선되고 완비되게 된다. 부문구조의 새로운 개선과 완비는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고 이미 있는 공업의 토대를 보강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이미 마련된 공업의 토대를 보강하고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채취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가공공업의 생산잠재력은 대단히 크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만 한다면 짧은 기간에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우리 나라 가공공업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거기에 원료와 연료를 충분히 대주어야 한다.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가공공업에 원료와 연료를 충분히 대주는 여기에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이미 있는 공업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채취공업에 선차적 힘을 넣어 석탄과 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지금 있는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중소규모탄광들을 많이 개발하여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특히 매장량이 많고 전망이 좋은 안주지구탄광들에 화력을 집중하여 이 지구의 탄광들에서 올해에 지난해보다 석탄생산량을 2배로 늘이며 가까운 앞날에 석탄생산능력을 1,500만톤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광업부문에서는 무산광산, 검덕광산을 비롯하여 매장량이 많고 발전전망이 큰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새로운 대규모광산들과 중소규모광산들을 적극 개발하여 철광석과 여러가지 유색금속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탐사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전망탐사와 현행탐사를 강화하며 탄광, 광산들에서 박토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갱도의 현대화, 영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채취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여 탄광, 광산들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며 우리 나라 지질조건과 광물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탐사방법과 채굴방법, 선광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이리하여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우리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해나가야 하며 경제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이미 마련된 공업의 토대를 보강하고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새로운 기계공업기지들을 꾸리고 이미 있는 기계공업의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계공업은 공업의 심장이며 기술혁명의 기초이다.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공업자체는 물론 전반적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새 전망계획에 예견된 기계공업기지들을 빨리 꾸리고 기계공업의 내부구조를 더욱 완비하기 위하여 적극

Digitized by Google

투쟁하여야 한다.

기계공업의 발전은 금속공업의 발전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우리는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여러가지 금속자재들을 규격별, 재질별로 충분히 대줌으로써 기계제품의 질을 높이고 기계공업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금속자재에 대한 수요도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화학비료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늘이고 린함량이 많은 중과석비료를 생산하는 기지를 새로 꾸리며 우리 나라 원료에 기초한 카리비료생산기지와 합성고무공업기지를 꾸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거나 이미 있는 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분야의 과업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국내원료에 의거하는 공업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나라마다 자연부원의 상태가 다르고 기술발전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자기 나라 경제건설에 필요한 모든 원료와 자재를 다 자체로 생산하여 쓸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소요량이 많거나 국내의 것으로 대용하여쓸수 있는것은 대담하게 국내원료에 의거하는 공업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주적인 공업부문구조를 갖추기 위한 원칙적요구이다.

우리는 콕스생산에서 국내연료의 배합비률을 더 높이고 조강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늘이며 우리 나라 연료에 의한 야금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 풍부한 무연탄으로 공업의 늘어나는 연료수요를 충족시키며 무연탄에 기초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리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당면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그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생산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기 위하여 나서는 여러가지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이 사업에 대한 관점을 똑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이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올해의 전투를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문구조를 완비하여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사업은 큰 규모의 기본건설과 여러가지 복잡한 기술경제적과업들을 련이어 수행하여야 하는 어렵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이 부문구조를 완비하는 사업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나라와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이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며 따라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결심과 신심을 가지고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인민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하며 우리 나라를 보다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이 보람찬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하여 사업을 연구하고 짜고들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며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

Digitized by Google

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 페는 굳은 결심을 가져야 할뿐아니라 과학기술지식수준과 경제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아무리 각오가 좋고 결심이 확고하다 하더라도 나라의 경제형편과 그 발전전망, 발전하는 현대과학기술의 추세를 잘 모른다면 그러한 일군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나라의 경제형편과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잘 알아야 공업의 어떤 부문을 새로 창설하여야 하고 어느 공정이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에 뒤떨어져있는가를 제때에 포착할수 있으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겠는가 하는 대책을 옳게 세울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앞장에 서서 꾸준히 배우고 노력하여 자신의 과학기술지식수준과 경제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고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보다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합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5페지)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들은 모두가 과학기술의 성과를 리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된다. 새로운 공업부문을 창설하는 사업도 이미 있는 공업부문들을 보강하고 기술공정을 개선하는 사업도 다 과학기술발전의 성과들을 받아들이고 일반화하는 과정으로 된다.

일군들은 과학연구기관과 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연구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거둔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에 받아들이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나라의 경제형편과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과학연구과제를 옳게 규정하여 모든 연구사업이 우리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철저히 이바지하는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매우 영예롭고 보람찬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가져다준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의 통일전선사상과 그 불패의 생활력

최 길 산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분렬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이 중대한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광범한 애국력량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우리 당의 통일전선방침은 그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을 빛나게 구현하는것은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굳게 결속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확립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혁명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그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독창적인 통일전선사상이다.

혁명투쟁에서 통일전선사업은 광범한 대중을 굳게 결속하여 강력한 힘을 마련함으로써 혁명투쟁의 승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력량관계를 옳게 타산하여 혁명력량을 잘 편성하여야 합니다. 통일전선문제는 대중을 전취하며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문제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497페지)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대중자신의 사업이다. 혁명은 그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울 때만이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의 승패는 결국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혁명투쟁에 얼마나 어떻게 참가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력량을 옳게 편성하는 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전략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통일전선에 관한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반혁명력량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문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결속하기 위한 통일전선사업을 옳게 벌려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특히 통일전선사업은 우리 나라 혁명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지난날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오래동안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있었으며 공화국남반부는 오늘도 의연히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남아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는 30년이상이나 분렬된 상태에 놓여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험은 커가고있다.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와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계급적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취하여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워야 하며 그들의 힘을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통일전선문제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며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 그리고 제국주의나라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 등은 모두가 통일전선적지반우에서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우리 혁명과 우리 시대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가장 옳바른 통일전선사상을 제시하시여 혁명승리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전선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새롭고 독창적인 통일전선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은 통일전선운동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나가는것을 혁명의 전략적원칙으로 규정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통일전선사상에서는 통일전선사업을 혁명에서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광범한 세력들과 한때는 손을 잡고 다른 때는 그들을 떼버리는 식의 하나의 전술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손잡고나가는 원칙적문제로, 전략적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로동자, 농민들만이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모두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성스럽고 거창한 사업이다.

따라서 통일전선은 혁명투쟁의 준비단계로부터 혁명을 수행하는 단계와 혁명의 승리를 공고화하는 단계에까지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그것은 로동자, 농민과 함께 각계각층 인민들을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까지 이끌어가는 사업으로 될 때만이 진정한 통일전선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전선문제를 단순한 일시적인 전술적문제로가 아니라 민족해방혁명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는 물론 사회주의혁명에서도 계속 유지강화하여야 할 전략적문제로 제시하시였다.

물론 혁명의 심화발전에 따라 통일전선의 성격과 목적 및 그 대상에서의 변화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혁명투쟁의 심화발전에 따라 통일전선의 성격과 목적이 달라진다고 하여 한때에 손잡고 함께 싸워온 벗들을 다른 때에 가서는 배제하거나 지어 차버리기까지 하고 다시 새로운 벗들과 손을 잡는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의 통일전선사상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지 않고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계속 지지해나서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까지 이끌어가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의 통일전선방침은 민족의 자주력량강화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데서 종래의 통일전선사상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우리 당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자주성옹호에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광범한 세력들을 민족의 자주력량, 민족주체적력량의 기본구성부문의 하나로 보고있으며 통일전선사업을 주체적력량과 반동세력간의 력량관계에서 주체적력량의 우세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위력한 투쟁의 무기로 삼고 있다.

나라에 따라 일련의 특성과 차이점은 있을수 있으나 사회에는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광범한 각계각층의 군중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로동자, 농민들을 묶어세우는것과 함께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여 자주성옹호에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광범한 세력들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며 그들의 책임과 역할을 최대한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만 민족의 자주세력, 민족자체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옹호하고 확고하게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통일전선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통일전선사상은 서로 다른 력사적조건과 각이한 혁명발전단계에서 나서는 통일전선사업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해명을 주고있다.

여기에는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시기와 주권전취이후시기의 통일전선사업,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시기의 통일전선사업 그리고 분렬된 나라 혁명에서의 통일전선사업과 세계혁명에서의 통일전선사업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 또는 세계적인 범위에서 제기되는 통일전선사업의 전반적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해명이 과학적으로 주어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에는 또한 통일전선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 통일전선의 형태와 그 특성, 서로 다른 통일전선조직들의 성격과 임무, 통일전선의 강령과 그 실현방도 등 모든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참다운 애국애족사상이며 광범한 인민대중모두를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고 그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옳바른 혁명사상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와 매 단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을 굳게 묶어세우심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내놓으시고 광범한 반일군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시여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광복회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을 묶어세움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고 무장투쟁을 강화할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의 전반적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50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카륜회의에서 당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 사회계급적관계와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1936년 5월에는 우리 나라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광범한 반일군중들을 통일전선에 굳게 묶어세우시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당시 우리 나라에는 사회계급적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조성되여있었다.

여기에다 당시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는 공산주의운동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사대주의에 물젖어 당파싸움만 일삼다가 결국 나라를 일제에게 먹히운 쓰라린 력사적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대중과 리탈되여 상층부의 몇몇 사람끼리 모여앉아 말공부만 하면서 3인 1당, 5인 1파식으로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자파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파쟁에만 몰두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엄혹한 사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소 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부닥친 난국을 하나하나 타개해나가시는 한편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시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군중들을 묶어세우시기 위한 통일전선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가 하나로 뭉쳐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며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군중들은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굳게 결속되게 되였으며 그처럼 완고하였던 민족주의자들과 《유지》들 그리고 종교인들까지도 위대한 수령님의 원숙한 정치적식견과 철저한 반제혁명정신, 사리정연한 론리와 정당한 주장,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높으신 인품에 탄복하여 반일공동전선에 나서게 되였다.

지어 일제와 반동군벌들의 반공선전과 민족리간책동에 속아넘어가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던 사람들까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반일공동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을 념원하는 각계각층의 수많은 반일군중이 굳게 결속되게 됨으로써 대중적지반우에서 항일무장투쟁을 강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전반적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마침내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의 총동원으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토대하시여 해방후 변천된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 맞게 통일전선사업을 계속 강화해나가심으로써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을 굳게 결속하여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혁명과업을 수행할 때에도 통일전선을 했고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도 통일전선을 하고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전선은 언제나 인민의 리익에 기초한 통일전선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138페지)

해방직후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

Digitized by Google

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파들은 세계제국주의세력의 음모책동에 발맞추어 새 조선 건설을 방해하려고 미쳐날뛰였다. 특히 반동분자들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게 되자 그에 기대를 걸고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였다.

친일친미파들과 민족반역자들은 반동세력을 규합하여 각종 반동적 정당들과 단체들을 조작해내고 민족의 애국력량을 분렬시키며 인민대중을 반동의 길로 끌어가려 하였다.

그뿐아니라 혁명의 배신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어중이떠중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보다 자기 개인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앞세우고 혼란된 정세를 리용하여 인민들을 자기편에 끌려고 하면서 근로대중의 조직적결속을 방해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정세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시고 새 조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통일전선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민족반역자들과 반동분자들의 온갖 음모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단결된 력량으로 새 사회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직후에 벌써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나라의 완전독립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력량을 굳게 묶어세우심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빛나게 완수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와서도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밀접히 결합시켜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함께 손잡고 싸워온 각계각층 군중들을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굳게 묶어세우도록 하심으로써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사업을 짧은 기간안에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확립을 위한 투쟁의 앞길에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해방후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애국적민주력량을 탄압하고 반동들을 그러모으면서 민족분렬책동에 미쳐날뛰였다.

여기에다 각양각색의 정당들이 나타나 저마다 대중을 더 많이 끌어당기려고 하였으며 종파분자들도 저들의 더러운 종파적야욕밑에 저저마다 자기의 종파적지반을 꾸리면서 민족의 애국력량을 분렬파괴하려고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 앞에 조성된 바로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하루빨리 가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각당, 각파들이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현상을 그만두고 그가 과거 공산주의운동을 했건 민족주의운동을 했건, 국내에서 투쟁했건 국외에서 투쟁했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관계없이 참말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손을 잡고 합작할데 대한 통일전선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애국애족적인 통일전선방침에 따라 민족분렬의 위험이 커가고있던 때인 1948년 4월에 마침내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가 열릴수 있게 되였으며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국난을 타개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정치협상을 하게 되였다.

민족적단결과 구국통일의 숭고한 리념에 따라 해방후 처음으로 마련된 전민족적인 정치협상회의인 4월남북련석회의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철저한 반제

Digitized by Google

애국애족사상과 비할바없이 넓은 도량과 높은 인품에 끌리여 38선을 넘어온 저명한 민주인사들과 지어 오래동안 반공을 일삼아온 완고한 민족주의거두들까지도 참가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북과 남의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오직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차이점은 뒤로 밀고 하나의 공통적인 민족적리념을 앞세우고 허심탄회하게 공동의 구국대책을 협의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망국적 단독선거를 파탄시키고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방침을 일치하게 지지찬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은 전체 조선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찬동을 받고있으며 지난 1월 23일에 발표된 4개 항목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성명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은 내외인민들로부터 더욱더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물론 야당과 민주인사들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 있는 해외동포들과 진보적인민들 속에서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적차원》에서 《범국민적운동》으로 자유로운 론의를 통하여 《국민스스로》 해결할데 대한 주장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력사적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이 민족의 자주권확립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으며 우리 당의 주체적인 통일전선방침을 구현하는 바로 이 길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남김없이 확증해주고있다.

3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80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갈라진 첫시기부터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굳게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민족적숙원인 조국의 통일은 아직 이룩되지 못하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험은 더욱더 커가고있다.

영구분렬의 위험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 민족자주력량을 굳게 묶어세우기 위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이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을 굳게 묶어세우는 바로 여기에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그것은 온 민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전민족적인 력량이 단합되고 발동될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는 거족적인 사업이다.

조국통일문제는 그자체의 거족적인

Digitized by Google

성격으로 하여 그 어떤 개별적인 당과나 당국자들끼리만 모여앉아가지고서는 도저히 옳게 해결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측이 고집하고있는 《당국자회담》이란 대화에서 각당, 각파의 대표들을 제외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는 《권력만능》의 독선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것이며 대화를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가 아니라 《두개 조선》정책의 한갖 롱락물로 만들자는것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조국통일문제는 어떤 당과나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북과 남의 여러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대표들까지 포함한 온 민족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흉금을 털어놓고 협의하여야만 정당하게 해결될수 있다.

오직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굳게 단합되여야만 조국통일위업은 온 민족의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이룩될수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동포들까지 망라하는 전민족대회를 소집하며 전민족적대화를 위한 예비적 협의기구로서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우리의 제의는 조국통일문제를 온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가장 옳바르게 해결하려는 철저한 애국애족사상과 참다운 동포애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공통된 리념,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공산주의리념이나 자본주의리념을 들고나올것이 아니라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야만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제도와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결코 그것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이 단결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지 못할 조건으로는 되지 않는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결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냐 하는 투쟁인것이 아니라 침략과 피침략과의 투쟁, 애국과 매국과의 투쟁이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통된 하나의 리념, 민족적리념을 앞에 내세우고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허심탄회하게 나설 때 민족의 대단결은 성과적으로 이룩될것이며 전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위업은 빨리 앞당겨질것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조국통일을 위한 로정에서 우리 인민이 먼저 다달아야 할 첫 목표인 민족적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앞당길수 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서로 다른 제도에 기초하고있는 북과 남이 당장 제도상의 통일, 사상의 통일을 이룩하기는 물론 어려운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본래부터 한나라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으면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구애되여 북과 남으로 언제까지나 갈라져있을수도 없는것이며 또 자기의 제도와 사상을 상대방에 강요하는 방법으로 통일할수도 없는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우리는 당장에는 서로 다른 제도상의 통일, 사상의 통일에 앞서 먼저 민족적통일부터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조국통일의 가장 중요한 담보로,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되는것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나라의 통일

문제가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원칙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수 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단결과 합작, 통일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대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이 이 정당한 제의를 외면하고 《대결》과 《경쟁》, 《공존》만을 부르짖는다면 나라의 통일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부르짖고있는 《대결》과 《경쟁》은 북과 남사이에 민족적화해와 신뢰가 아니라 오해와 불신만을 증대시키며 한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단일한 우리 민족이 단결하고 합작할수 없게 함으로써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 더욱 엄중한 난관을 조성할뿐이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민족분렬의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이 비정상적인 사태를 더는 지속시킬수 없다.

북과 남이 대결과 경쟁을 할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리념,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합작하여야 하며 이 길만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통일전선사상이 있고 그 원칙이 있고 고귀한 실천적경험이 있으며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그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있는 이상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능히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전민족적인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통일독립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여러 정당, 단체 및 개별적인사들 그리고 모든 해외동포들은 하나로 굳게 뭉쳐 북반부인민들과 손잡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의 당국자들도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조국통일의 앞길에 이러저러한 장애와 난관을 조성할것이 아니라 우리의 폭넓은 대화에 지체없이 응해나서야 할것이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통일전선방침에 따라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단합된 전민족적인 력량으로 조국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자.」

Digitized by Google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외곡하는 현대 부르죠아철학의 반동성

김 창 렬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거세찬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아보려고 로골적인 반혁명적폭력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극히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리론들을 날조하여 대대적으로 퍼뜨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대중에게 자기들의 부패한 사상을 침투시키며 그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387~388페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류포되고있는 반동적인 《리론》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고있는것은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본주의제도의 교활한 변호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 수단인 현대부르죠아철학의 반동적설교이다.

철두철미 제국주의의 지배의 도구로 복무하고있는 실용주의, 《생의 철학》, 실존주의를 비롯하여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잡다한 모든 류파들은 이미 력사의 심판에 의하여 규탄되고 매장된 극히 반동적인 사상들을 끄집어내여 잡다한 《리론》들을 날조해내고있으며 그 선전에 미쳐날뛰고있다.

특히 현대부르죠아반동철학의 류파들은 이른바 《철학의 인간학적전환》, 《인간철학》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사람의 참된 가치와 존엄을 외곡하는 황당한 철학적궤변들을 늘어놓는데 몰두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 적지 않게 류포되고있는 이러한 부르죠아반동철학조류들은 그모두가 교활한 궤변을 통하여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외곡하고 인민들속에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세계관, 썩어빠진 부르죠아적인생관과 부르죠아생활양식을 주입시키려고 애쓰고있다.

사람에 대한 현대부르죠아철학의 반동적설교의 기만성과 해독성을 철저히 폭로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혁명적사상공세를 짓부시며 우리 내부에 그 영향이 침습해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대부르죠아반동철학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본질을 생물학적본성에 귀착시킴으로써 사람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외곡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의 가장 극악한 류파를 이루는 실용주의, 《생의 철학》, 프로이드주의와 같은 반동철학은 사람은 자기의 생물학적요구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서로 물고뜯고 싸우는 야수와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마치도 사람의 본질이 인간의 생물학적《본능》이나 육체적《생명》 그자체에 있는것처럼 묘사하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실용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질이 《자기보존성》과 같은 생물학적본성에 있으며 인간의 목적은 각자가 현실에 잘 적응하며 육체적인 《자기 보존》과 개인의 《리익》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설교하고있다. 이자들은 사람을 그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있다고 하는 《소유본능》, 《경쟁본능》, 《호전본능》, 《자기 보존의 본능》 등 가지각색의 《본능》을 체현한 《본능의 묶음》이라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전형적인 과쑈의 철학인 《생의

Digitized by Google

철학》의 제창자들은 사람이란 곧 《생명》이며 그 근본속성은 《생의 요구》, 《생의 의지》, 《생의 충동》과 같은것이라고 허황하게 떠벌이고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생의 요구》라는것은 성욕이나 식욕과 같은 생물적본능이외의 다른것이 아니라는것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인간은 구체적인 성욕이라고 말할수 있다.》, 《생의 본능이 시키는 행위만이 옳은 행위로 될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동물적본능에 귀착시키고있다. 지어 사람을 욕망충족에 광분하는 동물적존재로 보며 사람들의 사회생활과 짐승무리사이에는 아무런 원칙적차이가 없다고 줴치고있다.

사람을 순수한 생물학적존재로 보고 사람의 본질을 생물학적본성에서 찾는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설교는 철두철미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것이다.

사람의 본질은 결코 생물학적본성에 있는것이 아니며 육체적생명만을 아는것은 참된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며 사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페지)

사람은 여러가지 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적존재이다. 따라서 계급사회에서 사람은 계급적관계에서 벗어난 그 어떤 존재로 될수 없으며 더우기 《초계급》적인 생물학적존재로 고찰할수 없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며 사람의 본질적특성도 바로 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부르죠아반동철학의 설교와는 반대로 참된 사람은 사회적관계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남의 노예가 되여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자유를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싸우다 죽는것을 몇배나 더 영예로운것으로 생각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피압박민족들과 피착취인민들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현실은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부르죠아반동철학이 인간의 본질을 생물학적본성에 귀착시키고있는것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본능적인 향락만을 추구하는 썩어빠진 부르죠아적생활관점을 미화하고 약육강식의 동물적관계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적사회관계를 합리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부르죠아반동철학자들은 사람의 본질을 생물학적본성에 귀착시킴으로써 사람들을 온갖 사회계급적관계와 륜리도덕적규범을 무시하는 극단한 허무주의와 패덕주의에 빠지게 하며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에 대한 자각을 마비시키고 순간의 안일과 육체적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저속한 생활태도를 부식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인간의 본질을 생물학적본성에 귀착시키는 현대부르죠아반동철학의 설교는 또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 파쑈적전횡을 《리론》적으로 근거 지어주는데 리용되고있다.

야수성으로 일관된 니체철학의 제창자들은 반동적인 《생존의지》설에 자연도태설과 생존경쟁론을 덧붙여 이른바 《권력의지》라는것을 날조해냄으로써 세계에는 모든것을 강탈하고 략탈하는 자본가계급의 포악무도한 《의지》만이 존재하며 그밖의 모든것은 《허위》이고 《무》라는 반동적인 사상을 끌어내고있다. 그들은 《권력의지》설을 바탕으로 하여 외부세계의 합법칙성을 인식하고

Digitized by Google

세계를 개조변혁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근로인민대중을 악랄하게 모독하면서 인간증오사상을 설교하고 제국주의적파쑈테로독재를 극구 찬양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궤변을 기초로 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 《강자》에 의한 《약자》의 《도태》, 포악무도한 제국주의광신자들의 무제한한 파쑈적전횡을 《자연법칙》에 맞는것이라고 떠벌이고있으며 제놈들의 강도적 침략과 략탈을 정당화하려 하고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생물학적본성에 귀착시키는 현대부르죠아반동철학의 주장은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본성을 대변한것이며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관점을 표현한것이다.

지난날 히틀러나 무쏠리니와 같은 극악무도한 파쑈광신자들이 바로 《생의 철학》을 제놈들의 직접적인 사상리론적수단으로 삼았으며 오늘날 미제국주의자들이 실용주의를 제놈들의 어용철학으로 적극 내세우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의 본질을 생물학적관점에서 보는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설교가 근로인민대중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건전한 의식을 좀먹는 반동사상독소로 될뿐아니라 썩어빠진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우고 그것을 미화하며 제국주의자들의 파쑈적전횡을 변호하는 추악한 사상적도구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사람에 대한 현대부르죠아철학의 반동적궤변은 또한 사람을 순수한 《개체적존재》로 묘사하면서 극단한 부르죠아적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비관과 절망, 현실도피의 사상독소를 퍼뜨리는것이다.

이른바 《인간철학》을 자처하는 실존주의를 비롯한 현대부르죠아반동철학의 주관관념론류파들은 오늘 날로 높아가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에 교묘하게 편승하면서 인간의 본질적특성을 파렴치하게 외곡해나서고있다.

실존주의자들은 사람을 외부세계, 사회관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단독자》, 추상적인 존재로 외곡하며 그 어떤 《주관적인 자아》, 《정신적인 자아》로 날조한다.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외곡날조된 사람의 존재상태는 《불안》, 《절망》, 《죽음》이라고 한다.

실존주의자들은 현실과 떨어져 주관적인 내면세계에만 몰두하는 《단독자》와 같은 고독하고 비관적인 존재만이 참된 인간적존재이며 그러한 인간만이 자유로운 개성적존재라고 허황하게 설교하고있다. 그들은 현실적인 인간, 구체적인 사회관계속에서 살고있는 근로인민대중을 무개성적인 《무리》라고 모독하고있으며 사람은 구체적인 사회관계를 《초월》하여 《단독자》로 존재하게 될 때만이 참다운 인간으로 될수 있다는 반동적인 주장을 일삼고있다.

실존주의의 제창자들은 객관적현실과 구체적인 사회관계에 관계없이 마치도 사람의 주관적의사에 따라 모든것이 결정되는것처럼 떠벌이고있으며 사람은 《주관성》을 본질로 하고 《자유》를 근본특성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자신의 개인리기주의적목적과 주관적요구에 따라 아무렇게나 행동하여도 그것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에 근거한것이라면 인간의 본성에 맞는것이라고 한다.

실존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종과 부화방탕한 부르죠아적자유를 인간의 본성에 맞는것으로 합리화하려 하고있으며 자연과 사회 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에 따라 활동하는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부인해나서고있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란폭하게 외곡하고있는 실존주의자들의 반동적주장은 멸망에 직면하여 공포와 불안에 떨고있는 자본가계급의 처지와 운명을 인간존재자체의 본질인듯이 날조하고있는 극악한 반동적궤변이다.

사람은 실존주의가 부르짖는것과 갈

Digitized by Google

은 외부세계와 동떨어진 고독한 《단독자》가 아니며 《절망》과 《죽음》 속에서 모대기는 존재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69페지)

사람은 사회적로동과 집단적인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주위의 자연환경과 구별했으며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인간으로 되였다. 사람들은 집단적인 사회적로동을 통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연의 맹목적인 힘에 예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로 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사람이 온갖 사회적예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진실로 사람다운 생활을 이룩하는것도 그 어떤 《단독자》로서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집단속에서만 가능하며 근로인민대중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사람의 개성이나 자유는 결코 《나》자신의 주관적인 《의지》나 《요구》에만 관련되는것이 아니다. 사람은 구체적인 사회관계속에서 존재하는것만큼 사람의 의사와 요구는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관계속에서 결정되게 된다. 또한 이른바 《자유로운 결단》에 기초한 모든 행위가 옳은것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에 기초한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활동만이 옳은것으로 된다. 사회적관계를 떠난 인간이란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

물론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현실생활에서 구체적인 개인으로 존재하며 매개인에게는 개성적특성이 있다. 그러나 개별적사람들의 개성적특성 역시 일정한 사회적관계속에서만 형성되며 이러저러한 정치적 및 경제적 관계들에 의하여 제약된다. 아무리 훌륭한 개성적특질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조건이 조성되지 않을 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실존주의자들이 설교하는 사회적관계를 떠난 《개인》이나 《단독자》라는것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는 인연이 없는 허황한것이다. 구체적인 사회관계속에서 살며 집단적인 사회적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서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근로인민대중만이 참다운 인간으로 된다.

사람의 본질을 개별적인간의 주관적의식에 귀착시키면서 객관적현실과 구체적인 사회관계에 구애되지 않는 인간의 행위라고 떠벌이는 실존주의의 설교는 본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적법칙을 인식하고 합목적적인 투쟁을 벌릴수 없게 하며 현실생활에서 언제나 무기력한 존재로 되게 하려는 극히 반동적인 사상이다.

그것은 실존주의자들이 고독한 《단독자》, 《실존》으로부터 인간을 《죽음에로 가는 존재》로, 인간의 본질을 《죽음》이라고 하는 허황한 반동사상을 끌어내고 있는데서 잘 찾아볼수 있다. 실존주의자들은 사람은 자연과 사회발전법칙을 인식할수 없고 세계를 변혁할수도 없다고 떠벌이면서 자본주의제도의 위기와 멸망을 《인간존재의 위기》인듯이 날조하여 로골적으로 죽음을 설교하는데로 나가고있다.

사람에 대한 실존주의자들의 이러한 반동적주장은 흉악한 정치사상적목적을 노리고있다. 그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염세주의와 허무주의, 비관주의를 퍼뜨림으로써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타락시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의 희생물로 만들려는것이다. 또한 그것은 자본가계급에게만 고유한 불안과 절망을 《전인류적인것》처럼 날조하여 인간에 대한 문제란 《죽음》에 대한 문제라고 떠벌임으로써 자본가계급의 야수적인 착취와 억압 밑에서 생존의 권리를 잃고 래일을 기약할수 없는 근로대중의 생활처지를 사람의 그 어떤 본성과 관련되는것으로 날조하여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되는대로 살아나가게 하려는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개별적인간의 그 어떤 주관적의식에 귀착시키

Digitized by Google

는 실존주의를 비롯한 부르죠아반동철학의 주관관념론적설교는 사회발전법칙앞에 무기력하며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살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직면하여 몸부림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자포자기적인 기분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는 동시에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자유주의를 퍼뜨릴것을 노리고있는것이다.

결국 사람의 본질에 대한 실존주의자들의 반동적리론은 인민들속에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인류의 휘황한 미래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적대시하고 그를 비방중상하기 위하여 날조된 황당한 궤변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본질을 외곡하는 현대부르죠아철학의 반동성은 인간의 본질이 《의존성》에 있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을 맹목적인 순종만을 아는 무맥한 존재로 묘사하고있는데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몽매주의와 신비주의로 일관된 신토마스주의, 인격주의와 같은 반동철학은 현대부르죠아철학의 다른 조류들과는 달리 객관관념론의 립장에서 사람의 본질을 외곡하면서 사람의 근본특성이 《의존성》과 《맹목성》에 있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그들은 사람이란 《전지전능》한 《절대자》인 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이며 사람이 세계의 《중심》에 있게 되는것은 그가 유일하게 신을 파악하는 존재로서 사물과 《초세계》(세계를 초월하는 천상의 세계)사이에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사람을 철두철미 신에게 예속된 존재로, 《의존성》을 본성으로 하는 비자주적인 존재로 묘사하고있다. 지어 종교신비주의철학은 사람은 원래부터 신앞에 《죄진 존재》라고 허황한 설교를 하면서 신을 믿지 않는것, 자주적으로 사는것은 《죄악》으로, 모든 사회악의 근원으로, 인간성의 상실로 되기때문에 신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신비주의철학은 자주성과 창조성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의존성》이나 《맹목성》과 같은것이 사람의 본질적특성으로 된다는것을 어떻게 하나 납득시켜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으나 그것으로써는 결코 사람들을 기만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무시하는것은 인간자체를 무시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페지)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무시하고 그와 정반대되는 《의존성》이나 《맹목성》과 같은것을 인간의 본질적속성으로 규정하는것은 실제상 사람자체를 무시하는 반동적인 궤변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육체적생명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만들려는것이며 근로인민대중에게 노예의 처지를 영원히 감수하도록 하려는것이다.

물론 사람이라 하여 자연에 전혀 의존되지 않고 사회적관계의 제약을 조금도 받지 않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처럼 어떤 경우에나 주어진 자연적조건에 적응함으로써만 살아갈수 있거나 자연에 전적으로 예속되고 의존되여있는것이 아니라 외부환경에 목적의식적으로 작용한다. 바로 사람이 자연에 맹목적으로 종속되지 않게 된 시점으로부터 동물적이 아닌 인간다운 모든것이 형성되게 되였으며 사람과 동물, 인간과 자연의 구별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사람들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온갖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혁명투쟁에 떨쳐나섬으로써 참다운 삶의 길에 들어설수 있고 사람답게 살아나갈수 있는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자연이나 또는 착취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든 압제와 구속에 맹목적으로 순응한다면 스스로가 사람다운 삶을 줴버리고 자신을 노예의 처지에 얽어매놓는것으로 된다.

이러한 사실은 맹목성이 아니라 목적의식성, 순응이 아니라 변혁과 개조, 예속이 아니라 독자성, 총체적으로 의

Digitized by Google

존성이 아니라 자주성을 지닐 때 인간의 참된 모습이 있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나갈수 있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의 본질을 있지도 않는 신에 대한 《의존성》으로 묘사하여 사람의 자주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신비주의철학의 설교는 근로인민대중에게 맹목적인 굴종사상을 부식시키며 신에 대한 굴종을 반동통치계급에 대한 굴종에로 이끌어가 그들을 착취계급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데 그 반동적목적이 있다.

또한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신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허황한 교리를 퍼뜨림으로써 근로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 떨쳐나서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다.

이와 같이 현대부르죠아반동철학은 사람의 본질을 외곡하기 위하여 갖은 교활한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이른바 《인간옹호》의 가면을 쓰고 감행되고있는 현대부르죠아반동철학의 잡다한 류파들의 전체 내용은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인 궤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거세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말살하려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저들만이 인간문제에 관심이 있고 인간을 중요하게 내세우는것처럼 가장해나서고 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외곡함으로써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정치적불구자로 만들고 그들에 대한 저들의 지배를 영원히 부지해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어리석은 책동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배치되는 사상은 결코 력사적타당성을 가질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것이다.

현대부르죠아반동철학은 멸망하는 제국주의의 최후발악적책동의 사상적표현이며 인민대중의 혁명적각성을 마비시키는데 촉수를 뻗치고있는 반동적인 사상독소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멸망이 불가피한것과 마찬가지로 종국적인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완벽하게 밝혀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그 어떤 교활한 부르죠아반동사상독소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하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할것이다.

근로자 1979년 제6호(루계 44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9년 6월 1일　발 행•1979년 6월 5일

ㄱ—95141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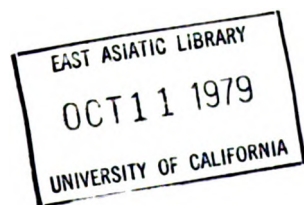
Digitized by Google

51
1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7 호

평 양 근로자사 1979

Digitized by Google

근로자

제7호 (447)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원의 고상한 풍모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고 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원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니는것은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혁명가, 당원이라는 고상한 칭호와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고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의 위력을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다지며 우리 당을 영원히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 당원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는 강한 혁명적조직성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져야만 참다운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원은 련렬한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참다운 공산주의자인 당원은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겸비한 혁명투사이다.

혁명적조직성은 조직과 집단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공산주의적품성을 의미하며 규률성은 조직규률을 지키는 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는 혁명적품성을 말한다. 이러한 고상한 품성은 공산주의혁명가, 당원들에게 고유한것이다.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 사람만이 참다운 당원이 될수 있으며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영예를 끝까지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원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조직을 끝없이 사랑하고 조직의 리익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의 분공과 결정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는데서 나타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높은 조직관념에서 표현되고있으며 그것은 우리 당만을 믿고 모든것을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조선로동당의 한 성원으로 된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으로 살며 생활하는것은 더 없는 영예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당원은 자기의 당조직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언제나 존엄있게 대하고 그것을 순간의 지체와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는다. 바로 여기에 참다운

Digitized by Google

혁명가, 당원의 고상한 풍모가 있는것이다.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당원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로부터 울러나온다.

공산주의운동은 고도로 조직화된 운동이며 따라서 이 운동은 그에 참가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게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사람과 사회, 자연을 개조하는 심각한 혁명적변혁과정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람들을 온갖 사회적질곡과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높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고 그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얼마나 빨리 전진시키는가 하는것은 이 투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조직성과 규률성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에 달려있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져야만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해방하고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당원은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투사이다. 다시말하여 당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며 대중을 교양하여 이끌어나가는 투쟁의 기수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당원은 마땅히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상정신도덕적풍모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원의 중요한 품성으로, 생활원칙으로 된다.

당원들이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니는것은 또한 그들이 로동계급의 선봉적부대인 당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살며 일해나간다는데 있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선진분자들로 이루어진 조직된 부대이며 강철같은 조직규률과 혁명적질서에 의하여 유지되는 정치적조직이다. 강철같은 규률과 높은 조직성을 떠나서는 당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으며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이끌어 나갈수 없다.

따라서 당은 그에 망라된 모든 당원들에게 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혁명적인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고 생활할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강한 조직 규률과 질서는 모든 당원들이 지켜야 할 혁명적의무이며 생활원칙이다.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떠나서 당원의 당조직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당원은 당조직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수 없으며 투쟁할수도 없다. 한생을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이 바로 당원인것이다.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원의 고귀한 칭호와 영예를 끝까지 빛내여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육체적생명을 유지할수 있는것과 같이 당원은 당생활을 해야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65폐지)

당조직은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보호자이다. 당조직생활을 떠난 당원은 사실상 정치적생명을 잃어버린 당원이다. 당원은 당조직생활에 충실하고 조직성과 규률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원은 강한 조직생활을 통하여 성시

사상적으로 튼튼히 단련되고 조직성과 규률성을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당원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당원들의 정치생활, 사상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정치사상생활에서 조그마한 결함과 부족점도 나타내지 않게 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당원들은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언제나 조직의 지도와 통제 속에서 생활하여야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참다운 정치적생명을 깨끗이 보존할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 당원들은 육체적으로는 늙더라도 사상정신적으로는 생기발랄하고 언제나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는것이다.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조직성과 규률성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또한 우리 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입니다. 당이 힘있고 생기있는 전투적조직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당원들이 다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5페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인 당이 건전하고 힘있는 조직으로 되자면 매개 당원들의 사상이 건전해야 할뿐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조직원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당안에 혁명적조직원칙에 기초한 강철같은 규률이 세워져야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투적부대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이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고 당의 명령과 결정지시를 무조건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가질 때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당원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해야 당조직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 전투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당이 제시하는 모든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만일 당조직들을 하나의 조직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전투적조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할수 없으며 결국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경험은 당을 이루고있는 당원들속에서 조직성이 없고 무규률적인 현상이 나올 때 당은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할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말아먹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당원들속에서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이는것은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보장하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당이 강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된것은 모든 당원들이 혁명적조직생활원칙에 기초하여 당생활을 진행하고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일하는것을 생활화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당조직들을 강력한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려놓았다.

당의 방침에 의하여 당원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더욱 높아진 결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은 비상히 높아졌다. 그리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령도체계가 더욱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는 모든 당조직들이 다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산 전투적조직으로 강화되였다.

Digitized by Google

＊　＊

오늘 우리 혁명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우리 인민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보다 무거운 과업을 제기하고있으며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나가자면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적조직관념을 더욱 튼튼히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의 규률과 의지에 따라 늘 투쟁하도록 하는 기본조건으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11페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그들이 언제나 당조직에 의거하고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적조직관념은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언제나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당의 의도대로 살며 싸워나가게 하며 하나의 혁명적규률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추동력이다. 따라서 혁명적조직관념이 똑바로 서야 당에 대한 립장과 관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조직성과 규률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오직 우리 당만을 알며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 살며 싸워나가는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철저히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조선로동당의 한 성원이 되여 살며 일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모든것을 당조직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정치생활, 경제생활 지어 사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조직에 보고하고 조직의 도움을 받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한다.

혁명적규률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전투력의 원천이다.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당원들의 고상한 의무이며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당원의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기본목적도 바로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한데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조직관념을 지니고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며 오직 당의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언제나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사업하고 생활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조직관념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당의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기 당만을 믿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혁명가의 강의한 의지와 고상한 품성을 간직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기풍을 세우는것은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가 내놓는 정책은 아래에서 올라온 의견입니다. 그것은 모든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것이며 전당의 조직적의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의 정책과 결정을 철저히 연구하고 무조건 집행하는것은 당원의 의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377페지)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이 내놓는 모든 결정과 지시에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리익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 당이 바라고 의도하는것은 곧 우리 인민의 지향이며 전당의 조직적의사이다.

당의 방침과 결정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있어서 혁명활동은 곧 당의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 정책과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충실성의 표현으로 될뿐아니라 그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어나가게 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방침과 결정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그것을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끝까지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방침과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조건이 유리한것과 불리한것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돌파구를 뚫고나가라고 하면 뚫고나가는 강의한 의지와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강의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당원의 혁명적 투지와 기백이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혁명적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며 조직규률의 기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앙이 없이는 당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은 당조직에 복종하고 모든 당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원칙을 지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31페지)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당안에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워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당안에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조직규률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에 따라 모든 당원들은 당조직에 무조건 복종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원이 당조직에 복종한다는것은 당조직의 결정, 지시들과 당조직이 주는 과업을 충실히 집행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원들이 당조직에 복종하는 원칙을 잘 지켜야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튼튼히 키워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안에 중앙집권적인 조직규률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전대오의 강철같은 조직적단결과 행동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은 오직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대로, 당중앙이 요구하는대로만 행동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일군들과 당원들은 열가지를 하고싶어도 당에서 한가지나 두가지만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대로 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원들의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키워지는것만큼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당원들속에서 당 규약과 규범을 엄격히 지키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 규약과 규범은 당원들이 언제나 당의 지도와 통제 속에서 살며 일해나가도록 하는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기준이다. 당 규약과 규범은 자각적으로 지키는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속에서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의 요구를 정상적으로 해설침투시켜 그들이 혁명적조직관념을 가지고 언제나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당안에서 2중규률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며 온갖 무규률적인 현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당안에는 높고낮은 당원이 따로 없으며 두가지 규률이 있을수 없다. 당안에서는 직위가 높은 당원이건 낮은 당원이건 관계없이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상 요구에 따라 하나의 규률에 복종하여야 한다. 간부당원이라고 해서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당조직의 통제와 비판을 잘 받으려 하지 않거나 특세를 부려서는 안된다. 당원들가운데는 물론 사업상 요구에 따라 직위가 높고낮은 관계가 있으며 공로가 있고 없는 차이는 있으나 당규률을 지키는데서는 그 누구나 다 똑같은 의무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이 당규률을 지키는데서 그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들이 특권을 부리려는 사소한 요소와 경향에 대해서도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은 온갖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튼튼히 세워질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속에서 나타나는 무규률적현상들이 크건작건 관계없이 그것을 제때에 사건화하여 사상전의 방법으로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규률에 대한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여 당안에 자유주의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 당을 더욱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언제나 당의 조직원칙과 생활규범에 따라 살며 일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 이것은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불멸의 혁명업적

최 금 순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8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숭고한 혁명정신, 민족자주정신을 지니시고 오로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한평생을 다 바치신 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이룩하신 위대한 선구자이시다.

김형직선생님의 전생애는 조국의 광복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열렬한 애국자의 빛나는 생애였으며 어떤 시련속에서도 굽힐줄 모르는 투지와 끓어넘치는 혁명적정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된 강의한 혁명가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로정이였다.

새 력사의 려명을 향하여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사에 남기신 선생님의 불멸의 위훈과 고귀한 업적은 오늘도 찬연히 빛나고있으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하여주고있다.

* *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면서 조선독립을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이룩할데 대한 민족자주정신을 지니시고 그 기치밑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길로 이끄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사람은 어덯 가나 조선사람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조선독립은 누구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력사는 외세의존이 곧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가르쳐주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자주의 길로 나갈것을 주장하시였다.

그것은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자면 반드시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는 민족자주정신을 확고히 견지해야하며 남의 힘에 의거하여 독립을 얻으려 할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데 대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였다.

김형직선생님의 민족자주정신은 우리 민족을 가장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으로 보시고 인민대중의 힘을 끝까지 믿으시는 열렬한 애국사상에서 나온것으로서 선생님께서 혁명활동의 전기간에 확고히 견지하신 조선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근본립장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시여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끝까지 복무할데

Digitized by Google

대한 애국적립장과 민족자력으로 나라의 광복을 이룩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자세를 견지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함께 자자손손 꽃피워온 삼천리금수강산을 지켜싸우는 민족적립장과 제국주의침략자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반제적립장 그리고 자기의 힘을 믿고 투쟁으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려는 혁명적립장을 지키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조선의 독립을 남에게 빌붙어 얻으려 할것이 아니라 모든 반일력량을 묶어세워 그 힘으로 이룩하려는 립장에 튼튼히 서시였다. 그것은 인민대중속에 뿌리박은 비합법적인 혁명조직과 합법적조직을 결성하여 혁명력량을 꾸리며 투쟁에서 분산성을 극복하고 모든 반일력량의 통일단결을 실현하여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것이였다.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청원》이나 개량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인 투쟁의 방법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립장에 서시였다. 정치활동과 군사활동, 비합법적활동과 합법적활동을 적절히 배합할데 대한 방침과 무기를 준비하고 무장활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 등은 바로 선생님의 자주적인 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밝히신 자주적인 투쟁방침과 그 실현방도들은 선행 반일운동이 가지고있던 낡은 투쟁방법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적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었으며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희망과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안겨주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민족자주정신은 망국의 력사적교훈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절박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구국의 기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망국의 쓰라린 교훈에서 사대주의의 력사적죄악과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속속들이 꿰뚫어보시고 민족해방운동에서 취하여야 할 정치적자세를 바로잡으시였다.

봉건통치배들이 부식한 사대주의의 엄중한 후과는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었다.

일제의 조선강점후 특히 3.1운동시기에 독립운동단체들의 상층부들은 일제의 탄압에 겁을 먹고 투쟁을 포기하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구미렬강의 도움으로 독립을 얻어보려고 꿈꾸거나 《청원》의 방법으로 독립을 구걸해나섰다. 당시 조선을 둘러싸고 제국주의자들이 치렬한 개싸움을 벌리고있던 조건에서 나라의 독립을 약육강식의 법칙을 생존방식으로 삼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의존하거나 구걸한다는것은 곧 파멸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망국의 력사와 부르죠아민족운동의 주되는 총화였다.

선생님의 민족자주정신은 바로 이러한 실태와 력사적교훈에 기초한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지도적지침이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반일민족해방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는 끝까지 싸워야하며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는것, 이것은 선생님께서 생활체험과 투쟁실천을 통하여 얻으신 교훈이였다.

선생님께서는 이로부터 남을 쳐다볼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며 제국주의와 타협할것이 아니라 그를 맞받아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는 반제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시게 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망국노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일부 《우국지사》들처럼 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거나 하늘을 쳐다보고 한탄이나 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쟁으로써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구국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몸소 이 투쟁을 선두에서 이끄시였던것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신 민족자주정신은 《지원》의 사상에 그 뿌리를 둔

애국사상이였다.

《지원》의 사상에는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해서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굴함없이 싸워나가야 하며 대를 이어서라도 조선사람의 손으로 끝까지 뜻을 이룩해야 한다는 불굴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있다. 《지원》의 사상은 또한 나라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자기 나라 힘을 믿고 그 힘을 키워서 조국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애국적립장으로 일관되여있다.

그러므로 《지원》의 사상은 그것이 곧 나라의 독립을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이룩할데 대한 원대한 포부와 구상인것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민족자주의 정신은 사대주의로 말미암아 질식상태에 빠져있었던 독립운동을 구출하고 민족재생의 서광을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자주의 숭고한 정신을 지니심으로써 민족해방운동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조선민족해방운동사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시였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민족해방운동을 무산혁명의 길로 이끄심으로써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이것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밑에 3. 1운동을 계기로 당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은 력사적전환기에 놓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0월혁명의 영향밑에 1919년에 일어난 전민족적3.1봉기는 조선인민의 애국적투지와 혁명적정력을 시위하고 일제강점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반면에 부르죠아민족주의의 제한성과 약점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놓았습니다. 3.1봉기의 실패는 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81~282페지)

3. 1운동은 일제강점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외세의존》, 《평화주의》, 《청원》에 매여달렸던 부르죠아민족주의의 정치적파산을 선언하였으며 민족자주정신의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확증하였다.

따라서 그 본질적약점과 취약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놓은 부르죠아민족주의는 더는 민족해방운동의 기치로 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3. 1봉기후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의 상층들이 저마다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세력권》확장을 위한 파벌싸움을 벌리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반일운동은 건실하게 발전할수 없었으며 도리여 반일운동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해독을 끼쳤다.

시대와 인민대중은 민족해방운동의 옳바른 지도사상을 요구하였으며 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갈 정확한 로선을 제시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시대가 제기하는 이 력사적과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력사적인 관전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한 우리 민족의 일치한 념원에 순응하여 시대의 변천에 보조를 맞추어 민족자력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무산계급이 잘사는 새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선생님의 원대한 구상은 민족자주정신을 구현한것으로서 민족의 기본력량인 근로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정당한것이였다.

그것은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로동자,

Digitized by Google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우고 그 힘을 부단히 키움으로써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것을 목적으로 한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투쟁방침으로 된다.

대대로 빈곤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찍부터 남달리 뜨거운 애국의 정열로 가슴불태우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사랑하는 조국을 빼앗기고 가증스러운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의 학정밑에서 온갖 굴욕과 무권리, 굶주림에 시달리는 겨레의 운명을 구원해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방향전환의 길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심으로써 조선민족해방운동을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무산혁명의 길로 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신것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대한 무력을 가진 적들의 류혈적탄압에 적수공권으로 대항한다는것은 실패를 전제로 하는것입니다.

무기를 가진 원쑤는 오직 무기를 가지고 때려눕혀야 합니다.

조선독립달성의 종요원은 무기를 잡고 민족자력으로 일제와 싸워나가는것입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무장한 원쑤는 무장으로 때려눕혀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을 밝히시고 장차 대규모적인 무장투쟁을 계획하시면서 《은률화종심화료원》의 전술밑에 무장투쟁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추진시키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무장성원들을 선발하여 선진사상으로 각성시키며 군사간부를 양성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등 무장대를 조직하고 무장활동을 벌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무장투쟁에 관한 선생님의 방침은 민족자체의 힘으로 일제와 싸워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침이였으며 민족해방투쟁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침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무장투쟁준비를 위하여 무장대의 조직과 무장활동을 지도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로동자, 농민들로 새로운 무장대를 결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시는 한편 조선국민회 성원들로 하여금 독립군무장단들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그들을 교양하여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반일투쟁을 견결히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조선국민회 성원들은 관전, 림강, 장백 등 압록강연안일대와 국내에서 무장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군사간부를 양성하며 무장을 준비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를 위하여 군사간부양성을 위한 학교를 새로 내오게 하시는 한편 이미 있던 학교들의 교수내용을 새롭게 개편하게 하시면서 선진애국청년들을 사회중명학교를 비롯한 무관학교에 보내시여 군사간부로 키우시였다.

그리고 각지 혁명조직들과 무관학교들에서 육성된 청년들을 통하여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혁명조직들과 공작원들은 일제경찰들과 적기관들을 기습하고 무기를 빼앗아내거나 멀리 연해주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무기를 마련하여 오기도 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정치활동과 무장활동을 결합할데 대한 방침에 따라 이 시기 무장대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갔다. 무장대들은 평안남북도일대와 국내 여러곳에서 수많은 크고

Digitized by Google

작은 전투들을 진행하여 일제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후창군 장승벽전투, 삼수군 령성경찰관주재소습격전투, 당목경찰관주재소습격전투 등은 그 대표적인 전투들이였다.

당시 《동아일보》는 련이어 《국경에 경관 증파》, 《대낮에도 다닐수 없는 정도로 위험, 경무국에서 증병》, 《예산을 늘구어 국경지대에 조선인 단속》 등의 표제를 달고 당황망조한놈들의 진상에 대하여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이 시기 무장대들이 얼마나 무장활동을 활발히 벌렸는가를 말하여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길로 힘있게 이끌어주심으로써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이룩하게 하시였으며 이 행정에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을 마련하시였다.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은 또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그 활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자주의 옳은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시키신것이다.

혁명투쟁에서 승리의 중요한 요인은 누가 인민대중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혁명조직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자기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자기의 두리에 묶어세우지 못한 혁명조직은 제아무리 훌륭한 투쟁구호를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없다.

우리 나라 독립운동의 상층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사대주의에 물젖어 민족해방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던 당시의 환경에서 인민대중에게 반일애국감정과 민족자주의식을 뿌리깊이 심어주지 않고서는 그들을 반일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창건하신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모든 반일애국력량의 단합을 이룩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실현하게 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조선국민회는 창건된 첫날부터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속에서 반일애국사상과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는 계몽사업과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국민회성원들의 발길이 미치는곳마다에서 조직이 확대되고 민족자주정신으로 자각된 인민들로 그 대렬이 늘어났으며 혁명투쟁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꾸려졌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그 활동을 이끄신 결과 비로소 민족해방투쟁에서 전국적인 성격을 띤 혁명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자기가 나아갈 명확한 길을 찾게 되였다. 그것은 반일력량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하고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처럼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시고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하시였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자주적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신것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의 하나이다.

선생님께서는 우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선진사상으로 계몽하고 조직에 결속하여 혁명의 기본력량을 꾸리나가는데 힘을 기울이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당시 저마다 《지도자》로 자처하며 《외세의존》과 《청원》에만 매여달리면서 대중속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않던 독립운동단체들의 상층들과는 달리 천대받고 압박받던 로동자, 농

Digitized by Google

민들과의 사업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림강현 팔도강마을농민들과 투두구의 고용농민, 림강의 한 류벌로동자와 남사목재소로동자들을 교양하시여 투쟁의 길에 내세워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은 선생님께서 헐벗고 굶주리는 근로대중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가슴아파하시고 그들을 끝없이 사랑하시였으며 그들에게 삶을 안겨주시고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특히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21년 10월 조선국민회 성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민족이 자력으로 투쟁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민중결속과 의식계발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회원들로 하여금 로동자집결지역과 농촌에서 선진사상침투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그들을 조직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도록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포평, 고읍, 신파, 남사등 압록강연안의 국경지대는 물론 평양, 강동, 은률을 비롯한 국내깊이와 무송, 안도, 길림, 몽강, 화전을 비롯한 만주의 넓은 지역들에서는 선진사상을 보급하고 로동자, 농민들을 국민회조직에 결속하는 활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결과 로동자, 농민들이 혁명적으로 각성되여갔으며 반일조직들이 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게 되였다.

또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23년 포평회의에서 몸소 작성하시여 발표하신 개량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요령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선진사상의 보급과 반일운동의 자주적발전을 저해하고 로동자, 농민들을 무산혁명의 길에서 떼여내려는 민족개량주의책동을 철저히 짓부시도록 이끄시였다.

당시 일제와 예속자본가의 사상적대변자였던 민족개량주의자들은 《민족개조론》이요, 《계급협조》요, 《물산장려》요 하는 등 각이한 궤변을 늘고 로동계급의 선진사상과 맞서 근로대중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반일혁명투쟁을 무마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선생님께서 취하신 이 조치와 민족개량주의를 반대하여 벌리신 정력적인 활동은 선진사상침투의 넓은 길을 열어놓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무산혁명의 길로 이끌어나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선생님께서는 혁명의 기본력량을 꾸리시는 한편 반일력량을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반일력량의 단합문제는 완고한 민족주의의 정치사상적락후성을 극복하고 사분오렬되여있던 반일운동대렬의 통합을 이룩하는것으로서 민족해방운동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였다.

당시 독립운동의 상층에 들어앉은 민족주의자들은 제가끔 군소 독립운동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분산적으로 활동하고있었다. 남북만일대에서도 수많은 독립운동단체들과 독립군부대들이 반일투쟁을 벌리고있었으나 그들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낡은 수공업적방법에 매여달리고있었으며 자기의 권세욕으로부터 제각기 분파를 이루고 《세력권》확장을 위한 파쟁을 일삼고있었다. 특히 독립운동자들의 일부 상층부들은 선진사상에 대한 몰리해와 편견을 버리지 않고있었으며 독립군대렬의 통합을 완강하게 반대하여나섰다.

그러므로 이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하나의 력량으로 결속하고 그들과의 행동통일을 강화하며 그들을 옳은 투쟁의 길로 이끄는것은 반일력량을 확대강화하고 반일운동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실로 중대한 문제로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반일운동단체들의 일부 《지도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정치사상적락후성만을 보면서 그들을 배타적으로 따돌리거나 홀시하였으며 반일의 기치아래 단합할데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김형직선생님께

Digitized by Google

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한 문제로 보시고 독립운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으며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그들의 반일적요소들을 적극 지지해주시고 그들의 분파행동에 타격을 가하시면서 민족자주정신과 선진사상으로 인내성있게 교양하시여 그들을 민족단합의 길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몸소 독립운동자들을 만나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회의를 지도하시는 한편 독립운동단체들과 독립군무장단들에 많은 조직성원들을 파견하시여 독립운동대렬의 통합과 행동통일을 강화하도록 이끄시였다.

선생님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뿔뿔이 그릇된 길로 나가던 수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은 분렬의 위험을 방지하고 점차 단합되여갔으며 옳바른 투쟁의 길로 들어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1919년 남만일대에서 활동하던 《대한독립청년단》과 《광제청년단》의 통합이 실현되여 《대한청년련합회》로 발족하였으며 그후 장백일대에서 활동하던 《군비단》, 《흥업단》, 《대진단》등 수십여개의 독립군단체들이 하나의 력량으로 점차 통합되여나갔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1925년 8월 무송회의에서 반일독립운동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에 따라 반일독립운동단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직에 묶어세우는 민족단체련합축진회 창립을 선포하시였다. 이리하여 만주광야에서 삼삼오오 분산되여 활동하던 독립운동단체들이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하나의 조직에 망라된 련합체로 발족하게 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사변이였으며 선생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민족단결의 기치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자들뿐아니라 반일투쟁에 진취할수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까지 묶어세우기 위하여 힘쓰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급속히 반일애국사상으로 각성되여갔으며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점차 통일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이처럼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심으로써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우리 나라에 새 력사의 려명이 밝아왔으며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튼튼한 터전이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은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이룩하신 위대한 선구자로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위훈과 고귀한 업적은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밝히시였으며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마침내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였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살며 혁명하는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

정 성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필승불패의 지도사상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은 그 사상리론적내용과 원리들의 심오성에 원천을 두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고귀한 진리들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문제이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사고와 실천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혀주며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방법론적지침을 준다.

주체사상의 이 요구에는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과 인식개조의 합법칙성에 맞게 가장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원칙과 방법이 구현되여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그리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가장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방법론적지침을 줌으로 하여 그것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실천활동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6페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다는것은 사고와 실천에서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는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모든것을 사람의 지향과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고찰하고 처리하며 모든 문제를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풀어나가는 원칙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은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가 밝혀주는바와 같이 사람은 모든것의 주인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으로 세계의 사물현상들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며 자기에게 복종시켜나간다.

그러므로 사람만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된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사람은 또한 모든것을 결정한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이다. 세계에는 사람보다 더 힘

Digitized by Google

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사람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고 세계를 개조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있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 참가하는 다른 모든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역할을 보장하는 수단이며 사람에게 리용되는 조건에서만 의의를 가진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성과여부는 결국 사람의 역할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렇듯 사람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모든것을 좌우하는 결정적역할을 한다는데로부터 모든것을 사람의 지향과 리익에서 출발하여 고찰하고 처리하며 사람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원칙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 요구가 필연적으로 흘러나온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인식과 개조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과학적인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을 위한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277페지)

인식과 개조는 사람들이 주위세계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이다. 자연을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은 사람들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의 사물현상들을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복종시키기 위한것이며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은 사회적예속을 없애며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사람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를 창조하며 선진적인 사회를 건설한다.

인식과 개조는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함으로써 그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인식과 개조의 직접적담당자는 사람이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정은 바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정이다. 사람을 떠나서는 인식과 개조 과정자체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람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은 사람을 위한 사업이며 사람자신의 사업으로서의 인식과 개조의 본성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요구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사상이며 인식과 개조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사상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요구는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거대한 방법론적의의를 가진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가지는 방법론적의의는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모든 인식과 개조활동의 근본목적을 가장 정확히 밝혀줌으로써 그 성과를 확고히 담보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결국은 모든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62~563페지)

Digitized by Google

사람의 모든 활동은 목적의식적인것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목적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목적을 옳게 세우는것은 사람들의 실천활동에서 중요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목적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활동의 방향과 결과가 규정된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모든 활동이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근본목적을 두고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준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식과 개조활동을 벌린다.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물질적자료들과 사회경제적조건은 저절로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투쟁을 벌림으로써만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와 사회적환경을 마련할수 있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개조활동은 사람들의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담보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마련하게 할뿐아니라 그들을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되게 한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휘하고 사람으로서의 참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기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바쳐 투쟁하여야만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사람은 또한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투쟁속에서 자기의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우며 더욱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발전한다.

이와 같이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은 사람들의 자주적 및 창조적 특성의 발현이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근본조건이다. 그런것만큼 인식과 개조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현하는데 근본목적을 두고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의 인식과 개조활동은 자연과 사회의 서로 다른 구체적환경과 조건에서 진행되고 그 대상과 방법도 서로 다르지만 모든 인식과 개조활동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지향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 어떤 하나의 사물현상을 인식하고 개조하는 활동이라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로부터 출발하고 사람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여야만 그것이 사람의 자주적, 창조적 특성에 맞는 참다운 인식개조활동으로 된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활동을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희생시켜 몇몇 사람들의 치부와 향락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것은 인간활동의 본성적요구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모든 사고와 실천활동을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근본목적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개인의 리익만을 위하고 목전의 일시적인 리익만을 추구하는 부르죠아적, 기회주의적 사고방식과 활동방식의 반동성을 폭로하여 준다. 그것은 또한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업을 사람의 자주적, 창조적 특성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열어준다. 모든 사고와 실천활동의 근본목적을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인식하고 개조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주는 여기에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

Digitized by Google

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가지는 심오한 철학적내용과 거대한 방법론적의의가 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가지는 방법론적의의는 또한 그것이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방도를 명확히 밝혀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사업,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7페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는 그 목적을 똑바로 세우는것과 함께 기본방도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자연과 사회발전의 객관적법칙과 인식개조의 합법칙성에 맞는 기본방도를 정확히 찾고 그것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만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복잡하고 거창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인식과 개조의 기본방도를 규정하는 원칙적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준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의 이 요구는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방도를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을 발동하여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이 사고와 실천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을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는 사람과 함께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수단이 참가한다. 실험도구나 로동도구, 기계설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수단들도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만들어내는것도 사람이며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사람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요소이며 모든 성과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지는것과 관련된다. 사람은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짐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된다.

그런데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타고난 사상과 지식이란 없다. 사람은 교육과 실천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운다.

이 모든 사실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방도는 바로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인 사람을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이라는것을 말한다. 사람에 의거하고 사람을 발동시키는것은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이며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인 방도이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방도를 사람에 의거하고 사람을 발동시키는데서 찾아야 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물질기술적수단에만 매달리며 사람을 한갖 기계의 부속물로 취급하는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인 방법을 철저히 배격하고 혁명과 건설을

Digitized by Google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방법론적지침을 준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가지는 방법론적의의는 또한 그것이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과업을 제기하고 이룩된 결과를 평가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가장 과학적인 기준을 밝혀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대중의 각오정도에 따라 모든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는것도 생각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45페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를 옳게 제시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주객관적인 조건을 옳게 타산하여 제때에 투쟁과업을 제기하고 실현해나갈 때에만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거나 사회발전을 지체시키는것과 같은 편향에 떨어지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킬수 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새로운 투쟁과업을 제기하는데서 사람, 인민대중의 각오정도와 준비정도가 기준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준다.

물론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물질경제적조건이 필수적인것으로 된다. 로동도구가 발전하여야 자연을 개조하는데서 새로운 과업을 내세우고 실현할수 있고 생산력이 발전하여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관철할수 있다.

그러나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물질경제적조건이 준비되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사람자체가 준비되는것이다.

사람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이 마련되며 리용된다. 물질적조건이 아무리 성숙되였다 하더라도 사람자체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없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인식과 개조의 결과를 평가하는데서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준다.

인식과 개조는 사람을 위한 사업인것만큼 그 결과는 사람에게 복무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만 가치있는것으로 된다. 아무리 풍부한 물질문화적재부를 이룩해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것이다. 더우기 인식과 개조를 통하여 얻어진 새로운 지식과 창조물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저촉되게 되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인식과 개조의 사명과 목적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것이다.

사고와 실천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을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인식과 개조의 결과를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옳게 평가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적극적인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이렇듯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요구는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필승불패의 방법론적무기로 된다.

* *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우리 당과 국가 활동에 빛나게 구현되여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군중을 발동시키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 바로 여기에 우리가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지고 일찌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사고와 실천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을데 대한 혁명적원칙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고있다.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근로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게 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있다.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알아보고 그에 맞게 모든 문제를 처리하며 사람과의 사업,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 인민적시책의 근저에 흐르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며 우리나라에서 이룩된 모든 빛나는 승리와 력사적변혁들의 원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고와 실천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을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지난날 력사밖에서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고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아오던 우리 인민은 오늘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모든 문제를 사람을 중심에 놓고 풀어나갈데 대한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또한 사회주의혁명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수할수 있었고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단 14년동안에 빛나게 실현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안팎의 원쑤들의 준동과 온갖 난관을 타개하고 세기를 주름잡는 천리마의 대진군을 이룩할수 있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근로인민대중의 인격과 권리가 최대한으로 존중되고 그들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의 전로정에서 남김없이 확증된 혁명적진리이며 우리 인민의 심장깊이 간직된 확고한 신념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이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더욱 다그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

리 수 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옳은 립장과 방법에 의거함으로써만 승리와 성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히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구현하시여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줍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합니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261페지)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발견하심으로써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시였다.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사람이 차지하고있는 주인의 지위에서의 변화발전은 그의 역할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이 밝혀졌다.

사람은 그를 둘러싸고있는 객관세계에 예속되여 사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면서 그것의 주인으로서 살아간다.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밖에 있는 객관세계가 사람을 지배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객관세계를 지배한다. 이것은 모든 물질적존재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발전된 존재이며 다른 물질적존재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자주성과 창조성이라는 본질적특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다는 사실로부터 사람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주인의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흘러나오게 된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것은 세계에는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그 어떤 초인간적이며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을수 없으며 또 사람의 운명을 구원해주고 개척해줄수 있는 사람보다도 더 힘있는 그 어떤 존재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신이 사람을 포함한 세상만물을 지배한다고 보는 신학적세계관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 살것이 아니라 신의 의지대로 살아야 하며 자기의 힘에 의거해서 살것이 아니라 신의 힘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것을 부인하는 온갖 반동사상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수 없으며 따라서 그 무엇에 예속되여 사는것이

Digitized by Google

불가피하며 또 자기의 힘만으로는 살아갈수 없으며 남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은 오직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려는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것을 밝혀준다. 또한 사람밖에 있는 그 어떤 힘에 의존하여 살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것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이렇게 세계의 주인으로 살려는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려는 립장이 바로 자주적립장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사람에게 유리하게 변화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 객관세계가 아니라 바로 사람자신이라는것을 밝혀줌으로써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방법을 가르쳐준다.

만일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 아니라 사람밖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요인이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것이 무의미한것으로 될것이다.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요인이라는것이 밝혀진 조건에서는 사람의 역할을 높이는것이야말로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유일하게 옳바른 방법이라는것이 명백해진다. 그런데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작용에서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람이 객관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고 그 능력에 의거하여 창조적활동을 벌리기때문이다. 사람의 활동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은 그 창조성에 있다. 동물은 객관적환경에 순응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사람은 객관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창조적방법으로 살아간다.

창조적방법은 사람이 살아가는 고유한 방법이며 따라서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가장 옳은 방법으로 된다.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 방법이 다름아닌 창조적립장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사람일반을 주체로 하여 세계와의 관계를 밝힌것이기때문에 그것은 현재에 있어서나 미래에 있어서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이다.

오늘의 력사적조건에서 인류가 하나로 통일되여있는것이 아니라 대체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고있으며 또 민족내부에는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유린하는 반동적착취계급도 있고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근로인민대중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구체적인 력사적환경과 결부하여 리해하여야 한다.

오늘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반동적지배계급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이다. 반동적지배계급이 인류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추동력으로 되지 못한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으로 리해하여야 한다.

또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은 전세계적범위에서 하나의 통일적인 운동으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그런것만큼 어느 나라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그 나라 근로인민대중을 주체로 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리해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그리고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형태도 력사발전단계에 따라 다를수 있다. 오늘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형태는 혁명과 건설이다. 근로인민대중은 반동적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 앞으로 계급적차별과 민족적차별이 다 없어진 미래의 공산주의세계에서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형태는 오늘과는 다른 일련의 새로운 특징을 가질수 있다.

오늘에 있어서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기본형태는 혁명과 건설이며 이 운동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보편적인 철학적원리는 근로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혁명과 건설에서 구체화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혁명과 건설에 구체화하시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히시고 그들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옳은 립장과 방법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68페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명제는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준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데로부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인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요구가 나오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데서 근로인민대중이 결정적역할을 하는데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법인 창조적립장에 의거할데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원리, 다시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원리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용하여 구체화한것이라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인 립장과 방법을 혁명과 건설에 적용하여 구체화한것이다.

물론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철학적방법론과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근본방법은 보다 일반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나 생활에서는 그것을 언제나 통일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의 립장에서 볼 때 오늘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활동이란 곧 혁명과 건설이며 따라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외에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그 어떤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은 자주적립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정책과 로선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Digitized by Google

확고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272페지)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다. 매개 나라 인민은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려는 자기의 사활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을 한다. 혁명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살기 위하여 진행하는 투쟁인것만큼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은 그 어떤 외부의 간섭과 강요를 배격하고 언제나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만일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는 자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매개 나라 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또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은 근로인민대중자신에게 있는것만큼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그것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힘을 가진것도 오직 그들자신뿐이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은 자체의 힘에 의거해서 자신이 책임지고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야 한다.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는 자주권을 옹호하며 자력갱생하는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결코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

매개 나라 인민들은 주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지만 반동적인 지배계급과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모든 나라 근로인민대중은 리해관계의 공통성을 가진다. 근로인민대중은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질뿐아니라 다른 나라 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도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왜냐 하면 근로인민대중은 민족국가테두리안에서 자주적으로 사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민족간의 관계,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침략과 예속을 당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사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기때문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공통적인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들의 자주성을 짓밟는 침략자들과 략탈자들을 반대하고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호상존중의 원칙밑에 긴밀히 협조해나간다. 자기 인민의 자주권과 리익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나라 인민의 자주성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민족리기주의는 자주적립장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또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당하며 그와의 투쟁에서 많은 부담을 걸머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인민들을 도와주거나 그러한 도움을 받는것은 결코 자력갱생의 원칙에 어긋나는것이 아니다. 동지적인 원조와 협조는 한나라안에서도 좋은것이며 국가들사이에서도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한나라안에서도 자기는 일하지 않고 남의 덕에 살아나가려는것은 옳지 않은것처럼 국제관계에서도 자력갱생하지 않고 남의 힘에 의존해서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려고 하는것은 그릇된것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방법은 창조적립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그들자신이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72페지)

혁명과 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Digitized by Google

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창조적과정이다. 이 창조적과정에는 객관적요인도 작용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근로인민대중이며 그들의 창조적활동이 결정적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사람이 객관세계를 개조하여 자기의 요구에 맞는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창조적과정은 사람과 객관세계의 호상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이 객관세계와의 호상작용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변되도록 할수 있는것은 사람의 힘이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객관세계의 힘과는 달리 목적의식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의식적으로 쓸수 있을뿐아니라 객관세계의 운동법칙을 인식함으로써 객관세계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힘도 자기의 요구에 맞게 리용할수 있다. 사람이 자기의 요구에 맞는것을 창조하였다는것은 결국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지니고있는 물질적힘과 객관세계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적힘을 다같이 자기가 요구하는 방향에서 작용하도록 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힘이 발동되지 않고서는 사람이 요구하는것을 창조할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요구하는 새것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만 창조되는것이 아니다. 사람이 새것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목적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자기 힘을 매개로 하여 객관적 조건과 법칙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사람의 창조적활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크게 두가지 문제가 나선다.

그 하나는 사람이 가지고있는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객관적 조건과 법칙을 사람의 요구에 맞게 리용하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활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창조적힘을 남김없이 동원하여야 하며 그 발동된 힘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도 맞고 객관적 조건과 법칙에도 맞게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도 맞고 객관적 조건과 법칙에도 맞게 해나가는것이 곧 실정에 맞게 해나가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객관적조건에 맞지 않는 방법이 실정에 맞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구체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지 않는 방법도 역시 실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된다.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실정에 맞는것으로 될수 없으며 비록 그와 같은 방법을 적용할수 있는 객관적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인민자신의 요구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자체의 실정에 맞는 방법이라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키는것과 함께 근로인민대중의 요구, 객관적법칙과 구체적인 조건들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모든 일을 실정에 맞게 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고수하는 문제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통일되여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72~273페지)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이 그들자신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주인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이 근로인민대중자신의 투쟁에 의해서만 수행된다

는 점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로 되고 그것을 추진시키는 동력으로 된다. 이처럼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것이 아닌것만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의 립장과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 방법은 서로 뗄수 없이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유기적으로 통일되여있으면서도 서로 구별된다.

자주적립장이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립장이라면 창조적립장은 바로 이 립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주적립장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의 자주적성격을 규정하는 원칙이며 창조적립장은 근로인민대중이 수행하는 역할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의 방법을 규정하는 원칙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은 세계에서 차지하고있는 주인의 지위로부터 출발하여 행동하게 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는것만큼 주인으로서의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고있는 지위에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의 구체적인 리해관계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원할수 있는 힘의 범위가 달라진다. 근로인민대중이 아직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조건에서 그들의 요구와 리익은 지배계급의 예속에서 벗어나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는것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가 리용할수 있는 힘은 근로인민대중자신의 힘뿐이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한 조건에서는 그 지위를 더 공고발전시키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동원할수 있는 힘에는 그들자신이 지니고있는 창조력뿐아니라 국가주권과 생산수단 같은것도 다 포함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살려는 혁명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수단을 밑천으로 하여 실현해나가는것을 자기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려는 요구를 담은 투쟁목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혁명과 건설을 시작하는 문제자체가 설수 없으며 자기가 가지고있는 힘과 수단을 밑천으로 삼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이 시작될수 없다. 자기의 요구와 리익을 담은 자체의 투쟁목표와 자신의 힘은 혁명과 건설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활동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투쟁목적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실현해나갈것을 요구하는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활동의 자주적성격을 규정하는 원칙이라고 하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주적립장은 근로인민대중의 활동의 창조적성격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방법으로서의 창조적립장과 구별된다. 또한 창조적립장은 자기의 투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체의 힘과 객관적조건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리용할것인가 하는 행동방법상의 원칙으로서 행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자주적립장과는 다른것이다.

이와 같이 자주적립장이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벌려나가게 하는 행동의 원칙이라면 창조적립장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힘을 효과적으로 써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활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행동의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주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발전에서 거대

Digitized by Google

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고있는 지위의 자주적특성과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창조적성격과 직접 결부되여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립장과 방법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함으로써 자기의 혁명적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고수할수 있으며 가장 믿음직한 현실적인 수단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말살하고 마비시키려는 반동적지배계급의 낡은 사상,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사상, 민족허무주의사상과 같은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끝까지 고수할수 있다. 또한 근로인민대중은 창조적립장을 견지함으로써 교조주의와 주관주의 등 온갖 비과학적인 사상을 극복하고 철저한 과학적인 방법을 관철시킬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튼튼히 서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튼튼히 서기 위해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파악하여야 하며 자기자신의 근본 요구와 리익을 잘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튼튼히 서기 위해서는 혁명의 탁월한 수령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다시말하여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당만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튼튼히 설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수령과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감으로써만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이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견지하고있는 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수 있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키고 그들의 투쟁을 객관적법칙과 구체적조건에 맞게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구현하여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주체적인 대중령도방법을 철저히 관철시켜나가는 바로 여기에 모든 빛나는 승리의 중요한 비결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인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튼튼히 의거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민들앞에는 못해낼 일이 없으며 그들은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만을 이룩해나갈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은 대중 지도의 기본요구

리 태 인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령도를 실현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함으로써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자는데 있다.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에 의하여 보장되며 대중에 대한 령도는 령도체계와 사업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하며 모든 일군들이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옳은 대중지도방법을 가져야 한다.

당일군들이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론을 구현하고있는 힘있는 대중지도방법이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령도의 기본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대중지도의 기본방법이다.

모든 사업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당의 의도대로 해나가도록 옳게 지도할수 있으며 중심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추동할수 있다.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은 무엇보다도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기 위한 당적령도의 기본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혁명적령도의 기본요구는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당정책집행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61페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의 투쟁을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고 당의 지도와 대중의 활동을 결합시키는 일군들의 사업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법에 의거할 때만이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것은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관료기관이 아니라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적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은 결국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로 그들을 얼마나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당일군은 반드시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에 기초하여 모든 사

Digitized by Google

업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도 일군들이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만일 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똑똑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술실무적으로 대한다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보장할수 없으며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된다.

당일군들은 모든 문제를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가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야 경제과업수행을 떠밀어주고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발동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지혜를 발동시키고 군중의 힘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 집행을 지도하는것은 당적령도의 기본요구로 된다.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인 우리 당일군들이 대중지도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고 단결시키며 대중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사업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67페지)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결국 당일군들이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일해나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사업을 조직전개하면 모든 일이 다 원만히 풀려나갈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에서든지 성과를 거둘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당적방법으로 일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에 의거하여야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각성시키고 적극 발동시킬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하고 동원하는것이 곧 정치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행정적방법이나 물질적관심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사람과의 사업을 옳게 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위업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믿을것이란 인민대중밖에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에 의거하여야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각성시키고 그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여나갈 사명을 지닌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해설하고 설복하며 교양하고 깨우쳐주어 군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방법보다 더 좋은 대중동원방법은 없다.

정당한 목적과 과업을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일군들의 사업에서는 절대로 행정식사업방법이 허용될수 없다.

명령하고 지시하며 보고서와 통계를 받고 결정서를 내려보내는것과 같은 행정식사업방법으로 일하여서는 당사업에서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 사람과

Digitized by Google

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식방법으로 하여가지고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할수 없으며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가장 옳은 방도는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일군들에게는 오직 당조직과 당원들을 움직이고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당적방법, 정치적방법만이 있을수 있다.

우리 당일군들이 당조직을 움직이고 당원들을 발동하며 대중에게 당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의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당이 준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는것이다.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는것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고정불변한것으로 될수 없다. 그것은 제기된 혁명과업의 성격과 내용, 지도일군들의 수준과 대중의 의식상태에 따라 부단히 심화발전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로동계급의 당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낭앞에는 더욱더 복잡하고 무거운 과업이 나서게 되며 인민대중의 의식성과 자각성은 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혁명적 개조와 변혁이 심각하여지면 질수록, 대중운동과 혁명투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대중의 의식성과 조직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역할은 더욱 높아져야 하며 그러자면 당의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일군들의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 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일군들이 모든 문제를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갈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이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충성의 혁명대오로,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다. 또한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도 단순한 경제실무적조치로써가 아니라 광범한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동원하는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에 의거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대중의 교양자이며 정치사업은 간부들의 본분이다.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당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해나가야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투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할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되고 나라의 공업화가 완수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더욱더 현대화되고 경제가 고도로 제여있는 오늘에 와서 가장 큰 예비는 바로 광범한 대중의 사상에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에 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신심과 투지에 넘쳐 일떠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는 물질경제적예비에 비할바없이 큰 힘으로 되며 또 물질경제적예비도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해야 나올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당적방법, 정치적방법만이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켜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힘있는 대중지도방법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바로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비결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원들과 군중을 움직이며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제기된 과업을 수행해나가는것은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오늘 우리 당일군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다.

당일군들은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감으로써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일본새를 가지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2페지)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령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대로 일해나가는것은 당사업방법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오랜 행정에서 혁명적령도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공산주의적령도방법의 고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에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들과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당사업과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다 밝혀져있다. 그렇기때문에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따라배움으로써만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극복하고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살며 일하고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따라배우는것은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게 한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당사업방법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빛나는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그대로 본받아 일해나갈 때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당의 당일군으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게 될것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무엇보다먼저 설복과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사업방법

Digitized by Google

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방법을 따라배워야 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대중을 설복하고 교양하는것이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발동하는 사업은 꾸준한 설복과 교양으로써만 성과를 거둘수 있다. 정치사업방법은 덮어놓고 내려먹이는 행정식방법, 관료주의적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또한 행정적방법으로써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할수 없고 발동시킬수도 없다.

설복과 교양의 방법에 의거할 때에만 대중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의 내용과 수행방도 그 정당성과 의의에 대하여 충분히 깨닫게 할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도록 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당정책을 제때에 침투시키고 그 목적과 의의를 똑바로 인식시키며 당정책의 집행방도를 대중과 토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며 그것을 대중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대중자신의 사업인것만큼 광범한 군중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한사람이 열사람을 교양하여 움직이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여 움직이며 백사람이 천사람을 교양하여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키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의 하나이다.

당일군들은 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각오정도가 다른 조건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고 그들을 다 움직이자면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주어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충성의 열정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간부가 당원을, 당원이 군중을 교양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당이 요구하는대로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배합하는 문제나 행정식사업방법을 없애고 당적사업방법을 세우며 사업작풍을 바로잡는 문제가 다 일군들의 수준에 달려있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3권, 274페지)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도를 따라세우며 사업방법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일군들의 높은 정치실무수준이 안받침될 때만이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당일군들이 수준이 어리면 필연코 작풍이 거칠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해나갈수 없다.

일군들의 수준이 낮고 능력이 모자라게 되면 간판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하거나 명령과 지시로 사업을 대치하게 된다.

일군들은 직위와 간판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 할것이 아니라 세련되고 로숙한 사업을 통하여 권위를 세워야 하며 그러자면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모든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능

숙하게 처리해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과 당의 요구에 비해 자신의 사업 방법과 작풍이 따라서지 못하고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 대중지도방법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그대로 사업하고 생활해나감으로써 참다운 정치활동가, 로숙한 당일군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모든 문제를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하는것이다.

당사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적인 사업으로서 고정격식화된 틀이 있을수 없고 매 사람에게 꼭 들어맞는 유일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당사업의 대상인 사람은 그 수준과 준비정도가 다르고 그들이 처하고있는 환경과 생활경위도 서로 다르다. 또 그들이 수행하고있는 과업도 서로 같지 않다.

당사업은 어디까지나 대상의 각이한 특성과 환경, 제기된 혁명과업의 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창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당일군들은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집행하며 각이한 대상에 알맞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져야 한다.

제기된 과업의 내용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업을 천편일률식으로 한다면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

당일군들이 혁명과업의 내용과 각이한 대상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일해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이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일하자면 또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당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5페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은 그들의 능력이나 성격, 단순한 일본새에 관한 문제인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에 관한 문제이며 그들이 가지고있는 사상의 집중적표현이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한 일군들은 바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으로 일하게 되며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지 못한 사람은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으로 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낳는 사상적근원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리지 않고서는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앨수 없으며 이것은 오직 꾸준한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한두번의 강조나 호소, 몇번의 회의나 깜빠니야적인 투쟁으로써는 낡은사업방법을 극복할수 없다. 오직 목적의식적이며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함으로써만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적방법으로 일해나갈수 있다.

낡은 사업방법은 하루이틀사이에 다 없어질수 없는것만큼 일상적인 당생활을 통하여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진행하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은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일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명심하고 언제나 명령을 내리고 구령을 치는 지휘관이 될것이 아니라 대중을 일깨워주고 불러일으키고 떠밀어주는 주체형의 당의 참된 당일군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더욱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의 주체적교육사상과 후대교육사업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

남 진 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후대교육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후대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성과,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위대성과 우리 당 교육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시위로 되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귀중한 재부로 된다. 그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된 빛나는 교육전통에 그 력사적뿌리를 두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길을 개척하면서 거둔 성과인것으로 하여 더욱 고귀하고 의의있는것으로 된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후대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교육테제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사업에서 더욱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1

자라나는 후대들에 대한 교육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새 사회를 건설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원칙적인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어느 시대,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도 민족적 번영도 이룩할수 없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09페지)

자라나는 후대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앞날과 직접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아무리 살기좋은 사회제도를 세워놓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어받을 새세대들을 옳게 교양육성하지 않는다면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없는것은 물론 이미 이루어놓은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마저 잃어버릴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을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새세대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혁명적교육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시여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과학적학설인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에 관한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교육사상은 교육사업의 혁명적본질로부터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그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제도와 교육조건,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당의 령도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관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인간개조학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

Digitized by Google

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교육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으며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올바른 교육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우와 같은 문헌, 410페지)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일제의 야만적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해방전까지만 하여도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남아있었으며 주민의 80%이상이 문맹속에서 헤매이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나라는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지 불과 30여년동안에 진보와 문명에로의 대비약을 이룩하였고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나라》,《배움의 나라》로 전변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누구나 다 무료로 배우고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세우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배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낼수 있게 하는 실제적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력사에서 처음으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우리의 새 세대들은 누구나 다 국가의 혜택에 의하여 어려서부터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완성된 중등교육을 받고있다.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해방전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던 이 땅우에 오늘은 150여개의 대학과 수많은 고등전문학교들이 일며서 지방마다에는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여기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기사, 전문가들을 길러내고있다.

오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이미 우리의 힘으로 양성된 100여만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일하고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하여 국가,경제기관들과 과학문화기관들,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이리하여 새 사회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민족간부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수세기가 지나도록 해결할수 없었던 민족간부문제를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훌륭히 해결해놓은 이 빛나는 성과는 새 사회 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해놓은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근로자들에게도 배움의 길이 활짝 열려져있다.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고등중학교와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으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여기에서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마음껏 배우고있다.

이렇듯 우리 나라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보장하는 전반적의무교육제도와 무료교육제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와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교육제도가 튼튼히 세워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가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나라 교육은 더욱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Digitized by Google

교육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교수교양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로동계급적선이 명확히 서고 범벅교육의 잔재가 말끔히 청산되였다. 또한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마비시키는 자본주의교육방법을 비롯한 온갖 낡은 방법이 청산되고 사회주의교육의 본성에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우리 나라 교육이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적잔재의 마지막흔적까지 철저히 극복하고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는 혁명적인 교육, 주체교육의 본보기로 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시로 된다.

2

후대교육을 민족의 장래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신 첫시기부터 그 어떤 기존 리론이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주체적인 교육방침을 제시하시고 혁명적인 교육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후대교육을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떤 립장에서 대하는가 하는 문제는 교육사업발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사회 건설에서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해방후 첫날부터 이것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후대교육문제해결에서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해방후 첫날부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새 사회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큰 힘을 넣어왔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00페지)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교육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이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에 걸쳐 확고히 견지한 독창적인 방침이다.

교육사업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들을 새형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사람과의 사업이다. 인간을 교양개조하는 사람과의 사업을 다른 사업에 앞세우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교육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람들을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키울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사람들은 경제발전을 앞세워 경제적밑천을 튼튼히 하고 생활에 여유가 생겨야 교육도 발전시키고 문화도 꽃피울수 있는것처럼 생각하여왔다. 이것은 당면한 문제만을 보고 혁명의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을 키우는 일을 차요시하는 그릇된 관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래의 이 낡은 관점을 철저히 배격하시고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때에도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그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생산문제를 내놓으시고 새 사회 건설을 문맹퇴치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시였으며 모든것이 불타고 페허로 된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도 국가의 많은 자금을 들여 새세대들을 위한 학교와 유치원을 먼저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은 자체의 민족간부양성문제를 생각할수 없었던 건국초기의 어려운 때에도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을 세우고 민족간부양성의 터전을 튼튼히 마련해놓을수 있었다. 또한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전선에 나간 교원,학생들을 소환하여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밀고나감으로써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할 기술인재들을 예견성있게 키워낼수 있었다.

아직은 나라의 경제적밑천이 튼튼하지 못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경제건설을 다그쳐야 하였고 푼전을 쪼개가면서 나라의 재정을 아껴써야 하였던 우리 당은 전쟁의 상처를 방금 가셔낸 1959년에 력사적인 전반적무료교육을 장엄하게 선포하였다. 또한 미제의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경제와 국방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는 긴장한 조건에서도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한데 뒤이어 보통교육단계의 의무화를 완전히 실현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신 결과에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경험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갈 때 문화적락후성을 가시고 자체의 민족간부를 키워낼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기 위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단계별 투쟁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단계별 투쟁목표를 명확히 규정하는것은 교육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그것은 교육사업에서 주관주의를 미리 막아내고 아무런 편향없이 후대교육을 곧바로 전진시킬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만일 교육사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관적욕망만을 앞세우면서 주객관적조건의 성숙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뚜렷한 단계별 목표없이 교육사업을 조직진행한다면 교육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와 전망, 교육발전을 위한 주객관적조건들을 깊이 헤아리시고 교육제도의 창설과 공고발전, 교육내용과 방법 등 교육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해결하여야 할 당면한 투쟁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의 한고리로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페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창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민주주의교육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는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전반적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교육제도로 발전시킬데 대한 투쟁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이리하여 나라의 사회주의혁명이 완수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이르러 교육체계와 교육내용, 교육방법은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개편되였으며 사회주의교육제도가 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성인교육에서도 명확한 단계와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Digitized by Google

실현에로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일제에게서 물려받은 문맹을 완전히 퇴치할수 있었으며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현대문명의 향유자로,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교원양성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교원양성기관들을 후대교육을 위한 《원종장》으로 꾸릴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견지하심으로써 후대교육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을 양성하는 사업에서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범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원양성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은 후대교육사업을 위한 〈원종장〉이다. 교원양성기관들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하여야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훌륭한 교원이 나올수 있으며 그래야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51페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은 우리 사회에서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교원의 준비정도와 역할여하에 따라 후대들의 질적상태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후대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교원양성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하며 교원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제도를 세워놓고 현대적인 학교를 건설해놓았다고 하더라도 교원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대교육에서 교원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교원양성사업을 앞세우고 교원양성기관들을 후대교육을 위한 《원종장》으로 꾸릴데 대한 주체적인 방침을 견지하심으로써 빨리 늘어나는 교원의 수요를 질량적으로 훌륭히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 방침에 따라 정연한 사범교육체계를 세우고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각 도에 고르롭게 배치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지방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 당은 사범교육기관에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범교육기관들을 후대교육을 위한 《원종장》답게 잘 꾸림으로써 사범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게 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졸업후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자기 학교를 알뜰하고 문화적으로 꾸리고 관리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이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으로부터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까지를 단계별로 련이어 실시해나갈수 있은것도, 우리의 교육이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주체의 혁명적교육으로 힘있게 전진해나갈수 있은 비결도 바로 교원양성사업을 앞세우고 교원양성기관들을 후대교육을 위한 《원종장》으로 꾸릴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구현해나간데 있다.

교원양성사업을 앞세워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려놓은것은 후대교육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며 우리 당이 후대교육에서 이룩한 또하나의 귀중한 경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국가가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전사회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교육사업을 힘있게 지원하고 도와나서도록 하심으로써 교육조건보장에서도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기관들의 물질적토대를 잘 꾸려주는

데 전국가적, 전사회적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71페지)

교육사업은 현대적인 교사와 실험실습조건 등 많은 물질적수단을 요구하며 이 물질적수요는 교육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증대한다. 따라서 교육의 물질적수요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교육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될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원칙적문제로 나선다.

언제나 인민의 힘을 믿으시고 그들속에 계시면서 군중을 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것을 대중령도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전사회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달려있으며 후대교육을 위하여서는 모든것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합쳐 곳곳에 학교를 일떠세울것을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전사회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학교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는 해방직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폐허우에서 2,000여개의 인민학교와 200여개의 중학교를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한장의 벽돌, 한줌의 세멘트가 그처럼 귀중하였던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을 련이어 실시할수 있었다.

1969년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있은후 단 1년동안에 1만개의 교실을 지을수 있은것도, 적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격화되는 속에서 전민이 힘을 합쳐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전면적실시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은것도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육사업을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달라붙어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기때문이다.

참으로 우리 나라 교육이 이룩한 오늘의 자랑찬 성과는 언제나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교육이 걸어온 승리적로정에는 주체교육의 개화기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거기에서 이룩된 고귀한 경험이 찬란히 수놓아져있다.

오늘 우리의 교육사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갈때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는 더욱 큰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테제를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교육사업발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교육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옴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경제를 움직이는 우월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

김 철 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그를 경제관리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그리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그들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관리체계이다. 이 체계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 그리고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을 경제관리의 중요한 원칙적요구로 제시하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있으며 날을 따라 더욱 커다란 은을 나타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에 일관된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경영이 자본주의공업경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본주의공업경영과는 달리 사회주의공업경영이 사람들의 의식을 발동시켜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공업경영의 기본은 사람들과의 사업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14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에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은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에 일관된 근본사상이다.

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한다는것은 모든 경제관리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풀어나가며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관리운영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난날의 경제관리는 주로 물질적수단들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경제관리문제를 풀어나갔던것으로 하여 그것은 물질적수단들에 대한 관리와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로동력과 련결시키는 하나의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으로 되고 있었다. 사람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그것은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

Digitized by Google

로서의 생산자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조직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게 하는것보다 주로 생산에 참가하는 한 요소로서의 로동력을 관리하는데 국한되여있었다.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는 지난날의 사회주의경제관리는 자본주의경제관리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것으로서 그것은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근로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높일수 없게 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원만히 발휘시킬수 없게 하였다.

사람과의 사업이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흘러나온 위대한 경제관리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81~482페지)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직접적인 담당자이며 그를 추동하는 결정적력량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의 모든 물질적재부를 만들어내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해나가는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의 모든것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나가는 력사의 지배자이다.

모든 사회적관계의 담당자는 인민대중이며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생산에 참가하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옳게 결합시켜 움직여나가는 능동적이고 결정적인 력량도 바로 근로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나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는 경제관리사업에서 사람은 언제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결정적인 역할을 놀게 된다.

자연과 사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들이 노는 역할을 심오하게 밝혀주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결국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기본열쇠를 다른데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에서 찾아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이 기본으로 된다는것은 결코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차요시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은 생산에서 현대적기술수단들과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비상히 커지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경제기술실무사업을 더욱 잘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앞세우면서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안받침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만일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 일면만 강조하고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차요시하거나 반대로 경제실무적인 사업만을 일면적으로 내세우게 되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다줄수 있다.

오직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이에 안받침할 때만이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인민경제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과학화하여나가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자면 그에 알맞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사람과의 사업이 경제관리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제시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 체계와 방법, 원칙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히고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기 위한 사업 체계와 방법, 원칙에서 중요한것은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경제를 집체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며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문제해결의 옳은 방향과 방도를 세움으로써 대중자신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제기된 혁명과업을 가장 빨리, 가장 훌륭하게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와 방법, 그 원칙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완성된 전일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였다.

경제실무적인 사업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던 종래의 경제관리로부터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로의 혁명적전환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참다운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새기원을 열어놓은것으로 된다.

중앙집권적지도와 민주주의의 옳은 결합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지방과 대중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을 명확히 밝히시고 그것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관리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를 사소한 편향도 없이 곧바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공업과 농업 관리체계를 개편한 다음 전반적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경제를 보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43페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중앙으로부터의 통일적인 국가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경제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경제는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된 통일적인 경제이며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다.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국가의 통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에 의해서만 움직이며 발전할수 있다.

국가의 통일적인 중앙집권적지도는 또한 현대적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사회주의적경리는 집단경리인것만큼 어느 한 부문, 어느 한 고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원만히 운영될수 없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현대적대규모사회주의경제는 고도로 조직화되여있는 경제이고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있는 경제이다. 이러한 경제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가의 통일적지도에 따라 목적

Digitized by Google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하는것이 합법칙성으로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밑에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경영활동을 하는것은 전국가적범위에서 당의 경제 로선과 정책을 통일적으로 일치한 보조밑에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는 지방과 대중의 창의창발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중앙으로부터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는 착취사회에서와 같이 지배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우로부터 강요되는 중앙집권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는 지방과 생산자대중의 광범한 창발성에 의거하고있으며 민주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이것은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지도하는것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생산자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는 밑으로부터의 대중의 창발성을 전제로 하며 지방과 대중의 창의창발성은 중앙집권적인 통일적지도에 의해서만 높이 발양될수 있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가 보장됨이 없이 생산자대중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전면적으로 벌릴수 없으며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함이 없이 당의 모든 경제정책과 방침들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는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전행정에서 확고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으로 된다. 이 원칙을 정확히 관철하여야 대중의 창발성과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를 가장 정확히 결합시킬수 있으며 근로대중의 리익과 전사회적, 국가적 리익 그리고 나라의 당면한 현실적요구와 전망적요구를 가장 옳바르게 련결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지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며 부문간, 기업소간의 련계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협동적소유의 단일한 전인민소유에로의 전환과정이 촉진되면 될수록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게 된다.

만일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킨다는 명목밑에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도를 약화시키거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간, 기업소간 련계가 복잡해졌다고 하여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거부하고 분권화, 기업의 자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경제운영에서 맹목성과 자연발생성을 조성하게 되며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력사적경험은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인 지도가 약화되는곳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경제적기초인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 그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며 대중의 창의창발성도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도 발양시킬수 없게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경제관리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옳게 결합시키고 그것을 다같이 획기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은 공장,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와 기업소의 상대적인 독자성과의 유기적인 결합으로써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와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의 상대적독자성은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를 사회

주의경제운영에 구체화한것으로서 그것들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련계와 유기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있다.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와 공장, 기업소의 상대적독자성이 옳게 결합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의도와 기업소집단의 의사가 전면적으로 결합되여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생산자대중의 높은 창발성,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기업소들의 자립적인 활동이 합리적으로 결합되고 다같이 강화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우리 나라에 확립된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통하여 경제관리에서 중앙집권제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고 그것을 다같이 획기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바로 중앙집권적계획적지도가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고 민주주의가 중앙집권적지도를 끝없이 심화시키는 기초우에서 중앙집권제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고 다같이 강화할수 있게 한 산모범으로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개인의 주견에 의거하여 운영하던 낡은 기업관리방법을 없애고 경영활동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한다. 이 체계는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어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기업관리체계이다.

대안체계에서 기업관리에 대한 당적, 국가적 지도는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에 의하여 더욱 철저히 실현되며 이 과정에서 당과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근로대중의 높은 창발성, 국가의 계획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적활동을 결합시키고 강화하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확고히 보장되게 된다. 대안체계에서 우가 아래에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는 국가가 생산수단의 공급을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하며 생산현장의 실정에 맞게 제때에 공급하고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또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국가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함으로써 협동경리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계획적지도를 더 잘 실현할수 있는 길을 개척하게 되였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국가가 계획화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유일적으로 지도하며 경제활동의 세부에까지 맞물려주는 새로운 계획화체계이다. 이 체계는 당의 의도와 국가의 요구를 잘 아는 계획기관일군들이 지방과 기업소에 직접 나가서 계획화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정책과 국가의 방침이 계획화의 모든 단위들에 제때에 들어가고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남김없이 발휘되게 한다.

이렇듯 경제관리에서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문제의 새로운 해결은 국가로부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더욱 실속있게 하고 나라의 자원과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정치도덕적자극의 선행과 물질적자극의 합리적배합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경제관리에서 자본주의적경영방법을 철저히 청산하는데서 날카롭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전면

Digitized by Google

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를 옳게 배합하여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는 좌경적인 편향과 정치도덕적자극을 홀시하고 물질적관심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지도에서 지방분권화와 기업의 자유화방향으로 나가려는 우경적견해를 완전히 극복할수 있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44～445페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이 문제를 똑바로 해결하여야 생산자대중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과업을 다같이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에 대한 문제는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사람을 발동시키는 방법에 관한 문제로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사회주의기업관리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적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의 호상관계를 새롭게 밝히시고 그것들을 옳바르게 배합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를 똑바른 길을 따라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에 관한 문제는 생산과 건설에서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어떻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겠는가 하는것과 관련된 군중동원방법에 관한 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로력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데서 로동에 대한 두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면서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군중동원의 기본방법에 관한 문제에 고전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면서 거기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켜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96페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생산도구를 만들어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는것은 근로대중이며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도 근로대중에 의하여 창조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자기들의 로동이 나라와 사회의 륭성발전과 자신의 행복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관심을 높이는 문제는 그들속에서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이는것과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 주인으로서의 자각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낳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 나라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립장을 확고히 가질 때 언제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게 된다.

Digitized by Google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관심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높아진다.

그러므로 생산자대중의 로력적열성을 추동하는데서 정치도덕적자극을 기본으로 하는것은 합법칙성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도덕적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것은 결코 물질적관심을 높이는것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아직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생산력발전수준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할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로동에서 본질적차이가 남아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이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되여있지만 아직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상 제1차적인 요구로 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람들은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을 가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물질적자극은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면서 옳바르게 리용될 때 생산발전을 추동하는데 일정하게 작용을 하게 되며 건달군을 없애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된다.

물론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이 없어져감에 따라 근로자들이 자기 로동에 대한 물질적관심도 점차 없어져가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 로동에 대한 물질적관심이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충분히 높일수 없게 된다. 반대로 로동에 대한 물질적자극을 일면적으로 내세우면서 그것을 절대화하게 되면 개인리기주의를 조장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가지오게 된다.

경험은 생산자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그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배합할 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간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에서는 언제나 근로자들의 로동을 정치사상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가장 옳바르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그것이 가지는 거대한 우월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실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 때만이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혁명적본질과 기본요구들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제관리일군들이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자재공급과 계획화 사업,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설비관리, 로동행정, 재정관리 등 모든 측면들을 튼튼히 틀어쥐고 관리운영사업을 책임적으로 실속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군들은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과학기술지식, 풍부한 경제관리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요구대로 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경제관리의 개선과 생산정상화의 중요한 고리

렴 룡 삼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방침이다.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현대적인 대규모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굳게 단결하여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것은 집단주의이며 집단주의를 사회생활의 기초로 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이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높은 정치적열성을 발휘하여 투쟁하며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경제문화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진척된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경제관리에서 집단주의원칙을 계속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기업관리를 정규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인 질서와 규률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집단주의원칙에 맞게 모든 일군들과 생산자들의 활동을 고도로 조직화하여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경제는 다같은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공동로동에 의하여 움직이며 모든 경제부문들과 생산단위들이 유기적인 생산소비적련계를 맺고있는 대규모경제이다. 그것은 또한 생산공정자체가 기술공정으로 되여있고 기술장비수준이 매우 높은 현대적인 경제이다. 이러한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제는 생산과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치한 보조를 맞추면서 한결같이 움직여나갈것을 요구한다.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공동보조를 잘 맞추어나가지 못하면 사회주의경제를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없다.

집단주의원칙과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제의 특성에 맞게 모든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같은 보조를 맞추어나가도록 하려면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해야 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한다는것은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준칙과 사업질서를 규제한 관리 규범과 규정들을 만들고 그에 따라 모든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일치하게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고도로 조직화, 제도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면 집단주의원칙에 맞게 대중의 단합된 힘을 높이 발양시켜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다.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서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경제지도일군들로 하여금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며 기업관리를 정규화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기 위한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길이 있으며 정연한 사회주의적경제관리운영질서를 세워 생산과 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기업관리를 정규화하여 경제관리운영에서 낡은 질서를 없애야 한다.

경제관리에서의 낡은 질서는 개인리기주의와 기관본위주의, 무규률성과 같은 낡은 사상잔재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가는것을 방해하는 중요한 장애물로 된다. 이러한 낡은 사상잔재와 그에 기초하고있는 낡은 경제사업질서는 사상교양 하나만으로는 극복할수 없다. 그것은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관리를 정규화해나가야 철저히 뿌리뽑을수 있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하여 모든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사회주의적관리 규범과 규정에 따라 일치하게 움직이게 하여야 경제관리에서 낡은 사상이 발붙일수 있는 틈을 막고 정연한 사회주의적경제관리운영질서를 튼튼히 세워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또한 기업관리를 정규화하여야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철저히 규범화할수 있으며 계획화와 생산지도, 설비관리와 자재공급, 재정관리와 후방공급 등 모든 경영활동을 고도로 조직화하여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도 바로 실시할수 있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하지 않고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수 없으며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갈수 없다.

현시기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것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바로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519페지)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면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큰 밑친을 들이지 않고도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기업관리를 정규화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생산정상화의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생산을 정상화하려면 설비관리를 잘

Digitized by Google

하고 원료와 자재를 제대로 대주며 생산자들이 기술조작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설비관리를 개선하여 설비를 아끼고 제때에 점검보수하며 원료, 자재의 공급사업을 잘하여 그것을 떨구거나 사장, 랑비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며 모든 생산자들이 기술조작법을 잘 지키도록 하여야 있는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고 기대마다, 설비마다에 만부하를 걸수 있으며 생산을 중단시키지 않고 높은 수준에서 계속 정상화해나갈수 있다.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원칙적요구들은 기업관리를 정규화할 때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면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설비관리와 기술관리, 자재공급과 같은 모든 경영활동을 고도로 조직화, 제도화하여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분한있게 리용할수 있으며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과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원가를 보다 낮출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갈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큰 투자없이도 새 전망계획의 방대한 과업들을 앞당겨수행할수 있다.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도 나서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과업이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서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거창한 과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업관리를 철저히 정규화하는데 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간다면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기업관리의 정규화가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 기업관리를 정규화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는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최근시기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표준공장들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영활동을 합리화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좋은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현실은 기업관리의 정규화가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기업관리를 정규화할 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다그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관점을 철저히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세우고 완성하는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입니다. 그것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낡은 전통과 질서에 깊은 뿌리를 박고있는 낡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사업이기때문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40페지)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단순한 경제실

Digitized by Google

무적인 조치들만 취하면 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관리에서 낡은 질서를 뿌리뽑고 사회주의적인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복잡한 사업이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한결같이 동원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방대한 사업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기업관리의 정규화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세우지 않고서는 경험주의적인 사업방법과 주먹구구식사업태도를 없앨수 없으며 사회주의적인 규률과 질서에 따라 생산과 경영활동을 고도로 조직화해나갈수 없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기업관리의 정규화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자면 정규화의 목적과 그 본질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일군들과 생산자들 자신의 역할을 높여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이며 사회주의적인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갈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람찬 사업이다. 그것은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하에서의 이른바 《기업관리의 합리화》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것이며 최신기계설비와 계산통계수단들이나 받아들여 생산의 자동화를 다그치면 저절로 실현되는것도 아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기업관리의 정규화가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와 로동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또한 자기자신들이 해야 할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공장,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고도로 조직화하는데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고 독립채산제도 바로 실시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 사업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부문별로 되는 정규화의 표준공장, 본보기공장들을 더 잘 꾸리고 그 경험들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반적인 기업관리운영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범을 창조하여 그 경험을 널리 보급하며 기업소관리일군들에게 관리운영방법을 가르쳐주는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82페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은 생산기술공정이 서로 다르며 생산소비적련계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사업을 한꺼번에 다같이 정규화할수는 없으며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만으로 정규화가 저절로 될수도 없다.

기업관리의 정규화를 다그치기 위한 가장 힘있는 방법은 인민경제부문별로 정규화된 표준공장, 본보기공장들을 잘 꾸리고 실물교육을 강화하며 표준공장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표준저울이 있어야 정확한 저울을 만들수 있는것처럼 기업관리도 표준공장이 있어야 정규화할수 있다.

표준공장들을 잘 꾸려야 기업관리정규화의 우월성을 실물로써 보여줄수 있으며 그 경험을 통하여 다른 공장, 기업소 일군들에게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도를 가르쳐줄수 있다. 또한 표준공장을 잘 꾸려야 그 과정에 유능한 경제지도일군들도 많이 키워낼수 있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 본보기단위를 잘 꾸리고 실물교육을 통하여 일반화해나가는것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된 부대관리의 정규화경험을 통하여 이미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우월한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Digitized by Google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그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몸소 정규화된 생활을 하는 본보기부대를 튼튼히 꾸리시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도록 지휘원들과 대원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이리하여 부대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항일유격대의 전통적인 혁명적기풍으로 되였으며 이 과정에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해나가는 사업방법의 생활력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그대로 따라배워 이미 시작한 표준공장들을 잘 꾸리는 사업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표준공장들에서는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새롭게 제정된 여러가지 기술경제적기준들과 규정, 규범들을 철저히 지키며 계산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해당 부문의 다른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업관리를 정규화해나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훌륭한 경험들을 더 많이 창조해내야 한다.

표준공장들을 더 잘 꾸리는것과 함께 그 경험을 제때에 널리 일반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자기 부문의 표준공장들에서 창조된 훌륭한 경험들을 받아들여 기업관리를 표준공장들의 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표준공장들에서 창조된 경험에 기초하여 로동정량과 물자원단위소비기준, 설비리용기준을 비롯한 기술경제적기준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와 자기 공장, 기업소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바로 정하며 지배인으로부터 직장장, 작업반장들에 이르는 모든 일군들의 동작규범들과 부서직능들은 정확히 만드는것이다. 이와 함께 자기 공장,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규정을 비롯한 경제관리규정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세칙들도 잘 만들어야 한다.

기술경제적기준들을 새롭게 정하고 규정들과 세칙들, 동작규범들과 직능들을 만든 다음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똑똑히 알도록 철저히 해설침투시켜야 하며 규정과 규범들에 따라 생산활동을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제정된 규정과 규범들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하며 제정된 규범과 규정들을 지키는데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인 규정과 규범들을 철저히 지키는것을 생활화, 습성화, 제도화함으로써 기업관리를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해나가야 한다.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러한바와 같이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 사업도 당조직들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기업관리의 정규화를 다그쳐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경영활동을 조직화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해나가도록 함으로써 3대혁명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투쟁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반적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드는것은 농촌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

김 승 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서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의 필연성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농업협동경리를 물질기술적으로, 조직경제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농민들의 사상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접근과정을 비상히 다그쳐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에 관한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미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그 거대한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들데 대한 사상과 리론의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드는것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심문제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겨 단일한 전민소유제를 실현하여야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소유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되여 단일한 전민소유제가 확립될 때에는 로동계급과 농민,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며 모든 근로자들이 계급없는 사회에서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협동적소유로부터 전인민적소유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나라의 모든 협동농민들이 념원하고있는 최고의 목표인것이다.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것은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이나 농업협동화를 한것과 같은 큰 사변이다.

협동적소유로부터 전인민적소유로 넘어가게 되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와 분배관계, 경제관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이룩되게 된다. 이러한 변혁과정은 농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문화생활의 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들자면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한 전제조건과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을 실현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문제를 옳게 풀데 대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Digitized by Google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적소유로부터 전인민적소유로 넘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두가지 중요한 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첫째로는 협동농민들이 개인리기주의사상을 철저히 뿌리뽑고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32페지)

《협동농장을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농업생산을 고도로 기계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36페지)

어떤 혁명투쟁에서나 그 전제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서는 승리할수 없다. 특히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것과 같은 사회경제관계발전에서 력사적전변을 일으키는 대변혁과정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전제조건문제를 옳게 풀어야 투쟁방향과 방도를 정확히 설정하고 아무런 편향도 없이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하여서는 두가지 조건, 사상적전제와 물질적전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상적전제를 마련한다는것은 모든 협동농민들을 전민소유의 주인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며 물질적전제를 마련한다는것은 농업생산을 고도로 기계화하여 전민소유제에 맞는 높은 생산력수준을 이룩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의 두가지 전제에 관한 사상은 협동적소유의 본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소유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들을 새롭게 밝힌 독창적인 사상이다.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는 공업과는 달리 사회주의농촌경리에서 협동적소유가 지배하게 되는것은 바로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민들의 사상의식이 아직 전민소유를 요구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반영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령역에서의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드는것은, 사람들의 주관적욕망에 의하여 협동적소유를 기계적으로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오직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은 소유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협동적소유가 남아있게 되는 근원을 없애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들기 위한 사상적 및 물질적 전제가 마련된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한 전제조건을 사상적전제와 물질적 전제의 두가지로 규정하시고 그가운데서도 사상적전제를 마련하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들의 사상의식이 농업생산과 공동경리발전에 결정적영향을 미치는것만큼 협동경리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농민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34페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데서 농민들의 사상의식개조를 앞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생산력의 발전수준은 소유관계변화를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소유관계의 변화를 위한 하나의 객관적조건에 지나지 않으며 그에 의하여 소유전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Digitized by Google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직접 담당수행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며 생산력을 발전시켜 그 물질적전제를 마련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리해관계로부터 소유관계를 변화시킬것을 생활상요구로 제기하고 그것을 담당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여야 소유관계는 변화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리해관계와 요구를 규제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것은 소유관계의 변화를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더우기 농민들에게는 지난날 오래동안 소상품생산자로 있었던 사회경제적처지의 특성으로 하여 개인리기주의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가 뿌리깊이 남아있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은 토력평가가 힘들고 계절성이 심하며 손로동이 비교적 많은 조건에서 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일할것을 요구한다. 이런 조건에서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긴다면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적전제를 물질적전제조성에 확고히 앞세워야만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드는 사업을 그 주인인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사상적전제와 함께 물질적전제를 마련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개변이 물질적기초와 관련되여있고 사회의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수준과 관련되여있는것만큼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은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됩니다.》(우와 같은 문헌, 136페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드는데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결정적조건으로 된다는것은 결코 그의 물질적전제, 생산력의 발전문제를 홀시해도 좋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성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이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드는 결정적조건인 사상적전제의 조성을 빨리 촉진시키는것과 관련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개변은 물질적기초와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물질생활조건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사상의식에도 영향을 주어 그 개조를 촉진시킨다. 농업이 공업화, 현대화되여 농민들도 로동자들처럼 기계와 화학, 전기의 힘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리해관계는 점차 로동자들에게 접근될수 있으며 그들이 협동적소유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보다 집단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하는 과정을 다그치게 된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들기 위한 사상적전제를 빨리 마련할수 있게 한다.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이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것은 또한 전민소유제자체가 높은 생산력을 요구하는것과 관련된다.

전민소유제는 생산수단이 전사회적범위에서 사회화되여있는 그자체의 본성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높은 생산력이 마련되였을 때에만 가장 원만히 실현된다.

전인민적소유의 본성적요구는 생산수단과 공동경리생산물에 대한 사람들의 평등한 관계가 전사회적, 전국가적 범위에서 완전히 실현되는것이다. 전민소유의 이러한 요구는 농업생산력이 높이 발전하여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가 없어지고 생산의 사회화가 전사회적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원만히 충족된다. 이것은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 전인소유의 공업에서와 같이 현대적인 기계와 화학, 전기의 힘에 의하여 진행되는 높은 생산력을 조성하는것이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길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한 사상적전제와 물질적전제에 관한 사상은 공산주의건설의 전략적과업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농촌에서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길을 밝혀준 혁명적인 사상이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의 총적과정이다.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것은 계급없는 사회의 경제적기초인 단일한 전민소유제를 만들어 공산주의의 실현을 촉진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것이다. 이로부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들기 위한 전제의 조성문제는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의 요구에 맞게 해결되여야 한다.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만들기 위한 사상적 및 물질적 전제를 마련해나가는것은 곧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해나가는 과정이며 이 두가지 전제를 다 마련하여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것은 농촌에서 공산주의의 두 요새 점령을 더욱 힘있게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한 전제에 관한 사상은 소유전환을 위한 투쟁방향과 성숙된 시기를 정확히 알고 아무런 편향도 없이 소유전환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을 해명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심으로써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성과적으로 넘길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시험적단계를 거쳐서 점차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사업도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고 기계화수준이 높은 협동농장들을 몇개 선택하여 시험적으로 해본 다음 점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39페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회경제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일대 변혁을 동반하는 중대한 사변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가 생산관계의 기초를 이루는것만큼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것은 생산관계의 다른 측면들, 생산과정에서의 사람들의 호상관계, 생산물의 분배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며 경제관리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하여서는 소유전환자체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뿐아니라 소유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생산과정에서의 협업과 분업의 조직, 생산물의 분배형태, 기업관리의 형태와 방법 등 많은 원칙적문제들을 새롭게 풀어야 한다.

이와 같이 어렵고 복잡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을 그 어떤 주관적욕망에 의하여 처음부터 널리 실시할수는 없다. 오직 시험적단계를 설정하고 자체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을 교양하면서 풀어나감으로써만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데서 나서

Digitized by Google

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적인 립장에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당이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 데서 적용하여 그 위력을 널리 시위한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서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초행길을 아무런 편향도 없이 훌륭히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주체적인 방법이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시험적단계를 거쳐서 점차적방법으로 하는것은 또한 협동적소유의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을 성과적으로 조성해나갈수 있게 하는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들기 위한 사상적전제와 물질적전제를 조성하는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어려운 사업인것만큼 오랜 기간의 꾸준한 투쟁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및 물질적 전제가 조성되는 속도도 지역과 단위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나라의 모든 협동농장들을 동시에 전인민적소유로 넘길수 없으며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장비수준이 높은 협동농장들을 먼저 시험적으로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고 전제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따라 점차적으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야 전인민적소유로 넘어간 농장들이 전민소유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으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드는 사업을 아무런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한 시험적단계 설정의 필요성과 함께 이 단계에서 새롭게 풀어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 먼저 전민소유로 넘어간 협동농장들에서의 분배관계문제,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적과 경영규모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또한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 군을 단위로 하여 전민소유제를 이룩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입니다.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은 군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40페지)

군을 단위로 하여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긴다는것은 전국의 협동농장들을 단번에 다같이 넘기는것이 아니라 군을 단위로 하여 점차적으로 전민소유에 넘긴다는것을 의미한다.

군을 단위로 하여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기는것은 우선 소유전환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지도관리체계를 보장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소유관계의 변화는 경제관리에서도 변화를 일으킨다. 군안에 있는 많은 협동농장들가운데서 일부 농장들만 전민소유로 넘기고 다른 농장들은 협동적소유로 남겨둔다면 농촌경리에 대한 물질기술적보장체계도, 지도관리체계도 두가지로 각이하게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군안의 전체 협동농장들을 하나의 경영단위처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고있는 우리 나라 농업지도체계에서 사업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며 농촌경리를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과정에서도 군안의 협동농장들을 하나의 경영단위처럼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관리하여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군을 단위로 하여 협동농장들을 다같이 전민소유로 넘겨야

Digitized by Google

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경제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뿐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소유전환의 전제조건조성의 합법칙적과정에 맞게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나라 군의 특성으로부터 군안의 협동농장들은 자연지리적조건, 경제와 문화의 발전수준 및 기타 조건들에서 큰 차이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안의 협동농장들이 모두 군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지도를 받음으로써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한 사상적 및 물질적 전제를 마련하는 사업이 군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우리 나라의 군은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이다. 따라서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을 위한 사상적 및 물질적 전제를 마련하는 이 중요한 혁명과업이 군을 거점으로 하여 통일적으로 수행된다.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접근과 전환을 촉진시키는 두 소유의 유기적결합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군을 단위로 하여 실현된다. 그리고 군은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이다.

이 모든것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한 사상적 및 물질적 전제가 군적범위에서 균등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군을 단위로 하여 하나의 경영단위처럼 두 소유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있는 사정은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넘어간 다음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서도 군안의 협동농장들을 동시에 전민소유로 넘길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군을 단위로 하여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길데 대한 사상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상하시고 무르익혀오신 군을 경영단위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을 진행할데 대한 사상을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문제 해결에 빛나게 구현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시면서 당면한 사회주의농촌건설과 함께 농업협동경리발전의 필수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하나의 기업체, 군안의 전체 농장들의 생산활동을 책임지는 하나의 경영단위로 규정하시였으며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옹기군, 룡연군 종합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농장들을 창설하시여 군적인 전민소유제, 앞날의 공산주의농촌건설을 위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래동안 구상하시고 무르익혀오신 창조적사상과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군을 단위로 하여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기는 독창적인 방도를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을 실현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과 관련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겨 단일한 전민소유제를 실현하는것과 같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한 투쟁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농촌테제의 과업을 완전히 실현하며 인류가 오랜 세월 념원해오던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들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협동적소유발전에 관한 농촌테제의 사상을 발전완성시킨것으로서

Digitized by Google

소유문제의 종국적해결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소유문제에 관한 리론을 전일적인 체계로 완성할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소유문제, 나아가서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서 또하나의 커다란 기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우리 당과 인민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들기 위한 경험을 쌓는데서 거둔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접근시키고 전환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3대혁명을 다그쳐 협동농민들속에 남아있는 개인리기주의사상을 철저히 뿌리빼고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개인의 리익보다도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기본적인 농업로동을 기계와 화학, 전기의 힘으로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협동경리는 전민소유에 더욱 접근하게 되고 소유전환을 위한 사상적 및 물질적 전제가 성과적으로 마련될수 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한다.

협동적소유의 전환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농촌사업의 성과는 군당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지도사업을 어떻게 하며 군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군당위원회는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하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촌에 대한 물질적보장과 기술적지도를 잘하여 농촌경리에 대한 군의 정치사상적지도와 기술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군의 수송능력을 강화하고 농기계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을 잘할수 있도록 군안의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투자를 늘이고 국가적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군을 더잘 꾸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을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학습하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할 때 우리는 앞으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데서도 토지개혁이나 농업협동화에서처럼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여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접근, 전환 과정을 더욱 다그침으로써 농촌테제를 완전히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진군운동을 촉진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폭넓은 대화의 실현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방도

리 도 준

나라의 통일을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방침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의 이러한 방침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북과 남사이의 폭넓은 협상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으며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2페지)

북과 남사이에 폭넓은 대화를 실현하는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래동안 분렬로 하여 생긴 북과 남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분야에 걸쳐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이 모든 문제들은 오직 북과 남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북과 남의 각 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이 서로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토의해야 통일도상에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있으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폭넓은 대화를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기족적인 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절실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결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투쟁이 아니며 그것은 침략과 피침략과의 투쟁, 애국과 매국과의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민족적자주권을 위한 해방투쟁이며 민족적단합을 위한 애국투쟁이다.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며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조국통일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자신의 힘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다.

폭넓은 대화를 할데 대한 방안은 바로 민족내부문제인 조국통일문제를 전체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려는 숭고한 지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전체 조선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어느 한두사람의 힘과 개별적 당과,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에만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온 민족의 사활적요구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북과 남의 각 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야 통일도상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

북과 남의 각 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그들을 통일위업 실현에로 떨쳐나서게 하는 중요한 방도는 북과 남사이에 폭넓은 대화를 실현

Digitized by Google

하는것이다.

북과 남사이에 폭넓은 대화를 실현해야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인민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하도록 할수 있으며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최대한 발양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갈라진 첫시기부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적방법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폭넓은 협상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제시하신 폭넓은 협상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의 북과 남사이에는 드디여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였으며 뒤이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였다. 이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행위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파탄되고 조국통일 3대원칙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여 지난 1월 2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을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실현할데 대한 4개항목의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내놓은 4개항목의 제안은 북과 남이 7.4남북공동성명의 본래의 리념과 원칙으로 되돌아가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시 그만두며,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무조건 즉시 중지하며,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민족대회를 소집하는것이다.

우리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내놓은 폭넓은 협상을 위한 예비적협의기구로서 종래의 조절위원회 대신에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할데 대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거족적성격에 맞게 전민족대회소집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민족통일준비위원회는 당국자들과 해외동포들까지 포함하여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나라의 통일문제를 공정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협상기구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국가들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분렬된 한나라, 한민족을 다시 통합하는 문제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나라의 통일문제는 소수집단이나 당국자들만이 모여서 행정적방법이나 외교적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인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적으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설사 몇몇 사람들의 의사나 당국자들의 의사를 아무리 내려먹여도 인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라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으며 또 그런 방법은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는것은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협상에 직접 참가하려는 해내외 모든 동포들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고있는 가장 애국적이며 공명정대한 조치로 된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을 한강토우에서 한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같은 풍습을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한줌도 못되는 매국노들을 제외한 전체 조선인민은 분렬을 가슴아파하고있으며

Digitized by Google

통일을 한결같이 념원하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그 누구나 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애국사업에 직접 참가하려는 지향이 강한것이다.

최근시기에만 하여도 남조선에서는 파쑈적탄압이 그처럼 심한 속에서도 여러 야당들과 민주인사들이 공식선언과 성명을 통하여 그리고 《국회》에서까지 나라의 통일문제를 전민족의 의사에 기초하여 해결해야 한다는것을 주장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대화에 자기들도 참가할 의사를 열렬히 표명해나서고있다.

일본과 미국, 서독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동포들속에서도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애국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우리가 내놓은 민족통일준비위원회가 나라의 통일을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수 있는 폭넓은 협상기구이라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협상방안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모처럼 다시 마련된 북과 남의 대화를 결렬시켰다.

올해 3차례에 걸치는 북과 남의 련락대표들의 접촉과정은 누가 대화에 성실하고 누가 대화에 불성실한가, 어느측이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애쓰고 어느측이 대화의 막뒤에서 분렬을 꾀하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통일문제해결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려면 회담쌍방이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는 옳은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서로 리해하고 협력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대화의 막뒤에서 딴 목적을 추구하거나 대화를 〈두개조선〉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려 한다면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러한 대화는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22～23페지)

북과 남의 련락대표접촉에서 남조선측은 처음부터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립장에 선것이 아니라 대화의 막뒤에서 딴 목적을 추구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통일대화에 대하여 말은 하면서도 실지행동으로는 협소한 당국자회담만을 내세우고 폭넓은 대화를 외면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제의한 민족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북과 남의 당국자회담도 이루어질수 있다는것이 명백해지자 이번에는 이미 그 존속의 의의마저 상실한 조절위원회 재개론을 들고나왔으며 또한 조절위원회와 같은 제한된 기구를 가지고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수 없다는것이 밝혀지게 되자 나중에는 그 무슨 《책임있는 대표》가 아니고서는 대화를 할수 없다고 생억지를 썼다.

이렇게 남조선측은 북과 남의 대화에 2중3중으로 장애물을 조성하는 한편 회담장밖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행동을 계속하였다.

우리가 대화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선전을 중지하는 주동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오히려 반공선전을 강화하면서 우리에 대한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끊임없이 고취해나섰으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즉시 중지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는 전례없는 대규모의 군사연습으로 도전하여나섰다.

이와 같이 회담장안밖에서 대화의 리념과는 배치되는 행동만 일삼아오던 남조선당국자들은 나중에는 쌍방의 접촉마저 거부함으로써 마침내는 쌍방련락대표접촉자체를 막다른골목에 몰아넣고말았다.

남측이 련락대표접촉을 거부하면서 주장한 《당국이 임명하는 책임있는 대표》론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사실

Digitized by Google

상 이미 그 부당성이 명백하게 된 《당국자회담》론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북과 남의 접촉과 대화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자는데 있으며 그러자면 통일문제해결의 성격에 맞게 민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온 민족의 힘이 남김없이 동원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주장하는 《당국자회담》론은 통일문제해결의 이와 같은 요구에 완전히 배치되는것이다. 그들은 《당국자회담》론을 고집함으로써 저들만이 통일론의를 독점하고 많은 당파들과 인민들을 배제하며 민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통일문제해결에 민족의 지혜가 반영되는것을 가로막아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결코 북과 남의 대화에 당국자들이 참가하는것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우리는 우리측 련락대표구성에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당국의 대표도 참가시키고있으며 앞으로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당국의 대표를 포함시킬것을 예견하는것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은 무엇때문에 통일대화를 당국자들끼리만 하고 많은 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 인민들을 제외하자고 하는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느 특정한 당파나 몇몇 개별적사람이나 한정된 당국자들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수 없으며 각 당, 각파가 다 참가할수록 그것은 더욱 좋은것이다.

당국자들끼리만 회담하자고 하는것은 통일문제해결에서 허용될수 없는 독선적이고 권력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이며 통일대화를 위한다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며 모처럼 마련된 접촉까지 결렬시키려는 책동인것이다.

《당국이 임명한 책임있는 대표》요, 《조절위원회재개》요 하는 부당한 조건을 들고나와 북과 남의 련락대표접촉자체를 마비시키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불성실한 립장과 태도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화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와 같은 그릇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와의 대화마당에 다시 나와야 하며 우리의 폭넓은 협상방안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이 길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참다운 길이다.

우리는 온 민족이 한결같이 념원하는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으며 그것이 통일을 위한 실속있는 대화로 되기를 바라고있다.

조선의 통일은 폭넓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북과 남의 대화가 중단되지 말고 계속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의 요구와 세계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22페지)

이미 마련된 북과 남의 대화를 계속하는것은 내외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일신의 안일과 리익에 사로잡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서지 않는다면 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을것이며 우리 민족은 분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폭넓은 협상제의에 적극 호응해나서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만약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사리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 외면한다면 나라와 민족 앞에 씻을수 없는 범죄를 짓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미 중단된 쌍방사이의 접촉을 다시 이어나가기 위한 성의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다 취하였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는 남측의 부당한 립장으로 말미암아 대화가 중단된 이후에도 남측이 련락대표명칭문제를 가지고 시야비야하는 조건에서 쌍방에 다같이 접수될수 있게 그 명칭을 고쳐부를수도 있을것이라는 립장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와 접촉의 마당에 나오지 못할 리유와 구실이란 있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저들의 협소한 《당국자회담》론을 더는 고집하지 말아야하며 전민족대회나 민족통일준비위원회와 같은 폭넓은 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와야 할것이다.

대화의 성과여부는 그것이 인민의 의사를 어느만큼 반영하는가, 대화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대화에 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현실적으로 사상과 제도, 정책과 주의주장이 다르고 나라와 민족, 피부색이 다르며 언어가 다른 수십개, 지어 백여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들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하고 단결을 도모해나가고있는데 하물며 한나라, 한민족인 우리 나라의 경우에 북과 남이 단결하고 합작하며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하지 못할 조건이란 없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민족의 리익과 관계되는 통일문제를 당국자들만이 해결할수 있다는 그릇된 태도와 독선적립장을 버리고 대화마당에 남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민주인사들이 참여할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반공정책을 련공정책으로 바꾸어야 하며 파쑈정책을 그만두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남조선에서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애국적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조건에서는 그들이 마음놓고 통일운동을 벌릴수 없으며 폭넓은 협상의 마당에 자유로이 나올수 없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통일문제는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는 결코 해결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반공》을 한다면 애당초 대화자체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반공》에 기초한 대화가 아무런 의의도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므로 남조선당국자들은 반공정책을 련공정책으로 바꾸어야 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악법들을 페지하여야 한다. 《긴급조치》와 파쑈악법에 의하여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에게 들씌워진 부당한 형벌을 취소하여야 하며 언론의 자유와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쟁정책은 대화와 량립될수 없다. 대화를 하는것은 그자체가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한편으로는 우리와의 대화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다른편으로는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결국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를 통일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대화의 막뒤에서 시간을 얻어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하는데 대화를 리용하려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대결정책, 전쟁정책으로 나가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의 대화는 필연코 거기에 리용되기 마련이다.

전쟁정책을 추구하면서 대화를 하자는것은 속에 칼을 품고 대화를 하자는것이며 그러한 대화가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로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만 대화를 운운할것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그 성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총력안보》요, 《무

의 현대화》요 뭐요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대량살륙무기들을 끌어들이고 무력을 증강하며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소동과 인민들을 《민방위훈련》에로 동원시키는것과 같은 무모한 전쟁준비책동과 무분별한 전쟁소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대결의 자세, 분렬의 립장에서 대화에 림한다면 대화에서 기대할것은 아무것도 없을것이다.

대화는 어디까지나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분렬을 위한 대화로 되여서는 안된다.

현상유지나 하고 분렬을 꾀할바에는 애당초 대화자체가 필요없을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통일을 위한 대화를 념원하는것이지 결코 분렬을 위한 대화를 바라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를 범죄적인 민족분렬의 목적에 리용하려는 부당한 립장을 버리고 통일을 위한 대화에로 돌아서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무시하고 저들의 부당한 립장을 고집하면서 분렬을 추구하고 통일을 반대하는데로 나간다면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79년 제7호(루계447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9년 7월 1일 발 행 • 1979년 7월 5일

ㄱ—95178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EAST ASIATIC LIBRARY
OCT 25 1979
UNIVERSITY OF CALIFORNIA

8호

평 양 근로자사 1979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第8号(448)

차 례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은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영웅적위훈을 련이어 창조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따라 전진하여온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민족적 륭성과 번영의 최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보다 휘황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앞당겨나가고 있다.

간고한 시련과 위대한 사변들로 가득찬 조선혁명의 길우에서 이룩된 세기적전변들과 빛나는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의 진두에서 우리 인민을 힘차게 이끌면서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하고있다.

백전백승의 힘을 지닌 우리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가장 큰 행복이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억세게 전진함으로써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1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백전백승의 위력을 지닌 강철의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24페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력사적숙망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고 개조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계급투쟁과 경제건설투쟁, 심각한 사회개조와 인간개조, 거창한 자연개조 사업을 동반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력사가 일찌기 체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창조와 건설의 로정이며 그 길우에는 예견할수 없었던 무수한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이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은 오직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전투적선봉대인 당의 정치적령도를 떠나서는 어느 하나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당은 혁명의 매 력사적단계와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거창한 사회경제적변혁들을 끊임없이 이룩해나간다.

당은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워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마련하며 혁명투쟁의 전반적행정을 직접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령도함으로써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Digitized by Google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여 수령의 의도대로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감으로써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숙망을 빛나는 현실로 전환시킨다.

당은 광범한 대중을 혁명위업의 종국적실현에로 조직동원하는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과 건설의 추진력이다. 마치 사람의 심장이 온몸에 피를 뿜어주어 유기체의 모든 기관들을 움직이듯이 로동계급의 당은 계급적조직의 최고형태로서 사회의 다른 모든 조직들과 기구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지도적 및 향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적변혁의 위대한 설계도가 마련되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위훈의 력사가 창조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승리의 길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옳바른 로선과 방침,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투쟁구호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방침은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며 인민대중을 투쟁과 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이다.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방침에는 우리 혁명의 근본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리익이 가장 정확히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은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서 언제나 조선혁명의 리익과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당의 로선과 방침에서 우리 혁명의 광명한 전도와 더욱 륭성번영할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을 자기의 절실한 생활적요구로,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이 내놓는 모든 로선과 방침, 투쟁구호는 거대한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당은 우리 사회의 심장, 혁명과 건설의 추진력으로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끊임없는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과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자면 전당과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확고히 이룩해나가야 한다.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온 사회의 혁명적단결은 당의 생명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에 주체형의 피, 위대한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힘있게 뿜어줌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자양분으로 하여 살며 일하고 당의 숨결따라 사상의지적 및 행동상의 일치성을 보장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가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정치적생명체로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오직 자기 당만을 절대적으로

Digitized by Google

신뢰하고 따르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기치따라 드팀없이 싸워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놀지 않는 철석같은 신념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전당과 온 사회에 충성의 열정이 차넘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위력과 불패성이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끝없이 신봉하고 주체의 신념으로 숨쉬고 움직이는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우리 당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 불패의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이끌어 그 어떤 난관도 주동적으로 뚫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은 우리 혁명과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위대한 당이며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상징이다. 생활은 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확고히 완성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위대한 업적을 쌓은 로숙하고 세련된 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난 30년동안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없애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89～290페지)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의 특수성으로 하여 창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남달리 어렵고 복잡한 투쟁의 길을 걸어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당은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정권을 세우고 정규무력을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야 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끊임없는 준동을 물리치며 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 발생한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조류를 반대하는 첨예한 투쟁을 벌려야 하였다.

우리 당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두단계의 심각한 사회혁명을 수행하여야 하였으며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가셔내고 이 땅우에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워야 하였다.

투쟁의 앞길은 간고하고 시련과 난관은 겹쌓였지만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이 모든 어려운 력사적과제들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고 우리 조국땅에 로동당시대로 불리우는 민족적 륭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

이 거창하고 심각한 전변의 력사는 우리 나라에서 지난날 수천년을 두고도 이룩할수 없었던 세기적위업을 단 한세대어간에 빛나게 해제낀 일대 비약과 기적의 창조과정이였으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힘차게 전진하는 인민은 이 세상 그 무

Digitized by Google

었도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확증한 자랑찬 변혁의 로정이였다.

이 위대한 력사적전진운동의 진두에서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을 령도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짧은 력사적기간에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나라에서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당의 령도따라 나아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안팎의 원쑤들의 끊임없는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우리 당은 전쟁으로 모든것이 재더미로 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을 위대한 천리마운동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켜 짧은 기간에 파괴된 경제를 훌륭히 복구하고 남들이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불과 10여년동안에 빛나게 완수하였다.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적인간의 참다운 가치와 삶의 보람을 찾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였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중하를 걸머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가는 준엄한 폭풍우속에서 우리 당은 사소한 편향도 범하지 않고 백전백승하는 혁명적당으로, 풍부한 경험과 위대한 업적을 쌓은 세련되고 단련된 로숙한 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조국과 혁명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은 오늘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수행하는 행정을 통하여 더욱더 빛나고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며 거창한 공산주의혁명위업이다. 이 투쟁은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한없이 보람차고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반세기에 걸치는 우리 혁명발전의 력사적총화에 기초한 새로운 혁명적진군이며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위업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구호를 제시하고 그것을 힘차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대오를 더욱더 불패의 것으로 강화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룩된 우리 혁명의 모든 위대한 성과들과 전취물들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더한층 빛내여나가고있다.

실로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행로는 인민을 령도하여 우리 혁명의 앞길을 빛나게 개척하고 조국과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영광의 로정이며 보람찬 창조와 변혁의 력사이다.

우리 당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조선혁명을 령도하여 위대한 승리와 불

별의 업적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운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10페지)

주체를 세우는것은 우리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였다. 주체는 조선혁명의 생명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담보하는 힘의 원천이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주체확립문제를 언제나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그를 철저히 실현하였으며 모든것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우리 당은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였으며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과 문화건설을 위한 투쟁,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계급투쟁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갔다.

이 행정에서 우리 당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진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이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 활동에서 반드시 자주성의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과 독자적인 주견에 따라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하였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빛나는 승리와 성과는 바로 우리 당 주체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고귀한 열매이다.

우리 당이 조선혁명을 령도하여 위대한 승리와 불멸의 업적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또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킨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자신의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은 그 주인인 인민대중이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떨쳐나서야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싸워나가는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어렵고 복잡한 모든 사업을 광범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령도원칙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새생활창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굳게 믿었으며 대중과 의논하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이겨나갔다.

또한 방대하고 수많은 건설사업들과 인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도 모두다 대중적운동을 벌리는 방법에 의하여 풀어나갔으며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로동자, 농민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당 군중로선의 가장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와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는 새로운 일대 앙양과 비약이 이룩되고있으며 모든

Digitized by Google

분야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생활은 대중에 의거하여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군중로선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는 위력한 방도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면서 언제나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상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적중한 투쟁구호를 제시하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밀고나가고있다. 여기에 또한 우리 당이 조선혁명을 이끌어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전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과정에서 강철의 의지와 높은 혁명적 원칙성과 전개력을 지니고 모든 문제를 패기있고 대담하게 풀어나가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그 어떠한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난관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왔다.

우리 나라에서 당이 내세우는 모든 투쟁과업들이 제때에 가장 정확히 관철되고 몇해를 두고 해야 할 일도 단 며칠, 몇달 사이에 전격적으로 해제끼는 놀라운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것은 바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고 전당, 전국, 전민을 혁명과 건설의 끊임없는 앙양에로 한결같이 불러일으키는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과 직접 잇닿아있다.

우리 당은 실로 조선혁명을 이끌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과 위훈을 쌓아올린 위대한 당이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에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수 있는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전변들과 기적적인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획득하였다. 오늘 전체 우리 인민은 한결같이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우리 당에 의탁하고 당의 기치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투쟁과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신념으로 간직된 의지이다.

3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이다.

공산주의는 인류의 최고리상이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최종목적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을 하는 목적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주기 위한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여야 하며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에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에도 계속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멸의 업적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운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10페지)

주체를 세우는것은 우리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였다. 주체는 조선혁명의 생명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담보하는 힘의 원천이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주체확립문제를 언제나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그를 철저히 실현하였으며 모든것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우리 당은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였으며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과 문화건설을 위한 투쟁,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계급투쟁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갔다.

이 행정에서 우리 당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진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이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 활동에서 반드시 자주성의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과 독자적인 주견에 따라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하였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빛나는 승리와 성과는 바로 우리 당 주체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고귀한 열매이다.

우리 당이 조선혁명을 령도하여 위대한 승리와 불멸의 업적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또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킨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자신의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은 그 주인인 인민대중이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떨쳐나서야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싸워나가는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어렵고 복잡한 모든 사업을 광범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령도원칙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새생활창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굳게 믿었으며 대중과 의논하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이겨나갔다.

또한 방대하고 수많은 건설사업들과 인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도 모두다 대중적운동을 벌리는 방법에 의하여 풀어나갔으며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로동자, 농민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당 군중로선의 가장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와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는 새로운 일대 앙양과 비약이 이룩되고있으며 모든

Digitized by Google

분야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생활은 대중에 의거하여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군중로선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는 위력한 방도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면서 언제나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상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적중한 투쟁구호를 제시하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밀고나가고있다. 여기에 또한 우리 당이 조선혁명을 이끌어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전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과정에서 강철의 의지와 높은 혁명적 원칙성과 전개력을 지니고 모든 문제를 패기있고 대담하게 풀어나가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그 어떠한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난관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왔다.

우리 나라에서 당이 내세우는 모든 투쟁과업들이 제때에 가장 정확히 관철되고 몇해를 두고 해야 할 일도 단 며칠, 몇달 사이에 전격적으로 해제끼는 놀라운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것은 바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고 전당, 전국, 전민을 혁명과 건설의 끊임없는 앙양에로 한결같이 불러일으키는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과 직접 잇닿아있다.

우리 당은 실로 조선혁명을 이끌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과 위훈을 쌓아올린 위대한 당이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에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수 있는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진변들과 기적적인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획득하였다. 오늘 전체 우리 인민은 한결같이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우리 당에 의탁하고 당의 기치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투쟁과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신념으로 간직된 의지이다.

3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이다.

공산주의는 인류의 최고리상이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최종목적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을 하는 목적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주기 위한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여야 하며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든 령역에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에도 계속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오랜 시일을 거쳐 진행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며 이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대를 이어가며 혁명을 계속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숭고한 임무이다.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는 당만이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허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며 투쟁하는 생기발랄한 전투적당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주체위업의 종국적인 완성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혁명적당이다. 오직 당의 세련된 령도를 받을때만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예와 행복이 있고 영원히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광명한 미래가 있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혁명과 공산주의운동의 사상리론적총화인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가 밝혀졌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이 제시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의 옳바른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며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준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올수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공산주의위업을 힘있게 개척해나가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여기에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혁명의 명맥을 굳굳이 고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만 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의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뚜렷이 할수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이 억년 드놀지 않고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며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련결시켜주는 유일한 혈맥이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수행의 전기간 끊임없는 생기와 활력을 북돋아주는 영원한 생명선이다.

이 위대한 혁명전통을 이어받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이 내놓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

Digitized by Google

명적구호는 바로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그 빛나는 앞길이 개척된 영광의 시기에 이룩된 모든 귀중한 재부들을 견결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

이 구호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난날 항일혁명대오에 차넘친 불굴의 투쟁정신과 사업방법, 사업기풍을 본받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기적을 창조해나가게 하는 고무적힘으로 되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불패의 혁명대오를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미래를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에 부닥쳐도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고수하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였던 로혁명가들과 새 사회를 건설하는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단련된 오랜 당원들 그리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새로 자라난 세대들모두가 자기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당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당과 혁명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끝없는 충실성은 우리 인민이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따라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는 과정을 통하여 심장깊이 간직한 의지이며 신념이다.

당은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은 당을 받들고 따르는 여기에 우리 당의 위력과 모든 승리의 원천이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전투적참모부로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로 된다.

4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요구이다.

우리 당은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불패의 위력을 지닌 강철의 당으로, 조국과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백전백승의 위대한 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어려운 투쟁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안팎의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발전하는 현실은 우리 당앞에 새로운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우리는 아직 혁명의 길우에 있으며 우리앞에는 무겁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야 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속히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당의 위력과

Digitized by Google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88페지)

조선혁명의 장래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결국 우리 당을 어떻게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전투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는 참된 길이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강한 규률과 혁명적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며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 당을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당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켜 우리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은 수많은 각급 당조직들로 이루어져있으며 당위원회들의 활동의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당위원회들은 해당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당정책에 근거하여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집행대책을 똑똑히 세우며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방침과 결정지시를 힘있게 관철하여나가야 한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인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일군들이 옳은 령도예술을 소유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공산주의적령도리론을 창조하시고 혁명적인 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을 이룩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령도예술을 적극 따라배워 정치하는 당, 혁명을 령도하는 당의 일군답게 대중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며 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백전백승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로동당의 기치따라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자기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세련된 령도따라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며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Digitized by Google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

한 성 춘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

우리 혁명대오의 이 필승불패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 귀중한 혁명적전취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동지애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적동지애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기초이며 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보장하는것은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에서 승리하려면 혁명투쟁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야 하며 그들사이에 통일과 단결이 보장되여야 합니다. 혁명사업에 참가하고있는 사람들사이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504~505페지)

혁명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따라서 혁명투쟁은 광범한 대중의 참가밑에 수행된다.

대중의 힘은 통일과 단결에 있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령도밑에 단결로써 원쑤들과 맞서며 단결의 무기로써 승리한다.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혁명적동지애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혁명가들사이에 맺어지는 사랑이다.

혁명적동지애는 무엇보다도 같은 사상, 같은 뜻을 가진 혁명가들사이의 사랑이라는데 그 본질적특성이 있다.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을 가리켜 동지라고 하며 사상이 같은 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사랑을 혁명적동지애라고 한다.

원래 인간관계에서 사랑은 마음이 소통하는 사람들사이에 맺어진다. 그런데 사상적으로 맺어지지 않고 단순한 인정에 사로잡혀 실무적으로 맺어지는 사랑은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없다.

혁명대오에 있으면서도 딴 사상을 가지고 딴꿈을 꾸는 사람은 가짜동지이며 가짜동지들사이에는 참다운 동지애가 있을수 없다.

혁명가들을 동지적으로 결합시키는 유일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며 그것으로 대중을 무장시키고 혁명의 길을 개척하며 완성해나간다.

Digitized by Google

혁명가들은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사상으로 하여 동지적관계를 맺어야만 진정한 동지애를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함께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적동지애는 또한 혁명투쟁과정에서만 이루어지고 공고하여지는 혁명가들사이의 사랑이라는데 그 본질적특성이 있다.

혁명적동지애는 뜻이 같고 사상이 같은 사람들이 혁명의 길에 나서서 혁명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혁명투쟁과정에서만 맺어지는 혁명적인 사랑이다.

혁명투쟁이 없다면 사람들사이에는 다만 벗, 친우, 형제와 같은 친분관계만이 있게 된다. 친분관계에 의하여 맺어지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없으며 자주적인 존재로서 살아나갈수 없다.

사람은 혁명을 하여야만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으며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사람들은 혁명투쟁속에서 동지로서 서로 믿고 사랑하게 되며 동지적사랑을 귀중히 여기면서 한데 뭉쳐 혁명을 떠밀고나간다.

혁명투쟁을 떠나서는 혁명동지도, 혁명적동지애도 있을수 없다.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투쟁과정에서 맺어지는 사랑만이 참으로 진실하고 공고한 혁명적인 사랑으로 된다.

혁명적동지애는 혁명가들사이에 원칙적으로 맺어지는 사랑이다. 바로 여기에 혁명적동지애의 본질적특성의 다른 하나가 있다.

동지라고 하여 칭찬만 하고 잘못에 대하여 싸고돌거나 비판하지 않는것은 동지적사랑이 아니다. 혁명동지가 잘못을 고치지 못하게 되면 혁명대오에 함께 설수 없게 되며 혁명의 길동무로 되고만다.

동지의 잘못을 제때에 고쳐주어야만 대오의 사상의지적인 단합을 이룩할수 있고 영원히 혁명동지로서 함께 싸워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인 사랑만이 동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다운 혁명적동지애로 된다.

혁명투쟁속에서 맺어지는 혁명가들사이의 참다운 사랑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가운데서 가장 값높고 귀중한 사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관계에서 혁명적동지애가 가장 귀중하다는것은 오랜 혁명투쟁과정에 형성된 우리의 인생관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505페지)

혁명적동지애가 모든 사랑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사랑으로 되는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혁명이 더없이 보람차고 숭고한 위업으로 되기때문이다.

혁명가의 삶의 목적은 한생을 혁명에 바치는것이다.

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그러기에 참다운 혁명가는 혁명투쟁에 나서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여기며 혁명투쟁속에서 보람찬 삶과 행복을 찾는다.

바로 이와 같이 성스러운 혁명투쟁의 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고있는 사람이 다름아닌 동지인것이다.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고 혁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상감정의 발현으로 되며 따라서 혁명적동지애는 가장 숭고한 사랑으로 된다.

혁명적동지애가 가장 귀중한 사랑으로 되는것은 또한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개인보다 집단이, 가정생활보다 사회생활이 더 귀중하기때문이다.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 사회적집단의 성원으로서만 살아가며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개인의 리해관계, 개인의 운명은 집단의 리해관계, 조국의 운명과 사활적으로 련결되여있다.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떠나서는 개인의 행복도 가정의 행복도 있을수 없다.

물론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비롯한 사생활을 하고있는것만큼 우정도 귀중하

Digitized by Google

고 애정도 귀중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부부간의 사랑,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 있지만 동지들의 사랑, 조직과 집단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수 없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개인보다 집단이, 가정생활보다 사회생활이 더 중요하기때문에 친분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랑보다 혁명투쟁속에서 맺어지는 사랑이 더 귀중하다. 이로부터 혁명가들은 집단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을 귀중히 간직하고 더욱 꽃피워나가게 된다.

동지들의 사랑은 수령이 안겨준 사회정치적생명을 보존하고 빛내여나가게 하며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사랑이다.

집단과 사회생활을 귀중히 여기는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생명은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이다. 비록 육체적생명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그러한 사람은 사람다운 값을 가지지 못한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들이 수령의 령도밑에 조직생활을 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혁명투쟁에 나서면서 지니게 되며 조직생활과 혁명투쟁 과정에서 더욱 빛난다.

혁명가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동지들속에서 나타난 결함을 서로 충고하고 가르쳐주어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게 함으로써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싸워나가게 한다. 때문에 혁명적동지애는 조직과 집단 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보존하고 빛내여나가게 하는 가장 값높은 사랑으로 된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에만 위력한것으로 될수 있다.

혁명적동지애는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합시킨다.

혁명대오의 단결은 사상의지적인 통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혁명대오안에 딴 사상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하며 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없으며 분렬되고만다.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통일단결만이 가장 위력있는 통일단결이다.

동지적사랑만이 서로 고무격려하며 투쟁하면서 사상의지를 공고히 하게 하고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대오를 하나로 굳게 뭉치게 한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질뿐아니라 뜻이 같은 사람들이 조직에 결속될 때에 이루어진다.

광범한 대중이 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의 강한 규률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여야만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이 이루어질수 있다.

하나의 뜻으로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혁명적동지애는 그 어떤 분파도 허용하지 않고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혁명대오를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시킨다.

혁명적동지애는 혁명대오를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뿐아니라 도덕의리적으로 결합시킨다.

통일과 단결은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도덕적으로, 의리적으로 맺어질 때 진실로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혁명적동지애는 혁명대오가 서로 돕고 이끌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불패의 대오로 되게 한다.

혁명적동지애야말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대오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하고 혁명대오를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통일단결시키는 기초로 된다.

* *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 결정적담보였으며 항일혁명투쟁승리의 기본요인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Digitized by Google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에는 언제나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이 지배하고있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이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이였으나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동지애의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싸웠기때문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1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하여 승리하여온 영웅적투쟁로정이였다.

항일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 이것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가장 공고하고 높은 수준에 이른 필승불패의 통일단결이였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높은 수준에 이른 통일단결로 된것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전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적사랑과 수령님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불같은 충성심에 기초하고있었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혁명투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혁명동지들사이의 사상의지적단합으로 이룩된 대오의 통일단결이라는것을 밝히시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속에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대오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해나가시였다.

항일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전사들에 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혁명적사랑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이 인대 시련을 겪고있던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그들을 주체위업실현을 위한 혁명대오에 굳게 단결시켜나가시였다.

한홉의 미시가루와 한개의 가루봉지에 깃든 이야기 그리고 파오를 범한 전사들을 제때에 일깨워주시여 한혁명대오에서 같이 싸워나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신 감격적인 이야기들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신 한량없이 뜨거운 사랑과 공산주의적덕성은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게 하고 대오의 전투적 위력과 단결을 보장하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끝없는 충성심은 혁명적동지애의 가장 높은 발현이였으며 항일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의 기본요인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충성다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손길밑에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난 항일유격대원들의 확고부동한 신조였으며 혁명적의지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자신의 보람찬 삶과 행복이 있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이 앞당겨지고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였기때문에 항일혁명선렬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랐으며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굿굿이 싸워나갔다.

전투장마다에서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신변을 보위하시였으며 수령님의 젖은 옷을 자신의 품으로 말리워드리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다함없는 충성심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이 단두대에서 이슬이 되는 순간에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Digitized by Google

우러르면서 승리를 확신한것은 수령님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그대로 말해준다. 그들은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기꺼이 바치겠다는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의리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존함을 가슴에 새기고 억세게 살며 싸워나갔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심장속에 확고히 간직된 혁명적 신념과 의지,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은 바로 이렇게 생겨나고 굳세게 다져졌다.

항일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이처럼 혁명전사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수령님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신념화된 충성심이 하나로 결합되여 이루어진 가장 고결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이였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높은 수준에 이른 통일단결로 된것은 또한 그것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었다는데 있다.

혁명적동지애는 사상이 같은 사람들사이의 사랑이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사상의지적통일인것만큼 혁명적동지애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공고성과 위력은 전적으로 그 기초를 이루는 사상의 위대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완성해나가는 추동력도 조선인민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혀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길에 단합된 력량으로 떨쳐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한사람의 몸에는 다만 한가지 형의 피가 있듯이 하나의 혁명대오안에는 오직 하나의 지도사상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혁명대오가 하나의 사상에 의하여 련결되는 단합된 사상의지의 통일체로 확고히 꾸려질수 있다.

항일혁명대오는 주체형의 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찬 가장 순결한 사상의지의 결정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 지난 시기 옳바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지지 못하여 혁명투쟁에서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그들을 항일혁명전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사상적량식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기들의 확고부동한 신조로, 신념으로 삼고 그대로 살며 싸워나갔다. 그들은 언제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립장에 서서 사고하고 행동하였으며 그와 어긋나는 사소한 경향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다. 주체사상은 항일유격대원들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기준으로 되였으며 대오의 사상의지적단합의 기초로 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적동지애로 단결된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혁명적인 통일단결로 될수 있었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높은 수준에 이른것은 또한 그것이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형성되고 공고발전되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은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으로써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며 일제와 싸워이긴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10페지)

혁명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만 진짜동지와 가짜동지가 갈라지며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가장 숭고한 동지애가 발현된다.

Digitized by Google

항일혁명투쟁은 그 간고성과 복잡성에 있어서 혁명전쟁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준엄한 투쟁이였다. 그것은 주권도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환경속에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면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 대결한 간고한 혁명전쟁이였다.

걸음마다 사선과 혈로를 헤쳐나간 항일혁명투쟁과정에는 가슴아픈 희생과 헤아릴수 없는 시련들이 수없이 많았다.

우리 혁명투쟁의 전로정에서 가장 간고했던 이 준엄한 시기에 항일혁명대오는 조국광복을 위한 하나의 목적과 계급적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철통같이 뭉쳤으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쳐나갔다.

항일혁명대오안에는 언제나 고난과 시련도 함께 이기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혁명적동지애의 숭고한 기풍만이 차고넘치였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항일유격대원들은 바로 이러한 혁명적의리,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으로 준엄한 시련으로 가득찬 혁명투쟁로정을 억세게 걸어왔다. 투쟁이 간고할수록 그들은 서로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나섰으며 혁명동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다.

적들과의 전투에서 급한 정황이 조성되여 동지들의 신변에 위험이 닥쳐온 순간 자신의 한몸을 희생하면서도 놈들을 딴 방향으로 유인하여 혁명동지들을 위기에서 구원한 《천보산의 용사》의 고결한 풍모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니고있은 혁명적동지애의 숭고한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닌 혁명적동지애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그처럼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될수 있었으며 그에 기초한 대오의 통일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었다.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발휘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동지애는 열렬하면서도 원칙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동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묵과하지 않고 되게 비판하며 때로는 처벌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우리와 계속 동지적관계를 가지고 혁명의 꽃을 피워나가도록 하고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동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508페지)

비판과 자기비판은 혁명동지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의 무기를 높이 들고 온갖 낡은 사상경향들과 투쟁할 때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및 행동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따라서 혁명대오가 전진하게 꾸려질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의 비판은 어디까지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혁명동지들사이의 원칙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으로 살며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은 전투와 행군으로 이어지는 간고하고 복잡한 정황에서도 동지들속에서 나타난 결함에 대해서는 결코 융화묵과하지 않았다.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어린 대원들이 곤난을 이겨내지 못하여 배낭속의 소지품들을 눈속에 묻어버린 사실, 짧은 휴식시간에 잠들었다가 출발구령을 듣지 못하여 부대의 행동에 지장을 준 사실을 놓고도 그들은 원칙적인 비판을 주어 조그마한 편향도 제때에 바로잡아나갔다.

Digitized by Google

항일유격대원들이 비판과 자기비판을 하나의 생활원칙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생활화, 습성화함으로써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은 참말로 진실하고 원칙적인 것으로 될수 있었다.

이처럼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전사들이 완전한 혼연일체를 이루고 혁명대오가 동지적뉴대로 하나와 같이 굳게 결합된 가장 숭고한 통일단결이였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사상적기초로 하는 순결하고 공고한 필승불패의 통일단결이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은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혁명대오를 철통같이 꾸리고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우리 당과 인민의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모범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의 혁명대오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오랜 혁명투사들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조국해방전쟁에서 단련된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고 생기발랄한 주체형의 새세대들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전체 인민이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강철의 혁명대오로 강화될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 위대한 통일단결된 힘에 의하여 안팎의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물리치면서 짧은 기간에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이 위대한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지금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간고하고도 보람찬 혁명의 길에서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업적을 쌓아올리면서 멀리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우리앞에는 더욱 무거운 임무가 놓여있으며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동지애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옹호고수하고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이 통일단결된 힘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자주, 자립, 자위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국가활동의 근본원칙

조 성 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로동계급의 국가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실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5페지)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은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국가가 자기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다시말하여 이 혁명로선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국가활동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실현해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길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힘있게 앞당겨나갈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 ⁂

국가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밝히는것은 우리 시대와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국가들은 독자적인 단위로 존재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진다. 오늘과 같이 국경이 있고 국가가 있는 조건에서는 민족국가단위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지 않을수 없다.

매개 민족국가들이 독자적인 단위로 존재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권리를 가져야 하며 나라들사이에 호상평등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개 민족국가들은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며 호상평등의 관계를 맺을 때에만 당당한 주권국가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잘해나갈수 있다. 매개 민족국가들의 존재와 발전의 이러한 본질적특성으로부터 국가활동에서 어떠한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국가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밝히는것은 다음으로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관련하여 제기된다.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예속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참다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식민지멍에에서 벗어난 나라들이 자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려면 자주의 길로 나가야 하며

Digitized by Google

그러자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는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이러한 력사적과업은 국가활동에서 옳바른 로선과 원칙을 견지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 지배주의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짓밟고 다른 민족과 인민들을 억압하며 통제하려고 하는 조건에서 모든 나라들이 민족적 자주권과 독립을 공고히 하고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옳바른 활동원칙을 가지는것은 더욱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이 제기하는 이러한 성숙된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여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국가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국가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고 관철하며 민족적자주권을 지키는것을 말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것은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 즉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기의 힘으로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말한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나라의 자주성과 혁명의 전취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자체의 튼튼한 방위력을 마련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나라 인민의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정치, 경제, 군사적담보를 마련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때라야만 매개 민족국가는 자기 나라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독립국가로 될수 있다.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자주독립국가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새로운 주체적인 리해에 기초하여 제시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86페지)

국가활동의 원칙은 국가의 본질과 성격에 의하여 규제된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이 사람의 생명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의 본질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이다. 나라의 자주성이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고유한 특성,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말한다. 자주독립국가란 바로 자주성을 가진 국가이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한다는데 바로 자주독립국가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사람이 자주성이 없으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자주성이 없으면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바로 국가의 자주성을 조건지으며 국가의 자주성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자주독립국가의 이러한 혁명적본질로부터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옹호실현할수 있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할 필연적요구가 제기되게 된다. 자주, 자립, 자위는 바로 자주독립국가의 본질적특징인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활동원칙이다.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또한 자주독립국가의 사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Digitized by Google

국가가 어떠한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그가 어느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국가인가 아니면 착취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국가인가에 따라 국가의 성격과 사명이 규제된다. 그것은 국가주권이 정치적지배권이며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이 국가의 모든 활동을 조절통제하기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은 자기의 계급적 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에서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며 활동원칙을 세운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할 사명을 지닌 국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으며 착취계급의 리익을 대변하는 국가는 착취계급의 무제한한 착취와 리윤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 근로인민대중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것, 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근로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라는 원리에 기초하여 자주독립국가의 사명을 새롭게 규정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독립국가의 사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준다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독립국가는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줄 때에만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이처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은 자주독립국가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주체적인 리해에 기초하여 세워진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국가활동원칙이다.

자주, 자립, 자위가 로동계급의 국가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86폐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킨다는것은 남에게 예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한다는것을 말하며 경제적으로도 남에게 손을 내밀거나 구걸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가며 호상평등의 원칙에서 경제교류를 실현한다는것을 말하며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건드릴수 없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발전은 국가가 자기의 활동에서 어떠한 원칙을 견지하는가에 의하여 규제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되는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한 원칙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국가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며 대외적으로도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 되려면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주체적인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국가가 자기의 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견지할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정치적으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발전을 위한 선차적인 요구이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표징이다.

정치는 계급의 리해관계를 집중적으로 표현하는것으로서 계급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문제도 정치적성격을 띠게 된다. 정치적지배권으로서의 국가는 정치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리익과 운명을 옹호하며 실현해나간다.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에서 기본은 국가가 정치적으로 주인의 주견을 세우며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는것이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주견을 세우는것은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으

Digitized by Google

로 된다. 매개 국가가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 자기의 지도사상과 자주적인 정권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의 신념에 따라 해결해나갈 때에만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대외관계에서도 호상평등의 원칙을 견지할수 있다. 자기의 지도사상과 자주적인 정권을 가지게 되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실현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더 잘해나갈수 있으며 국제문제들에 대해서도 자기의 주견을 똑똑히 세울수 있다. 정치적자주성이 없으면 남이 수정주의를 하면 자기도 수정주의를 하고 남이 교조주의를 하면 자기도 교조주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없게 되며 혁명과 건설도 잘해나갈수 없게 된다. 력사적경험은 외세의존의 길을 걸으면 망국노의 신세를 면할수 없고 나라의 발전도 이룩할수 없게 되며 오직 자주의 길을 걸어야만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제적자립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로서의 경제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발전을 위한 물질적담보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예속되는것을 면할수 없다. 경제적예속은 정치적예속을 낳으며 경제적불평등은 정치적불평등을 가져오게 된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이 없으면 하고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의 체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제국주의식민지예속으로부터 물려받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없애버릴수 있으며 민족경제의 터전우에서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만 또한 정치적으로도 주권을 세울수 있고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행사할수 있으며 호상평등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수 있고 세계혁명발전에도 이바지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의 하나는 또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이다. 국방에서 자위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발전을 위한 군사적담보이다. 자체의 군사적힘을 튼튼히 마련하여야만 국가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침략과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강화하며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있는 조건에서 자체의 튼튼한 자위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발전을 지킬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도 옳게 수행해나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체의 방위력을 튼튼히 마련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자주, 자립, 자위가 국가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 즉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국가활동의 근본목적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줄 때에만 로동계급의 국가는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국가가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힘을 키워야 한다.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자기의 주체적힘이 강해야만 매개 나라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다. 이러한 주체적힘은 자주, 자립, 자

Digitized by Google

위의 원칙을 관철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정치생활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참답게 누릴수 있게 한다.

정치사상생활은 사람의 생활과 활동의 기본분야이다. 사람은 정치사상생활에서 자주성을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주도적분야를 이루는 정치사상생활에서의 자주성은 나라의 운명과 직접 련결되여있다. 근로인민대중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나가는것만큼 그들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련결되여있으며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옹호실현될수 있다. 그런것만큼 국가가 정치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사상생활에서 자주적권리를 참답게 누릴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사상생활에서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옳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옳바른 지도사상과 자주적인 정권을 가질 때에만 근로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할수 있으며 국가주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정치적권리를 누릴수 있다. 정치적으로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남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국가는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는 정권으로 될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옳게 실현해나갈수 없다. 이처럼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물질경제적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참답게 누릴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66페지)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물질경제생활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정치사상생활에서 자주성을 누리는것과 함께 물질적부가 풍부히 생산되여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줄 때에만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참답게 누린다고 말할수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수 있게 하는 물질적담보로 된다.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매개 민족국가들이 독립적인 단위로 자기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조건에서 제것이 있어야 하며 제것이 있고 자기 나라의 살림살이가 풍부해야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 자기의 살림살이를 자기의 힘으로 꾸려나가지 못하고 제것이 없으면 불피코 남의 나라에 의존하게 되며 따라서 그러한 나라의 인민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없고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누릴수 없게 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게 되면 그 어떤 경제적파동에도 끄떡함이 없이 나라의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물질적부를 많이 생산하여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으며 또한 생산수단을 끊임없이 기계화, 자동화하여 그들의 로동생활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되게 할수 있다.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또한 근

Digitized by Google

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의 운명이 남의 군사적힘이나 압력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고 자주권을 지켜나갈수 있는 군사적담보를 마련해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기를 옹호보위하는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사람이 자기를 옹호보위할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짐으로써 정치적자주성과 경제적자립성을 군사적으로 믿음직하게 보장하여주며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생활에서나 경제생활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안전하게 누릴수 있게 한다.

군사적힘이 약하면 다른 나라의 침략과 예속을 당하게 되며 그러한 나라의 인민들은 남의 노예의 신세를 면할수 없게 된다. 자기의 군사적힘을 키우지 못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에게 예속되고 천대받는 운명에 놓이게 된 인민들의 쓰라린 력사적교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렇듯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혁명적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 자립, 자위에 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발전과 자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자주독립국가의 징표와 본질, 그 활동원칙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으며 국가와 그 기능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더욱 발전완성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간섭과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적이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국가가 자주성을 옹호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무기로서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력한 방도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국가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사상은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온 우리나라의 혁명적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빛나게 확증된 위대한 사상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지난날 뒤떨어지고 가난하였던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으며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의 조국으로 이름떨치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의 본질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풍모

리 재 순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 우리 인민의 양양한 미래가 있고 조국의 무궁한 륭성번영이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 혁명적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종국적승리를 확신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자신이 선택한 공산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혁명적신념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용기와 투지를 북돋아주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길에서 동요함이 없이 끝까지 완강하게 싸워나가게 하는 중요한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열렬한 지향과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정신이다.

일반적으로 신념이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견해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굳게 믿는 마음이며 그에 부합되게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결의와 지향이 안받침된 의식상태이다.

혁명적신념은 맹목적인 믿음, 종교적 신앙과는 달리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견해, 지식이 생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론의할 여지없이 확고하게 체득되고 그것을 구현하려는 지향과 의욕, 결의와 각오가 튼튼히 안받침된것이다.

혁명적신념은 공산주의미래에 대한 사랑과 혁명적락관주의로 발현된다.

혁명적락관주의는 혁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락천적으로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공산주의적 혁명정신과 기풍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지향을 안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명랑하고 생기발랄하게 살며 용기백배하여 끝까지 견결하게 싸워나가는 혁명가들의 고결한 품성이다.

혁명적락관주의는 혁명의 승리에 대한 신념에 기초하고있으며 그로부터 흘러나온다.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 공산주의미래의 휘황한 전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어떤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희망과 신심을 잃지 않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혁명가들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고상한 정신적풍모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21페지)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가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풍모로 되는것은 공산주의승리를 확신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공산주의

Digitized by Google

자의 숭고한 사명으로 되기때문이다.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력사적과업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물질경제적으로, 사상정신적으로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이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공산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혁명적각오와 강의한 의지를 가질수 있다.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가진 사람만이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 앞에서 굴하지 않고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킬수 있으며 자기의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쳐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으로 살며 투쟁으로 일생을 끝마친다. 혁명투쟁의 길에는 수많은 난관과 준엄한 시련이 있을수 있으며 일시적인 실패와 부분적인 희생도 있을수 있다.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있게 되는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관하거나 희생이 두려워 신심과 투지를 잃고 주저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다.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비관과 실망도 있을수 없으며 그들의 생활은 언제나 신심과 희망에 넘쳐있으며 혁명적락관으로 가득차있다. 난관을 두려워하거나 난관앞에서 동요하고 주저하는 사람은 참된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혁명의 한길에서 꿋꿋이 싸워나갈수 없다. 혁명가는 오직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힘으로 능히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승리의 앞길을 용감히 헤쳐나가야 한다.

혁명투쟁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투쟁이다. 매개 나라가 처한 형편과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간에서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 종국적으로 승리한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혁명가들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동반하는 혁명투쟁에서 자기 세대에는 비록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반드시 완성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있기때문에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언제나 락천적으로 싸워나가게 된다.

공산주의승리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못가지면 기껏해야 공산주의동정자로밖에 될수 없으며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에서 동요할수 있고 지어는 혁명을 포기하고마는 변절의 길로 떨어질수도 있다.

공산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고 혁명적락관에 넘쳐 동요없이 싸워나가는 사람만이 공산주의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지닐수 있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반드시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로 된다.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로 되는것은 그것이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의 본질적요구로 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세대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선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도록 교육교양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386페지)

Digitized by Google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가지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운다는 것은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혁명사상과 관점으로 무장하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굳은 각오와 의지를 가지는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혁명적각오는 혁명적신념에 기초할 때에만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적세계관은 공산주의자로서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다 갖추었을 때 완전히 서게 된다.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때에만 온갖 계급적원쑤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혁명적각오와 강의한 의지를 가질수 있다.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제국주의멸망의 불가피성,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과학적인식에 기초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혁명의 길에서 물러설수 있다.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풍모인 혁명적신념이 없이는 혁명할 각오, 다시말하여 혁명적세계관을 바로세울수도 없으며 비록 혁명할 결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에서 변함없이 싸워나갈수 없다. 혁명적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으며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풍모로 된다.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지니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가면서 완수하여야 할 영광스러운 력사적위업이다. 이 숭고한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지녀야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거창한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은 우리가 이미 진행하여온 사회적변혁과 인간개조사업에 비할바없이 심오한 내용과 매우 높은 요구와 목표를 담고있는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혁명사업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정치적사업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계급적원쑤들과 적대적사상조류의 반항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이며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개척해나가는 거창한 창조적사업이다.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도 매우 복잡하고 착잡하다.

이것은 우리의 투쟁이 간고하며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수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러므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있을수 있는 어떠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치더라도 사소한 동요와 주저도 모르고 용기백배하여 혁명과 건설을 우리자체의 힘으로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면 혁명적신념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는 한 우리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녔기에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비약을 일으킨수 있었으며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은 혁명적신념을 지닐때 안팎으로 아무리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여도 주체의 기치를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사소한 편향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신념을 깊이 간직한다면 조성된 정세가 복잡하고 제기된 혁명과업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하다고 하여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길로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지니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은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적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혁명적락관에 넘쳐 투쟁하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과정에는 형언할수 없는 곤난과 엄혹한 시련도 있었으며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다. 그러나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는 한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굳게 믿었기에 원쑤들의 겹겹한 포위속에서도, 철창속에서도 결코 비관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고 변함없이 혁명의 지조를 지키면서 끝까지 싸웠으며 마침내는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은 전쟁승리와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확신하였기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재더미우에서 전후복구건설을 시작하였을 때 우리의 형편은 참으로 어려웠으며 원쑤들은 100년이 걸려도 조선은 다시 일어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과 새조국 건설위업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전후복구건설에서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싸워나감으로써 재더미를 헤치고 불사신처럼 일떠설수 있었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가장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킨수 있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혁명과 건설에서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혁명의 길에 헤아릴수 없는 간고한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도 수령은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은 수령을 받들고 따르며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당의 령도따라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로 나아갈 때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형성공고화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이다.

* *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가지고 당을 따라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여 나가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본분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가지고 생활하며 투쟁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관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의 사상리론적기초이며 원천이다.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를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빛나게 구현해 나가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투쟁할수도 없고 전진할수도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자기 위업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락관, 필승의 신념을 안겨준다.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사람들이 그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자기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실현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또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반대하고 우리자신의 힘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하며 그러자면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자각을 안겨주고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밝혀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공산주의위업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울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수 있다.

이것은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심화하고 그것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며 깊이있게 하여 신조화, 신념화하여야만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할줄 모르는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참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준비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영웅적투쟁력사를 잘 알아야 하며 그를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를 잘 알아야 지난날 그러하였

Digitized by Google

던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수 있으며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가는 한 주체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적락관에 넘쳐 투쟁할수 있다.

반세기에 걸치는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실성으로 빛나는 자랑찬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불멸의 력사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는 오직 위대한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실천을 통하여 확증한 위대한 력사이다.

우리 인민은 오랜 혁명투쟁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인식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이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의 길이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하는 여기에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계속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사회발전의 법칙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철저히 인식하는것은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로 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발전의 법칙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명백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승리에 대한 신심이 나올수 없으며 어떠한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고상한 정신과 투지가 나올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581페지)

사람들은 체험과 경험적인식에 기초하여서도 일정한 신념을 가질수 있다. 그러나 신념이 체험과 경험적인식에 머무를 때에는 충분한 공고성을 가질수 없으며 그것은 원리적인식과 결합될 때에만 참으로 공고하고 확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을 끝까지 하겠다는 불굴의 혁명정신은 주관적욕망이나 일시적충동에 의하여 이루어질수 없으며 오직 자기가 수행하는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것이다.

낡은 봉건사회가 멸망하고 자본주의사회가 발생발전한것처럼 자기 세기를 다 산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승리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사회발전의 법칙이다.

력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새롭고 진보적인것이기때문에 그것은 불가항력의 힘으로 자라나 반드시 승리하고야마는것이다. 공산주의에로의 전진도상에 수많은 시련과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으나 그 위대한 전진과정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할 때 사람들은 공산주의앞날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지향을 안고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용감하게 싸워나가게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이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신념은 생활과정에 축적되면서 점차적으로 굳세여진다. 그러므로 실천적체험과 느낌을 통하여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시켜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수 있

Digitized by Google

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공산주의적시책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는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의 실제생활에서 누리고있는 공산주의적시책에 대한 똑똑한 인식을 가질때 사람들은 확고한 신심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

공산주의사회는 어느날 아침에 기성품으로 한꺼번에 우리앞에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혁명적시책, 공산주의적시책을 하나씩 실시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전사회적범위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로 확대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리상으로만 그려왔고 공산주의사회에서만 누릴수 있는 크나큰 혜택을 우리 인민들은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의 실시, 세금제도의 완전한 철폐와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의 실시를 비롯한 일련의 공산주의적시책을 통하여 이미 현실에서 누리고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공산주의앞날의 휘황한 전망을 잘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공산주의승리를 굳게 믿고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싸워나가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의 정신도덕적풍모의 핵을 이루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혁명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위대성에 대한 확신, 수령이 이끄는 혁명의 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만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공산주의적의식성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의 가장 높은 발현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신념의 최고표현이다. 우리가 지녀야 할 충실성은 그 어떤 시련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는 변함없는 충실성이다. 드팀없는 신념에 기초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여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높은 긍지와 커다란 자부심을 안고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굽힘이 없이 영원히 수령님께 충성다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는 바로 여기에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고 공산주의혁명가로 영생할수 있는 참된 길이 있는것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실성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려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신조화, 신념화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을 철석같은 신념과 혁명적의지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그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와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을 따라 혁명을 끝까지 계속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며 당의 령도따라 싸워승리하려는것은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이 간직하고있는 혁명적 신념이며 의지이다.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온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혁명적신념,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철석같은 신념은 그 어떤 힘으로도 꺾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백전백승의 당의 기치따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열쇠

김 배 환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심화발전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는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의 운명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는 전적으로 우리 당의 령도에 달려있으며 당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66페지)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기본열쇠이다.

당은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당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작성되며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이 조직령도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에로 광범한 대중을 령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당을 강화하고 그의 전투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이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열쇠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과 인민이 수행하여야 할 주체의 혁명위업자체의 본질적 요구와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가장 숭고한 력사적위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우리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만들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거대한 정치사업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이것은 우리 당을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한다.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공산주의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나가야 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당의 옳은 정치적령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한걸음도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만 당을 통하여 주체형의 피와 영양소를 온 사회에 힘있게 불어주어 사회와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조해나갈수 있다.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이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열쇠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

Digitized by Google

요인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유일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을 강화함으로써만 혁명과 건설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일 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당은 수많은 당조직들로 이루어지있다. 매개 당조직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지고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력있는 조직으로 되여야 전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수 있고 당이 하나의 사상의지에 의하여 움직이는 강철같은 전위부대로 될수 있다. 이러한 당만이 그 어떤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 하여 혁명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이게 된다.

모든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게 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이다. 이러한 불패의 통일단결이 이루어질 때 당의 로선과 방침이 하부말단까지 거침없이 내려가고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에 의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당의 전투력을 높여 유일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인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만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곧 수령의 위업이며 그것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완성된다. 그러므로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려면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철저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지 못할 때에는 혁명의 대가 끊어지고 혁명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듯 당의 전투력을 높여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이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열쇠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혁명적령도의 기본요구는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당정책집행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6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고 사회가 전진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을 떠난 사회가 있을수 없는것처럼 인민대중의 역할을 떠난 사회의 발전도 있을수 없다.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없다. 혁명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그들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이 광범한 군중을 어떻게 쟁취하며 혁명과 건설에 그들을 어떻게 조직동원

Digitized by Google

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의 전투력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것이다.

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높아야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당은 결국 광범한 군중을 쟁취할수 없으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다. 바로 여기에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이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열쇠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현시기 조성된 혁명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되고있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영구분렬의 위험은 더욱더 짙어지고있다.

안팎의 정세는 당의 전투력을 그 어느때보다도 높여 우리 당대렬을 강철의 대오, 불패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림으로써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키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렇듯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간부대렬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간부들과의 사업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57페지)

간부는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결국 간부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문제는 간부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간부들이 다 건전하고 정치사상수준이 높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끝없는 헌신성을 발휘하여나갈 때 당의 전투력도 비상히 높아지게 될것이며 당의 의도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게 될것이다. 간부대렬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대렬이 튼튼하여질수 없으며 간부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서는 모든 사업이 잘되여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경험은 일군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간부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면 간부들이 변질되여 나중에는 혁명의 길에서 떨어지게 되며 이렇게 되면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후과를 미치게 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무엇보다먼저 간부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는데 첫째가는 주의를 돌려야 한다.

간부의 표징은 어디까지나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하고 당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높은 사상적각오가 되여있으며 당이 맡겨주는 그 어떤 혁명과업도 능히 감당해나갈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높이 발휘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될 때 당의 전투력은 더욱 높아지게 될것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훌륭히 보장할수 있다.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

Digitized by Google

은 또한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단체는 상급당기관에 복종하며 전당은 중앙위원회에 복종하는 원칙에서 당이 한몸과 같이 단결하고 강철의 규률에 따라 움직여야만 우리는 장기간에 걸치는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투쟁에서 인민들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380페지)

규률은 당의 생명이며 전투력의 원천이다. 강철같은 규률이 전당을 지배할 때에만 당은 불패의 힘을 발휘할수 있다.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이 없이는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투적인 부대로 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일수 없다.

당의 강철같은 조직규률은 당원들이 당의 결정지시에 대한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게 하며 전당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사고하고 움직이는 전투적인 부대로 더욱 강화하게 한다.

당조직들은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세우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의 강철같은 규률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규률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해당단위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당의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밀접히 결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 속에서 당의 결정과 지시에 대하여 존엄있게 대하며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이 제정된 규범과 질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려면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당조직에 집중시키고 당의 의도에 맞게 처리하는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당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자의대로 처리하면 당안에 혼란과 무규률이 조성되고 당의 의도대로 당사업을 바로해나갈수 없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은 반드시 당의 의도대로 처리하며 결론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흥정하지 말고 무조건 그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당이 숨을 쉬여도 같은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며 걸음을 걸어도 같은 걸음을 걷는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더욱 철저히 세울 때 우리 당은 더욱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될수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을 생기발랄하고 힘있는 전투적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요구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58페지)

당위원회들이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도록 하고 당생활을 잘하게 하는것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인 것만큼 당이 조직된 부대로서의 전투적

위력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당을 구성하고있는 매개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얼마나 견실하고 그들이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어떻게 활발히 움직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다시말하여 사람이 건강하려면 사람의 몸을 이루고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건전하고 자기 작용을 원만히 하여야 하는것처럼 당이 튼튼하려면 당을 이루고 있는 모든 당원들과 당세포들이 건전하고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다 건전하며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자면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의 규률과 의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원은 당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할수 있으며 자신을 혁명가로 끊임없이 단련해나갈수 있다.

당조직생활을 통한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떠나서는 자신을 혁명적세계관이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해나갈수 없다.

당조직생활은 또한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이기 위한 기본방도로 된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서는 육체적생명을 유지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당원들이 당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옳게 참가할수 없으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나게 유지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의 요구대로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것을 결심하고 자진하여 당에 들어온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당생활에 참가하여야 한다.

당생활은 일정한 기한을 두고 하거나 시간적여유가 있을 때에만 하는것도 아니며 당생활에서 높고낮은 당원이 있는것도 아니다.

당원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누구나 다 당생활을 하여야 하며 아무리 복잡한 일이 제기되여도 당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조직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으며 당규약상 의무도 제대로 수행할수 없고 혁명가로서의 본분도 다할수 없다. 당원은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며 언제 어디서나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이 바로서야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조직에 보고하고 조직의 토의에 따라 움직이는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세울수 있으며 우리 당을 불패의 위력을 가진 전투적인 부대로 더욱 강화할수 있다.

일군들이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가지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당사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170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옳게 세워진 다음 사업의 성과여부는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이 어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만일 일군들이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철저히 의거하고 혁명적사업방법에 의거할 때에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Digitized by Google

더욱 높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집행할수 있으며 반대로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낡은 재래식사업방법대로 일하게 되면 당의 로선과 정책 집행에로 광범한 근로대중을 옳게 불러일으킬수 없게 된다.

특히 당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 간부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면 당사업뿐아니라 정권기관사업도 잘되고 경제기관사업도 다 잘되게 된다. 따라서 당사업의 기본은 언제나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이로부터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해나가는 문제는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수령님식사업방법은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이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나갈때에만 우리 당의 전투력을 높여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뿌리빼고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위원회들을 튼튼히 꾸리며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70폐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은 당을 이루고있는 매개 당조직들이 다 건전하고 해당한 위치에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조건에서 보장된다.

유기체가 자기 활동을 제대로 하자면 그것을 이루고있는 모든 조직들과 기관들이 자기 작용을 하여야 하는것처럼 로동계급의 당도 그를 이루고있는 모든 당조직들이 다 잘 움직이고 발동되여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전투적인 산 조직으로 될수 있다. 각급 당위원회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지 않고서는 전당에 왕성한 전투적기백과 패기가 넘쳐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모든 세포조직들과 각급 당위원회들이 각이한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될수 있다.

당위원회는 해당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이며 모든 부문사업의 참모부이다. 어느 부문에서나 당의 결정지시를 옳게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위원회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다.

당의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조직사업은 당위원회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또 그 집행 정형도 해당당위원회를 통하여 장악되고 총화된다. 그러므로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당위원회를 당성이 강하고 지도능력이 있는 핵심당원들로 꾸리는것은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위원회를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하고 능력있는 핵심당원들로 꾸려야 당위원회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전투적인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집체적지도원칙을 철저히 구

Digitized by Google

현하여야 한다.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와 부문에서 당의 결정지시를 책임지고 관철해나가는 집체적지도기관이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수행하는데서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이기때문에 어느 개별적일군이 당조직을 대표할수 없다.

당위원회는 개별적일군들의 독단을 없애고 해당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사업방향을 결정하며 분공을 조직하고 력량을 옳게 조직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당위원회앞에 나서는 모든 사업을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킬수 있으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당의 결정과 지시를 정확히 관철할수 있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경제지도와 관리에서 개인의 주관을 없애고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이 잘되여나가도록 뒤받침해주면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늘 살피고 추동하여야 한다.

이렇듯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기본열쇠로 된다.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때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철저히 보장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당위원회와 집체적지도

김 태 근

당조직들의 집체적지도기능을 높이는것은 로동계급의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의 위치와 역할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당활동의 기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의 활동의 기본은 집체적지도입니다. 당위원회들은 해당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당정책에 근거하여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사업방향을 결정하며 분공을 조직하고 력량을 옳게 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71페지)

집체적지도는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당원대중의 의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당조직의 지도이다. 다시말하여 당위원회를 구성하고있는 위원들의 의사와 힘에 의거한 지도이며 이것은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당도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단위의 주인이 되여 당의 로선과 정책, 그 부문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방향과 수행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옳게 조직진개해나가는 가장 우월하고 혁명적인 지도방법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인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혁명과업수행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앙양을 이룩해나가는 주체적인 지도방법이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무기이며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치적조직체이다. 당이 자기의 본성에 맞게 사업하고 활동하자면 언제나 광범한 당원대중의 지혜와 요구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하며 그들의 의사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광범한 대중의 지혜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실현하자면 각급 당위원회들이 자기의 활동에서 집체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위원회들의 령도적역할은 한두사람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옳게 보장될수 없으며 광범한 대중의 집체적지혜가 발양될 때에만 더욱 높아질수 있다.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모든 부문 사업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들을 선거하는 중요한 목적은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당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기능을 높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고 지도에서 개인의 독단과 주관주의를 없애고 대중의 지향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여나갈수 있다.

이것은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가 당의 본성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당위원회활동의 기본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Digitized by Google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가장 훌륭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느 부문에서나 당정책을 옳게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위원회들의 령도적역할에 결정적으로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170페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의 힘과 지혜를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당위원회들은 해당단위의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집체적령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전당의 조직적의사를 반영하여 제시된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들이 제때에 정확히 관철되도록 하자면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다 도와 군을 통하여 집행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도당과 군당을 비롯한 각급 당위원회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해당 부문과 단위에서 당의 결정지시가 철저히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당위원회들이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자기의 집체적지도를 어떻게 수행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위원회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가 내려오면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 분공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며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힘있게 조직전개함으로써 당의 결정과 지시가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게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가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게 하자면 집행대책을 바로세우는것과 함께 광범한 대중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하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대중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으며 따라서 대중의 지혜를 충분히 조직동원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당조직들의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중요한 비결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과 지혜를 어떻게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며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도 그들속에서 나오게 된다. 대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종합하고 그에 기초하여 집행대책을 세우며 그것을 다시 군중속에 침투시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위원회들이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 대중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찾아낼수 있으며 걸린 문제를 풀수 있는 대책을 옳게 세워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령도를 현실에 더욱 접근시키고 지도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며 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지역적 및 생산적 단위에 합리적으로 조직되여있는 각급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또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서만이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이 통일적으로 움직여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합쳐 그것을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이 보장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국가기관, 경제, 문화 기관, 근로단체들이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행동상 통일을 보장하고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우자면 당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해당지역의 최고지도기관인 당위원회는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을 지도하고 그의 모든 활동을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정치적참모부이다. 그런것만큼 각급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모든 부문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고 행정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보장하고 이끌어줄수 있다.

당위원회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집행대책과 수행방도를 제시함으로써 행정경제기관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훌륭히 관철해나가게 한다.

이와 함께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되고 분공된 행정경제과업들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행정경제부문일군들을 정치적으로 지도하고 당적으로 잘 도와주며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검열총화하고 재포치함으로써 해당 지역과 단위에서 당의 결정과 지시가 정확히 관철될수 있게 한다.

결국 각급 당위원회들이 집체적협의를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행정경제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을 적극 발동하고 근로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당의 결정과 지시를 옳게 관철해나갈 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이와 같이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이 전례없이 거창한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되고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는 비상히 커졌으며 그 기술장비수준도 대단히 높아졌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과업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들이 해당 지역과 단위에서 조직하고 집행해야 할 사업내용이 더욱 다양해졌으며 그 범위가 방대하고 복잡하여졌다.

우리 혁명의 객관적현실은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해당 단위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다 실속있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해야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견지하고 대중의 적극성과 조직성을 부단히 높여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원칙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는 여기에 우리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더 큰 비약과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Digitized by Google

* *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당위원회들은 자기 활동에서 집체적지도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령도를 정확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이며 당위원회들은 해당 단위와 부문에서 당정책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할 사명을 지닌 집체적지도기관이다.

당위원회들이 자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자면 반드시 집체적지도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이기때문에 당위원회의 어느 개별적일군이 결코 당조직을 대표할수 없으며 당위원회의 지도를 개별적일군의 지도로 대치할수 없다.

만일 개별적일군이 해당단위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생각나는대로 처리하게 되면 당원대중의 집체적의사가 충분히 발휘될수 없으며 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당위원회에서는 위원들과 당원대중의 집체적의사에 의하여 모든 문제들이 조직집행되고 처리되여야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위원들의 집체적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당위원회의 지도를 보장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는것입니다.

공장당위원회는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인것만큼 생산이나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반드시 공장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론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364페지)

집체적협의를 떠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란 있을수 없다. 당위원회들앞에는 당조직사상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업이 련이어 제기된다.

아무리 당위원회를 자주 진행하고 제기된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토의한다고 하여도 거기에서 집체적협의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집체적지도란 사실상 무의미하며 옳은 대책을 세울수 없다. 자신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개별적일군이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지 말고 광범한 대중의 창발성에 의거하며 위원회와 협의회에서 진지하게 토의하고 집체적의사에 기초하여 문제를 옳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위원들의 지혜와 창발성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집체적협의는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하는 조건에서 훌륭히 보장된다.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요구의 하나이며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당회의에서 위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내놓을수 있도록 당내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켜야 그들이 문제토의에 적극 참가할수 있으며 제기된 문제를 충분히 토의하여 구체적인 해결대책을 세울수 있다.

당위원회에서는 당일군이건 행정일군이건, 웃일군이건 아래일군이건 또 간부이건 일반당원이건 할것없이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문제토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등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당위원회에서 문제를 집체적으로 토의하는 목적은 위원들의 의견을 광범히 듣고 대중의 창발적지혜에 의거하여 그것을 정확히 해결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당회의에서 자기의 주견만을 내세우려 해서는 안되며 위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내놓을수 있도록 당내 민주주의를

Digitized by Google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당위원회책임일군은 회의 의장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에 맞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이끌어나가면서 위원들이 창발적의견을 많이 내놓도록 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에 기초하여 옳은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대책을 세우며 분공을 구체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원래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광범한 당원대중의 창발성에 의거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당위원회들은 위원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일도 하고 정치사업도 하면서 당회의에서 토의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군중의 의견을 광범히 듣도록 하여야 하며 광범한 군중의 창발적의견에 기초하여 좋은 방법론을 찾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당원대중의 집체적지혜가 남김없이 발양될수 있고 따라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옳게 보장하자면 또한 모든 위원들이 활발히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당위원회가 산 조직으로서 집체적지도기관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려면 당위원회 위원들을 잘 꾸리고 그들이 다 자기의 역할을 똑똑히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511페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있는 위원들의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때 훌륭히 보장될수 있다.

당위원회를 옳게 꾸리고 위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집체성을 보장하여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옳은 대책과 방도를 세우고 전반사업을 옳게 지도해나갈수 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개별적책임일군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여도 당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는 원만히 수행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위원들이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자기 위치에서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

당위원회는 위원들을 당위원회사업에 적극 인입하여 그들에게 분공을 잘 조직해주고 그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늘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당위원회는 위원들의 수준과 능력, 본신임무와 사업조건들을 참작하여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도록 분공을 옳게 주고 그 수행정형을 료해장악하고 총화하며 나타난 부족점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위원들이 언제나 당위원회앞에 자기 사업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일하며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되고 분공된 과업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김없이 끝까지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위원회들의 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이다.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할수 있으며 당의 종국적인 투쟁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결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이 경제건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하는가 하는것은 경제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이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해설선전하고 그들의 앞장에 서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5폐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정치적지도인것만큼 그것은 경제사업을 대행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사업을 하여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해나갈것을 요구한다.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면서 명령하고 지시하는것은 당적지도방법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당일군들이 행정을 대행하게 되면 당정책의 집행을 옳게 장악할수 없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갈수도 없다. 그리고 행정경제일군들이 자기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게 되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일을 창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결국 당사업도 잘될수 없게 되고 경제사업도 제대로 지도할수 없게 된다.

당일군들은 모든 일을 자기가 도맡아해야 잘될것처럼 생각하면서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는 그릇된 관점과 사업태도를 없애고 어디까지나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하며 행정경제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기관들과 그 지도일군들이 당앞에서 지닌 자기의 임무를 똑똑히 알고 그들이 당의 의도대로 사업해나가도록 당적으로 뒤받침해주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늘 살피고 추동하여야 한다.

당 및 행정경제 일군들이 서로 합심하여 당일군은 조직정치사업을 잘하고 경제기술일군들은 경제기술사업을 잘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경험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기능과 역할을 높일 때 당의 방침을 아무런 편향없이 훌륭히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참모부로서의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3대혁명소조운동은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

리 수 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이 더욱 높아지고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당조직들이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되였으며 일군들과 당원들의 조직관념이 높아지고 당의 결정지시관철에서 그들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의도대로만 살며 일해나가고있으며 기술혁신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가 철저히 확립되여 우리의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이 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려지고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철저히 서가고있다.

생활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기능을 높이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떠미는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혁명지도방법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

* *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방법을 확립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실현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지도형식과 함께 지도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지도방법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이며 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방법을 가져야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령도해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지도방법을 개선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심화발전은 당앞에 더욱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제기한다. 그리고 어떤 혁명운동에서나 거기에 참가하는 대중들의 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이 조직화되면 될수록 인민대중은 더 큰 힘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여 혁명적 개조와 변혁이 심각해지면 질수록, 대중운동과 혁명투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며 그러자면 그에 맞게 지도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지도방법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정도와 혁명의 구체적임무에 의하여 규정되는 당과 대중의 련계형식의 하나이다. 따

Digitized by Google

라서 제기된 혁명과업의 성격과 내용, 대중의 의식수준이 심화발전하는데 맞게 지도방법을 개선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끊임없이 심화되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과학적인 지도방법을 밝혀주시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이 운동이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옳바로 결합시킬수 있게 하는 지도방법이라는데 있다.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시키는것은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며 그것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할 때 원만히 수행될수 있다.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는 대중령도의 뗄수 없는 두 측면으로서 서로 의존하고 보충하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데서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인것만큼 그들의 사상을 적극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적지도는 3대혁명수행에 대한 지도에서 기본으로 된다.

그런데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인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며 현대화수준이 높아지는 조건에서 3대혁명수행에 대한 지도는 정치사상적지도만으로는 옳게 해결될수 없으며 여기에 반드시 과학기술적지도가 안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지도는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옳게 결합시키고 그것을 다같이 강화하여나갈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소조원들의 구성상 특성으로 하여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옳바로 결합하여 실현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로 3대혁명소조를 무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8~19페지)

3대혁명소조가 당핵심들을 망라하여 조직되게 된것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자로 하여 전당적, 전국가적 견지에서 3대혁명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3대혁명소조는 당핵심들과 함께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한 청년인테리들을 망라하고있으므로 그들이 대중에게 선진과학기술을 가르쳐주며 새로운 기술혁신을 끊임없이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 특히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새것에 민감한 혁명적인 청년인테리들은 모든것을 참신하게 보며 정열적인 투쟁을 벌려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잔재들을 극복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이처럼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옳게 결합

Digitized by Google

시킴으로써 3대혁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장악지도할수 있게 하며 대중의 정치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이 현대과학기술과 결합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적극적이며 과학적인 지도방법이다. 바로 여기에 3대혁명소조운동의 중요한 특성이 있으며 이 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지도방법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지도방법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운동이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지도방법이라는데 있다.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3대혁명수행에서 당의 지도와 대중을 가장 훌륭히 결합시키는 중요한 고리이다. 아래에 대한 실속있는 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아래단위와 대중에게 거침없이 침투되게 하며 현지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고 일군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게 함으로써 3대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그 임무와 목적, 규모의 특성으로 하여 아래단위의 사업을 가장 실속있게 도와주는 지도방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아래에 제때에 깊이 침투시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쳐나가는것은 3대혁명소조의 주되는 임무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에서는 그에 망라된 소조원들이 그 어떤 중간다리도 거치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직접 생산단위의 일군들과 군중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당조직들과 합심하여 그 관철을 위한 집행대책을 세워나간다. 그리하여 3대혁명소조가 활동하는곳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군중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알고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을 다그쳐나가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우리 당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 목적은 일군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당이 요구하는대로 일을 잘하도록 하는데 있다.

3대혁명소조는 일군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도와주어 그들이 당의 정책과 결정지시를 조직집행해나가는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한다.

특히 3대혁명소조는 오랜 간부들의 사업을 도와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오랜 간부들은 지난 시기 간고하고도 복잡한 혁명투쟁로정에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조국과 인민 앞에 많은 일을 하여놓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나이를 많이 먹었으며 수준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오랜 일군들을 일깨워주고 도와주어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로쇠하여도 사상정신적으로는 로쇠하지 않고 언제나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준다.

3대혁명소조운동에서는 또한 많은 성원들로 이루어진 지도소조가 매 직장, 작업반에까지 들어가 생산자대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걸린 고리를 제때에 정확히 찾아내고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워준다. 뿐만아니라 많은 지도성원들이 오래동안 내려가있으면서 사업을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끝장을 볼 때까지 풀어줌으로써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3대혁명수행에서 더욱 큰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한다.

이와 같이 3대혁명소조운동은 위대한

Digitized by Google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아래에 깊이 침투시키고 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을 실속있게 도와주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혁명지도방법이다.

우가 아래를 가장 실속있게 도와주는 참다운 혁명지도방법이라는 여기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지도방법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새로운 형식의 지도방법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운동이 광범한 대중을 적극 발동하는 힘있는 지도방법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4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그 어떠한 혁명투쟁도 대중이 적극적으로 발동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과를 이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힘과 창발성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하는 방법은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방법으로 된다.

더우기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혁명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며 인민대중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에 의해서만이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광범한 대중을 적극 발동하는 방법을 떠나서는 3대혁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내려가 꾸준한 설복교양을 통하여 생산자대중에게 제기된 혁명과업의 내용과 수행방도, 그 의의를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자신이 스스로 혁명과업수행에 떨쳐나서게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생산현장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사상적각오와 준비정도가 서로 다르고 각이한 조건에서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과적으로 교양개조하고 발동시킬수 있게 한다.

참으로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시키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대중을 적극 발동하는것으로 하여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한 지도방법을 창조하신것은 당이 심화발전하는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지도방법을 개선해나가는 빛나는 모범으로 되며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오게 한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한 지도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며 적극적인 지도방법을 가지게 되였으며 3대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위력한 무기를 틀어쥐고 그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소조운동, 새로운 혁명지도방법을 창조하신것은 또한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령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서 오직 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3대혁명소조운동은 주권을 잡은

Digitized by Google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로 된다.

*　　*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며 우리 인민의 모든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진과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다그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이미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이 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9페지)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지니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앞장에 서서 힘차게 투쟁하는 혁명의 전위들이며 투쟁의 기수들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혁명의 전위, 투쟁의 기수답게 자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때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원리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결정지시를 옹호관철하는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대로 일해나가는것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숭고한 임무를 다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틀을 차리지 말고 겸손하고 소박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혁명의 전위,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적극적인 집행자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그들과 적극 합심하는것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원들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과 힘을 합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쳐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불길을 더욱 높여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지방예산제와 일군들의 창발성

김 관 현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지방예산제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알뜰히 꾸려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방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 일군들의 창발성이 높이 발양됨에 따라 지방의 경제문화건설이 빨리 추진되고 인민생활이 윤택해지고있으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더욱 강화되고있다.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지방예산제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으며 지방예산제야말로 일군들의 창발성을 높여 지방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나라의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우월한 예산제도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지방정권기관일군들은 지방예산제를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고 나라의 전반적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

지방의 예비와 생산잠재력을 어떻게 동원리용하며 지방살림살이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지방들에는 풍부한 원료원천과 로력자원이 있다. 또한 나라의 경제건설이 진척되고 지방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 생산잠재력은 더욱더 커지며 지방살림살이를 잘해나갈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도 많아진다. 그러므로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이러한 예비와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고 지방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면 생산을 빨리 늘이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

매개 지방의 살림살이는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을 이룬다.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는 중앙공업부문에서 경제관리를 합리화해나가는 것과 함께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지방살림살이들을 깐지게 해나가야 더욱 윤택해지게 된다. 모든 지방들에서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나가면 그만큼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이 다그쳐진다.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지방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려면 지방예산제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예산제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지방예산제는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지방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게 하며 지방살림살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부담을 덜어주고 절약된 국가자금을 축적에 더 돌릴수 있게 한다. 지방예산제는 또한 지방들에서 쓰고 남은 돈을 국가에 들여놓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더 많은 자금을 확대재생산에 추가적으로 돌릴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지방예산제를 실시하면 축적과 소비를 다같이 빨리 늘이고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더 잘 맞출수 있게 되며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의 속도를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있는 지방예산제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예산제도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지방예산제는 지방정권기관일군

들속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인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모든 지방이 자립적으로,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예산제는 일군들로 하여금 나라살림살이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창발성을 더욱 발양하게 하는데 큰 작용을 합니다. 지방예산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도 더 높이 발휘하고 창발성도 더 내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42페지)

지방예산제는 일군들속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킨다. 이것은 지방예산제의 본질적요구와 관련된다.

지방예산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지도밑에 지방정권기관들이 자기 지방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꾸려나갈것을 요구한다. 지방예산제에서는 지방정권기관들이 자기 지방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국가앞에서 완전히 책임진다.

이러한 책임성은 지방정권기관일군들로 하여금 지방공업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여러가지 일용품과 식료품생산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도록 힘있게 추동한다. 그것은 또한 지방정권기관일군들이 생산뿐아니라 분배와 소비도 통일적인 과정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한다.

지방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지방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려는 책임성과 창발성이 높이 발양됨에 따라 지방공업이 더욱 발전하고 상업, 사회급양, 편의봉사사업이 개선되게 되며 온갖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내부축적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예산제는 일군들속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인민생활을 높이고 모든 지방이 자립적으로 걸어나갈수 있게 하는 우월한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으로 된다.

지방예산제가 일군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우월한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지방의 수입으로 자체의 지출을 보장하고 남은 몫을 국가에 들여놓으며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준 지방에는 물질적우대와 혜택이 더 차례지도록 할것을 요구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보장하고 지방수입의 남은 몫을 국가에 들여놓으며 국가의 리익과 개별적지방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켜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준 지방에는 물질적우대와 혜택이 더 차례지도록 하는것은 지방예산제의 본질적요구이며 지방예산제를 실시하는데서 철저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들이다.

지방예산제의 이러한 본질적요구는 지방정권기관일군들로 하여금 국가에만 의존하려 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살림살이를 꾸려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게 한다. 이리하여 지방의 모든 일군들은 자체의 원료원천과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자기 지방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게 되며 지방의 살림살이를 깐지게 꾸려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지방의 살림살이를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과 특성에 맞게 알뜰히 꾸려나가는것은 지방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그것은 지방예산제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다.

지방예산제에서는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 평가와 총화에 이르는 모든 사업을 지방정권기관들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그러므로 지방예산제를 실시하면 일군들속에서 지방살림살이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운영해나가

Digitized by Google

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며 모든 지방의 살림살이가 철저히 해당 지방의 구체적 조건과 특성에 맞게 알뜰하게 꾸려지게 된다.

이처럼 지방예산제는 지방정권기관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더욱 윤택하게 꾸려나가게 하는 독창적인 예산제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우월한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지방예산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지방예산제를 실시하기전에는 지방들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을 다 중앙예산에서 보장하였다. 그러나 지방예산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몇해 지나서부터는 모든 지방들에서 다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있을뿐아니라 많은 돈을 더 벌어 국가에 들여놓고있다. 1977년에 우리 나라의 지방들에서는 10억원을 국가에 들여놓았으며 지난해에는 11억 9,900여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국가에 들여놓았다. 이리하여 지방예산제를 실시한 다음부터는 국가에서 큰 공장들과 대학, 병원 같은것을 건설하는데 더 많은 자금을 돌려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지방예산제를 더 잘 실시하기 위하여 도, 시, 군들에서 소비품생산을 늘이고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해나감으로써 인민생활이 높아지고 모든 지방들이 다같이 고르롭게 빨리 발전하고있다.

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지방예산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일군들의 창발성을 높여나가는 바로 여기에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재정수입을 늘이고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지방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방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 창의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휘함으로써 지방예산제를 보다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여서는 안되며 앞으로 지방예산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8페지)

일군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지방예산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새로 제정된 지방예산제규정을 어김없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 제정된 지방예산제규정에는 지방살림살이와 지방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총화 및 검열통제에 이르기까지 지방예산제를 실시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들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지방예산제규정을 그대로 집행해나간다면 일군들의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지방정권기관일군들과 지방예산제와 관련한 모든 기관, 기업소 일군들은 새 규정을 자신들의 행동규범으로 삼고 철저히 그에 의거하여 일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새로 제정된 규정의 요구에 맞게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지방예산을 잘 세우는것이다.

지방예산은 지방살림살이의 표준이며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은 지방예산의 기초이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지방예산을 잘 세워야 일군들로 하여금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리용하여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지방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추동할수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도 다그칠수 있다.

지방들에서는 국가에서 떼주는 원료,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지방

Digitized by Google

의 원료, 자재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 방향에서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움으로써 계획의 동원성과 현실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 또는 도에서 승인한 규모보다 더 늘인 지방예산을 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국가계획보다 더 생산한 원료, 자재, 상품들과 지방의 로력을 자체로 조절분배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지방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생산계획수행과 예산집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살림살이를 창발적으로 해나가는 기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다.

지방예산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군들의 창발성은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지방예산수입을 빨리 늘여나가는데서 중요하게 나타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예산제를 발전시킨다는것은 곧 지방들에서 살림살이를 자체로 해나갈수 있도록 지방 공업과 농업, 수산업, 인민봉사사업, 수매사업 같은것을 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8～19페지)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것은 지방예산제를 발전시켜 지방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며 국가축적을 늘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방들에서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재정수입을 늘여야 자기의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필요한 자금을 자체로 보장하고 국가에 더 많은 돈을 들여놓을수 있다.

지방의 모든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공업의 기술장비를 강화하고 지방산업공장들을 현대화하여 지방공업의 생산능력을 높여야 하며 수매사업을 개선하여 원료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더욱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지방의 일군들은 또한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다 동원리용하여 세소어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여러가지 수산물생산을 늘이며 상품공급사업과 사회급양 및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고 문화시설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고 생활상 편의와 문화휴식을 적극 보장해주면서 재정수입을 빨리 늘여나가는 길이다.

이와 함께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며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원가와 류통비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예산수입을 빨리 늘이고 국가에 더 많은 보탬을 주어야 한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지방예산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예산자금을 바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지방예산자금을 바로 리용하여야 인민들이 벌어들인 돈을 인민을 위하여 쓰는 사회주의재정의 인민적성격을 옳게 살려나갈수 있으며 자금을 사장시키거나 류용랑비하는 현상들을 철저히 없애고 지방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고 깐지게 꾸려나갈수 있다.

지방예산자금을 바로 리용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지정된 계획항목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예산돈자리에 있는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출하는것이다. 지방예산자금의 지출에서 지정된 계획항목과 정해진 절차를 어기거나 지방예산돈자리에 있는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것을 허용한다면 지방살림살이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지도를 보장할수 없게 되며 지방의 일군들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많은 자금을 랑비하게 된다.

지방정권기관들은 지정된 계획항목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는 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지방예산돈자리에 있는 자금의 범위안에서 국가에 들여놓아야 할 납부금을 먼저 바친 다음 기본건설 및 대보수 자금을 계획대로 떼여놓고 남은 자금으로 지방예산의 기타 자금을 지출하도록 엄격히 통제하

Digitized by Google

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지방의 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지방예산수입을 더욱 늘이기 위하여 창발성도 높이 발휘하게 할수 있다.

우대기금은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준 지방에 물질적우대와 혜택이 차례지도록 하여 일군들의 창발성을 높이는 경제적공간이다.

지방예산제규정에는 지방공업생산계획과 상업, 사회급양, 편의봉사 부문의 계획을 수행하고 예산수입을 넘쳐보장하였을 때 넘쳐수행한 수입금의 일부를 우대기금으로 세우고 쓸수 있게 규제되여있다.

그러므로 지방들에서는 년초부터 루계적으로 예산수입계획을 넘쳐수행한 정도에 따라 우대기금을 분기마다 적립해야 하며 그것을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되는 추가적인 자금과 상금으로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이리하여 지방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창의창발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며 지방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정확히 하는것은 일군들의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정총화사업을 잘하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깐지게 하게 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맡은바 혁명과업을 넘쳐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4~15페지)

지방살림살이를 깐지게 하려면 예산집행에 대한 총화사업을 잘해야 한다.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매월, 매 분기마다 돈을 번것은 얼마이고 쓴것은 얼마이며 국가에 리익을 준것은 얼마이라는것을 똑똑히 밝힐수 있으며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방예산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바로세울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대중적인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여 재정규률을 엄격히 세울수 있으며 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기풍이 차넘치게 할수 있다.

지방들에서는 지방예산의 집행정형을 인민경제계획실행총화와 맞물려 월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총화해야 하며 반년총화와 년간총화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예산제에 망라된 기관, 기업소들의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지방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방살림살이를 깐지게 하고 나라의 전반적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밑에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재정은행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재정은행일군들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새로운 지방예산제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없으며 재정관리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울수 없다.

재정은행일군들은 언제나 한푼의 돈이라도 아끼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와 인민에게 더 많은 리익을 주겠다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재정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자금을 류용랑비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 이리하여 지방의 모든 일군들로 하여금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예산집행과 재정관리에서 제정된 규률을 엄격히 지키며 지방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지방예산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지방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지방예산제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지방의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고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과업들을 더욱 앞당겨수행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수송사업은 전당, 전국, 전민이 지원해야 할 중요한 사업

리 인 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에서와 최근시기의 여러 교시들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수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전당, 전국, 전민이 수송사업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수송사업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사회주의교통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며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수송사업은 전당, 전국, 전민이 힘있게 지원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운수문제와 관련하여 끝으로 강조하고싶은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운수부문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하겠다는것입니다. 인민경제 어느 부문, 어느 기업소를 막론하고 운수수단을 리용하지 않는데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운수문제를 남의 일처럼 보아서는 안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278~279페지)

교통운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재생산의 중요한 고리이다. 생산과 건설이 진행되는 모든 단위들에서는 례외없이 수송수요가 제기되며 교통운수부문에서 실어나르는 짐도 거의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필요한 원료, 연료, 자재들과 생산된 제품들이다. 운수수단을 리용하지 않는 공장, 기업소란 있을수 없으며 어느 한 부문, 어느 한 단위의 생산과 건설도 수송과 관련이 없이 진행되는데가 없다. 또한 수송사업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철도운수에서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도 주로는 공장, 기업소 전용선들에서 진행되고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수송사업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생산된 제품들과 필요한 원료, 연료, 자재들을 제때에 실어날라 생산과 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되는 동시에 나라의 수송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교통운수부문의 역할을 높이는 한편 공장, 기업소들에서 수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고 나라의 수송능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으며 수송수요를 제때에 충족시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전당, 전국, 전민이 수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교통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수송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교통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수송의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그에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들과 자재들을 원만히 대주어야 하며 기본건설도 많이 해야 한다. 철도의 전기화를 하루빨리 완성하고 사령지휘체계의 무선화, 텔레비죤화를 다그치며 운수수단들을 현대화, 대형화하고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기계화하는것과 같은 모든 과업들은 여러가지 기계설비들과 자재들을 원만히 대주어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방대한 과업들이다. 특히 철도를 전기화

Digitized by Google

하고 새로운 철도 및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교통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건설공사들은 한장소에서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교통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수송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의 이러한 특성은 국가적인 큰 힘을 넣고 교통운수부문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과 전체 인민이 수송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것을 요구한다. 전당, 전국, 전민의 힘있는 지원에 의해서만 교통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수송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방대한 규모의 로력, 설비, 자재 문제를 제때에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교통운수를 현대적기술의 기초우에 더욱 확고히 올려세워 나라의 동맥으로서의 그의 역할을 보다 높일수 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수송사업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오늘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생산과 건설이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수행된데 이어 웅대한 6개년계획이 빛나게 완수되였으며 오늘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휘황한 설계도인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생산잠재력은 매우 커졌으며 부문들사이, 부문내부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도 더욱 복잡하고 밀접해졌다. 나라의 곳곳에 대규모의 탄광, 광산들과 화력발전소들, 현대적인 야금공장들과 기계공장들, 화학공장들과 세멘트공장들이 수많이 건설되고 여러가지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창설되였으며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 수준도 비상히 높아졌다.

오늘 우리의 인민경제는 그 규모가 대단히 커진 조건에서도 매우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공업건설이 계속 큰 규모로 진행되고있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생산과 건설이 비약적인 속도로 전진함에 따라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고있는 방대한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전당, 전국, 전민이 수송사업을 힘있게 지원하는데 있다.

교통운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방대한 수송수요를 충족시켜나갈수 없다. 전당, 전국, 전민이 수송사업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수송조직을 개선하고 철도운수부문의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는 사업을 다그쳐 당면한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수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력의 빠른 발전에 수송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교통운수의 수송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교통운수정책이 철저히 관철되여 철도전기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 대형화, 현대화된 운수수단들이 대대적으로 생산공급되였으며 철길의 강도가 높아지고 집중수송, 집합수송, 련대수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조건들도 튼튼히 갖추어졌다. 이리하여 렬차의 집끄는 힘이 더욱 커졌으며 운행조직을 개선하고 수송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거대한 예비가 조성되였다. 현실은 전당, 전국, 전민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면 수송사업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철도의 수송능력을 짧은 시일안에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는것을 뚜렷

Digitized by Google

이 보여준다. 문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송사업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철도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지원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과 기업소지도일군들속에서 수송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릇된 태도를 빨리 고치고 생산과제와 함께 운수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돌리며 나라의 긴장한 수송문제를 푸는데 다같이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64폐지)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수송을 지원하는 사업도 일군들의 립장과 관점에 의하여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모든 일군들이 수송부문을 지원하는것이 결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공동의 사업이라는 옳은 관점을 가지고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되면 어떤 조건에서도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여 지원사업을 힘있게 조직전개해나가게 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있는 예비와 가능성도 지원사업에 동원리용하지 못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수송은 생산의 련속과정이다. 생산이자 수송이고 수송이자 곧 생산이다.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여도 철도가 그것을 제때에 실어나르지 못하면 소용이 없게 되며 수송이 앞서나가야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수송사업을 지원하는것이 자기들이 맡은 생산과 건설을 더 잘해나가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며 전당, 전국, 전민의 공동의 사업이라는 옳은 관점을 가지고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철도를 도와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전체 근로자들에게 현시기 철도수송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고있는 중요하고도 영예로운 과업이라는것을 똑똑히 알려주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적극 동원하여 철도를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더욱 힘있게 지원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생산하는 사람이 받아쓰는 사람, 짐을 나르고 부리우는 사람의 립장에서 일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 빈물동수송을 없애고 철도의 부담을 적극 덜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문제를 볼 때마다 반드시 수송문제를 같이 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수송계획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수송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주인다운 립장에 서서 철도를 책임적으로 지원하는 일군들의 자세이다.

수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철도운수부문의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는 사업을 한몫씩 맡아서 짧은 기간에 전격적으로 해제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철도와 다른 운수부문에서 요구하는 운수기재와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주고 탄광, 광산들에서는 선탄과 선광을 잘하여 필요없는 돌을 나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짐을 제때에 실고부려 화차리용률을 높이며 수송기재를 적극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79폐지)

오늘 우리 나라 철도의 수송잠재력은 대단히 크지만 철도운수부문에는 아직 일부 약한 고리들이 남아있다. 이리하여 이미 마련된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

Digitized by Google

토대는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있으며 철도의 긴장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있다. 그러므로 철도운수부문의 약한 고리들을 빨리 보강하는것은 철도의 긴장성을 풀고 그 수송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나서고있다.

철도운수의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는 사업을 잘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도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이 사업을 한몫씩 맡아가지고 책임적으로 끝내는데 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모든 지도일군들은 철도의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틀어쥐고 조직지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구내선을 확장하고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며 창고를 건설하고 집합을 만드는 등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는데서 한몫씩 단단히 해야 하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맡겨진 지원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은 물론 철도의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는 사업을 한가지라도 더하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요구하는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는것은 철도의 긴장성을 빨리 풀고 그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해당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철도의 전기화를 하루빨리 완성하고 기관차와 화차 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들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해야 하며 중량레루와 중량에 견딜수 있는 침목 같은것을 제때에 대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철도를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철도를 지원하는 사업은 어디까지나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책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지 않고서는 철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방대한 로력과 여러가지 설비, 자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 방법으로 철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자기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철도의 수송능력을 빨리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철도를 힘있게 지원하며 자기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전용선사업을 개선하는것이다.

전용선사업을 개선하여야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미 있는 화차의 사용년한을 늘여 철도에서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게 할수 있으며 국가에 큰 보탬을 주고 자기 공장, 기업소의 생산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탄광, 광산들에서는 플빙장을 비롯한 짐싣는 시설들을 잘 꾸리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화차전복기, 기중기와 같은 여러가지 상하차기계설비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음으로써 화차들이 들어오는족족 짧은 시간안에 짐을 싣고부릴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용선을 가지고있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철도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화차를 알뜰히 다루고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송사업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고있는 보람찬 과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전당, 전국, 전민이 수송사업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한국혁명은 주체위업의 계승이며 그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청》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기관지 《혁명전선》에서 전재—

오는 8월 25일은 한국근로민중의 대변자인 우리 통일혁명당이 존엄있는 김일성주의당으로서의 출범을 만방에 선언한 때로부터 1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 날을 맞이하는 우리 통일혁명당원들과 한국의 모든 혁명가들, 애국민중의 심경은 인류사적위업의 최정상을 장식하는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그 승리를 진두에서 인도하시는 주체의 태양 김일성동지께 바치는 다함없는 감사와 함께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할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한국혁명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한국민중자신이 주동이 되여 수행해야 할 민족사적과제이며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 등장한 우리 민중자신이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야만 승리할수 있는 지상의 과제이다.

한국혁명은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해방위업이며 전근대적인 압제와 굴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인간본연의 자주성을 옹위하기 위한 한국민중자신의 계급해방투쟁이다.

한국혁명은 백전백승의 김일성주의를 분단된 조국의 이남지역에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계승하여 통일조국의 전국적판도에서 완성하기 위한 위업이다.

한국의 혁명가들과 애국민중은 한국판도에서 주체위업을 수행하는 혁명투쟁에서 괄목할 전진을 이룩하였다.

지난날 실패와 우여곡절을 거듭하던 한국혁명은 통일혁명당의 창건과 더불어 주체의 기치밑에 알찬 진군을 거듭하게 되였으며 오늘은 래일의 승리를 확신성있게 전망하고있다.

우리 통일혁명당원들과 한국의 모든 애국적민중은 한국에서 주체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는 투쟁의 한길에서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무를 영예롭게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1

한국혁명은 구세제민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향도하시는 가장 영광찬란한 주체위업의 계승이며 그 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이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기치인 불멸의 주체사상에 립각하여 개척되고 실현되는 혁명위업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전국적판도에서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고 공산주의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민족사적위업이며 전지구상에서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인류를 해방하기 위한 전인류사적위업이다.

다시말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이란 우리 나라와 지구상에서 근로민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위업이며 전세계를 주체의 요구대로 변혁하기 위한 세기적인 위업이다.

이 위업은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차지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개척하시였고 수령님께서 그 실현을 진두지휘하시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필승불패의 위업으로 된다.

한국혁명은 그처럼 성스러운 주체위업을 투철히 계승하여 한국땅에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한다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경애하는

Digitized by Google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전통에 력사적뿌리를 두고 혁명을 추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한국혁명이 주체위업의 철저한 계승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이 혁명이 영생불멸의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향도리념으로 하여 전개되는 혁명이라는데 있다.

한국혁명은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회복하며 계급적압제를 물리치고 사회적해방을 이룩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한국민중들의 투쟁이다. 이 혁명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국토의 절반지역에서 전개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서 전인미답의 매우 간고하고도 복잡한 과제들을 안고있다.

그 복잡성과 간고성은 특히 현대제국주의아성인 미제를 주되는 투쟁대상으로 삼고있으며 사상최악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가 실시되고 온갖 국제반동사상이 집중되여있는 사회적여건에서 전개되는 혁명인데로부터 더욱 크고 심각하지 않을수 없다.

이와 같은 특수성은 한국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할 지도리념문제를 각별히 첨예한 문제로 제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국혁명의 이 절절한 요청에 필승의 처방을 내릴 지도리념은 위대한 김일성주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상, 리념도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자주성을 옹위하기 위한 한국민중의 혁명투쟁을 오직 필승의 한길로 향도하는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영세불후의 김일성주의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완성된 리정표로서 주체시대의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 실천 문제들에 완벽한 과학적해답을 준다.

인류사상최고봉의 지도리념인 김일성주의는 우리 혁명가들과 애국민중들에게 주체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적세계관을 주고 한국혁명승리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명철하게 밝혀주며 대중을 의식화, 혁명화하여 정치적대군을 편성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론을 주고있다.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진수인 주체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기에 혁명가들과 민중은 현대최악의 반동사상오염지대에서도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과 혁명적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 용감히 나설수 있게 되였다.

또한 주체의 혁명론이 있기에 한국혁명은 그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 혁명의 총적로선과 매 발전단계의 과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받게 되였으며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전략과 전술들을 소유하게 되였다.

아울러 위대한 김일성주의가 주체의 령도방법을 안겨주었기에 우리 당과 혁명가들은 각계각층 애국민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능력을 적극 높여 한국혁명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오늘의 한국혁명이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인 영생불멸의 김일성주의를 유일무이한 향도리념으로 하여 전개되고있으며 따라서 주체위업의 투철한 계승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한국혁명이 성스러운 주체위업의 계승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주체혁명의 시원에 뿌리를 두고 전개되는 혁명이라는데 있다. 이것은 한국혁명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창조하신 불멸의 혁명전통에 력사적뿌리를 두고 뻗어내린 혁명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재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시기에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은 전조선혁명과 함께 한국혁명이 계승하고있는 유일한 력사적근원이고 힘의 원천이며 그

Digitized by Google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활력소이다.

이 위력한 혁명적재부를 떠나서는 한국혁명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할수 없고 승리가 약속된 창창한 래일을 전망할수 없다.

한국혁명이 주체의 혁명전통에 력사적뿌리를 두고있다는것은 우선 이 혁명이 항일혁명투쟁의 계속이며 연장이라는것으로써 설명된다.

한국혁명은 물론 한국사회 고유의 체내에서 산생된 독자적인 혁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혁명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단위로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이여의 혁명들과 아무런 질적 차이도 없는 혁명이라는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의 한국혁명은 주체혁명의 발상기부터 력사적으로 하나의 전일체로 발전하던 조선혁명이 미제에 의한 국토분단으로 말미암아 부득불 남북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투쟁형식으로 벌어지지 않을수 없게 된데서 비롯된 독특한 지역혁명으로서 전조선혁명의 불가분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고있다.

이것은 한국혁명이 자기 발전의 력사적뿌리를 전조선혁명의 시원과 조금도 달리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 조국의 남북에서 주체의 기치밑에 전개되는 혁명들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주체혁명의 시원을 떠나서 존립근거를 가질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령봉에 주체혁명의 홰불을 높이 지펴올리실 때 수령님의 뇌리에 펼쳐진 조국의 지역적의미는 분할된 강토의 남북이나 동서가 아니였고 조국의 일부분이나 한정된 지역이 결코 아니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전을 전개하시며 광복을 그려보시던 조국과 민족은 분단된 두개의 지역, 두개의 겨레가 아니라 통일독립된 하나의 전조선이였고 계급적으르 해방되고 인간적으로 자주적인 오직 하나의 민족이였다.

오늘의 한국혁명은 바로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시며 실현하시려던 그 숭고한 구상을 한국땅우에 현실화하기 위한 성업이다.

다시말하여 민족해방의 혁명과제와 인민민주주의혁명과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있는 한국혁명은 바로 항일혁명투쟁의 당면좌표로 되여있던 민족해방, 계급해방 위업을 오늘의 한국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인것이다.

이것은 한국혁명이 항일혁명투쟁의 계속이며 연장으로서 주체의 혁명전통에 튼튼히 뿌리박고 거기에서 뻗어내린 혁명이라는것을 의미한다.

한국혁명이 주체혁명의 시원에 뿌리를 두고있다는것은 또한 이 혁명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있는것으로서 설명된다.

원래 주체의 기치밑에 전개되는 한국혁명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전통 이외에 따로 계승할 그 어떠한 전통도 가지고있지 않는다.

주체의 사상체계와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으로 이루어진 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나라 남북의 어느 한 특정지역의 혁명이나 어느 한 시기에만 계승될 성격의 전통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시던 첫시기부터 통일적인 전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로서 창조되였다.

따라서 전조선혁명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인 한국혁명이 주체의 혁명전통을 유일한 혁명적재부로서 계승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론리의 귀결이고 력사적 필연이다.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기치밑에 형성된 이 영광찬 혁명전통은 주체위업을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동요없이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부동한 만년초석이다.

혁명승리의 사상정신적재부들과 경험들이 집대성되여있는 주체의 혁명전통

Digitized by Google

은 그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용과 무비의 감화력으로 하여 오늘 우리 한국혁명의 실천에 전면적으로 계승되여 응당한 활력을 과시하고있다.

한국혁명을 떠메고나가는 통일혁명당과 혁명대오내에는 주체의 사상체계가 투철히 확립되여가고있으며 모든 혁명가들과 애국민중 속에서는 불멸의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에 대한 신봉과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의 열정이 날을 따라 더욱더 팽배해가고있다.

우리 혁명가들과 애국민중은 주체의 혁명전통을 혁명의 량식으로 삼아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튼튼히 다져가고있으며 항일혁명시기의 불멸의 업적과 투쟁경험들에 기초하여 당활동을 비롯한 모든 혁명실천을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실속있게 전개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혁명가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그대로 본받아 각계각층 군중을 수령님의 주위에 결집시켜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기 위한 투쟁에 착실하게 구현해나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한국혁명이 주체의 혁명전통에 력사적뿌리를 두고 주체의 기치밑에 전개되는 혁명이며 따라서 주체위업을 철저히 계승한 혁명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2

한국혁명은 전조선판도에서 주체위업의 승리와 그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필수적요청이다.

현단계에서 주체위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한다는것은 전조선적으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그의 종국적완성을 실현한다는것은 한국까지 포함한 전조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완수한다는것을 뜻한다.

우선 한국혁명이 주체위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필수적요청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전조선판도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위업의 완성을 확고하게 담보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위업이다.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기치하에 조선혁명의 새벽길을 개척하시던 때에 정립하신 투쟁강령이 바로 인류해방과 함께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과제였으며 수령님의 령도하에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애국민중이 준엄한 항일혁명의 포화속을 헤치며 투쟁해온것도 바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위대한 주체의 기치하에 통일적으로 추진되여온 민족해방, 계급해방위업은 조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로써 빛나는 결실을 보았으나 남반부에서는 여전히 미해결의 숙제로 남아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위업을 실현하지 못했을뿐아니라 파쑈독재의 청산과 가장 초보적인 인권회복도 실현하지 못하고있다.

한국사회는 오늘도 자주성시대와는 량립될수 없는 민족적예속과 계급적압제의 쇠사슬에 묶여있으며 한국민중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그의 가장 충실한 앞잡이들의 유신파쑈독재하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원천적으로 부정당하고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과 애국민중들 앞에는 유신파쑈독재를 청산하고 사회생활을 시급히 민주화하는 동시에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전립하기 위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시급히 수행할 과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 력사적과제는 민족적예속과 계급적억압에서 탈피하기 위한 한국민중자신의 투쟁과제인 동시에 제국주의의 식

Digitized by Google

민지예속으로부터 령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전민족 공동의 과제로 된다.

한국혁명이 주체위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필수적요청으로 되는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말하여 한국에서의 민족해방과제의 실현은 전국적범위에서의 민족해방위업의 완성을 담보하며 한국혁명의 인민민주주의과제의 수행은 곧 전조선에서의 계급해방의 승리적전제를 조성하는것으로 된다.

한국혁명의 수행과정은 또한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국통일위업의 수행과정과 일치하게 되며 조선혁명의 통일적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과정으로 된다.

따라서 한국혁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전국적완성도, 전조선혁명의 통일적반전도 기대할수 없는것이다.

다음으로 한국혁명이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필수적요청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전국적판도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소지를 마련한다는데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세기적위업이다.

전조선판도에서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실현한다는것은 한국까지 포함한 남북 삼천리강토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주체의 요구대로 남북사회를 변혁하고 자연과 인간을 개조하여 전조선에 공산주의락원을 건립한다는것이다.

따라서 전국적범위에서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통일혁명당과 한국민중도 이북겨레들과 함께 주체위업을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대를 이어 반드시 성취해야 할 민족지상의 공동과제로, 최종목표로 되지 않을수 없다.

한국혁명은 바로 이 목표에 시급히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전제로 된다.

오늘 이북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추진시켜나가는 상황에서 한국혁명을 하루속히 승리하여 한국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전국적범위에서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도,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도 기대할수 없기때문이다.

오직 한국혁명을 시급히 승리로 결속하여야만 전조선판도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통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고 전민족이 대를 이어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한국혁명의 수행과정은 전조선에서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필수적전제로 될뿐아니라 오늘 이북에서 전개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유리한 소지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오늘 이북에서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내외반동들과 직접 대치하여 수행되는 조건에서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고있다.

따라서 미제를 주되는 투쟁대상으로 하는 한국혁명을 가속화해나가는것은 내외반동세력의 수족을 얽어매고 그들을 직접 타격하여 결정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이북에서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과정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것으로 된다.

타방으로 이북에서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과정은 그대로 한국혁명의 활력소가 되고 등대로 되고있으며 한국에서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그뿐아니라 이북에서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과정에 이룩된 모든 성과와 경험은 한국혁명승리후 한국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시급히 촉진할수 있는 위력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이북에서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이남에서의 혁명투쟁은 이와 같이 상호 지원하고 보충하는 유기적련관속에서 전국적판도에서의 주체위업의 승리와 그 종국적완성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한국혁명의 발전과 그

Digitized by Google

승리가 전국적판도에서의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필수적요청으로 되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3

한국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한국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 책임적인 투쟁이다.

한국혁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한국민중의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력사적위업도, 전조선판도에서의 민족적자주권의 확립도 생각할수 없다.

한국혁명을 수행하고 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만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신 거창한 주체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고 한국땅우에 민중중심의 새 세상을 세워 근로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각계각층 애국민중은 위대한 김일성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한국혁명의 승리를 앞당김으로써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하며 완성하여야 한다.

주체위업의 계승과 그 승리를 위한 한국혁명수행에서 필승의 대전제는 주체위업에 대한 불타는 신념과 무한한 충실성이다.

주체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성은 우리 통일혁명당이 혁명앞에 지닌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우리 당이 위대한 김일성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그 위업에 충실할 때 간고하고 준엄한 한국혁명을 확신성있게 승리에로 인도할수 있으며 주체위업을 한국땅우에 현실로 꽃피울수 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는 한국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오늘 우리 당과 애국민중앞에는 위대한 주체의 혁명적기치하에 식민지파쑈독재를 주동적으로 타파하고 한국혁명을 가속화하여 승리에로 종착시켜야 할 막중한 과제가 제기되고있다.

한국에서 주체위업을 수행하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그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요체는 우리 통일혁명당의 김일성주의화에 만전을 기하고 주체의 혁명대오를 불패의 력량으로 확대강화하는것이다.

오늘 한국의 엄혹한 현실은 우리 통일혁명당을 탄력성있고 전투적인 강철의 당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향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일것을 요청하고있다.

이 문제해결의 열쇠는 전당대오를 투철히 김일성주의화하는것이다.

우리 당이 자기 대오의 김일성주의화에 완벽을 기하여야 전당이 오직 김일성주의에 의하여 호흡하고 움직이는 일사불란의 전위대오로 될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과 향도적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전당대오의 김일성주의화를 다그쳐 혁명대오를 주체의 충신들로 튼튼히 꾸리고 당세를 부단히 확대하며 당의 모든 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김일성주의요구대로 조직전개함으로써 한국혁명의 전위적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한국에서의 주체위업의 수행에서 제기되는 기본문제의 하나는 위대한 김일성주의로 한국민중을 사상무장시켜 그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촉진하고 투쟁속에서 혁명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것이다.

한국에서의 주체위업의 성공적수행은 그의 직접적담당자인 애국민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달려있다.

오늘 로농대중을 위시한 광범위한 각계각층 민중속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의에 대한 열렬한 신봉과 함께 경애

Digitized by Google

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따르는 흠모심이 그 무엇으로써도 억제할수 없는 힘으로 커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경향각지에서는 유신파쑈독재를 매장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투쟁이 전례없이 폭넓고 깊이있게 전개되고있으며 그 투쟁들은 오직 하나의 길, 자주성을 위한 주체위업의 한길에 잇닿아있다.

로농대중을 비롯한 각계각층 민중의 공통적인 지향과 투쟁의 발전추세는 주체의 진리로 민중들을 더욱 실속있게 깨우쳐 그들의 의식화, 혁명화를 촉진하고 강력한 혁명대오로 조직하며 대중투쟁을 주체의 궤도선상에서 힘차게 성장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통일혁명당은 광범위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심원한 진리로 대중을 사상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체위업의 직접적담당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간직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로농대중을 당주위에 결속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며 각계각층 애국민중을 통일전선에 결집하여 막강한 혁명력량을 준비해야 한다. 반혁명세력을 타승할 혁명력량은 대중운동과 투쟁의 불길속에서 힘있게 성장하고 확대강화된다.

우리 통일혁명당은 주체의 전략전술적원칙에 확고히 립각하여 조성된 정세와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는 투쟁구호를 제기하고 주도면밀한 투쟁방법과 전술밑에 민주, 민권과 자주통일을 위한 당면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거족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통일혁명당은 각계각층의 모든 민주애국세력과 정당, 정파 인사들과의 광범위한 반파쑈민주련합전선을 형성하여 박정희유신파쑈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며 자주적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주동적으로 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우리 당과 한국민중의 앞길은 언제나 휘황찬란하며 한국혁명이 승리할 그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통일혁명당은 모든 애국민중과 더불어 료원의 불길처럼 일어나 한국혁명을 수행하고 이 땅우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현실로 꽃피울것이다.

근로자 1979년 제8호(루계 448호)

편집위원회

발행소・근로자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79년 8월 1일 발행・1979년 8월 5일

ㄱ—95211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EAST ASIATIC LIBRARY
NOV 1 2 1979
UNIVERSITY OF CALIFORNIA

9 호

평 양 근로자사 1979

Digitized by Google

제 9 호(449)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은 우리 인민이 지닌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서른한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에 놓여있으며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널리 떨치고있다.

진정한 조국,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삶의 보람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더욱 찬란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며 그들의 심장에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영예, 드높은 민족적긍지를 안겨주는 원천이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과 그 고마움을 심장으로 체득하고있으며 조국의 끝없는 륭성발전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것을 자기들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임무로 여기고있다.

* *

조국애, 그것은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의지이며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실천행동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조국과 인민, 민족의 모든 귀중한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상감정이며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고결한 투쟁정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살수 없으며 행복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조국의 륭성과 번영을 통해서만 자기의 행복한 앞길을 개척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85페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그들 낳아주고 젖줄기로 키워준 어머니품이다.

조국이라고 할 때 민족이 대대손손 살아오면서 자기의 땀으로 걸구어오고 피로 지켜온 강토, 한강토우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대를 이어 함께 운명을 개척하여온 인민 그리고 민족의 슬기와 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귀중한 물질문화적재부를 두고 말한다.

조국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될 때만이 인민의 참다운 조국으로, 그들의 진정한 생활의 보금자리로 될수 있다.

사람들은 진정한 조국을 가짐으로써만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조국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것이다. 조국이 없이는 살수도 없고 행복할수도 없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사회주의조국을 가진 영광스러운 인민이다.

우리 조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아름답고 풍요한 강토,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민, 귀중한 문화전통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특히 우리의 조국강토에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으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혁명선렬들과 애국자들의 피가 배여있으며 그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애국적기상이 살아 숨쉬며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키우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공산주의자들, 애국적인민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선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류례없이 간고

한 환경속에서도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용감하게 피흘려싸웠다. 그들은 일제에게 짓밟혀 몸부림치는 조국과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어떤 엄혹한 시련과 난관도 용감히 헤쳐나갔으며 높은 애국주의정신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였다.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피흘려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있으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을 떠미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 조국은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를 맞이하여 민족적번영의 최성기를 자랑하고있으며 그 휘황한 빛발을 세차게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주체의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오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아무런 불편과 근심걱정 없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도 사회주의조국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인민들의 참다운 행복과 번영의 원천이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진정한 조국애는 전체 인민들에게 삶의 참다운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는 자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며 가장 높은 민족적긍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의 계급과 인민을 사랑하며 자기의 당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것은 로동계급에게 고유한 가장 고상한 품성의 하나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485페지)

우리 인민의 조국애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이며 그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민족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며 그들은 력사를 창조하고 사회의 물질적부를 마련하며 사회를 전진시키는 추동력이다. 우리 사회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리익은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적리익과 결합되여있다. 또한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주권은 사회주의조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내용이다.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에 의해서만 조국은 진정한 인민의 조국으로 될수 있으며 민족적 번영과 륭성을 이룩할수 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진정한 애국주의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로 되는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인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가장 고결한 사랑의 감정을 지니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의 하나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랑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자기의 목숨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조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키며 그의 부강발전을 위한 위업에 모든것을 바쳐투쟁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임무로 여기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조국애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온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투쟁행정에서 높이 발휘되고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불멸의 혁명정신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애는 그처럼 숭고하며 불멸의 사상정신적힘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에게 조국을 빼앗기고 나라없는 민족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Digitized by Google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개만도 못하다》는 말도 있듯이 조국을 잃은 우리 인민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하였다. 이 민족수난의 나날에 우리 인민은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며 조국을 빼앗겼을때 어떤 처참한 운명에 떨어지는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느끼였다.

조국의 귀중함과 나라 없는 민족의 처지를 남달리 깊이 체험하였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고있으며 그 어떤 침략자도 다시는 조국의 운명을 롱락할수 없게 하기 위하여 높은 애국적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조국애의 숭고한 정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그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으며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과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거창한 투쟁과정에서 남김없이 발휘되고 더욱 발전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이 그처럼 숭고한것은 그것이 불멸의 주체사상을 그 기초로 하고있는데 있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의 높이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니고있는 세계관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세계관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자기 당과 자기 나라 혁명,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지니고있으며 그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을 자기의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있다. 그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업에 헌신하는 거기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영예를 찾고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언제나 자기자신의 운명과 련결시키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서 사람들이 자기 조국과 인민의 리익에 끝없이 충실하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모든 귀중한 재부들을 지키고 늘여나갈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은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자체의 힘으로 민족적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한다.

이 불멸의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가장 숭고한 사랑의 감정을 지니고있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이 지니고있는 사랑의 감정이 그처럼 고결한것은 또한 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과 잇닿아있기때문이다.

자기 조국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감정은 무엇보다도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만이 사람들은 고상한 조국애를 지닐수 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끝없는 혁명적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피눈물나는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잃었던 조국을 찾을수 있었으며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이 땅우에 존엄있고 부강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오늘 우리 조국땅우에 이루어진 모든 아름답고 고귀한것, 그처럼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이 걸어온 영광의 로정의 갈피갈피에는 오로지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헤아릴수 없는 로고 그리고

우리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은혜로운 조국의 품은 바로 오늘의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을 떠나서 우리 조국의 은혜로움을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끝없는 영예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오늘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 보람있고 긍지높은 삶에 대하여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한량없는 은덕을 생각한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애국적감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사는 끝없는 영예와 긍지이며 따라서 그것은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에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가장 숭고하고 뜨거운것으로 되는것이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은혜로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더욱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에 수놓아진 위대한 사변들과 빛나는 위훈들에는 우리 인민의 조국애의 뜨거운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끓어넘치는 애국의 열정을 깡그리 바침으로써 우리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은 인민의 피땀으로 이룩해놓은 모든 귀중한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데서 발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피땀으로 세워놓은 사회주의제도하에 있는, 착취가 없고 평화롭게 잘살고 일할수 있는 자기의 직장, 자기의 농촌, 자기의 도시를 사랑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다 잘살며 앞으로 더 잘살게 될 자기의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262페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조국의 모든 귀중한것들, 우리의 도시와 마을, 공장과 농촌 그리고 찬란히 발전하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끝없이 사랑하고 아끼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변모된 조국강산과 이 땅우에 마련된 위대한 창조물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아낄 때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빛내이고 영원한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랜 기간에 걸치는 우리 인민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마련된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이며 그것은 우리 조국의 륭성과 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한 원천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국의 륭성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으며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은 우리 인민의 애국적감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이룩해놓은 사회주의전취물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워나갈 때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큰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게 될것이며 조국은 더한층 부강발전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Digitized by Google

그 어떤 추상적개념이 아니며 조국의 장래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매일, 매 시각의 실천행동에서 발현되는 구체적인 사상감정이다.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사랑하는데로부터 자기 마을과 일터를 사랑하며 사회주의조국과 그 제도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참다운 애국자이다.

진정한 애국자는 조국에 대한 불타는 애국심을 가슴에 안고 어떻게 하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성다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이바지하겠는가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한다. 그들은 조국의 륭성번영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며 조국을 위하여 고귀한 땀과 지혜를 바치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더없는 영광으로 여긴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하는데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부강한 사회주의조국 건설에 더 많이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6~467페지)

혁명의 주인된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꾸려나가며 국가와 사회의 물질적부를 끊임없이 늘이기 위하여 온갖 애국적열성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중요한 표현으로 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해나가며 물질적부를 늘여나갈 때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은 자기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귀중한 재부를 극력 절약하며 적은 자재와 자금, 로력으로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내며 하나의 기계와 설비를 만들고 하나의 건설물을 세워도 나라의 만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일하는 주인다운 태도에서 나타나야 한다.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깊이 간직한 사람들은 결코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묵묵히 바쳐나가며 이렇게 하는데서 삶의 참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그들은 누가 보건말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높은 책임성과 애국적열성을 가지고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간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꾸준히 일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자각과 숭고한 혁명정신에 떠받들려 우리 조국은 날을 따라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락원으로 꽃피여나고있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참다운 사랑은 이와 함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조국과 인민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표현된다.

조국애는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진정한 애국자는 자기자신의 운명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결부시키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 민족적자주권을 지켜싸우는것을 자기의 가장 고상한 사명으로 여긴다. 이로부터 참다운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존엄, 민족의 자주권을 가장 귀중히 여기였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지켜 굿굿이 싸워나갔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을 침해하려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Digitized by Google

적개심을 가지고있으며 조국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높은 혁명적각오와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있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튼튼히 지켜나가고있으며 조국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함으로써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이 수행하여야 할 애국의 지상과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력사적으로 통일된 국가를 가지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국경아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30여년간이나 갈라져 살고있다. 장기집권야욕에 눈이 어두운 박정희괴뢰도당은 조국의 절반땅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더욱더 전락시키고있으며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그리하여 조국의 영구분렬위험은 날로 커가고있으며 민족의 자주권도 더욱 유린당하고있다.

조국을 통일하지 않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어느 민족주의자도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내쫓고 조국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힘찬 투쟁은 국토의 량단과 민족분렬의 비운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이렇듯 조국과 민족, 나라와 인민의 륭성번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에서 발현되여야 하며 그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조국의 영예와 존엄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 *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시고 마련해주신 영광스러운 조국이며 근로하는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은혜로운 어머니품이다.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과 자립적민족경제, 찬란한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자기의 일터를 굳건히 지키고 모든 일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일터마다에서 근로자들이 바치는 애국의 열정이 그대로 주체조국을 떠받들고 빛내여나가는 기둥이 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은 곧 우리 인민의 운명이며 조국의 륭성과 번영은 우리 인민의 영광과 행복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한한 애국의 열정과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은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

최 성 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주체사상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서 우리 시대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이 주어지게 되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의 전체계와 내용에 일관되여있는 근본사상이다. 혁명과 건설에 관한 모든 리론과 전략전술의 근저에는 주체사상이 놓여있다.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를 구현하여 전개된것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혁명리론이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 그 위대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의 근본원천이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혀주는 새로운 과학적인 혁명리론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과업과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으로 된다.

*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의 세계관적기초이며 그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지침이다.

혁명리론이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되자면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로부터 출발하고 그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정확히 풀고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이다.

과학적인 혁명리론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것이며 그들을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여기에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우는 근본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마땅히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리익에 맞게 전개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혁명리론이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신념으로 접수될수 있고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산 지침으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은 바로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구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명실공히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으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의 무기로 전환시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오늘 주체사상이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기때문이라고 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11페지)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혁명적인 사상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한 사상이며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의 견지에서 자연과 사회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 립장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의 모든 내용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 념원과 지향을 철학적으로 일반화한것이며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세계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는 립장과 관점을 집중적으로 표현한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의 근본 요구와 리익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지향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세계를 대하고 모든 리론과 전략전술을 전개해나가게 한다.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지침으로, 방법론적기초로 하여 전개됨으로써 주체의 혁명리론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참다운 혁명리론으로 될수 있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는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으로 되였다.

주체사상이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의 사상리론적지침으로 되는것은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더욱 명백히 근거지어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식화하신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원리이다.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 다시말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밝히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이것이 해명되여야 옳바른 혁명리론을 세우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사람,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사람과 주위세계와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사람, 인민대중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주는 과학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만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현실세계와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것으로 될수 있고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강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준다.

주체사상은 우선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를 해명함으로써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존재하는가 하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들을 개조변혁하여 지배해나간다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현실세계의 면모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있음으로하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존재로 되며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한다.

주체사상은 또한 현실세계를 개조하

Digitized by Google

고 변혁시키는데서 사람의 결정적역할을 해명함으로써 사람을 위주로 하여 현실세계의 운동발전의 근본특성에 대한 옳은 견해를 준다. 사람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사람과 주위세계사이의 호상작용이 이루어지고 세계가 변화발전하며 사람의 창조적능력이 커짐에 따라 주위세계가 점차 사람을 위한 세계로 변모되여간다는것이 현실세계의 운동변화발전에 대한 과학적견해이며 세계발전의 근본특성이다.

주체사상은 이렇듯 현실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줌으로써 현실세계의 존재와 변화발전의 근본특성에 맞게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과학적으로 전개할수 있게 하는 사상리론적지침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현실세계존재의 특성으로부터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주인의 지위에 놓고 혁명의 본질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이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논다는 현실세계의 운동변화의 근본특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줌으로써 사람의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혁명발전과정을 정확히 밝히고 사람,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것을 위주로 하여 혁명수행방도를 옳바로 세울수 있게 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혁명투쟁령역에 구현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원리로 구체화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7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과학적인 혁명의 원리를 밝혀주는 고전적정식화이다.

혁명리론은 혁명에 대한 견해의 전일적인 체계인것만큼 하나의 기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전개되여야 한다. 혁명의 원리는 혁명리론확립의 출발점이며 혁명리론의 체계와 내용을 규정하는 근본원리이다. 혁명리론의 내용과 성격, 그 특징은 그것이 어떤 원리로부터 전개되고 체계화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그러므로 가장 과학적인 혁명의 원리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은 혁명리론의 근본원리이다. 그것은 이 원리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있기때문이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가 세계관의 근본문제라면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혁명리론의 출발적문제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밝혀야 무엇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하며 무엇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작성할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정확히 풀수 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의 근본원리, 다시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은 바로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혁명리론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하고 그들의 역할에 기초하여 전략과 전술을 세울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다는것을 밝힘으로써 근로인

Digitized by Google

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 혁명리론을 전개하게 한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여 혁명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하고있는 여기에 주체의 혁명리론의 본질적특징이 있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이 있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함으로써 모든 혁명투쟁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규정하고 혁명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인 해명이 주어지게 되였으며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주체의 혁명리론이 확립될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게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데서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주체적혁명력량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전략과 전술을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이 객관적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관점에서서 모든 전략과 전술을 규정한다는것을 말한다.

혁명과 건설의 결정적요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함으로써만 혁명력량편성과 혁명의 시기선택,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확립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이렇듯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고 전개한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혁명리론으로, 혁명과 건설의 추동력인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는 전략과 전술로 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기본요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높이고 창조력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리론과 전략전술이라는데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거기에 또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원리를 확고한 초석으로 하여 혁명리론을 전개한 근거가 있다.

주체사상이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의 지침으로, 그 사상리론적기초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론을 주는것과 관련된다.

주체사상은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방법론을 주는 사상이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로 된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사람중심의 방법론을 밝혀줌으로써 혁명리론을 과학적으로 전개하고 옳바른 전략전술을 세울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김일성저작

Digitized by Google

선집》 제6권, 276페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다는것은 사람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고찰하고 모든것을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세워진 세계 인식과 개조의 방법이다. 사람이 살고있는 세계에서는 사람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놀기때문에 응당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와의 관계속에서 고찰하고 사람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과정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할수 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사람의 활동의 근본목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옳바로 세울수 있게 하는 방법론적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과학적으로 세울수 있는 지침으로 된다.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과학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목적을 바로 규정하고 혁명수행의 근본방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를 풀기 위한 방향과 방도에 맞게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의 모든 내용을 전개할수 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구속과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데 근본목적을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혀준다. 그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을 발동하여 풀어나가야 한다는 혁명과 건설의 근본방도를 밝혀준다.

그러므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울수 있게 하는 지침으로 된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과의 관계에서 고찰할데 대한 사람중심의 방법론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으로 구현된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방법론적지침이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의 요구에 맞게 세워진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근본방법이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이 력사적조건과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매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수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방법론은 모든 사고와 실천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을데 대한 혁명의 방법론으로 구체화되게 된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우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 자기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자기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게 하

Digitized by Google

는 혁명리론이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전적으로 맞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이며 주체적혁명력량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리론이다.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이고 매개나라의 력사적조건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방법론적지침이다.

나라마다 처하여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른것만큼 모든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다 들어맞는 리론이나 처방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기 위한 리론과 방침들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조건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

창조적립장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특성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정확히 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혁명과 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창조적활동과정이다. 창조적활동은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해나가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놀게 하는 근본요인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근저에는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놓여있다.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중의 창조적활동이 보다 적극화되고 그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은 또한 언제나 객관적조건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된다. 사람은 언제나 객관세계의 물질적대상들의 특성과 운동방식에 맞게, 구체적 환경과 실정에 맞게 활동을 벌린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객관적조건과 구체적환경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모든것을 실정에 맞게 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립장과 방법이며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세울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법론적지침이다.

*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며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고 규제하는 근본사상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주체사상에 기초함으로써 모든 혁명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혁명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리해를 확립할수 있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매 혁명단계의 과업과 수행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었다.

주체사상이 밝혀준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근로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자기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의 혁명투쟁의 전기간에 나서는 모든 문제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는 위대한 혁명리론이며 전략전술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근본적전환을 이룩하고 그것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탁월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며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필승불패의 전투적무기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정치사업은 일군들의 본분

곽 영 건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이 정치사업방법으로 일한다는것은 대중속에 들어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해주며 매 시기 나서는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똑똑히 알려주어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정치적열성과 자각성,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떨쳐나서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간부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대중에 대한 지도는 일군들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거할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정치하는 당,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이다. 당이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수행하자면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불러일으키는 사업은 결코 행정실무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정치사업방법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정치사업은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힘있는 방법이다. 정치사업이 우월한 대중동원방법으로 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과 관련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9페지)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이다. 사람의 가치와 품격은 돈이나 물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있는 사상의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람은 바로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력량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움직이고 그들을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면 모든 일이 잘되고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은 바로 사상의식의 역할에 관한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적극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것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

일군들은 대중의 교양자이며 정치사업은 일군들의 본분이다.

정치사업방법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 맞는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며 그러자면 광범한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동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는 이 제도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Digitized by Google

그럴기때문에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잘하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힘있는 사업방법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2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원래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고 단결시키며 대중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사업방법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충복이며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압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인민대중이 자각적열성과 창조력을 발휘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는 그들자신의 사업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자각을 높이고 그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발양시키는 방법, 정치사업방법으로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하나의 목표실현에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속에서 나왔으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명령하거나 호령하는것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갈수 없다. 명령하고 호령하는것은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이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억제하는 착취계급의 반인민적통치방법이다. 대중을 믿고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오직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그들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정치사업방법보다 더 힘있는 대중동원방법이란 있을수 없다.

정치사업방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사업방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이 있으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은 저절로 발양될수 없다. 그것은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혁명적열의를 내여 적극 투쟁할때 높이 발양될수 있다.

이처럼 정치사업방법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에 맞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우월한 사업방법으로서 모든 일군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사업방법으로 된다.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앞에 나선 가장 숭고한 과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이것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며 거창한 창조적사업이다.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업방법으로 일해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일군들이 정치사업방법을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사업을 힘있게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우리 사회를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

Digitized by Google

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도 단순한 경제실무적방법으로써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그들이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정치사업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여기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대중에 의거하며 대중을 발동시키는 정치사업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법이다.

정치사업을 하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대중동원방법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군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부닥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나갔다.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언제나 대중을 믿고 대중과 의논하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지난날 겹쌓인 난관을 이겨내고 자체의 힘으로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 공업화와 사회주의대건설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한 자랑찬 투쟁로정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킨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바로 정치사업을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할 때 혁명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정치사업방법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높은 자각적열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에게 깊이 침투시키고 그 정당성을 확신시키며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파악시키는것은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똑똑히 모르고서는 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헌신성과 적극성을 발휘할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내용, 그 정당성과 수행방도가 인민대중에게 인식되고 그들자신의 신념으로 되여야 그들이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해설선전하여 그것을 대중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하며 광범한 대중이 그 관철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는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

Digitized by Google

보위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말겠다는 높은 정치적자각과 불타는 혁명적열정을 안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한사람을 만나고 교양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간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번의 정치사업을 하여도 그것이 대중의 심장을 충성의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진심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대중을 교양하는것은 일군들이 정치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방법의 하나이다.

사람들의 사상을 움직이고 그들을 발동하는 사업은 결코 행정식, 명령식 방법으로는 할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해설과 설복의 방법에 의해서만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을 혁명투쟁에 자각적으로 불러일으킬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한것이기때문에 해설과 설복을 통하여 그 본질을 인식시키기만 하면 광범한 대중이 그것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빛나게 관철해나가도록 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그들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당면한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다.

정치사업은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이다.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생활환경은 같지 않으며 그들이 맡고있는 혁명과업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각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사업은 하나의 격식화된 틀에 매여 할수 없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이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생산현장의 구체적환경에 맞게 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가야 사상적각오와 준비정도,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르며 각이한 조건에서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교양하고 발동시킬수 있다.

일군들은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사업을 하여야 하며 정치사업을 하면 그만큼 혁명과업수행에서 성과가 오를수 있게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대중을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켜야 하며 혁명과업수행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긍정으로 부정을 극복하며 모범적인 사실을 내세워 많은 사람들이 본받게 하는것은 대중정치사업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긍정적인것이 지배적이며 또한 사람들이 긍정적인것을 지향하는것만큼 긍정감화교양은 커다란 견인력을 가진다.

긍정적인것이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긍정을 내세우고 찬양하는 그자체가 곧 부정에 대한 비판으로 되며 대중을 교양하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된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부르는곳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곳이라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사람들, 남이 보건말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오직 당을 믿고 혁명을 위하여 한목숨바

Digitized by Google

쳐 일하는 긍정적모범들이 수많이 창조되고있다.

우리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창조되고있는 혁신적성과들과 긍정적모범들이 제때에 일반화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이 충성의 열정으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기술적인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여기에 물질적관심을 옳게 배합하는것,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중을 동원하는 우리 당의 기본방법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27페지)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당사업, 정치사업의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사업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정치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불러일으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에서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정치사업의 성과는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정치사업을 통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을 보장하는 여기에 정치사업이 가지는 커다란 위력의 하나가 있다.

모든 일군들은 제기된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집체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하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다.

근로대중의 사상적각오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후방사업을 잘하지 않으면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다.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줄 때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배려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고 생산과 건설에서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지도일군들은 후방공급사업을 잘 안받침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여기에 우리 사회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은 정치사업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대중지도와 사업작풍

장 원 봉

대중에 대한 옳은 지도를 보장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그것은 지도일군들의 높은 령도예술을 요구한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자면 일군들이 높은 령도예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령도예술을 지녀야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하나의 목표실현에로 능숙하게 움직여나갈수 있다. 그리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시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대중지도에서 일군들의 높은 령도예술은 그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함께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질 때 정확히 구현된다.

사업작풍은 일군들이 높은 령도예술을 정확히 구현하여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사업작풍이란 일반적으로 일군들이 사업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풍과 품성, 일본새를 말한다.

일군들의 사업작풍은 대중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옳은 사업작풍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대중을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지만 반대로 그릇된 사업작풍은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억제하며 혁명의 전진에 지장을 준다.

일군들이 옳은 사업작풍을 지니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옳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1～92폐지)

우리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길로 이끌어나가는 전위투사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어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은 바로 우리 일군들이 지닌 영예로운 임무이다. 우리 일군들이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적극적인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력적으로 활동하여야만 전당, 전국, 전민을 그 관철에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할수 있으며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여줄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작풍에 달려있다. 아무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져도 일군들이 그릇된 사업작풍을 가지고 일한다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따라서 당이 의도하는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추진시켜나갈수 없다.

군중을 당의 두리에 얼마나 잘 묶어세우는가 하는것도 결국 일군들의 사업작풍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일군들의 사업작풍이 나쁘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할수 없으며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없다.

일군들이 옳은 사업작풍을 가지고 일하여야만 대중은 당을 진심으로 신뢰하

Digitized by Google

고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성다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쏟아붓게 된다.

이처럼 옳은 사업작풍은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실현해나가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일군들이 옳은 사업작풍을 가지는것은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 경제기관 정무원들은 다 인민이 선출한 일군들이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군들입니다.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복무하는 일군이라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쳐 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2페지)

우리 일군들은 대중속에서 나와서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심부름군이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대중의 신임을 받으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다.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며 일하는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일군들의 고유한 활동방식이다. 우리 일군들이 우리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에 맞게 살며 일해나가자면 혁명적사업기풍과 인민적품성의 소유자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작풍은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모든 문제를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한다. 일군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일하며 사는 혁명적사업작풍을 가지고 일하여야만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가장 정확히 알수 있으며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제때에 알고 옳게 풀어줄수 있다.

만일 일군들이 혁명적사업기풍과 인민적품성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사무실에 앉아서 지시나 하고 문서놀음이나 하는 등 대중과 동떨어져 생활할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점차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대중에게 호령하고 명령하게 되며 따라서 대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리익을 아랑곳하지 않는데까지 이르게 될수 있다.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은 인민의 충복인 우리 일군들의 사업작풍과는 근본적으로 대치된다.

우리 일군들이 가져야 할 사업작풍은 오직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일관된 혁명적사업기풍과 고매한 인민적품성이다.

혁명적사업기풍은 혁명과업을 전투적으로,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사상정신적풍모이며 인민적품성은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발휘되는 그들의 고상한 도덕적풍모이다. 일군들은 이러한 정치사상도덕적풍모를 갖추어야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일해나갈수 있다.

다시말하여 일군들은 혁명적사업기풍과 인민적품성을 소유하여야만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해줄수 있으며 대중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가르쳐주며 대중을 교양하여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우리 당은 일군들의 사업작풍이 대중지도에서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 새 환경과 조건에 맞게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Digitized by Google

특히 우리 당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당 및 국가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일군들의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우리의 사업발전에 지장을 주던 낡은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이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으로 일해나가게 되였다.

일군들의 사업작풍이 개선됨으로써 당의 의도가 대중속에 제때에 깊이 침투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기세가 높이 발양되고 사회주의건설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일군들의 지도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심화발전하는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지도사업을 따라세워야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혁신과 비약을 이룩하고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할수 있다.

오늘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 전망계획 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지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2폐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는 대중지도에서 우리 일군들이 견지해야 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극복하고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생활하며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일하는 참다운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질수 있다.

대중속에 들어가 살며 일하는것은 청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며 일할 때 대중의 요구를 제때에 알고 모든것을 그들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같이 일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한마음한뜻으로 살며 일할 때 대중의 요구를 더 잘 알고 그들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청산리에서 농민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일을 하나하나 의논하시던 그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워 대중과 함께 살며 일하는것을 생활화하며 모든 사업을 언제나 그들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구현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Digitized by Google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 지도일군들이 모범이 되고 이신작칙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은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라고 가르치시고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발동하기 위한 위력한 방법은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나가는것이다.

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대중을 이끌어나가는데서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진다.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지 않고 남에게 지시나 하고 내리먹이며 관료주의를 부리면 대중의 신임과 존경을 받을수 없으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다.

혁명의 매개 초소를 책임진 지도일군들이 언제나 비상한 정력과 완강한 투지를 가지고 군중의 앞장에서 싸워나가는것은 대중지도에서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일군들은 생산과 건설이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는 오늘 자기가 서야 할 위치는 대오의 앞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새벽공기도 남먼저 마시고 공장길과 농장벌도 남먼저 걸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 솔선 어깨를 들이밀어야 한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그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고 대중의 참된 기수가 될수 있다.

인민적품성을 가지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혁명적사업작풍으로 일해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높은 당성과 함께 인간성과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이런 고상한 품성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48페지)

겸손성과 소박성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인민적품성의 하나이다.

겸손성과 소박성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일군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일군들은 마땅히 인민의 충복답게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가져야 한다.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가져야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으며 대중을 옳게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다.

겸손성과 소박성은 대중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내세우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대중을 따뜻이 대할줄 모르며 대중과 잘 어울리지 않는것은 다 대중을 존중하지 않는데로부터 나오는것이다. 일군들은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례절있게 대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인간성과 문화성을 가져야 한다.

일군들은 높은 당성과 함께 언제나 인간성과 문화성을 가져야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될수 있다.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하여야 대중이 곤난해하고 아파하는 문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대중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고있는가, 걸린 문제는 없는가 하는것을 비롯하여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한다.

원칙성과 로숙성은 우리 일군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원칙성과 로숙성은 모든 사업에서 당적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사업을 능숙하게 처리하여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일본새이다.

모든 문제를 당적원칙, 혁명의 요구, 인민의 리익의 견지에서 보고 판단하여야 하며 원칙을 가지고 흥정하여서는 안

Digitized by Google

된다. 사업에서 원칙적요구성을 높이는것은 결코 관료주의가 아니며 그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원칙적인 요구성을 가지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함으로써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한 작풍에서 로숙하여야 한다. 로숙성은 모든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에 맞게 능숙하게 처리해나가는 능란하고 세련된 사업작풍이다.

일군들은 높은 조직적수완을 가지고 로숙하게 사업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옳게 교양하여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신중하게 대하고 여유있고 아량있게 처리함으로써만 대중의 존경과 신임을 받을수 있으며 대중에 대한 지도를 옳게 보장할수 있다.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옳은 사업작풍을 가지고 대중지도사업을 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것, 이것은 현시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2페지)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중지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광범한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풀어나가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지도일군들의 높은 령도예술을 요구하며 그러자면 수준이 높아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요구를 능숙하게 구현해나갈수 있으며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대중지도사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일군들이 수준이 어리면 필연코 작풍이 거칠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해나갈수 없다. 일군들이 수준이 낮고 능력이 모자라면 명령과 지시로 사업을 대체하게 된다.

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과 당의 요구에 비해 자신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따라서지 못하고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 사업을 늘 돌이켜보고 총화할줄 알아야 한다. 자기 사업을 늘 검토하고 총화하여야 작풍에서 나타나는 조그마한 부족점도 제때에 찾고 고쳐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사업이 아무리 바쁘고 복잡하게 제기되여도 자기가 한 일, 자기의 발언과 행동에서 지나친것은 없었는가를 스스로 따져보고 늘 총화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일군들은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감으로써 인민의 충복,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풍모를 갖추고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현실체험은 문예창작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담보

동 근 훈

작가, 예술인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벅찬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서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과 보람찬 생활을 풍부하게 체험하는것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문예방침의 하나이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문학예술과 현실생활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문학예술은 인간과 그의 생활의 형상적반영이며 예술적재현이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을 기본묘사대상으로 삼는다.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떠나서는 그 예술적반영으로서의 문학예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사회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은 오직 들끓는 현실에 토대해서만 성과적으로 창조될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풍부한 생활체험을 쌓는것은 참다운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혁명적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조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더욱 풍부히 쌓을것을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현실침투를 강화함으로써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인민들이 요구하는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69~170폐지)

문학예술은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그림으로써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며 커다란 인식교양적기능을 수행한다.

문학예술이 그려야 할 인간과 그들의 생활은 작가, 예술인들의 머리속이나 책상머리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속에 있다. 현실은 예술적형상의 생활적바탕이며 작품창작의 무진장한 원천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들어가지 않고 창작실에나 들어앉아있어가지고는 인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투쟁하는가를 알수 없으며 시대의 숨결을 느낄수 없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에 파고들어가야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는 좋은 종자를 골라잡을수 있고 그 종자를 잘 꽃피워나갈수 있는 여러가지 생활자료들을 얻어낼수 있다. 현실이 제기하는 문제성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그것을 풍부한 생활자료들로써 꽃피울 때 작품의 감화력은 더욱 커지고 인식교양적가치가 높아진다.

창작가는 지난 력사적시대의 어떤 생

Digitized by Google

활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산 경험과 교훈을 줄수 있으며 거기서 사람들이 신심과 용기를 얻고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할수 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깊은 연구에 기초하여서만 가능하다.

물론 문예작품은 현실의 단순한 복사가 아닌것만큼 작가, 예술인들은 창조적 사색을 해야 하며 예술적환상의 나래를 펴야 한다. 심오한 창조적사색과 풍부한 예술적환상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이라야 사상예술적깊이와 철학성을 보장할수 있다. 그러나 창조적사색과 예술적환상이 현실에 토대하고 생활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것으로 되지 못한다면 현실을 외곡하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원래 진정한 의미에서의 허구나 창조적사색과 예술적환상은 완전히 비현실적이고 공허한것과는 인연이 없으며 현실적기초를 가지고있다. 이러한 허구와 창조적사색과 예술적환상은 오직 현실을 잘 알 때에만 가능한것이며 혁명적작품창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을 위하여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사회주의현실주제는 혁명투쟁주제와 함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중요한 주제분야이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다그쳐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는 오늘의 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그 작품의 현실적의의는 더욱더 커진다. 그것은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한 작품이 우리 인민들에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적성격을 보여주며 사회정치적으로 절박한 현실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줄수 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작가, 예술인들이 지난날보다도 현실에 더 관심을 돌릴데 대한 원칙적요구가 제기되며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중요한 의의가 규정된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크나큰 민족적긍지에 넘쳐 주체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모습을 담은 작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할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모든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키워주고 그들을 피땀흘려 이룩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을 더욱 빛내이고 옹호보위하도록 고무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물론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을 그리는 것은 지난날의 생활을 그리는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오늘의 생활이 지난날의 생활보다 그 내용이 비할바없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풍부하기때문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문제를 다루기 힘들어하는것은 이런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그러나 사회주의현실주제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을 위하여 응당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분야인만큼 이 주제의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해내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서 지닌 영예로운 임무이다.

이러한 임무는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깊은 연구와 인식을 떠나서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이것은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서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체험하는것이 현실이 요구하는 작품,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의 전진운동을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작품들을

Digitized by Google

훌륭히 창작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작가, 예술인들이 들끓는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는것은 창작적성과를 위해서뿐아니라 자신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을 공장에 나가라고 하는것은 그들이 현장에 나가 로동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로동계급의 사상과 작풍을 배우고 로동계급의 심리를 알아내며 자신을 로동계급화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91페지)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강화하는것이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게 하는것은 우선 그들이 들끓는 현실과 인민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생활력을 심장으로 체득하게 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은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빛나게 관철된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면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과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직접 보고 들을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할수 있다. 이것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방침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수령님의 교시를 철석같은 신조로 삼게 함으로써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또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을 체험하는것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전투성, 사상성과 조직성을 배울수 있게 하며 근로자들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체득하여 혁명화를 다그쳐나가게 한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속에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산 모범을 본받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체득하고 자신의 사업과 생활에 구현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현실침투를 강화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이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과 그들이 실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내기 위한 창작사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방도라는것을 확증하여준다.

현실침투를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작가, 예술인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일하고 생활하는 벅찬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침투에 대한 올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것이다.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서 풍부한 생활체험을 쌓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자세와 관련된 문제이다.

문학예술의 력사는 현실속에서만 훌륭한 작품이 창작되였으며 생활체험이 풍부한 작가, 예술인들만이 명작들을 내놓는다는것을 보여준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인민적인 작가, 예술인들은 아무런 창작조건도 보장받을수 없었던 환경에서 생활의 온갖 풍파를 헤쳐나가면서 창작사업을 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활과정자체가 곧 생활체험의 과정으로 되였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문학예술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혁명적이며

Digitized by Google

인민적인 문학예술을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훌륭한 창작조건을 보장받는다.

오늘 우리의 작가,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생활상 아무러한 근심걱정도 없이 행복하게 살면서 현대적인 창작실과 무대들에서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이런 유리한 환경에서 만약 작가, 예술인들이 주어진 행복에 도취하여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체험을 실속있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귀족화되고 관료화되여 당과 혁명 앞에 지닌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는것이 자기의 혁명초소를 똑바로 지키고 창작실천을 통하여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길이라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짐으로써만 현실체험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침투를 강화하며 생활체험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의도를 잘 모르고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하게 리해할수 없습니다.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덮어놓고 공장이나 농촌으로 내려만 간다고 하여 우리의 현실을 잘 알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가려낼수 있으며 본질적인것을 정확하게 찾아낼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69페지)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에 들어가서 생활을 깊이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이 어떻게 빛나게 관철되고있고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가를 심장으로 체득함으로써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생활과 투쟁의 구감으로 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훌륭하게 창조하자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작가, 예술인들이 무턱대고 현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스스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문학예술작품에 묘사된 생활은 객관적현실의 형상적재현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현실이 문학예술작품에 고스란히 수동적으로 옮겨진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학예술작품에 그려진 모든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미학적견해에 의하여 분석되고 평가되고 일반화된것이다. 같은 대상, 같은 생활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그려질수 있다. 따라서 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며 옳게 반영하려면 똑바른 자막대기와 높은 정치적안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막대기와 정치적안목을 가지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은 창작의 기초이며 창작전과정의 지침이며 창작총화의 기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과학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작가, 예술인들만이 복잡한 현실속에서 무엇이 본질적이고 합법칙적이며 전형적인지 옳게 갈라낼수 있으며 현실에서 벌어지고있는 사변들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력사적의의를 가지는가를 똑바로 리해할수 있다. 그리하여 당정책적요구에 맞는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쥐고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형상을 심화시켜나갈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의 현실침투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현실연구와 창작과정을 밀착시키고 현실침투를 생활화, 습성화

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에 들어가서 생활체험을 쌓는것은 단순한 참관이나 견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하기 위하여 현실에 들어가는것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침투는 창작생활의 한 부분으로 된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침투를 창작생활의 련속적인 과정으로, 일상적인 사업으로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하며 창작과 현실연구를 확고히 밀착시켜야 한다.

물론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실에서 작품을 만들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창작생활에서의 일부로 되여야지 기본으로 될수 없으며 또 되여서는 안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면서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3대혁명의 기치높이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쳐 자연도 사람도 몰라보게 달라지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과 감정도 더욱더 풍부해지고있다. 참으로 어제가 옛날로 되고 래일의 리상이 오늘의 현실로 되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자랑찬 모습이다.

생활은 이처럼 빨리 전진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발전하고있는데 창작실에만 눌러앉아있거나 유람식으로 현실연구를 대치하며 현실을 관조적으로 대하여서는 생활의 본질을 알아낼수 없으며 로동자, 농민들의 정신세계를 똑바로 리해할수 없다. 이런 작가는 머리속에서 생활을 억지로 꾸며낼수밖에 없으며 어느 한때에 체험한 생활을 더듬어서 작품을 만들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결국 전진하는 현실에서 뒤떨어지게 되고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작품을 내놓을수밖에 없다.

현실침투를 생활화, 습성화하고 로동자, 농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과 같은 심정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현실을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대하여야 진정으로 생활을 깊이 체험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언제나 시대의 숨결이 느껴지는 진실하고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할수 있고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도 다그칠수 있다.

현실연구에 창작적사색을 안받침하는것은 현실침투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나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에 들어가되 현실을 보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현실속에 들어가서 체험한 생활에 토대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깊은 창작적사색을 요구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을 연구하고 종자를 골라잡은데 기초하여 구성을 세우고 세부를 묘사하며 주제를 풀어나가는 형상창조의 전과정은 높은 창작적사색의 련속적과정이다. 그 어떤 기발한 예술적착상도 뜻깊은 묘사도 다 심오한 사색속에서만 나올수 있다. 창작적사색을 떠나서는 문학예술작품이 이루어질수 없다. 현실연구도 창작적사색과 결부됨으로써만 성과를 거둘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이 아무리 현실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일하며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속에서 작품의 종자를 골라잡고 주인공들을 발견하며 작품의 생활적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게을리한다면 그러한 현실침투는 작품창작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과 같은 심정으로 일하고 생활하면서도 창작가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현실을 깊이 연구분석하여야 하며 자기가 체험하고있는 생활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재구성하여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것인가 하는것을 사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성과도 보장할수 있고 자신의 사상적수양도 더욱 다그칠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작가, 예술인들의 현실침투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 풍부하게 체험하는것이다.

사람들의 사회적관계와 실천활동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고있는 생활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풍부하다. 현실에는 꼭같은 개성을 가진 사람이 없으며 한사람의 생활자체도 매우 다양하다.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도덕생활 등이 있는가 하면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이 있다.

문학예술은 현실을 종합적으로, 전일적으로 반영하는것만큼 현실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이 다 이러저러한 작품의 소재로 될수 있으며 또 생활을 다양하게 그려야 높은 형상속에서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와 심오한 사상을 감명깊게 밝혀낼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에 들어가서 생활을 체험한다는것이 단순히 로동생활체험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을 다양하게 체험할뿐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생활을 폭넓게 체험하여야 한다. 그래야 작품을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로 차넘치게 할데 대한 문학예술자체의 본성적요구도 옳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현실을 다양하게 체험하는데서 작가, 예술인들이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는것이 중요하다.

작가, 예술인들이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는것은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묘사대상으로 하여 현실을 종합적으로, 전일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예술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이것은 산 지식을 풍부하게 가져야만 모든 사물현상을 똑바로 보고 느끼고 받아들일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실천활동을 옳바로 벌려나갈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지식이 발고 다방면적이 못되면 현실을 옳게 체험할수 없을뿐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창작과제를 감당해낼수 없다.

작가, 예술인들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을 그 부문의 전문가 못지않게 가지고있어야 어떤 형상이든지 막힘없이 창조해낼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온갖 조건과 기회를 다 리용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는 정력적인 독학가가 되여야 한다. 특히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군사, 도덕 등 생활과 자연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주는 말없는 선생인 책을 많이 읽는것이 중요하다. 책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현실에 들어가서 생활체험을 깊이있게 할수 있도록 도와줄뿐아니라 지난날의 생활을 비롯하여 직접 체험할수 없거나 체험하지 못한 현실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생활체험을 보충해준다.

작가, 예술인들은 책을 일생동안 놓지 말아야 할 생활의 길동무로, 훌륭한 스승으로 알고 책에서 허심하게 배워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이처럼 현실침투를 강화하고 생활체험을 풍부히 쌓으며 책을 통하여 지식을 넓힐 때 우리 시대 인민들이 요구하는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자기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서 인간수업을 잘하여야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학이 나온다는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실침투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함으로써 사상미학적준비를 더 잘하고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경제법칙의 옳바른 리용

리 상 설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경제일군들이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모든 일군들이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경제법칙을 잘 알고 그 요구를 옳게 타산리용하여 경제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다.

경제법칙을 잘 알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타산리용하는것은 무엇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인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 경제 계획은 사회주의 경제 법칙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례를 들면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 사회주의 하에서의 상품 생산, 독립 채산제와 수익성 문제, 원가와 가격 문제,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 리론 등 경제 법칙들과 경제 범주들을 잘 리해하지 않고는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갈수 없습니다.》(《김일성선집》 제6권, 1965년판, 514폐지)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 생산과 류통, 소비 등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이 전사회적범위에서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목적의식적으로 발전한다.

사회주의경제의 목적의식적인 발전은 사회주의경제발전에 작용하는 모든 요인들과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옳게 타산리용할 때만이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경제법칙은 생산관계의 가장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련관관계이다. 이러한 고유한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주의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러므로 경제법칙을 잘 알고 옳게 리용하여야 과학적인 토대우에서 경제를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경제법칙은 사회적생산이 이루어지는 모든곳에서 다 작용하지만 그 어느 사회에서나 옳바로 인식리용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착취계급의 손아귀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법칙을 옳바로 타산리용할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이 마련되여있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이 개별적자본가들의 의사에 따라 제멋대로 진행되기때문에 전사회적범위에서 생산의 조화로운 발전과 사람들의 통일적인 활동이 보장될수 없다. 자본가들은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를 은페하며 그들에 대한 지배를 영구화하려는데로부터 객관적인 법칙을 인식리용하려 하지 않으며 또 할수도 없다. 사람들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착취사회에서는 경제법칙이 사람을 지배하며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노예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경제법칙을 전면적으로 인식하고 옳바로 리용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근로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음으로하여 나라의 모든 재부를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전사회적범위에서 경제사업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보장할수 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경제적처지와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굳게 결합되고

Digitized by Google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경제법칙의 리용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경제법칙의 요구대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경제법칙을 리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자기에게 복무하게 하며 근로대중의 의사와 전사회의 리익에 맞게 경제법칙의 요구를 실현해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경제법칙의 과학적인 인식과 리용이 가능하며 사람들은 그 요구를 목적의식적으로 구현해나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타산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필수적요구로, 경제관리운영에서 어길수 없는 원칙으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법칙은 리용해도 좋고 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것이 아니며 또 마음대로 좌지우지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경제법칙을 옳바로 인식리용한다는것은 사람들이 경제법칙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경제법칙들을 정확히 리용하지 못할 때에는 경제조직사업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과 경제발전속도를 옳바로 보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게 된다. 일군들이 경제법칙을 홀시하고 그 리용을 하찮은것으로 여기거나 경제법칙의 요구를 잘못 인식하여 개별적인 경제법칙의 의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경제관리에서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경제법칙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지 못하게 되며 경제법칙을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경제법칙을 도외시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그 요구를 옳바로 타산리용해야 한다.

경제법칙의 요구를 옳바로 타산리용하는것은 또한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사회의 발전 법칙에 기초하여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당원들에게 구체적인 투쟁 과업을 줍니다.》(우와 같은 문헌, 514페지)

경제법칙은 로동계급의 당의 경제정책수립의 과학적기초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객관적인 경제법칙은 수령이 제시한 당의 로선과 정책에 전면적으로 구현된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법칙에 확고히 의거하여 당의 경제정책이 세워짐으로써 그것은 커다란 위력을 가지게 되며 경제관리운영의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준다.

근로인민대중이 경제법칙을 잘 알고 그것을 옳게 리용할수록 당의 경제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그 수행방도를 깊이 파악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에서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고있는 경제법칙들과 그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경제법칙의 요구를 타산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에는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바로 실현할수 있는 과학적인 기구와 원칙,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경제정책을 관철해나가는 과정은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요구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Digitized by Google

경제법칙을 타산리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제법칙을 잘 알고 옳바로 타산리용할수록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더 잘 관철할수 있으며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법칙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그 요구를 과학적으로 타산리용하는것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요구를 잘 타산하여 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더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생산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경제발전속도가 빨라지며 부문사이, 지역들사이의 련계가 더욱 밀접해진다. 이러한 경제를 옳바로 움직이자면 경제를 더욱 조직화하여야 한다. 대규모의 사회주의경제를 조직화하는 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근거하여 경제 현상과 과정의 본질을 밝히고 사회주의경제의 운동법칙의 요구대로 합리적인 련관관계를 보장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이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건설이 심화될수록 경제법칙리용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그 요구를 과학적으로 타산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 경제법칙의 호상관계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법칙을 인식리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의 주인으로,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력사의 참다운 창조자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경제법칙의 지배밑에 놓이는것이 아니라 경제법칙이 작용하는 객관적과정에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사회와 경제의 주인으로 된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은 경제법칙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옳게 인식리용하는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제법칙을 인식리용하는데서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경제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법칙이 객관적으로 작용하는것처럼 경제법칙도 역시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객관적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대로 만들어낼수도 없앨수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경제법칙은 사람과 그 활동을 떠나서 존재할수도 작용할수도 없다.

경제법칙의 이러한 특성은 그것을 타산리용하는데서 반드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주체적인 관점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경제법칙을 타산리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여기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입니다.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3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은 자주성

Digitized by Google

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으로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사회를 전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킨다.

경제법칙은 사람들의 활동밖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법칙, 자연현상과는 달리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과 그것에 의하여 마련된 물질적 및 사회적 조건에 기초하여 발생하며 작용한다.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경제법칙을 규정하는 물질적조건이 마련되며 사람들의 정치적지위와 경제적처지, 그들의 사상상태 등 사회적조건도 경제법칙의 발생과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법칙은 사람들의 능동적인 활동과 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질적, 사회적 조건에 의거하여 발생작용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제법칙을 사람들이 옳게 인식리용할 때만이 그것을 자연을 개조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위력한 실천의 무기로 삼을수 있다.

경제적과정의 주인인 사람들은 경제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를 건설하며 사회를 발전시킨다.

경제법칙을 인식리용하는 이러한 과정을 다그치자면 사람들이 경제의 주인,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가야만 경제 현상과 과정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리용해나갈수 있다.

경제의 주인으로서의 립장과 태도를 가진다는것은 경제법칙을 좌지우지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은 그들이 주인다운 높은 자각을 가지고 경제적과정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이러한 립장과 태도를 가질 때만이 사람들이 경제법칙을 정확히 인식할수 있으며 경제법칙이 작용하는 객관적과정에 대한 지배를 실현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사회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발전과정을 과학적으로 내다보며 그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경제법칙을 인식리용하는데서 주체적립장,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경제법칙의 지배자로 될수 없으며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된다.

경제법칙을 타산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법칙을 옳게 인식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법칙이 작용하는 객관적과정의 주인이 근로인민대중인것만큼 경제법칙을 타산리용함에 있어서도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요구가 필연적으로 나선다.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경제법칙의 지배자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주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경제법칙의 인식리용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주인이며 혁명적실천으로 그것을 리용하기 위한 새로운 조건을 마련해나간다.

생산의 구체적실정을 제일 잘 아는것도, 경제적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현상들에 부닥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할 때 경제적현상을 제때에 손쉽게 포착하고 종합할수 있으며 그 본질적요구를 옳바로 밝혀낼수 있다.

또한 근로인민대중은 선진사상과 리론, 사회발전법칙을 새롭게 인식하고 받아들일수록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실천활동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

Digitized by Google

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그 과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간다.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할수록 경제법칙의 요구를 더 정확히 인식할수 있으며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근로대중을 힘있게 발동시킬수록 그 요구를 더 잘 실현해나갈수 있다.

군중로선을 관철하지 못할 때에는 경제법칙을 정확히 타산리용할수 없으며 경제건설에 대중의 힘과 지혜를 옳바로 동원할수 없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에서 경제법칙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수많은 경제법칙들이 작용한다. 특히 사회주의사회에는 그에 고유한 경제법칙들과 함께 상품생산의 경제법칙들도 작용한다. 이러한 각이한 내용과 성격을 띤 경제법칙들을 옳게 타산리용하는것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경제법칙들을 옳게 타산리용하는것이다. 이러한 경제법칙들에는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 로동생산능률의 끊임없는 장성의 법칙,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 등이 속한다.

이러한 경제법칙들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근본방향을 밝혀주며 그 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을 인식리용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하며 심화시켜나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회주의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제현상과 과정들이 이 법칙들의 지배와 영향 밑에서 작용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획이 없이는 도대체 경제가 움직일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계획적으로만 발전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43페지)

경제법칙들을 의식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과 수행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모든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타산하면서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에 맞게 현행 또는 전망계획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수행방도를 제시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을 비롯한 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경제발전계획을 옳게 세우자면 계획의 세부화를 실현하여 당정책과 객관적현실에 맞게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할 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원료, 자재, 기계설비, 로력과 자금 같은 모든 요소들을 옳바로 타산하여야 인민경제 부문사이, 부문내부사이의 크고작은 모든 균형을 옳바로 보장할수 있으며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다. 또한 그래야 과학적인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할수 있으며 전국가적,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력량을 잘 편성하여 주도적부문에 힘을 넣음으로써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생산의 중요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것과 함께 작성된 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특히 현물지표별 계획을 정확히 실행할 때만이 계획의 유일성과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옳게 보장할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세워진 계획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과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경제법칙을 타산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를 옳게 타산리용하는것이다.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는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로동에 의한 분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없고 일하지 않고 분배받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오직 매개 근로자들이 사회와 자신을 위하여 하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또한 생산력발전수준이 수요에 따라 분배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로동의 본질적차이가 남아있으며 근로자들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완전히 없어지지 못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과도적 성격과 특성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분배를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여 생산력이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수 있도록 높은 수준에 이르고 모든 근로자들이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에서 벗어나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에는 로동에 의한 분배는 더는 의의를 가지지 않게 될것이다.

이러한 과도적성격을 띤 경제법칙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열의를 계속 높이고 그들을 생산과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을 최대한 잘 리용하여야 한다.

이 법칙을 리용하는데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는 한편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분배하면서 국가적인 공산주의적시책을 널리 실시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분배법칙이 대중을 위한 공산주의적시책과 결합되여야만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더 잘 키울수 있다.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는 오직 일한 사람에게만 생산물을 분배하며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주는 원칙에서 로동의 질과 량을 유일한 척도로 하여 분배를 진행하는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근로자들이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할수 있도록 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로동을 량적으로, 질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며 그에 따라 분배를 옳게 실현하여야 한다.

로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현할 대신에 평균주의적으로 분배를 한다든가 인위적으로 심한 차이를 두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의 본질적차이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보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고르롭게 높여야 할 사회주의사회발전의 본질적요구를 어기는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본주의사상을 아직 다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평균분배를 실시하면 거저 놀고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분배에서 심한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차례지는 몫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로동에 의한 분배를 옳게 실현하여야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계속 높일수 있다. 또한 그래야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된 정신적 및 육체적 힘을

Digitized by Google

충분히 보장받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으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상품생산의 경제법칙들을 옳게 타산리용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가치법칙을 비롯하여 상품생산과 관련된 경제법칙들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의연히 작용하고있으며 그것을 옳게 타산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잘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상품생산의 경제법칙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가치법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은 자본가가 없는 상품생산이며 따라서 가치법칙도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맹목적으로 작용하는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작용하며 국가가 경제관리를 잘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으로서 계획적으로 리용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08~309폐지)

가치법칙을 옳게 적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관리운영방법인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을 비롯하여 경제관리운영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상품생산이 엄연히 남아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범위가 제한되여있고 낡은 생산방식의 경제법칙이라 하여 가치법칙을 무시하게 되면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지 못하고 많은 생산수단과 로력의 랑비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반면에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의의를 지나치게 평가하면서 그 작용범위를 확대한다면 경제관리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자본주의적요소가 되살아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생산의 경제법칙과 경제범주들은 반드시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에 철저히 복종시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실현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가치법칙을 비롯한 상품생산의 경제법칙들과 범주들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이 법칙을 옳게 리용하면서 낡은 요소들은 극력 제한하여야 한다.

가치법칙을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제품의 가격을 바로 정하며 생산수단의 생산과 류통분야에서 가치형태와 상업적형태를 옳게 적용하는것이다. 가치법칙을 잘 적용함으로써 가격, 원가, 리윤, 감가상각금과 같은 경제적공간을 잘 리용하여 원료, 자재, 기계설비를 효과적으로 쓰며 설비리용률을 높이도록 옳게 자극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모든 경제법칙들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련관되여있으며 서로 보충하고 결합되여 작용한다. 그러므로 매개 경제법칙들은 다른 경제법칙들과의 련관속에서 고찰하고 타산리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을 옳게 인식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경제관리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공업경영학, 농업경영학을 비롯한 경제관리 지식과 기술을 깊이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 우리의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경제법칙을 과학적으로 타산리용하는데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경제법칙을 더 잘 타산리용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과업으로 하는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독립채산제와 기업관리의 합리화

한 종 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여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과업들을 앞당겨수행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독립채산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한 방도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기업관리를 더욱 합리화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이며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입니다.》(《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7페지)

독립채산제는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 국영기업소들을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이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생산력이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수 있을 정도로 높지 못하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도 다 국가재산을 자기의것처럼 애호관리하는 정도로는 높지 못하다. 또한 아직 로동의 본질적차이가 남아있고 로동이 생활상 제일차적인 요구로는 되지 못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과도적특성은 국영기업소들사이의 경제거래에서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용하고 로동의 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물질적관심성이 작용할수 있는 객관적기초로 된다.

사회주의국영기업소들에서의 생산물의 생산과 류통이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을 받고 근로자들이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하여 물질적관심성을 가지고있는것만큼 기업관리에서 그것을 리용하지 않을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과 물질적관심성을 리용하여 기업관리를 계획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이 바로 독립채산제이다. 그러므로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국영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 독립채산제는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적공간으로 된다. 독립채산제와 기업관리의 합리화는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다.

기업관리를 합리화한다는것은 중요하게 기업소경영활동에서 경제적효과성을 높인다는것을 의미한다.

기업소경영활동의 효과성은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경제적성과를 내는것으로 나타난다. 다시말하여 절약제도를 강화하면서 더 많은 생산성과를 거두는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사회적로동

Digitized by Google

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생산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할 때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독립채산제가 기업관리를 합리화하는 중요한 경제적공간의 하나로 되는것은 그것이 로력과 기계설비, 원료와 연료, 자재와 자금의 랑비를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도록 일군들과 생산자들을 자극하고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도로 되기때문이다. 이것은 독립채산제가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물질적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고있는 기업관리방법이라는것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가치법칙은 경제거래에서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의거하며 등가보상의 원칙을 지킬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리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필요로동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로동이 지출될 때 그것이 곧 기업소경영활동에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기업소경영활동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물질적관심성과 결부시키면 그들이 자재와 자금, 로력의 랑비를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된다.

독립채산제는 가치법칙의 요구를 근로자들의 물질적관심과 결부시킴으로써 일군들과 생산자들로 하여금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기업소수익성과 국가축적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한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면 원료와 자재의 공급에서 가격과 수송비를 따지며 생산과 건설에서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일군들과 생산자들을 자극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독립채산제가 절약제도를 강화하는 경제적공간으로, 기업관리를 합리화하는 보충적수단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또한 기업관리를 과학화하고 정규화함으로써 경영활동을 합리화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기업소의 모든 경영활동을 빈틈없이 맞물리고 규정과 규범의 요구대로 기업소를 관리운영할 때 사회적범위에서나 기업소적범위에서 온갖 로동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국영기업소들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련된 국영기업소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의 요구대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면 생산조직과 로력조직, 설비관리와 원료, 자재의 공급과 같은 경제조직사업을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기업관리를 더욱더 정규화할수 있다. 이것은 곧 기업관리를 합리화할수 있는 선결조건으로 된다.

이와 같이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가는 중요한 경제적공간으로 된다. 여기에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관리운영에서 독립채산제 실시가 가지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지고 부문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졌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는 그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졌으며 부문들사이,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도 더욱 밀접하고 복잡해졌다. 이미 수많은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창설되여 인민경제의 부문구조가 더욱 개선되고 그 생산능력도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기업관리를 합리화하는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제의 규모가 커진 조건에서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원가를 1%만 낮추어도 막대한 예비가 생기며 인민생활을 훨씬더 높일수 있다. 또한 인민경제부문구조가 복잡해지

Digitized by Google

고 생산적련계가 더 밀접해진 조건에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제관리를 합리화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기업소들사이의 협동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고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어느 한 부문, 어느 한 기업소라도 기업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국가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진다. 그러므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자금을 더욱 합리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절실한 요구로 된다.

현실발전의 이러한 요구는 국영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해나감으로써만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다.

독립채산제는 그자체가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진 조건에서도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여 생산을 더 빨리 장성시킬수 있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또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바로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519페지)

제2차7개년계획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며 있는 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하는 어려운 과업이다.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전례없는 방대한 규모의 건설을 예견하고있는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잘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면 우리는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하는것은 바로 새 전망계획의 요구에 맞게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우월성을 반영하고있는 경제법칙들과 함께 그 과도적성격을 반영하는 가치법칙의 요구를 옳게 타산하고 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물질적자극의 공간을 잘 리용하여야 대중의 창조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있는 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빨리 다그칠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요구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내세운다. 그것은 독립채산제가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열의를 높여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공간의 하나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데 대한 방침은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생산자대중을 추동하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자대중자신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의 창조적열의에 의거하여 경제가 움

Digitized by Google

직이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이며 대중을 발동하는 가장 위력한 방법은 정치사업이다. 자본주의경제는 돈과 가치법칙에 의하여 움직이지만 사회주의경제는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에 의하여 발전한다. 사회주의경제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사업만으로 경제관리에 대중을 동원하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면서 상품화폐공간을 리용한 물질적 자극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가치법칙을 리용하고 물질적자극을 하는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성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대중의 로력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된다.

물론 가치형태와 물질적자극공간을 리용하는것은 근로자들속에서 새로운 공산주의사상을 키우는 방도로는 될수 없다. 그것은 근로자들속에서 나타나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도록 통제하고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따라배우도록 고무해준다.

낡은 사회의 유물이 아직 남아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물질적자극공간을 옳게 리용하여야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열의를 더욱 높일수 있으며 그에 의거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해나갈수 있다. 이 문제는 가치법칙을 잘 리용하고 재정적통제를 강화하여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할 때 성과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기업관리를 더욱 합리화해나가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독립채산제의 본질과 의의, 그 관철을 위한 원칙들을 똑바로 인식하고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고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달려있다.

사회주의경제를 정확히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자신이 기업관리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 로력과 자재, 자금을 많이 들여도 생산만 늘이면 된다는 관점은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인연이 없다. 절약하면서 증산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요구이다. 그런것만큼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수입과 지출을 엄격히 따져가면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일본새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소의 자금과 리윤을 리용하고 처리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를 옳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은 기업소기금을 비롯하여 기업소에 있는 자금을 자체로 쓸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는 이 경우에도 자금을 국가에서 지정해준 항목에 따라서만 쓸것을 요구한다. 독립채산제라고 하여 기업소가 제마음대로 자재와 자금을 리용하고 기업소리윤을 기업소자체로 다 처리해서는 안된다. 독립채산제의 이러한 원칙적요구를 정확히 알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독립채산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들을

Digitized by Google

깊이 학습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 관한 과학적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기업관리를 더욱더 합리화해나가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경제적공간들을 정확히 리용하는데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무엇보다도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 계획을 똑바로 주고 계획실행에 대한 평가를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정량과 자재소비기준을 정확히 정하고 설비능력을 옳게 타산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기업소들에 현실성있는 계획을 주어야 합니다. 기업소들에 계획을 너무 많이 주면 그것을 실행할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수 없습니다.

계획실행에 대한 평가를 잘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97～398페지)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인 관리운영방법이며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의 모든 경영활동은 국가계획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된다. 그리고 일군들과 생산자들에 대한 물질적자극도 기업소의 계획수행정형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된다. 따라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기업소들에 계획을 바로 주고 그 실행정형을 옳게 평가하는것이 중요하다.

계획은 반드시 동원적이며 현실성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계획의 동원성을 보장하지 않고 기업소들에 계획을 적게 주면 일군들과 생산자들 속에서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으며 반대로 계획을 너무 많이 주면 기업소들이 그것을 수행할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느 경우에나 경제관리운영에서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게 된다.

국가계획기관일군들은 계획화에서 혁명적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관철하여 생산자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로동정량과 자재소비기준, 기계설비의 능력을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적극적이며 과학적인 계획을 기업소들에 내려보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서 국가계획을 현물지표별로 수행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계획수행정형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나라의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현물지표별로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기업소들이 금액상으로만 계획을 수행하고 지표별 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협동생산을 보장할수 없고 인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을 원만히 실현할수 없게 된다.

국가경제기관들에서는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의 계획실행평가를 현물지표에 의하여 진행하는 원칙을 계속 엄격히 지킴으로써 기업소일군들로 하여금 지표별 계획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하여야 하며 금액계획만 수행하면 되는것으로 보는 그릇된 경향을 철저히 극복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계획적관리원칙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여 제품의 가격을 정확히 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가치법칙을 옳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치법칙을 옳게 적용하여야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출수 있고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일수 있으며 제품

Digitized by Google

의 질도 높일수 있습니다.》(《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7~8페지)

독립채산제는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을 전제로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다. 따라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려면 가치법칙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

경제관리에서 가치법칙을 리용하는 기본형태는 가격공간이다.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공간을 옳게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정책적요구와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가격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가격을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정확히 의거하여 정하는것은 가격제정의 일반적원칙이다. 가격을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의거하여 정하여야 가격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여러가지 제품들사이의 가격균형도 정확히 유지할수 있다.

가격공간을 리용하여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기초하여 정하면서도 제품의 질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하여야 한다. 같은 제품이라도 질에 따라 가격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것은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도록 자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제품의 질에 따르는 가격제정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질적차이를 고려하여 제품의 등급을 바로 정해야 하며 등급에 따르는 가격차이를 옳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높은 질의 제품을 생산한 기업소들은 질을 높이는데 들인 추가적인 비용을 보상하고도 일정한 리익을 얻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기업소들이 생산계획수자만 채우려는 경향을 극복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엄격한 계산제도를 세우고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정은행부문에서 가치법칙의 요구에 맞게 재정적통제를 바로하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설비관리를 잘하고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도록 자극하게 되며 근로자들의 창발적열의도 더욱 높여주게 됩니다.》(우와 같은 문헌, 10~11페지)

독립채산제는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재정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엄격한 계산제도를 세우는것이다.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위한 지출과 그 결과를 정확히 계산하여야 기업소사업에 대한 옳은 평가를 할수 있고 그에 맞게 재정적통제도 바로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기관, 기업소들은 제정된 방법론적원칙에 따라 정확한 원가계산체계를 세우고 생산계획과 함께 리윤계획의 수행정형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경영계산을 철저히 하는 기초우에서 기업소경영활동과정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재정적통제, 원에 의한 통제는 기업소들로 하여금 로력과 기계설비, 자재와 자금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도이다.

재정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류동자금공간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 기업소들에 류동자금을 필요한 량만큼 준 다음 계획수행정형과 제품의 질제고정형을 따지가면서 류동자금공급을 조절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원료, 자재를 사장시키거나 랑비하는 현상을 막을수 있으며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추동할수 있다.

이와 함께 원료, 자재의 합리적리용정형과 제품의 질제고정형을 생활비지불과 련결시켜 재정적통제를 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경제적공간을 리

Digitized by Google

용하여 재정적통제를 더욱 강화할 때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훨씬 높일수 있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계획화와 생산지도, 설비관리와 자재공급, 로동행정과 재정관리 등 모든 경영활동을 고도로 조직화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국가경제기관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기업관리의 정규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부문별로 되는 표준공장, 본보기공장들을 더 잘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표준공장의 경험을 받아들여 여러가지 기술경제적기준들과 동작규범들을 완성하고 그에 따라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로동행정사업을 짜고들어 로동정량을 바로 정해주고 작업실적에 대한 평가사업을 정상적으로 정확히 진행하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업관리를 철저히 정규화함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고 사회주의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독립채산제기업소의 대렬을 계속 늘여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독립채산제기업소의 대렬을 늘여야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합리화하는 사업을 다그칠수 있으며 국가축적을 늘여 생산과 건설을 더욱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독립채산제기업소의 대렬을 늘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아직 예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과 규범, 세칙들을 만드는 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그것을 옳게 구현해나가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국토관리부문, 도시경영부문, 수매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더 많은 기관, 기업소들을 독립채산제로 넘겨 기업관리를 합리화해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관철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고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함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과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과업들을 앞당겨 수행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생산지휘는 경제일군들의 중요한 임무

리 동 춘

생산지휘는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맞물리고 생산과정에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다.

생산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은 로력과 설비, 원료와 자재를 비롯한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정확히 타산하고 그것을 충분히 마련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생산조건을 마련하는것만으로는 생산이 저절로 진행되지 않는다. 생산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맞물리며 생산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사업이 바로 생산에 대한 지휘이다.

생산지휘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 내용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을 관리운영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을 지휘하여 그 기업소에 맡겨진 전투임무를 집행한다는것을 말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85페지)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와 발전된 기술에 기초하고있는 현대적인 대규모경제이며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경제는 돈과 가치법칙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움직이지만 사회주의경제는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주의적생산과정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생산 조직과 지휘를 잘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한다는 말자체가 생산을 지휘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생산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다른 부문, 다른 단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부문들과 단위들이 있게 되며 따라서 원료와 자재를 비롯한 생산수단과 로력을 추가적으로 더 보장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생산과정에 제기되는 이러한 정황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일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다같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이것은 생산지휘를 잘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이며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는것을 말해준다.

생산지휘를 잘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면 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인민경제 부문들사이, 부문내부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며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생산을 계속 높일수 있는 예비도 많아진다. 그러므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전투조직을 짜고들고 지휘를 잘하여야만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인민경제 부문들과 부문내부사이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경제관리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가장 훌륭한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

Digitized by Google

의적생산의 요구에 맞게 생산지휘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제기된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정치사업의 방법,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풀어나간다. 또한 생산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생산과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계획, 생산, 기술을 다같이 틀어쥐고 기동적으로 조직지휘한다.

그러므로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하며 생산과정에 나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 경제발전의 속도를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생산지휘를 잘하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맡은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은 경제지도일군들에 의하여 집행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지도도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진행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는것은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이다. 당은 경제지도일군들을 믿고 그들에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초소를 맡기였으며 생산을 지도하고 경제를 관리할데 대한 영예로운 임무를 주었다. 생산을 잘 지휘하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의 혁명적본분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바로 생산지휘성원들이며 생산을 책임진 사람들이다. 생산에 대한 조직과 지휘를 떠나서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과 임무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성과는 조직사업을 잘하여 맡겨진 경제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데서 나타난다. 생산을 능숙하게 조직하고 지휘해나가는 일군이 바로 당과 혁명, 인민에게 충직한 경제지도일군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지휘를 잘하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고있는 절실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바로 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519폐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수행하고있는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다. 새 전망계획기간에 우리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두배이상 높이며 해마다 공업생산을 12.1%씩 장성시켜야 한다.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생산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며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생산지휘를 잘하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 원료와 연료, 자재를 충분히 대주고 설비를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생산과정전반을 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방대한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는 현실은

Digitized by Google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지휘를 더 잘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계획과 새 전망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하여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해나가고 있다. 이리하여 채취공업과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더욱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높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는 현실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어야 한다. 이 사업을 잘하기만 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우리앞에 나서는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문제는 경제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어떻게 짜고들고 생산과 건설을 어떻게 지휘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잘해나갈 때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이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생산지휘를 옳게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생산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으며 월별, 분기별 계획이 넘쳐수행되고있다. 그리하여 올해 상반년에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실적에 비하여 공업총생산액이 116%로 높아지고 여러가지 공업제품의 생산량과 화물수송량이 훨씬 늘어났으며 중요대상 건설 및 확장 공사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모든 일군들은 발전하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맞게 전투조직과 생산지휘를 더 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지휘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자기가 맡은 사업은 자기자신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립장과 관점을 똑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이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올해의 전투를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9년 1월 1일)

생산지휘를 잘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를 어떠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하여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 때에는 그것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일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아무런 창발성도 내지 못하며 부닥치는 난관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가지 못하게 된다.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려는 굳은 결심이 없이 우에만 의존하거나 책임을 아래에 밀고 우에 밀고 하면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지 못하면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으며 그 어떤 과업도 제대로 수행해나갈수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자기앞에 나서는 혁명과업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것이라 하더라도 중심고리를 옳게 틀어잡고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조직집행해나가는 혁명적전개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자기 맡은 사업은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해나가는 기풍을 가지는것은 책임일군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Digitized by Google

책임일군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인민경제의 한 부문, 한 단위의 사업전반을 맡고있다. 책임적위치에서 일하고있는 경제지도일군들이 맡은바 혁명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은 앞장에 서서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아래일군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고 그들의 사업의욕을 높여줄수 있으며 제기된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

책임일군들은 전투정황을 신속히 분석판단하고 왕성한 사업의욕과 강의한 혁명적기백으로 생산을 세밀하게 조직하고 능숙하게 지휘하여야 한다.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집행해나가는것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의 발현이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는 더 많은 원료와 자재를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군들이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생산공정들이 치차와 같이 맞물려돌아가게 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일군들은 큰 수자나 맞물려주고 아래에 지시나 하는 식으로 일을 쉽게 하려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짜고들어 조직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원료와 자재를 규격별, 재질별로 철저히 보장해주어야 하며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지휘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배인이 생산을 옳게 지도하려면 공장의 모든 사업을 틀어쥐고 지휘하면서 자주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도 들어보고 설비상태와 자재공급정형 같은것도 알아보며 걸린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풀어주어야 할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96페지)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요구이며 과학적이며 기동적인 생산지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오늘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인민경제부문사이, 기업소와 기업소사이의 생산적련계가 매우 긴밀하여진 조건에서 생산과정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고있다. 따라서 아래의 실태를 깊이 료해장악하지 않고서는 생산을 제대로 지휘할수 없으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수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일반적인 보고나 받고 아래에 지시나 하는 낡은 재래식 사업방법의 사소한 표현도 철저히 극복하고 늘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과 생산자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며 그들의 사상의식상태와 기술기능수준으로부터 기계설비의 기술상태와 원료, 자재의 보장정형, 소공구의 준비정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언제나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을 손금보듯이 환히 꿰들수 있으며 전투 조직과 지휘를 실정에 맞게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다.

아래의 실태를 장악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걸린 문제를 찾아내고 풀어나가자는데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약한 고리들을 빨리 보강하고 걸린 고리들을 풀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군들이 똑똑한 결심을 가지고 용단을 내리는것이다.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지휘하는 일군들이 달라지는 정황을 제때에 처리하기 위한 용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기동적인 집행대책을 세울수 없으며 생산과 건설에 지장을 줄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생산지휘를 책임진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자로 하여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하며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들은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능숙한 조직적수완으로 모든 생산단위들과 생산자들에게 전투과제를 똑똑히 주고 생산과정에 새로 조성될수 있는 정황들을 옳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들을 예견성있게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기계설비마다에 만부하를 걸고 모든 생산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여 긴장하게 일하도록 할수 있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맡겨진 과제를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생산지휘를 바로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경제리론과 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4페지)

경제지도일군들이 높은 지도수준과 지휘능력을 소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초소를 책임진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지도일군들이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정치사업도 바로 할수 없고 생산에 대한 장악과 지휘도 제대로 할수 없다. 지도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야 모든 생산공정이 기술공정으로 되여있고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아무리 사업이 바쁘고 일이 긴장하여도 시간을 짜내고 조건을 마련하여 자신의 실무수준과 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학습하면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정확한 방도를 찾을수 있다.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 우리 당 정책을 폭넓게,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깊이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 대한 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경제관리운영지식과 현대과학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할 때 경험주의적사업방법을 없앨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법칙과 현대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옳게 지휘할수 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관리리론과 경영방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서적과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연구하고 과학강연회에도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정황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옳은 처방을 내리며 자기앞에 맡겨진 과업을 능숙하게 수행해나가는 실력있는 일군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앙양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생산지휘를 맡고있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은 참으로 무거우며 그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생산지휘를 잘해나감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미제침략군의 철거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김 형 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대하며 전조선에 대한 새로운 침략을 감행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범죄적책동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최근 카터를 두목으로 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제놈들의 침략군대를 끌어가지 않겠다는것을 로골적으로 선포하고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을 더욱 강화하는데, 미쳐날뛰고있으며 교활한 량면전술에 의거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모략책동을 보다 악랄하게 감행해나서고있다.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을 거역하고 현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도전행위이며 조선에 대한 미제의 변함없는 침략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은 파렴치한 책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민족적위업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내정문제에 간섭하는 조건에서는 조선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것은 우리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는것은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07페지)

우리 인민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30여년이 지나도록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민족분렬의 쓰라린 고통을 겪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분렬이 지속되고 온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집요하게 막아나서고있기때문이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의 평화와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물이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말살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힘으로 뒤받침하고있는 침략의 도구이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인민들에 대한 군사파쑈적폭압을 일삼고있다.

해방후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제놈들의 침략군대를 발동하여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 인민들을 마구 탄압학살하고 모든것은 제놈들의 손아귀에 틀어쥐였으며 미제침략군과 남조선반동들로써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꾸려 인민들에게 류례없는 군사파쑈통치를 강요하였다.

특히 미제는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침략무력에 의거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남조선의 군사파쑈통치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정책의 부속물이다. 남조선의 《정권》이라는것은 바로 미제의 군사력에 의하여 지탱되고있으며 놈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철저한 괴뢰정권이다.

미제는 저들의 침략무력에 의거하여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락시켰으며 남조선전역을 테로와 폭압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었다.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그를 통한 파쑈폭압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이 민족적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없는것은 물론 평화통일에 대한 말만 하여도 온갖 죄명을 들씌워 마구 처형하고있다. 실로 남조선에서와 같이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인권이 혹독하게 유린말살되고있는곳은 세계의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조국통일의 당사자인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기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자결권에 속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정치적자결을 떠난 민족문제의 공정한 해결이란 있어본적이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의 평화를 위협하고 조선에서 새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항시적근원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침략군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인 목적은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철저히 틀어쥐는 동시에 이곳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자는데 있다.

이 강도적인 군사전략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강화하고있으며 남조선의 군사적잠재력을 저들의 전쟁정책수행에 적극 동원리용하고있다.

미제는 이미 우리 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반대하고 전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에서 야만적인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미제가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는것은 그들이 조선전쟁의 패배에서 응당 찾아야할 교훈이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력사적인 참패를 당한후에도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남조선을 계속 가로타고앉아 침략과 전쟁 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끊임없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들로 뒤덮이고 수많은 핵무기와 대량살륙무기들이 반입되여 남조선도처에 전개되여있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거머쥐고있으며 남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저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수행에 깡그리 동원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날카로운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으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이 의연히 사라지지 않고있다.

이러한 정세는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더욱더 큰 난관을 조성하고있으며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은 또한 남조선에서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무력으로 안받침하고있다.

미제는 전조선을 침략하려던 저들의 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만이라도 저들의 철저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상품판매시장으로 계속 틀어쥐고있으려는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제는 한편으로는 조선의 분렬을 어떻게 하나 국제적으로 《합법화》된 기정사실로 만들어보려고 책동하고있으며

Digitized by Google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괴뢰도당을 무력으로 안받침하기에 미쳐날뛰고있다.

미제는 조선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이요 뭐요 하면서 남조선괴뢰들을 군사력으로 직접 뒤받침하여주면서 그들을 범죄적인 영구분렬책동에로 내몰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이 《평화》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나라의 영구분렬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침략과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나라안에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인민이 결코 분렬과 전쟁의 비극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의 확립에 대해서도,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지체없이 끝장내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물러가고 그 식민지정책을 끝장내는것은 우리 인민의 완전한 민족적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한 기본과업이다. 이 과업을 철저히 해결하는것은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근본조건을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모든 방침들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으며 그들속에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련대성운동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세계 인민들은 미제는 조선문제에서 손을 떼야 하며 조선의 통일은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고 일치하게 주장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이미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회의들과 국제기구들에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준렬히 단죄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끌어낼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들과 선언들이 련이어 발표되였다.

세계 5대륙의 모든 지역에서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직들이 결성되여 활발하게 움직이고있다. 빠리와 오슬로, 헬싱키, 디마스크, 도꾜 등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큰 규모의 국제회의들이 진행된 사실,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미제를 반대하고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을 지지하여 여러가지 련대성행사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 사실들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날이 갈수록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물러갈것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은 확대강화되고있으며 그것은 더욱 조직화되고 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맡기는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력사와 대세의 흐름을 거역해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군대를 끌어내가려 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더욱 강화하며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달려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일층 강화하는 길

Digitized by Google

로 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정부의 적대적이며 침략적인 정책에는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80페지)

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종전의 방법으로는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이룩할수 없게 된 미제는 보다 음흉한 사기와 협잡, 모략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흑백을 전도하고 허위날조를 일삼는데 이골이 난 미제국주의자들은 어울리지도 않는 《평화》의 가면을 쓰고 세계의 여론을 기만하면서 그 막뒤에서 조선에 대한 저들의 흉악한 침략야망을 기어코 이루어보려고 온갖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것은 미제의 우두머리 카터가 집권한 이래 조선에 대한 극히 교활하고 파렴치한 침략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원래 카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남조선에서 미군을 《즉시 완전히 철수》하며 핵무기도 《즉각적으로 철수》하겠다는것을 미국인민들앞에서 《공약》하고 대통령의 감투를 뒤집어썼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진심이 아니라 협잡이였으며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보다 교활하게 감행하기 위한 하나의 연막이였다.

카터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가 바쁘게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기의 《공약》으로부터 뒤걸음질치기 시작하였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즉시 완전히 철수》하겠다던 카터의 《공약》은 《지상군에만 한한》것으로 바꾸어졌으며 그것도 해공군무력을 증강하는 조건에서 정세를 보아가며 《대단히 서서히》 추진시킨다고 요리조리 롱간을 부리면서 《공약》의 리행을 회피하여왔다.

더우기 카터는 《철군》의 간판을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무력을 더욱 증강하고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방패로 리용하였다.

최근년간 미제국주의자들이 《철군》을 구실로 그 무슨 《보완조치》요, 《힘의 균형》이요 뭐요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과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쳐온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철군》에 대비하여 공군무력을 늘여야 한다고 하면서 《에프—15》이글기, 《에프—4이》팬톰기, 《아르에프—4씨》정찰기, 《에프—105》와일드 위즐기 등 수백대의 항공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새로 배치하고있다. 또한 수많은 현대적인 살륙무기들을 남조선괴뢰들에게 넘겨주고 남조선의 전쟁잠재력을 백방으로 증강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괴뢰들에게 각종 미싸일과 전투기, 함선들을 비롯한 수많은 군사장비들을 넘겨주어 괴뢰군무력을 증강한 사실들은 그 뚜렷한 증거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남조선괴뢰들에게 살인무기들을 넘겨주고 거액의 군사원조를 주겠다는것을 꺼리낌없이 떠벌이고있다.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한미련합군사령부》, 《기동타격부대》와 같은 새로운 작전기구와 무력조직들을 내오고 그를 강화하고있으며 《팀 스피리트작전》과 같은 전례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군사연습을 벌리는 등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던 《철군》이란 결국 남조선에 있는 미군무력의 배비변경과 그 증강책동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였다.

모든 사실은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인류공동의 원쑤인 미제의 추악한 본성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지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특히 미제의 우두머리 카터놈이 최근에 와서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군《공약》을 《철군동결》로 뒤집어엎은것은 놈들의 침략적야망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기만적인 《철군공약》의 간판을 들고 남조선에서 무력증강과 전쟁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고도 이제 와서는 뻔뻔스럽게 있지도 않는 우리의 무력증강을 떠들면서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끌어가지 않겠다고 생억지를 쓰는것이야말로 침략에 이골이 난 미제의 강도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낸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대세의 흐름과 사회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철군》문제를 들고나왔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제놈들의 침략목적을 음폐하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였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 저들의 침략군대를 남조선에 영구히 눌러두고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 하고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계속하며 전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기어코 이루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정책에 매여달릴뿐아니라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두개 조선〉 정책을 현시기 대조선전략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갖은 음모와 술책을 다 꾸미고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1페지)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남조선을 계속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려는것은 현시기 미제의 대조선전략에서 기본으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정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한고리로서 《남북조선유엔동시가입》이요, 《교차승인》이요 하면서 교활하게 책동하여왔다. 그러나 미제가 《고안》해낸 이른바 《두개 조선》을 위한 《방안》들이 모두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로부터 강력한 비난과 배격을 받고 유명무실하게 되자 이제 와서는 더욱 교활한 방법에 매여달리고있다.

얼마전에 카터놈이 내놓은 이른바 《3당국회의》에 대한 《제의》가 바로 그러한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들고나온 《3당국회의》는 조선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할수 없게 하는 비현실적이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선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와 남조선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고 우리와 미국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것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북과 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문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신이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다.

한편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것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미국이 끼여들수 없으며 우리와 미국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에 또한 남조선괴뢰들이 끼여들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비추어볼 때 놈들이 《3당국회의》를 《제의》한것은 진실로 조선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에서 나온것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제의에는 응해나서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3당국회의》를 들고나온것은 조선문제를 옳게 해결해나가기 위한것이 아니라 저들의 분렬과 전쟁 책동의 본질을 가리우고 세계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외교적술책에 불과한것이다.

날로 강화되고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놈들이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야욕을 이루어보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나오고있다는것을 잘 말해

Digitized by Google

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제아무리 악랄하게 감행하여나서도 저들의 더러운 침략야망을 이룩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미제는 시대의 요구와 대세의 흐름을 똑똑히 보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조선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조선의 분렬은 더는 지속되여서는 안되며 우리 민족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여야 한다.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제가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우리 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민족내부문제를 능히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물러가면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 우리 민족내부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제국주의자들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

오늘에 와서 미제침략자들이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교활하게 책동하여도 남조선에 남아있을 그 어떤 리유와 구실도 있을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는 더러운 침략적야망을 버려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조선과 아세아에서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며 미국이 체면을 손상함이 없이 조선에서 손을 뗄수 있는 길이 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대한 강점을 영구화하려 한다면 보다 큰 패배를 면치 못할것이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자주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

김 정 호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자주세력과 지배주의세력,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이 투쟁에서 자주세력과 혁명력량의 확고한 승리를 보장하고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힘차게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현시대의 기본추세를 반영하고있는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89페지)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반제혁명투쟁의 시대이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견결히 요구하고있으며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반제혁명투쟁의 길로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으며 자기의 자주성과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고있다.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것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이며 그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추세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현시대발전의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력사무대에 출현하였으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고있는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의 근본 리익과 지향, 현시대발전의 요구를 가장 폭넓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을 굳게 단합시키고있으며 전반적국제정세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근 20년전에 25개의 새로 독립한 나라들로 첫 력사적진군을 개시하였던 쁠럭불가담운동이 오늘에 와서는 자기의 대오에 지구상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88개의 신흥세력나라들을 망라한 위력한 국제정치세력으로 강화발전하였으며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기본내용을 이루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시종일관 세계를 렬강들의 쁠럭과 세력권으로 분할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물리치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으며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옹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촉진시키고 국제관계에서 강대국들의 전횡을 막으며 국제문제들을 세계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왔다.

현실은 쁠럭불가담운동이 인류에게 그처럼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멸망과정을 촉진시키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 사회적진보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이 운동을 제쳐놓고서는 그 어떤 중요한 국제문제도 옳게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세계의 정세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키고있는 쁠럭불가담운동의 영향력이 급속히 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이 운동을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을 와해시키려는 목적밑에 이 운동성원국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불화를 조성하며 분렬과 충돌을 야기시킴으로써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지원》과 《보호》를 구실로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분쟁에 경쟁적으로 뛰여들어 로골적으로 간섭하고 제가끔 이 나라들을 자기의 통제밑에 넣으려고 각축전을 벌리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사이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고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무장충돌에로까지 번져가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지금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다. 물론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쁠럭불가담운동의 력사적위업이 헐하게 수행될수 없으며 이 운동이 아무런 장애도 받음이 없이 순탄한 대로를 따라 나갈수는 없는것이다. 혁명의 길에는 일련의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것이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안에는 이 운동안에 조성된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분렬과괴책동으로부터 쁠럭불가담운동을 보위하며 이 운동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절박한 요구가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매개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쁠럭불가담운동의 고유한 전통과 특성을 확고히 수호하면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호상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에서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며 온갖 외래지배세력의 분렬, 와해, 쟁탈책동을 물리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게 풀고 이 운동을 힘있게 전진시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매개 성원국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자주성은 매개 민족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매개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고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자주성의 원칙에 튼튼히 의거하고 서로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주성에 기초하여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여야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평등한 기초우에서 발전시킬수 있으며 진실로 동지적이고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번영의 불가결의 조건이며 나라들사이의 건전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본담보로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원래 자주성을 위한 투쟁속에서 나왔으며 이 운동의 전로정은 바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는 나라가 참다운 쁠럭불가담나라이다. 만일 자주성을 잃고 어느 한 쁠럭에 따라가거나 그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나라는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존엄은 빛내일수 없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나라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할수 없으며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온갖 형태의 간섭과 쟁탈 책동을 감수할수 없는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한다면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들이 쁠럭불가담운동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것이며 그 어떤 나라의 지휘봉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감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안에 조성된 복잡한 사태를 수습하고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단합된 력량으로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될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는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특성은 이 운동이 쁠럭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이라는데 있다. 만일 이 운동이 이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쁠럭불가담운동자체의 면모를 상실하게 될것이며 따라서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이 운동안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려는 행동을 허용할수 없으며 이 운동을 어느 한 쁠럭에로 이끌어가려는 조그마한 시도도 묵과할수 없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성원국들은 언제나 진정한 쁠럭불가담나라로 있어야 하며 이 운동의 성원국들을 진보적이니 비진보적이니 하면서 이편저편으로 갈라놓음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에로 이끌어가려는 행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쁠럭불가담운동이 자주성에 기초하고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자기의 특성을 고수할수 있으며 그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그들의 분렬, 리간, 와해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대처하는것이다.

단결은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단결하여 통일전선을 이룩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온갖 분렬과피책동을 짓부셔버리는 바로 여기에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다그치는 튼튼한 담보가 있다.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이 운동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단결해야 승리할수 있고 분렬되면 각개격파당할수 있다. 이것은 실천에 의하여 검증된 진리이다.

지난 20여년동안 쁠럭불가담운동이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처럼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강화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줄수 있은것도 이 운동이 자기의 숭고한 리념밑에 통일과 단결을 이룩해온데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수 있는 실제적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다같이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온갖 예속과 불평등이 없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세우려는 공통된 념원을 가지고 투쟁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공동의 목적과 지향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여기에 그들이 통일단결할수 있는 기초가 있다.

물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사회제도, 신앙과 신념에서 차이가 있고 정치적견해도 다르며 그의 발전정도도 같지 않은 조건에서 그들사이에 의견상이들이 있을수 있으며 분쟁문제들이 생길수 있다.

그러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형제들사이의 내부문제이며 결코 무력을 행사하거나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해결할 그러한 성격의 문제가 아닌것이다. 개별적성원국들사이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당사자들이 민족적리익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반적리익에 맞게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다.

따라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호상관계에서 독립, 자주권, 령토완정을 존중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지 말며 자기 운명과 자기의 사회정치제도를 자신이 결정하도록 매개 인민, 매개 나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성원국들사이의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당사자들의 민족적리익과 쁠럭불가담운동

Digitized by Google

의 전반적리익에 맞게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만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고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일치한 행동으로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분렬, 와해 책동을 짓부셔버릴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 특권행세를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보장하는것은 자주성과 이 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요구의 하나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중에는 크고작은 나라가 있고 이 운동의 성원이 된지 오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있지만 모두다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있다. 만일 이 운동안에서 특권행세가 허용된다면 매개 나라의 자주성이 무시되고 통일단결이 파괴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 운동을 어떤 특정한 성원국의 통락물로 되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은 이 운동안에서 그 누구의 특권행세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현시기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모든 성원국들이 완전한 경제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려면 반드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91페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완전한 경제적해방을 이룩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제국주의, 신식민주의자들의 예속과 통제,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고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완전한 경제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 문제이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에서 벗어날수 없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없다.

현실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에게만 리득을 가져다주는 불합리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없애버리고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리익에 맞는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철저히 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굳게 단합하여 투쟁함으로써 불공평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타파하고 자주성과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할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경제교류와 기술협조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광활한 령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서로 도와주고 배워주며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강화한다면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고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통일단결을 강화해나갈 때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세력의 간섭과 압력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과 리념을 고수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세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쁠럭불가담운동의 존엄있는 성원국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이 운동의 강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경제적자립과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적발전

김 웅 렬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으로 력사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세력나라들은 민족해방위업수행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반제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신흥세력나라들에서는 특히 제국주의식민지시대의 유산인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경제적자립을 위한 신흥세력나라들의 투쟁은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제국주의자들이 발붙일수 있는 지반을 없애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함으로써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자주성의 시대의 근본요구와 추세를 반영하고있는 경제적자립을 위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이 나라들에서 민족해방혁명위업의 완성을 힘있게 다그치고 전반적인 세계혁명위업을 촉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신흥세력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것은 반제민족해방위업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 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존할 때에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을수 없으며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17페지)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신흥세력나라들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새 사회, 새생활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민족해방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경제적자립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 튼튼한 물질적기초로 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영예와 행복이 있고 나라의 존엄을 지켜나갈수 있다. 만일 민족이 자주성을 잃는다면 남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지난 수세기동안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혀온 신흥세력나라들의 재난의 력사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런데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은 일반적인 강조나 《선언》으로써 담보되는것이 아니다. 정치적자주성은 반드시 물질적으로 안받침되여야 한다.

정치는 경제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정치의 공고성은 경제력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매여있는 민족은 그 나라에 대한 정치적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으며 경제적 의존과 예속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의존을 가져오게 된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비록 정치적독립은 이룩하였다 하더라도 나라의 자주권을 떳떳이 행사할수 없으며 하고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하고싶은 일도 하지 못하

Digitized by Google

게 된다. 경제적자립이 없는 정치적독립이란 형식에 불과한것이다.

매개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은 오직 자립적경제력에 의해서만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튼튼한 자립적경제력이 있으면 남을 쳐다보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으며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물리치고 자기의 신념과 주견을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신흥세력나라들이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에서 쟁취한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적기초로 되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것은 또한 현시기 신흥세력나라들앞에 조성된 경제적난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생독립국가들이 오늘의 경제적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식민주의의 후과를 철저히 청산하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과 략탈을 견결히 반대하여야 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05페지)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로 말미암아 모진 불행과 고통을 겪었으며 락후와 빈궁을 물려받았다.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이상이 살고있으며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침략과 략탈의 마수를 뻗쳐왔으며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내고 그 부원을 긁어내면서 살쪄왔다.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은 이 지역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다음에도 극히 교활한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1976년 한해동안에 제국주의자들이 쓴 원유, 아연, 알루미니움, 주석, 코발트, 마그네시움, 크롬의 70~100%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 나라들에서 가져간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1960년에 뜨락또르 1대를 고무 4톤의 값을 받고 팔았다면 지금은 그 5배에 달하는 막대한 값을 받고 발전도상나라들에 팔아먹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에 의한 착취와 략탈로 말미암아 발전도상나라들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경제생활에서 애로와 난관을 겪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이러한 처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공업, 농업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부문들을 창설하여 경제의 다면성을 보장하며 락후한 기술을 현대적기술로 끊임없이 개조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자체의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튼튼한 원료기지를 꾸리며 기술자들을 비롯한 민족간부를 많이 양성하여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해나가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확고히 이룩하여야 오랜 기간에 걸치는 악독한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인 경제의 락후성과 기형성을 청산해버리고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륭성번영의 길로 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면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온갖 부당한 경제적 간섭과 압력, 부등가교환에 의한 가혹한 략탈을 단호히 물리칠수 있으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방자본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해나갈 때 이 지역에서

Digitized by Google

제국주의, 신식민주의자들이 발붙이고 간섭과 략탈을 감행할수 있는 구실과 기반을 완전히 제거할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위협하며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근본장애물을 없애버리는것으로 된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또한 신흥세력나라들에서 당면한 경제적 난관을 성과적으로 타개해나갈수 있게 하며 새 사회, 새생활 건설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촉진시킨다.

그것은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고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고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만일 신흥세력나라들이 새 사회 건설과정에서 일정한 난관과 시련이 있다고 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지 않고 부대조건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의거한다면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청산할수 없을뿐아니라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히우고 식민지노예의 쓰라린 과거사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제국주의는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으로 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결코 도와줄수 없다.

력사적경험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의존할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나갈 때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난관을 능히 극복할수 있으며 나라의 부강발전을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것은 또한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모든 국가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오래동안 강요되여온 민족적 불평등과 차별의 실제적기초는 경제적락후성에 있다. 그러므로 민족적불평등은 정치적독립을 이룩하였다고 하여 저절로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민족들의 통합에 의하여 극복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 실제적근원으로 되고있는 나라의 경제적락후성을 극복해야만 없어질수 있다.

경제적자립은 나라의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고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자주성과 평등의 기초우에서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여준다.

매개 신흥세력나라들이 믿음직한 자립경제를 건설하면 이 나라들이 국제관계에서와 세계혁명발전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은 이 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확고히 담보할뿐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물질적토대로 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튼튼한 자립경제에 의거하여 호상협조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교류를 널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100여개에 달하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무진장한 자연부원과 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에 토대하여 협조와 교류를 광범히 발전시켜나간다면 이 나라들의 경제는 더욱 빨리 발전될것이며 전반적인 신흥세력나라들의 혁명력량은 비상히 강화될것이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불평등한 국제관계를 없애고 공정한 국제관계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고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 진출하면 제국주의자들에게 일방적리익만을 가져다주던 불평등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사버리고 새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하게 벌려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리익을 더욱 철저히 옹호할수 있게 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참으로 신흥세력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것은 날로 로물화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정책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륭성번영을 이룩하며 민족해방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　　　*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예속되기 마련이며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겹쌓인 난관을 뚫고 경제적자립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으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에서는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반동세력들이 틀어쥐고있던 경제의 중요부문을 국유화하여 낡은 식민지경제체계를 마스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마련해나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저들의 원료공급기지로 전변시키고 이 나라들의 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해갔을뿐아니라 오늘도 《후진국공동개발》이니, 《원조》니 하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이 나라들의 주요경제명맥을 틀어쥐려고 꾀하고있으며 여러가지 형태의 교활한 방법으로 원료자원을 헐값으로 빼앗아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이 외래독점체들의 회사들과 그 리권을 국유화하는것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에 대한 제국주의의 략탈을 끝장내고 민족적재부를 지키며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한고리로 된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석유독점체들을 국유화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신흥세력나라들에서 제국주의독점체들의 회사를 폐쇄하거나 그 시설과 리권을 빼앗아 나라의 수중에 장악하는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뿌리박은 주요경제부문들인 채취공업부문, 가공공업부문, 금융재정부문 등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국유화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제국주의회사들에 대한 국유화조치에 의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의 사회경제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경제의 식민지적 예속성과 락후성이 점차 가셔지고 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여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지반이 밑뿌리채 허물어지고 국영부문이 사회경제생활에서 더욱더 큰 역할을 놀게 되였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국유화조치를 취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하나하나 허물어버리는 한편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에 의거하는 자체의 민족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경제건설에 필요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리용하여 자체의 민족공업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많은 신흥세력나라들에서 인민들의 창조적로력투쟁에 의하여 자기 나라의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는 공업기지들이 꾸려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신흥세력나라들에서는 민족경제건설에 큰 힘을 넣어 석유공업과 화학공업, 야금공업, 전력공업, 기계공업 등 기간적인 공업들을 창설하여 중공업의 토대를 닦아나가고있으며 중공업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있다.

한편 신흥세력나라들에서는 자기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에 의거하는 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고있다.

최근년간 일련의 신흥세력나라들에서는 공업부문대상건설을 많이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지난날 규모가 작은 약간의 채취공업밖에 없었던 이 나라들에 오늘은 자체의 원료를 쓰는 여러 부

Digitized by Google

문의 가공공업기업소들이 일떠서 민족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고있다.

많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체의 민족공업을 창설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사회경제생활에서 일어난 커다란 전변이며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민족적번영을 빨리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민족공업의 창설과 함께 농촌경리문제의 해결을 자립경제건설을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넣고있다.

많은 신흥세력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가지고있던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소유로 만들거나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을 벌리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또한 농촌경리의 집단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들과 국영농목장들을 조직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에서 농업협동조합들을 조직하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대부금을 주고 종자, 화학비료, 농기구 등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있으며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관개시설들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농업생산에서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단작경리를 다각경리로 전변시키며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식량을 자급자족할 목표를 내걸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 한편 좋은 종자를 보장하고 새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등 자립적인 농업을 건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이 힘있게 추진되고 농업을 추켜세우는데 커다란 힘을 넣은 결과 농업생산이 급속히 늘어나고 농촌의 면모는 날로 전변되여가고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이 나라들에서 식량문제를 자체로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고있으며 식량을 무기로 삼아 경제적 침투와 예속을 꾀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안겨주고 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경제적자립을 위한 투쟁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은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도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지난날 같은 처지에 있었고 오늘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협조하여나가는것은 경제건설을 촉진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그러기에 신흥세력나라들은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경제기술적협조를 통하여 풀어나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는 최근년간 쌍무적, 다무적 형태로 그리고 지역적 및 대륙적 범위로 확대되여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는 경제, 과학, 기술 등 각 분야에 걸쳐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이 맺어졌으며 여러 지역의 신흥세력나라들이 민족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통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또한 지역별, 대륙별 경제협조기구들에 적극 참가하여 원료자원을 략탈해가고있는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고있으며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참가국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해나감으로써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실로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꾸준한 투쟁을 통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지고있으며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이 나라 인민들앞에는 새생활창조의 넓은 길이 열려지고 있다.

모든 사실은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Digitized by Google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이 남겨놓은 경제적락후성을 빨리 가시고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힘있게 건설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에게는 경제적자립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에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무진장한 생산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이 나라 인민들사이에는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며 진심으로 도와주는 평등과 호혜, 협조관계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다.

물론 신흥세력나라들이 자금과 기술, 민족간부가 아직 부족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을 받고있는 조건에서 자립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주적발전을 지향하여 투쟁하고있는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며 자체의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경제적자립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오늘 새 사회, 새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는 비상히 높다. 그들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자기 인민의 힘과 지혜를 합쳐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고야말 확고한 결의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정당한 위업은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근 로 자 1979년 제9호(루계 449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9년 9월 1일　　발 행 • 1979년 9월 5일

ㄱ—95233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EAST ASIATIC LIBRARY
DEC - 6 1979
UNIVERSITY OF CALIFORNIA

10호

평 양 근로자사 1979

Digitized by Google

제 10 호(450)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서른네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창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 백전백승의 위력을 가진 불패의 전투적참모부로, 인민대중의 세련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 이 땅우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번영과 룡성의 최성기를 펼쳐놓았다.

우리 당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이룩하여온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은 우리 혁명의 년대기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위대한 력사적전변이다.

참으로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의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자랑찬 로정이며 사나운 풍파와 시련을 과감히 헤치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하여온 빛나는 로정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보람찬 로정을 자랑스럽게 돌이켜보면서 당의 세련된 령도따라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1

우리 당이 수행하고있는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의 밀림에서 독창적으로 개척하신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공산주의혁명위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혁명위업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완성되여나간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선행한 모든 혁명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일반화하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창시하며 당을 창건하고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해나갈 때만이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특수한 력사적환경에서 온갖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던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심으로써 비로소 승리하며 전진하는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첫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여 우리 혁명이 자주성의 원칙에서 발전하는 새로운 길,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새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의 등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은 처음으로 옳바른 궤도우에서,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면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시여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인 불멸의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로 하여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지난날의 쓰라린 력사는 끝장나고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주체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창시에 의하여 외세의존과 노예적굴종의 낡은 사고방식과 관점이 뒤집어지고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일떠서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가 밝혀지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투쟁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과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였으며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여기에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향도되고 그를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의 혁명위업은 불패의 위력과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심오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에게 자연과 사회를 정확히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의 전모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주며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 그리고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는 근본방향과 요구, 공산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사람들의 활동방식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에게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튼튼히 가지게 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안겨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혀줌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 불멸의 주체사상을 피와 살로 받아들임으로써 가장 옳바른 길을 따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신심을 튼튼히 간직하고 우리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또한 이 위대한 사상을 혁명적량식으로 삼고있기에 그 어떤 복잡한 환경과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모르고 언제나 높은 혁명적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이렇듯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며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이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우리 혁명위업의 위대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위업이 그처럼 위대하고 숭고한것은 력사의 주체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빛나게 실현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페지)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자주성을 떠나서 사람은 참말로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될수 없으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지닐수 없다. 자주성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 된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그들이 착취와 압박에서뿐아니라 낡은 사상과 도덕, 힘든 로동을 비롯한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여야 한다.

주체사상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혁명위업은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속과 구속을 모르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사람들이 참다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누리도록 하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상해방을 실현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자체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뿐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사람들을 낡은 사상과 관점, 낡은 사고방식에서 해방하여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되게 하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로동생활과 문화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사람을 개조해나가는 과정,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은 바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여 그들을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되게 하는 성스러운 과정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위업은 또한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를 앞장에서 독창적으로 구현해나가며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있는 력사적위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생소하고 험난한 길을 헤치며 우리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자주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새 사회 건설의 참다운 앞길을 밝혀주는 귀중한 경험들을 창조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자주, 자립을 위한 인민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로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혁명투쟁과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그들의 투쟁에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고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그 본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위업일뿐아니라 지구상에서 온갖 착취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근로인민대중이 참말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이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고있

Digitized by Google

으며 우리 나라를 《주체의 조국》으로 칭송하면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경험에서 고무적힘을 얻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혁명위업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영예와 존엄을 끝없이 빛내이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빛나게 실현하며 끝없는 민족적번영과 륭성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공산주의혁명위업이다.

2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주체사상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력사적사명을 지니고 우리 인민을 힘있게 이끌어 이 땅우에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여왔다.

우리 당이 걸어온 력사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여온 영광의 력사이며 우리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세기적변혁을 이룩한 위훈의 력사이다.

우리 당은 남달리 어렵고 복잡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 당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그리고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조류를 반대하는 첨예한 투쟁속에서 류례없이 험난한 길을 헤쳐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투쟁의 앞길은 간고하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지만 우리 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고 조국땅우에 로동당시대로 불리우는 민족적륭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진두에서 우리 인민을 령도하여 두 단계의 사회혁명,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여 우리 나라에서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였으며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한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성과적수행과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새로운 전환이였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위업은 더욱 심화발전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우리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놓았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은 오늘 당이 내놓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있으며 새로운 높이에서 힘있게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Digitized by Google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0페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가장 숭고하고 보람찬 사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반세기에 걸치는 우리 혁명발전의 력사적총화에 기초한 새로운 혁명적진군이며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위업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구호에는 그 어떤 모진 바람에도 끄떡없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강철같은 의지와 혁명적신념이 담겨져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혁명의 고귀한 업적들과 전취물들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의 요구에 맞게 무엇보다도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당사업,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당은 사회의 심장, 혁명과 건설의 추진력으로서 온 사회에 주체형의 피, 위대한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힘있게 흘러주며 우리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이 차넘치는 세련된 전투적당으로 강화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더욱 심화되고 당의 전투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됨에 따라 오늘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고 자기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려는 강철같은 의지가 차넘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반석같이 다져졌다.

우리 당의 이 불패의 통일단결은 그 어떤 시련과 풍파도 뚫고나갈수 있는 가장 공고하고 가장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다. 오직 자기 당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향도따라 드팀없이 싸워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놀지 않는 철석같은 신념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우리 사회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당안에는 하나의 사상의지로 숨쉬고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과 질서가 튼튼히 확립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하부말단까지 거침없이 쭉쭉 내려가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속에서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진군속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

Digitized by Google

직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가슴불태우며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영원히 당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싸워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한 의지이며 신념이다.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일본새로부터 생활양식에 이르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혁명적자각이 높아지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산주의의 찬란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과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대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였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으며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일대 혁명운동이며 전인민적대진군운동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투쟁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 대오가 더욱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이룩되고있다.

참으로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몰라보게 달라졌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그 어느때보다도 공고화되였다.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오늘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우리 당의 보람찬 투쟁과 창조의 력사, 이 땅우에 이룩된 천지개벽의 력사는 주체사상화위업의 고귀한 결실이며 그 불패의 생활력의 확고한 증시로 된다.

3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먼길 전진하였으며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그러나 우리 당과 인민은 아직 혁명의 도상에 있으며 우리앞에는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니고있는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이 보람차고 방대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

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88페지)

조선로동당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로서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우리 당을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다.

우리 당은 우리 사회의 심장, 혁명과 건설의 추진력으로서 자연과 사회, 사람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가장 옳게 수행하여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왔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주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이다.

당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위업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과 인민이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참다운 길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대를 이어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문제도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 문제도 결국 당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총적과업으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당원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벌려 그들을 견결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또한 당안에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고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며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더욱 확고히 보장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 당을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당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켜 우리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하며 그에 기초한 정치사상적통일을 튼튼히 다지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체사상화위업의 기원을 열어놓고 주체시대와 더불어 영원히 번영할 우리 혁명의 새 력사를 펼쳐놓은 위대한 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히 옹호고수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혈통을 순결하게 지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언제나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우리는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그것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또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그것을 대를 이어 꽃피워나가는것이다.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

명의 만년초석이며 우리 혁명이 영원히 승리해나갈수 있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전진하고 무거운 과업이 제기될수록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며 항일의 불길속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불타는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사업과 생활에서 빛나게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공산주의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다그쳐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며 과학과 기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공산주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있고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으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줄수 있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며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더한층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과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더욱 튼튼히 장비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세련된 령도따라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온 우리 인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고야말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 당의 튼튼한 뿌리를 마련하시고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여 우리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력사

장 종 엽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당,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을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당의 력사적뿌리가 내린 때로부터 반세기,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30여년동안 우리 당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주체시대의 새 력사를 개척하면서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을 통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실현한것이다.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력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여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신 자랑찬 력사인 동시에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신 자랑찬 로정이다.

기나긴 반세기에 걸치는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이루어지고 그 힘에 의거하여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빛나는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의 실현, 이것은 실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빛나는 총화이며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이 위대한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로정에서 사소한 편향과 곡절도 없이 우리 인민을 정확히 이끌어 포악한 두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물리치는 혁명전쟁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할수 있었다.

전당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위대한 통일단결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1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생명이며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사상의지의 통일은 우리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입니다.》
(《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2권, 660페지)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는것은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원칙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전위부대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이 사명을 수행하자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로 철석같이 통일되고 단결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하나의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여야 당의 전투적 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자기의 숭고

Digitized by Google

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당의 조직사상적통일의 중심은 수령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은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유일한 사상적기초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대렬의 통일단결, 바로 여기에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통일단결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당건설의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당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력사적특성과 관련된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그 발생초기부터 대렬안에서 여러가지 분파가 생겨나 추악한 파벌싸움을 벌림으로써 심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종파주의는 우리 나라 로동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하나의 고질로 되여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은 또한 처음부터 내외원쑤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물리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보장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사활적의의를 가지는 근본문제로 제기되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해방직후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창건되였다.

창건초기 당대렬에는 국내와 해외에서 활동하던 충분히 검열되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들어오게 되였으며 지어 지난날 종파에 참가했거나 종파의 영향밑에 있었던 사람들도 끼여들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창건되자 곧 대중을 묶어세워 새 사회 건설을 지도하면서 동시에 당을 건설하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당창건 첫날부터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실현할데 대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전당의 반석같은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큰 승리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세기에 걸쳐 진행한 피어린 투쟁의 가장 빛나는 총화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3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시던 때로부터 시작하여 당을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시는 전행정에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시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결코 순탄한 환경속에서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의 간고하고도 준엄한 투쟁속에서 비싼 대가로 마련된 고귀한 전취물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간고한 항일의 불길속에서 그 뿌리가 내리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며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반석같이 다져지고 튼튼히 고수되여 왔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축성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 농민출신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육성하시여 당의 조직적뿌간을 튼튼히 꾸려나가시는 한편 혁명대오안에 기여든 종파사대주의자들을 청산하고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과 혁명조직들안에서는 종파주의오물이 깨끗이 청산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으며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창건된 당앞에는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종파주의오물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이룩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이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통일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고 종파주의자들, 혁명의 배신자들을 반대하는 당내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지도하시였으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당의 핵심진지를 공고히 하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당은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시련을 겪을 때마다 당에 도전해나섰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분쇄하였으며 종파주의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전당적인 투쟁으로 힘있게 벌리였다.

우리 나라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여 혁명이 더욱 전진하고 계급투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당은 당안에 숨어있던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과 그 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 한편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결과 당안에서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등 온갖 반동적사상조류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대렬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불패의 통일을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오래동안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오던 종파의 오물과 온갖 기회주의적요소들이 청산되고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단결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였다.

우리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이룩된 자랑찬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이룩하여야 할 통일단결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가장 공고하고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 위대한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04페지)

우리 당에는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

Digitized by Google

볼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위대한 통일단결이 이루어져있다.

전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굳게 단합되여있으며 모든 당원들이 수령님과 당에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그 공고성과 생활력에 있어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 위대한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불패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확고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당의 지도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 그리고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어떻게 사상의지적으로 결속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며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됨으로써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통일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말그대로 주체사상만이 맥박치는 가장 순결한 사상의지의 결정체로 강화되였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불패성의 기초가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불패성은 또한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숭고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이 불패의것으로 되자면 반드시 하나의 중심, 혁명의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심이 없이 단순한 리해관계와 우정관계에 의하여 맺어진 단합은 공고한 단결로 될수 없으며 그것은 준엄한 혁명의 시련을 이겨낼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모든 당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끝없는 충실성은 오랜 혁명투쟁과정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것으로서 그것은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되고있다.

지난 반세기 우리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투쟁은 준엄하였으나 이 로정에서 우리 당원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신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이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며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혁명의 귀중한 진리를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전당이 하나의 맥박으로 고동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되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또한 그것이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되고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굳세여진 불패의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자라나며 당의 통일단결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불패의것으로 강화발전된다.

우리 당은 지난 반세기동안 안팎의 원쑤들과 종파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치렬한 싸움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련의 고비들을 수없이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모든 운명을 수령님께 의탁하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겹쌓인 시련과 난관을 이겨나갔다.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면서 굳건히 지켜지고 억세게 다져진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가장 위력한

Digitized by Google

것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오늘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더욱더 공고화되고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위대한 사업이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는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살며 싸워나가는 충성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사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정치사상적력량으로 굳게 단결된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혁명대오의 위력의 원천이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만드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전당과 온 사회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만이 세차게 끓어번지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굳게 뭉친 불패의 혁명대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사회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의 자랑찬 위용이다.

이 불패의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이 철저히 옹호관철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는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으로 찬연히 수놓아지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 당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렬의 완전한 통일단결을 실현함으로써 지난 기간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 이 땅우에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인류의 미래인 공산주의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대렬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고귀하고 풍부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에는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부터 그 구체적방법에 이르기까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재부들이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이 투쟁경험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당건설분야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매우 귀중하며 또한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형형색색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그 내용이 매우 심오하고 풍부하다.

지난 기간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중요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것이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고수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당의 단결을 고수하기 위하여 당중앙을 옹호하는것입니다. 중앙이 없이는 당이 있을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130～131페지)

로동계급의 수령은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종파주의, 기회주의자들은 당의 통일을 파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수령의 권위를 헐뜯

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돌린다.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종파주의, 기회주의자들이 례외없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고 당의 지도권을 탈취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종파는 그 어떤 로선이나 정책상에서의 대립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명과 출세, 탐위를 위한 이른바 《령도권》쟁탈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된것이였다. 종파분자들이 이러저러한 좌우경적구호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며 종파적지반을 확대하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날 권력에만 눈이 어두운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의 지도권을 탈취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해나섰던 조건에서 혁명의 뇌수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것은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첫째가는 중요한 문제로 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반세기가 넘는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함으로써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고수하였다.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긴 항일혁명선렬들은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모든것을 다 바쳐싸웠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이 고귀한 혁명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당원들은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당내 분렬주의자들의 음모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당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고수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근본원칙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함으로써 당을 불패의 전투적대오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었다.

지난 기간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중요한 경험은 또한 당내에서 종파주의를 비롯한 분파적요소를 추호도 허용하지 말고 그를 제때에 철저히 극복청산함으로써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안에서 그 어떤 종파행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한놈의 이색분자도 우리 대렬에 끼여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을 분렬시키고 로동계급을 분렬시키며 인민대중을 분렬시키려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용서하지 말고 제때에 무자비하게 쳐야 합니다.》(《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 대하여》, 8페지)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종파주의를 비롯한 자그마한 분파적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며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당의 통일을 파괴하는자들은 례외없이 반당분자들이였으며 혁명의 배신자들이였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종파는 그 발생초기부터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책동하면서 혁명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다. 혁명의 리익은 안중에 없는 종파분자들은 《령도권》쟁탈을 위한 더러운 파벌싸움으로 초기공산주의운동을 사분오렬시키고 1925년에 창건되였던 공산당을 파괴하였으며 해방후에는 남조선에서 당을 허물어버렸다.

경험은 종파분자들의 말로는 결국 제국주의의 정탐배로, 앞잡이로 굴러떨어진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드러난 박헌영도당과 1956년

Digitized by Google

8월전원회의에서 폭로분쇄된 최창익도당은 이미 오래전에 원쑤들의 정탐배로 전락되였고 놈들의 지휘밑에 반당반국가적음모책동을 감행한자들이였다.

모든 사실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제때에 청산하지 않는다면 당과 혁명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위험을 조성할수 있다는것을 여실히 말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내투쟁의 주되는 화력을 종파주의와의 투쟁에 돌리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철옹성같이 고수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주동을 치고 피동을 포섭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극소수의 악질적인 반당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청산하고 다수의 추종분자들을 건져내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였다.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주동을 치고 피동을 포섭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은 반당적요소들을 청산하는 동시에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진공적인 방침이다.

우리 당은 반당분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는 한편 그들이 끼친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온갖 반당적요소들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당내투쟁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한 결과 당내투쟁을 통하여 앙양된 당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혁명투쟁과 전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그리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당내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었다.

지난 시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당대렬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업,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뿌리뽑고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안에서 나타난 종파분자들도 례외없이 교조주의자들이였으며 사대주의자들이였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3권, 236페지)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낳는 요인이다.

력사적경험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자들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면서 자기 당을 받들지 않으며 나중에는 당을 반대하는데로 굴러떨어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종파주의, 기회주의는 례외없이 사대주의, 교조주의에서 생겨났으며 거기에 뿌리를 두고있었다. 따라서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청산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떼여놓고 그 성과를 기대할수 없었다.

우리 당은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당에 도전해나섰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었다.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경험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맥박치는 깨끗한 충성심을 가지고 혁명대렬의 순결성을 튼튼히 지키며 변함없이 혁명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해주고있다.

또한 그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게 함으로써 당으로 하여금 그 어떤 난관과 시련에 부닥쳐도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더욱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게 해

Digitized by Google

주고있다.

실로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 *

간고한 투쟁속에서 쟁취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지키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당의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굳건히 고수하고 튼튼히 다져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시기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배우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빛나는 모범과 가렬한 전쟁의 나날, 전후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우리 당원들이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도전과 음모를 분쇄한 그 투쟁기풍을 본받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에 따라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강철의 혁명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조그마한 비당적요소들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계급적선을 예리하게 세우고 사소한 불건전한 현상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결속된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을 영원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굳건히 다져나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당은 정치적생명의 보호자

송 남 섭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한길에서 가장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으며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누구나 다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들에게 가장 보람찬 삶을 주는 생명이다. 그것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혁명투쟁속에서 혁명전사들이 간직하게 되는 생명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견결한 정치활동가,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게 하는 귀중한 생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사람은 혁명을 하면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지 혁명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밥이나 먹고 세월을 보내서는 사는 보람이 없습니다. 더우기 오늘과 같이 벅찬 혁명의 시대에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것은 사실에 있어서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값에 가지 못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8페지)

사람은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을 벌려야 참다운 삶의 보람을 누릴수 있고 사회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다. 사람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잃으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삶의 참다운 가치도 가질수 없으며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다.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활동과 혁명투쟁속에서 유지되고 빛나게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탁월한 수령과 로동계급의 당이 주며 수령과 당의 손길아래 유지되고 보호된다.

탁월한 수령과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나서게 하며 이 투쟁의 길에서 변함없는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준다. 사람들은 수령과 당의 보살핌속에서 비로소 혁명가의 고귀한 칭호와 영예를 받아안게 되며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간다.

사람의 육체적생명은 부모가 주지만 그들의 정치적생명은 수령이 주고 당이 보살펴준다. 부모들은 아들딸을 낳고 그들을 육친적으로 사랑하지만 당은 사람들에게 사회정치적생명을 주고 그것을 귀중히 간직하도록 정치적으로 키워준다. 다시말하여 부모가 없이는 사람의 육체적생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수령과 당의 품을 떠나서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생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정치적생명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자라는 가장 영광스럽고 값높은 정치적생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공산주의 혁명가들을 키워내시였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여러가지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여 보람찬 혁명투쟁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혁명가들의 대부대를 밑천으로 하여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행정에서 우리 모든 근로자들을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가진 혁명가의 대오로 키워오시였으며 오늘은 온 사회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대집단으로, 가장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참다운 인민의 주권을 세워주심으로써 지난날 사회적예속과 정치적무권리속에서 살아오던 우리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으며 그들을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하여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힘있게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걸어온 로정은 전체 인민이 수령님과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난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정치적생명이 그처럼 값있고 고귀한것은 또한 그것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정신적량식으로 하여 키워지고있는데 있다.

사람이 어떤 사상을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삼고 생활하는가에 따라 그들이 지니고있는 정치적생명의 가치가 규정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혀줌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참다운 길을 가리켜주며 사람들에게 자주성에 대한 높은 자각을 튼튼히 간직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혁명위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주인다운 자각을 안겨주며 혁명가의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게 하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안겨준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 위대한 사상을 피와 살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그렇듯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에 넘쳐 자기의 숭고한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는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정치적생명은 비할바없이 고귀한것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오늘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의하여 튼튼히 보호되고 끝없이 빛나고있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사람들로 무어진 정치조직이며 집단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워 열렬한 혁명가의 전투대오로 꾸림으로써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해나간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계급적으로 자각하고 혁명조직에 망라되여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끊임없이 빛내여나간다.

우리 당은 정치적생명의 보호자로서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가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준다.

우리 당은 어머니가 젖줄기를 통하여

Digitized by Google

자식들에게 육체적생명의 자양분을 부어주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체형의 피와 영양소를 끊임없이 넣어주어 그들을 정치적으로 튼튼히 성장하여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되게 한다.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언제나 높은 정치적안목과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드팀없이 걸어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전당에 정연한 사상교양체계를 세우고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결정지시를 제때에 받아안고 그것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하여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을 따라 변함없이 싸워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며 자기의 사회정치적생명을 튼튼히 유지하고 빛내여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이끌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하고있으며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단련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4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조직생활은 정치적생명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생활을 하여야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다.

조직생활은 바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이다.

사람들이 참다운 혁명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혁명대오의 한 성원으로, 조직의 성원으로 되여야 한다.

혁명적인 조직을 떠난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을 생각할수 없고 조직생활을 떠난 사회정치적생명이란 있을수 없다.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들이 혁명적인 사상과 의지를 가지고 혁명조직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서 유지되고 빛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당 및 근로단체 조직의 성원으로 되여 사회정치활동과 혁명투쟁에 적극 참가하면서 정치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단련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자라나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사회정치생활을 하고 혁명투쟁에 참가하며 누구나 다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 건전한 사회적인간으로서 당과 혁명을 위한 투쟁의 길에 한몸바쳐 싸워나가고 있는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누구나 다 정치조직생활을 하고있기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당은 사람들에게 주체사상의 자양분을 끊임없이 넣어주고 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워줌으로써 그들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신념을 확고히 간직하고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혁명의 한길을 확신성있게 걸어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또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보살펴주며 그들을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하도록 이끌어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빛나가지 않도록 일깨워주며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들에게 원칙적인 비판을 주어 옳바른 길로 나가도록 바로잡아준다.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을 그 무엇보다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당의 넓은 품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혁명투쟁에 참가하고있으며 당과 혁명 앞에 엄중한 과오를 저지른 사람들까지도 소생의 길에 들어서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참으로 당의 품은 따사롭고 자애로운 사랑의 품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으며 당에 오늘과 래일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같이 숨쉬고 행동하면서 크나큰 희망과 신심에 넘쳐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는것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진군운동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을 더욱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키며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는것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에게 지워진 숭고한 의무이다.

당조직과 당일군들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고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며 그들의 애로와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3페지)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니는것은 자기의 숭고한 본분을 다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세심히 돌봐주는데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어머니다운 품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나게 유지하도록 사업과 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살펴주는 고상한 공산주의적품성이다.

당일군들은 어머니가 아들딸을 교양하고 돌보듯이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세심히 보살펴주며 그들의 오늘뿐아니라 장래문제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며 도와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튼튼히 보호해주어야 그들이 당의 품속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당에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다.

사람들을 아량있게 대해주고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어머니다운 품성의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들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아량있게 대해주고 아끼고 사랑하여야 그들이 당조직에 모든것을 허물없이 제기할수 있고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실정을 깊이 알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으로 사람들을 따뜻이 대해주어야 하며 누구나 꺼리낌없이 자기의 의견을 말할수 있도록 너그럽게 대해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조그마한 문제도 주의깊게 듣고 제때에 해결해주며 모르는것은 옳게 타일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당조직에 속을 주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것은 결코 그들을 무원칙하게 사랑하라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속에서 나타나는 그릇된 현상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고쳐주기 위하여 애쓰는 일군만이 참다운 당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보

Digitized by Google

잘써주고 이끌어주어야 그들을 감화시킬수 있으며 그들의 결함을 빨리 고치게 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머리에 녹이 쓸지 않도록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늘 알아보고 그에 맞게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꾸준히 교양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심사숙고하여 정확히 처리하며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신심과 열정에 넘쳐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육체적생명을 유지할수 있는것과 같이 당원은 당생활을 해야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65페지)

조직관념을 높이고 혁명적조직생활을 잘하도록 하는것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조직관념을 가지고 혁명적조직생활을 잘하도록 한다는것은 언제 어디서나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도록 하며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조직관념을 가지고 조직생활을 잘하도록 하여야만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게 할수 있다.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사회정치적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상정신적량식을 끊임없이 받게 되며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세련된다. 그러므로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혁명가의 생명,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가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혁명하는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나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게 하여야만 그들이 혁명의 길에서 일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빛내일수 있다. 정치적생명을 지닌 혁명가의 높은 칭호와 영예, 바로 이것은 끊임없는 조직생활과정에서 간직되고 더욱 빛나게 된다.

경험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지 않고 조직생활을 짜고들지 못하면 머리속에 녹이 쓸고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정치적생명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조직관념을 높이고 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진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는것을 생활의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선차적요구로 제기하고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준비시키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이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을 실천투쟁속에서 적극 단련시키는것이다.

정치적생명은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유지되고 빛나게 된다.

혁명적실천활동이 없는 정치적생명이 있을수 없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이바지하지 않는 사회정치적생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결정지시를 관철하는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혁명가로서 지녀야 할 풍모를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쏟아붓는것을 가장 보람찬 일로 여기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

Digitized by Google

의 결정지시를 관철하는데서 언제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고 키워주는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배합하는 문제나 행정식사업방법을 없애고 당적사업방법을 세우며 사업작풍을 바로잡는 문제가 다 일군들의 수준에 달려있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3권, 274페지)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은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의 정치생활을 조직지도하는 직업적인 혁명가들이다.

사람들의 정치생활은 당일군들을 통하여 조직되고 모치되며 장악되고 집행된다. 따라서 사람과의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당일군들의 준비정도에 크게 달려있다.

원래 당사업은 일군들의 높은 정치사상적수준과 능숙한 조직적수완, 혁명적전개력을 요구하는 사업이며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진행하여야 할 창조적인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당일군들은 누구보다도 정치실무수준이 높아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고 키워주는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는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적원칙과 함께 풍부한 지식과 넓은 시야와 예리한 안광을 가져야 하며 조성된 정세와 대상의 특성에 맞게 옳은 방법론과 묘술을 찾아내여 능동적으로 로숙하게 사업할줄 아는 능력있는 일군으로 준비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과의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능숙하게 해나갈수 있으며 그들의 성격과 취미 그리고 그들의 생활감정과 심리상태, 사상의식수준과 준비정도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있다.

당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이 낮고 능력이 모자라면 필연코 작풍이 거칠어지고 당의 의도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원만하게 할수 없다.

때문에 모든 당일군들은 자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학습하며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워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에게 지워진 임무는 참으로 크고 무겁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옳게 이끌어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고 키워나가는 책임적이고도 숭고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사상혁명은 인간개조사업이며 정치사업

윤 빈

사상혁명의 본질을 옳게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나서는 중대한 문제이다.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철저히 수행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전진을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상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상혁명의 본질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입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9페지)

사상혁명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지위를 높이는것과 관련되여있다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상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저절로 높아지지 않는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통하여서만 자기의 자주적지위와 창조적역할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부단히 높여나가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면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하는 새로운 사회제도가 선다고 하여 사람들이 저절로 주인구실을 다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제국주의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된다. 이런 조건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사상혁명, 인간개조사업과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게 하며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게 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은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이다.

사상혁명이 인간개조사업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사업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데서 기본은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조

Digitized by Google

하는것이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사상의식으로 철저히 무장되였을 때 혁명적으로 개조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을 떠나서 인간개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키우는 사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사상의식으로 얼마나 튼튼히 무장되였는가 하는데 따라 그들의 혁명적개조정도가 규정되게 된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며 사상의식에 의하여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모든 활동이 조절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사람만이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혁명하는 시대에 태여난 사람으로서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주성을 옹호하고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설수 있으며 정치적생명을 순결하게 빛내여나갈수 있다. 사람의 가치는 결코 돈이나 물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니고있는 사상의식수준의 높이에 의하여 평가되게 된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할뿐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조절한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하며 그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상의식을 떠난 사람들의 행동이란 있을수 없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것은 그가 어떠한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가에 의하여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사상의식을 떠나서는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있을수 없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될수 없다.

인간의 활동은 언제나 의식적으로 설정된 목적에 의하여 수행되며 자기자신이 설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달성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사상의식수준을 소유하였는가 하는것은 그가 수령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히 복무하는가 하는데서 표현된다.

다시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하는것은 사상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혁명의 주인다운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진 사람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창발성과 열성도 내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모든 행동을 규정하고 활동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다는데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있으며 세계를 인식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해나가는 힘있는 존재로 되는 리유가 있다. 그러므로 사상의식이 혁명적으로 개조되면 사람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되게 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는 일반적으로 낡은 사상을 없애고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한다는것은 착취사회의 낡은 자본주의사상을 뿌리빼고 새로운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을 넣어줌으로써 의식령역에서 공산주의사상이 확고히 지배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저절로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또 공산주의사상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지배적인 사상이라고 하여 저절로 사람들의 머리속에 확고히 자리잡게 되는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새로운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려면 사상혁명을 확고히 틀어쥐고 이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야 한다.

인간개조를 위한 사상혁명은 사상투쟁과 사상교양의 통일적과정이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면 할수록 사상의식개조과정은 그만큼 다그쳐진다. 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머리속에 새로운 혁명사상을 넣어주어야 낡은 사상이 밀려날수 있으며 사상투쟁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머리속

Digitized by Google

에서 낡은 사상을 철저히 뿌리뽑아내야 새로운 혁명사상이 튼튼히 자리잡을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고 그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려면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따라서 사상혁명은 사상의식령역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상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새로운 사상, 공산주의사상을 넣어주기 위한 사상혁명이 공산주의혁명가를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것이다.

사상혁명이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으로 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할 사상혁명의 목적과도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의 목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9페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한다는것을 말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이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자연을 개조하는것도 사람이며 사회를 변혁하는것도 다름아닌 사람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주인인 사람부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인 사상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그들이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실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다.

사람들을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할뿐아니라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은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과 사회까지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그 개조의 직접적담당자이기때문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근로인민대중에게 있는것만큼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적극 밀고나갈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할수 있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치는 여기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따라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은 결국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문제에 귀착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여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할 사상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된다.

사상혁명은 인간개조사업인 동시에 정치사업이다.

정치사업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Digitized by Google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발양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26페지)

정치사업은 해설하고 설복하며 교양하고 깨우쳐주어 사람들을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는 사업이며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이 발동되기만 하면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대중에 의거하여 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방법만이 가장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사람의 창조력은 창조적의욕밑에 작용하므로 사상을 발동하고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불러일으켜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사상이 발동될 때 사람들은 모든 정신적 및 육체적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적극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발양시키는것은 그들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저절로 발양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사업을 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알려주고 그 관철에로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 높이 발휘된다. 이렇게 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이 자기가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자신의 생활적요구로 받아들일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헌신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게 할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그들의 정치적자각과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은 사상혁명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사상혁명에서 사람의 자주적지위를 높이기 위한 인간개조사업과 주인으로서의 창조적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한 정치사업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통일되여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이 노는 결정적역할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에 기초하고있으며 주인의 지위는 자연과 사회 개조에서 사람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이는 조건에서만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할수 있다. 다른 한편 인간개조사업은 사람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동원하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 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사람들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내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실천속에서만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또한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은 그들이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공산주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 높이 발휘된다. 이와 같이 인간개조사업과 정치사업은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혁명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은 로동

Digitized by Google

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상혁명이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무엇보다도 인간개조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새로운 과학리론적기초우에서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는 것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사람들의 혁명적개조를 다그쳐나갈 때에만 혁명의 주체적요인을 더욱 강화하고 그 혁명적작용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철학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이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이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기본고리로 된다는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과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인간개조의 기본을 어디에 두며 그것을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실현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기본은 그들을 공산주의적사상의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며 인간개조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이 중대한 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공산주의적인간개조리론은 그 기본원리와 목표, 원칙과 방도의 모든 문제들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과학적인 학설로 발전풍부화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혁명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된다는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또한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는 혁명적인 길이 마련되게 되였다.

인간개조의 혁명적본질과 그 실현을 위한 기본요구를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념과 요구에 맞게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인간개조사업을 사상개조로 보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때라야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를 체현한 새형의 인간으로 만들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인간개조에서 물질적자극에 선차성을 부여하면서 사상의식개조를 소홀히 할 때에는 사람들을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리익을 떠나서 일신의 부귀와 안일만을 꿈꾸며 혁명을 포기하고 투쟁하기 싫어하는 정신적불구자로 굴러떨어지게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상혁명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심으로써 인간개조사업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혁명이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으로 된다는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인간으로 만들고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통일체로 튼튼히 꾸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언제나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Digitized by Google

앞세움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상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우리나라의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회주의건설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있으며 온 사회에는 주체형의 피만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가슴깊이 간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높은 각오와 굳은 결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철석같은 의지로, 생활의 확고한 신조로 되고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있으며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용감히 뚫고나가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과 기적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주인다운 태도가 높아졌으며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려는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혁명가답게 살며 싸우려는 각오가 더욱 굳건하여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적극분자로,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선진분자로 되고있다.

이것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앞당겨완수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사상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은 우리 사회제도의 튼튼한 정치적기초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신심과 락관에 넘쳐 진군하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자랑찬 풍모이다.

사상혁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 인간개조사업, 사상개조사업이 우리 나라에서 매우 훌륭하게 해결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우리 혁명발전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전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상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 불패의 생활력과 정당성을 확증해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혁명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자신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는것은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근본요구

최 언 경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공산주의적인간학에 대한 새로운 리론을 내놓음으로써 이 땅우에 주체문학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공산주의적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공산주의적인간학에 대한 이 독창적 리론에 의하여 공산주의문학의 성격과 특징이 뚜렷해지게 되였으며 공산주의문학건설의 근본원칙과 방도가 완전하게 해명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확고한 목표와 신심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을 건설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실로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서 근본적전환으로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는것이 공산주의적인간학의 근본요구로 된다는것을 밝히였다.

문학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운다는것은 자기의 정치적자주성을 지키며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나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밝힌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이 어떤 인간문제를 내세워야 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준 탁월하고 위대한 사상이다.

지난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문학이 사회적제관계의 총체로서의 인간을 그려야 하며 인간을 형상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을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려야 하는가, 어떤 인간문제를 근본문제로 내세워야 하는가를 옳게 밝히지 못하였다.

물론 지난 시기의 사실주의문학도 이러저러하게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기 위해 오랜 탐구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지난날의 그 어떤 문학도 인간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인간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지 못하였으며 또 내세울수도 없었다. 그것은 문학에 대한 지난날의 견해가 인간의 본질적특성을 해명할수 있는 과학적인 사상리론적기초를 가지고있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을 해명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인간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문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완벽하게 밝혀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된다는것을 처음으로 밝힘으로써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근본문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옳바르게 풀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인간학리론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고 공산주의적인간학이 어떤 인간문제를 내세워야 하는가에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 이리하여

Digitized by Google

우리 문학은 인간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게 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인 인간의 위대성과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활짝 펼쳐보일수 있게 되였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문예리론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적요구와 새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위대한 사상이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울데 대한 주체적 문예리론은 무엇보다먼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문학은 인간학이다.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다.

산 인간을 그리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질적특징이다. 자주성을 근본속성으로 하는 인간을 형상의 중심에 놓고 그리는 인간학인 문학은 응당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워야 한다. 문학이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근본문제로 내세울 때에만 생활이 제기하는 모든 인간문제를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은 인간에게 복무하는것을 또하나의 본성으로 하고있다. 문학이 인간에게 복무한다는것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통하여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그들을 참된 삶의 길, 혁명투쟁의 길로 이끌어준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무기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고무하는 기치로 복무하려면 사람들의 운명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문제, 바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옳게 풀어야 한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울데 대한 주체적 문예리론은 또한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고 사회적운동이 진행된다. 따라서 지난 시기의 모든 진보적인 문학은 이렇게나저렇게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반영하여왔다.

그러나 인류력사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라고 하여 모든 시대가 다 자주성의 시대로 되는것은 아니며 문학예술이 아무때나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인간학의 근본문제로 내세울수 있는것도 아니다.

문학은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이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러 자주성의 시대를 이루게 될 때 그리고 문학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게 될 때에만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할수 있으며 그에 옳은 해답을 줄수 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주체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온갖 형태의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이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바로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움으로써 시대의 이 절박한 요구에 옳은 해답을 주고있으며 사람들

Digitized by Google

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 같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울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자체의 본성적요구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독창적인 리론이다.

* *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반만년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없는 세기적인 변혁이 이룩되고있으며 새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주체문학의 찬란한 개화기가 펼쳐지고있다.

우리 문학은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를 헤아리지만 그 어느 시기에도 오늘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그렇듯 소리높이 노래하고 열렬히 옹호한적은 없었다. 또한 그 어느 시기 문학도 오늘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처럼 육체적생명은 버릴지언정 목숨보다 더 귀중한 인간의 자주성을 지켜 온몸과 넋이 그처럼 뜨겁게 불타는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그리지 못하였다.

우리 문학은 특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가는 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일대 비약을 일으키고있으며 자기발전에서 근본적전환의 새시대, 민족문학의 대번영기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은 찬란히 꽃피고있습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참말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였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30페지)

우리 문학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공산주의적인간학에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해답을 주는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주체의 문학으로 활짝 꽃피여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시대와 인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전면에 첨예하게 제기하고 그에 완벽한 해답을 줌으로써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전변되였다.

우리 문학에 있어서 모든 인간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로 되였으며 또한 그 모든 인간문제는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로 일관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있을뿐아니라 그에 가장 완벽한 사상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은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다는 위대한 혁명의 진리를 가르쳐주고있으며 오직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짓밟는 온갖 계급적억압과 민족적예속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의 길만이 참된 삶의 길, 자주의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우리 문학은 이와 함께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며 일하고 투쟁할 때에만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밝혀주는 교과서로 되고있다.

특히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인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가장 열렬한 찬가이며 송가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각색한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한 공산주의적인간학의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Digitized by Google

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일제침략자들의 원흉 이등박문을 사살한 조선의 열혈청년 안중근의 애국적활동을 소재로 하고있으나 그것은 단순히 한 애국적인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작품전면에 심각하게 제기하고있다. 영화는 조국의 운명이 망국의 비운에 처한 력사적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자주냐 망국이냐 하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첨예하게 제기하고있으며 형상전반을 자주와 침략, 애국과 매국간의 격렬한 투쟁으로 일관시키고있다. 주인공 안중근을 비롯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거족적인 구국투쟁에 떨쳐나선 전체 조선인민의 숭고한 군상은 도도히 굽이치는 대하와도 같이 자주성에 대한 막을수 없는 지향으로 차넘치고있다.

혁명영화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첨예하게 제기하고있을뿐아니라 위대한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인간문제에 빛나는 해답을 주고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자주성을 열렬히 지향한 열혈청년 안중근과 우리 인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력사에 아로새긴 귀중한 교훈을 통하여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혼자의 힘으로나 개인테로의 방법으로는 안되며 오직 옳은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밝혀주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광범한 인민대중이 단결하여 싸울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는 위대한 혁명의 진리를 힘있게 밝히고있다. 바로 여기에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자주적인 인간문제에 심오한 해답을 주는 참된 공산주의적인간학의 본보기로 되는 중요한 요인이 있으며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교과서로 되는 사상예술적비결이 있는것이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특히 력사적사건과 력사적인물을 원형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 경우에도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해답을 줄 때에는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된다는 새로운 진리를 실천적으로 확증해준다.

오늘 우리 문학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빛나는 해답을 주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 되게 한 또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된다.

문학이 내세우는 인간문제는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될수 있는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통하여서만 옳게 밝혀질수 있다.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이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본보기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영원히 지키고 빛내여나가기 위해 투쟁하는 공산주의자의 참된 전형이다.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하여 한순간을 살아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상의 행복으로 여기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들이다.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옳게 풀어나갈 때 완전하게 해결될수 있다. 그것은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것이 사람들의 자주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근본요구이기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것은 결국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생활을 개척하고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기 위한것이다.

사람의 자주성을 지켜나가는데서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이 정치적생명은 오직 위대한 수령만이 혁명전사들에

Digitized by Google

계 줄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을 떠나서는 참다운 자주적인간의 형상에 대하여서도 자주적인 인간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해나가는 그런 인민이다. 우리 문학은 이처럼 의미심장한 인간문제를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예술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함으로써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통하여 자주성을 지키려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어떻게 빛내여나가야 하는가 하는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빛나는 해답을 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학이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기의 문학으로부터 주체문학의 새시대에로의 근본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나는 화폭으로 형상하고있는 총서 《불멸의 력사》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칭송의 서사시인 동시에 또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이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다함없는 충성의 서사시이기도 하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해발이 이 땅우에 어떻게 충성의 별무리들을 낳게 하였는가를 아름답게 펼쳐보이는 열렬한 충성의 서사시이다. 장편소설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찾아 모진 시련과 죽음을 이겨내며 사령부로 모여드는 다양한 사람들의 운명을 통하여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모시고 끝까지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감정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그들의 심장속 가장 깊은곳에 뿌리내려진 신념이고 의지이며 그 어떤 힘으로도 지울수 없고 꺾을수 없는 가장 공고한 감정이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더 잘 지키고 수령님의 심려를 천만분의 일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련대장 강세호와 경위중대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목숨바쳐 끝까지 수행하는 리경준의 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의 참다운 전형을 훌륭히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에 새롭게 제기된 인간문제에 처음으로 빛나는 해답을 줌으로써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인간문제를 자주성의 견지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롭게 제기된 문학의 근본문제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이 계급사회에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짐으로써 우리 문학이 내세워야 할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의 내용도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되였기때문이다.

국가주권을 쥔 극소수의 착취계급만이 지배권을 가지고있으며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은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만 되여있던 계급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문학에서는 온갖 예속으로부터 계급해방, 민족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문제가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된 근로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인간의 자주성이 활짝 꽃피여나고있는 이러한 사회주의적현실이야말로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Digitized by Google

높이 내세우고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보다 전면적으로 제기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에 어떤 인간문제를 내세워야 하는가를 자주성의 견지에서 옳게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깊이있게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과제로 나서게 되였다. 우리 시대 문학앞에 나선 이 력사적과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공산주의적인간학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이 내세워야 할 근본적인 인간문제는 우리 시대의 인간들이 자기의 모든 개인적운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거대한 위업과 어떻게 결부시키며 이 거창한 혁명의 흐름속에서 인간자신도 어떻게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더욱 완성되여나가는가 하는 인간개조의 심각한 력사적과정을 의의깊게 밝혀내는것이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혁명위업과 동떨어진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시대 인간의 운명은 마땅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계속혁명의 내용을 이루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그려져야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창조적인 로동과 생산활동 속에서 형상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문학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인 사상혁명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이 어떻게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되여나가는가 하는 심각한 력사적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문학은 우리 시대 인간들이 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침으로써 자기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거대한 변혁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우리 시대의 인간문제를 반영한 작품창작에서 인간문제와 생산기술적문제와의 호상관계가 제기된다. 생산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사람을 위한 일이므로 인간학인 문학은 마땅히 생산기술적문제를 그리면서도 생산기술적문제 그자체가 아니라 생산과 로동과정에서 나서는 의의있는 인간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우리 문학은 보람찬 로동과 생산활동속에서 그리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거세찬 격랑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여 주체형의 인간으로 자라나는가를 의의깊게 보여줌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문제에 참다운 해답을 주고있다.

사회주의적현실을 반영하고있는 장편소설 《평양시간》과 《생명수》, 예술영화 《로동가정》과 《꽃피는 마을》 등은 우리 시대가 제기한 자주적인 인간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모범으로 된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의하여 진행된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어지돈관개를 위한 거대한 건설투쟁속에서 우리 시대의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힘있게 내세우고있다.

소설은 비록 나라의 형편은 어렵지만 황금으로 언제를 쌓는 한이 있어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농민들에게 하루빨리 생명수를 보내줌으로써 그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뜨거운 은정과 인간해방의 위대한 사상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이 위대한 사상,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고 주인공 대성이를 비롯한 모든 청년건설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끝없는 충성심을 발휘하여 영웅적위훈을 떨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활짝 꽃피워나가는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은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보람찬 실천투쟁속에서 빛내여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람들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데 이바지하는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예방침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시대가 제기하는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사상예술적해답을 주는 참된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사람들을 인간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길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주체의 혁명적문학예술로 찬란히 꽃피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가리켜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대행진곡》, 《우리의 리상의 언덕에 나붓기는 붉은 기발》이라고 부러움과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거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참다운 모습을 보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자본의 철쇄와 억압을 박차고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준 길을 따라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그에 전면적인 예술적해답을 주는 공산주의적인간학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세계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인류문화의 최고봉을 장식하는 혁명적예술의 본보기》, 《인류예술의 미래를 대표하는 세계1등급의 예술》로 칭송받는 주체적문학예술을 가지게 된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자랑이며 영광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앞으로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고귀한 경험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경제건설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과 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이 땅우에는 민족의 무궁한 륭성번영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일떠서게 되였으며 자주, 자위를 위한 튼튼한 물질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실로 다방면적이고도 풍부한 경제건설경험을 창조하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풍부한 경험과 자랑찬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결과에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그것은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1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룬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98폐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의 기술, 자기의 민족간부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물질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할수 있는 경제를 건설하는것이다. 나라의 다양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생산부문들과 물질기술적요소들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부문들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서로 맞물리고 자립적으로 움직이는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창설하여놓았을 때 자립적민족경제가 완전히 건설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적자주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줄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간고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우리 혁명의 특성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낡은 사회에서 락후하고 기형적인 식민지경제를 넘겨받았으며 나라가 남북

Digitized by Google

으로 갈라지고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게 된 우리나라에서는 혁명기지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최대한 빨리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은 오직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무엇보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경험은 오직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을 기본으로 하여야만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69년판, 74페지)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이다.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자체의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온갖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애로와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이겨내면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울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나라의 자연부원과 인민의 창조적로동을 남김없이 동원하는것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며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이것은 외부의 그 어떠한 원조와 협조도 대신할수 없는 커다란 위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로동과 국내자원으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결심밑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왔다. 우리 당은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온갖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면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자력갱생한다는것은 결코 다른 나라의 국제적지지성원을 부인하는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도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아무리 성의있는것이라 하더라도 제한성이 있으며 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보조적인 역할밖에 놀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원조로써는 자체의 요구를 제때에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다른 나라의 원조를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남에게만 의존하려는 태도를 철저히 배격하였다. 다른 나라의 원조만 바라고 앉아있게 되면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자원을 동원할 생각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게 되며 덮어놓고 남만 쳐다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립적민족경제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도 건설할수 없다.

우리 당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자체의 힘으로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경제를 빨리 건설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또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언제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해왔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이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

Digitized by Google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은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정치적각오와 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조직사업을 짜고듦으로써 근로자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로력적앙양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우리 당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닥쳐도 언제나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극복하여나갔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생활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바로 여기에 비록 지난날 뒤떨어진 처지에 있었던 나라라 하더라도 매우 짧은 기간에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옳은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그것은 옳은 투쟁 방향과 방도,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해서만이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은 전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하고 사회주의확대재생산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사회주의공업화로선,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다같이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 등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방침을 정확히 제시하여 전후경제건설의 첫시기부터 생산수단생산과 소비품생산부문을 다 갖춘 경제토대를 건설할수 있게 하였으며 공업화의 토대를 닦으면서 동시에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물론 모든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것이 부족했던 전후의 형편에서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다같이 빨리 발전시키며 경제토대도 축성하고 인민생활도 빨리 높이는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였다.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였으며 그 과정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우리 당은 혁명의 요구와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맞으며 현재뿐만아니라 먼앞날까지 예견한 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기가 이미 택한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며 악전고투하여 당의 경제건설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였기때문에 전후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를 축성할수 있었으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었다.

우리의 경험은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고 경제건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밀고나가며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옳은 경제건설방침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힘있게 관철하여야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훌륭하게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2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우리 당은 자체의 원료와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다방면적인 경제를 건설하는데 힘을 넣었다.

Digitized by Google

이를 위하여 우리 당은 무엇보다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고 다방면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중공업,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다 갖추어져 생산구조에서 다면성과 종합성이 보장되여야 독자적으로 확대재생산을 진행할수 있으며 국내인민들의 수요를 자체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자면 새로운 공업부문,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창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당면한 리익과 전망적리익, 개별기업소의 리익과 인민경제적리익을 전면적으로 옳게 타산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있을수 있는 편향을 미리 막을수 있다.

만일 어떤 《생산전통》이나 《자연경제적유리성》 혹은 《수익성》만을 따지면서 새로운 부문, 새로운 공장들을 창설하지 않는다면 언제가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할수 없다.

우리 당은 어디까지나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경제부문을 창설하고 공장을 건설하여 경제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갔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는것은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발전은 경공업, 농업,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특히 중공업은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기초로서 그것이 없이는 자립적민족경제를 생각할수 없고 국방력도 강화할수 없다. 그러므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확고한 원칙으로 된다.

중공업건설에서 우리 당은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 주로 국내의 자연부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발전하며 그리고 인민경제에 필요한 자재, 원료, 연료, 동력 및 기계설비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는 자체의 튼튼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는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자체의 튼튼한 중공업기지를 축성하기 위하여 이미 있던 얼마 안되는 중공업공장들을 복구하고 개건, 확장하는것과 함께 우리 나라에 없던 새로운 부문들과 공장들을 수많이 건설하도록 하였다.

당의 중공업건설로선을 관철하는데서 특히 중요하게 나선것은 중공업의 발전과 경공업 및 농촌경리의 발전을 옳게 련결시키는것이였다. 이 문제는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을 건설할데 대한 창조적방침에 의하여 해결되였다.

우리 당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건설로선에 따라 중공업의 핵심이며 기초인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종합적으로 발전된 기계제작공업을 창설하기 위하여 먼저 기계공업의 모체로 되는 공작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하는 한편 지하자원개발에 필요한 채굴기계들과 경공업, 농업, 수산업, 운수, 건설의 발전을 위한 기계설비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꾸렸으며 점차 금속, 화학 공장설비들과 동력설비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꾸렸다.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처음에는 간단한 부속품과 중소기계설비들을 생산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형 및 정밀 기계설비들을 생산하는데로 넘어갔으며 다음에 현대적인 대규모공장들의 설비를 일식으로 생산공급하는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당은 기계제작공업과 함께 금속, 화

Digitized by Google

학, 전력, 채굴, 전재 등 기간적중공업 부문들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었다.

중공업기지와 함께 현대적경공업기지를 꾸리는것은 인민경제의 다방면적발전의 기본요구이다. 자체의 경공업기지를 창설하여야 공업생산구조의 다면성은 보장할수 있으며 질좋고 다양한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대중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대규모의 중앙경공업을 건설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것은 경공업의 토대가 거의 없었던 우리 나라에서 그의 골간을 꾸리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자체의 튼튼한 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꾸리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것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나라의 경제형편으로 보아 대규모의 경공업공장들을 한꺼번에 많이 지을수도 없었고 또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경공업의 락후성을 빨리 없애고 날로 늘어나는 인민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대규모중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이에 병행하여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당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지방공업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특히 지방공업발전에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된것은 우리 당 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였다.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린 결과 짧은 기간에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수많은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전국각지 주민들의 수요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의 원료자재를 가지고 비교적 손쉽게 생산을 조직할수 있는 소비품생산의 기술경제적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도였다.

경험은 경공업부문에서는 그 경제기술적특성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대규모공장과 중소규모공장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이 합리적이며 특히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지방공장들을 많이 건설하는것은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소비품생산을 늘이며 전반적인 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또한 식량을 자급자족하며 농산원료를 충분히 대줄수 있는 선진적인 농촌경리를 창설하는것이 중요하다.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먹는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여가지고서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없다.

우리 당은 원료와 식량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을 빨리 늘이고 그 장래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이를 위하여 당은 전후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따라 기술적개조에 앞서 농업협동화를 완성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의 지원과 선진적인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농업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갔다.

특히 우리 당은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고 수리화부터 먼저 하였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수리화에 큰 힘을 돌렸으며 전후시기에는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전인민적운동으로 수리화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논관개는 끝나고 발관개까지도 기본적으로 끝났다.

수리화와 함께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전기화도 오래전에 끝냈으며 종합적 기계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우리 당은 농촌경리의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알곡생산에만 편중되여있었던 지난날의 식민지적편과성

Digitized by Google

을 퇴치하고 알곡생산을 위주로 공예작물재배, 축산업, 과수업, 남새, 누에고치 생산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들을 다각적으로 동시에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처럼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현대적경공업기지가 창설되고 식량과 농산원료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선진적인 농촌경리제도가 창설됨으로써 경제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생산구조가 확립되게 되였다.

자체의 공고한 원료기지를 꾸리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공업을 건설하여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31페지)

자체의 원료기지를 창설강화함이 없이는 풍부한 국내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없고 공업생산의 정상화와 그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없다.

오늘 모든 나라들에서 원료, 연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실정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나서고있다. 더우기 세계적으로 심각한 원료, 연료난을 겪고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가 자체로 원료를 해결하는것은 아주 절실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원료기지를 축성하고 발전시키는데는 나라의 자연부원의 상태, 과학기술의 발전수준, 사회경제제도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여기에서 결정적영향을 주는것은 사회경제제도이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자원개발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며 자체의 공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원료생산을 계획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자체의 원료기지를 축성하는데서 자연부원의 상태는 그 물질적전제로 된다. 자연부원이 제한되여있는 나라는 자체의 원료기지를 축성하는데서 자연부원이 풍부한 나라보다 어렵고 힘들수 있다. 그러나 자원이 적은 나라라고 하여 원료문제를 자체로 풀수 없거나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없는것이 아니다.

매개 나라의 자연부원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도 탐사개발되지 않고있는 자원이 적지 않다.

자체의 원료기지를 축성하는데서 자원의 제한성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도 상당히 극복할수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원료문제해결에 새로운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합성원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원자재가 창조되고 대용자재가 널리 도입됨으로써 자원리용의 범위가 끊임없이 넓어지고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옳게 리용한다면 자기 나라 자연부원의 조건에 맞게 원료기지를 튼튼히 축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급속히 장성하는 원료에 대한 공업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연원료를 생산하는 채취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지난날에 가지고있지 못하던 가공원료, 화학원료 생산기지를 창설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였다.

오늘 우리는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급속히 장성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에 의거하여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가 자체의 원료기지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하여 모든 원료를 다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는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것, 많이 요구되는것은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원료자재는 유무상통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하여 해결하고있다.

우리는 자기의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리용하여 자기 나라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효과있

Digitized by Google

게 리용한다면 공업발전을 위한 원료의 압도적부분을 자체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기술혁명을 다그쳐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경제의 기술적락후성을 없애지 않고는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할수도 없으며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킬수도 없습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제1권, 267페지)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인민경제를 최신기술로 장비하여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기술적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한 뒤떨어진 농업국가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게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혁명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며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는 숭고한 혁명과업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규정하였다.

우리 당은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과학기술을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였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는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높이 발휘시켰으며 우리 나라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기본을 두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적성과들과 경험들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받아들였다.

우리 당은 또한 군중을 적극 동원하고 그들의 창발성을 최대한 발양시키는 방법으로 기술혁명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리기 위하여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문화혁명과 결부하여 기술혁명을 밀고나가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들속에서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소극성, 보수주의를 없애고 대중자신이 기술혁신을 위하여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을 홀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편향을 경계하면서 기술발전에서 로동자와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케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기술혁명을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난날 기술경제적으로 뒤떨어졌던 나라들에서 경제의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모든 부문을 최신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는것은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해야 할 혁명과업이다. 이로부터 기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기술혁명의 단계를 옳게 설정하고 매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과업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정도와 조성된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먼저 5개년계획기간을 기술적개건의 첫단계로 규정하고 이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음으로써 앞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을 마련할 과업을 내세웠다.

당은 기술적개건의 다음 단계인 7개

Digitized by Google

넌계획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적개건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의 과업은 중공업자체의 기술장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밑에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최신기술의 토대우에 옮겨세우는것이였다.

우리 당은 전면적기술개건과 공업화의 과업을 완수한 다음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할데 대한 독창적인 기술혁명방침을 제시하였다.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멀리 앞으로 전진한 오늘 당은 그것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이와 같이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력사적으로 넘겨받은 기술경제적 락후성은 완전히 청산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다.

3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첨예한 문제의 하나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인재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자금도 적었고 원료와 자재도 모자랐으며 기술력량도 적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25페지)

지난날 식민지농업국가였던 나라들에서 인민이 주권을 잡은 다음 새 사회 건설에서 부닥치게 되는 가장 큰 난관의 하나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요구되는 방대한 자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이 문제는 매우 날카롭게 나섰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경제는 매우 락후하였고 그것마저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였기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요구되는 자금원천이 매우 적었다. 거기다가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는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에 많은 힘을 돌릴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자금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난관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당은 아무리 어렵고 곤난이 많아도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자체의 힘으로 자금문제를 풀것을 결심하고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우리 당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요구되는 자금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기 위하여 우선 국내에서 축적을 끊임없이 늘일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우리 당은 축적이 없이 그저 버는대로 다 때려먹고 소비해버리는 방향으로 나갈수 없었으며 반드시 앞날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축적을 끊임없이 늘여야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선 문제는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바로잡는것이였다.

우리 당은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데서 축적을 선차적으로 끊임없이 늘이는 기초우에서 소비도 동시에 빨리 늘이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을 견지한것은 축적과 소비의 그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편향을 극복하고 경제토대의 축성과 인민생활의 향상,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적리익과 당면한 리익을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요구되는 자금을 자체로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자금문제의 해결방도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것은 인민경제 내부축적을 끊임없이 늘이는것이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인 공업의 내부축적을 늘이는데 기본을 두고 자금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물론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뒤떨어진 농업국가였던 나라들에서는 공업의 기초가 마련되기까지는 공업의 내부

Digitized by Google

축적이 많지 못하고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이 농업부문에서 창조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하여 얼마동안 농촌에서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일단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쌓은 다음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데로 방향을 돌렸다. 이 때로부터는 공업화의 자금을 전적으로 공업자체의 내부축적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하였다. 공업이 전적으로 자금을 담당하면서 농업에 재정적지원을 주게 한 조치는 나라의 공업화와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을 동시에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금문제를 푸는데서의 새로운 경험으로 된다.

우리 당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요구되는 자금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푸는데 있어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인민대중의 창조적열성을 발양시키며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된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 투쟁은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내부예비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자금문제를 해결한 산모범으로 된다.

우리 당은 자금문제의 해결에서 내부축적을 늘이는것과 함께 축적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도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우리 당은 생산적건설을 비생산적건설에 앞세우고 생산적건설에서도 중공업건설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공업에서도 경공업과 농업,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건설에 집중하였다. 이와 함께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건설의 매 단계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복구와 개건, 신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였으며 건설대상의 선후차를 옳게 규정하고 기본건설투자를 분산시키지 않고 중심고리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첨예하게 나섰던 자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었다.

우리의 경험은 비록 뒤떨어진 나라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축적을 끊임없이 늘이고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잠재력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며 축적된 자금을 합리적으로 리용한다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요구되는 자금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자체의 민족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자체의 민족기술간부를 길러내야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정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공장, 기업소들을 자체의 힘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다.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밑에 있었던 우리 나라에는 해방직후 민족기술간부가 대단히 모자랐다. 이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새 사회 건설에서 가장 큰 난관의 하나였다.

우리 당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첨예하게 나서는 민족기술간부문제를 국내에서 자체의 힘으로 푸는데 기본을 둘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세우고 철저히 관철하였다. 자체의 힘으로 민족간부를 길러내야 자기 나라 실정을 잘 알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선 기술인재들을 짧은 시일안에 대량적으로 길러낼수 있으며 인민경제와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따라세울수 있다.

우리 당은 민족기술간부를 자체의 힘으로 푸는데 있어서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는것과 함께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가 노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한편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하여 꾸준

Google

히 노력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71페지)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여 새 사회 건설에 적극 인입하는것은 지난날 식민지예속밑에서 자기의 민족기술간부를 가지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오랜 인테리들을 새 사회 건설에 적극 인입하여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인테리로 교양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절대다수의 오랜 인테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방침에 무한히 고무되여 해방후 인민의 편에서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들은 당의 꾸준한 교양과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통하여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훌륭한 인테리로 개조되였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여 새 사회 건설에 적극 인입하는 한편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키우는데 가장 큰 힘을 돌렸다.

우리 당은 나라의 형편이 매우 어렵고 많은것이 모자랐던 해방후 첫시기부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전행정에서 어떤 어려운 정황에 부닥치더라도 민족기술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혁명적방침을 견지하였다.

우리는 해방직후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간부양성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전후복구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학을 먼저 세우고 민족기술간부양성사업에 더 큰 힘을 넣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지방마다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를 꾸리도록 하였다.

기술인재를 육성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고 교육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고 로동계급적선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시종일관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규적인 교육체계와 함께 공장대학, 야간 및 통신교육망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많은 핵심로동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하여 민족기술간부로 육성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민족기술간부대렬을 끊임없이 키우고 늘이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수많은 건설장들은 문자 그대로 실천투쟁속에서 기술일군들을 키워내는 간부양성기지로 전변되였으며 용광로와 발전소를 일떠세우고 공장들을 건설하는 과정은 곧 수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위력하고 생활력이 강한 완전한 사회주의적자립적민족경제로 전변되였다.

지금 일찌기 없었던 경제적파동이 세계를 휩쓸고 많은 나라들이 원료위기, 연료위기, 동력위기, 식량위기를 비롯한 경제적난국을 겪고있지만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세계적인 경제적파동과 경제위기의 그 어떤 영향에도 끄떡하지 않고 제발로 자신만만하게 더욱 빨리 발전해나가고있다.

우리는 강유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자체의 튼튼한 경제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의 경제적자립은 또한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믿음직한 물질적기초로 되고있다.

우리의 경험은 낡은 사회로부터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은 크지 않은 나라라 하더라도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한다면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으며 민족의 번영과 륭성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Digitized by Google

기술개조에서의 주체적립장과 인민경제의 현대화

강 광 근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과정자체가 기술공정으로 되여있으며 기술을 개조하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통하여 생산과 건설이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떠나서는 대규모사회주의적생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기술개조를 다그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수 없다.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킨데 대한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은 기술개조를 다그쳐 로동생산능률을 빨리 높일 때 성과적으로 달성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부의 생산이 빨리 늘어나며 근로자들의 로동이 더욱 헐하고 흥겨운것으로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기술개조사업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주체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기술을 개조해나갈수 있으며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기술을 개조하여나가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현대화방침은 주체적인 기술개조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사업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기술개조사업이다. 그것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높이고 모든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하기 위한 방대한 사업이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심화해나가야 할 장기적인 과업이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사업의 이러한 특징은 기술개조에서 주체적인 립장을 더욱 튼튼히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현대화에서 나타날수 있는 편향들을 미리 막을수 없게 되며 기술개조에서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할수 없게 된다.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인민경제를 현대화해나간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기술수준을 높여가지고 한걸음한걸음 올라가는 방법으로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현대화방침의 중요한 요구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기술을 개조해나가는것이다.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것은 쓸모가 없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

Digitized by Google

술만이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쓸모있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여왔으며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사업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술만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기술개조사업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할뿐아니라 자체의 기술수준을 높여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현대화방침의 또하나의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뒤떨어진 기술을 한꺼번에 최신기술로 개조하여야만 현대화가 되는것이 아니다. 비록 최신기술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의 기술보다 조금이라도 발전된 기술로 개조하면 그것은 곧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으로 된다.

최신기술이라 하는것도 결코 절대적인것이 아니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것이다. 오늘은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낡은것으로 되게 되며 보다 발전된 기술에 의하여 교체되게 된다. 그러므로 낡은 기술을 최신기술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은 끊임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낡은 기술을 한꺼번에 다 최신기술로 개조할수는 없다. 기술개조의 목표와 속도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기술수준에 의하여 중요하게 규정되게 되며 밑천이 마련됨에 따라 그 당면목표가 더욱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는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체의 기술수준을 높여가지고 한계단한계단 올라가는 방법으로 계속 기술을 개조하여나가야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착실하게 해나갈수 있으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자신심도 안겨줄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인민경제의 현대화방침은 그 어떤 편향도 없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아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도 하나의 혁명인것만큼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와의 투쟁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33페지)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이며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그릇된 사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어려운 과업이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건설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튼튼히 쌓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쳐야 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생산의 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경제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보장하며 새로운 기술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연부원을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을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쳐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려면 기술개조에서 나타날수 있는 그릇된 사상요소들과 편향들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과정에는 현대화에 대한 신비주의와 다른 나라 기술에 대한 숭배사상이 나타날수도 있으며 현대화를 단꺼번에 하려는 조급성이 생길수도 있다. 이러한 사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기술개조에서 여러가지 편향을 범하게 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Digitized by Google

쌓는데 커다란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우리 일군들의 기술수준을 높이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해나가면 이러한 편향들을 다같이 미리 막을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일군들의 기술수준도 빨리 높이고 기술개조의 높은 속도도 계속 유지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기술개조사업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그 어떤 편향도 없이 인민경제를 현대화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아나가는 곧바른 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인민경제의 현대화방침은 또한 사람들의 사고발전법칙을 옳게 리용하여 기술개조를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고는 점차적으로 발전한다. 한가지를 연구하면 다른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완성하면 또 다른 착상이 떠오르는것이 사람들의 사고발전의 법칙이다.

사람들의 사고발전의 이러한 법칙을 옳게 리용하여야 자체의 힘으로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성과를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사업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다. 사람들의 사고발전의 법칙을 무시하면 기술개조에서 나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빨리 풀어나갈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인민경제의 현대화방침에 따라 일군들의 기술수준을 높이면서 하나씩하나씩 기술을 개조해나가는것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의 사고발전의 법칙을 옳게 리용하여 나라의 경제를 빠른 시일안에 발전된 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울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은 하지도 못할것을 꿈꿀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민경제의 현대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자체의 힘으로 기술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현대화의 속도도 계속 높여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인민경제의 현대화방침이야말로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기술수준을 빨리 높이게 하는 주체적인 기술개조방침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전진시키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인민경제의 현대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기술개조사업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강력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과 튼튼한 과학기술력량이 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온 귀중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해방후 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완수하였으며 오늘과 같이 발전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공작기계라는 말조차 몰랐으나 오늘은 현대적인 공작기계들은 물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해내고있으며 생산을 자동화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와 자재들도 자체로 만들어내고있다. 해방직후 우리 농촌에서는 광솔불을 켜고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수차를 돌려 논에 물을 퍼올렸지만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전기화, 수리화의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기계화, 화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 오늘은 농업의 완전한 공업화를 가깝게 내다보는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지난날 자체의 민족기술간부를 가지고있지 못하였던 우리나라가 오늘은 100만이 넘는 인테리의 대부대를 가지고있으며 현대적인 대규

Digitized by Google

모사회주의경제를 자체의 민족간부로 훌륭히 관리운영하고있다. 실로 이것은 력사에 길이 빛날 비약적인 전진이다.

해방후 빈터우에서 시작하여 오늘과 같이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는 과정에 쌓아올린 자랑찬 성과와 귀중한 경험들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커다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앞으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기술개조사업을 다그쳐나갈수 있다는 굳은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도록 고무추동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위력한 경제토대와 과학기술력량을 어떻게 동원리용하며 이미 쌓은 경험들을 어떻게 살려나가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토대와 과학기술력량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고 기술개조에서 이미 이룩한 경험을 옳게 살려 자체의 힘으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하루빨리 보다 발전된 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서 당면한 과업은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리용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부문부터 그리고 자금을 적게 들이고 쉽게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하나씩 현대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부문부터 현대화해나가는것이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들을 하루빨리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 있다. 그러므로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부문부터 현대화하는것은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목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차적인 요구로 된다.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부문부터 현대화하는것은 또한 로력의 긴장성을 풀고 로동생산능률을 빨리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실업자가 없고 로력이 모자라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고있다. 더우기 경제가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로력문제가 계속 긴장하게 나서고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당면하게 나서고있는 로력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결정적인 방도는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부문부터 현대화하여나가는데 있다.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부문부터 현대화하여야 로동생산능률을 결정적으로 높여 더 많이, 더 좋게, 더 쉽게 생산할수 있으며 많은 로력을 절약하여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로력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혁명 특히 3대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어렵고 힘든 로동이 많이 없어졌다.

우리는 기술혁명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아직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이 남아있는 부문들에서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 특히 탄광, 광산들에서 갱작업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며 경제관리에서 계산통제수단들을 현대화하는것을 비롯하여 힘든 로동과 품이 많이 드는 로동을 없애기 위한 당면한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헐하고 빨리 하면서도 많은 로력을 절약할수 있게 해야 한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서는 또한 자금을 적게 들이고 쉽게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하나씩 현대화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Digitized by Google

기술을 개조하는데는 많은 자금이 들게 되며 따라서 자금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기술개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당면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다같이 기술을 개조해나가야 하는 현실은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문제를 옳게 풀어나갈것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

자금문제를 풀면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자금을 적게 들이고 쉽게 할수 있는것부터 점차적으로 현대화하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쉽게 할수 있는것부터 시작하여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높여 새로운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그것을 생산에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착실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을 심화발전시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기계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506페지)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새로운 보다 선진적인 기계설비들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투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인민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하여서는 기계공업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작기계생산에 큰 힘을 넣고 대형설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소재생산과 가공에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된 기계설비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현대화된 공업의 가장 높은 형태는 자동화된 공업이며 생산의 자동화는 곧 인민경제의 현대화의 기본목표로 된다.

생산을 자동화하기 위하여서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전자관과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동화요소들과 자동화 기구 및 계기의 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자체의 힘으로 질높은 자동화 요소들과 기구, 계기들을 많이 만들면 생산을 빨리 자동화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어렵고 힘든 로동을 완전히 없앨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현대화를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조직지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지 않고서는 과학과 기술을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없으며 기술을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수 없다.

지도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며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 과학기술도서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철저히 조직화, 계획화해야 하며 자체의 과학기술수준을 빨리 높이면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Digitized by Google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백년대계와 관련되는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는 사업이나 당면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경제사업이나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다 과학기술을 소유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23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기술간부의 대부대가 튼튼히 꾸려진 오늘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면 인민경제의 현대화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데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대단히 많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과 재능과 정력을 다 바침으로써 당과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앞에 나선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려면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생산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2월17일과학자돌격대》들의 투쟁성과는 이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지난해 우리의 과학자들은 당의 지도밑에 《2월17일과학자돌격대》를 뭇고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전투장들에 달려나가 생산현장에서 그 해결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포착하였으며 생산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그것을 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리하여 국가의 큰 투자없이 짧은 기간에 김책제철소의 선탄기 능력을 2배이상 늘인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러므로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실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대담하게 착상해야 하며 생산자들과 힘을 합쳐 현실이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투쟁을 판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자질을 빨리 높여나가야 한다.

오늘 과학과 기술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적자질을 빨리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지 않고서는 최신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할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현대화도 다그칠수 없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적자질을 높이는것을 중요한 전투적과업으로 삼고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최신과학기술의 추세를 환히 꿰들고있어야 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인민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의 몇가지 특징

방 철 수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야수적탄압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남조선에서 줄기차게 일어나고있는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짓밟고 온갖 야수적탄압만행을 감행하고있는 《유신》파쑈독재를 때려부시고 인간의 존엄과 자주적인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유신》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는 날이 갈수록 더욱 많은 계급과 계층들이 떨쳐나서고있으며 투쟁은 점차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확대발전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파쑈독재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력량으로 장성강화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참다운 인간의 자주성과 존엄을 찾을수 있다.

* *

오늘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 인간의 자주성과 존엄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동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날로 확대발전하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는 종전에 볼수 없었던 일련의 새로운 특징들을 찾아볼수 있다.

최근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 대렬이 날로 확대되고 민주화운동의 대중적지반이 더욱 강화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은 남조선의 모든 혁명력량과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망라하는 대중적투쟁으로 발전할 때에만 승리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92페지)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전례없이 방대한 폭압력량을 발동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조건에서 광범한 대중이 투쟁에 나서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 그리고 언론, 출판기관들이 파쑈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민주화투쟁이 대중화될수 있는 객관적조건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의 민주화투쟁은 많은 경우 청년학생들의 투쟁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지고있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의 대렬에는 청년학생들뿐아니라 언론인, 지식인, 종교인, 대학교수들과 지어 법조계 인사들과 제야정치세력을 비롯한 실로 광범한 계급과 계층들이 망라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동아방송》 기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언론인들의 투쟁은 넓은 지역에로 급격히 파급되여 대중적인 투쟁으로 확대되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남조선당국자들의 부당한 책동에 의하여 신문사들에서 쫓겨난 기자들은 《동아일보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조선일보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뭇고 《유신》파쑈독재를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벌렸으며 현직기자들도 그들을 적극 지지하여 련대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남조선언론인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대학교수들도 그 대렬에 많이 들어서고있다. 남조선대학교수들은 지난 기간 남조선당국자들의 야수적탄압에 불만을 품고있으면서도 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마당에는 나서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날로 우심해지는 놈들의 횡포무도한 탄압만행을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어 정면으로 맞서 나서고있다.

지난해 6월 전남대학교의 교수들이 남조선당국자들의 《국민교육헌장》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것을 비롯하여 날이 갈수록 많은 대학교수들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대렬에 들어서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부당한 조치에 의하여 대학에서 쫓겨난 500여명의 대학교수들은 《해직교수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뭇고 끝장이 날 때까지 괴뢰당국자들을 반대하여 싸울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언론인들과 대학교수들의 투쟁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더욱더 정치적으로 각성되고있으며 실천행동으로 악독한 파쑈독재에 단호히 항거해나서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그들의 투쟁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반파쑈민주화투쟁에는 종교인들도 적극 참가하고있다.

지난 시기에 종교인들은 현실을 외면하여야 한다는것을 주장하면서 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조선통치배들의 파쑈적탄압속에서 종교마저 마음대로 믿을수 없게 된 남조선종교인들은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결국 놈들을 위한 제물로밖에 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합류해나서고있다.

종교인들은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기도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교행사를 벌려놓고 《유신》독재가 하루빨리 망할것을 절절히 호소하고있으며 나아가서는 남조선괴뢰도당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투쟁에 집단적으로 떨쳐나서고있다. 지난해 전주에서 500여명의 신도들이 《박정권퇴진하라》, 《유신독재타도하자》는 구호를 들고 시위투쟁을 벌린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남조선사회의 참혹한 현실을 보고도 감히 말을 못하던 종교인들까지 종교의 교리와 그 테두리를 벗어나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날로 확대강화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에는 재야정치세력들도 합세해나서고있다.

이 투쟁에는 전 괴뢰대통령과 《대통령》후보 그리고 지난날 괴뢰권력기구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널리 참가하고있다.

특히 최근시기 신민당을 비롯한 남조선야당들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신민당은 지난 7월 괴뢰국회에서 현 파쑈통치자의 1인장기집권을 뒤받침하고있는 《유신헌법》을 페지하고 《긴급조치》를 철페하며 공화당이 정권에서 물러날것을 공공연히 요구하여나섰으며 파쑈독재자들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 완강히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극악한 파쑈폭정으로 더러운 잔명을 조금이라도 더 부지해보려고 발악하는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고있으며 놈들을 커다란

Digitized by Google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광범한 대중으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있으며 놈들의 파쑈통치가 걷잡을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나타나고있는 중요한 특징은 또한 이 투쟁이 보다 조직화되여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단합된 힘으로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92페지)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각이한 계층들사이의 단합을 이룩하는것은 남조선에서 《유신》파쑈독재를 때려부시고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강대한 폭압력량을 가지고있는 파쑈독재와의 정면투쟁이다. 가장 악랄하고 횡포한 파쑈독재와의 대결에서 산만하고 분산적인 공격으로써는 결코 승리를 기대할수 없다. 단합할수 있는 모든 력량이 다 단합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결합될 때 반동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에 대한 민주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할수 있으며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 인민대중은 다같이 파쑈독재를 때려부시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그들이 실제적으로 민주화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남조선의 민주세력들을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묶어세울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최근에 와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에서는 지난 시기의 분산성과 산만성을 많이 극복하고 각계각층의 투쟁세력들이 서로 단합하여 집단적으로 항거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반파쑈민주화운동에서 여러가지 투쟁단체들이 많이 무어지고 그들사이의 련합이 이루어지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한국인권운동협의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투쟁조직들이 나온데 이어 《민주주의국민련합》이 무어졌다.

《민주주의국민련합》은 12개의 투쟁단체와 각계각층의 대표 500여명을 망라하고있다. 이 조직은 투쟁강령에서 《유신》독재를 타파하기 위하여 《반독재민주국민의 대련합에 기초한 대중투쟁》을 벌리며 예속경제를 반대하고 민족자립경제를 건설하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립각한 평화적조국통일을 실현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올해에 새로 결성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련합》은 이미 있던 《민주주의국민련합》과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남조선에서 통일기운이 급속히 높아지고있는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통합하고 확대개편한것이다.

이 조직은 창립선언에서 조직의 성격을 《민주회복으로써만 민족통일을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민주진영의 대표기관》이라고 밝히고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회복은 물론 조국의 평화통일이 달성되는 날까지 완강하게 투쟁을 계속한다.》고 다짐하였다.

파쑈적탄압이 살판치는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련합》이 결성되여 활동하고있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의 조직화과정이 심화발전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은 남조선민주세력들이 최근에 벌리고있는 일련의 투쟁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최근년간 《유신》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대중적인 투쟁이 그 실례로 된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미리 예고한대로 서울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 학생

Digitized by Google

련합궐기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에는 청년학생들과 종교인, 언론인,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많은 서울시민들이 참가하였다. 특무들과 반동군경들의 삼엄한 감시속에서 한두사람도 아니고 3천~4천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같은 시각에 한자리에 모여 집단적인 투쟁을 벌렸다는것은 조직적인 힘의 안받침이 없이는 어려운것이다.

올해 6월 카터놈의 남조선행각과 때를 같이하여 벌린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도 역시 그러하였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 종교인, 재야정치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일제히 카터의 남조선행각과 남조선피뢰도당의 인권탄압을 반대하는데 불을 걸고 공동투쟁에 나섰던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이 이전과는 달리 점차 조직적으로 련결되고 공동보조를 취해나가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이 박정희피뢰도당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 합당하기로 하였다. 남조선에서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의 합당조치는 파쑈독재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민주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된다.

이와 같이 최근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은 날이 갈수록 조직된 력량으로 결속되여 공동투쟁에로 나아가고있다.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그것이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고있는것은 최근시기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나타나고있는 새로운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되고있다.

지난날 남조선에서 줄기차게 벌어진 민주화운동이 간고한 길을 걸어오면서도 응당한 높이에로 발전하지 못한 주되는 요인의 하나는 로동자들의 투쟁이 미약하고 로동운동과 각계층 인민들과의 투쟁이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지 못한데 있었다.

원래 남조선로동계급이 청소한데다가 파쑈통치배들의 탄압이 심하고 놈들이 《한국로총》과 같은 어용로조를 발동하여 로동운동을 와해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여왔다. 따라서 지난날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의 투쟁은 대중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종전까지만 하여도 대체로 초보적인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경제투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최근년간에 남조선에서 로동계급의 대렬이 일정하게 늘어나고 박정희피뢰도당의 야수적탄압과 수탈책동이 더욱 악랄해짐에 따라 남조선로동자들은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보다 대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고있다.

지금 남조선로동자들은 임금인상이나 밀린 임금을 받아내며 초보적인 생활조건을 보장받기 위한 경제투쟁과 함께 어용로조를 배격하고 참다운 로동자들의 정치조직을 내오는것과 같은 요구를 제기하고 정치투쟁을 벌리고있다.

서울평화시장 로동자들과 인천동일방직회사 로동자들의 투쟁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전태일의 분신자살사건을 계기로 각성된 서울평화시장 로동자들은 지난해 빼앗긴 권리와 자유를 찾기 위한 《결사선언》을 내걸고 완강한 투쟁을 벌리였다. 그들은 《결사선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참을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죽어만 갈수 없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로동자들의 진정한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한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이 한사람이 쓰러지면 또 한사람이 쓰러지는 죽음의 항쟁을 선언한다.》고 하면서 매우 격렬한 투쟁을 벌렸다.

인천에 있는 동일방직회사 로동자들의 투쟁은 남조선로동자들이 어용로조를 배격하고 자기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진정한 로동조직을 가지려는 열망이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말하여주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동일방직회사 로동자들은 이미 1972년에 완강한 투쟁을 벌려 반동적인 어용로조를 배격하고 자기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로조를 새로 결성하였었다. 이에 당황한 남조선파쑈도당은 그것을 해체하고 저들에게 순종하는 어용로조를 또다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리하여 자기들의 로조를 지켜나가기 위한 이곳 녀성로동자들과 그것을 파괴하고 어용로조를 만들려는 괴뢰도당사이에는 치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로동자들은 괴뢰경찰과 깡패들이 퍼붓는 인분벼락을 맞으면서도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굴함없는 투쟁을 벌렸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이러한 투쟁은 남조선의 많은 공업부문에 끊임없이 확대되여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외신들까지 《지금에 와서 박정권의 전도문제는 로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론평한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진출이 강화됨에 따라 민주세력들속에서 그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련대성운동이 더욱 적극화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로동자인권대책협의회》, 《동일방직사건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조직들을 묶고 련대성운동을 벌려나가고있으며 자기들의 투쟁에서도 《로동3권을 보장하라》, 《로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등 로동자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구호를 전면에 들고나오고 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서 더욱 확대발전하고있다.

서울 와이에취무역회사로동자들의 투쟁은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의 완강성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지난 8월 남조선의 와이에취무역회사로동자들은 회사측의 부당한 해고를 반대하여 들고일어났으며 신민당청사에 자리를 잡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그런데 파쑈통치배들은 야밤삼경에 2천여명의 기동경찰을 내몰아 신민당청사를 습격하여 총칼과 경찰곤봉을 휘두르고 최루탄까지 쏘아대면서 로동자들과 신민당인사들, 취재기자들을 마구 붙잡아갔으며 녀성로동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죄행까지 감행하였다.

로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신민당이 롱성투쟁에 들어갔으며 남조선의 《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인들,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 청년학생들이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투쟁에 합류해나섰던것이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로동계급이 더욱더 각성되고있으며 괴뢰도당의 파쑈폭압속에서도 그들의 진출이 보다 대중화되고 적극화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혁명의 기본계급인 로동계급이 일떠서기 시작하고 그들과 민주세력들사이에 련대성운동이 강화되고있는것은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이 더욱 확대강화될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날로 확대강화되고있는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파쑈독재의 필연적산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포악하고 파렴치한 파쑈통치가 실시되고있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만들어놓고 여러가지 파쑈악법과 방대한 폭압기구를 동원하여 인민대중의 기본권리를 여지없이 짓밟고있으며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5페지)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쑈통치는 횡포성과 야만성, 포악성과 파렴치성에 있어서 력사상 류례없는것이다.

인민탄압에 이골이난 남조선통치배들

Digitized by Google

은 동서고금의 력대파쑈통치자들의 통치방법을 훨씬 릉가하는 가장 악랄한 군사파쑈독재를 실시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집권이래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5천여가지의 파쑈악법들을 꾸며냈으며 《유신》이후에만도 무려 3,500여건에 달하는 악법들을 개악 또는 조작하여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괴뢰도당은 방대한 파쑈폭압기구를 꾸려놓고 인민들을 탄압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중앙정보부》, 괴뢰군《보안사령부》, 헌병대, 사법, 경찰 등 정보특무망들로 뒤덮여있으며 수십만에 달하는 특무들이 남조선인민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통제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흔적도 찾아볼수 없는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로 전변되고말았으며 남조선인민들은 파쑈독재밑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당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고있는 불행과 고통은 절정에 이르고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들은 더는 그대로 파쑈폭압의 무서운 학정밑에서 살아갈수는 없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파쑈폭압을 맞받아 결연히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탄압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는 법이다.

인민대중이 파쑈폭압자들의 야수적탄압만행에 항거하여 투쟁하는것은 필연적이다. 남에게 억눌려 인간의 존엄과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유린당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그 누구도 자주성이 남에게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포악한 파쑈독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도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나가기 위한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참다운 인간의 존엄을 찾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침략자와 압제자들이 멸망하고 인민대중이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류례없는 파쑈폭압체제를 만들어놓고 저들의 마지막운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지만 그것은 인민들의 더욱더 큰 불만과 항의를 불러일으킬뿐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유신》파쑈독재에 련속 강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 오직 끊임없는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파쑈독재를 꺼꾸러뜨리고 승리할수 있다.

지금 파쑈독재가 무너지는것은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에서 파쑈독재가 련이어 무너졌으며 이란과 니까라과에서 오래동안 계속되여오던 독재정권이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독재자들의 죄과는 반드시 인민들에 의하여 계산되기 마련이다.

현실은 인민을 등진 파쑈독재자들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들의 비참한 운명은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의 파쑈독재정권은 반드시 꺼꾸러지고야말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미제의 《평화》구호는 침략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

명 창 선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진보적나라들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책동을 감행하는데서 교활한 《량면전술》을 쓰고있으며 특히 회유기만술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제의 우두머리 카터는 저들이 마치 침략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협조》를 원하고있고 국제문제들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며 세계평화에 그 무슨 《기여》라도 하고있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철면피하고 교활한 궤변이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이 결코 진정한 평화를 바랄수 없는것이다. 미제의 《평화》구호는 위선적인것이며 놈들의 요란스러운 《평화》의 부르짖음속에는 음흉한 침략야망이 숨어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허울좋은 《평화》의 간판을 리용하여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무마하고 세계여론을 제놈들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그 막뒤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보다 교활하게 벌리려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며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법입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12페지)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승냥이의 야수적본성이 변할수 없는것처럼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그의 침략적본성도 남아있게 된다. 다만 제국주의자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그 침략적, 야수적 본성이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형태를 띠고 나타날뿐이다.

허울좋은 《평화》의 가면을 쓰고 《친선》의 미소를 지으면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감행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궁지에 빠질 때마다 쓰고있는 상투적인 침략수법이다.

력사적사실들은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 때 그 막뒤에서는 전쟁의 흉악한 계획이 꾸며지며 《평화의 수호자》의 탈을 쓴 제국주의자들의 발길이 닿는곳마다에서 침략전쟁의 불길이 솟고 피비린내나는 살륙과 강탈이 감행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그가 어떠한 탈을 쓰고 나오든지간에 놈들이 추구하는 침략목적은 결코 달라질수 없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평화》구호는 곧 위장된 전쟁구호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평화》에 대하여 많이 부르짖고있다.

이것은 안팎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직면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 평화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념원과 시대적조류를 악용하여 저들의 위기를 모면하며 《힘》에 의한 정책에서 당한 패배를 어떻게 하나 만회해보려는 속심에서 들고나온 교활한 량면전술의 한 고리이다.

Digitized by Google

현 미국대통령 카터는 미제의 력대우두머리들가운데서 그 어느놈보다도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교활한 량면주의자이며 파렴치한 사기한이다.

카터는 자신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평화》의 구호를 요란스럽게 불어대고있으며 한편 그 막뒤에서 강도적인 침략정책을 계속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온 세계를 제놈들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변함없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의 이른바 《안보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되는 힘》으로 된다고 거리낌없이 떠벌이면서 군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세계도처에서 저들의 《전략적능력》을 높이기 위한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카터는 집권당시 《평화》요, 《긴장완화》요 하면서 미국의 군사비를 50억~70억딸라 삭감하겠다고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지금 미국에서는 력사상 류례없는 대대적인 군비증강책동이 벌어지고있다.

미국의 군사예산은 1977회계년도에 1천 130억딸라였다면 1979회계년도에는 1천 289억딸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것은 미국력사상 전례없는 최대규모의 전쟁예산이다.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미제는 지금 막대한 돈을 퍼부어 순항미싸일, 《트라이든트》잠수함, 《엠엑스》대륙간탄도미싸일 등 최신식 대량살륙무기들을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미제의 이와 같은 대대적인 군비경쟁과 무기개발이 바로 《힘》에 의한 세계침략정책수행에 복종되고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제의 세계침략정책에서 조선은 가장 중요한 대상의 하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하여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고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97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아세아에서의 저들의 종국적패망을 막기 위한 마지막지탱점으로 틀어쥐고 새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전조선과 아세아 나아가서 전세계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흉계로부터 남조선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카터는 남조선으로부터 짧은 시일안에 핵무기와 미군을 철거시키겠다는것을 《공약》하고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았다.

그러나 카터는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후 당초의 《공약》과는 달리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지상군에만 한》하며 그것도 단계적으로 철수할것이며 핵무기도 《즉각적으로 철수하지 않을것》이라고 요리조리 롱간을 부려왔다. 그러다가 얼마전에는 남조선에 기여들어 《힘》이 곧 《평화》라는 넉두리를 늘어놓고 《미국의 핵우산》으로 남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며 《평화와 안보》를 위해 저들의 침략군을 끌어가지 않겠다는것을 로골적으로 떠벌이면서 《철군공약》을 《철군동결》로 완전히 뒤집어엎어놓았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대세의 흐름과 사회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군》문제를 들고나왔었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제놈들의 침략목적을 은페하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였으며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보다 악랄하게 감행하기 위한 하나의 연막이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사실상 《철군》의 간판을 리용하여 남조선에서 무력을 증강하며 새로운 침략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쳐왔다.

최근년간 미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무력을 증강하고 남조

Digitized by Google

선 주변에 술한 군대를 끌어들이였다. 놈들은 저들의 공군부대들과 최신형 전투기들을 남조선에 들이밀고 해군기지들을 더 보강하는 놀음을 미친듯이 벌리였으며 신형 땅크를 비롯하여 지상무기들도 더 끌어들이려고 책동하고 있다. 놈들은 오끼나와를 비롯하여 조선주변에 있는 군사기지들에 륙해공군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유사시 《기동타격력》으로써 조선에 즉시 출동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고있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괴뢰도당에게 거액의 군사《원조》를 퍼부으며 현대적무기들을 넘겨주면서 남조선의 전쟁잠재력을 백방으로 늘여주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장비가운데서 8억딸라분의 무기 및 전투기재들을 남조선괴뢰군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으며 군사《원조》의 이름밑에 미싸일들과 전투기, 함선, 땅크를 비롯한 현대적인 살인무기들을 남조선괴뢰들에게 주고 있다.

한편 미제는 《유사시》에 조선전선에 투입될 대규모의 미제침략무력과 현지괴뢰군의 군사작전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휘》하기 위하여 이른바 《한미련합사령부》라는것을 조작해내고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소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지난 3월 17만명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팀스피리트 79》라는 최대규모의 《한미련합작전훈련》을 벌린것을 비롯하여 최근 남조선에서 더욱 빈번히 벌어지고있는 각종 전쟁연습소동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또한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사이의 《군사적일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우두머리놈들과 자주 만나 쑥덕공론을 벌리고있다. 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남조선과 아세아 지역에서 저들의 침략무력을 유지강화하고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사이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미제의 무력증강과 전쟁준비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날카로운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으며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강화되고있는 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험은 가셔질수 없으며 아세아에서 새 전쟁의 근원은 없어질수 없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말로는 조선에서의 《평화》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떠들어대고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로 《힘》의 립장에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제는 허울좋은 《평화》의 구호밑에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끊임없이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세계의 주요 전략적지역에서 벌리고 있는 미제의 침략정책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양과 중근동지역에 침략의 마수를 악랄하게 뻗치고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센토의 붕괴로 말미암아 당황한 미제는 인도양연안과 중근동지역에 있는 저들의 군사기지들을 더욱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새로운 군사요충지대를 장악하려는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 수십억딸라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중근동의 일련의 나라들을 군사적《원조》를 미끼로 꾀여내고 규합하여 이 지역에서 새로운 군사적침략의 지반을 닦아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페르샤만지역에서 자기의 해군무력을 계속 늘이고 새로운 제5함대의 창설계획을 추진시키고있으며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자주를 위한 혁명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11만명의 이른바 《신속반응무력》을 편성하는 《특별계획》까지 꾸며내고있다. 지금 미제는 이 지역에서 제놈들의 리권을 위해서는 무력행사를 서슴지않고 감행하겠다고

Digitized by Google

로골적으로 떠들어대고있다. 그리하여 인도양연안과 중근동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평화는 위협을 받고있다.

미제는 구라파에서 나토의 침략무력을 늘이고 그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으며 허물어져가는 나토를 유지강화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이처럼 미제는 세계 여러곳을 제놈들의 군사강점지역으로 만들며 그것을 거점으로 침략무력을 더욱 늘이고 주요전략적지역들에서 새로운 《전략체계》를 편성하며 괴뢰들에게 더 많은 무기를 대주는 등으로 침략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다.

조선과 세계도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파괴자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평화》구호의 기만성은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악랄하게 교살하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인민들의 〈독립〉과 〈자유〉를 표방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더욱 교활하고 음흉하게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인민들에게 또다시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우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26~327페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모든 국제문제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미제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카터는 미국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다음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는 되지 않을것》이라느니,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고도,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려고도 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댔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인민들을 우롱하기 위한 하나의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파괴암해활동을 강화하면서 인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독립을 위협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무엇보다도 《친선》과 《협조》의 간판을 정면에 내걸고 그 막뒤에서 의연히 폭력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말살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총칼로 억누르고있다.

세계 여러곳에 벌려놓은 미제의 군사기지는 침략과 전쟁의 거점인 동시에 현지인민들의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을 가로막기 위한 전초기지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그 어디에서보다도 군사력에 의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있다.

해방후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민족적자주권과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애국력량과 인민들을 총칼로 탄압하고 저들의 군사력에 의하여 조작된 괴뢰정권을 내세워 식민지파쑈통치를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다 거머쥐고 제놈들의 식민지지배를 유지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정책을 계속하기 위하여 괴뢰들을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에로 내몰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도당을 시켜 각종 파쑈악법들을 무더기로 꾸며내가지고 남조선인민들을 식민지철쇄로 얽어매놓았으며 그들에게서 보고 듣고 말할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다 빼앗았다. 놈들은 또한 남조선에서 악명높은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가 조종하는 남조선 《중앙정보부》와 경찰, 사법검찰 등 방대한 폭압기구들을 만들어놓고 남조선의 애국자들, 민주인사들, 인민들을

Digitized by Google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가혹한 형벌을 들씌우고있다.

미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가로막아나서면서 범죄적인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계속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두개 조선》을 꾸며내기 위하여 남조선안에서는 괴뢰들을 부추겨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국제무대에서는 남조선괴뢰정권을 《국가》로 승인받으며 《두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해보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있다.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가로타고앉아 벌리고있는 미제의 식민지정책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말살하기 위한 극악한 범죄행위이며 조선의 통일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이다.

이것은 《평화》의 간판밑에 남의 나라 령토를 빼앗고 인민들을 탄압하며 제멋대로 날치는 미제의 강도적수법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미제는 또한 《협조》와 《교류》를 표방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 이 지역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파괴암해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악명높은 미중앙정보국을 비롯한 수많은 첩보모략기구들을 통하여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정부요원암살, 정부전복음모, 내부교란, 정당, 사회단체들에 대한 습격, 개별적정치사회활동가들에 대한 테로 등 파괴암해활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악랄한 전복활동으로 일련의 나라들에서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것을 좌지우지하고있으며 그것들이 쓸모없이 될 때에는 주저없이 전복음모를 꾸며 새로운 괴뢰로 갈아대고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는 전복음모, 살인, 파괴 책동은 그 모두가 다 미제가 직접적으로 조작하였거나 놈들의 배후조종밑에 감행되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사실상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어느 하루도 소요와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다.

미제의 파괴전복활동에 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이 유린당하거나 침해당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미제는 특히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신흥세력나라들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분렬리간 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제는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을 분렬리간시키기 위하여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령토문제, 신앙과 제도의 차이, 경제적조건과 발전수준의 차이, 인종관계 등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나라들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서로 반목질시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정치, 군사적 대결에까지 이르게 하고있다.

인민들사이의 단결을 파괴하는 미제의 책동으로 하여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국부적인 분쟁이 계속되고있다. 이것은 자주, 독립, 사회적진보와 세계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미제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교살하며 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국제헌병으로서의 놈들의 흉악한 책동도 없어질수 없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겉으로는 《평화》요, 《협조》요 하고 떠들어대고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변함없는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더욱더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구호를 들고나섰다고 하여 그것은 결코 미제의

Digitized by Google

침략정책이 달라졌거나 그 침략적, 략탈적 본성이 변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본업으로,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줄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가짜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하며 《평화》의 막뒤에서 감행하는 놈들의 교활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더욱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화신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이다.

지구상에 미제가 살아있고 인민들을 억압하고 략탈하는 한 인민들은 잠시도 편안히 살수 없으며 세계의 평화도 담보할수 없다. 오직 미제를 반대하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고 반미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만 놈들의 온갖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이룩할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여달려도 제놈들의 침략정책을 가리울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갖은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고있으나 이로부터 놈들이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차례질것은 오직 더 큰 타격과 패배뿐이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반제투쟁의 시대이다. 날이 갈수록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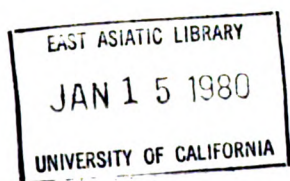
국제무대에서의 정세발전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그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으며 다른 한편 미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앙양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종국적으로 멸망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1979년 제10호(루계 450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9년 10월 1일　발 행•1979년 10월 5일

ㄱ—95252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Digitized by Google

11
1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EAST ASIATIC LIBRARY
JAN 15 1980
UNIVERSITY OF CALIFORNIA

11호

평 양 근로자사 1979

Digitized by Google

제11호(45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김 일 성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1979년 9월 27일)

동지들!

나는 먼저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로동행정부문에서 일하는 전체 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로동행정일군들은 지난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다음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는 로동행정부문에서 일하는 일군들의 투쟁업적이 크게 깃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1946년에 벌써 로동자들을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로동법령을 발포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로동에 참가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특히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부터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사회주의건설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이 쉼없이 발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가 훌륭히 건설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실업자가 한사람도 없을뿐아니라 일하지 않고 노는 건달군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같이 일하며 골고루 잘살고있습니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로동과 학습, 휴식을 배합하면서 문화적으로 생활하고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다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일하면서 공부하고있으며 아들딸들을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에서 돈한푼 들이지 않고 공부시키고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세계에 둘도 없는 《배움의 나라》로 되였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있으며 무료로 료양과 휴양을 보장받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아들딸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치료할 걱정, 세금낼 걱정, 빚물 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생활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모든 근로자들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떠한 걱정과 고통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나라로 되였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지상락원을 건설할것을 념원하였는데 그 념원이 바로 우리 로동당시대에 와서 실현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과이며 가장 휘황찬란한 승리입니다.

지난날 력사적으로 뒤떨어져있었으며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더미로 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매우 짧은 기간에 이처럼 훌륭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한데 대하여 세상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정당하였기때문이며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령도를 받들고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적극 투쟁한 결과입니다.

나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행정일군들이 쌓아올린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당의 정책을 받들고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는 지난해에 사회주의로동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1946년에 발포된 로동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앞으로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사회주의로동생활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요구를 뚜렷이 밝혔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사회주의로동법을 가진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생활에서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다그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사회주의로동법을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로동행정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고

Digitized by Google

물질적부를 창조하며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기때문입니다.

로동행정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사업을 단순히 로력자대렬을 보충해주고 직업이나 알선해주는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로동행정기관을 마치 직업소개소처럼 여기면서 모자라는 로력이나 채워주고 로동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로력을 조절해주고 학교졸업생들과 제대군인들을 배치하는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업에서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의 요구이며 방침입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의 목적은 바로 우리 당의 이 요구와 방침을 관철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일군들은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맡은바 사업에서 자기의 재능과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이 하여야 할 중요한 정치사업은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 로동규률규정을 근로자들속에 끊임없이 해석침투하며 대중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것입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 로동규률규정에 대한 해석침투사업을 잘하여야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생활에서 자기의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고 국가의 법령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규정한 여러가지 법규범과 규정들이 있지만 로동행정일군들이 그것을 해석침투하고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않고있습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 로동규률규정에 대한 해석침투사업을 잘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국가의 요구를 정확히 알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모두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철저히 반대하고 그들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인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일할수 있으며 로동과 학습, 휴식을 옳게 배합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가 좋은 구호입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 난관을 뚫고 용감히 싸웠으며 언제나 규률있고 질서있게 학습하고 생활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모두다 동지적으로

Digitized by Google

굳게 단합되여있었으며 그들에게는 관료주의, 주관주의가 없었습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의 이러한 혁명적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계승하고 따라배워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사회주의적로동생활규범대로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로력랑비현상을 없애며 로력을 고착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설비를 애호하고 자재를 절약하는것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로동법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의하여 우리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가 창조되며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한 생활과 래일의 보다 넉넉한 생활이 마련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당선전일군들앞에서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연설하면서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 공산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로동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사회는 결코 놀고먹는 사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입니다.

우리 당의 꾸준한 교양과 노력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로동과 생활기풍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와보고 조선인민은 모두 부지런히 일하며 씩씩하고 희망에 넘쳐 질서정연하게 생활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이처럼 세상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랑을 받는 인민으로 되게 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과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가지도록 교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이 낳은 응당한 열매이며 자랑할만한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지 않는다면 오늘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이 없게 된 조건에서 근로자들속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애써 일하지 않으며 로동을 싫어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싫든 좋든 일을 합니다. 남조선의 현실을 놓고보더라도 로동자들이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먹을것이 없게 되며 가족들을 살릴수 없게 됩니다. 남조선어민들은 좋은날 궂은날을 가리지 않고 사철 쪽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Digitized by Google

바다에 나가 고기를 다문 몇마리라도 잡아야 그것을 팔아서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죽이라도 먹일수 있으며 앓는 부모에게 약 한첩이라도 사다 대접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민들은 생활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잘살고있습니다. 지난날 굶주리고 헐벗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먹고 입는데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있으며 지난날에는 학질을 앓아도 학질약 한알 사먹을수 없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병치료할 걱정을 모르고있습니다. 지난날에는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아들딸들을 공부시킬 걱정을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에서 근로자들에게 거저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쌀을 공급해주고 세금도 받지 않기때문에 로동자들이 며칠만 출근하여 일하여도 한달동안 먹고 살수 있는 돈을 벌게 됩니다. 또한 어로공들이 얼마동안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밥을 먹을수 있고 병치료를 받을수 있으며 아이들을 공부시킬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이 넉넉하여지고 근심걱정이 없게 되니 일부 근로자들속에서는 일을 열성껏 하지 않으며 또한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헐한 일만 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진심으로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속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로동을 성실히 하지 않는 현상에 대하여 물론 통제도 하고 일정한 제재도 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오직 꾸준한 교양을 통해서만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로동을 계속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합니다.

자본가들은 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고된 로동을 강요하며 자본주의사회의 근로자들은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 힘든 로동이라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계속 힘든 일을 시킬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높은 능률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제5차대회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웠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업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채취공업부문과 기본건설부문을 비롯하여 일부 인민경제부문들에는 아직도 힘든 로동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힘든 로동을 헐한 로동으로 만들어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실현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문제를

Digitized by Google

반드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로력이 모자라는 문제도 풀수 있고 사회주의로동법도 철저히 관철할수 있습니다.

로동규률을 강화하며 로력랑비현상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로동규률을 세우는데서 모든 근로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지 못하고있는데 그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자재와 공구, 지구를 제대로 대주지 못하고 로동조건을 잘 보장해주지 못하기때문입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직맹조직들과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 꾸린 표준공장들에서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을 보장해주는데서 얻은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로력을 랑비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습니다.

올해 모내기전투때 지방공업부문에서는 25%이상의 로력을 농촌지원사업에 동원하고도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업부문에서 25%이상의 로력을 필요이상 더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또한 공장, 기업소들의 한달생산정형을 분석하여보면 대체로 상순과 중순에는 생산을 얼마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하순에 가서 돌격전을 하여 월생산계획을 수행하고있는데 이것도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력을 필요이상 많이 가지고있으면서 랑비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생산을 이와 같이 정상화하지 못하고 월말에 돌격식으로 하니 많은 로력을 랑비할뿐아니라 설비를 혹사하게 되고 제품의 질도 높일수 없게 됩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는것은 자재가 제때에 보장되지 않고 협동생산규률이 문란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자재를 제때에 대주고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력을 고착시키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하겠습니다.

로력을 고착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설비를 잘 관리할수 있으며 생산을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평안북도 삭주직물공장의 로동자들은 모두 가정부인들이지만 한공장에 오래 고착되여 일하기때문에 기술기능수준이 높으며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질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제지도일군들은 로력을 고착시키고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무턱대고 로력을 자꾸 늘이려고 합니다. 당조직들과 직맹조직들 그리고 로동행정일군들은 로력을 고착시키지 않고 자주 이동시키며 로력을 무턱대고 늘이려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설비를 잘 관리하며 자재를 아껴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설비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원료, 자재가 많아야 로동자들이 마음껏 일할수 있고 생산을 높일수 있습니다.

설비관리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설비를 직접 다루는 로동자들이 설

Digitized by Google

비를 사랑하고 알뜰히 거두며 설비를 표준조작법대로 움직이고 제때에 점검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에서 공장, 기업소들에 설비보수자재를 제때에 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있는 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습니다.

지금 공장, 기업소들에 설비보수자재를 제대로 대주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황해남도를 현지지도하면서 해주제련소에 가보니 린비료생산설비를 제때에 보수하지 않아 생산을 계속할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 정무원에서 설비보수자재를 해결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설비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우선적으로 내놓고 공장, 기업소들에 제때에 대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분배원칙,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실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이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을 정확히 받도록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여야 합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로동정량을 정기적으로 검열하고 잘못된것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하며 로동정량을 1~2년에 한번씩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로동보수를 높여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로동정량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로동보수를 높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로동정량이 높아지는것을 좋아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따라 로동자들의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을 높여주면 로동자들자신이 기술혁신을 하며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로동정량을 높이고 로동자들이 그것을 수행하면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므로 로동자들의 로동보수를 더 높일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산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부를 늘이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협동농장들에서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가 비교적 잘 실시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황해남도 신천군 새길협동농장에 가보았는데 이 농장에서는 100정보당 3대의 뜨락또르를 가지고 한사람이 논밭을 0.8정보씩 다루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서는 지원로력을 하나도 받지 않고 농장자체의 로력으로 농사를 지어 올해에 벼를 정보당 9.7톤씩 내게 되였습니다. 이 협동농장의 농장원 한사람당 생산액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이런 모범적인 사실이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가 잘 실시되지 않고있습니다. 로동자들이 설비를 잘 관리하고 자재를 절약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생산을 많이 내면 그들에게 차례지는 로동보수가 그만큼 많아져야 하겠는데 그런것이 없기때문에 로동자들이 로동정량을 높이고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늘이는데 관심이

Digitized by Google

없습니다.

지금 기본건설부문에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높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바로 로동정량사업을 잘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로동정량을 높이 정하고 모든 로동자들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을 혁신하고 표준조작법을 잘 지키며 자재를 아껴쓰고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일수 있습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도 자재를 제때에 대주고 로동조직을 잘하여 노는 사람이 없이 모든 로동자들이 다 능력껏 일하도록 하면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이 훨씬 높아지게 될것입니다.

지난 기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1만 5,000원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의 임무일뿐아니라 로동행정일군들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며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유일적인 생활비등급제를 실시하고있는 조건에서 개별적 인민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정량을 높이는 경우에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적용하는데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로동행정부에서 로동정량을 정확히 검토하여보고 개별적 공장, 기업소에 대해서도 종업원들의 로동보수를 올릴 필요가 있는것은 올리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로동법에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다 밝혀져있지 않은것만큼 로동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내려보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동행정사업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이 사무실에 앉아 관료주의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압적으로 내리먹여서는 로동행정사업이 잘될수 없습니다. 로동행정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로동행정일군들이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없애고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숨쉬고 일하여야 하며 생산자대중과의 협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늘 생산현장에 내려가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 같은것도 바로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지금 협동농장들에서는 로력일평가사업을 잘하고있습니다. 협동농장 분조들에서는 협동농장기준규약에 따라 매일 모여 로동정량은 얼마인데 실적은 얼마이라는것을 알려준 다음 누구는 어떻게 일하였기때문에 몇로력일이고 누구는 어떻게 일하였기때문에 몇로력일이라는것을 농장원별로 평가하며 그것을 로력일수첩에 기록하여주고있습니다. 공업부문의

Digitized by Google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협동농장들에서처럼 매일 대중적으로 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수첩에 기록하여주며 작업반별로 한주일에 한번씩 공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매일 로동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날 계획수행정형과 함께 로동자들이 자재를 절약하고 제품의 질을 높인 정형, 새 기술을 받아들인 정형도 평가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로동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더욱 창발성을 내여 일할수 있으며 3대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에게 로동수첩을 내주어야 하겠습니다. 로동수첩을 내주는 주요한 목적은 로동자들에게 로동에 대한 영예감을 안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일을 더 성실하게 잘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로동수첩은 로동자가 매일 일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것을 기록하는것이기때문에 사람의 력사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로동수첩을 보면 그가 력사적으로 당과 인민정권 앞에서, 사회와 인민 앞에서 맡은 영예로운 과업을 얼마나 책임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였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로동자들에게 로동수첩을 내주고 거기에 매일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것을 기록하면 그들이 로동에 대한 영예감을 간직하고 맡겨진 일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것입니다.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하여 잘 평가하여줄뿐아니라 일을 잘한 로력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을 사회적으로 잘 대우하여야 하며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영웅적위훈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로력혁신자들은 영웅이 되고 영웅은 2중영웅, 3중영웅, 4중영웅, 5중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웅이 많이 나면 날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다 로력영웅이 되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영예이며 자랑일것입니다.

지금 세계사람들은 우리 조선인민을 영웅적인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이 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워 영웅이 되면 더 좋을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두사람이 아니라 집단이 영웅이 되고 나아가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다 영웅이 되도록 적극 장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 정권기관들 그리고 로동행정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적극 도와주어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로력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동법을 가지고있으며 이번에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로동법을 관철하기 위한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를 가지였습니다. 나는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에 참가한 모든 일군들과 전국의 로동행정일군들이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빛내여나갈것을 바랍니다.

Digitized by Google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담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수령이 창시한 혁명전통을 력사적뿌리로 하여 끊임없이 발전한다.

로동계급과 그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과정은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이 창시한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우리 당은 혁명위업수행에서 혁명전통계승문제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완벽하게 밝히고 혁명전통계승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 놓았다.

1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조된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재부이며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귀중한 밑천입니다.》(《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393페지)

혁명전통은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이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비옥한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가지를 무성하게 뻗고 싱싱하게 자라듯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갈 때만이 승리의 길을 빛나게 개척해나가며 힘차게 전진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은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력사적숙망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자연과 사회,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장기적인 투쟁이다. 그것은 력사가 일찌기 체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헤치나가는 위대한 창조와 건설의 로정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수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은 오직 혁명승리의 튼튼한 밑천으로, 그 원천으로 되는 혁명전통을 떠나서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없다.

혁명전통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혁명승리의 옳은 길이 개척되는 력사적행정에서 형성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의 대표자이며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계급투쟁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계급의 진두에 서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게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승리에

Digitized by Google

로 이끌어나간다. 탁월한 수령은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령도해나가는 과정에서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한 사상정신적재부들을 창조한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업적과 재부들은 로동계급의 력사적투쟁의 총화로 되는 동시에 그것을 계승해나가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본질적내용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는 력사적시기에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업적과 재부가 곧 로동계급이 받아안은 혁명전통으로 되며 그것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투쟁이 바로 로동계급이 수행하여야 할 력사적위업으로 되는것이다.

이렇듯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위업이며 그것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이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과정이며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다.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며 혁명의 억년 드놀지 않는 만년초석으로 된다.

수령이 창시한 혁명전통이 혁명의 억센 뿌리로, 만년초석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먼저 거기에 혁명승리의 길을 밝힌 수령의 혁명사상이 담겨져있다는데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리익과 의사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는 탁월한 사상으로서 로동계급과 그 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 전기간에 튼튼히 견지하고 구현해나가야 할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에게 혁명적세계관을 주고 투쟁리론과 전략전술을 주며 혁명과 건설의 과학적인 방법론을 준다. 또한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는 때로부터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전기간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는 생명선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의 단계와 대가 바뀌여도 영원히 승리의 요인으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는것이다.

혁명전통이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사적과정에서 본보기로, 원형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재부들을 집대성하고있다는데 있다.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여러 분야와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행정을 통하여 완수된다. 그러나 매개 분야, 매개 단계의 혁명과업들은 서로 동떨어져서 수행되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들의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총적목적에 복종되며 그것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전일적이며 통일적인 과정을 이룬다. 그러므로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혁명투쟁이 아무리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투쟁에는 튼튼히 의거해야 할 일정한 본보기와 원형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본보기와 원형으로 되는 귀중한 재부들은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에 집중적으로 담겨져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이러한 풍부하고도 고귀한 재부들을 토대로 하여 발전하며 승리해나간다. 혁명전통에 구현되여있는 혁명업적들과 투쟁경험들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훌륭한 본보기를 제시해주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무궁무진한 힘을 준다.

이처럼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당이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사상적재부와 생동한 본보기를 줌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은 또한 그것이 준엄한 투쟁의 시련속에서 이룩된것으

로 하여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혁명위업이 개척되는 시기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시기는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기로서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대중은 적대계급의 필사적인 저항을 물리치면서 여러가지 혁명과업들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장 어려운 력사적조건에서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고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사정은 위대한 사상과 령도예술을 요구하며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는 영웅적투쟁을 요구한다.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승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마련되고 투쟁속에서 그 생활력이 검증된 고귀한 혁명적재부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물리치고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된다.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위업자체의 성격으로 보나 혁명전통의 력사적지위로 보나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을 어떻게 계승하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키지 않으면 혁명의 대가 끊어지게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우여곡절과 실패를 면할수 없다. 혁명전통에 대한 태도와 립장 문제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에 대한 태도와 립장에 관한 문제이며 그것은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가르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력사적경험은 혁명의 배신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이 로동계급의 수령의 업적을 말살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말아먹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을 거부하고 헐뜯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온갖 원쑤들의 책동으로부터 수령과 그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심각한 문제이며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이처럼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2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혁명위업이며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그 력사적뿌리로 하여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영광스러운 위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영광스러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기간의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혁명이 억년 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혁명

Digitized by Google

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재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8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체계,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위대성은 무엇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는데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한없이 풍부하고 심오한 모든 내용들은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모범으로 가득차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이루어진 혁명전통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관통하고있는 불멸의 주체사상은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조선혁명의 전과정과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찬란한 공산주의미래를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고있다. 따라서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이어주는 유일한 혈맥으로, 생명선으로 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해나가야 할 유일하게 옳바른 지도사상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이 바로 조선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과정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위대성은 또한 우리 혁명위업수행에서 원형으로, 본보기로 되는 귀중한 재부들을 가장 폭넓게 담고있다는데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들이 구현되여있으며 당 및 정권, 혁명무력 건설과 반제민족통일전선과 반제공동전선 형성문제, 주체적인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이 모든 고귀한 업적들과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투쟁경험들은 우리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훌륭한 모범으로, 참다운 구감으로 되며 조선혁명을 완성하는 전력사적기간에 항구적으로 작용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탁월한 혁명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불굴의 혁명의지로 험난하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빛나고 자랑스러운것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가지고있는 위대성은 또한 여러가지 혁명과업들을 동시에 빛나게 수행해나간 항일혁명투쟁의 력사적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단순히 민족해방의

Digitized by Google

과업만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였다. 항일혁명투쟁은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 그리고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동시에 해결하며 당창건과 정권건설, 통일전선형성과 같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같이 해결하기 위한 혁명투쟁이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의 모든 령역에서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반드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가장 폭넓고 다방면적인 내용을 포괄하고있으며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녹쓸줄 모르는 투쟁의 빛나는 모범으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또한 준엄한 시련과 간고한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인류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을수 없이 간고했던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였다. 항일혁명투쟁은 당시의 엄혹한 력사적환경으로 보나, 안팎의 원쑤들의 발악으로 보나 력사상 가장 간고한 조건에서 진행된 혁명전쟁이였다. 항일혁명투쟁은 또한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된 가장 장기적인 유격전쟁이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사람들의 상상을 넘는 그렇듯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에서 높이 발휘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귀중한 투쟁경험들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있다. 여기로부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그 어떤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혁명투쟁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수 있는 불패의 힘과 용기를 주고있다.

이렇듯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나 생활력에 있어서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는 감화력과 영향력에 있어서 참으로 심오하고 위대한 것이다.

이 위대한 혁명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음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위업은 억년 드놀지 않는 초석과 한없이 깊고 억센 뿌리를 가지게 되였고 그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의 력사적로정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근본요구이며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력사적승리와 성과들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혁명전통을 뿌리로 하여 솟아난 열매들이며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크나큰 잠재력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무궁무진한 힘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며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위업이다.

3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장 빛나게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혁명전통을 계승하며 당의 투쟁경험을 더욱 풍부히 하며 당이 이루어놓은 투쟁업적을 공고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11페지)

우리 당은 혁명전통의 계승문제를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자연과 사

Digitized by Google

회, 사람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빛나는 투쟁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영광찬란한 투쟁과정이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이다. 그것은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곧 혁명전통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제로 되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오직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적재부로써만 이루어진다. 수령의 혁명활동과 인연이 없는것은 혁명전통으로 될수 없다.

우리 당이 계승하고있는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가장 심오한 내용을 가진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이 빛나는 혁명전통의 순결성이 확고히 보장되는 기초우에서만 조선혁명은 영원히 주체의 혈맥을 이어갈수 있으며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임무를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고 이 투쟁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요구를 명백히 밝혀주었으며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 혁명전통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인연이 없는 그 어떤 이색적인것도 끼여들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혁명전통교양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모든 부문의 당 조직들과 일군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에서 자기 부문의 전통을 똑바로 찾고 그것을 순결하게 고수해나가도록 함으로써 혁명전통에 온갖 불순물이 끼여들수 있는 자그마한 틈도 생길수 없게 하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전통을 바로 찾고 원작과 원곡에 충실할데 대한 방침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전통을 옳게 살리며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성황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등을 영화와 혁명가극, 혁명연극으로 옮기는 사업에서 원작에 충실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줌으로써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작공연된 위대한 명작들을 훌륭히 재현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의 탁월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의 순결성이 철저히 고수되고있으며 혁명전통의 위대한 생활력이 날을 따라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활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또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그들을 혁명선렬들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로 철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페지)

Digitized by Google

근로대중의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면 반드시 그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그를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옳게 벌려나갈수 없다. 특히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지난날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혁명의 주인으로 끊임없이 등장하게 되는 사정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제기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세월이 흐르고 혁명의 세대가 바뀌여도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고 여기에 전당적, 전국가적 관심을 돌리도록 하고있으며 그를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킬수 있는 온갖 조건을 충분하게 마련하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벌려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이것은 혁명전통교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높은 열망도,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려는 강철같은 의지도 다름아닌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 여기에는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조선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려는 불타는 결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키려는 강철같은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심어주는 기초우에서만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킬수 있으며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들과 수단들을 충분히 마련하여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할수 있게 하였으며 높은 감화력을 가진 산 교양으로 되게 하였다.

당의 령도밑에 전국각지에 정중히 꾸려져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 혁명사상연구실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을 집대성한 혁명전통교양의 전당으로, 위력한 거점으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방송과 출판물, 문학예술은 혁명전통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복무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방침과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전통교양이 정확한 방향과 정연한 체계,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폭넓고 깊이있게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그것은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들자신에 의하여 진행되는 대중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길이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혁명전통을 혁명투쟁의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는것이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은 결코 일반적인 구호나 호소만으로는 높은 성과를 바랄수 없다. 그것은 혁명

Digitized by Google

전통을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는 사업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대를 이어 계속하여야 할 항구적인 사업이다.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도,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혁명전통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큰 의의를 가질수 없다. 혁명전통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있어야만 그 계승발전이 있을수 있다.

혁명전통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혁명전통에 담겨진 모든 재부들이 현실에서 커다란 위력을 낼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혁명전통의 무궁무진한 활력을 받아 끊임없이 승리하며 전진할수 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혁명전통은 힘있게 계승발전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힘있게 전진하게 된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실천투쟁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당 및 국가 활동으로부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을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 구호는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오늘의 실천투쟁에 빛나게 구현해나가며 그것을 훌륭히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구호이다. 이 구호는 모든 사업을 혁명전통의 요구대로 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혁명전통을 실천활동에 구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선렬들이 보여준 모범 그대로 일하며 배우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서가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모든 방침들과 조치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그 어떤 시련이 앞을 막아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그대로 표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은 우리 당의 로선과 결정지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결정지시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으며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충성심과 혁명적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당사업은 사람과의 창조적사업

김 인 환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당사업, 당활동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빨리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로 하여금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당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의 성과의 담보가 있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16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을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 바로 당사업이다.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고 진행한다는것은 사람을 교양개조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당사업, 당활동의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 활동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치적조직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동원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 혁명수행의 방도를 제시하고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가장 숭고한 력사적과업이다.

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자면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광범한 군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 그래야만 로동계급의 당은 자체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할수 있다.

당은 광범한 대중을 혁명위업의 종국적실현에로 조직동원하는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과 건설의 추진력이다. 당은 마치 사람의 심장이 온몸에 피를 뿜어주어 유기체의 모든 세포와 기관들을 움직이듯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하여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며 사회의 모든 기구들과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여나가는 향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방법은 혁명의 참모부, 정치적령도자로서의 당이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방법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각성시키고 발동시켜야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Digitized by Google

령도를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는 간부들과 당원대중의 실천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결국 간부들과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역할을 높이고 광범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그런것만큼 정치적령도자로서의 당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당사업을 행정화하거나 기술실무화해서는 안되며 철저히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은 당사업의 기본이며 당이 혁명의 참모부,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사업이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되는것은 당사업대상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대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사업의 대상은 다름아닌 사람이다. 당내부사업에서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나 할것없이 당의 모든 사업대상은 바로 사람이다.

당내부사업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으로 된다. 일군들을 교양하고 그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당원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 당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움직이는 사업 등 모든 사업은 결국 당을 구성하고있는 당원들과의 사업이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으로서 이것 역시 그 부문에서 일하는 지도일군들과의 사업이며 생산자대중과의 사업이다.

당은 지도일군들과 생산자대중과의 사업을 통하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장한다.

이처럼 당사업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업은 그들과의 창조적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당사업은 각이한 특성을 가지고있는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창조적사업이다.

사람은 저마다 성격과 취미가 다르고 사상의식수준과 사업능력도 같지 않다. 또한 그들이 처하고있는 환경도 다르고 그들이 수행하는 혁명과업도 같지 않다. 그런것만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업을 하나의 틀에 얽매여놓을수 없으며 천편일률식으로 할수 없다. 당사업은 어디까지나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업을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할데 대한 요구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로부터 흘러나온다.

당사업방법이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 창조적사업으로 되자면 그것이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60페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모든 사업은 사람을 위한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업도

Digitized by Google

진행할수 없으며 사람의 사상을 발동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사상을 발동할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사업에서 주인은 바로 사람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진행하여야 한다.

당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이 기본이라는것은 바로 주체사상의 이러한 원리를 당사업분야에 구현한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구현하고있는 여기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방법의 위대성과 과학성이 있고 그 거대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규정하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어떤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나 먼저 당정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해설선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의 의도와 요구를 깊이 깨닫고 당정책관철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세워놓았다.

최근 우리 당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정치하는 당,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온 사회에 주체형의 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영양소를 세차게 뿜어주는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전면적으로 심화발전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사업을 명실공히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기 위한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며 거창한 창조적사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릴 때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고 경제와 문화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열렬한 혁명투사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이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도 단순한 경제실무적방법으로써는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자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Digitized by Google

우리 사회를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특히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당면하게 제기된 혁명과업으로부터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긴장한 정세속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도당은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우리 나라에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있으며 침략과 전쟁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며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적들의 새 전쟁도발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는 긴장한 정세에 대비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새 전망계획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주인다운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여기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기본은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침투시켜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그들이 당의 의도와 요구를 깊이 깨닫고 당정책관철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는것이다. 이것은 당사업을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할데 대한 주체적인 당사업방법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속에서 사람에 대한 혁명적관점을 옳게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바로 세우고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모두 우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 대하여》, 8페지)

일군들속에서 사람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과 태도를 바로세우는것은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에 대한 혁명적인 립장과 관점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는 립장과 관점이다.

사람에 대한 이러한 주체적인 관점은 일군들로 하여금 모든 사업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게 하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게 한다.

사람에 대한 관점을 옳게 가져야 대중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또한 대중의 요구를 더 잘 알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하겠다는 정신이 나오게 된다. 만약 일군들이 사람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가질 때에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보지

Digitized by Google

못하게 되며 그들에게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주의, 주관주의적 방법으로 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도 사람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주인다운 자각을 높이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생산자대중이 일하는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일군들의 사업대상인 사람은 혁명과 건설이 줄기차게 벌어지는 공장, 기업소, 협동벌에 있다.

생산현장에 나가야 활동하는 산 사람들을 만날수 있으며 그들의 구체적인 실정을 료해장악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사람을 만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을 만나야 그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가 어떠하며 성격은 어떻고 취미는 무엇이며 사업능력과 조직적수완은 어떠한가 하는것을 깊이 알수 있으며 따라서 대상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갈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늘 우리 일군들이 인민대중이 살며 일하는 현실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보며 그들과의 사업을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험은 잡다한 문서와 불필요한 회의에 파묻혀 가지고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없으며 오직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사람과의 사업을 벌려나갈 때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 습성화하고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이 배낭을 메고 대원들속에 들어가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친혈육처럼 대해주고 일깨워주어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던것처럼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있는 아래에 내려가 그들속에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끊임없이 해설침투하며 대중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또한 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가지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47페지)

우리 일군들은 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 일군들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속에서 간부로 되고 인민의 충복으로서 사업하고있는것이다.

그런것만큼 겸손성과 소박성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의 하나로 되며 당일군들은 늘 이러한 품성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

당일군들은 자기를 그 어떤 특별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되며 언제나 겸손하고 례절있게 행동해야 한다. 당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해야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으며 대중을 옳게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다. 일군들이 사업작풍이 거칠고 까다로우면 대중은 그를 따르지 않게 되며 가까이 하지도 않고 속심을 털어놓지도 않게 된다.

언제나 사람들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대하며 허례허식을 반대하고 대중과 같이 소박하고 평범하게 생활하며 대중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하여 애쓰는 일군만이 인민의 존경을 받는 우리 당의 참된

Digitized by Google

일군으로 될수 있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벌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는것, 이것은 현시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2페지)

일군들이 낡은 틀에 매여달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는것은 적지 않게 그들의 수준이 낮은것과 관련되여있다. 정치실무수준이 낮으면 조직적수완과 사업능력이 따라서지 못하게 되며 필연코 사업 방법과 작풍이 거칠어지게 된다.

일군들의 수준이 높아야 사람과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신중하고 로숙하게 처리할수 있으며 사람들을 아량있게 대할수 있다. 수준이 높아야 또한 옳은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 일군들은 누구보다도 자체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주체의 당사업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따라배워 자기 사업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선봉적역할은 당원의 본분

정 탁 선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무겁고도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당원들이 자기 초소에서 선봉적역할을 더욱 훌륭히 수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초소들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것은 당원의 숭고한 의무이며 혁명적본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원들은 로동당의 영예로운 전사로서 누구나 할것없이 당이 맡긴 임무를 충실히 집행하며 언제나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311페지)

당원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것을 맹세하고 당에 들어온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며 군중을 혁명투쟁에로 이끌어나갈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는 정치활동가이다. 당원들이 자각적인 혁명투사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성스러운 혁명위업수행에서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 서야 하며 모든 일에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당원의 고귀한 칭호는 바로 이 보람찬 혁명투쟁에서 간직되고 빛나게 된다.

조선로동당원, 이는 주체형의 혁명가들만이 지니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칭호이다. 우리 당원들이 권위있고 존엄있는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는 높은 칭호를 지닌것은 크나큰 영예이다. 이 영광스러운 칭호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이 빛나고있으며 당원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서 어엿한 혁명가로 자라나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싸워나가는 혁명전사들이 바로 조선로동당원들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고 모든 일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는것은 혁명의 전위투사로서의 우리 당원들의 마땅한 본분으로 된다.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앞장에 서서 싸워나가는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다.

언제나 군중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는 돌격전의 기수가 되고 대중을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나가는 선봉적인 투사가 되는 여기에 조선로동당원의 영예가 있는것이다.

당원들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초소들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강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 당원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혁명과 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만 우리 당의 지도적 및 향도적 역할이 제대로 보장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12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이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이 대중을 향도하는 전투적조직으로 되자면 당을 이루고있는 매개 당원들이 지칠줄 모르는 왕성한 투지와 생기발랄한 전투적기풍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초소에서 자기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람의 몸이 건강하고 자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자면 모든 세포들이 다 건전하고 자기 작용을 원만히 하여야 하는것처럼 당도 각이한 초소에서 일하는 모든 당원들이 다 견결하고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힘있는 전투부대로 될수 있다.

당원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또한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혁명은 당이 혼자서는 할수 없으며 광범한 대중이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만 전진할수 있고 승리할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지만 의식화, 조직화되지 못하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없다. 대중은 오직 높은 사상의식으로 무장하고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뭉칠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참다운 위력을 나타낼수 있다.

수백만 군대를 전투승리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그 앞장에서 진군로를 열어나아가는 선두대렬이 있어야 하듯이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앞장에 서서 나아가는 기수가 있어야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위기수는 다름아닌 우리 당원들이다.

당원은 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정치활동가이며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앞장에 서서 나갈 때 광범한 군중들도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 적극 떨쳐나서게 되며 혁명과 건설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에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게 된다.

모든 사업에서 군중의 앞장에 서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우리 당원들의 고상한 풍모이며 전통적인 혁명적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당원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위대한 천리마의 진군속에서 자라나고 단련된 혁명가들이며 당과 혁명에 충직한 우리 당의 붉은 전사들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99~300페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당원들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왔으며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서 혁명의 진군로를 열어나갔다.

우리 당원들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대오의 기수가 되여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 억세게 싸워왔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결사전의 앞장에서 혈로를 헤쳐나간것도 바로 우리 로동당원들이였으며 전후의 그 어려운 복구건설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중의 앞장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것도 다름아닌 우리의 로동당원들이였다.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앞에 어려

운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천리마의 대진군의 앞길을 열어나간것도 그리고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대비약을 이룩하는 거창한 투쟁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선구자들도 바로 우리 당원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원들은 지금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제2차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참으로 지난날 뒤떨어졌던 우리 조국이 강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되고 우리 혁명의 전취물이 굳건히 수호되여온 모든 승리와 위훈 속에는 조선로동당원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제2차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며 이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긴장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제2차7개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는 보람찬 투쟁이다.

새 전망계획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단위들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킬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사회적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부문과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비롯한 수송전선에서 끊임없이 혁신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별, 월별, 분기별 계획을 넘쳐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도 바로 이 부문의 당원들이 어떻게 앞장서 일하는가에 달려있다.

경험은 우리 당원들이 모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앞장에 서고 들끓어야 대중의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되고 당원들이 돌격전의 기수가 되여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임무와 혁명적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 부문, 모든 초소들에서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당원들이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고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폐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은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량식이다. 당원들이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높은 정책적안목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옳게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당의 의도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학습을 정열적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령님께서 해당 부문, 해당 단위에 주신 교시와 그 수행방도를 다 완히 깨들고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 어

Digitized by Google

디서나 당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행동하며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당원의 선봉적역할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난다. 당원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의 결정과 지시는 우리 당의 조직적의사이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지도적지침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모든 부문에서 당의 결정과 지시가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것은 당원들이 당의 결정과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집행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결정지시가 제시되면 그것을 접수하는 립장과 태도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결정지시를 접수할때부터 어렵고 쉬운 일을 가리면서 동요하거나 주저해서는 그를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다.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결정지시가 제시되면 그것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혁명적기풍을 가져야 한다. 당원들이 이러한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만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투지와 열정이 생기게 되고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당원은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결정지시 집행에서 중도반단하지 말고 그를 이악하게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는 사업은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과정에는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에 부닥칠수도 있다. 그러나 혁명가인 당원은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이것을 용감하게 뚫고나갈줄 알아야 한다.

난관앞에서 동요하거나 물러서는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다. 당원은 당의 결정지시 관철에서 부닥치는 난관에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투쟁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힘으로 맡겨진 혁명과업을 근기있게 끝까지 해내는 강의한 혁명적기질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러한 당원만이 진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당원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더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며 있는 로력, 있는 자재, 있는 설비로 당이 맡겨준 전투과업을 가장 훌륭한 성과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또한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정치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투쟁에로 이끌어나가는 당조직의 활동은 매개 당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하여 실현되게 된다. 따라서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서의 당원들이 노는 역할은 실로 무겁고도 어려운것이다.

당원들은 군중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자체의 실정과 밀접히 결부하여 늘 해설선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언제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은 일반적호소만으로는 잘될수 없다. 그것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끊임없는 해설과 설복으로 교양하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은 모든 일에서 군중의 앞장에 서고 군중이 어려워하는 일에는 먼저 뛰여들어가 실천하며 일에서나 학습에

Digitized by Google

서나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군중속에서 혁명투쟁의 기수가 되여 군중을 교양하여 이끌고나가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389페지)

이신작칙의 모범은 몇백마디의 말이나 일반적호소보다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진다. 당원들이 모든 일에서 모범이 되고 기수가 되여 앞으로 전진할 때 대중은 커다란 신심을 가지고 그들을 따르게 된다.

당원은 우선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데서 모범을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로동을 사랑하는것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로동을 사랑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는 사람이라야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로동은 사회주의조국의 번영과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한 가장 영예롭고 신성한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당원은 로동을 즐기고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겨야 하며 스스로 일을 찾아하고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새로운 과업이 나서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군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나가는것은 당원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이다.

당원들이 모든 일에서 모범이 될뿐아니라 자진하여 힘든 일을 맡아나서며 군중이 어려워하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어깨를 들이밀어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광범한 군중이 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어렵고 힘든 일에 적극 뛰여들수 있다.

바로 우리 당원들이 이러한 헌신적인 투쟁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만이 군중의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군중을 교양하는 정치활동가,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투쟁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당원들이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정치활동가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자면 또한 혁명적군중관점을 옳게 세우고 인민적사업작풍을 바로 가져야 한다.

당원들은 언제나 군중과 함께 사업하며 생활하고있다. 군중과 늘 접촉하고 있는 당원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이 똑바로 서고 작풍이 좋아야 군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능숙하게 활동할수 있다. 그러나 작풍이 로숙하지 못하고 거치른 당원은 군중속에서 신망을 얻을수 없으며 군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따라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혁명과업수행에 조직동원하는 문제는 당원들의 사업작풍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당원들은 언제나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지고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사소한 안일과 해이, 사치와 허례허식도 철저히 배격하고 누구보다도 긴장하고 검박하게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생활에 참가하는것보다 더 높은 영예는 없으며 그보다 더 큰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당원들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며 당조직규범에 따라 당생활에 충실히 참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5페지)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당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정치활동이다.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만 자신의 당성을 단련하고 정치적생명을 튼튼히 유지해나갈수 있으며 선봉투사로서의 역할을 참답게 수행할수

Digitized by Google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이 언제나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을 옳게 해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성실하게 대하며 자기 사업과 생활 정형을 당조직에 스스로 보고하고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의식적으로 받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은 당원들이 선봉적역할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열성 하나만 가지고서는 당원들이 모든 사업을 확신성있게 전개해나갈수 없다.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함께 높은 자질을 지닌 당원만이 당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당정책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더우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원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없다.

모든 당원들은 수준을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 여기에 혁명투쟁의 기수가 되고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하고 풍부한 경제지식과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에서 주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도 거침없이 집행해나갈수 있는 실력있고 유능한 사회정치활동가로, 견결한 혁명투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하며 혁명투쟁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우리 당원들의 힘찬 진군을 멈춰세울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빛나고 있다.

모든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전반장악과 중심고리

김 광 수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방법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며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사업방법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투쟁에서나 자연과의 투쟁에서나 력량관계를 옳게 따져보고 중심고리를 찾아내여 거기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자들의 움직일수 없는 투쟁방법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데서 기본으로 되여야 합니다.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은 정치사업이나 경제사업, 군사작전 할것없이 모든 사업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28～229페지)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한다는것은 해당부문의 사업전반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찾고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며 사업전반의 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노는 중요한 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제기된 문제를 하나하나 실속있게 해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것은 당사업, 경제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에서 지켜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의 하나이며 우리 당의 고유한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이 방법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이 투쟁 과정에는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함에 따라 종전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과업들이 련이어 수많이 제기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도 더욱 복잡하여진다.

지도일군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고있어야 할뿐아니라 달라지는 조건과 환경을 제때에 파악하고 제기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맞게 전략전술을 세우고 빈틈없이 준비를 갖춰야 한다. 전반에 대한 구체적실정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타산할수 없고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적중할수 없으며 지도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할수 없다.

오직 실정을 구체적으로 환히 꿰들고 있어야 새로운 과업이 나서거나 무슨 문제가 제기되여도 그것을 제때에 분석판단하고 옳게 처리해나갈수 있으며 현실조건과 력량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그 집행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그런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 가운데는 사업전반의 발전에 결정적영향을 주는 보다 긴요한 과업이 있으며 또한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데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과 뒤에 해도 될 일이 있다. 어떤 사업이든지 중심고리가 있고 선후차가 있는것이다. 제기된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전반적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는 동시에 그에 기초하여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사업과 후에 해야 할 사업을 가려내고 중심고리를 찾아내며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하나씩하나씩 먹어들어가는 방법, 섬멸전의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주어

Digitized by Google

진 력량으로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를 찾아내여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방법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 방법은 전반을 장악하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전반장악의 실제적성과는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전반을 추켜세우는 사업방법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전반을 철저히 장악하여야만 매개 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판단할수 있으며 사업전반의 견지에서 중심고리의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할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그것과 련관되여있는 다른 고리들을 옳게 풀고 사업전반의 성과를 확대할수 있으며 모든 사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반드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이며 대중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일군들이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사업방법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진행하는 혁명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는 사업을 떠나서 그 어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방법은 당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반을 장악하여야 당정책집행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잘 집행하겠는가 하는 대책도 찾아내며 나타난 결함도 제때에 바로 잡을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 해당부문의 모든 사업실태를 꿰들고 제기되는 과업들을 주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끌고나갈수 있으며 이 사업을 강조하면 저 사업을 줴버리고 새로운 과업이 나서면 이미 하던 과업을 줴버리는것과 같은 현상을 극복하며 사업전반을 틀어쥐고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조직집행해나갈수 있다. 특히 그것은 매 시기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업, 다시말하여 중심고리를 제때에 포착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전반을 추켜세울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이 오늘 인민경제선행관인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한것도 그리고 공업의 식량인 석탄생산에 력량을 집중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고있는것도 다 이 중심적인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을 다그쳐나가자는데 있다.

이처럼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사업방법은 당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법으로 된다.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또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최단기간내에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방법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이 제시한 경제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자면 있는 력량과 수단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만약 일군들이 전반적실태를 늘 료해장악하고있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짜고들수 없으며 이것저것 일을 벌려만 놓게 되고 사업에서 일관성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사업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다. 전반을

Digitized by Google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방법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지금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다. 이르는곳마다에서 생산과 건설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모든 단위들에서 더 많은 로력과 자재, 설비들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군들이 경제를 옳게 지도관리하자면 력량타산을 잘하고 무엇보다도 주되는 고리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것저것 많이 널어놓아가지고서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틀어쥘수 없게 된다.

력량을 잘 따져보고 능력에 맞게 섬멸전의 방법으로 일해나가는것은 원래 혁명하는 사람들의 참다운 일본새이다.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해도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내지 못하고 력량타산을 잘하지 못한다면 많은 자재와 로력의 랑비를 가져올수 있으며 일을 실속있게 해나갈수 없다. 일을 벌려만 놓고 걷어쥘줄 모르는 일군은 사업을 능숙하게 처리해나가는 유능한 일군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런어어 복잡하게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나갈수 없게 된다.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를 옳게 포착하여야만 거기에 로력과 자재, 설비를 비롯한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짧은 기간안에 제기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 그와 련결된 모든 고리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이렇듯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전개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주어진 력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더 큰 성과와 빠른 전진을 보장하게 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의 하나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전반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오늘 우리 당은 지도일군들이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복잡하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당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악하게 집행하는가 안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매 시기 제시하시는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의도가 명백히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는 곧 혁명발전에서 가장 절박하고 긴요한 과업들이며 해당부문사업에서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리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정확한 자를 가지고 사업전반을 장악할수 있으며 중요한것과 부차적인것을 가르며 복잡하게 제기되는 수많은 과업들가운데서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아낼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일군들은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기에 앞서 매 시기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당에서 의도하는 문제를 제때에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Digitized by Google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업전반을 정확히 료해장악하기 위해서는 늘 현실에 침투하여 모든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것은 인민대중이며 당정책을 관철하는 직접적인 담당자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전반적실태를 료해장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려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군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대중과 동떨어져 일한다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사업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장악할수 없다.

늘쯟는 현실에 침투하여 군중속에 들어가야 당의 로선과 정책이 어떻게 침투되고 관철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으며 무슨 일을 어떻게 조직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궁리도 생기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을 잘해나갈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는 것을 제도화, 정상화하며 언제나 아래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손금보듯이 환히 꿰들고 현실에 맞게 지도사업을 따라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방법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중심고리를 찾아낸 다음에는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며 일단 포치한 사업을 제때에 총화짓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중심고리를 포착하는것은 문제해결의 첫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중심고리를 찾아내면 정치사업을 앞세워 광범한 대중이 자기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똑똑히 알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적지도로부터 설비와 자재, 로력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속도전의 방법으로 섬멸전을 벌려 중심고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업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등 조직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그래야 력량을 중심고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시키는 현상을 없애며 시작한 일을 중도에 줴버리지 않고 끝까지 철저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그것을 풀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하나의 중심고리를 풀고는 련이어 새로운 중심고리를 찾아내여 그것을 해결하는데로 넘어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이나 기본건설이나 할것없이 모든 사업에서 당면과업의 중심을 틀어쥐고 거기에 힘을 넣어 그것을 해결한 다음 다시 다음 과업의 중심을 찾아내여 또 이 새로운 과업을 해결하는 식으로 하나씩하나씩 처리해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31페지)

혁명과 건설은 끊임없이 심화발전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중심고리와 다른 고리와의 호상관계도 부단히 변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중심고리가 해결되면 새로운 중심고리가 나서며 그의 해결을 요구한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객관적법칙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기 위한 사업도 하나의 중심고리를 해결하고는 또 다음 중심고리를 옳게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의 중심고리를 푼 다음 련이어 새로운 중심고리를 푸는데로 넘어가기 위하여서는 중심고리를 푸는 행정에서 새로 절박하게 제기되는것이 무엇이며 어떤것이 약한 고리인가를 미리 연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일군들이 하나의 중심고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다음에 점령하여야 할 중심고리를 정확히 예견할수 있고 하나의 중심고리를 푼 다음 련이어 새로운 중심고리를 해결하는데로 넘어갈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중심고리를 푸는데 필요한 력량도

Digitized by Google

미리부터 충분히 마련할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침체와 답보를 허용하지 말고 당의 결정지시가 빛나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의 중심고리를 풀고는 련이어 새로운 중심고리를 해결하는 식으로 사업을 근기있게 조직전개함으로써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진군을 계속 다그쳐나가야 한다.

중심고리를 옳게 포착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사업전반을 틀어쥐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혁명투쟁에서나 자연과의 투쟁에서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것은 결코 다른 고리들을 소홀히 하여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당의 령도밑에 계획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되며 모든 전선, 모든 분야에 걸쳐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전면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도 그와 련결된 모든 고리들에 응당한 관심과 힘을 넣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심상치 않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 모퉁이가 터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그마한 모퉁이까지 다 살필줄 알아야 하며 그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된다.

중심고리와 그밖의 다른 고리들은 서로 밀접히 의존하면서 영향을 준다. 중심고리의 해결은 다른 고리들의 해결에 영향을 주며 다른 고리들의 해결은 중심고리의 해결에 좋은 조건을 지어준다. 그러므로 중심고리를 포착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다른 고리들도 뒤지 않도록 사업전반을 다같이 틀어쥐고내밀어야 한다.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깊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은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지식이 있어야 자기 부문의 사업을 빈틈없이 장악할수 있으며 걸린 고리도 제때에 발견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대책을 정확히 세울수 있다. 또한 자기 부문사업에 정통하여야 사업의 선후차를 가르고 중심고리를 옳게 찾을수 있다. 특히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오늘 이 문제는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일군들은 자기의 정치리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자기 부문 사업에 대한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사업을 진지하게 벌려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성, 로동계급성은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

신 길 수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는 교육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려면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함께 교육사업을 로동계급의 리익과 혁명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규제하며 그것은 교육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사회주의교육의 원칙을 똑바로 세우지 못하면 교육사업이 뚜렷한 발전방향과 지도적지침을 가지지 못하여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쓸모있게 키워내지 못하게 된다.

사회주의교육의 혁명적원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그것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교육사업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원칙적인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의 첫째가는 원칙으로 규정하심으로써 교육사업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성, 로동계급성은 사회주의교육의 제일생명이며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1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사회주의교육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한다는것은 교육의 전과정과 모든 공간들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해결에서 당적인 원칙과 로동계급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교육사업에서 당과 로동계급의 요구를 견결히 고수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사회주의교육의 전과정을 당과 로동계급의 리익에 맞게 조직해나갈수 있으며 후대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가들로 준비시킬수 있다. 만일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고수하지 못하여 로동계급의 리익과 대치되거나 비로동계급적요소들이 허용되게 되면 사회주의교육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철저히 복무할수 없다.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는것이 사회주의교육의 제일생명이며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교육이 그 계급적본질에 있어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계급사회에서의 교육은 언제나 계급적성격을 띤다. 사회주의교육은 그 계급적본질에 있어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이다.》(우와 같은 문헌, 413페지)

계급사회에서 교육은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도구로서 언제나 해당사회를 유지하고 공고발전시키는데 복무한다. 봉건사회의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봉건적질서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봉건제도를 옹호하는데 복무하는 교육이며 자본주의교육은 철두철미 사람들을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에 순종하도록 만드는데 복무하는 자본가계급의 교육이다.

사회주의교육은 봉건사회나 자본주의사회의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로동계급적인 교육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에 철저히 복무하는 당적인 교육이다.

사회주의교육의 이러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성격은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할것을 요구하게 되며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는 경우에만 사회주의교육은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킨다면 사회주의교육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으며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낼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교육의 로동계급적성격을 고수하지 못하게 되고 구경에는 비로동계급적요소의 영향을 강화하여 교육교양사업에 엄중한 혼란을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어떻게 구현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어떻게 끝까지 고수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적교육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여나가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나선다.

당성, 로동계급성을 떠난 교육은 사회주의교육으로서의 생명을 잃게 되며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수령께 끝없이 충직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워나가는 혁명인재로 키울수 없으며 교육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없다.

참으로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것은 그 교육이 로동계급의 혁명적교육인가 아니면 반동적인 부르죠아교육이거나 범벅교육인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사회주의교육의 존재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척도로 된다.

이것은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이 사회주의교육의 제일생명이며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는것이 사회주의교육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또한 로동계급적인 교육만이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울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만이 사람들을 당과 혁명에 충직한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다.》(우와 같은 문헌, 413～414페지)

사회주의교육이 육성하여야 할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능력있는 사회주의건설자들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바쳐 투쟁할수 있게 준비된 새형의 혁명인재들이다.

이러한 새형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는 오직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을 통하여서만 육성될수 있다.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만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대치되는 온갖 반동적사상조류의 침습으로부터 사회주의교육의 순결성을 고수해나갈수 있으며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울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또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만이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철저히 복무할수 있는 과학과 기술을 가지게 할수 있으며 그들을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울수 있다.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육성하는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은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는 경우에만 확고히 담보되며 따라서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의 첫째가는 원칙으로 제시하시고 그것이 사회주의교육의 제일생명이며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끝까지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적교육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뚜렷한 길을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참으로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으로서의 생명을 더욱 빛내이게 하고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수령께 끝없이 충직하고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인간육성과 교육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회주의교육의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의 첫째가는 원칙으로, 제일생명으로 규정하시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요구들을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을 철저히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실제적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414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성, 로동계급성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는 사업은 곧 로동계급의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그의 사상과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빛나게 실현된다.

그러므로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려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 사회주의교육사업이 철저히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밑에 조직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교육의 전과정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으로 일관시켜야 하며 사회주의교육의 모든 공간들이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육성하는데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이 어떤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가 하는것은 교육사업전반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교육사업이 옳은 지도사상을 가질 때라야만 그에 기초하여 교육 리론과 방법을 바로세우고 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정확

Digitized by Google

하게 풀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만일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옳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질수 없게 되며 교육교양사업은 혁명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진행될수 없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교육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이며 사회주의교육사업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사회주의교육의 지도사상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회주의교육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되기때문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의 본질, 혁명과 건설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사람들을 참다운 사회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근본방향과 방도를 비롯한 사회주의교육에서 나서는 원리적문제들을 정확히 해명하고 교육 리론과 방법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는 사상리론적기초를 마련하여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또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지킬데 대한 요구를 밝혀줌으로써 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방법론적기초를 마련하여준다.

이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그것을 교육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로,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기 위한 선차적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그러므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그것을 교육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전반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조직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교수를 철저히 당정책화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전반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조직진행하고 교수를 당정책화하여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내용전반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일관시켜 그들을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당 정책을 관철하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소유하게 할수 있다.

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교육사업전반을 당의 지도밑에 조직해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무기이며 혁명과 건설을 유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응당 당의 령도를 받아야만 수령의 사상과 령도, 당의 정책적요구를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은 로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사상혁명의 무기이며 혁명의 계승자를 키워내는 힘있는 수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육사업에 대한 원대한 구상과 의도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며 자랑찬 결실을 맺게 된다. 당의 지도를 떠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그 구현인 당정책적요구를 교육분야에 제때에 드팀없이 관철할수 없으며 온갖 비로동계급적인 사상요소와 경향들의 침습을 막아낼수 없다.

교육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를 약화시키는것은 곧 부르죠아적영향을 강화하는것으로 되며 교육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것은 자유주의와

Digitized by Google

무규률성을 조장하여 사회주의교육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거세하는 반동적이며 반당적인 행위이다.

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교육의 전과정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으로 일관시키며 사회주의교육의 모든 공간들이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키우는데 있다.

당과 로동계급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는 당과 로동계급에 대한 충실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의 유일한 체현자이시며 조선혁명의 최고뇌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품성이며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그러므로 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도록 교양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의 근본문제로 튼튼히 틀어쥐고 교육의 전과정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으로 일관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분야에서 비당적인 사상요소와 불건전한 경향이 침습하지 못하게 하며 그 사소한 표현에 대하여서도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여 사회주의교육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로동계급적선을 똑똑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적선을 세워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41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교육에서 로동계급적선을 세운다는것은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계선을 명확히 가르고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과 요구를 철저히 옹호관철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교육에서 로동계급적선을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계속되는 계급투쟁의 직접적반영이며 교육분야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이 계속된다. 로동계급은 주권을 잡은 다음에도 오랜 기간 자본주의와 대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과 파괴책동을 벌리는것과 함께 사상문화적침투를 집요하게 감행한다. 이와 함께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게 되며 이것을 철저히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점차 머리를 쳐들게 되여 사회주의사회를 내부로부터 변질시키고 와해시키는 해독적작용을 놀게 된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낡은 사회의 부식작용을 반대하는 투쟁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계급투쟁의 한 형식으로서 교육분야에도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에서 로동계급적선을 철저히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그의 계급적본성으로부터 착취사회의 교육에서 넘겨받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그것과

Digitized by Google

계선을 엄격히 가르고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만 자기의 당적, 로동계급적 성격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다.

만일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사업의 조직과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명확히 세우지 못하고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계선이 모호한 범벅교육을 한다면 사람들은 범벅사람으로 되고 사회는 범벅사회로 되고말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교육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워 언제나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키고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로동계급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며 그와 어긋나는 온갖 비로동계급적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교육분야에서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고 사회주의교육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교육분야에 반동적 사상과 생활풍조 특히 부르죠아 교육리론과 생활양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수 있다. 또한 교육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똑똑히 세워야 교육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부인하고 교육의 무사상성과 《자유화》를 설교하는 수정주의교육리론을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적사상조류가 스며드는것을 막아낼수 있으며 결국 사회주의교육의 당적, 로동계급적 성격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교육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이것은 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과 함께 로동계급적선을 세우는것이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지난 시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로동계급적선을 뚜렷이 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사회주의교육의 숭고한 사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경험은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할 때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낼수 있고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교육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로동계급적선을 뚜렷이 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튼튼히 고수하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키워내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는것은 로동행정일군들의 중요한 임무

전 영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로동행정사업의 본질과 로동행정일군들의 임무를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시고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로동행정일군들의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행정일군들은 로력을 조절해주고 학교졸업생들과 제대군인들을 배치하는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단행본, 5～6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로동행정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는데 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로동행정일군들의 기본임무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 바와 같이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바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이다.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에 의하여 자연이 정복되고 사회가 개조되며 발전한다. 사람들의 역할을 떠나서는 자연과 사회의 개조에 대하여서도,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워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워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방도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더욱 높이는데 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바로 그들의 사상의식이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강화할 때 성과적으로 개조된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강화하면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할수 있다.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된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은 로동생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로동은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천인 동시에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되며 로동과정에 또한 사람자체도 개조된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로동생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로동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로동행정일군들은 무엇보다먼저

Digitized by Google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로동행정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영예감을 가지고 사회주의적공동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로동행정사업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는것이 로동행정일군들의 중요한 임무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로동의 성격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지주, 자본가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수백만 근로대중을 압박하고 착취하기때문에 로동이 천하고 무거운 고역으로 되지만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이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로동에 의하여 나라의 재부와 인민들의 살림살이가 늘어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 할수없이 일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이러한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옳게 가질때 더욱 높이 발휘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로동행정사업에서 중요한 요구로 나서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로동행정일군들의 기본임무로 된다.

정치사업을 잘하는것이 로동행정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되는것은 또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요구로 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와 자본주의공업경영의 본질적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이 다 근로자들자신의 사업으로 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떠나서는 사회주의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경제관리의 합리화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마련되여있고 생산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조건에서도 생산자대중이 발동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보다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물론 기술혁명이 추진되고 기계화, 자동화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에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큰 역할을 하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된다고 하여 결코 기술경제적인 사업이 경제관리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무리 기계화, 자동화 수준이 높아져도 생산의 주되는 요소는 어디까지나 사람이며 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바로 생산자대중의 사상의식이다. 기계와 기술을 창조하는것도 사람이며 그것을 움직이고 리용하는것도 다름아닌 사람이다. 실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관리의 사무적기능을 기계화, 자동화한다 해도 그것은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대신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법칙도 군중의 활동을 통하여 작용하며 그들의 실천투쟁에 의하여 그 객관적요구가 구현

Digitized by Google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 경제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이 기본인것만큼 경제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는 로동행정사업도 어디까지나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에 중심을 두고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이라고 하는것은 로동행정사업의 전과정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행정기관을 마치 직업소개소처럼 여기면서 로동행정일군들은 모자라는 로력이나 채워주고 직업이나 알선해주면 되는것으로 생각하는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이다. 로동행정일군들이 로력배치나 로력조절 같은것을 실무적으로 대하면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건설에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으며 로동행정사업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다.

이렇듯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로동의 성격,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로동행정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되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는것을 로동행정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심으로써 사회주의로동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에 의하여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에서 시종일관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문제가 뚜렷이 밝혀졌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근본방도가 명백히 제시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로동행정일군들은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가지고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를 보다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동제도가 확고히 세워져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보람찬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려나갈수 있는 온갖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철저히 수행됨으로써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로동강령이 빛나게 구현되여 사회주의로동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는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주체적인 사회주의로동제도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있으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받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실업자가 한사람도 없을뿐아니라 일하지 않고 노는 건달군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같이 일하며 골고루 잘살고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로동과 학습, 휴식을 배합하면서 문화적으로 생활하고있으며 먹을 걱정, 입을 걱정,

Digitized by Google

아들딸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치료할 걱정, 세금낼 걱정, 빚물 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사회주의건설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로동법과 로동규률규정이 제정됨으로써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동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법적담보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으며 로동생활에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과 규범들도 명백히 밝혀져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행정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킨다면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행정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들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로동행정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자기 맡은 사업에서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행정일군들은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맡은바 사업에서 자기의 재능과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단행본, 6폐지)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며 사회주의적공동로동의 직접적담당자들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자각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사회주의적공동로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로동에서의 자각성은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철저히 가지게 할 때 높이 발양될수 있다.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확고히 가진 사람은 맡겨진 경제과업수행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게 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해내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게 된다. 로동에서의 주인다운 태도와 책임성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고상한 풍모이다.

로동행정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꾸준히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주인다운 태도와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성실히 일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로력전선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마른일, 궂은일을 가리지 않고 누가 보건말건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참다운 로력혁신자, 충직한 애국자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대렬이 늘어나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를 때 우리 나라는 더욱 륭성번영해질것이며 우리 혁명은 더욱 힘차게 전진하게 될것이다.

로동행정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는 또한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 로동규률규정을 근로자들속에

Digitized by Google

끊임없이 해석침투하며 대중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 로동규률규정에는 사회주의로동의 성격으로부터 국가의 로동조직원칙과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준칙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로동생활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으며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방도들도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 로동규률규정을 해석침투하는 사업을 강화할 때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생활에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똑똑히 알고 국가의 법령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할수 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 로동규률규정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그 내용과 구체적인 관철방도들까지 환히 꿰들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속에 그것을 널리 해석침투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로동생활규범대로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하며 로동규률을 약화시키는 조그마한 현상도 철저히 극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행정일군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근로자들속에서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철저히 반대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적인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꾸준히 벌려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화목하게 잘사는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거나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기를 좋아하는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들이 조금도 허용될수 없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인 집단주의정신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고상한 풍모이며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기풍이다.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뽑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편안히 잘살겠다는 착취계급의 사상이며 근로자들이 집단주의원칙에서 일하며 생활하는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이 커지면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할줄 모르게 되며 나중에는 나라와 인민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는데까지 이르게 된다.

로동행정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개인리기주의의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두가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일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에게 사회의 물질적부가운데는 자기의 몫도 있으며 사회의 부가 늘어나야 자기자신도 잘살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켜 한와트의 전기, 한덩어리의 석탄, 한방울의 연유, 한알의 쌀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면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아득바득 애쓰도록 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의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따라배우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로동행정일군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가 좋은 구호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8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은 국가적인 후방도, 정규

Digitized by Google

군의 지원도 없이 가장 포악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그 간고한 조건에서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용감히 투쟁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무기와 탄약, 식량을 비롯한 모든 군수물자들을 다 자체로 해결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식량이 모자랄 때에는 산나물을 뜯어 보충하면서 언제나 부대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갔으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규률있고 질서있게 사업하고 생활하였다.

항일유격대의 이러한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따라배워 모든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도록 한다면 로동행정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는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두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추호도 동요함이 없이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왕성한 투지와 정열에 넘쳐 전투적으로 일하고 혁명적으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부대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하여 교양사업을 강화하시는 한편 몸소 경위중대를 시범단위로 꾸리시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도록 지휘원들과 대원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사업방법의 이 위대한 모범들을 따라배운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은 언제나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신작칙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이리하여 항일유격대오안에는 관료주의, 주관주의가 없었으며 모든 대원들이 동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여있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이러한 혁명적기풍을 계승하고 따라배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철저히 극복해나가야 한다. 로동행정일군들이 일상적으로 생산현장에 내려가면 현실을 똑똑히 알고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 같은것을 바로 하도록 지도할수 있으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경제과업수행에서 커다란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이 전례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로동행정일군들앞에 나서는 임무는 참으로 무겁다.

로동행정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로동행정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며 새 전망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는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항구적인 요인

최 재 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늘어나고 그 생산잠재력이 비상히 커졌다. 경제의 규모와 생산잠재력이 커짐에 따라 내부예비는 대단히 많아졌으며 그것을 어떻게 동원리용하는가 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는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생산장성의 가능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의 예비는 많은 노력과 정력을 기울여야만 동원될수 있는 예비이기는 하나 사회주의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계속 무진장하게 생기는 항구적인 예비이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생산장성의 가능성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30페지)

생산장성의 가능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주로 물질적부의 생산을 현물용량적으로 늘일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경제건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에 의하여 조성될수도 있고 추가적인 투자없이 조성될수도 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투자없이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늘이거나 보다 적은 추가적투자로 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인민경제의 내부예비이다. 다시말하여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는 있는 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거나 적은 투자로써 그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는 가능성이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생겨나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그것은 더욱더 많아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목적이 근로인민대중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으며 생산의 결과도 전적으로 근로인민대중의 복리향상에 돌려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경제의 빠른 발전에 깊은 리해관계를 가지고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일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이러한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를 분한있게 리용하며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는 무진장한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을 떠나서는 인민경제의 내부예비의 조성에 대하여서도, 그 효과적인 동원리용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영업비밀》과 같이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사회경제적요인들이 없으며 따라서 기술이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여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철저히 막고 전사회적규모에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된다. 이렇듯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경제관리운영이 개선됨에 따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있는 밑천을 더 잘 리용하거나 적은 투자로써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는 무진장한 가능성이 생겨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그것은 더욱더 커진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며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운영 사업을 개선하

Digitized by Google

여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생산잠재력도 많아진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 올라설수록 무진장하게 생기는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는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초시기에 있게 되는 예비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동원리용하기 위한 방도에서도 차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의 초시기에 있게 되는 예비는 유휴로력이나 유휴자재, 유휴설비와 같은 로출된 예비인것이다. 이것은 손쉽게 동원리용할수 있는 예비이기는 하나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만 존재하는 일시적인 예비이며 사회주의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계속 무진장하게 생겨나는 예비는 아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면 눈에 인차 뜨이는 예비, 손쉽게 동원리용할수 있는 예비는 거의 없어진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의 내부예비는 많은 노력과 정력을 들여야만 찾아낼수 있는 숨어있는 예비이며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빈틈없는 경제조직사업에 의하여 동원리용되는 예비이다.

이러한 예비는 인민경제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나 다 있게 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탐구동원하기만 하면 생산과 건설을 높은 속도로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된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자금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켜나갈수 있다.

내부예비동원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이미 지출된 자금과 새로 지출되는 자금의 효과성을 더욱 높인다는데 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잘 리용하면 그것은 곧 그만한 자금을 축적에 돌린것과 같은 은을 내게 되며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 보다 적은 추가적지출로 생산을 더 많이 늘이면 그것도 축적자금의 규모를 증대시키는것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는것이 자금을 절약하고 축적에 더 많은 몫을 돌릴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적축적의 보충적원천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 로력, 설비, 자재 문제도 더 잘 풀어나갈수 있다.

내부예비의 동원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적은 로력으로 생산을 더 많이 낼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의 결정적요소인 로력을 훨씬 절약할수 있게 한다. 또한 내부예비를 동원하면 설비리용률을 더욱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인민경제의 내부예비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생산장성의 항구적인 요인이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높은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것은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전례없이 방대한 규모의 건설을 예견하고있는 제2차7개년계획은 전체 인민의 힘과 재능, 나라의 생산잠재력을 사회주의건설에 총동원할것을 요구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518페지)

오늘 우리 인민이 수행하고있는 새 전망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다.

이 웅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방대한 규모의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이 요구되며 따라서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것은 새 전망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관건적고리의

Digitized by Google

하나로 된다. 나라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규모는 일정하게 제한되여있으므로 새 전망계획 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자원을 추가적지출만으로는 완전히 충족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내부에 묻혀있는 모든 예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야 하며 지금 있는 경제적 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할 때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1956년 12월전원회의이후 강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6만톤 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생산하는 영웅적위훈을 세웠으며 김책제철소의 로동계급은 19만톤의 공칭능력을 가진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생산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으로 하여 국방건설에 많은 힘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던 준엄한 시기에도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인민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계속 보장하였으며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전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웅대한 6개년계획을 4년 8개월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움직이면 그들에게서 귀중한 의견을 얼마든지 들을수 있으며 많은 예비를 찾아낼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88페지)

생산자대중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일 잘 아는 사람도 다름아닌 생산자대중자신이다. 생산자대중이 예비동원에 힘차게 떨쳐나설 때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수 있으며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다.

생산자대중을 예비동원사업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자면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비동원사업은 저절로 되지 않으며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시킬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사상이 발동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예비는 사람들의 사상, 생산자대중의 머리속에 있으며 예비동원의 성과여부는 그들의 사상을 어떻게 발동시키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자대중을 내부예비동원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하며 내부예비동원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학습을 보다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 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할수 있다.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질 때 생산자대중은 그것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게 되고 창발성을 발휘하게 되며 예비를 찾아내기 위하여 애쓰게 된다.

이와 함께 내부예비동원의 목적과 의의, 그 방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것이 중요하다. 내부예비동원의 의의와 그 방도를 똑똑히 알아야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으며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

Digitized by Google

원하기 위하여서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기술혁신은 로동수단을 더욱 개선하고 생산공정을 단축할수 있게 한다. 로동수단과 생산공정의 부단한 개선은 로력과 원료, 자재를 절약하고 단위제품의 생산시간을 줄일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고 같은 밑천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예비동원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방도의 하나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기술혁신운동에 빠짐없이 참가시켜야 하며 대중의 지혜와 재능을 모아 기술수단들을 더욱 개선완성해나가야 한다.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식에 생산자들의 귀중한 경험과 창발성이 결합되면 참으로 큰 위력을 나타낼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생산자들의 자그마한 기술발명의 싹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조장발전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머리를 써야 하며 대중과 지혜를 합쳐 성능이 높은 현대적기계들을 대대적으로 창안제작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새로운 과학연구의 성과와 창의고안, 생산합리화안들을 생산에 널리 받아들여 힘든 로동을 빨리 없애고 보다 적은 로력과 설비,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운영을 개선하는것은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운영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내며 생산을 빨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38페지)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부문들사이, 부문내부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매우 복잡해진 조건에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있는 로력, 있는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으며 기술지도와 자재보장 사업을 현실에 맞게 따라세울수 없다.

경제지도와 관리운영 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자면 계획부터 잘 세워야 한다. 계획을 잘 세워야 근로자들이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발휘하게 할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반적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생산을 늘일수 있는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타산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며 세워진 계획을 생산자들자신의것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현실성있는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현대적인 기계설비들로 튼튼히 장비되여있고 방대한 량의 원료와 자재를 쓰고있는 조건에서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고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여 원가를 1%만 낮추어도 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는 막대한 예비가 나온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근로자들은 생산의 기본무기인 설비를 사랑하고 알뜰히 거두며 표준조작법대로 다루도록 하여야 한다. 설비의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설비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예비부속품을 원만히 갖추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 설비를 제때에 보수정비하도록 함으로써 보수기간을 극력 줄이고 모든 설비들을 항상 만가동시키야 한다.

자재보장사업을 깐지게 하면 필요없이 자재를 묵여두거나 되는대로 쓰는 현상을 없애고 적은 자재라도 분한있게

Digitized by Google

할수 있다. 일군들은 생산실태와 자재 보유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원료, 자재의 생산과 소비를 빈틈없이 맞물려야 하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자재를 현장에까지 내리공급하는 원칙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로동력은 생산력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따라서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있는 밑천으로 생산을 높이기 위한 기본과업의 하나로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로동행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로력을 고착시키고 비생산로력을 극력 줄이며 로력을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동조직을 짜고들어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력과 설비, 원료와 자재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기술경제적지표를 잘 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기술경제적지표는 생산요소들의 리용정도와 그 효과성을 반영하는 질적지표이다. 따라서 기술경제적지표를 잘 분석하면 동원리용할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를 알수 있으며 그것을 잘 정하고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면 로력과 설비, 자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자극하고 통제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이미 꾸려진 표준공장들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원료와 자재의 소비기준, 설비리용률, 로동정량을 비롯한 모든 기준과 지표들을 과학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경제적 기준과 지표들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고 새로운 보다 능률적인 기계설비들을 받아들이는데 맞게 제때에 개선하여야 한다. 기술경제적 기준과 지표는 언제나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그것은 점차 낡은것으로 된다. 낡은 기준과 지표들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근로자들이 혁명적열의를 늦추지 않고 새로운 예비를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내부예비동원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야 한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는 예비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옳게 세울수 없다.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처럼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하며 증산절약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 내부예비로 생산을 늘이도록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더 많은 예비를 찾아냄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계속 높이고 새 전망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앞당겨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남조선경제는 미일독점자본에 명줄을 건 예속경제

박 동 근

오늘 남조선경제는 미일독점자본의 철저한 예속경제로 굴러떨어졌다.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적예속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깊어지고있으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날로 격화되고있는 경제위기의 영향밑에 그 파국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도당은 남조선경제가 마치도 대외종속과 파국상태에서 벗어나 《자립》과 《번영》의 길로 나가고있는듯이 꾸며대고있다. 이것은 더욱 심화되고있는 남조선경제의 예속성과 파탄상을 감추고 높아지고있는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동시에 제놈들의 매국배족적인 외자도입책동과 민족산업말살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교활한 기만술책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은 그 어떤 허울좋은 간판이나 속임수로써도 남조선경제를 망쳐먹고 인민생활을 도탄에 몰아넣은 죄행을 가리울수 없다.

*　　*

미제의 비호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한 외세의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극도의 식민지적예속성과 의존성을 띠고있으며 그 파국적위기는 날로 심화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경제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된 경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54페지)

오늘의 남조선경제는 미제국주의와 일본반동들에게 철저히 얽매여있는 예속경제이다.

미일독점자본은 남조선의 공업과 농업, 운수와 체신, 상업과 대외무역, 재정과 금융 등 중요경제명맥을 철저히 거머쥐고있으며 생산과 분배, 류통과 소비 등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을 제마음대로 통제하고있다.

남조선은 미일독점자본의 자본투하지, 값싼 로동력의 공급기지로 굴러떨어졌으며 남조선경제는 미국과 일본 경제의 부속물로 전환되였다.

남조선경제의 이러한 식민지적예속성은 경제《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원자재, 기술을 거의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있는데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있다.

남조선경제는 무엇보다도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 의존함으로써 날로 커가는 다른 나라의 빚에 짓눌리우고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다. 개발자금을 민족내부에서 자력갱생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아니면 제국주의자들에게서 구걸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경제개발자체의 성격과 운명을 규정하는 관건적문제로 되며 경제의 자립성과 예속성을 규제하는 근본요인의 하나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금공간을 리용하여 신식민주의적인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독점자본의 근본생리는 최대한의 리윤추구에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얻어낸 빚을 가지고서는 자금과 물자자원, 로동력을 경제개발의 합법칙적요구와 자립적민족경제의 근본리익에 맞게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없으며 그것은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퇴치하기는커녕 경영활동에서의 독자성과 합리성도 담보할수 없게 한다. 이것은 자금을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빚을 내여씀으로써 독점자본

Digitized by Google

의 침투를 허용하게 될 때 경제는 피할수 없이 채권국경제의 부속물로 굴러떨어지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자금조달의 해외의존성이 경제적예속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되는 리유가 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근대화》의 기만적인 구호밑에 미국과 일본 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더한층 예속시키고 다른 나라의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하였다.

얼마전에 남조선괴뢰들은 1978년말 현재 다른 나라에 걸머지고있는 빚이 105억 600만딸라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놈들이 걸머지고 있는 대외채무의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단기무역신용, 은행차관, 외국인예금 등의 형태로 놈들이 지고있는 막대한 빚이 포함되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지금 놈들이 각이한 형태로 걸머지고있는 빚은 120억~130억딸라에 이르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빚이 1960년에 비하여 무려 90~95배나 늘어났다는것을 의미하며 남조선의 매 세대가 100만원의 외국빚을 걸머지고있는것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공업생산의 70%, 건설조립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있는 《관영기업》, 매판기업들은 례외없이 미국과 일본 독점자본가들에게 빚을 지고있다. 《대한전력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포항제철주식회사》들은 각각 1억 5천만딸라, 7천 200만딸라, 5천만딸라의 외국차관을 끌어들였으며 《쌍용》, 《현대》 등 여러 《재벌》들도 모두 1억딸라이상의 외국차관을 끌어들였다.

주요 금융 및 재정 기관들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조종하고있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수십억딸라에 달하는 빚을 끌어들였으며 그로 하여 막대한 외채를 걸머지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남조선경제는 차관에 의하여 재편성유지되고있다. 지금 남조선경제는 1950년대의 《원조경제》와 구별되는 《차관경제》로 탈바꿈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개발》자금의 해외의존은 남조선에 수많은 외국직접투자기업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2년부터 시작된 외래독점자본의 직접투자는 1970년대에 들어와 빨리 늘어났는데 1978년 8월현재 그것은 투자자본액에서 10억딸라선을 넘어섰으며 가동하고있는 업체만도 741개에 이르렀다.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갈프, 칼텍스, 제네랄모터스, 다우케미칼 등은 정유, 비료, 자동차, 석유화학 등 부문을, 일본의 대독점체인 미쯔이, 미쯔비시, 스미모도, 후지, 다이이찌, 상와, 고겡 등 7대재벌은 섬유, 관광, 기계금속, 전기전자, 잡화 등 부문을 주로 하여 침투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출상품의 30%를 차지하고있다.

외국상사들의 대대적인 침투도 《개발》자금을 해외에서 얻어보려는데서 생긴 필연적결과의 하나이다.

오늘 남조선에는 215개에 달하는 미국과 일본 등 자본주의나라 독점회사들의 지점, 대리점, 출장소들이 상사의 명목밑에 침투하여 활동하고있다. 이 상사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본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남조선의 무역, 금융, 보험, 운수업 등에 침투하여 《알선》, 《중계》, 《정보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남조선경제를 통제하고 추가적으로 략탈해내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무역액의 근 30%와 차관의 대부분이 이들 상사의 《알선》에 의하여 거래되고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조선에 침투하고 있는 외국상사들의 활동이 얼마나 본격화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이처럼 미일독점자본은 차관, 직접투자, 상사의 형태로 자금을 들이밀고 그것을 통하여 투자 규모와 방향, 경제《개발》순차와 속도를 규정하고있으며 공업과 운수, 상업과 무역뿐아니라 재정과 금융 등 경제전반을 조절통제하고 있다.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적예속성은 또한 경제운영에 필요한 원료를 해외에, 미

일독점자본에 의존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른 나라의 원료에 의존하는 공업은 예속공업입니다. 지금 남조선괴뢰들은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서 우리와 경쟁해보려고 다른 나라 자본을 많이 끌어들여 공업을 건설한다고 떠들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나라의 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예속공업입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제2권, 478페지)

자기 나라 자원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운영해나가는것은 민족경제건설의 근본요구이다.

원료자재를 다른 나라 특히 제국주의 독점들에 의존해가지고서는 경제를 안전하게 운영해나갈수 없으며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도 발전시켜나갈수 없고 경제의 다면성과 자주성도 보장할수 없다. 자원을 독점하기 위한 제국주의렬강들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심해지고 《자원위기》가 세계적범위에서 날로 격화되고있는 오늘 원료를 제국주의자들에게 의존한다는것은 곧 경제운영을 놈들에게 내맡긴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경제는 원료자원면에서 미일독점자본에 철저히 예속되여있으며 그 해외의존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에서 1960～1977년사이에 원자재수입량은 30배이상으로 늘어났다. 현재 남조선의 공업에서 주요원자재의 해외의존도는 92.4%에 이르고있다. 그중에서도 원유, 고열탄, 원면, 원당, 원모, 생고무, 소기름 등은 전량을 수입하고있으며 가죽, 원목 등도 거의다 해외에서 끌어들이고있다. 또한 합성섬유, 인조섬유,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아연덩이, 알루미니움, 동 등 가공원료의 수입량도 해마다 늘어나고있으며 내부에서 공급되고있다는 가공원료도 그 대부분은 수입시초원료를 가공한것이다.

남조선에서 식량의 해외의존률도 날로 높아지고있다. 1960～1979년사이에 식량의 수입량은 46만톤으로부터 625만톤으로 늘어났으며 남조선의 식량자급률은 50%아래로 떨어졌다.

수입되는 원료, 자재, 식량의 압도적부분은 미국과 일본에서 들여오거나 아니면 미일독점자본이 지배하고있는 지역으로부터 가져오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의 과잉원자재, 과잉농산물의 독점적인 판매시장으로 굴러떨어졌다.

미일독점자본은 남조선에서 가공될 원료, 자재를 틀어쥐고 그 공급량과 가격, 시기와 조건들을 경제적예속의 강화와 략탈에 유리하게 조절함으로써 남조선경제를 저들의 리익에 보다 철저히 복종시키고있다.

남조선경제는 기술면에서도 미일독점자본에 철저히 예속되여있다.

차관, 직접투자 그리고 일반무역거래에 의한 기계설비의 도입은 두말할것도 없고 기술도입의 명목으로 끌어들이는 기술도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고있다. 남조선에서 기술도입은 주로 보조부문, 부차적기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다. 총기술도입건수중에서 특허에 속하는것은 18%에 지나지 않고 68%가 기술정보의 제공이라는 형식으로 되고있다. 그것마저 남조선에 도입되고있는 기술은 그 조건이 매우 나쁘고 20년 지어는 40～50년전에 개발된 락후한것들이다.

미일독점자본은 남조선에 대한 기술공급을 틀어쥐고 높은 기술사용료와 함께 그 비밀의 보장, 상품생산 및 실현조건의 구속, 상품가격 및 수출선의 제한 등을 강요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이처럼 남조선괴뢰도당의 망국적인 외자도입책동에 의하여 남조선경제는 자본, 원료, 기술 등 경제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것을 미국과 일본의 독

Digitized by Google

점자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는 철저한 예속경제로 굴러떨어졌다.

미일독점자본에 2중으로 예속된 남조선경제는 오늘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위기의 영향밑에 남조선경제는 더욱더 파국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54페지)

경제의 파국적위기와 상시적인 불안정성, 이것은 현대자본주의경제의 필수적동반물로서 식민지예속경제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있다. 독점자본은 국내에서의 경제불황과 세계적인 연료동력위기, 통화금융위기 및 새로운 무역전쟁으로부터 오는 온갖 손실을 자기 나라 근로자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특히는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과 식민지인민에 대한 략탈을 보다 강화하는 방법으로 메꾸려고 날뛰고있다. 이리하여 식민지예속경제는 자본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영향밑에 더욱더 파국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다.

남조선경제의 현파국상과 극심한 불안정성은 현시기 식민지예속경제가 겪고있는 경제파국의 가장 전형적인 실례의 하나로 된다.

오늘 남조선경제는 일찌기 볼수 없었던 혼란과 침체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남조선경제의 파국은 특히 광란적인 물가고와 수출조건의 급격한 악화, 생산감퇴와 전례없는 파산선풍, 실업의 증대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물가가 하늘을 모르고 치달아오르고있으며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통화가 급격히 팽창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줄여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더라도 올해에 들어와 7월까지 도매물가는 15.9% 뛰여올랐다고 하며 년말까지는 그것이 또다시 15%이상 더 오를것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리하여 올해 공식적인 물가상승률은 적어도 30%선을 넘어설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난해 남조선에서 공식물가상승률이 14%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물가가 47.3%이상 올랐다는것을 념두에 둘때 올해에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100%이상 뛰여오르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에서는 특히 소비자물가가 급속히 뛰여오르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나타난 소비자물가지수의 등귀는 1970년이후 가장 심각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석유위기》가 한창 번져가고있던 1974년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여오르고있다.

남조선에서 극심하게 일어나고있는 물가등귀와 인플레현상은 경제부문들사이, 기업체들사이의 련계와 거래관계에서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고있으며 생산과 분배, 류통과 소비사이에 조성된 배리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있다. 이와 함께 그것은 소득의 재분배과정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계급계층들사이의 소득격차를 비상히 확대시키고있다.

남조선경제의 현파국상과 증대되는 경제의 불안정성은 수출의 길이 막히고 무역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른바 《수출주도형경제》로 재편성되였다는 남조선경제의 전반적경기상태를 특징짓는데서 무역동태가 가지는 의의는 각별히 크다.

지금 남조선의 수출형편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올해 1~6월까지의 상품수출동태를 보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상품수출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물가등귀현상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지속되는 경기불황상태로부터 벗어나보려고 상품수입을 대폭 늘이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상품수출의 절대적축감현상의 발생은 남조선의 무역적자를 대폭 늘이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다. 남조선은 지난 7개월동

Digitized by Google

안에 이미 32억 7천만딸라에 달하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냈는데 이대로 나가면 올해의 무역적자는 50억딸라이상에 이를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가장 큰 무역적자를 냈던 1974년에도 그것이 23억딸라였다는것을 고려할 때 올해 남조선의 무역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고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수 있다. 주되는 상품시장으로 되고있는 미국과 일본 등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남조선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계통적으로 강화하고있으며 다른 한편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체계적으로 오르고 대내에서 생산원가가 계속 높아지고있는 실정에서 사정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것이라고 한다.

남조선경제의 현파국상과 증대되는 불안정성은 또한 생산의 감퇴, 기업의 파산사태와 실업자의 증대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인플레가 날로 격화되고 수출이 더욱 어렵게 되는 가운데 공업생산의 감퇴가 장기화되고 전면적성격을 띠게 되였으며 기업가동률과 설비리용률은 계통적으로 떨어지고있다.

놈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올해초부터 격심한 불안정상태에서 헤매이고있던 남조선산업은 드디여 4월부터 장기적인 침체속에 빠져들어갔다. 그리하여 공업생산은 4월부터 8월사이에만도 15%나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동시에 나타나고있다. 특히 기계, 금속 등 기간공업과 합판제조업, 섬유공업 부문을 비롯하여 수출산업부문에서 생산감퇴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기계공업은 전체적으로 그 가동률이 30%에도 이르지 못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 자동차조립 및 자동차부속품생산 같은 운수기계공업부문은 전면적인 조업중단상태에 놓여있다. 생산품의 90%이상을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 수출하고있는 합판제조업과 수출상품의 30%를 담당하고있는 섬유공업의 설비리용률도 한심한 상태에 있다. 상품재고의 루적과 기업가동률의 체계적인 저하는 외채와 은행융자에 명줄을 걸고있는 매판기업과 항시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재정상태를 최악의 지경에 밀어넣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대기업의 파산선풍이 일고있다. 지난 4월에 종합상사를 포함한 14개의 산하기업을 가지고있던 《률산크룹》이 파산한것을 비롯하여 5월에는 10개의 계렬기업을 가지고있던 《원진크룹》이 해체되고 뒤이어 20개의 여러 업종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생사크룹》이 산하 17개의 기업을 《정리처분》하지 않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12개의 종합상사와 근 50개에 달하는 《재벌》기업들도 모두 파산직전상태에서 치렬한 《자금전쟁》을 벌리고 있다.

대기업의 형편이 이러한 조건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이루 헤아릴수 없게 되였다. 지난 7월현재 남조선의 중소기업가동률은 77.1%에 지나지 않았으며 조업단축, 휴업, 페업한 기업수는 각각 2,848개, 463개, 106개에 이르고있다.

기업의 조업단축, 휴업, 페업이 늘어남에 따라 실업, 임금체불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올해 상반년에만 하여도 새로 20만명의 실업자와 50만명의 반실업자가 더 생겨났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현상도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지난 6월말현재 체불임금액은 1971년이후 최고수준에 이르러 그 규모가 349억원에 달하였는데 얼마 안가서 그것은 500억원선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로동자 100만명의 한달분에 맞먹는 임금이 체불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조선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급격히 악화시키고있으며 력사상 류례없는 민생고를 빚어내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일자리와 집이 없고 먹을것이 없어 혹심한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면서 류랑걸

Digitized by Google

식하고있다.

남조선의 로동자들은 12~18시간이상의 식민지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있으며 그것마저 꼬리를 물고일어나는 기업의 파산과 몰락으로 일자리를 떼우고 방황하는 실업자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얼마전에 서울 와이에취무역회사가 문을 닫는바람에 거기에서 일하던 500여명의 로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일자리를 떼운 사실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로 된다. 이런 현상은 남조선에서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로동자들은 직업에 대한 항시적인 불안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있다.

남조선의 거리는 일자리를 잃고 헤매는 로동자들과 살길을 찾아 모여든 리농민들로 욱실거리고있으며 남조선은 말 그대로 《실업의 왕국》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한창 배워야 할 나이에 깡통을 차고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걸식아동들이 해마다 늘어나고있으며 근로자들은 판자집과 천막집 그리고 다리밑이나 하수도구멍과 같은 《집아닌 집》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있다. 외래독점자본가놈들과 지주, 매판자본가놈들에게 뜯기우고 찢기우는 근로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절망끝에 목숨을 끊는 참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수륙만리 대륙과 대양을 건너 낯설은 이국땅으로 팔려가 값없이 죽어가고있다. 바로 이것은 미일독점자본에 명줄을 건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인 후과이며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정책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경제가 헤여날수 없는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으며 그것이 사회경제생활전반에 미치는 파괴적영향은 더욱더 커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적예속성과 파국상은 미제의 강점밑에 미일독점자본이 남조선경제를 틀어쥐고있으며 남조선괴뢰도당이 그것을 적극 비호하고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지금 남조선괴뢰도당은 저들이 겪고있는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며 외래독점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데서 찾아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러나 외세의존과 인민수탈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오늘의 경제적파국을 해소시킬수 없다.

남조선경제를 오늘의 예속과 파국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외래독점자본에 의한 지배와 략탈을 끝장내야 하며 북과 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이 다방면적인 경제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남조선경제를 엄중한 파국상태에서 구원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짓밟힌 자주권을 도로 찾고 참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와 외세의존정책을 견결히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미국, 일본, 남조선 3각군사동맹 조작책동의 침략적본질

허　　헌

아세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조선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강점을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과 일본, 남조선을 망라하는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며 아세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미제의 지휘밑에 본격화되고있는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이미 쌍무적인 군사조약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군사적결탁관계를 이제는 하나의 합법적인 군사동맹체계로 완성하기 위한것이다.

미제는 저들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이 마치도 조선과 동북아세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라도 한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간판밑에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다.

미제의 조종밑에 적극 추진되고있는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 조작음모는 조선과 아세아의 침략을 노리는 반동적인 군사동맹조작책동이다.

반공군사동맹을 조작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제2차세계대전을 도발하였던 파쑈독일과 이딸리아, 일본제국주의자들사이에 맺어졌던 반공군사동맹을 비롯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군사쁠럭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의 위협》에 따르는 《지역협력》이라는 구실밑에 조작하려 하고있는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도 바로 그러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반공〉, 〈호상안전〉의 간판밑에 일련의 나라들을 침략적군사쁠럭과 쌍무적군사동맹, 군사조약에 얽매여놓고 이 나라들을 군사력으로 예속시키고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변시키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28페지)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한 놈들의 책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여왔으며 《한일협정》체결을 계기로 하여 더욱 본격화되였다.

미제는 1950년대에 맺은 《한미호상방위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미국과 남조선, 미국과 일본사이의 군사적결탁을 《한일협정》과 련결시킴으로써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최근년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사이에는 《국방장관》급의 《안보협의회》가 매해 열리고있고 공동작전지휘기구인 《한미련합군사령부》가 조작되였으며 미제와 일본반동들사이에는 《미일방위협력소위원회》가 설치되여 공동작전을 조종하고있다.

또한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사이에도 이미 정보, 통신 교환체계가 서고 군사인원들의 래왕이 정기적으로 실현되고있다. 이것은 미, 일, 남조선사이의 군사적결탁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모험적인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 일, 남조선사이에 《군사일체화》를 실현하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한 책동은 특히 최근에 와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사이에 《국회의원》들로 《안보》협의기구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지난 5월 서울에서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아세아의 군사정세와 조선반도정세 그리고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안보》협력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모의하고 이른바 《한일의원안보협의회》를 정식으로 내왔다.

이 《협의회》는 일본자민당소속 의원인 전 방위청장관과 자민당국방회 회장 등 일본의 《매파》들과 남조선괴뢰국회의 반공친미친일주구들로 구성되였다. 한편 남조선괴뢰도당과 미제국주의자들사이에는 《한미의원안보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하였으며 미제와 일본반동사이에는 《미일안전보장협의회》 (가칭)를 내오기로 하였다.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앞으로 이 기구들을 하나로 련결시켜 《미, 일, 한 안보협의회》를 내옴으로써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군사적결탁을 법적으로 안받침하려 하고있다.

미, 일, 남조선 사이의 군사적결탁음모가 로골화되고있는것은 또한 군부우두머리들의 빈번한 래왕과 군사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모의를 거듭하고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지난 4월초 당시의 미륙군참모총장 로저스가 일본에 기여들어 일본방위청장관과 미일간의 《방위협력》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모의하였다. 같은 시기 남조선괴뢰군합동참모본부 의장이란자도 일본과 미국을 찾아가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군사적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괴뢰군의 장비개선에 지원을 줄데 대하여 애걸하였다. 그밖에도 미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미해군작전부장놈 등이 일본과 남조선을, 일본《자위대》륙상막료장이 미국과 남조선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군부우두머리들의 접촉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특히 일본방위청장관 야마시다의 남조선행각이다.

야마시다는 남조선에 기여들어 남조선괴뢰군 국방장관이란놈과 이른바 《한일국방장관회담》을 벌리였으며 판문점과 군사분계선일대까지 돌아쳤다.

남조선과 일본의 군부우두머리들사이에 진행된 《한일국방장관회담》에서는 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세아 정세를 론의하고 일본과 남조선사이에 《안보》협력을 강화할데 대한 모의를 하였다. 일본의 현직방위청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되는 야마시다의 남조선행각은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고 미, 일, 남조선 사이의 《군사일체화》를 촉진하기 위한것이다. 이에 대하여 놈들자신도 《야마시다의 방문은 외교, 경제분야에 치중했던 종래의 한일관계에 안보상의 관계를 새로 추가시키고 한일간의 군사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사실상의 한미일 3국공동안보체제구축을 위한 중요한 포석으로 보여진다.》고 공공연히 지껄여댔다.

미, 일, 남조선사이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한 책동은 합동군사연습을 대규모적인 범위에서 자주 벌리고있는데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종전까지만 하여도 놈들은 미일합동군사연습이나 미국, 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따로따로 벌려왔다. 그러나 최근시기에 와서 놈들은 《팀 스피리트》와 같이 대규모의 미, 일, 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로골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미제가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하여 얼마나 미쳐날뛰고있으며 놈들의 발악적책동에 의하여 미, 일, 남조선사이의 《군사일체화》는 이미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최근 미제가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은 놈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위기의 반영이며 쇠퇴멸망하여가는자들의 발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미제국주의가 가장 횡포하게 행동하는 오늘 그의 취약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뚜렷이 드러나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25페지)

지금 미국에서는 끊임없는 생산의 감퇴와 통화팽창, 급격히 뛰여오르는 물가, 날로 늘어나는 실업자들로 하여 사회적불안과 무질서는 전례없이 증대되고있다. 거기에 연료난, 원료난까지 겹쳐 미국경제는 끊임없이 파국의 길로 내닫고있다. 미제는 서독, 일본 등 자본주의나라들과의 무역전쟁에서도 계속 패하고있으며 딸라시세의 급격한 저하로 지난날 자본주의세계에서 차지하고있던 지배적지위는 크게 상실당하고있다.

지난 조선전쟁때부터 나타난 미제의 군사적취약성은 오늘에 와서 더욱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있다.

미제는 심한 병력위기를 겪고있다. 병력원천의 고갈은 미제침략군의 병력수준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총군사비에서 병력유지비가 차지하는 비률을 높이게 함으로써 장비개선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세계도처에 수많은 군사기지를 전개하고 전략무기개발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는 무거운 군사비에 짓눌려 허덕이고있다.

미제가 겪고있는 이 모든 심각한 위기들은 놈들의 《힘》이 이미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런 조건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역할에 대한 책임》을 일본과 서로 《분담》하고 일본과 남조선에 더 많은 군사비부담을 들씌우는 방법으로 궁지에 빠진 저들의 처지를 수습하고 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식민지지배를 유지강화하려 하고있다.

미제의 우두머리들이 일본과 남조선 괴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미국의 지위를 강화하고 태평양지역에서 전략적,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해가는 핵심》이라고 떠벌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미제가 최근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또한 저들의 대아세아군사전략이 추구하는 침략적야망과도 관련된다.

현시기 미제의 대아세아군사전략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이 지역에서 강력한 반공군사동맹체계를 형성하여 무너져가는 식민지지배체계를 재수습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을 제압하려는것이다.

최근년간에 미제는 동남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쫓겨났으며 저들이 조작해놓은 괴뢰들이 련이어 거꾸러졌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서 친미반동정권이 무너졌다. 반제반미투쟁, 쁠럭불가담운동의 세찬 불길속에서 미제가 조작해낸 동남아세아군사동맹인 《쎄아토》가 완전히 붕괴되였으며 서남아세아의 일부 나라들을 끌어들여 꾸며낸 《쎈토》역시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미제는 명색뿐인 《안쥬스》반공군사동맹에 활기를 넣는 한편 동북아세아에 새로 침략적인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함으로써 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반공군사동맹체계를 수습해보려 하고있다.

미제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또한 놈들의 대아세아군사전략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있는 《단기맹타격전략계획》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미제의 《단기맹타격전략계획》이란 미제침략군으로 《기동타격부대》를 편성하고 그것을 임의의 지역에 집중투입하여 공격속도를 높이고 짧은 기일안에 저들의 침략목적을 이루어보려는 가장 흉악한 전쟁계획이다. 이것은 카터가 집권한후 미제의 세계전략과 미제침략군의 무장력상태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비밀지령으로 채택된것이다.

미제는 《단기맹타격전략계획》의 기본대상을 조선반도로 선정하고 유사시 조선전선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기동타격부대》를 창설하는것과 함께 그 작전능력을 높이려 꾀하고있다.

저들의 이러한 전략적요구를 관철하는데 있어서 미제는 일본과 남조선을 떤

Digitized by Google

결시키고 일본에 있는 군사기지들의 리용범위를 확대하며 일본《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과의 작전적배합을 실현하는 문제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진행한 대규모 군사연습인 《팀 스피리트 78》과 《팀 스피리트 79》는 바로 놈들이 《단기맹타격전략계획》을 실지 작전행동에 옮기기 위한 《예비전쟁》, 《시험전쟁》이였다. 미제는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함으로써 미제침략군 《기동타격부대》들이 일본본토와 오끼나와를 발진기지, 작전보급기지, 중계기지로 리용하며 남조선괴뢰군과의 련합으로 남조선에서의 군사작전을 진행하려 하고있다.

사실들은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이 미제의 《단기맹타격전략계획》 실현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의 반동적본질은 날이 갈수록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책동의 반동적본질은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영원히 틀어쥐고 전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대륙침략의 목적을 이루어보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하여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고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97페지)

현시기 미제의 아세아전략에서의 초점은 동북아세아이며 특히 조선반도이다. 미제는 지금 남조선을 영원히 틀어쥐고 그곳을 지탱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에 대한 침략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아세아에서의 미국의 모든 성공이 결정될수 있는 무대》로 된다고 떠벌이면서 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게 되면 《아세아로부터의 미국의 최종적인 철수》로 된다고 비명을 치고있다.

미제의 이런 침략야망은 공화국북반부의 위력의 강화와 조선반도가 차지하고있는 군사전략적위치의 중요성과 관련되여있다. 공화국북반부의 위력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게 커다란 불안을 주고있다. 조선반도는 아세아대륙과 련결되여있고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다. 미제는 조선의 지리적조건이 일본과 태평양상에 있는 제놈들의 군사기지로부터 군사인원과 무장장비들을 쉽게 이동할수 있게 하며 아세아전략의 실현을 용이하게 할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그곳을 원료기지, 상품판매시장으로뿐아니라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며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요충지,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남조선을 영원히 틀어쥐려는 미제의 책동은 특히 놈들이 웰남, 라오스, 캄보쟈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고 남조선이 아세아에서 제놈들의 마지막식민지로 남게 된 때로부터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미제는 동남아세아에서의 수치스러운 참패의 결과 중요한 군사전략적거점들을 잃어버렸으며 아세아전반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고있던 이른바 저들의 《전선방위선》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는가 못쥐는가 하는것은 아세아에서 식민지지배를 유지하는가 못하는가, 아세아침략을 위한 거점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였다.

미제는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함으로써 바로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에 대한 침략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책동의 반동적본질은 또한 미제

Digitized by Google

가 추구하는 《힘의 정책》의 직접적산물이라는데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전략은 아세아를 정복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전략의 하나이다.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길들여지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데 이골이 난 미제에게 있어서 《힘의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것이다. 놈들이 떠들고있는 《평화》요 《협상》이요 하는것도 본질에 있어서는 《평화》의 막뒤에서 《힘》을 키워 무력으로 침략적야욕을 이루어보려는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미제가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힘의 유지》는 세계평화의 《기본요소》라고 하면서 계속 핵《공갈》정책과 《단기병타격전략》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3각군사동맹의 조작놀음은 바로 미제가 손아래동맹자들과 추종국가들, 괴뢰들의 힘을 그러모아 아세아에서 저들의 《힘의 우위》를 이루며 《힘》으로 아세아를 정복할것을 노린 음모책동이다.

미제는 무엇보다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리용하는데 기대를 걸고있다. 현시기 미제의 대일정책에서 기본은 일본을 미국의 핵우산밑에 넣고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일본의 군사적잠재력을 제놈들의 침략정책수행에 최대한으로 리용하려는것이다. 그리하여 미제는 일본반동들에게 《자위대》무력을 강화하고 《방위분담》에 적극 참가하며 군사기지의 공동사용범위를 확대하도록 부추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요구에 따라 일본의 《안전》에 대하여 떠들면서 군사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군수산업을 건설하며 《자위대》의 무장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9년도 군사비를 그 전해에 비하여 무려 25%나 더 늘이고 《피3씨》기와 《에프 15》기를 새로 구입하여 《자위대》의 대잠수함초계능력과 반항공능력을 높이고있으며 륙상《자위대》4사단, 9사단 병력과 쯔시마주둔병력을 대폭 늘이고있는것은 그 실례로 된다.

한편 미제는 《집단안보》의 간판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사이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심화시키며 일본반동들로 하여금 괴뢰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적극 부추기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일반동들의 범죄적인 군사동맹조작에 적극 호응하면서 남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상전의 침략정책수행에 깡그리 바침으로써 제놈들의 더러운야망을 이루어보려고 꿈꾸고있다.

미제는 해외팽창의 야욕에 눈이 어두운 일본군국주의세력을 견제하고 리용하여 제놈들의 《힘》을 보강하며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사이의 《군사적협력체계》를 완비함으로써 《힘의 정책》으로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3각군사동맹조작놀음의 이런 침략적, 반동적 본질은 오늘에 와서 세계의 면전에 더욱 드러나고있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책동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반제혁명투쟁의 시대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자기의 자주권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온갖 폭력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는것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지금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세계를 렬강들의 폭력과 세력권으로 분할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물리치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 폭력

Digitized by Google

불가담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파탄되고 미제가 조작한 침략적군사쁠럭들은 전면적으로 붕괴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려고 날뛰는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며 자멸의 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책동이다.

우리 인민은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견결히 반대하며 놈들의 침략적군사동맹조작책동을 단호히 배격한다.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고 조선이 자주적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정책과 전쟁책동이 끝장나야 하며 그 어떤 군사쁠럭의 조작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미제는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영원히 틀어쥐려는 야망을 버리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만일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인민의 거듭되는 경고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두개 조선》 조작에 계속 매여달리며 끝끝내 범죄적인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고 전쟁모험에로 나간다면 놈들은 더욱 큰 타격과 패배를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놈들의 온갖 음모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79년 제11호(루계 451호)

편 집 위 원 회

번 곳•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1979년 11월 1일　　발 행• 1979년 11월 5일

ㄱ－95273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 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MAR 16 1980

12호

평 양 근로자사 1979

Digitized by Google

제12호(452)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긍정감화교양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위력한 대중교양방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혁명은 비상히 빨리 전진하고있으며 이 과정에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긍정적모범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백설희, 김상면, 박영철, 장재산동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기 맡은 혁명초소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움으로써 과학기술과 인민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들이 창조한 빛나는 위훈들과 숭고한 모범들은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혁신적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는 로동당시대를 장식하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적극 따라배우게 함으로써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1

긍정적모범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은 우리 당이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대중교양방법이다.

긍정감화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발현되는 긍정적모범과 공산주의적미풍들을 내세우고 그것을 적극 따라배우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며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사상교양방법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긍정적모범의 진형을 옳게 내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대중교양을 활발히 벌려야 인간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긍정적모범을 내세우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림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긍정적모범과 공산주의적미풍들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훌륭한 모범과 영웅적위훈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과 미풍을 따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긍정적모범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온 사회에는 약동하는 혁명적 기상과 기백이 차넘치고있다. 위훈이 위훈을 낳고 긍정이 긍정을 낳으면서 힘차게 전진하는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자랑찬 면모이다.

우리의 숨은 영웅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끝없는 충성심에서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2페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그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깊이 자리잡고있는 철석같은 신념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자기들에게 참다운 인간의 존엄과 삶의 보람을 안겨주고 오늘의 행복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의도하시

Digitized by Google

고 바라시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훌륭히 실현해나가겠는가,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 더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겠는가 하는것이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마음속깊이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간절한 생각이다. 바로 이러한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언제나 당과 함께 하나의 숨결로 고동쳐왔기에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사람들을 그처럼 경탄시키는 기적적인 성과들을 창조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푸는것을 가장 숭고한 혁명적본분으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끝까지 실현하는데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자기의 결의를 굽히지 않았으며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당과 혁명을 위하여 10년, 20년, 30년을 하루와 같이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우리의 숨은 영웅들은 당의 크나큰 기대에 훌륭히 보답할수 있었다. 그 어떤 공명이나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는것이 그들의 투쟁과 생활의 전부였다.

주인다운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자기 맡은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나가는것은 또한 우리의 숨은 영웅들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없이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뚫고나가는 강의한 의지,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해내고야마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드높은 혁명적열정, 바로 이것이 그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이다.

이러한 품성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그들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리고 거듭되는 실패에도 물러섬이 없이 완강한 투쟁을 벌려올수 있었으며 자기가 내세운 목표를 훌륭히 점령할수 있었다.

참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해내는것은 그들이 보여준 고상한 사업기풍이며 일본새이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적풍모는 또한 주체사상을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주체적립장에 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주체적인 립장과 관점, 주체의 방법은 그들의 사색과 탐구, 실천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움직일수 없는 원칙이였으며 여기에 그들이 기적을 창조할수 있은 중요한 요인이 있는것이다. 그들은 하나의 문제를 착상하고 설계하여도 기성리론이나 기성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식으로 설정하고 우리 식으로 풀어나갔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그들이 확고하게 의거하고 견지한 절대적인 기준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였다. 언제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탐구하고 해결해나가는것이 그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견지한 변함없는 립장과 태도였다.

우리의 영웅과학자들은 한알의 종자를 연구하여도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품종을 연구하고 하나의 기술혁신을 하여도 우리 혁명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하였으며 우리의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것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떠난 사색과 실천이란 없었다. 그들은 오직 조국의 끝없는 부강발전과 민족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뜨거운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웠으며 언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색하고 탐구하고 창조해나갔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발현

되고있는 이러한 공산주의적 미풍과 소행들은 긍정적모범의 전형이며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따라배워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을 무한히 흥분시키고 감동시키는 숭고한 긍정적모범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인테리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현대적인 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인재로 키워왔으며 그들이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훌륭히 보답하도록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는 영웅이 되고 우리 사회가 긍정적모범들로 차넘치고있는것은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사회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긍정적모범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전면적으로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며 그들을 빛나는 로력적위훈에로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따라서 숨은 영웅들의 빛나는 모범과 공산주의적미풍으로 대중을 교양할 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서 더욱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여기에 숨은 영웅들의 긍정적모범과 미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대중교양을 적극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것이다.

2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긍정감화교양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간개조의 합법칙적요구에 맞는 위력한 대중교양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조건에서 가장 힘있는 군중교양방법은 사람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제2판, 181페지)

사회주의사회는 긍정적인것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지배하는 사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지난날 착취받고 억압받던 근로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근로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또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강화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경제적처지,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있다.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발전의 길이 열려져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내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그리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대중적영웅주의와 긍정적모범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긍정적인 현상들이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은 곧 전사회적인것으로 보편화되여 온 사회에 긍정적인것이 지배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특성은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을 대중교양의 기본방법으로 틀어쥐고나갈것을 요구한다.

긍정감화교양은 사회주의하에서 인간개조사업의 특성에도 맞는 위력한 대중교양방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간개조사업은 그

Digitized by Google

어떤 강요나 행정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해설과 설복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해설과 설복의 가장 설득력있는 방법은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이다.

긍정적모범은 아름답고 숭고하며 생동하고 구체적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대중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또한 부정에 대한 말없는 비판으로 되며 부정을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모범과 미풍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 강한 충격과 영향을 줌으로써 그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사업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가들이 어떻게 살며 싸워나가야 하는가를 생동한 사실을 통하여 교양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치고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게 한다. 따라서 긍정적모범으로 교양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중요한 사상혁명과정으로 된다.

우리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긍정감화교양은 또한 사람들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기백이 약동하게 하고 전국을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게 하는 위력한 대중교양방법이다.

긍정적모범에 의한 교양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사람들을 무한히 격동시키며 그들에게 긍정적모범을 본받으려는 강한 의욕과 큰 충격을 주어 자신도 그와 같이 할수 있다는 신심과 욕망을 북돋아준다. 긍정감화교양은 또한 영웅적위훈들과 공산주의적미풍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것을 일반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대중적혁신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 혁명과 건설은 더욱 빨리 전진하게 된다.

이 모든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긍정적모범과 숭고한 미풍을 적극 내세우고 그것으로 대중을 교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얼마나 위력하고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긍정적모범을 적극 내세우고 따라배우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켜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온 사회에 긍정적모범과 공산주의적미풍이 더욱 활짝 꽃피여날 때 우리의 혁명대오는 보다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질것이며 우리 혁명은 비상히 빨리 전진하게 될것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긍정감화교양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성과에 기초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더욱 심화시켜나가는 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임무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긍정적모범을 적극 내세우고 그것을 일반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과 의도를 똑똑히 알고 대중속에서 긍정감화교양을 더욱 힘있고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긍정감화교양을 실속있게 벌리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대중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찾아내고 그것을 적극 내세우며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단체들은 대중속에서 창조되

는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찾아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모범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82페지)

긍정적모범을 적극 찾아내고 내세워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그것을 제때에 따라배울수 있으며 사람들을 새로운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자기 혁명초소에서 소문없이 큰일을 하는 숨은 영웅들과 난관앞에서 두려움을 모르고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서 열어나가는 혁신자들, 나라에 더 많은 보탬을 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일하는 애국자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그들을 적극 내세워야 한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숨은 영웅들과 혁신자들, 애국자들을 찾아내자면 일군들이 언제나 대중이 일하며 생활하는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그들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환히 알고있어야 하며 긍정적인 모범을 찾아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사람을 정확히 볼줄 알아야 한다. 산 사람은 생활과 투쟁속에 있다. 사람을 옳게 보기 위하여서는 그의 실지사업과 생활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전면적으로 평가할수 있으며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긍정적측면을 정확히 찾아낼수 있다.

만일 일군들이 산 사람을 보지 않거나 협애하게 결함만 본다면 긍정적측면을 찾아낼수 없고 숨은 영웅들과 혁신자들을 발견해낼수 없다.

일군들은 사람들의 좋은 측면을 찾아내여 그것을 적극 지지해주고 조장발전시켜야 한다. 비록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허물만 보지 말고 그가 가지고있는 좋은 점을 적극 지지해주고 조장발전시켜준다면 그로 하여금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훌륭한 일을 하게 할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또한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공정감화교양의 커다란 성과는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이 사업을 얼마나 실속있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긍정적모범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때에 일반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힘있는 조직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백설희, 김상련, 박영철, 장재산동무들과 같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일군들과 당원들이 숨은 영웅들의 긍정적모범을 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따라배우고 본받을 점은 무엇이고 자기 사업에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사업과 생활을 옳게 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또한 우리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영웅들의 모범을 내세우고 본받도록 하는 중요한 목적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들처럼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가게 하려는데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살며 일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한몸 단단히 하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

Digitized by Google

선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긍정감화교양을 실속있게 벌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혁명적군중관점을 정확히 세우고 창조의 맥박이 높뛰는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사업에서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대중의 혁신적발기와 창발적의견들을 제때에 받아들여 모든 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깊이있고 실속있게 할 때 아래에서 어떤 가치있고 의의있는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또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요구하는지를 똑똑히 알고 그에 맞게 사업할수 있다.

로력영웅 백설희동무의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도와나선 성천군 10월7일협동농장 초급당비서 장재산동무의 사업 방법과 작풍은 당일군들이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장재산동무는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의 당일군의 참다운 전형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장재산동무가 보인 빛나는 모범을 본받아 어머니당의 당일군답게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일군들이 사업 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의 실천행동은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데서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큰 감화력을 가진다.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두터이하고 당의 권위를 높이며 대중에 대한 당의 혁명적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로동과 학습, 생활의 모든 면에서 늘 대중의 모범이 되여야 하며 대오의 앞장에서 나가는 투쟁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이렇게 일군들이 사업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끊임없는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더 많은 긍정적모범과 미풍이 나오게 할수 있다.

만일 일군들이 실천행동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면 당원들을 잘 교양할수 없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일수 없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도 옳게 보장할수 없다.

일군들은 실천활동에서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적극적인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되여야 하며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며 어려운 일에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현실은 우리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는곳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기세와 창조적열의가 높고 모든 사업이 잘되며 새로운 긍정적모범들이 끊임없이 창조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일군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이 높아야 당정책적안목에서 모든 문제를 옳게 보고 판단할수 있으며 당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설계하고 패기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것이 바로 정책적안목을 가지고 사업하는것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이와 같은 높은 당정책적안목을 가져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뿐아니라 현대적 과학과 기술

Digitized by Google

을 잘 알아야 한다.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애써 일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줄수 없으며 대담하게 혁신하려는 근로자들의 투쟁을 옳게 떠밀어줄수 없다.

정치리론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이 낮으면 불피코 기술신비주의와 보수주의, 경험주의에 빠지고 소극성에 사로잡혀 앞으로 전진할 생각을 하지 못할뿐아니라 남이 통이 크게 설계하고 혁신하려는것까지 방해하게 된다.

일군들은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소유함으로써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특출한 공훈을 세운 영웅들과 혁신자들을 사회적으로 잘 도와주어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빛나는 위훈을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근로자들이 긍정적모범을 따라배우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영웅들과 혁신자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꽃을 피워 2중영웅, 3중영웅, 4중영웅, 5중영웅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그들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다 영웅이 되고 혁신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워 모두가 영웅이 되고 혁신자가 되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영예이며 자랑이다.

긍정감화교양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대중적인 인간개조운동이며 경제문화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는 공산주의적전진운동이다. 이 운동은 모든 근로자들이 대중적위훈과 집단적혁신, 긍정적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따라배우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게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긍정적모범과 미풍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건설에서 위훈을 떨치는 생산혁신자가 되고 발명가, 창의고안의 명수가 되게 하여야 한다.

긍정감화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긍정적모범을 통한 대중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

리 상 걸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똑바로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혁명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제 정신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곧바른 승리에로 전진시켜나갈수 있으며 필승의 신념을 안고 동요없이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싸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의 일반적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견해를 줄뿐아니라 혁명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밝혀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반드시 가져야 할 주체적인 관점과 태도이다.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태도에는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가 가장 폭넓고 깊이있게 구현되여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반드시 가져야 할 사상관점과 태도가 집대성되여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주체의 혁명관을 똑바로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 *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혁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요구로부터 시작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그들의 활동에 의하여 발전한다. 근로인민대중을 떠나서는 혁명이 일어날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다. 따라서 혁명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세우자면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밝히는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7폐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는 혁명의 원리이다. 이 원리에는 혁명의 주체와 동력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답이 주어져있으며 혁명의 발생발전의 근본리치가 집약적으로 반영되여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근로인민대중이라고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직접 담당수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사회적변혁의 방향과 과업, 그 운명을 결정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라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있다고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력량이며 기본요인이라는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추동력이라는 사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근본목적과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힘에 대한 가장 옳바른 분석에 기초하여 나온 과학적인 혁명원리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며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만 침략자와 억압자들을 때려부시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으며 자연을 정복하여 유족하고 문명한 새생활을 창조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여 력사를 창조해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가 있다.

원래 근로인민대중은 자신의 힘과 활동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장 높이 체현하고있다. 이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의 그 어떤 세력도 가질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사상정신적힘과 조직적단결의 힘 그리고 풍부한 인식실천능력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은 무궁무진하며 세상에서 근로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사상에는 혁명의 주인이 누구이며 혁명은 어떤 힘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가 하는데 대한 과학적인 리해가 집약적으로 밝혀져있을뿐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을 어떻게 보며 혁명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사상관점과 태도가 뚜렷이 명시되여있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은 혁명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와 립장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리론적 출발점으로 된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무엇보다도 혁명을 참다운 사회적인간, 근로인민대중의 떼여낼수 없는 생활적요구로, 그들의 가장 성스럽고 값있고 보람찬 일로 보는 사상관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사람은 혁명을 하면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지 혁명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밥이나 먹고 세월을 보내서는 사는 보람이 없습니다. 더우기 오늘과 같이 벅찬 혁명의 시대에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것은 사실에 있어서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값에 가지 못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8페지)

참다운 사회적인간,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생활이란 본질에 있어서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활동이며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다름아닌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인것이다. 근로인민대중에게는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속에 투쟁이 있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떠난 생활이란 있을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보다 더 성스럽고 값있고 보람찬 일은 없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근로인민대중의 떼여낼수 없는 생활적요구로, 가장 성스럽고 값있고 보람찬 일로 되는것은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로 되기때문이다.

자주성은 원래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Digitized by Google

본질적특성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동물과 구별되며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존재로 된다. 따라서 자주성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된다.

자주성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이지만 그것은 결코 저절로 고수되고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사회생활과정에는 자연의 맹목적인 힘과 낡고 반동적인 사회제도를 비롯한 이러저러한 질곡들이 있게 되며 이러한 질곡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고 구속하는 요인으로 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있는한 근로인민대중은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날수 없고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고 구속하는 자연적 및 사회적 질곡은 자연을 정복하고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통해서만 없앨수 있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은 혁명에 의해서만 고수되고 실현된다. 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형태의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자연의 구속을 없애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없다.

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일뿐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 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참다운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제일생명은 정치적생명이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육체적생명보다도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간직하는 여기에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가치가 있고 영예와 존엄이 있는것이다.

사람의 정치적생명은 저절로 지니게 되고 유지되는것이 아니며 스스로 빛나는것도 아니다. 사람의 육체적생명이 인간유기체의 끊임없는 신진대사과정을 통하여 유지되고 성장한다면 사람의 정치적생명은 오직 조직과 집단의 한성원으로서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서만 간직되고 유지되며 발전한다.

참다운 사회적인간, 근로인민대중은 이처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해야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완전히 실현할수 있으며 혁명의 한길에서만 정치적생명을 간직하고 빛내이며 영원한 삶을 누릴수 있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자연을 개조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의 떼여낼수 없는 생활의 요구로 되며 그 무엇에도 비길데없이 성스럽고 값있고 보람찬 일로 된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이라는 주체적견해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을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적요구를 실현하는 가장 성스러운 일로 보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혁명관이 담고있는 혁명에 대한 사상관점의 본질이 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는 또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기때문에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2페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근로인민대중자신이라는데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태도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표현된다. 그런것만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자주적인 요구를 관철해나가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풀어나가는것이다.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종시켜 풀어나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데 근본목적이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떠난 혁명과 건설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종시켜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마땅히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처리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종시켜 풀어나가는것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가장 옳바른 태도이며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반영한 가장 과학적인 태도이다.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또한 모든 사고와 실천의 중심에 자기 나라 혁명을 놓고 모든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그 나라의 주체적력량이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인민은 모든것을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는 립장에 확고히 서서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신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우여곡절이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이 매개 나라를 단위로 하여 벌어지는것만큼 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주인다운 태도는 구체적으로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로 나타나야 하는것이다.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것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며 이 투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긍지를 느끼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이 간고하지만 혁명가들은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하며 정열로 차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붉은 기발을 들고 싸우다가 쓰러지는것은 혁명가로서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11페지)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체이며 혁명과 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그들은 마땅히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그들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주인다운 태도는 혁명의 한길에 자기의 일생을 바치겠다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가지고 그 어떤 모진 풍파속에서도 굴함없이 혁명의 붉은 기치

Digitized by Google

를 끝까지 고수해나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혁명은 백주에 탄탄한 대로를 따라가듯이 헐하게 될수 없으며 순풍에 돛을 단 배와 같이 순조롭게 전진하는것도 아니다. 혁명의 길우에는 험한 가시덤불과 파란곡절도 있을수 있으며 일시적인 실패와 부분적인 희생도 있을수 있다.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희생이 두려워 혁명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며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도대체 혁명을 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혁명이 아무리 간고하고 준엄하다고 하더라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혁명의 한길을 따라 굴함없이 싸워나가야만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력사와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주인다운 태도는 또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나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수령과 당이 주는 혁명과업,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와 인민, 조국과 혁명이 주는 임무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은 바로 그들이 수령과 당이 준 혁명임무를 성실하고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개척된다.

사회와 혁명앞에 지닌 혁명임무는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복잡하고 어려우며 오랜 시일이 요구될수도 있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가 맡은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애로와 난관이라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강의성과 누가 보든말든 자기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성실성,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희생성을 발휘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주인다운 태도는 혁명을 자주적인 생활적요구로 하고있는 참다운 사회적인간의 태도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생활태도이다.

혁명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의 최고표현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끄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는 일생동안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충실하게 살아야 죽어서도 인민들의 존경을 받을수 있습니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관하여》, 단행본, 16페지)

혁명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의 최고표현이며 참다운 사회적인간,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가장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걸으며 수령의 령도밑에 완성되여나가는 수령의 위업이다. 수령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높이 체현하고 그것을 반영한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발전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수령은 력사의 창조자인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넣어주고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며 근로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움으로써 그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력군으로, 새

Digitized by Google

력사의 보람찬 창조자로 만든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오직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된다. 따라서 수령에 대한 태도, 그것은 곧 혁명에 대한 근본태도로 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사람들의 혁명적태도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께 충성다해나가는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할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수 있고 혁명위업에 대한 헌신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은 주체의 혁명위업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완성되여나가는 성스러운 공산주의혁명위업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대를 이어 영원히 받들어나가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은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위업에 대한 충실성의 초석으로, 최고표현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혁명과 건설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의 본질이 있으며 조선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혁명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지금 혁명의 길우에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이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은 일군들의 숭고한 혁명적기풍

한 룡 석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혁명가의 본분이며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기풍이다.

혁명가들이란 원래 자기 수령과 당에 충실할것을 맹세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자각적인 투사들이다. 공산주의혁명가는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것이 아니다. 우리 일군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싸울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일군들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그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라면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에게는 오직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집행할 의무만이 있을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67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당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우리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침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 임무와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여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떠나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며 당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투쟁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당이 준 전투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때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의도와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고 우리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인것만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자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

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지 않고서는 수령의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킬수 없으며 혁명대오가 하나의 사상의지로 움직일수 없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일군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할 때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다시 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이 당정책을 어떤 립장과 자세에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철해나가는가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일군들속에서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이악하게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일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편향없이 확고한 승리의 길로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일군들이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하여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성스럽고 보람찬 사업이다.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은 육체적생명보다도 더 귀중하며 그것은 언제나 맑고 깨끗한 영원한 생명이다.

사람들이 일생을 두고 혁명을 위하여 보람있게 싸워나가는 과정이란 위대한 수령이 이끄는 혁명의 길에서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며 빛내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전사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바로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에만 튼튼히 유지되고 빛나게 된다. 참다운 혁명가들은 자기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주고 혁명가로서의 삶의 보람을 안겨준 수령에게 충성다하며 수령이 제시한 혁명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무로 여긴다. 수령이 제시하는 혁명로선과 방침을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떠나서 혁명가의 참다운 삶과 긍지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받아안은 우리 혁명전사들의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오직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지시를 관철하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유지되고 빛나게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최대의 의무로 여기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집행하는것을 하나의 철칙으로 삼고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혁명과 건설에서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혁명의 길에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도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투쟁할 때 극복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혁명이 헤아릴수 없이 간고한 길을 걸어왔지만 오늘과 같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옳은 로선과 방침을 내놓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기때문이며 당에 충직한 우리 인민이 그것을 뜨거운 심장으로 받들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왔기때문이다.

지난날 항일혁명투사들은 국가적후방과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가장 엄혹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혁명임무와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옹호관철하는것을 자신의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억세게 투쟁함으로써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원쑤격멸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의 영예와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켜내였다.

모든것이 파괴되여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있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불사조와 같이 일떠섬으로써 벽돌 한장 없는 재더미를 헤치고 우리 나라를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놓았다.

실로 사나운 폭풍을 헤치고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며 세기적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천리마조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혁명의 력사적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비약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와 우리 인민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은 더욱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우리 혁명에서 일대 전성기가 펼쳐진 오늘 모든 일군들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신념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책을 잘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26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신념화, 신조화하는것은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당과 혁명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당정책을 모르고서는 결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없다.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옳바른 자를 가지고 모든것을 재여보면서 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당의 의도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이 바로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언제나 꾸준히 진행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로정은 실로 전투와 행군으로 이어진 간고한 나날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에게는 결코 학습할 장소와 시간이 따로 주어져있지 않았다.

그들은 어려운 행군길에서도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도 생사를 가늠할수 없는 전투장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짜내여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과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한두끼의 끼니는 건늘지언정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만은 늘 가지고 다니면서 학습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이 나오면 서로 앞을 다투어 밤을 새우면서 읽었고 그것이 보풀이 일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풀로 붙이고 글자획을 덧그어가면서까지 학습하고 또 학습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국광복회10대강

령》과 같은 로작은 배낭뒤에 써붙이고 다니면서 그리고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서 학습하였으며 로작의 심오한 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투쟁의 지침으로 심장에 새겨넣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대로만 행동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지시들을 무조건 끝까지 집행해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의 이 숭고한 모범은 우리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을 모든 사업의 첫공정으로 삼고 당정책을 자기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행동준칙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훌륭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관철에서 헌신성과 희생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풍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당중앙위원회와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며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493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다. 이 과정에는 예상치 않았던 애로와 난관이 있을수 있다.

부닥친 난관에 동요하면서 조건을 타발하거나 어렵고 쉬운것을 가려가면서 맡은 혁명과업을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는다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그 어떤 흥정도 조건타발도 있을수 없다.

혁명가들은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억세게 싸워나가는 불굴의 투지를 지녀야 한다.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받으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제때에 정확히 집행해내였다.

그들은 절해고도에 홀로 남아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죽음을 앞에 둔 순간에도 오직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관철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그것을 끝까지 수행해내는데서 삶의 참다운 보람을 느끼였다.

실로 항일유격대원들은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적의 포대를 까부시고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제끼였으며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부대의 군복과 식량공작임무를 기어이 수행해내고야마는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높이 발휘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어서는 안되며 또 죽을 권리도 없다는것이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적의지였으며 투쟁과 생활의 확고한 신조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이와 같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은 우리의 영웅적인민군전사들속에 그대로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인민군전사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당과 조국을 위하여 복수의 총창을 억세게 틀어잡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적진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었으며 자기의 혈맥으로 끊어진 통신선을 잇는 무비의 희생성으로 맡겨진 전투임무를 끝까지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높이 발휘하여 끝까지 관철해내고야마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

Digitized by Google

설에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낳았다.

전후 안팎의 정세가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강선의 로동계급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6만톤 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한것도 바로 우리 인민의 불굴의 혁명적의지에 의하여 이룩된 자랑찬 일매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의 힘은 무적이며 우리 인민앞에는 점령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모든 일군들은 바로 이러한 혁명정신, 이러한 혁명적기풍으로 살며 일하여나감으로써만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해내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인 우리 일군들의 고유한 투쟁방식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이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동반하는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이다.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높은 혁명정신, 맨주먹으로 빈터우에서도 기적을 창조하는 강의한 혁명정신을 가질 때 해내지 못할 일이란 있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이 류례없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모든것을 다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15성상이라는 오랜 기간 발찹까지 무장한 일제와 싸워이길수 있었던것도 바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살며 싸워왔기때문이였다.

우리 인민은 이와 같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당정책을 관철해나감으로써 지난날 농기구 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처지로부터 오늘은 자체의 기술로 한해에 수만대씩의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만들어내고있으며 3천톤프레스와 6천톤프레스를 비롯한 대형기계들과 대형짐배, 대형변압기들을 척척 만들어내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할수 있었다.

자력갱생은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고유한 혁명적기풍이다.

우리 나라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으로 이어져 우리 혁명과 건설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은 우리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이끌어나감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성과 창발성은 당정책관철에서 일군들이 높이 발휘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적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혁명가들은 일감이 찾아올것을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고 일감을 찾아서 일하는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235페지)

당정책관철에서 책임성이 있어야 창발성이 나오고 창발성이 발휘되여야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당정책을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관철해나가는것은 지도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일본새이다.

일군들은 당정책을 전달이나 하고 그것을 아래에 되받아넘기는 방법으로 일하여서는 안된다. 아무리 당의 정책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일군들이 당정책집행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창발적으로 일하지 않고서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도 그것을 옳게 리용할수 없고 결국 당정책을 빛나게 관철해나갈수 없다.

오직 사업을 창발적으로 하는 일군만이 모든 문제를 기발하게 착상하고 옳은 방법론을 찾아내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해나갈수 있다.

당이 준 혁명임무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일군이 바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이다.

일군들은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한가지 과업을 받으면 열가지, 스무가지로 사업을 전개하며 언제나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애써 노력하여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이 《5분연도》식으로 처음에는 좀 끓다가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면 이미 하던 일을 중도에서 줴버리는것과 같은것은 혁명가의 일본새가 아니다.

일군들은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완강하게 투쟁하여 끝장을 내야 한다.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일을 질질 끌거나 이 과업을 주면 지 과업을 줴버리는 식으로 일하여서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낼수 없다.

일군들은 당에서 주는 임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뚫고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집행해내는 강의한 맛이 있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전반을 틀어쥐고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모든 과업을 다 제때에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근기있게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 조직지도사업을 잘하여야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방도를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성과적수행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제때에 사업을 총화하고 끊임없이 심화시켜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일군들은 능숙한 조직적수완을 발휘하여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 맡겨진 과업을 근기있게 해제낌으로써 당정책을 끝까지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미풍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백설희, 김상련, 장재산, 박영철동무들의 소행은 당정책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으로 살며 일하는 길에서만이 혁명전사의 참다운 삶과 영예가 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은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리 용 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두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로작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면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관료주의를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관료주의를 반대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지고 참다운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관료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언제나 경계하고 철저히 반대하여야 할 낡은 사업방법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사업은 인민을 위한것이며 관료주의는 인민을 배반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사업에서 관료주의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520페지)

관료주의는 낡은 착취사회의 유물이다.

소수특권계급이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독점하고있는 착취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사회적지위가 서로 다르며 그들사이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얽혀져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진 착취계급은 지배계급으로 되고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탓으로 하여 아무런 정치적 권리와 자유도 없는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된다.

착취제도의 이러한 사회계급적관계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사이에 적대적인 관계를 낳는다. 극소수의 착취계급과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은 추구하는 목적과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그들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적대적이다.

이로부터 주권을 틀어쥔 지배계급들은 정치에서 항상 강권에 매여달리게 되며 강제적방법, 몽둥이규률로써 인민대중을 다스린다.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지배계급들의 반인민적통치방법이 바로 관료주의이다.

지배계급들은 강압적인 방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착취사회를 유지해나갈수 없으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대립되는 제놈들의 탐욕적리해관계를 충족시킬수 없다.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관료주의적방법은 지배계급들의 생존수단이다.

관료주의를 반대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집권당의 경우에 일부 일군들속에서 군중로선을 어기고 관료주의적작풍을 나타낼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것과 관련된다.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지 못하고 혁명적세련이 부족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인민의 리익

Digitized by Google

을 무시하고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올수 있다. 집권당안에서 군중로선을 어기고 관료주의가 나오게 되는것은 전적으로 낡은 사상잔재를 가진 일부 사람들이 당과 국가 권력을 람용하는데로부터 오는것이다.

집권당에 있어서 관료주의는 주로 주관과 독단에서 표현된다.

주관주의는 군중의 힘과 현실적조건을 무시하고 개인의 욕망을 앞세우면서 문제를 인면적으로 보고 처리하는 그릇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다. 군중의 창발적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군중과 리탈하여 주관주의적으로 사업을 처리하는 사람은 군중의 의사와 현실을 모르게 되며 사업에서 필연코 관료주의를 범하게 된다. 주관주의는 관료주의의 선행관이다.

큰소리를 치거나 호령하는것만이 결코 관료주의가 아니다.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주관주의와 독단은 다 관료주의의 표현이다.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실정을 모르고 주관주의적으로 판단하여 내려먹이며 대중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것은 관료주의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재도일군들속에서 주관과 독단을 철저히 반대하고 그들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며 대중에 의거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반대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특히 그것이 당과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사정과 관련된다.

관료주의, 주관주의는 무엇보다도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관료주의는 당과 정권기관의 위신을 떨어뜨리며 우리 당을 인민대중으로부터 리탈시킴으로써 당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혁명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524페지)

관료주의는 당과 대중을 리탈시킴으로써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해나갈수 없게 한다.

당의 불패의 위력은 바로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으며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단결에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확고한 대중적지반에 기초하고 당과 대중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할 때에만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인 당으로 될수 있다.

일군들이 관료주의의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중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호령하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것도 꺼려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과 정권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우는데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광스러운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한다.

관료주의, 주관주의는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킴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적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

모든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것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전진한다. 당과 국가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자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끊임없이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관료주의, 주관주의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것을 망탕 내려먹임으로써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떨어뜨리고 창발성을 마비시킨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업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다.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조직화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비

Digitized by Google

록 어느 한 개별적일군들이 관료주의, 주관주의적으로 사업하여도 그것이 여러부문 사업에 혼란을 주고 사회주의경제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이렇듯 관료주의, 주관주의는 혁명과 건설에 막대한 후과를 끼치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기의 숭고한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전과정에서 철저히 반대하여야 할 낡은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창건첫날부터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중요한 투쟁대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반대하여 꾸준한 투쟁을 벌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일군들을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가 기본적으로 없어졌으며 그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일군들의 사업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전당에 수령님식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지배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감으로써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더욱 높이 불러일으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의 안팎의 정세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은 지도일군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구체적인 실정을 알고 그에 맞게 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관료주의, 주관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철저히 극복하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을 벌려나가는 우리 당의 고유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계속 꾸준히 투쟁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은 일군들이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풀어나가는데서 선결적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5페지)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혁명적인 관점과 립장이다.

일군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로 보고 그들을 존엄있게 대하게 되며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또한 인민대중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굳게 가지게 되고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충복이 될수 있다.

만일 일군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대중의 힘과 지혜를 믿지 않게 되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게 되며 인민생활에 무관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사업에서 관료주의를 범하지 않고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사업을 벌려

Digitized by Google

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과 립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민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력량으로 보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리익과 지향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일군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에만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울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으로 일해나갈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주체사상을 언제나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대중지도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집을 하나 짓고 공장을 하나 건설하여도 그것이 당과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지보아야 하며 그것이 인민들의 생활에 더욱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일해나가는것, 이것이 바로 인민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품성이다.

일군들은 대중이 살며 일하고있는 현실에 들어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당이 군중속에 들어가 현실을 알아보고 사물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잘 지도한다면 주관주의와 편향도 범하지 않을것이며 옳지 못한 경향과 타협하는 현상도 없어지고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대로 잘되여나갈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310페지)

일군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는것은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없애고 모든 사업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 주관주의는 중요하게 그들이 현실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사업하는데로부터 나온다. 현실을 알지 못하고 군중과 동떨어지게 되면 자연히 주관주의가 나오게 되고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지 않는것을 내려먹이게 된다.

사업에서 주관주의, 관료주의적 편향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군중속에,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대상은 생산과 건설로 들끓는 공장과 기업소에서 일하는 생산자대중이다. 지도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몇몇 공장기업소일군들이나 만나고 돌아와서는 큰 성과를 거둘수 없다.

현실에 들어가야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달을수 있으며 당정책을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 또한 일군들이 현실에 들어가야 자기 사업의 부족점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수 있고 대중속에서 배울수 있으며 자신을 혁명화할수 있다.

선생은 인민대중이다. 다시말하여 생산과 건설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며 현실속에서 살며 일하는 군중이다.

일군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 항일유격대 지휘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우리 일군들은 배낭을 메고 들끓는 생산현장에 내려가 대중과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살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아래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그에 맞게 일해나가야 하며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사업에서는 투쟁의 기수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되

여야 한다.

투쟁의 기수,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자면 일군들이 남보다 험한 길도 더 걷고 잠도 덜 자야 하며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으로 제기된 혁명과업을 패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언제나 따뜻이 대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들의 요구를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풀어주기 위하여 애쓰는것은 일군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우리 일군들은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제기하는 사소한 문제도 그저 스쳐지나지 말고 심중히 새겨들어야 한다. 또한 대중이 아파하는 문제를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제때에 풀어주며 그들의 오늘의 생활뿐아니라 앞날의 발전에 대해서도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와 독단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약 우리가 일상적실무사업에서나 대중정치사업에서 항상 대중과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면 관료주의의 과오는 범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일부 일군들에게 남아있는 해독스러운 작풍인 관료주의를 퇴치할수 있게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제2판, 530페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모든 사업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광범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해결의 옳은 대책을 세우는 중요한 담보이다.

원래 당위원회는 집체적지도기관이며 당위원회활동의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실하고 해당 기관과 조직들의 구체적실정을 잘 알고있을뿐아니라 광범한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는 핵심당원들로 꾸려져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야 개별적일군들의 주관과 독단에 의하여 사업이 조직되고 처리되는 현상을 막을수 있다. 다시말하여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인 각급 당위원회가 자기 활동의 기본을 집체적지도에 두고 당정책관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위원회 위원들의 광범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지도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할수 있다.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여야 대중속에서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남김없이 조직동원할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에 의해서 사업이 독단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관료주의와 주관주의를 없애고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일군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그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자기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없앨수 없으며 당과 국가와 인민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다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4페지)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도를 따라세우고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원래 대중지도는 세련된 령도예술을 요구하며 그것은 일군들로 하여금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일것을 요구한다.

일군들의 수준이 낮을 때에는 사람과의 사업을 로숙하게 할수 없으며 행동에서 자연히 거칠어지게 된다.

일군들이 수준이 낮고 능력이 부족하

Digitized by Google

면 간판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며 직권을 가지고 내리먹이려고 한다. 일군들속에서 행정식방법,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없애고 사업작풍을 바로잡는 문제는 그들의 수준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 일군들이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소유하여야만 정치적방법으로 일해나갈수 있으며 능숙한 조직적수완을 가지고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자기의 지휘능력이 당의 높은 요구와 빨리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일군들이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경제를 지도할수 없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감당해낼수 없다. 우리 일군들은 공업을 알고 농업을 알아야 하며 경제관리지식에 밝아야 한다. 일군들이 자기 부문에 정통하여야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해결방도를 명백히 찾을수 있고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수 있다. 사업에서 신심이 없이 앞뒤를 재고 오물쪼물하며 일이 안되면 아래사람들에게 호령이나 하고 독촉이나 하는것도 수준이 낮은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우리 일군들은 누구나 다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자기 부문의 지식에 정통하고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가지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실력있고 능력있는 일군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사업에서 로숙하며 생활에서 검박하고 겸손한 일군으로,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나 인민의 충복으로 살며 일해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자랑이다.

모든 일군들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자신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여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창작적개성을 살리는것은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

김 하 명

위대한 주체사상의 휘황한 빛발아래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날로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우리의 주체예술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작품마다 독창적인 주체사상적내용과 특색있는 형상적형식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끝없이 풍만하고 다양하다.

우리의 주체예술이 이렇듯 찬란하고 다채로운 개화발전을 이룩한것은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여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우리 당의 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이다.

1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여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람들의 사상정서적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의 인간학적본성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의 지도적지침이다.

문학예술은 그 본성에 있어서 언제나 독창적으로 다양하게 창작할것을 요구한다.

창작에서의 독창성은 무엇보다먼저 그 묘사대상인 인간과 그들의 생활이 끝없이 다양하고 풍부한데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생활은 새 사회를 더 빨리 건설하려는 근로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락천적인 정열로 들끓고있으며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집단주의적도덕이 구현된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차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224페지)

문학예술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반영하며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자연과 사회의 모든 현상을 현실에 있는 그대로 생동하게 구체적인 형상적형식으로 보여주는 사회적의식의 특수한 형태이다.

인간과 그의 생활이 다양하므로 그것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반영하는 문학예술도 다양하게 되여야 한다.

현실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는 구체적인 존재인것만큼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활자체의 형상적형식으로 반영하는 예술도 응당 작품마다 특색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창작에서의 독창성은 또한 예술적형상이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창조자의 사회미학적리상에 비추어 해석평가되고 재창조된다는 사정으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이다.

모든 문학예술은 창작가가 자기의 세계관과 사회미학적견해에 따라 현실을 관찰하고 인식하며 해석과 평가를 주어 예술적으로 재창조한 결과이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에는 반드시 창작가의 사회미학적리상이 비껴있으며 사상적지향이 깃들어있다.

그런데 생활을 파악하고 예술적으로 재창조하는 작가, 예술인들은 모두 개성을 가지고있는 사회적존재이다. 창작가들은 같은 사상을 신봉하고있는 경우에도 사상의식수준에서나 생활체험과 예술적기호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그들은 생활을 관찰하고 분석평가

Digitized by Google

하며 형상하는데서 자기나름의 고유한 특색을 나타내지 않을수 없게 된다.

우리 문학예술의 유일한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현실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개성화된 표현으로 더욱 생동하게 형상할것을 요구하며 그 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기본묘사대상으로 되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공들, 사회주의사회의 근로인민대중이 폭력과 황금에 의하여 인권이 여지없이 유린되고 개성이 억제당하고있는 착취사회의 근로대중과는 달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개성을 활짝 꽃피우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그것은 또한 문학예술창작의 담당자인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문예정책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최상의 조건에서 자기의 창조적재능과 지혜를 전면적으로 발휘할수 있기때문이다.

주체의 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창작을 독창적으로 하며 형상이 개성적인것으로 될수록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적교양의 기능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여 끝없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생활을 특색이 있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사람들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고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갈수 있도록 독자적인 사고력을 키워주며 창조적인 열정을 안겨줄수 있다. 예술이 독창적이고 개성적특성이 뚜렷하여야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활동능력을 키워주어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줄수 있다.

예술작품에 새로운 내용이 없고 아무런 특색이 없다면 사람들은 흥미를 가지지 않을것이며 그러한 작품은 결국 교양적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될것이다.

창작을 독창적으로 하는것은 이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으로 하여금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높이며 그의 인식교양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2

주체의 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예술적형상이 독창적으로 된다는것은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나서는 새롭고 절실한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여 특색있게 풀어낸다는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상의 창조에서 독창성을 보장하는것은 전적으로 창작가에게 달려있는 문제이다.

아무리 현실이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로 차넘치고있다 하더라도 작가가 생활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그속에서 새롭고 의의있는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독창적인 예술적형상을 창조해낼수 없다.

바로 작가의 창작적개성이 뚜렷할 때에라야 창작에서 독창성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생활을 자주적립장에서 관찰하고 거기서 새것을 파악할줄 알며 자기의 독특한 예술적 재능과 기량을 가지고 그것을 생동한 형상으로 훌륭히 그려낼줄 아는 작가만이 형상의 독창성을 보장할수 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본성에 있어서 개성적이다. 사람마다 얼굴이 서로 다르고 특색이 있는것처럼 성격에 있어서도 그에게만 고유한 특성이 있다.

그러나 예술가의 창작적개성은 사람들에게서 보는 그러한 인간적개성인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에서 독창성으로 나타나는 개성이다.

작가는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 자기의 사상적립장과 태도, 예술적견해와 문화수준,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게 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여 작품에 반영될 때 그것이 곧 그의 창작적개성

Digitized by Google

으로 되는것이다.

작가의 세계관은 그의 창작적개성을 조건짓는 기본요인이다. 작가는 누구나 다 자기의 사상관점에 기초하여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평가하게 된다.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작가일수록 현실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고 깊이있게 파악할수 있고 거기서 새로운 문제점을 더 잘 찾아낼수 있다.

작가의 창조적경험이나 예술적취미와 기호도 또한 예술창작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작가가 풍부한 창조적경험을 가지고있고 혁명적인 미학적견해와 고상한 예술적취미를 가지고있을수록 참으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조할수 있다.

이와 같이 창작적개성은 높은 정치적식견과 풍부한 예술적자질을 갖추고있는 창작가에게서만 볼수 있는것으로서 창작에서 그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예술가의 창작적개성은 부르죠아문예리론에서 떠벌이고있는 《개성의 자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개성의 자유》요, 《창작의 자유》요 하는 부르죠아리론가들의 주장은 창작에서 작가의 세계관과 생활체험이 노는 적극적인 역할과 의의를 부정하며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거부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제국주의의 사상적사환군들이 사회주의예술은 창조자들의 세계관이 같아서 《다양하지 못하다》고 떠벌이고있는것은 순전히 참과 거짓을 뒤집어놓은 허위날조이며 악랄한 비방중상에 지나지 않는다.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당적요구는 작가의 그 어떤 개인적취미를 고취하자는것이 아니며 《창작의 자유》를 허용하자는것도 아니다.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는것과 자유주의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69페지)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반드시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창작되여야 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창작에서 자유주의가 허용되면 온갖 불건전하고 반동적인 잡사상들이 다 스며들어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사상적순결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주체의 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린다는것은 작가가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면서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는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의 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에 철저히 의거할 때에라야 현실생활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할수 있으며 창작에서 남의 본을 따지 않고 형상을 창발적으로 할수 있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새롭게 밝히였으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기때문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옳게 살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여야 한다. 이것은 사실주의예술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은 자주

Digitized by Google

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그리며 혁명가의 정신도덕적풍모를 생동하게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형상할 때에라야 작품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사상정서적교양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야 한다.

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작가자신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면서도 집체성을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집체성은 공산주의적창작원칙의 하나이며 동지적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예술의 독창성을 강화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문제는 집체성에 의거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은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야 주관과 독단에 빠지지 않고 더욱 높이 발양될수 있으며 집체성은 또한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이 높이 발양되는 조건에서만 은을 낼수 있다.

물론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는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창작의 주인인 작가의 책임성과 창발성에 크게 달려있다. 그러나 개인의 힘과 지혜에는 제한이 있으며 한 작가가 현실을 보고 형상하는데서는 일면성을 면하기 어렵다. 동지적협조의 정신에 기초한 집체성은 창작가의 새로운 발견과 창발적발기를 지지하고 조장시키며 나타난 부족점과 결함들을 없애도록 깨우쳐주면서 작품의 예술적완성에로 힘있게 밀어준다. 바로 여기에 집체성이 공산주의적창작원칙의 하나로 되는 근거가 있다.

작가, 예술인들이 이와 같이 당의 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면서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여야 창작사업에서 개성적특성을 옳게 살려 예술적형상이 독창적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다양하고 풍만하게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3

주체의 문예리론은 문학예술창작에서 독창성을 실현하는 기본방도에 대하여서도 심오한 해명을 주고있다.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종자를 바로 골라잡아야 한다. 창작가는 당정책에 맞고 형상으로 구현할수 있을뿐아니라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는것이 필요하다. 생활에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는것은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하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창작가는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아야 작품에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며 깊은 예술적감흥을 자아내는 참신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주제는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만큼 새로운 종자를 잡아쥐지 못하고서는 주제를 새롭게 설정할수도 풀어낼수도 없다.

우리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예술의 창작에서 새롭고 특색있는것에 대한 탐구는 부르죠아예술에서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어떤 《비상》하고 렵기적인것을 추구하는것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 그것은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독특하게 체현하고 있는것을 말한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의 탐구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생활의 진리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혀내기 위하여 필수적요구로 나서게 되는것이다.

창작가의 개성적특성을 살리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골라잡은 종자에 알맞게 형상을 특색있게 창조하는것이다.

참다운 예술작품은 설정이 독창적일뿐아니라 그것을 새롭고 비반복적이며 특색이 있는 형상으로 풀어낼 때 이루어진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의 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형상창조에서의 독창성은 일반화와 개성화의 과정에서 구체화되며 형상수법과 기교에서 특색있게 나타나야 한다.

창작가는 언제나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일반적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하지만 형상 수단과 수법을 쓰는데서는 자유롭게 비반복적으로 살려써야 한다. 그가 아무리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잡아쥐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신한 독창적인 형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사상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살려낼수 없으며 작품의 교양적목적을 실현할수 없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물라잡고 독창적으로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전형화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구호를 라렬할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작품에 표현된 애국심이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와 같은 문헌, 54~55페지)

문학은 인간학인것만큼 작가가 물라잡은 종자는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밝혀지게 되며 그 형상이 뚜렷한 개성으로 생동하게 그려질수록 사람들에게 주는 예술적감흥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인물들의 성격창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종자를 밝히는데서 주역을 맡고있는 주인공의 형상을 개성적으로 생동하게 전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다. 그래야 작품이 생활과 투쟁의 모범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떻게 참답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치는데 더 잘 이바지할수 있다.

작가가 아무리 좋은 종자를 물라잡았다고 하여도 그 종자의 특성에 맞게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인물들의 생동한 성격형상을 통하여 주제사상을 옳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작품은 쓸모없는것으로 되고말것이다.

형상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하기 위하여 또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구성조직에서 류형성을 극복하고 그것을 개성적으로 특색있게 하는것이다.

주체의 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문학예술창작에서 구성을 똑바로 세워야 사상적내용을 깊이있고 명백하게 전개할수 있으며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다.

구성은 작품에 설정되는 인물과 갈등, 사건과 같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종자를 예술적으로 구현하는데로 조화롭게 묶어세우는 기본형식이기때문에 작가는 구성을 바로세우지 않고서는 사상예술적의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가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물라잡은 조건에서는 반드시 종자에 기초하여 생활의 요구에 맞게 구성을 특색이 있게 세워야 한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예술작품에서 내용의 다양성은 구성의 다양성을 조건짓게 된다.

창작가가 종자의 요구와 생활의 론리를 떠나서 이미 알려진 구성형식에 생활을 억지로 들이맞추게 되면 작품은 예술적조화를 깨뜨리게 되고 생동성과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 이러한 작품은 볼 재미도 없게 된다.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탐구된 생활을 표현하는데서도 자기 식의 개성화된 표현을 하는것이 중요하다.

언어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생활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기본수단이다. 작품을 이루는 형상의 모든 요소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언어를 통하여 표현된다. 등장인물들의 개성화된 성격형상도 특색있는 구성조직도 언어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를 나타낼수 없다. 이렇듯 언어

Digitized by Google

는 여러가지 형상요소들에서 지니고있는 모든 특성들을 다 드러내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현수단이며 개성적특성이 가장 뚜렷이 발양되는 분야이다.

우리 말이 가지고있는 풍부한 어휘와 다양한 표현 수단과 수법, 정밀한 문법구조와 다채로운 단어결합 등은 작가들에게 우리 인민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생동하고 섬세하게 표현할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문제는 작가들이 민족의 자랑인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고 깊이 학습하여 이에 정통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과 조건들을 창작실천에서 능란하게 리용하는데 있다.

작가들은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잡아쥐고 주제를 바로세운 조건에서는 탐구해낸 생활을 독창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기발하게 착상하여야 하며 생동한 어휘를 찾아내고 적중한 단어결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종자의 예술적실현에 필요한 모든 형상 수단과 수법들에 정통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살려쓸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있을 때에라야 창작에서 그것들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마음대로 충분히 리용할수 있으며 그 과정에 자기식의 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작가들은 자기의 나쁜 버릇을 창작적개성으로 여기고 창작에서 그것을 살리겠다고 고집해서는 안된다.

작가들은 개성적특성을 살린다고 하여 창작에서 그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류형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남의 본을 따서 이미 만들어진 틀에 맞추어 형상하는것이나 자기 자신의 틀을 만들어 류형에 빠지는것이나 그 본질은 다 도식주의이며 그러한 안일한 창작태도는 불가피하게 생활의 본질을 외곡하는데로 나가게 한다.

작가의 창작적개성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의 아름답고 고상한 미적지향과 일치되는것이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인민들에게 미적공감을 주며 쉽게 접수되는것이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작가들이 형상 수단과 수법들을 력사적으로 물려내려온 민족문화의 보물고에서 찾아내여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며 언어표현도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서 탐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근거가 있다.

우리 당이 강조하고있는바와 같이 창작적개성은 작가, 예술인들의 진지한 탐구와 꾸준한 기량의 련마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부르죠아작가들이 떠벌이는 개성을 위한 개성, 황금과 명예를 위하여 인기를 노리는 이른바 《개성》은 참다운 예술을 낳는 창조적개성과는 조금도 인연이 없다.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양시켜 진실하고 개성적특성이 뚜렷한 예술적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개성에 대한 부르죠아리론의 침습을 철저히 막아내는 것과 함께 안일한 창작태도에서 오는 류사성과 도식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창작에서의 류사성과 도식주의는 창작가들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생활을 도식적으로 대하며 틀에 맞추어 형상하게 함으로써 예술을 망치는 사실주의의 적이다.

* *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은 문학예술을 더욱 독창적으로 다양하게 발전시키며 개성적특성이 뚜렷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더 빨리,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불멸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체험을 더욱 강화하며 집체적 힘과 재능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대안체계와 자재공급사업

김 태 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여 사회주의경제를 가장 옳바르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기업관리형태이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대안의 사업체계는 낡은 자본주의적경제관리방법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열어놓았다.

대안체계가 관철됨으로써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계획화사업과 생산지도, 자재공급과 후방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이 생산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더욱 높아지고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경제가 빨리 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대안체계를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재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자재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는것은 자재가 제때에 보장되지 않고 협동생산규률이 문란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자재를 제때에 대주고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단행본, 15페지)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자재공급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은 대안체계의 요구를 구현하여 크고작은 모든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아래에 현물로 날라다주는 사업을 원만히 실현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자재공급사업을 잘할 때 대안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경제조직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더 잘 풀어나갈수 있다.

원래 자재공급사업은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원료, 자재들을 보장하여주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잘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원료, 자재는 한번의 생산주기에 완전히 소모되고마는 특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끊임없이 준비하여놓지 않으면 생산을 제대로 보장할수 없다. 원료, 자재는 많은 경우 협동생산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게 된다. 현대적이며 대규모적인 사회적생산이 진행되면 될수록 한제품을 생산하는데도 많은 자재들이 쓰이며 여러 생산단위들이 참가하게 된다.

Digitized by Google

그러므로 자재공급사업은 개별적 기업소나 단위의 힘만 가지고서는 원만히 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서만이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경제조직사업으로 된다.

사실상 원료와 자재를 생산의 특성에 맞게 충분히 보장하여주지 않는다면 지도일군들이 아무리 아래에 내려가 기술적지도를 잘하고 근로자들이 열성껏 일하여도 생산을 제대로 진행할수 없다. 원료, 자재를 계획에 예견된대로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원만히 대주어야 있는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만가동할수 있으며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이 생산지도에 힘을 넣어 로동행정사업, 설비관리사업, 기술지도를 잘하고 로동자들이 마음껏 일할수 있다. 그리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의 파동성을 없애고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해나갈수 있다.

원료, 자재를 제때에 원만히 대주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협동생산을 강화하고 모든 부문들을 다같이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복잡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재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면 협동생산을 더욱 조직화하고 계획화할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자재공급은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가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자재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는 자재를 제때에 공급하며 부문과 단위들사이의 경제적련계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있는 새 전망계획은 생산규모와 중요공업제품생산량에서 전례없는 높은 목표를 점령해야 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다.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생겨나 공업내부부문구조와 생산공정들이 더 잘 완비되여가고 전문화와 협동생산이 더욱 강화되여가고있다.

이것은 자재공급업무량을 비상히 늘어나게 할뿐아니라 부문간, 기업소들사이의 밀접하고 복잡한 생산적련계를 맺을수 있도록 그 공급조직을 짜고들어 진행할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한다.

특히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종합적기계화와 과학화가 실현됨에 따라 원료, 자재에 대한 질적요구수준이 더욱 더 높아지게 되고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에 따르는 기자재의 요구수준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된다.

이처럼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늘어나는 자재류통량에 맞게 자재공급사업을 통이 크고 기동적으로 조직하면서도 그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와 경제건설에서 자재공급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자재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자재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주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재공급사업에서 기본은 모든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현물로 생산현장까지 날라다줄데 대한 대안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58페지)

Digitized by Google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현물로 아래에 내려다주는것은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켜 우가 아래를 도와줄데 대한 대안체계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서 자재공급사업의 기본으로 된다.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주는것은 바로 자재보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생산을 책임진 웃단위의 지도일군들이 전적으로 맡아함으로써 생산자들은 온갖 정력을 다하여 생산을 힘있게 내밀수 있게 한다.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주어야만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을 벌릴수 있으며 지도일군들이 생산자들에 대한 복무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이처럼 자재를 우에서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주는것은 자재공급사업의 기본으로서 자재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언제나 원칙적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재를 우가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줄데 대한 자재공급원칙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정연한 자재공급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체계의 중요구성부분으로서의 자재공급체계는 무엇보다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을 높임으로써 자재공급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에 자재를 계획적으로 원만히 공급할수 있게 하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대안의 자재공급체계는 또한 자재공급에서 많은 사회적로동을 절약하고 생산자들이 모든 힘을 생산에 집중할수 있게 하며 자재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있는 설비와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대안의 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현시기 자재공급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자재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재세부계획을 잘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자재공급계약을 옳게 맺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자재공급사업은 기업소들사이에 맞물려놓은 국가적인 세부계획에 의하여 맺어지는 자재상사들사이의 계약에 따라 상품거래형식으로 진행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560~561페지)

자재공급계약은 자재공급의 법적기초이며 그 선결조건이다. 자재공급계약은 세부적인 자재공급계획에 철저히 기초하여 맺어지게 된다.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류통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온 사회적범위에서 계획화되고 조직화된다. 그러므로 자재공급은 높은 계획성과 조직성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자재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자재공급계약을 정확히 맺는것은 이러한 조직성과 계획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기되는 자재공급자체의 필수적요구이다.

자재세부계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재계획을 세우는 단위들사이에 지표분담을 바로하고 상사들이 자재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 계획지표들을 더 구체적으로 맞물리며 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기 위한 집행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작성된 자재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자재상사들사이에 자재를 규격별, 재질별, 기업소별로 계약을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자재공급계약을 잘 맺고 옳게 리행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을 책임일군들이 직접 틀어쥐고 장악총화하며 계약규률을 철저히 세워 계약상 의무를 어김없이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계

Digitized by Google

획과 계약에 따라 자재를 정확히, 책임적으로 내리공급하는것이다.

자재공급 계획과 계약은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모든 자재공급일군들이 법적의무성을 지니고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재공급 계획과 계약을 정확히 지켜야 해당시기 당의 정책적의도와 국가의 요구를 관철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다.

만약 자재공급 계획과 계약을 어기고 자재를 무질서하게 공급한다면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혼란을 가져오며 많은 물자재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자재공급 계획과 계약에 따라 자재를 실질적으로 날라다주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있어야 한다.

자재공급 계획과 계약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의 작성, 자재수요의 장악, 자재확보, 합리적인 자재공급방법의 적용과 자재수송조직 등 자재를 내리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떠나서 자재공급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재공급일군들은 자재공급사업이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천하는 영예로운 사업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재공급조직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자재공급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치렬한 전투장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자재공급조직을 짜고드는 바로 여기에 현시기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여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자재공급일군들은 자재공급조직을 짜고들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를 이루는 중요대상들에 자재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것과 함께 나라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계약된 모든 자재를 어김없이 공급하며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자재를 제때에 종합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책임일군들이 제품판매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생산된 제품을 계약된 단위에 책임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자재상사와 판매상사들이 국가의 법과 규범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도록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정연한 통일적인 자재공급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된 모든 자재들이 계약에 따라 정확히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없애고 당적, 국가적 립장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재공급사업을 통이 크고 패기있게 벌려야 한다.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재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그것을 탐오랑비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통제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탐오랑비할수 있는 자그마한 틈도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535페지)

자재를 계획적으로 아래에 날라다줄뿐아니라 자재를 잘 보관하고 효과있게 쓰도록 자재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늘어나는 자재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자재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면 자재공급에서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자재공급에서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는것은 국영기업소들이 경영상 독자성을 가지고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자재공급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자재공급에서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게 되면 자재값이 언제나 문제로 되기때문에 기업소들은 자재공급계획에

Digitized by Google

예견된 자재라도 망탕 사들이지 않게 되고 설사 기자재공급계획에 필요한 자재가 빠졌다 하더라도 실지 공급과정에서 바로잡을수 있다. 원료,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소들에서는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계약에 예견된대로 생산수단을 팔도록 하며 원료, 자재를 받아쓰는 기업소들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공급받을수 있게 하고 그 소비를 통제함으로써 자재공급계획을 성과적으로 집행할수 있게 한다.

자재공급에서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게 되면 또한 자재를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지게 하며 류통조직을 개선하여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이처럼 자재공급에서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는것은 자재공급계획을 완성하고 그 성과적집행을 담보하며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

자재상사는 자재공급에서 류동자금의 공급, 결제제도, 대부자금의 리용제도 등 경제적공간을 정확히 리용하여 가격이 언제나 문제로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재를 살 돈이 있을 때에만 자재를 팔아주는 제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자재를 공급하는데서 공급계약만 되여있으면 원료, 자재를 받아쓰는 기업소에 돈이 있건없건 관계없이 자재를 주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없애야 한다.

자재공급에서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는것과 함께 자재소비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그것을 끊임없이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자재절약의 커다란 예비는 자재소비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그것을 끊임없이 낮추는데 있다.

우리는 생산자들이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잘 지키도록 함으로써 불합격품과 오작품을 내거나 자재소비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소비기준에 기초하여 자재를 공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여 내용자재를 널리 리용함으로써 자재를 극력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보관관리에서 랑비하는 일이 없도록 강하게 통제하며 공급된 자재는 반드시 지정된 용도에만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공급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며 자재를 기동적으로 조절공급하는것은 자재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새로운 자재공급체계에서 자재공급은 전문적인 자재공급기관인 자재상사와 기업소자재공급단위에 의하여 진행된다.

자재를 우에서 아래로 현물로 날라다주기 위해서는 자재상사를 비롯한 자재공급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자재상사와 판매상사를 잘 정비하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잘 꾸리며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두가 다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판매상사들은 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제때에 종합적으로 장악하고 계약대로 정확히 처리하며 자재상사들은 세부계획에 맞물린 자재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정확히 확보하여야 한다.

계획실행과정에서는 이러저러한 주객관적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예견치 않았던 정황들이 생겨날수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제형편과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자재를 기동적으로 조절공급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과 자재공급일군들은 자재의 류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며 대상과 순차를 옳게 규정하고 제때에 조절공급함으로써 같은 자재를 가지고도 더 긴요하게 써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 묵어있는 자재를 제때에 동원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과 자재공급부문일군들은 자재공급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듦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기술혁명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

김 응 호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기술혁명을 다그쳐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근로자들을 하루빨리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것을 뚜렷이 밝히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기술혁명은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이다.

기술혁명을 다그쳐 인민경제를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고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면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혁명이 단순히 기술을 개조하고 물질적부의 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술실무적인 과업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혁명의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모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 있다.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는것은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이 과업은 기술혁명을 다그쳐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기술혁명을 다그쳐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실현하여야 낡은 사회의 유물인 손로동을 완전히 없애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킬수 있으며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여 근로자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켜 그들의 자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

기술혁명을 다그쳐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신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은 기술자나 전문가가 하고 다른 사람들은 생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입니다. 모든 간부들과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 이악하게 달라붙어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78페지)

기술혁명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본생산공정뿐아니라 보조생산공정까지도 다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 힘든 로동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결코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수행할수 없다. 기술혁명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오직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과 창의창발성을 전면적으로 조직동원하여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자대중은 생산과 기술의 주인이며 기술혁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는 참으로 무궁무진하며 그것은 기술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생산자대중은 자기가 다루는 기계와 설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정통하고있으며 그것을 다루는 과정을 통하여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방도들을

Digitized by Google

수많이 찾아내게 된다. 생산자대중이 가지고있는 풍부한 경험과 그들이 생각해낸 새로운 기술개조안들을 옳게 살려나간다면 보다 다루기 쉽고 성능이 높은 기계설비들을 수많이 창안제작할수 있다. 광범한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시키면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성과들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사업도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조직화하여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기술개조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게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기술혁명은 광범한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며 생산자대중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기술개조를 더욱 다그쳐나가게 된다. 이것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 기술혁명수행의 가장 위력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 기술혁명의 불길을 더욱 높이는것은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전망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기본과업으로 하고있는 기술혁명의 계획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수단들을 개선하며 경제를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기술혁명의 과업이다. 그러므로 기술혁명의 봉화를 높이 들고나가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여기에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조국을 더욱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새 전망계획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을 다그치려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있다. 또한 인민경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풀어야 할 기술적문제들은 같지 않으며 그 수행방도들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조건에서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발동시켜 기술혁신운동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자체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계와 기술을 적극 창안도입할수 있으며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들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있다.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리면 생산공정을 합리화하고 원료, 자재를 더욱 절약적으로 리용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가 더 큰 은을 내게 할수 있으며 큰 민천을 들이지 않고도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기술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도 없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릴 때 기술개조에서 위대한 성과를 거둘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전후의 그 어렵고 곤난했던 시기에 벌써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뜨락또르, 굴착기, 불도젤과 같은 여러가지 현대적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튼튼히 쌓았다. 우리의 로동계

Digitized by Google

급과 근로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나감으로써 남들이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3대가술혁명수행에서도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해나가고있는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기술혁명수행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여러가지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고있다.

우리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기술혁신에 적극 참가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계급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높여야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2페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은 말 그대로 광범한 근로자들이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기술개조를 다그쳐나가는 집단적인 운동이다. 광범한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과 창발성에 의거하고있는 여기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본질적특징이 있으며 그 거대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는 근로자들의 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광범한 근로자들이 기술혁신에서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모두다 기술혁명을 다그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정열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방침을 받들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의 기본열쇠로 된다. 오늘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있는 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연구사 백설희동무와 농업과학원산하 농장지배인 김상련동무, 강계공산대학 강좌장 박영철동무들의 숭고한 모범은 이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는 사업을 널리 벌려 모두가 그들처럼 당의 의도를 끝까지 관철해나가려는 불타는 충성심과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지니고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있어야 없는것은 찾아내고 모자라는것은 만들어내면서 기술개조에서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수 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기술개조사업에서 혁신적인 목표를 제기할수 없으며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때 동요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사소한 조건타발도 모르며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의한 혁명정신과 의지로 기술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며 집체적 힘과 지혜를 높이 발휘하여 새로운 기계와 기술을 적극 창안도입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계화, 자

Digitized by Google

동화를 적극 다그치며 생산과 건설에서 새 기준, 새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잔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기술혁명수행에서 장애로 되는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기술혁명도 하나의 혁명인것만큼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와의 투쟁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없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433페지)

보수주의와 기술신비주의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낡은 사상잔재이며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을 방해하는 주되는 장애물이다. 낡은것을 고집하면서 새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보수주의와 근로자들의 창조적힘을 믿지 않고 특정된 사람들만이 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신비주의를 다같이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기술혁명의 주인이며 담당자인 근로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기술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뒤떨어진것이 방해하여나선다. 혁신 그자체가 벌써 뒤떨어진것과의 투쟁을 동반한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언제나 진취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기술혁신과제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또한 로동자, 농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로동자, 농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리론과 실천, 과학과 경험을 옳게 결합시키고 집체적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생산에 제때에 받아들일수 있게 한다.

로동자, 농민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서 과학지식과 기술을 배우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옳게 살려 새로운 창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은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힘써야 하며 생산자들이 제기하는 새로운 발기들을 기술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박영칠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이 주물소재생산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이룩한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현대과학기술을 배운 일군들이 기술혁명의 기발을 높이 들고 로동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옳게 살리면 기술혁신에서 참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므로 3대혁명소조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모든 생산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이 요구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높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고 기계혁명을 일으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성능이 좋은 갖가지 기계들을 많이 창안제작하여야 하며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새로운 과학기술의 토대우에 빨리 올려세워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기술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조직과 일군들이 조직지도

Digitized by Google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빈틈이 있는것은 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하지 않는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습니다. 조직사업만 잘하면 우리가 당장이라도 많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05페지)

사회주의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며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일하며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드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본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특히 인민경제 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드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지 않고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만 하여서는 과학과 기술을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없으며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에서 광범한 대중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없다.

당조직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기술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면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숨은 혁신자들과 애국자들을 적극 찾아내여 그들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고 잘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큰 과학기술적문제들에만 매달려 한꺼번에 모든것을 풀어나가려는 조급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하며 자그마한 과학기술적문제라도 하나씩하나씩 실속있게 해결하도록 분공을 옳게 조직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주체형의 인테리, 혁명의 전위들인 3대혁명소조원들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들과 합심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전례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기술혁신운동에 대한 지도사업을 잘하려면 당 및 행정경제기관 지도일군들자신이 현대적 과학과 기술의 발전추세를 잘 알아야 한다. 일군들의 과학기술수준이 높아야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푸는데로 광범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과학기술적자질을 높이는것을 중요한 전투적과업으로 내세우고 분초를 아껴가면서 꾸준히 학습하고 허심하게 배워야 한다. 이리하여 모두가 현대과학기술지식에 밝은 유능한 일군이 되여 과학기술발전의 자그마한 싹이라도 제때에 발견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투쟁을 실속있게 지도해나가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3대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근로자들을 하루빨리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기술혁명을 더욱 다그침으로써 어렵고 힘든 로동을 빨리 없애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는것은 경제관리개선의 중요한 요구

김 재 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로동행정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사회주의로동법을 관철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서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경제관리의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분배원칙,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단행본, 17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한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청산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 일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과 건설이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요인도 바로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인민생활이 보다 윤택해지며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휘하여 사회적공동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이렇듯 낡은 착취사회에 비할바없이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는 동시에 낡은 사회의 유물들이 아직 남아있는 과도적특성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국가재산을 자기의 소유처럼 책임적으로 애호관리하는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있지는 못하다. 또한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일하지 않고 남의 덕에 살아가려는 낡은 사상잔재가 완전히 뿌리뽑아지지는 못하고있으며 로동이 생활상 제1차적인 요구로 되지도 못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도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업과 물질적관심성의 원칙을 옳게 결합시켜나가는것이다.

경제관리에서 정치사업과 물질적관심성을 결합시켜나갈데 대한 원칙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관철된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근로자들의 로력적열의를 높이고 생산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원래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는 사회주의사회의 두 측면, 제도상 우월성과 과도적특성을 다같이 반영하고있는 분배방식이다. 로동에 의한 분배는 로동보수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Digitized by Google

보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추동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반양시키기 위한 경제적수단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근로자들의 물질적관심을 자극하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낡은 사상잔재의 발현을 통제한다는 면에서 볼 때에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는 분배방식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분배원칙,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사회주의분배원칙,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실시하는 경제적공간은 생활비, 상금, 장려금이다. 근로자들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을 정확히 지불하여야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할수 있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고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따라 로동보수를 높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옳게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여야 합니다. 로동행정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로동정량을 정기적으로 검열하고 잘못된것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하며 로동정량을 1~2년에 한번씩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로동보수를 높여주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7~18페지)

로동정량은 일정한 단위시간에 수행해야 할 작업기준량이며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로동정량이 바로 정해져야 지출된 로동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로동에 의한 분배를 옳게 실시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정량을 잘 정하는것은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로동정량을 정기적으로 검열하고 잘못된것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정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면서 그에 따라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의 형태로 근로자들의 로동보수도 동시에 높여주어야 하며 로동보수조직에서 균형을 옳게 보장하여나가야 한다.

로동정량을 새로 높이 정하는데 따라 로동보수를 동시에 올려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를 새롭게 밝혀주신 강령적인 지침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로동정량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는것이 일반적으로 강조되여왔으며 생산장성속도가 로동보수의 장성속도보다 앞시야 한다는 원리만 제시되여있었다. 다시말하여 로동정량을 높이는 경우에 로동보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동보수를 언제 어떻게 올리는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것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경험과 현실적요구를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따라 로동자들의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을 동시에 높여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근로자들의 로력적열의를 힘있게 추동하고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동원적인 로동정량을 제기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물질적리해관계를 결합시키는것은 그들의 투쟁의욕과 열의를 높이는 적극적인 방도이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조건에서도 낡은 로동정량을 가지고 투쟁목표를 낮게 설정한다면 그들의 로력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게 된다. 오늘 과학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조건에서 로동정량도 체계적으로 갱신하여 높은 투쟁목표를 제시하여주어야 근로자들을 끊임없는 혁신과 전진에로 추동할수 있다.

그러나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 높은 투쟁목표만 제시해준다고 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일수는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만일 로동정량만 높이고 근로자들의 로동보수를 동시에 높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로동정량이 높아지는것을 좋아하지 않을것이다.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로동보수도 동시에 높여주어야 그들자신이 기술혁신을 하며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동정량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근로자들의 로동보수를 동시에 높여주는것은 그들의 투쟁열의를 높이고 생산발전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동정량을 계속 높이면서 로동보수를 동시에 높여줄데 대한 방침은 또한 국가적리익과 개인적리익을 옳게 결합시키고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을 정확히 실현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정량을 높이고 로동자들이 그것을 수행하면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므로 로동자들의 로동보수를 더 높일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산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부를 늘이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8페지)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은 사회적부를 늘이면서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사회주의경제를 운영하려면 경제관리에서 국가적리익과 개인적리익, 국가수입의 장성과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득의 장성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로동정량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그에 따라 로동보수를 올리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에 맞게 나라의 부를 빨리 늘이면서 인민생활도 보다 높일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따라 로동보수를 올려준다고 하여 국가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다.

로동정량을 높이 정하고 근로자들이 그것을 수행하면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높이 정해진 로동정량을 수행하는 조건에서는 늘어난 국민소득의 일부로 근로자들의 로동보수를 높여주어도 국가수입은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로동정량을 높이면서 로동보수도 올려주는것은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빨리 늘여 국가수입도 늘이고 인민생활도 높일수 있게 하며 축적과 소비를 다같이 늘일수 있게 한다. 만일 로동정량이 높아져도 근로자들에게 차례지는 로동보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로동정량을 높이고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늘이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며 결국 생산도 빨리 발전시키지 못하고 인민생활도 높일수 없게 된다. 로동정량을 높이 정하고 그에 따라 로동보수도 올려주어야 근로자들이 로동정량수행에 관심을 가지게 할수 있으며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도 빨리 높일수 있다.

그리고 로동정량이 높아지는데 따라 로동보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근로자들속에서 개인리기주의사상이 자라나는것도 아니다. 물론 정치사업을 홀시하고 물질적자극 일면만을 내세운다면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리기주의가 자라날수 있다. 그러나 정치사업,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는 그에 맞

게 물질적자극을 한다고 하여도 결코 사람들속에서 리기주의사상이 자라날수 없다.

이 모든것은 로동정량을 높이고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이 늘어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로동보수를 더 높여주는것이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합법칙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앞에 당면하여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1만 5,000원이상으로 높일데 대한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면서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한 국가적인 기준표를 잘 만들고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지도밑에 로동정량제정사업과 로동보수지불사업을 옳게 결합시켜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정량을 바로 정할뿐아니라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행정일군들은 늘 생산현장에 내려가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 같은것도 바로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1～22페지)

근로자들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은 분배의 척도이며 따라서 로동의 량과 질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분배하여줄데 대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로동의 결과를 매일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로동수첩에 기록해주고 대중앞에 공시하며 계획수행정형과 함께 자재절약, 제품의 질제고, 새 기술도입 등 근로자들이 수행한 로동의 량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주는것이다.

로동에 대한 이러한 평가제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을 량적으로 많이 할뿐아니라 질적으로 더 잘하도록 추동한다. 로동에 대한 평가에서 생산계획수행정형뿐아니라 질적지표의 수행정형도 구체적으로 평가하면 근로자들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을 다같이 밝힐수 있다. 이와 같이 로동의 량과 질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때 그것이 생산물분배의 척도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고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할수 있다.

로동의 결과를 매일 평가하여 로동수첩에 기록해주고 로동의 량과 질을 다같이 평가하여주는것은 단순히 분배몫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데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궁지를 가지고 더욱 창발성을 내여 일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특히 로동수첩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얼마나 일을 하였는가를 기록하는 사람의 력사이기때문에 로동의 결과를 매일 로동수첩에 기록해주면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영예감을 깊이 간직하고 맡겨진 일을 더욱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이렇듯 로동에 대한 평가를 잘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고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로동정량제정사업과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을 바로하기 위하여서는 로동행정사업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로동정량제정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 기계설비의 성능과 원자재의 보장정형 등 구체적인 생산조건들을 다 알아야 바로할수 있다. 이러한 생산조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것은 생산자대중이다.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협의하여야 생산실태를 정확히 장악할수 있고 생산장성의 예비도 더 찾아낼수 있으며 그에 맞게 현실적이면서도 동원적인 로동정량을 제정할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도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대로 대중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지금 협동농장들에서 매일 진행하고있는 로력일평가사업은 대중적인 로동평가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로동의 결과를 대중적으로 평가하는것은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의 과학성을 보장할뿐아니라 로력혁신자들을 고무하고 뒤떨어진 사람들을 교양하는 훌륭한 계기로도 된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동정량제정사업과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을 생산자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대중의 로력적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로동법에 의거하여 로동보수지불을 위한 구체적인 규범과 규정을 만들고 제정된 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로동법에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다 밝혀져있지 않은것만큼 로동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내려보내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1페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관리가 정치와 밀착되여 진행되며 전사회적범위에서 조직화되고 규범화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관리가 바로 당의 정치적지도밑에 진행되며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따라 조직진행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이러한 특성에 맞게 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로동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로동보수규정을 만들고 제정된 규정과 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국가의 로동조직원칙과 로동생활에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규제한 주체의 로동법전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려면 사회주의로동법에 기초하여 로동보수지불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과·규범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사회주의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할수 있으며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새로운 과학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오늘 우리 일군들앞에는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로동정량제정사업과 로동에 대한 평가사업을 바로하고 구체적인 로동보수규정도 만들어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로동보수제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편의봉사사업은 인민을 위한 영예로운 혁명사업

한 장 근

사회주의사회에서 편의봉사는 근로자들의 문화후생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며 그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봉사의 중요한 형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편의시설은 상업망과 함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합니다.》(《상업부문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33페지)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소비품이 요구되며 여러가지 형태의 문화후생적인 수요가 제기된다. 근로자들의 소비품에 대한 수요와 문화후생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그들이 먹고 입고 쓰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해야 할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생활상 불편을 느끼지 않게 옷을 짓거나 문화용품과 가정용품들을 수리수선해주는 사업을 적극 따라세워야 한다. 근로자들의 생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문화후생적인 수요는 편의봉사사업에 의하여 해결된다. 이것은 편의봉사사업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그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는 사회적봉사의 중요한 형태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편의봉사사업은 자본주의사회의 봉사업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지주, 자본가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주인행세를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편의봉사시설들이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놈들의 사치와 향락의 수단으로, 돈벌이를 위한 치부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설사 편의봉사시설을 리용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착취만을 당하게 된다. 자본주의봉사업에서의 《친절성》이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많이 긁어내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편의봉사시설들이 인민의 소유로 되여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된다. 사회주의편의봉사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민적인 사업으로 되고있으며 인민들의 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사업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편의봉사사업은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고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적차이를 줄이게 함으로써 문화혁명을 촉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편의봉사사업은 단순히 물건을 수리수선하는데만 그치는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멥시있고 간편하고 보기좋은 옷을 비롯한 여러가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며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근로자답게 옷단장과 몸단장을 할수 있게 해준다. 이리하여 물질문화생활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생활관습과 생활양식을 빨리 없애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주민들과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기본문제의 하나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사상, 기술 분야에서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문화생활령역에서도 온갖 차이를 없애고 농촌주민들의 문화생활수준을 하루빨리 도시주민들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여기에서 농촌문화시설 특히는 편의봉사망들이 큰 역할을 논다. 농촌편의시설은 농촌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문화적으로 조직할수 있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문화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문화혁명을 더욱 촉진시킨다.

편의봉사사업은 또한 녀성들을 가정적부담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양복점, 옷수리소, 빨래집 등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은 근로자들의 가정생활에서 제기되는 잡다한 일들을 사회적범위에서 담당해결함으로써 녀성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그들을 가정적부담에서 빨리 해방시킬수 있게 하여준다. 그리하여 녀성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로동에 더 잘 참가할수 있게 하며 로동과정에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도 다그쳐지게 한다.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면 나라살림살이와 근로자들의 개인생활을 다같이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다.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옷짓는 일, 빨래하는 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편의적수요를 전문적인 편의시설망을 통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들이 다 자체로 해결하게 한다면 막대한 사회적로동과 원료, 자재를 랑비하게 되고 생활상 불편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주민들이 가지고있는 낡은 생활필수품들을 제때에 수리수선해주지 않으면 그것들이 그냥 사장됨으로써 전사회적범위에서 많은 물자의 랑비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편의시설망에서 주민들이 일시 쓰지 못하고있는 생활필수품들을 제때에 수리수선하여 재생리용하게 하는것은 개별적인 근로자들에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많은 리익을 가져다주어 나라살림살이와 근로자들의 개인살림을 더욱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게 한다.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지방예산수입을 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민들에 대한 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문명하고 윤택하게 할뿐아니라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3페지)

사회적봉사의 한 형태인 편의봉사사업은 인민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면서도 지방예산수입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데 보다 많은 자금을 돌릴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계속 높여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편의봉사사업을 통하여 형성된 자금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쓰인다.

이와 같이 편의봉사사업은 인민을 위한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며 문화혁명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보람찬 사업이다.

편의봉사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정치와 경제분야에서는 물론 문화령역에서도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에서 온갖 낡은 생활양식이 없어지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확고히 서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편의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높

어나는 문화후생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적생활문화를 더 잘 세울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가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끊임없이 향상됨에 따라 고급천과 편직물은 물론 텔레비존수상기와 가정용 랭동고를 비롯한 여러가지 고급가구류와 부엌세간들이 주민들에게 더 많이 공급되고있으며 주민들의 개인소비품구성에서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현대적인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옷을 만드는 양복점과 가정용품, 문화용품들을 수리수선하는 편의시설망들을 더욱 늘이고 봉사의 질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편의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편의봉사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실로 편의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절실한 요구이며 근로자들의 문화후생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편의봉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나감으로써 근로자들의 편의적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편의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 부문 근로자들속에서 인민을 위한 참다운 복무자로서의 긍지와 영예감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어떤 부문을 막론하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여야 모든 사업이 다 잘됩니다. 우리 당이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울데 대하여 그처럼 강조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업부문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8페지)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편의봉사일군들은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는 심부름하는것이 가장 천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되였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찬 일로 되고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민의 충복이라는 칭호는 가장 긍지높고 영예로운것이다. 일군들은 편의봉사부문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인민의 충복된 영예와 긍지를 더욱 깊이 간직하고 자기 맡은 사업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옷을 하나 짓는데서도 모든 정성과 재능을 다 바치고 가정용품과 문화용품들을 하나 수리하는데도 인민을 위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있게 하여야 한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편의봉사일군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하고있으며 사람들의 서로 다른 봉사적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다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편의봉사일군들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존경하도록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편의봉사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의 충복된 영예를 더욱 깊이 느끼고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다.

편의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봉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편의봉사망들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수리수선품의 질이 높아야 그것을 오래 쓸수 있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수 있다.

봉사의 질을 높이려면 편의봉사부문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편의봉사부문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은 새로운 편의업종이 많이 생겨나고 경험이 어린 근로자들로 편의봉사일군대렬이 끊임없이 보충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편의봉사부문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은 봉사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편의봉사부문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한 직종에 고착시켜 자기 부문 사업에 숙련하고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편의봉사부문에서는 기능이 높은 사람들에게 기능이 낮은 사람들을 담당시켜 실지 일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르치주고 배우도록 기술전습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또한 기술실무학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수리수선의 질에 대한 자체검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편의봉사부문에서 후비를 잘 양성하는것이 중요하다. 편의봉사일군대렬전반을 튼튼히 꾸리면서 앞으로 봉사사업을 담당하여 수행할수 있는 새로운 후비들을 기술직종에 맞게 배치하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빨리 높여주어야 한다.

편의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편의시설망을 잘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편의시설을 잘 관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당이나 목욕탕을 아무리 많이 지어놓아도 그것을 잘 관리운영하지 않으면 인민들에게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여줄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5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도시와 로동자지구, 두메산골농촌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방에 편의봉사망들이 정연하게 배치되여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그 어디에 가나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상 편의를 훌륭히 보장받고있다.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이미 꾸려진 편의봉사망들을 잘 관리운영하면 지금보다 봉사 능력과 질을 훨씬 더 높일수 있으며 편의봉사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따라세울수 있다.

우리는 편의망들의 사명과 봉사활동의 특성에 맞게 편의시설들을 잘 정리하고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며 그것을 더욱 현대화하여야 한다. 편의봉사부문에서는 현존설비들을 잘 정비보강하고 자체의 힘으로 소형 기계와 설비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며 약한 부문에 살을 붙이고 인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설비들을 점차적으로 하나씩하나씩 현대화해나가야 한다.

편의봉사망을 잘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편의 원자재와 부속품의 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자재와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편의봉사는 그 업종이 다양한것만큼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의 가지수가 많으며 그것은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르다. 만약 필요한 편의 자재와 부속품들중 어느 한가지만 없어도 봉사활동을 정상화할수 없고 봉사의 질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편의자재공급기관들에서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봉사형태에 따르는 여러가지 자재와 부속품들을 아래에 내리공급하는 사업을 더욱 잘하여야 하며 사소한 부속품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편의봉사부문근로자들속에서 유휴자재를 동원리용하여 자체로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을 만들어쓰는 운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누구나 다 일하고 세대마다 현대적인

Digitized by Google

큰 가구류와 필수품들을 많이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봉사일군들이 고정된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그들의 생활상 편의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편의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한 보충봉사들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편의봉사일군들은 이동순회봉사와 주문배달봉사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업을 능동적으로 조직하여 근로자들이 봉사망에까지 가지 않고도 필요한 봉사혜택을 받을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고 사회적로동을 절약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양복점, 옷수리소와 같은 편의봉사망들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조직하여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옷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선하고 옷차림을 문명하게 하는데 최대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입는 문제에 대한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려면 편의봉사망과 편의업종을 더욱 늘여야 한다.

인민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향상되면 그에 따라 편의적수요가 늘어나는것이 합법칙적이다. 더우기 오늘과 같이 현대적인 문화용품과 가구류들이 대량 생산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높아가고있는 조건에서 이미 있는 시설과 업종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편의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다.

편의봉사망과 편의업종을 더 늘이자면 선후차를 옳게 가려 리발소, 빨래집 등 위생봉사망과 여러가지 일용품수리수선망을 비롯한 대중적수요가 높고 인민생활에서 보다 긴요한것부터 먼저 늘여야 하며 인민들이 자기의 기호에 맞게 여러가지 옷을 만들어입을수 있게 도시와 농촌의 이르는곳마다에 양복점들을 더 많이 차려놓아야 한다.

편의시설과 업종을 늘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지방마다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시설과 업종을 꾸리는것이다. 일군들은 국가에서 꾸려주기만 바라지 말고 지혜를 모으고 예비를 찾아내여 자기의 힘으로 부족한 시설과 업종들을 더 많이 늘여나가야 한다.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편의봉사사업에 대한 지방정권기관들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들은 해당지방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있는 호주이며 따라서 인민들의 살림살이와 관련되여있는 편의봉사부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지방정권기관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되고있다. 편의봉사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지방정권기관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지방정권기관들은 편의봉사사업전반을 틀어쥐고 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정권기관책임일군들은 자기 지방의 편의봉사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봉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하며 아래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힘껏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편의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나감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문화후생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남조선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썩고 병든 사회

손 진 팔

남조선사회는 빈부의 차이가 가장 심한 극도로 썩고 병든 사회이다. 남조선의 거리와 상점들을 얼핏 보기에는 마치 호화로운것 같지만 사회는 안으로부터 썩고 병들어가고있다.

남조선사회에서 모든 화려한것들은 다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을 위하여 존재하는것이며 결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것은 아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얼마 안되는 지주, 자본가놈들은 잘먹고 잘살지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은 판자집과 오막살이에서 숨막히는 생활을 하고있으며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일자리와 먹을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제2판, 173페지)

남조선에서는 권세와 재부를 거머쥔 극소수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놈들은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호화롭게 살아가지만 놈들에게 가혹하게 착취당하고있는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은 초보적인 인권도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남조선사회는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은 날이 갈수록 부유해지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은 더욱더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썩고 병든 사회이다.

남조선에서는 사회의 재부가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손아귀에 집중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인구의 0.3%밖에 안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이 국민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반면에 인구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광범한 근로대중은 국민소득의 약 15%밖에 차지하지 못하고있다.

특히 남조선에서는 막대한 재부가 얼마 안되는 괴뢰통치배들과 매판자본가놈들의 손아귀에 장악되여있다. 이미 1970년대초에 남조선의 괴뢰우두머리들이 부정축재한 돈은 당시 남조선 《은행》통화발행고의 50%를 넘어섰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매판자본가놈들이 남조선재부의 거의 전부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재부가 일부 착취계급들에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편중되여있는가를 보여주는것으로서 국민소득의 절대적인 부분을 한줌도 못되는 극소수의 특권층이 차지하고 놈들이 절대다수 근로대중을 빈궁에 몰아넣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남조선사회는 실로 극소수의 특권계층에게는 《천당》으로 되지만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는 지옥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근로인민의 피땀을 짜내여 긁어모은 막대한 돈으로 특권을 부리면서 부화방탕한 생활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놈들은 인민들을 착취하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 술한 돈을 부정축재하여 일신의 향락과 부귀영화를 누리고있다.

남조선에서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들의 호화롭고 부화방탕한 생활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에서 수많은 근로대중이 쓰고 살 집이 없어 고통을 겪고있는데 부자놈들은 상상할수 없는 으리으리한 집에서

Digitized by Google

향락을 누리고있다. 서울의 동빙고동을 비롯하여 성북동, 연희동, 삼척동 등지에 있는 《오적촌》에서 사는 특권족속들은 한채에 몇억원짜리 《호화주택》을 지어놓고 거드름을 피우고있다. 그들의 《호화주택》 한채는 보통사람들의 살림집 100채나 들어앉을수 있는 방대한 부지를 차지하고있으며 그 정원에는 수천만원을 들여 나무와 잔디를 외국에서 사다가 심어놓았다. 지어 거기에는 막대한 돈을 먹여 석탑을 세우고 뽀트장까지 갖추어놓았다고 한다.

극소수 특권층들은 제놈들이 죽어서 들어갈 가무덤을 꾸리는데도 수억원의 돈을 탕진하고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매판자본가놈이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에 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무덤은 바로 그 실례의 하나로 된다. 옛날 봉건왕조의 왕릉을 무색케 하는 이 무덤은 봉분의 둘레만도 70메터에 달하며 1천여메터의 구릉우에는 외국에서 사들인 잔디를 깔았는가 하면 봉분앞뒤에는 800평의 련못과 별장, 꽃사슴목장까지 꾸며놓았으며 값비싼 수백그루의 나무들을 장식용으로 심어놓았다. 사람들의 보통상식으로써는 상상도 할수 없는 특권계층의 《호화무덤》들이 남조선에는 무려 100여개나 된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특권계층들이 돈을 쓸데가 없어 별의별짓을 다하고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이 쓰고살 집 한채가 없어 한지에서 떨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의 살림집부족률은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전체 세대수의 30%이상이 집없는 설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큰 도시들에서의 살림집부족률은 50%이상에 달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1천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판자집, 천막집, 움막집에서 살고있거나 그것도 없어 다리밑이나 하수도구멍지어 남의 집 변소우에 거처를 정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있다.

돈과 권세를 독점한 남조선의 특권층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은 더욱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수많은 인민대중이 굶주림속에서 허덕이고있는데 반동통치배들과 매판자본가들은 인민들로부터 빨아들인 돈을 가지고 비밀료정을 싸다니면서 하루밤에도 몇백만원씩 처먹으며 추잡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고있다. 놈들이 하루밤에 탕진하는 돈은 실로 남조선로동자 한사람 한달 임금의 몇십배나 넘는것으로 된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매일밤 탕진하는 그 많은 돈은 다 인민들로부터 짜내고 긁어모은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피와 땀 지어 생명까지 바치면서 벌어들인 돈을 몇몇 특권층놈들은 아와 같이 아무 꺼리낌없이 마구 탕진해버리고있는것이 남조선사회의 더러운 현실이다.

돈있고 권세있는놈들은 저들이 기르는 짐승을 사람보다 더 귀중히 여기면서 그것들을 치장하는데 숱한 돈을 쏟아붓고있다. 서울시 관악구 흑성동에 사는 한 매판자본가놈은 정원에 30평이 넘는 개집을 짓고 그안에 난방시설은 물론 희한한 무리등을 달고 개에게 소고기와 우유 등 하루에 5천원어치씩이나 먹이면서 개에게 값진 금붙이로 치장해주고있으며 개잠자리에는 비단과 양털담요까지 깔아주고있다.

놈들이 이러한 저속한 취미를 저들의 돈과 권세를 자랑하는 하나의 행세거리로 여기고있으니 남조선사회야말로 얼마나 썩고 병든 사회인가.

돈과 권력을 틀어쥔 특권계층들은 나라와 인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의 사치와 향락만을 일삼으면서 부화방탕한 생활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 특권계층놈들의 이러한 부화방탕한 생활과는 반대로 광범한 근로대중은 일자리가 없고 먹을것이 없어 혹심한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면서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류랑걸식하고있다. 놈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는 800여만명의 실업자와 반실업자, 200여만명에 달하는 리농민들, 수십, 수백만에 달하는 몰락녀성들과 걸식아동들이 온 남조선천지

Digitized by Google

에 방황하고있으며 그 수는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남조선에서 직업을 가지고있다고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그들은 하루에 12～18시간이상의 혹독한 식민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최저생계비의 4분의 1～5분의 1도 못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있으며 그것마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기업의 파산과 몰락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자리에서 쫓겨나 실업자로 굴러떨어지고마는것이다.

응당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할 광범한 근로대중이 특권계층들의 개만도 못한 처지에서 살고있는 저주로운 세상, 이것이 바로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불행한 운명이며 남조선사회의 참혹한 현실이다.

돈많고 권세있는놈의 자식들은 외국으로 류학을 가고 최신형 고급차를 몰고 다니며 백화점이요, 비밀료정이요 하고 싸다닐 때 광범한 근로대중의 자식들은 학교는 고사하고 당장 먹을것이 없어 깡통을 차고 거리를 헤매이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에는 한창 배워야 할 300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있으며 설사 학교에 다닌다고 하는 청소년들도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학비》에 눌리여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돈이 없는탓으로 하여 남조선의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은 병에 걸려도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고있다. 남조선에서 병원에 한번 입원하자면 로동자들의 한달임금의 6～7배나 되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은 각종 질병에 걸려 신음하고있으면서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병마의 희생물로 값없이 죽어가고있다.

환자가 치료비를 다 물지 못했다고 하여 꽂았던 주사기를 빼고 내쫓으며 입원비를 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시체마저 돌려주지 않는 사회가 바로 남조선사회이다.

이와 같이 오늘 남조선에서는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며 돈이 없으면 굶주리고 죽어야 하는것이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살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모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절망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향땅을 등지고 수륙만리 대륙과 대양을 건너 낯설은 이국땅에 노예로 팔려가고있다. 외국의 한 기자가 남조선을 《산송장의 나라》라고 개탄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사회야말로 잘사는놈과 못사는 사람사이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심하며 돈과 권세를 쥔 극소수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놈들은 더욱더 잘 먹고 잘사는 반면에 근로하는 절대다수 인민들은 날로 헐벗고 굶주리는 반인민적이며 썩고 병든 사회인것이다.

남조선에서 이와 같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반인민적인 남조선사회제도자체의 필연적산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몇몇 부자들만 점점 더 잘살고 절대다수 인민들은 더욱더 가난한 처지에 빠져들어가고있는것은 그 사회가 지주, 자본가들을 위한 사회이기때문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73～174페지)

《부익부, 빈익빈》은 어느 사회제도에나 다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초하고있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는 착취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가진자는 사회의 생산과 분배 등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진행하며 그것을 고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치적권력까지 틀어쥐게 된다. 그리하여 생산수단을 가진 소수의 특권계층은 착취계급으로 되고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은 피착취계급으로 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사회의 지배

Digitized by Google

적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빈부의 차이를 낳게 되는것이다.

남조선사회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도 바로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들이 권력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그것을 저들의 더러운 야욕을 채우는데 리용하고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남조선사회는 소수의 특권계급에게 권력과 생산수단이 집중되여 날로 비대해지며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아무런 권리도 없이 뜯기우고 빼앗겨 헐벗고 굶주려야 하는 더러운 사회이다.

특히 남조선사회가 그 어느 착취사회보다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극심한것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으로 말미암아 착취관계가 2중3중으로 얽혀있는것과 관련된다.

남조선사회는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이다. 이로부터 남조선사회에는 식민지적착취관계와 봉건적착취관계, 자본주의적착취관계가 다같이 존재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최대의 착취자이다.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는 미제국주의자들이며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경제생활전반을 좌지우지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남조선에서 끊임없는 식민지적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고있는 미국독점자본가놈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를 틀어쥐고 지배하면서 최대한의 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또한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이 미제에 못지않게 큰 착취자로 되고있다. 놈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경제협력》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침투하여 남조선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의 파쑈세력과의 유착을 강화하고 수많은 부정부패를 일삼고있으며 남조선의 값싼 로동력을 노리고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진출하여 착취를 감행하는 흡혈귀들이다.

남조선에서는 외래독점자본가놈들의 비호를 받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에 의하여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혹독하게 착취당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서 외래독점자본의 식민지적 착취와 략탈의 길잡이이며 제놈들자신의 리윤추구를 위하여 미쳐날뛰는 악독한 착취자들이다. 이 앞잡이놈들은 개인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이야 죽든말든 상관하지 않으며 제놈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것도 서슴지않는 매국노들이다.

남조선의 매판자본가들과 악질기업주놈들은 미국이나 일본 등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높은 기계기술에 토대하여 적용되고있는 20세기의 새로운 《고한제도》(로동자들의 피땀을 마지막 한방울까지 짜내는 반동적로동조직의 한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여 로동자들을 악착하게 착취하고있다.

남조선에서 강요되고있는 《예정시간표준제도》니, 《인간관계제도》니, 《다계단식직계급별 임금제》니 하는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남조선의 임금제도 하나만을 놓고보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에게 시간연장과 과중한 작업량을 내리먹이고 로동강도를 한없이 높이게 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있다.

임금을 받고 자기의 로동력을 파는것밖에 살아갈길이 없는 남조선로동자들은 결국 자본가놈들의 강요에 못이겨 자기 피의 마지막 한방울까지 빨리우고있다.

남조선의 악랄한 임금제도를 통하여 외래독점자본가놈들과 매판자본가놈들의 리윤은 엄청나게 불어나고있으나 반면에 로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것이다.

남조선에서는 또한 봉건적소작제도를 비롯하여 《고지》와 《장리쌀》이 그대로 존속되고있을뿐아니라 광산들에서는 《덕대》니, 《모작》이니 하는 중세기적, 전근대적착취방법이 그대로 적용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생산과정뿐아니라 재분배과정이 또한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으리만큼 악랄한 착취과정으로 진

Digitized by Google

행되고있다.

미일독점자본가놈들은 남조선시장을 독점하고 제놈들의 상품을 독점가격으로 팔아먹는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의 수입품은 언제나 국제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들어오게 된다. 게다가 남조선매판자본가놈들은 제놈들의 리윤을 덧붙여 팔아먹을뿐아니라 모략적방법으로 물가를 조작하여 폭리행위까지 하기때문에 남조선의 근로자들은 엄청난 추가적착취를 당하게 된다.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놈들은 제놈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괴뢰정부를 통하여 걷어들이는 조세와 채권발행, 강제저축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수탈을 류례없이 강화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괴뢰정부의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근로자들에게 넘겨씌우고있다. 이밖에도 《공공료금》을 올리고 화폐를 람발하여 인플레를 조성함으로써 근로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있는것도 남조선처럼 악랄한데가 없다.

남조선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극심한것은 또한 극악한 파쑈폭압기구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착취제도와 착취행위를 비호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남조선에서 파쑈독재기구들은 미제의 앞잡이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로 꾸려져있으며 놈들의 최대한의 리윤을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외래독점자본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공장을 세우게 하고 거기에 남조선의 값싼 로동력을 팔아먹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외래독점자본을 한푼이라도 더 끌어들이고 남조선로동자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팔아먹기 위하여 외래독점재벌들의 요구를 서슴없이 들어줄뿐아니라 놈들에게 특혜와 특전을 제공함으로써 남조선로동자들의 피를 짜내고 희생을 강요하고있다.

괴뢰정부와 남조선《중앙정보부》를 비롯하여 괴뢰군대와 경찰, 재판소와 감옥 그리고 놈들이 만들어낸 모든《법령》들은 철두철미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가놈들과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놈들의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폭력으로 보호하며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근로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이처럼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악착스럽기 그지없는 온갖 악랄한 수단과 방법으로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을 짜내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사회제도는 필연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낳게 하는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남조선사회제도자체에 근원을 두고있는것만큼 반동적인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것이 결코 없어질수 없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유신업적》에 대하여 떠들면서 그 무슨 경제《성장》과 《안정》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선전하고 있으나 그것으로써 인민대중을 기만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에서 극소수의 특권층놈들은 권력과 재부의 힘을 믿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활개치고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소수특권층만이 향락을 누리는 불합리하고 썩어빠진 사회제도를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날이 갈수록 인민들의 분노와 불만은 더욱 증대될것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괴뢰도당의 파쑈폭압통치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썩고 병든 사회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참다운 삶과 새생활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반영한 정당한 투쟁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근로인민대중에게 고역과 빈궁, 병마와 죽음만을 강요하는 반동적인 사회제도를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이 행복하게 사는 새 사회, 새 제도를 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그래야 근로인민대중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참말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은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불멸의 기치

박 인 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를 안겨준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혁명리론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졌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 기간에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이 명백히 제시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의 근본요구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투쟁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서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여 위대한 열매를 맺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와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사변들은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과 거대한 견인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여나가는 우리 시대 진보적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의 지침이며 그들을 승리에로 고무하는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주체사상은 그 위대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 널리 파급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25페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대륙의 수억만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류사상발전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사상》, 《인류해방의 길을 밝힌 가장 완성된 혁명적학설》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주체사상을 믿고 따르고있으며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아프리카의 한 혁명투사는 《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요구하는 인류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지도사상》이라고 격조높이 말하였으며 외국의 한 벗은 《오늘 제3세계에서는 그 어떤 권위있는 다른 사상보다도 주체사상이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은 그 누구도 받아들일수 있는 참으로 위대한 사상이다.》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일본의 한 사회과학자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자주성의 시대인 현시대에 있어서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인민들의 투쟁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은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가야만 확고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고 힘주어말하였다.

외국의 벗들이 한결같이 말하고있는것처럼 오늘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것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널리 조직전개하고있다.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세계인민들의 지향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은 많은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보급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살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해마다 수십개의 민족어로 번역출판되고있다.

세계 진보적출판계의 일군들은 《김일성주석님의 귀중한 로작들을 출판하는 사업이야말로 우리들이 해야 할 첫째가는 임무》이라고 하면서 《김일성동지로작출판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번역출판위원회》를 조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대대적으로 번역출판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한 나라 출판사의 사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출판보급하는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라고 하면서 자기는 주체사상의 신봉자로 살아나갈 굳은 결의밑에 출판활동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고 말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출판사와 신문사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광범히 소개선전하고있으며 그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김일성저작선집》과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단행본은 50여개 나라에서 각국민족어로 2천만부이상이나 번역출판되였으며 세계 백수십개 나라의 천여종에 달하는 신문잡지들에 게재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무려 수십억부를 헤아리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혁명의 참다운 진리를 깨우쳐줌으로써 주체사상이 그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혁명의 량식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혁명적인민들의 열망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들에는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수많이 조직되고 그 대렬이 급속히 확대발전하고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에는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많이 무어지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여러 대륙의 이르는곳마다에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위원회》,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학회》,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등 여러가지 명칭을 가진 조직들이 사업하고있다.

여기에는 정계와 언론계의 이름있는 인사들, 박사, 교수들과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이 광범히 망라되여있다.

지금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은 여러가지 방법과 형식으로 주체사상을 연구체득하기 위한 사업을 자기 조직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있다.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모여서 토론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준비된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에 대한 연구보고를 제기하거나 연구론문을 발표하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학습토론을 진행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키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연구단체들은 또한 주체사상을 학습하기 위한 강연과 강습을 정규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중앙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주체사상을 해설한 제강을 만들어 중앙위원들을 준비시킨 다음 그들을 여러 기관들에 내려보내여 출연시키는 체계를 세우고 강연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있다. 일본에 있는 《자주의 회》에서는 자체로 강습소를 짓고 주체사상에 대한 집중강습을 조직하고있다.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의 대렬이 빨리 늘어나고 그들의 활동이 적극화되고있을뿐아니라 그 조직화수준이 높아가고 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 여러가지 조직들이 많이 나오고 대륙적범위에서 주체사상연구소가 무어지고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에는 일본 도꾜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되였다.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사업은 오늘 이렇듯 한 나라나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규모에서 조직화되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것은 주체사상에 관한 국가적 및 국제적 토론회들이 넓은 범위에서 진행되고있는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여러 나라들에 있는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주체사상연구토론회들을 자주 조직하고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련락회의》와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의 공동주최로 1972년부터 1978년까지의 기간에 11차에 걸쳐 주체사상과학토론회전국집회를 가지였다.

주체사상연구를 위한 토론회는 오늘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대륙적인 혹은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발전되고있다.

1971년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서 국제적규모의 첫 연구토론회로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주체사상토론회》가 있은후 대륙적 및 세계적 범위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토론회가 련이어 진행되고있다.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토론회》, 《중근동및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등 대륙적인 큰 규모의 토론회들이 진행된데 이어 1976년에는 말가슈에서 세계적규모의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진행되였으며 1977년에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의 절절한 소망과 념원을 반영하여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1978년에는 일본, 인도, 시에라레온, 가이아나, 방글라데슈, 핀란드 등 많은 나라들에서 그 나라 정부와 사회계, 언론계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토론회에는 날을 따라 더 많은 나라들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앞을 다투어 참가하고있다. 올해 4월 인도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는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인도에서 있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는 세계의 70여개 나라와 4개의 국제기구에서 온 85개의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인도의 각계각층 인사들 1,200여명이 방청으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성대한 국제적모임이였다. 그러기에 이 나라의 한 정객은 이 토론회를 《유엔총회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였던것이다. 인도에서 열렸던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는 각이한 나라에서 각이한 정치적식견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한결같은 지향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앉았던것이다.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연구토론회가 국제적규모로 또는 나라별로 활발히 벌어짐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세계의 더욱더 많은 인민들속에 급속히 보급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이 오늘

Digitized by Google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주체사상을 따르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세계 수억만 인민들에게 백전백승하는 위력한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고 그들을 승리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투쟁의 진리와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을 《인류최대의 사상리론가》로, 《현시대에 오직 한분밖에 안계시는 혁명의 영재》로, 《세계혁명의 공인된 위대한 수령》으로 끝없이 흠모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높은 권위와 위신 그리고 주체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의 이목은 더욱더 우리 나라에로 쏠리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단 한번만이라도 만나뵈옵고 주체사상이 현실로 활짝 꽃피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보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나라를 찾아오고있다.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고 조선혁명과 인류해방위업에 찬연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세계인민들속에서 높은 신뢰와 권위를 지니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이며 자랑이며 행복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시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1979년 제12호(루계452호)

편 집 위 원 회

편 곳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9년 12월 1일 발 행 • 1979년 12월 5일

ㄱ—95294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1979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편 집 국 론 설

혁 명 전 통 론 설

당 건 설 론 설

Digitized by Google

정치사상론설

Digitized by Google

경제건설론설

남조선 및 국제 론설

Digitized by Google